

국립국어원 2011-01-28

발간 등록 번호
----------

11-1371028-000350-01
----------------------

##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남영신



국립국어원 2011-01-28

발간 등록 번호
----------

11-1371028-000350-01
----------------------

##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 남영신

2011. 11. 16.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연구 책임자 : 남영신(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연구 기관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연구 책임자 남영신

공동 연구원 장소원, 손범규, 김소원

보조 연구원 한정희, 구혜영, 장경자, 김혜영,

김주상, 이수연, 성은실

[국문 초록]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2011년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 일간신문 6개, 지방 일간신문 6개, 특수 신문 3개(경제 신문, 스포츠 신문, 인터넷 신문)의 기사와 지상파 3개 방송(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신문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보도 기사, 사실, 칼럼, 해설 기사, 정보 기사 등을 합하여 총 358개 기사, 54만 4822글자를 조사한 결과 6573개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기사당 평균 18.4개의 문제점을 찾은 셈이다.

이를 중앙 일간지와 지방 일간지의 경우로 구별하여 보면 중앙 일간지는 기사당 평균 18.87개, 지방 일간지는 기사당 평균 16.71개의 문제가 있었다. 신문의 언어 사용에 많은 개선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신문 언어 조사 결과는 이 보고서의 제2장에 실어 놓았다. 신문 언어 조사는 크게 아래 네 요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번호	조사 요소	설명
1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가?
2	어휘	어휘 사용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3	문법	문법을 제대로 지켰는가?
4	공공성	폭력적, 차별적, 선정적이어서 공익을 해치지 않았나?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저품격 언어를 조사하였는데 저품격 언어는 주로 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 프로그램과 청소년 대상의 라디오 방송에서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문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다달이 보고하였다.

지상파 3개 텔레비전의 22개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590개의 문제점이 나타난 프로그램당 문제점이 평균 26.81개에 달했고, 라디오 프로그램은 7개를 조사한 결과 97개의 문제점이 보여 프로그램당 평균 13.86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저품격 언어가 매우 자주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방송의 저품격 언어 조사 결과는 제3장에 실어 놓았다. 방송 언어 조사는 크게 아래 세 요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번호	조사 요소	설명
1	저품격 표현	비하, 폭력, 차별적 언어, 비속어, 은어, 반말 사용
2	비표준어	비표준어, 비표준 발음 사용
3	부적합 표현	문법, 높임법에 어긋난 표현, 호응과 일치가 안 된 표현

결과적으로 신문과 방송 모두에서 언어 사용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문과 방송의 언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매체의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신문, 방송, 신문 언어, 방송 언어, 공공언어, 어문 규정, 띄어쓰기, 철자법, 문장 부호, 어휘, 문법, 호응, 일치, 태도, 저품격 언어, 부적절한 표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Abstract]

### Survey on Language Use in Newspapers and Television

In order to conduct a research on language use in newspapers and television during 2011, we surveyed the articles of six major daily newspapers, six local daily newspapers, three specialized newspapers(financial newspapers, sports newspapers and online newspapers) and the television programs of three major broadcasting networks(Korean Broadcasting System,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Seoul Broadcasting System).

We have surveyed a total of 358 articles, including news reports, editorials, columns, commentaries and informatory articles, in order to survey the current language use in newspapers. Out of the 544822 letters that we have surveyed, we found 6573 misusages, which means that there was an average of 18.4 misusages per article.

In case of the major daily newspapers, there was an average of 18.87 mistakes per article, and in case of the local daily newspapers, there was an average of 16.71 mistakes per article. Such figures show that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language use in newspapers.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the current language use in newspapers are given in chapter 2 of this paper. The survey on language use in newspapers was conducted under the following criteria:

No.	Area of Research	Criteria
1	language standard	Does it conform to the required language standards?

2	diction	Does it use appropriate diction?
3	grammar	Does it use correct grammar?
4	publicness	Does it include violent, discriminatory or overly sexual expressions?

The survey on current language use in television focused on the use of crude and vulgar language. Crude language was used mostly in television dramas, entertainment programs, sports programs and radio programs for the teenage audience. Therefore, we surveyed these programs and reported the results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every month.

We surveyed 22 programs aired by 3 major broadcasting networks and found 590 misusages, which means there was an average of 26.81 misusages per program. In case of radio programs, we surveyed 7 programs and found 97 misusages, which means there was an average of 13.86 misusages per program.

Such results show that crude and vulgar language was frequently used in television dramas, entertainment programs and sports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on crude language use in television programs are dealt with in chapter 3. The survey on current language use in television was conducted mainly under the following criteria:

No.	Area of Research	Criteria
1	crude language	the use of disparaging, violent, discriminatory and vulgar language, the use of slang and the non-use of honorifics
2	non-standard language	the use of non-standard diction and non-standard pronunciation
3	unsuitable expressions	the use of non-grammatical expressions, erroneous use of honorifics, expressions that do not follow the rules of sentence agreement

As a result of our survey, we were able to find many problems in all areas of language use in newspapers and television. We expect adequate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improve the misuse of language in newspapers and television.

## 차례

###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취지	1
2. 조사 방향	1
3. 조사 방법	1
4. 조사 추진 개요	2

### 제2장 신문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 조사 대상 신문	3
2. 조사 틀	4
(1) 어문 규정	4
(2) 어휘	10
(3) 문법	15
(4) 공공성	22
3. 조사 결과 점수화 방법	26
4. 조사 총량	27
5. 평가	36
6. 결과 활용 방안	50
7. 조사의 한계 및 문제점	52
8. 제언	54
9. 자문위원 의견	58

10. 신문사의 스타일북 검토 .....	75
11. 신문 언어 개선 방향 .....	79
12. 맺음말 .....	84
<붙임1> 조사 대상 신문별, 기사별 목록 .....	87
<붙임2> 항목별 해당 사례 모음	
(1) 어문 규정 .....	95
(2) 어휘 .....	137
(3) 문법 .....	172
(4) 공공성 .....	277

### 제3장 방송 언어 사용 실태 조사

1. 개요 .....	286
2. 월별 실태 조사	
(1) 4월: 지상파 일일 드라마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	289
(2) 5월: 지상파 주말 드라마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	309
(3) 6월: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	320
(4) 7월: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 .....	343
(5) 8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	365
(6) 9월: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	395

## 제1장 조사 개요

### 1. 조사 취지

신문과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의 언어 환경과 국민의 언어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신문과 방송 언어는 국민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무질서하고 품위를 잃은 상태이다.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성을 갖추어야 할 신문과 방송이 일반인의 언어를 오히려 무질서하고 저급하게 만들 정도로 혼란스러워서는 안 될 것이다. 신문과 방송 언어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수없이 제기된 것이지만 아직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된 자료가 많지 않아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좋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신문과 방송의 언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누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등 신문과 방송 언어를 바르고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단기간에 완벽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도 없겠지만 이 조사를 계기로 하여 신문과 방송 언어의 조사 기법, 조사 틀, 조사 자료 활용 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게 하고자 한다.

### 2. 조사 방향

이 사업의 일차적인 목적은 신문과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책으로서 국가가 해야 할 부분과 언론사가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신문과 방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어문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현실을 인정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3. 조사 방법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주어진 신문 기사, 방송 기사를 하나하나 읽고, 들으면서 일일이 조사 틀에 맞추어 문제점을 찾아 넣는 방식을 택한다. 물론 시간과 인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신문 기사를 다 읽을 수 없고, 모든 방송을 다 들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 조사 방법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본 기사를 추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사는 무작위로 조사하고, 방송은 저품격 언어가 주로 많이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 틀을 만들어 사용하지만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물론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만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언어에 관한 어떤 것도 완전히 객관적인 조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어 실태를 조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틀을 사용하면서 조사자가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조사 결과를 함께 점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4. 조사 추진 개요

- ① 조사 기간: 2011. 3. 16. ~ 2011. 11. 16.(8달)
- ② 조사 기관: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 ③ 책임 연구원: 남영신(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대표)
- ④ 공동 연구원: 장소원(서울대 교수), 손범규(SBS 아나운서), 김소원(SBS 아나운서)
- ⑤ 연구 보조원: 한정희, 구혜영, 장경자, 김혜영, 김주상, 이수연, 성은실
- ⑥ 주요 내용
  - ㉠ 신문 부문 조사
    - \* 조사 대상 일간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이상 중앙 일간지), 강원일보, 경북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부산일보, 제주일보(이상 지방 일간지), 매일경제신문, 일간스포츠, 스포츠한국(이상 특수 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이상 인터넷 신문) 모두 15 신문
    - \* 조사 기사: 보도 기사, 주장 기사(사설과 칼럼), 해설 및 정보 제공 기사
    - \* 조사 항목: 어문 규범 준수, 어휘 사용, 문법 준수, 공공성 준수
  - ㉡ 방송 부문
    - \* 방송사: 한국방송, 문화방송, SBS 방송.
    - \* 프로그램: 일일 드라마, 연예오락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
    - \* 조사 항목: 어휘(불필요한 외국어, 비속어, 은어, 전문용어, 비표준어)  
의미 및 화용(반말 표현, 잘못된 존대법,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자막 표기(표기법에 어긋난 자막, 로마자 및 한자 표기 자막)
  - ㉢ 학술 대회
    - \* 주제: 방송언어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연구
    - \* 일시: 2011년 10월 12일
    - \* 장소: SBS 강당
    - \* 발표자: 황용주(국어정책과 방송언어의 공공성 향상)  
김소원(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  
손범규(지상파 3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사용 실태)  
장소원(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출연자 언어사용 실태)

## 제2장 신문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1. 조사 대상 신문

#### (1) 조사 대상 신문

\* 제1차 조사 대상: 중앙 일간지 6개(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신문당 평균 30개의 기사를 조사하였다.

\* 제2차 조사 대상: 지방 일간지 6개(강원일보, 대전일보, 광주일보, 부산일보, 경북일보, 제주일보). 신문당 평균 20개의 기사를 조사하였다.

\* 제3차 조사 대상: 특수 신문(매일경제신문, 일간스포츠, 스포츠한국,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 일간지에 비해 조사할 기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서 특정 기사 종류를 조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특수 신문의 조사 결과는 통계에 포함되지 신문별 평가에서는 제외하였다.

#### (2) 조사 대상 기사 종류

조사 대상 기사는 보도, 사실, 칼럼, 해설의 네 범주로 나누고 이를 보도 기사, 주장 기사, 해설 기사로 분류하였다.

① 보도 기사: 사건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기 위한 기사를 가리킨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 일어난 사건과 사고를 알리는 기사가 여기에 속한다. 이 기사에는 기자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정책, 기업의 활동, 연예계 소식 등의 기사가 포함된다. 대체로 기자가 현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거나,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는 기사가 여기에 속한다.

② 주장 기사: 주장 기사에는 사실과 칼럼을 포함하였다. 사실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신문사의 주장이라는 특징이 있고, 칼럼은 개인의 주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칼럼 가운데는 각 신문사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쓴 기사를 가리킨다. 동아일보의 ‘광화문’, 조선일보의 ‘태평로’ 같은 난에 실린 기사와 논설위원 이름을 내걸고 쓴 기사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되 신문에 따라서는 이런 난을 두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기자의 시각으로 주장을 적은 기사는 칼럼으로 간주하여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같은 지면에 나타나는 기사이지만 어떤 것은 주장을 나타내는 칼럼으로 분류되는 것도 있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해설 기사로 분류한 것도 있다.

③ 해설 기사: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기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사, 단순한 오락성 기사 등을 모두 해설 기사로 묶었다. 대체로 이 기사들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 설명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 2. 조사 틀

공공언어<sup>1)</sup>로서의 신문 문장이 갖추어야 할 언어상의 미덕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사용한 틀은 아래와 같다.

4개 요소, 25개 항목		해당 사안 설명
1.어문 규정	1-1.띄어쓰기	띄어쓰기 원칙을 어겼는가?
	1-2.철자, 외래어 표기	철자를 잘못 썼는가? 국어와 외래어 포함
	1-3.외국 문자, 한자	한글 외의 글자를 사용했는가?
	1-4.문장 부호	문장 부호를 심각하게 잘못 사용하였는가?
	1-5.기타	그 밖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
2.어휘	2-1.틀린 어휘	의미와 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어휘
	2-2.비표준어	비표준어를 썼는가?
	2-3.비속어, 은어	비속어, 은어, 외계어를 썼는가?
	2-4.어려운 어휘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를 사용했는가?
	2-5.외국어, 외래어	외국어, 외래어를 사용했는가?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쓰임이 적확하지 않은 어휘
	2-7.기타	그 밖에 어휘 사용에 문제가 있었는가?
3.문법, 표현	3-1.조사, 어미 잘못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하였는가?
	3-2.호응, 일치 잘못	성분 간 불호응, 불일치가 있었는가?
	3-3.누락, 생략 잘못	어휘나 성분을 누락, 부적절하게 생략?
	3-4.상투어, 비국어투	상투적인 표현, 외국어 투를 사용했는가?
	3-5.모호함, 난해함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
	3-6.비논리, 모순, 비약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나 억지
	3-7.지속한 표현	지속한 표현이 있었는가?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글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
	3-9.기타	그 밖에 표현을 잘못한 것이 있었는가?
4.공공성	4-1.폭력, 전투, 위협	전투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이 있었는가?
	4-2.차별, 비하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이 있었는가?
	4-3.선정, 과장	선동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이 있었는가?
	4-4.기타	그 밖에 공공성을 해치는 표현

조사 기준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4개의 요소로 유형화하고 각 요소에 세부 항목을 나뉘 놓았다. 각 요소와 각 항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어문 규정: 어문 규정은 언어생활의 근본적인 기준이므로 신문 언어도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 제시된 어문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어긴 것이 있는지 찾았다. 다만, 어문 규범 가운데 직접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는 조사에 적용하지 않았다. 어문 규정에 속한 조사 항목은 5개로 구별하였다.

1) 공공언어의 요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을 든 김한샘(언론언어의 공공성 갖대, 한겨레말글연구소, 2011), 정확성, 적절성, 용이성을 든 최인호(언론언어의 공공성 갖대, 한겨레말글연구소, 2011), 정확성, 적절성(공공성, 정보성, 용이성)을 든 민현식(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국립국어원, 2010) 등이 있다.

① 띄어쓰기: 비자립 요소를 띄어 쓰거나, 자립 요소를 붙여 쓰는 경우를 주로 찾아냈다. 명사 연결체의 경우는 특별히 강한 자립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하지 않았다. 지적인 내용을 일부 보이면 아래와 같다.

세부 항목	사례
단위 명사	15억5000만원→15억 5000만 원
	600만원어치→600만 원어치
	3만4000원가량→3만 4000원가량
	1000만원대에→1000만 원대에
	120여쪽짜리→120여 쪽짜리
	170여권→170여 권
	18만8000명→18만 8000명
	63억달러(약 6조8000억원)→63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2만3000평→2만 3000평
	1000여구→1000여 구
	10여대→10여 대
	2m3cm→2m 3cm
	8만5000㎡→8만 5000㎡
	2월18일→2월 18일
	1년6개월→1년 6개월
	1년7개월밖에→1년 7개월밖에
	2년5개월→2년 5개월
	5년8개월 동안→5년 8개월 동안
	5월6~8일→5월 6~8일
	6시간43분→6시간 43분
	6만3000원씩→6만 3천 원씩
	1시20분계→1시 20분계
	수천억원→수천억 원
	수십통→수십 통
	수백명→수백 명
	네번째→네 번째
	한달을→한 달을
	한두달→한두 달
한번뜯어도록→한 번뜯어도록	
수와 의존 명사	2년만에→2년 만에
	30개월만에→30개월 만에
	9회초→9회 초
	9회말→9회 말
	1회차→1회 차
	3월4일치→3월 4일 치
수와 명사	1948년 8월 4일자→1948년 8월 4일 자
	5만베나→5만 베나
	5cm정도→5cm 정도
	7과3분의1이닝→7과 3분의 1이닝
	21승5패→21승 5패
	3개월새→3개월 새
단어와 단어	3점홈런→3점 홈런
	1년반이 꼬박→1년 반이 꼬박
	전세계→전 세계
	첫방송→첫 방송

	他지역→타(他) 지역
	박용하씨→박용하 씨
	박씨→박 씨
	명수군→명수 군
	방과후→방과 후
	소송중→소송 중
	검토중인→검토 중인
	아닐뿐더러→아닐 뿐더러
	쉬는건→쉬는 건
	기여 할수→기여할 수
	돌과할듯→돌과할 듯
	늘어난테다→늘어난 데다
	산적한테다→산적한 데다
	지연되는게→지연되는 게
	점검할것→점검할 것
	이틀만에→이틀 만에
	노사간에→노사 간에
	아산공장내→아산공장 내
	사측이→회사 측이
	놔둘텐가→놔둘 텐가
	얇은채→얇은 채
	어쩔거야→어쩔할 거야
	여러가지→여러 가지
	당국간→당국 간
	계속할것→계속할 것
	못가는→못 가는
	석달만에→석 달 만에
	웬말→웬 말
	허리부상→허리 부상
	올시즌→올 시즌
	날선→날 선
	이에따라→이에 따라
어느날→어느 날	
세차례의→세 차례의	
술먹는→술 먹는	
푸념어린→푸념 어린	
이틀동안→이틀 동안	
붙여 써야 할 것	문제가 아닌 데→문제가 아닌데
	녹아 내리는→녹아내리는
	이것 저것→이것저것
	결과물 치고는→결과물치고는
	먹고 살기→먹고살기
	감상선 암→감상선암
	알장 서길→알장서길
	동남 아시아를→동남아시아를
냄새 나는→냄새나는	
끝 쪽에→끝쪽에	
풀가동 되는→풀가동되는	
풀 가동하고→풀가동하고	
가시밭 길→가시밭길	

지원 받아→지원받아
주목 받기도→주목받기도
레저 업체→레저업체
이전 보다→이전보다
못지 않은→못지않은
눈 앞에서→눈앞에서
참다 못한→참다못한
대형 차→대형차
팔아 넘긴다→팔아넘긴다
그리 뵈었다면→그리뵈었다면
큰 돈→큰돈
불 붙으면→불붙으면
손 쓸→손쓸
헤어 스프레이 등에→헤어스프레이 등에
별 말→별말
논의 할 수 없다→논의할 수 없다
지난 해까지→지난해까지
안전 제일→안전제일
올 해→올해

② 철자(외래어 표기 포함): 철자를 잘못 쓴 경우는 모두 찾아냈다. 실수로 잘못 쓴 경우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은 표기 등을 두루 찾았다.

형태 표기 잘못	현재로서는→현재로써는 외국인이었다→외국인이었다 갑작스런→갑작스러운 점잖지→점잖지 활인→활인 거처→거처
사이시옷	비행기값→비행깃값 죄값→죄값 원화값→원화값 한자리수→한 자릿수
단순 실수	재매결연→자매결연 감상선 압→감상선압 줄었든→줄어든 비유하자만→비유하자면 어버이과→어버이와 캠핑장에서는→캠핑장에서는 걸쭉하니→걸쭉하니 서비스→서비스 대나무 잎사귀를 귀에 꼈은→대나무 잎사귀를 귀에 꼈은
외래어 표기 잘못	테레모필레→테르모필레 리더쉽→리더십 앱프→앱프 아이플→아이플 에쓰코→에스코 오쓰치→오스치 컨셉트→콘셉트 베팅→배팅

씨엔블루→시엔블루
컨셉트를→콘셉트를
매니저들에게→마니아들에게
웨리→페리
콘텐츠→콘텐츠
마스트플랜→마스터플랜

③ 한자, 외국 문자: 국어기본법을 원용하여 신문에서도 한글 전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한자나 외국 문자를 노출시킨 경우를 조사하였다.

영어 노출	UEFA→유이에프에이(UEFA) FC 서울→에프시(FC) MC→엠시(MC) VIP→브이아이피(VIP) VS→대 VVIP→브이브이아이피(VVIP) WHO → 세계보건기구 HA(가전)사업본부장→가전(HA)사업본부장 ISI IT→아이티(IT) JP모건 → 케이피 모건 K팝(한국 가요)→케이팝(K-pop, 한국 가요) KBO→한국야구위원회(KBO) KIA→기아(KIA) LH→토지주택공사 MB정부→이명박 정부 MB캠프→이명박 후보 진영
한자 노출	중국發→중국발 地作司→지작사(地作司) 靑→청와대 秋冬패션→추동패션(秋冬)/가을겨울 패션 他지역→타(他) 지역/다른 지역 板이→판(板)이 韓·美 FTA→한-미 자유무역협정(FTA) 韓流→한류(韓流)

④ 문장 부호: 문장 부호를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았거나, 안 써야 할 곳에 썼거나,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한 경우를 조사하였다. 다만, 현재 문장 부호 규정이 소략하여 이를 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큰따옴표 사용법과 직접 인용문안의 마침표 사용 여부 등 몇 가지만 조사하였다.

마침표 관련	“모르겠다”는 → 모르겠다.”라는 “간섭하느냐”는 → 간섭하느냐.”라는 “다르다”는 → 다르다.”라는 “바꾸자”는 → 바꾸자.”라는 “결정하겠다”→결정하겠다.”라고 “적용된다”고→적용된다.”라고 “대호, 기다려라”→“대호, 기다려라.” 4. 2.(토)→4. 2.(토)
--------	--

가운뎃집 관련	당근·피망→당근, 피망
	컴퓨터·스마트폰→컴퓨터, 스마트폰
	곡물·수산물·석유제품 으뜸세 두드러져→곡물, 수산물, 석유제품
	근무시간중에→근무시간 중에
	해령(海嶺·해저 계곡)→해령(海嶺: 해저 계곡)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amnesty는 '사면'이라는 뜻)→국제 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mnesty는 '사면'이라는 뜻)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피그스 (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재벌 3세·경제 단체 임원 출신·공인회계사 등→재벌 3세, 경제 단체 임원 출신, 공인회계사 등
	4·4분기→4/4분기
	사면 복권했다→사면·복권했다
	소득·재산이 있는 곳에→소득, 재산이 있는 곳에
	올림픽 3관왕·세계선수권대회 5연패를→올림픽 3관왕,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를
	최준석(28·사진)→최준석(28, 사진)
	1루수론 타율 3할6푼6리에 3홈런·12타점, 지명타자로는 타율 2할9푼6리·1홈런·3타점이다.→3홈런 12타점, 1홈런 3타점
	2주 전에 전회·전석이 매진됐다. → 전회 전석이
	발레·오페라 같은 클래식 → 발레, 오페라 같은 클래식
	중남·전북 간→중남 전북 간
	일본어·한국어로 쓰인→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인
반점 관련	2009년 6월 1차 조사와, 파악이 끝난 직후인 8월의 2차 조사 결과보다 →2009년 6월 1차 조사와 파악이 끝난 직후인 8월의 2차 조사 결과보다
	일본의 국력은...불과하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일본의 국력은...불과하다...무너질 수밖에 없다...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3류’ ‘4류’ → ‘3류’, ‘4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의총이냐.”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의총이냐.”
	‘유마리 관광협회’ ‘유마리 재생 시민회의’ ‘어린이 문화모임’ 등→‘유마리 관광협회’, ‘유마리 재생 시민회의’, ‘어린이 문화모임’ 등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피그스 (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김치 된장 와인 치즈→김치, 된장, 와인, 치즈
	2-1 승리를 이끈→2:1 승리를 이끈
붙임표 관련	4-4동점→4:4동점
	노(勞)-정(政) 갈등이→노정(勞政) 갈등이
	7-8명씩 → 7, 8명씩
	안전-효율성→안전성과 효율성, 안전성, 효율성
	동행-선행지수→동행·선행지수
	신-구→신·구
	두산-LG→두산 대 엘지(LG)
	한-EU FTA→한·EU FTA

괄호 관련	게임-하드웨어 업체→게임·하드웨어 업체
	대전~서천 간→대전 서천 간
	호세이(法政)→호세이[法政]
	홋카이도(北海道)→홋카이도[北海道]
	스즈키 나옴치(鈴木直道)→스즈키 나옴치[鈴木直道]
따옴표 관련	고우즈 마코토(神津任:56)씨→고우즈 마코토[神津任, 56] 씨
	‘가미카제(新風)’가 불어줄 것→‘가미카제[新風]’가 불어줄 것
	지하드(聖戰)→지하드[聖戰]
줄임표 관련	은혜 갠 학(鶴の恩返し)→괄호 안의 것 제거
	‘사회는 한 가지 일만~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며→“사회는 한 가지 일만~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기타 부호	“203cm 용병 니퍼트 160km 리즈 잡는다”→“203cm 용병 니퍼트 160km 리즈 잡는다”
	4월 0.3% 올라...작년 대비 6.8% 상승→4월 0.3%, 작년 대비 6.8% 상승
기타 부호	들어... → 들어.....
	단위=%→단위: %
기타 부호	“LH<토지주택공사>, 진주로”→“토지주택공사는 진주로”

⑤ 기타: 어문 규정 어감 중에서 위의 항목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 넣었다.

공직비리(떡어쓰기 일관성 없음)
‘항공소음피해지역 주택 냉방시설 설치사업의 문제점 해결 요청’서를 보내→요청서’
‘서독 정부’와 ‘서독정부’가 섞여 있음. 떡어쓰기를 한 가지로 통일할 것을 권함.
‘힘 있는 사람’/‘힘있는 사람’→떡어쓰기를 통일할 것을 권함.
묻어뒀던, 묻어 둔→보조 용언을 붙이기로 했으면 그 원칙대로 통일성 있게 표기해야 함.

(2) 어휘: 어휘를 독립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휘의 의미와 쓰임새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와 어려운 어휘나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일 것이다. 어휘 요소는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① 잘못 사용한 어휘(틀린 어휘): 낱말의 의미를 오해했거나 사용법을 오해한 경우를 조사했다. 낱자를 그나라고 하거나, 삼촌과 사촌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나무와 풀을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미국이 무인비행기를 사용하는 주목적인 탈레반 및 알카에다 지도자가 무인비행기 공습으로 살해된 경우는 33명에 불과하다.→무인비행기의 주목적인
부족한 전력 확보를 위해 → 부족한 전력 보충을 위해
글씨를 모르면→글자를 모르면
더 이상→더는/이제는
이전가격체제를 상속증여세법에 적용하는→도입하는
협약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4% 오름세다.→올랐다
굿풀이→살풀이

한국경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면이
기업의 파워가 너무 비대해져→강력해져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에
작전의 승패→작전의 성패
지도부와 다른 현장의 온도차→지도부와 현장 간의 온도차
오픈프라이스(가격표시제)→개방가격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대법원에 재상고한→대법원에 상고한/대법원에 재심사를 신청한
난상토론→난상/토론
첫 번째 아치→첫째 아치/첫 아치
차명계좌를 파악했으며→밝혀냈으며/찾아냈으며
2개나 있다.→두 가지가 있다.
무대를 마친 후→공연을 마친 후
진정심을 담아→진정을 담아
흑의 티→옥에 티
감옥을 살고 나온→감옥살이를 하고 나온/감옥살이를 한
굿풀이→살풀이
물경한 → 물명한

② 비표준어: 주로 지역어 또는 사투리로 규정된 것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소주→강소주
이제서야→이제야
한편에는→한쪽에는
하교 길 → 하룻길
없다급쇼?→없다고요?
칠면조만날 계절스럽게→처럼
휴대폰→휴대 전화
윗목도→목덜미도

③ 비속어, 은어: 신문에서는 사용하면 안 될 비속어(욕설), 은어(단순한 신조어) 또는 외계어 같은 것을 조사하여 이 항목에 분류했다.

허접한 인간→
물빵→
'꽃남'→
베이글너→
'질친' 이대호→질친한 이대호
철밥통을 연상하게 된다.
맞짱승부→정면승부
가격 때리기→가격 매기기
타짱→타격왕(?)
문지마 대출을→마구잡이 대출을
비호감→
열공→열심히 공부
폰피→(핸드폰) 개인 홈페이지
알바→아르바이트

④ 어려운 어휘: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을 사용한 경우에 이 항목에 넣었다.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언어를 어려운 어휘로 보았다. 외국어

(외래어 포함)가 어구로 쓰이거나 국어와 함께 어구를 이루는데 어려운 것이라면 이 항목에 넣었다.

정족수
3D 시대→입체영상 시대
3D 안경→입체 안경
3D 콘텐츠→입체 콘텐츠
가장납입→거짓 납입
간주하는→여기는
경도돼→치우쳐
경추→목등뼈
경합무대→겨루는 무대
고수하도록→지키도록
고원 물가→
고침안면(高枕安眠)을 뒤로하고→
귀책금
노심 용용
다른 선참급
레드오션
미니멀하지만
미증유→이때까지 없었던
민초→백성, 국민
별크→
분착할 수→당면할 수, 처할 수
비트그로스
상식한다→통상 먹는다/상시 먹는다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섭입(攝入) →
소원하게 만들었다→멀어지게 만들었다
수변 신도시→
수인(囚人)→감한 사람
스마트그리드→
습식(濕食)→
압권→
양적완화→
역외 해지펀드→
역외(域外) 탈세→
역투표
오픈프라이스제→개방가격제(열린가격제)
우월적으로 생산한다.→생산하는 데 유리하다.
위인실관식→
유병률→알고 있는 비율
유예해→미루어, 미뤄
이전투구하다
인터폴 적색 수배→
일국양제(一國兩制)
저간의 사정
지방세수→
차감하다→빼다
천명→
초동조치 후→우선 조치 후

친수구역특별법→
통절하게 → 절실하게
펼쳐놓는→펼쳐놓
표면이자율→
피력→
허브화
환골탈태(換骨奪胎)→

⑤ 외래어, 외국어: 외래어는 국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모호한 현실을 감안하여 외래어와 외국어를 모두 여기에 분류하였다. 앞으로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생기면 국어로 간주하는 외래어는 여기에 넣지 않고 어려운 것만 2-4 항목에 넣게 된다.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
웨이트 트레이닝
프로세스 → 과정/절차
피싱 기법 → (정보 도둑 기법)
코리아리그→
시스템 리스크→
인센티브→조성책, 유인책, 장려책, 특전
포퓰리즘→대중주의
비즈니스벨트
페이퍼컴퍼니
스피치→대담, 연설, 말
부메랑→
서밋→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모델 헤저드→느슨한 도덕의식
마니아적 성격
비트
리얼리티 프로그램
레이덕
글로벌→세계적인, 세계화, 세계
비전→목표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캠프→진영
브랜드→상표
태그→가격표
오픈프라이스
타겟→대상
시뮬레이션
멜트다운→노심용해/노심용해(멜트다운)
엑소더스→탈출/대이동
리스크→위험
인프라스트럭처→기반
로드맵→이행안
클래식하게→고전적으로
슈트→양복
패션 트렌드→패션 경향
실루엣→윤곽선

글래머러스한→관능적인/육감적인
디테일→세부, (세부 장식)
글래머룩→글래머풍
디너 콘서트→
리메이크→원작재구성
리드 싱어→
스페셜리스트→전문가
로하스(LOHAS)→
오픈마켓→개방형 시장, 열린 시장
퍼펙트로→완벽하게
로테이션→순환
퍼스트클래스
큐레이터→
스위트룸→특별실
퍼스트클래스→일등석
게임마케팅→게임 영업
게임 캐릭터
시네마→영화
게임 페스티벌→게임 축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계층의 도덕적 의무
그룹→집단
리더십→지도력
베스트 등을→조끼 등을
리얼 캠핑룩→
스타일리지 캠핑룩으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만→
스타일 배틀→

⑥ 적확하지 않은 어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상황이나 여건에 비추어 맞지 않게 사용한 어휘를 이 항목에 넣었다.

60여 년이란 짧은 시간에→6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지층에 묻힌다 → 땅에 묻힌다(묻히는 곳이 지층이 아님.)
원년멤버→기존 멤버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던→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했던
도를 넘은 이후에야 → 후에야
그 이전에→그 전에
가능성이 높아졌다.→가능성이 커졌다.
밀도가 있다.→밀도가 높다.
특히 북한의 식량난이 갈수록 악화하고→특히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아주 작은 자리뭉 치어를 생포했다.→잡았다.
예정된 파국 코스로→파국 코스로

⑦ 기타: 그 밖에 어휘 관련 잘못을 조사하여 여기에 넣었다.

45도의 물에→섭씨 45도의 물에/45℃의 물에
음식폐기물→음식쓰레기, 버린 음식물(순화용어)
휴게공간→휴식공간
애환이나 슬픔도→애환도/슬픔과 기쁨도
살처분된→도살 처분된

(3) 문법: 문법 요소에는 낱말과 낱말의 연결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는 항목을 설정했다. 여기에는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했다.

① 조사, 어미 사용 잘못: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하여 문장 구성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를 조사했다. 격조사를 잘못 사용한 것, 보조사를 잘못 사용한 것, 어미를 문법적으로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미	FTA 체결의 공은 외교부가 독식하고, 책임은 공유하자는 것이냐는 성토키 나온다.→FTA 체결의 공은 외교부가 독식하면서 책임은 공유하자는 것이냐는 성토키 나온다.
	'나는 가수다'는 7명의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시청자에게 평가를 받아 끌리는 탈락하는 서바이벌 프로다. → 불러, 끌찌가 TF 보고서에 최 장관의 주특기인 압박전술로 유가를 내리자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다.→내리겠다는/내리려는
	아니지 않느냐→아니지 않으나
	재벌 3세까지 뛰어드는 주가조작→뛰어든 주가조작
	신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도입되어
	이는 방사능에 피폭된 것과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는 방사능에 피폭된 것과 같으므로 …… 한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현대상선 지분 7.7%도 함께 팔려갔기 때문이다.→인수할 때에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판매되자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면서→"특수부대 군인이었다."라면서
	"축제를~만들고 싶다"고→"축제를~만들고 싶다."라고
직접 인용 조사	"인상됐다"며 "이어질 것 같다"고→라며, 라고
	술있을 먹자"는→술있을 먹자."라는
조사	오수처리시설 설치 미흡 등이 사례가 지적됐다.→의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한때 음원 시장은 이들 7명의 가수가 부른 노래가 휩쓸었다. → 시장을
	과점 업계의 오랜 문제점을 눈감아 준다면 정부에 시장감독 기능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시장감독 기능이
	흙먼 3방울 붙어치며 단번에 1위로 올라섰다.→1위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립해→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독립해
	1년 새 얼굴은 많이 바뀌었다.→얼굴이
	이렇게 누적된 핵연료는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서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렇게 누적된 핵연료가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서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된 핵연료는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어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PD들과 수시로 만나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돌아다녔다.→그래서 연출자들을 수시로 만나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돌아다녔다.
	전쟁에 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전쟁에 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전쟁에 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500m쯤 떨어져서 사는 두 사람은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고 대화도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두 사람이
--	--

② 호응, 일치 잘못: 문법 성분 간의 호응이 안 되거나, 형태를 일치시켜야 할 때에 일치시키지 않은 경우를 조사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형어와 체언의 호응, 나열의 일치 등의 원칙을 어긴 경우를 말한다.

호응	울퉁불퉁한 도로와 약 100m의 언덕을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야 하는데→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거쳐 약 100m 되는 언덕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야 하는데
	혹시라도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혹시라도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단속을 시행했고 아직은 자리가 잡히는 시기로 판단해 홍보와 권고 위주로 하고 있다.→지금(아직은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
	수입이 좀 올랐다고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없어지니까→수입이 좀 올랐다고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없애니까
	드라마만 만들던 초록뚰미디어가 과감하게 예능에 뛰어든 데는 최영근 대표의 가세가 큰 힘이 됐다.→드라마만 만들던 초록뚰미디어는 최영근 대표의 가세에 힘을 얻어 과감하게 예능에 뛰어 들었다.
	여성복은 풍성한 관능미를 앞세운 '뉴섹시'로 요약된다.→여성복의 경향은 풍성한 관능미를 앞세운 '뉴섹시'로 요약된다.
	한동안 몸에 꼭 맞게 입던 슈트와는 달리 헐렁한 핏(fit)의 팬츠와 롱 재킷 스타일의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식의 모던하면서 남성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게 특징.→한동안 양복을 몸에 꼭 맞게 입던 것과는 달리 헐렁한 바지와 긴 옷옷형의 블레이저를 맞추는 식의 현대적이면서 남성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게 특징.
	전문의들은 직장인의 눈이 더 빨리 피로를 느끼는 이유를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컴퓨터 사용 및 스마트폰의 잦은 이용 때문'으로 분석한다.→전문의들은 직장인이 눈의 피로를 더 빨리 느끼는 이유를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컴퓨터 사용 및 스마트폰의 잦은 이용 때문'으로 분석한다.
	번역 오류는 체계적인 번역전담팀 없이 촉박한 FTA 추진 일정을 맞추려던 외교부의 실수가 크지만 관련 부처 실무직원들의 무성의한 검토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번역 오류가 생긴 데에는 …… 실수가 크지만 …… 주장이다.
	유네스코 본부에 직접 제출한 것을 비롯해, 조직적인 등재반대운동을 펴고 있다.→제출하는 등
넘치는 것~은 자르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는 것~은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는	
소비자물가지수는 ~ 억제목표치를 뛰어넘었다 → 소비자물가는 ~ 억제목표치를 ~ 뛰어넘었다	
피로해진 눈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감퇴 현상을 일으킨다.→눈이 피로해지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감퇴 현상이 나타난다.	
현 회장은 경영권 안정에는 다소 승통이 트였지만 신사업 발굴에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경영권 방어에는 한숨을 돌렸지만 신사업 발굴에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뉴욕 상류층의 패션을 선보여 온 '앤디앤랩'은 여전히 실루엣은 간결하고 미니멀하지만 일하는 용도로 잘 활용할 만한 디테일을 접목한 게 이번 시즌 특징이다.→뉴욕 상류층의 패션을 선보여 온 '앤디앤랩'의 이번 시즌 특징은 간결하고 미니멀한 실루엣에 일할 때 활용하기 좋은 세부 장식을 접목한 것이다.
일치	남성복은 …… 입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 반면 여성은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풍성한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능미를 발산한다.→남성복은 …… 입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 반면 여성복은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윤곽선이 유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능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성과는 외교부 몫이고 책임은 다른 부처가 가져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성과는 외교부가 차지하고 책임은 다른 부처가 가져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284명 중 156명(56%)이었던 것이 3차 조사에서 80%로 급증했다.→284명 중 156명(56%)이었던 것이 3차 조사에서 ○○○명 중 ○○○명(80%)으로 급증했다.
	세종시의 경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u>장점이 있지만</u> , 행정 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연구 단지나 대학 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어차피 추가 재원이 <u>필요하다고</u>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세종시의 경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u>장점이 있지만</u> , 행정 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연구 단지나 대학 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추가 재원이 <u>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u>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조 목사의 부인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과 전 <국민일보> 회장인 조희준 모자의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총장과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③ 누락, 생략 잘못: 생략함으로써 의미 파악을 하기 어렵거나 문장 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찾았다.

무력 대응하겠다는 →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휴일근무 자청 출근→휴일에도 자청하여 출근
양대노총 노동법 재개정 손잡아→양대 노총 노동법 재개정 위해 손잡아
5·18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아들 묘지에 평소 좋아하던 카스텔라 한 조각을 올려놓고 오열하던→5·18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아들 묘지에 평소 <u>아들이 좋아하던</u> 카스텔라 한 조각을 올려놓고 오열하던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u>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u>
한 달에 150만원 남짓 손에 쥐는 이들에게 24만원 식비 공제의 부담은 컸다.→한 달에 150만 원 남짓 손에 쥐는 이들에게 24만 원을 식비로 공제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한마디로 깔끔한 <u>모던(modern)</u> 보이가 대세다.→한마디로 깔끔한 <u>모던(modern)</u> 보이 풍이 대세다.
일부를 돌려주는→일부를 협력업체에 돌려주는
봉사 전념 돕겠다→봉사에 전념하도록 돕겠다.
5시간 정도 걸리며→걸어서 5시간 정도 걸리며

韓·美 FTA '속도'→한미 FTA도 속도 낼 듯
80년대→1980년대
경제·사회적 부담을→경제적·사회적 부담을
5실점한 데 이어→5점을 잃은 데 이어/5실점을 한 데 이어
전주엔 연금공단 등 검토→전주엔 연금공단 이전 등 검토
그룹서→그룹에서

④ 상투어, 비국어투: 주로 외국어를 직역한 표현이나 상투적인 표현을 찾아 여기에 넣었다. 상투어는 대체로 비국어투에서 많이 발견된다.

수사가 이뤄졌다고 한다.→수사했다고 한다.
협상 타결이 이뤄질에 따라→협상이 타결되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 시간과 싸우고 있다
간결해진 스윙으로 정확도가 높아져 홈런 수도 따라오고 있다는 평가다.→따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북 ~ 분석이다. →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남북 ~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과 금융당국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우려 때문이다.
재정을 투입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것에 불과하다./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크다는 것이 WHO의 지적이다.→크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다.
취지였음이 일한다. → 취지였음을 읽을 수 있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예정인데
공간 속에서→공간에서
행사를 가진→행사를 한
“포퓰리즘으로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복지제도를 가졌다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나라가 많다”면서→“포퓰리즘으로 …… 복지제도를(복지정책을) 펼쳤다가 …… 많다.”라면서
가슴으로부터의 경외심을→가슴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아프리카에서의 의료 봉사를 결심한 것은→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여성이 사회와 가정에서 두 가지 일에 대한 책임을→여성이 사회와 가정에서 두 가지 일에 책임을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행위는
비교적 안정상태를 유지했던 2, 3호기에 대해 멜트다운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비교적 안정 상태를 유지했던 2, 3호기의 노심용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
최 장관은 관련 법령 검토나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했는지 모르겠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느낄 있게 다가왔어요.→느껴졌어요.
우리만의 콘셉트는 계속 가져가면서→유지하면서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합법적 수단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답보 상태이다.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아직 없다고
전망을 봤을 때→전망으로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예정인데
여권이 쇄신 바람 속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내각의 군기마저 빠진 것이 아니냐→어수선한 데

새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내각의 기강 역시 헤이해진 것이 아니냐→빚고 있는데 내각의 기강까지
특별협의를 진행했지만→특별협의를 했지만
이들 문제가→이런 문제들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 장관들은 전원 참석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주목된다/주목할 만하다.
전문인력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별한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특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가수다'를 통해 제조명된 90년대 가수들의 앨범도 줄을 잇고 있다.→가수들도 줄지어 앨범을 내고 있다.
해장국의 경우→해장국은
발표에 따르면→발표로는
진성심을 담아 노래하는 만큼→진정을 담아 노래하는 만큼
소지가 다분하다→소지가 많다.
빈 라텐의 총애받는 아들이자 가장 믿음직한 심복→빈 라텐이 총애하는 아들이자 가장 믿는 심복
논술에서는 수사법보다는 이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승부를 봐야 한다.→논술에서는 수사법보다는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비판을 면할 수 없다.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시·도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국유화 논란이 불가피하다.→국유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⑤ 모호함, 난해함: 표현이 어렵거나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중의적인 표현이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의미가 모호해진 경우를 조사하여 이 항목에 넣었다.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인인 농산물의 대중국 수입비중도 →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인인 농산물도 대중국 수입비중이(중의적)
모두 9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환자들이었다 → 모두 중환자이거나 90세 이상 고령자들이었다.(중의적)
이들의 삶의 족적은 커다란 시사점을 전한다.→이들의 삶의 족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20여 명은 노트북으로 기사검색을 했고, 아이패드를 꺼내 e메일을 확인하는 의원도 있었다.→20여 명은 노트북으로 기사검색을 했고, 아이패드를 꺼내 e메일을 확인하는 의원도 (몇) 있었다.
'한 사회의 개념을 세우고 싶다면 감옥에 누가 있는지 가보라'는 미국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존 듀이의 말도 그래서 세롭다.→
원전 1호기에 이어 2, 3호기도 잇따라 멜트다운(노심용해) 현상으로 핵연료 전체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고→원전 1호기에 이어 2, 3호기에서도 잇따라 노심용해(멜트다운)가 일어나 핵연료 전체가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고(이미 노심용해가 일어났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함.)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통해 전력요금 절감 작동 기능이→자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는 기능이
선진국에선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에 '사업기회 박탈' 개념을 적용해 불공정거래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 선진국에선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는 불공정거래로 보고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따스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색과 갈색에 검정색과 파란색의 디테일을 사용했다.→전체적으로는 따스한 느낌을 주는 흐린 노랑과 갈색을 쓰면서 세부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검정색과 파란색을 썼다.(?)
뉴욕 상류층의 패션을 선보여 온 '앤디앤뎀'은 여전히 실루엣은 간결하고 미니멀하지만 일하는 용도로 잘 활용할 만한 디테일을 접목한 게 이번 시즌 특징이다.→'미니멀하지만'이 실루엣에 걸리는지 디테일에 걸리는지 모호함.
금융위 출신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주로 정무기관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퇴직 후 민간기업-은행 감사직에 재채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주로 정무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했다 이유로
하지만 그 전에 동남권 공항을 '허브화'할 것인지 '거점공항'으로 할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그룹 차원에서 170여개의 차명계좌를 파악했으며→부산저축은행의 그룹 차원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임금 과세 수준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금 증가로 고소득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층의 임금 과세 증가폭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에서는 롯데 4~5점-한화 2~3점 롯데 승리가 9.36%가 1순위로 나타났다.→최종 점수대에서는 롯데가 4~5점을 내고, 한화는 2~3점을 내서 롯데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9.36%로 가장 많았다.
14살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던 친구이다.→14살 이후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사귀 친구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 준 친구이다.
우리가 당장 승산 없는 포퓰리즘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우리' 곧, 전쟁을 끝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주체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체를 알버무렵.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의 95% 소유의무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로 위험 전이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금융기관이 대형화로 지배력을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겸업화로 위험을 다른 데로 전가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일본이 제한송전에 들어간 것은 일제히 가동이 중단된 원전 의존도가 3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일본이 제한송전에 들어간 것은 전체 원전 중에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3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일본이 제한송전에 들어간 것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30%를 넘는데 이들 원전이 일제히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⑥ 비논리, 모순, 논리비약, 억지: 앞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를 조사하여 여기에 분류하여 놓았다. 전체나 근거가 너무 불확실한 경우도 조사했다.

거래소 등이 추가 흐름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적발하는 추가조작 사례는 대개 전문꾼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다.→추가 조작은 대개 전문꾼이 저지르는 범죄로서, 거래소 등이 추가 흐름에 이상한 낱새를 알아차려서 적발한다.
40홈런에 도달하면 생애 첫 홈런왕 타이틀도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40홈런을 달성하면 생애 처음으로 홈런왕 타이틀을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퇴직 후 자리를 염두에 둔 보신주의 때문이고 공정위에도 전관예우 금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퇴직 후 자리를 염두에 둔 보신주의 때문이므로 공정위에

도 전관예우 금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
FTA 번역 오류 부른 부처 이기주의→자유무역협정 번역 오류 책임 공방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
서울대생들은 후배들에게 법인화의 기초를 다진 선배로 남을 것인지, 법인화에 반대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선배가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물량을 짊어주면서 전문기업이 성장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스스로도 전문화할 이유를 없애는 폐단을 놓고 있다. → 짊어주어 전문기업이 성장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신도 전문화할 여지를 없애는 폐단을 놓고 있다.
올해 이대호는 포지션을 1루수로 옮겼다. 하지만 19일까지 1루수로 7경기, 지명타자로 7경기 뛰었다. 지난해 시즌 후반 다친 오른 발목 때문이다. 주축 선수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
이름을 잘못 붙이는 바람에 공연히 굵어 부스럼을 만든 측면이 있다. 초파이의공유체를 둘러싼 지금의 이념논쟁이 실속 없이 걸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근거 부족
나는 친일 인사를 기려서 만든 상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졌다. (중략)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대선배의 명예가 더럽혀졌지만 나는 그래도 장지연 상을 자랑으로 간직하고자 한다.
과국을 예고하는 한국판(版) '아키마루 보고서'는 수백, 수천 종류가 나와 있다.
지금 사회지도층의 심리상태는 70년 전 일본을 빼다 닮았다.

⑦ 지속한 표현: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성적으로 저속한 경우를 조사하여 이 항목에 넣었다.

'본때 케이스'로→
손을 보곤 한다.→
미친 타격감
시청자를 우롱한 프로그램이라는 뼈뺀 눈으로 → 프로그램이라고 부정적으로
약골(弱骨) 모드→
많이 물린→깊이 관개된
중간에 뜯어먹는 자가 많거나...→
'허접한 인간'이 돼버렸다.

⑧ 맥락에 어긋난 표현: 글의 맥락이나 상황에 맞지 않은 표현을 조사하여 이 항목에 넣었다. 호응, 일치, 비논리, 모순 등으로 분류하기 곤란하지만 글의 맥락과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한 표현을 여기에 넣었다.

우호증진협의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우호증진협회 등이다.
사회 지도층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놀랍게도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지역 나눠주기식의 접근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배제해야
과학연구원을 분산 배치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분산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쥐어짜는 역할→중소상공인을 쥐어짜는
지금처럼 책임을 북한에만 돌리는 자세는 우리의 입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옛그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사회의 야만(野蠻)이 벗겨졌다.→옛그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 사회의 야만(野蠻)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파키스탄 내 미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주원인→미국에 대한 파키스탄인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극적으로 합의돼 이틀째 조업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이틀째 정상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라인의 신속한 가동이 절실했던 사측과 계획되지 않은 조업 중단이라는 노조 집행부의 부담감이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이면서→사측의 필요와 …… 부담감이 쌍방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이면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는 수업시간의 6배를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자신이 받는 수업 시간의 6배를 일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 곳곳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권리가 수두룩하다.→사회 곳곳에는 권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문이 수두룩하다.
서울대가 지금처럼 관치(官治)에 길들여진 대학으로 자족하면 세계적으로 일류대 도약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서울대가 …… 자족하면 세계 일류대로의 도약은 물론이고 ……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된 핵연료는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서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렇게 누적된 핵연료가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 대규모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여 전기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근 누내안과병원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 972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눈을 혹사하고 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최근 누내안과병원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 972명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눈을 혹사하고 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

⑨ 기타: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문법, 표현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 항목에 넣는다.

비키 한센 교수 같은 이는→비키 한센 교수는
가압류 조치하도록→가압류하도록
이 밖에도 제주시는 여름철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예방하기
뿐만 아니라→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마철 야간에 3회 이상 맹꽁이의 서식 및 산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장마철 야간에 3회 이상 맹꽁이가 서식해서 산란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15일 일본에서 구조활동에 참가한 119구조대원 105명과 외교부 인도지원과 직원 2명을 초청해 종이학을 전달할 예정이다. → 105명을 초청해(일본인이 119 구조대에 개 종이학을 보냈으므로)
어떻한 댓글에도 즉각 반응해야 하는 세상이다. 응전이 늦어 저쪽을 봉기시키지 않으면 총알이 내 가슴팍에 박히고 만다. 댓글 하나 감당 못해 자살하는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다.
서훈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서훈이 있는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서훈 당시 몰랐던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 밝혀져야

(4) 공공성: 공공성은 문장에서 감정적 요소를 배격하기 위해서 설정했다. 어휘나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낱말이나 표현이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선정적이면 공공성이 상실된다고 보고 이런 낱말이나 표현이 있으면 여기에 분류하였다.

① 전투, 폭력, 위협 등: 평상시의 글에서 싸움이나 폭력을 부채질하고 미화하는 태도를 이 항목에 넣는다.

앞으로 치고나갈 폭발력→잠재력
대포 전쟁→대포 경쟁
칼을 뽑고 나서는→규제에 나서는
폭발적→
칼날을 빼들며 → 의지를 보이며
지금 전투 중인데, 자해성 발언이나 하면 되겠느냐
압박전술
총력투쟁
칼날을 피해
칼끝
직격탄→
칼을 뽑고 나서는 뒷북행정
군기 빠진 내각→기강 풀어진 내각
장외투쟁
폭발적인 매출로→평장한 기세로 매출이
칼을 맞고→
발목을 쥐는 데→
박근혜과 학살
테러의 황태자
공략했다→사들였다./구매했다.
일제 사격→
'킬' 당하다
직격탄→

② 차별, 비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고 또는 비하하는 태도를 조사하여 이 항목에 넣는다. 단순히 욕이나 저속한 표현을 하는 것은 3-7 항목에 넣는다.

개미 투자자→일반 투자자
근로행태 등의 제도→(근로와 제도 사이에 '행태'를 넣어 '근로제도'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 →
봉숭아 의총
'딱 일주일 동안만 모집합니다'란 광고는 흡소형식 딸이 마케팅마저 연상시킨다.
반면 로펌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처 출신들은 퇴직 후 손만 빠는 신세가 될 때가 많다.→
재취업의 기회를 잡지 못할 때가 많다.
밥그릇 다툼
한예슬은→한예슬 씨는
이런 '막가파' 식 정부가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를 일이다.
김 총리의 '인식'도 그렇고,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 없이 통과시킨 국무위원들의 무식함이 부끄럽다.
보훈처의 보훈심사위가 어느 민간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훈 박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가 거수기처럼 이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이 정부는 한마디로 명정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좌파적 아니냐고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배짱이의 권리를~개미의 권리를~없다.→

③ 선정, 과장: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독자를 흥분하게 만드는 태도가 보이는 경

우를 조사하여 이 항목에 넣는다.

최진행 '단독선투' 질주 준비→훈민 선투로 나서
포수 조인성 '다크호스' 두각→여전히 유력
노동자로 불러들여놓고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신정아 사건의 최대 피해자일 젊은 20~30대들이 지금 보복용 일기 쓰는 법과 신정아 마케팅을 학습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든 경쟁력을 바탕으로→그만 한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나아가 국격(國格)을 제고하고→K-pop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는 기여하지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까지 거두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봄.
지금 영남권 정치인들의 반발은 납세자들의 권익은 아랑곳없이 내 표만 지키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우기겠는가.
기도의 효험은 아주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다.
얼핏 작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지연 선생의 서훈 박탈은 이 땅에 보수정치가 마감되고 있음을 예고한다.
대한민국을 망친 'A급 전범'
결론은 상식대로였다. 일본의 국력은 미·영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개전(開戰) 초기 2년은 버틸지 몰라도 그 이상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미래의 파국을 예고하는 한국판(版) '아키마루 보고서'는 수백, 수천 종류가 나와 있다. 8년 뒤부터 인구는 감소로 돌아서고, 이르면 40년 뒤면 국민연금도 바닥나게 된다. 이때쯤이면 지금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GDP의 46%를 복지에 쏟아부어야 한다.
온통 돈 쓸 궁리만 판치는 나라
당장 숭산 없는 포퓰리즘 전쟁을→당장 무모한 포퓰리즘 결정을
좌파 대통령들보다→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
자학사관(自虐史觀)을→
종북(從北)좌파들은→
이는 자학사관을~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원조라~우파의 손에 의해 실행됐다는→실상을 생각할 때 복지정책의 원조라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봄.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대중 봉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농지개혁 덕이었다.→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성공 일본도로 부풀려서 기술한 것은 과장이라고 봄.
아이가 담보로 잡혀 있다 보니→
통절하게 → 진실하게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청 앞뜰. 또래와 함께 뛰어놀던 6 살배기 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자원봉사자가 "위험해. 어서 내려와"라고 외치자 아이가 말했다. "싫어. 자살할 거야."

④ 기타: 그 밖에 태도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왜곡되는 경우는 이 항목에 넣는다.

부처 행사, 홍보성 기사는...왜 이런 일에는 소극적인지 자문할 일이다(주제와 관련 없음)
좌파 교육감이~선동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지나치게 왜곡해서 해석한 경향이 있음.
근사하다. 정지란 게 안전빵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다. 필요할 땐 건공일칙의 결전도 벌이

고 장렬하게 산화하기도 하는 거다. 속으로 그는 사즉생(死卽生)을 생각할 것 같다.
나는 서훈 취소를 의결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시일야방성대곡'을 읽어보거나 했는지 묻고 싶다. 아니 그가 지방언론에 썼다는 다른 글이 얼마나 '매국적'인지 읽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는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야 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이 정부는 한마디로 '철학이 없는 정부' 같다. (중략) 하는 일들을 보면 좋게 말해서 '실용'이고, 실제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기회주의적' 집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략) 기왕에 준 장지연 선생의 훈장이나 도로 빼앗는 배알 없는 무개념 정권으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명정한 정부' 탓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대선배의 명예가 더럽혀졌지만 나는 그래도 장지연 상을 자랑으로 간직하고자 한다.
'가미카제(新風)'가 불어줄 것→역사 지식 배경 없는 독자를 배려할 필요
신정아 사건의 최대 피해자일 젊은 20~30대들이 지금 보복용 일기 쓰는 법과 신정아 마케팅을 학습하고 있다.

### 3. 조사 결과 점수화

(1) 조사 기사 수 조정 계수(E): 신문별로 조사 기사의 수(P)와 조사 기사 양(Q)이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일차로 조사 기사의 수를 같게 하기 위하여(중앙지는 30개 기사, 지방지는 20개 기사) 신문별 조사 기사 수에 신문별 조정 계수(E)를 곱하여 신문사별 조정된 기사량(R)을 구한다.

$$\text{중앙지 신문별 조정 계수}(E_n) = 30 \div P_n \quad (n=1 \sim 6)$$

$$\text{지방지 신문별 조정 계수}(E_n) = 20 \div P_n \quad (n=1 \sim 6)$$

$$\text{각 신문별 조사 기사 양}(R_n) = Q_n \times E_n \quad (n=1 \sim 6)$$

(2) 조사 기사 양 조정 계수(D): 각 신문별 기사 양(Rn)은 신문 기사 수의 차에 따른 편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값이 되지만 아직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조정하여 통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값을 얻는다. 기사 양 조정 계수는 각 신문별 조정 기사량(Rn)을 전체 조정 기사량(Rs)로 나누어 얻는다.

$$\text{신문별 기사의 양 조정 계수}(D_n) = R_n \div R_s \quad (n=1 \sim 6, s=1+2+\dots+6)$$

$$\text{신문별 기준 조사량}(I_n) = R_n \times D_n \quad (n=1 \sim 6)$$

(3) 각 신문별 잘못 개수(Fn) 산정: 조사된 잘못 개수에 양 조정 계수(Dn)을 곱하여 얻는다. a신문의 띄어쓰기 잘못이 10개이고, a신문의 D 계수가 1.2라면 a신문의 띄어쓰기 잘못 개수는 12개로 조정된다.

(4) 점수 계산의 가중치(G) 부여: 각 조사 항목별로 지적된 개수를 1점으로 환산하여 지적된 개수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다. 다만 각 항목별로 신문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견해는 독자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자문위원(신문사 교열 기자) 4명의 의견을 평균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제시하였다.

$$a\text{신문사의 } b\text{항목 점수}(aS_b) = aF_b \times aG_b$$

a신문사의 조정된 띄어쓰기 잘못 개수가 12개이므로 여기에 띄어쓰기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곧, a신문사의 띄어쓰기 점수는 16.5점이 된다.(12\*1.375=16.5)

(5) 신문사별 점수, 항목별 점수, 기사별 점수: 이렇게 하여 계산된 점수는 신문사별로, 항목별로, 기사별로 분류한다. 신문사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나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분류에 따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① 신문사별 총점: 총점이 높은 신문이 문제가 많은 신문이다. 그러므로 언어 사

2) 각 신문의 기사 길이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조사 기사 수와 기사 양을 같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사 기사 양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조정 계수를 이용하여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비교 평가를 하였다.

용면에서 볼 때 어느 신문이 가장 좋고 어느 신문이 가장 나쁜지 성적을 매길 수 있게 된다.

② 신문별 항목별 점수: 신문별로 어느 항목이 강하고 약한지 알 수 있게 된다. 바꿔 말하면 어문 규정을 어느 신문이 가장 안 지켰는지, 문법을 어느 신문이 가장 잘 지켰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물론 그 세부 항목별로도 신문별 성적을 제시하게 된다.

#### 4. 조사 총량

##### (1) 조사 대상 신문

- \* 중앙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 \* 지방 일간지: 부산일보, 경북일보, 대전일보, 광주일보, 강원일보, 제주일보
- \* 특수 신문: 매일경제신문,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오마이뉴스, 프리시안, 이데일리

##### (2) 신문별 조사량

신문	기사 수(P)	글자 개수(Q)	잘못 수
경향신문	30	44201	533
한겨레신문	27	38148	568
조선일보	31	52402	728
중앙일보	28	40205	559
동아일보	29	40584	462
서울신문	37	47477	584
중앙 일간지 합계	182	263,017	3,434
대전일보	26	51204	539
광주일보	19	25772	306
강원일보	17	21128	241
부산일보	19	26108	232
경북일보	18	24149	328
제주일보	22	22361	376
지방 일간지 합계	121	170,722	2,022
매일경제	28	45721	564
스포츠 신문(2개)	16	19353	365
인터넷 신문(3개)	11	46009	188
특수 신문 합계	55	111,083	1,117
총계	358	544,822	6,573

<표1: 조사 총량 통계표>

위 표를 보면 모두 358개 기사, 54만 4822개의 글자에서 6573개의 잘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기사당 18.36개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평소 소에 신문을 읽을 때에 한 기사에 평균 18개 이상의 잘못을 알게 모르게 보면서 읽는다는 의미이다.

##### (3) 중앙지와 지방지 비교

신문 이름	신문 수	기사 수	잘못 개수	기사당 잘못 수	글자 개수	글자 수 평균 1442개 기준 <sup>3)</sup>
중앙 일간지	6	182	3,434	18.87개	263,017	18.83개
지방 일간지	6	121	2,022	16.71개	170,722	17.79개
계	12	303	5,456	18개	433,739	18.15개

<표2: 중앙지와 지방지 비교표>

중앙지는 6개 신문에서 182개의 기사, 글자 수로는 263,017개를 조사하였는데 총 3434개의 잘못이 나왔다. 이는 기사당 18.87개에 이르는 수이고, 기사 길이를 평균 1442자로 볼 때 한 기사당 18.83개의 잘못이 나온 셈이다. 이에 비해서 지방지는 기사당 16.71개의 잘못이 나왔고, 1442자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한 기사에 17.79개의 잘못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중앙지에 비해서 지방지가 조금 나았다고 말할 수 있다.

##### (4) 신문별 조사 글자 수와 잘못 개수

특수 신문 특히 인터넷 신문과 스포츠 신문은 일간지에 비해서 기사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일간지와 곧바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예를 들면 스포츠 기사에는 주장하는 기사가 거의 없고, 인터넷 기사에는 보도 기사에 비해서 주장 기사가 너무 많아 균형을 잡기 어려웠다. 그래서 신문별 비교에는 특수 신문을 빼고 중앙지는 중앙지끼리 비교하고, 지방지는 지방지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신문별 비교, 평가를 한다.

구분	신문	기사수 (P)	글자 개수(Q)	기사당 평균 글자 개수(Q÷P)	잘못 개수(F)	기사당 평균 잘못 개수(F÷P)
중앙지	경향신문	30	44201	1,473	533	17.8
	한겨레신문	27	38148	1,413	568	21.0
	조선일보	31	52402	1,690	728	23.5
	동아일보	29	40584	1,399	559	19.3
	중앙일보	28	40205	1,436	462	16.5
	서울신문	37	47477	1,283	584	15.8
지방지	대전일보	26	51204	1,969	539	20.7
	강원일보	17	21128	1,243	306	18.0
	광주일보	19	25772	1,356	241	12.7
	부산일보	19	26108	1,374	232	12.2
	경북일보	18	24149	1,342	328	18.2
	제주일보	22	22361	1,016	376	17.1
계		303	433,739		5,456	

<표3: 신문별 기사당 평균 잘못 통계표>

3) 조사한 전체 글자 수를 전체 기사 수로 나눈 것으로 평균을 삼은 수치임.

위 표에서 기사당 잘못 개수를 보면 신문별로 12개에서 23개까지 편차가 무척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조정을 거친다면 이 차이는 좀 줄어들 소지가 있지만 적어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중앙지 가운데에서 조선일보 기사에 평균 23.5개의 잘못이 발견되었고, 한겨레신문에 기사당 평균 21개의 잘못이 발견되어 단순히 보면 이 두 신문이 중앙지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지 가운데에서는 대전일보가 기사당 평균 20.7개의 잘못을 보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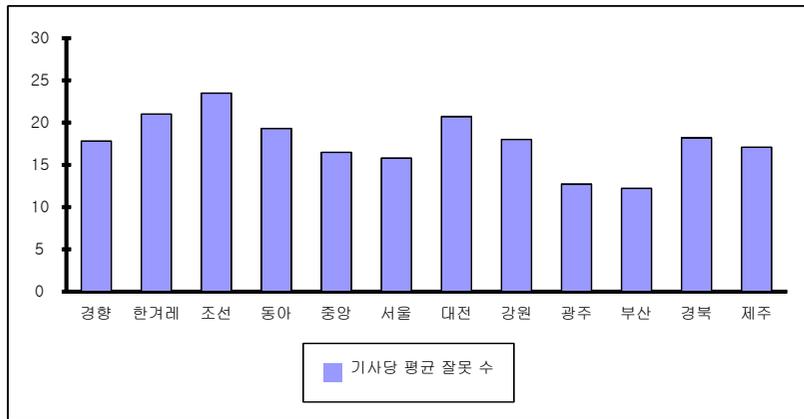
다만 이 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의 비교이기 때문에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기엔 무리가 있다. 조사한 기사의 수와 기사의 길이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야 비로소 신문별 비교를 할 수 있다.

(5) 신문별, 조사 항목별 잘못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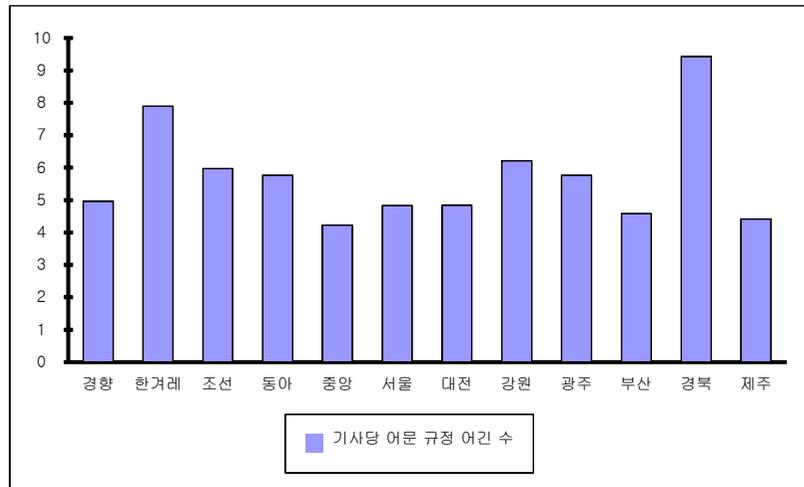
유형	경향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서울	강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	제주	
어문규정	띄어쓰기	72	138	97	47	60	96	58	95	82	42	104	74
	철자	2		2	6	4	1	4	10	3	4	10	5
	외국문자, 한자	24	6	42	20	45	28	5	19	4	7	11	12
	문장 부호	53	61	66	44	52	27	22	40	13	26	30	5
	기타	1	4	10	1	1	7	2	8	1	4	3	1
	계	152	209	217	118	162	159	91	172	103	83	158	97
<b>기사당 개수</b>	4.96	<b>7.9</b>	5.97	4.23	5.76	4.83	6.21	4.84	5.76	4.58	<b>9.43</b>	4.41	
어휘	어휘 잘못 사용	25	23	36	15	20	25	8	14	17	5	14	15
	비표준어	1		6	3	1	1		3		2	2	1
	비속어, 은어	1	5	3	3						1		
	어려운 어휘	24	49	28	23	34	37	16	21	5	9	4	15
	외국어, 외래어	57	34	79	92	83	82	52	77	22	30	25	23
	부적절한 어휘	16	13	18	8	6	22	4	5	1	2	3	27
	기타	4	8	8	3	12	4		16	11	5		8
	계	128	132	178	147	156	171	80	136	56	54	48	89
	<b>기사당 개수</b>	4.18	4.99	4.9	5.27	5.54	5.19	5.46	3.83	3.13	2.98	2.87	4.05
문법	조사, 어미	44	41	78	40	56	52	16	43	10	20	39	41
	호응, 일치	32	20	44	21	21	32	8	14	1	11	19	22
	누락, 생략	57	48	58	44	52	46	33	40	1	11	29	5
	상투어, 비국어투	41	48	22	24	20	35	38	48	33	18	11	21
	모호함, 난해함	12	8	14	21	19	15	6	11		2	5	8
	비논리, 억지	9	1	29	4	7	10		6		3	2	5
	저속함	1	1	4			1		1		1		
	맥락에 어긋남	19	24	24	18	27	32	15	23	11	10	5	39
	기타	24	26	19	10	18	18	16	30	24	9	7	31
	계	239	217	292	182	220	241	132	216	80	85	117	172
<b>기사당 개수</b>	7.8	8.2	8.04	6.53	7.82	7.32	9.01	6.08	4.48	4.69	6.99	7.82	
공공성	폭력적, 전투적	4		5	6	6	3	1	8	1	1	2	
	차별, 비하	4	6	6		2	2	1	1	1	6	2	
	선정적, 과장	5	1	17	6	4	4	1	5		3	3	14
	기타	1	3	13	3	9	4		1			2	
	계	14	10	41	15	21	13	3	15	2	10	6	18
<b>기사당 개수</b>	0.46	0.38	1.13	0.54	0.75	0.39	0.2	0.42	0.11	0.55	0.36	0.82	
합계(기사당 개수)	533 (17.8)	568 (21.0)	728 (23.5)	462 (16.5)	559 (19.3)	584 (15.8)	306 (18)	539 (30.7)	241 (12.7)	232 (12.2)	328 (18.2)	376 (17.1)	

<표4: 신문별, 조사 항목별 잘못 통계표>

위의 표는 조사 기초 자료를 단순히 활용하여 신문별로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의 잘못을 했는지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 자료도 가공한 것이 아니므로 신문 평가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통계는 다양한 자료 가공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수로 환산할 예정이다.



기사당 평균 잘못을 보면 중앙지 가운데에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높고, 지방지 가운데에서는 경북일보가 가장 높다. 서울신문이 중앙지 가운데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았고, 부산일보가 지방지 가운데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았다.



어문 규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어긴 신문은 중앙지 가운데에서는 기사당 7.9개를 어긴 한겨레신문이고, 지방지 가운데에서는 기사당 9.43개 어긴 경북일보임을 알 수 있다. 중앙지 가운데에서는 중앙일보가 어문 규정을 잘 지켰고, 지방지 가운데에서는 제주일보가 비교적 어문규범을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6) 기사 종류별 조사 결과

아래 표는 기사 종류별로 잘못 개수를 보여 주되, 신문별로 기사당 평균 잘못을 산출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사는 평균 1442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못 개수를 글자 개수로 곱한 값에 1442를 곱하여 한 기사당 있을 수 있는 잘못의 수를 산출하였다.

이 표를 보면 보도 기사, 주장 기사, 해설 기사를 어느 신문이 가장 정확하게 쓰고 어느 신문이 가장 부정확하게 썼는지 알 수 있다.

<중앙지>

종류	신문	기사 개수(P)	글자 개수(Q)	잘못 개수(F)	글자 수 대비 잘못 비율(F÷Q)	기사당 평균 잘못 개수 (F÷Q×1442)
보도 기사	경향신문	13	19432	261	0.013432	19.3689
	한겨레신문	10	15153	210	0.013859	19.9847
	조선일보	7	12838	128	0.009971	14.3782
	중앙일보	7	8471	118	0.013930	20.0871
	동아일보	8	9351	157	0.016790	24.2112
	서울신문	15	20949	294	0.014034	20.2370
	<b>계</b>	<b>60</b>	<b>86,194</b>	<b>1,168</b>	<b>0.013551</b>	<b>19.5405</b>
주장 기사	경향신문	7	12024	98	0.008151	11.7538
	한겨레신문	8	13919	192	0.013794	19.8909
	조선일보	15	25113	370	0.014734	21.2465
	중앙일보	11	17773	183	0.010297	14.8483
	동아일보	13	19845	238	0.011993	17.2939
	서울신문	10	12223	134	0.010963	15.8086
	<b>계</b>	<b>64</b>	<b>100,897</b>	<b>1,215</b>	<b>0.012042</b>	<b>17.3646</b>
해설 기사	경향신문	10	12745	174	0.013653	19.6876
	한겨레신문	9	9076	166	0.018290	26.3742
	조선일보	9	14451	230	0.015916	22.9509
	중앙일보	10	13961	161	0.011533	16.6306
	동아일보	8	11388	164	0.014402	20.7677
	서울신문	12	14305	156	0.010906	15.7265
	<b>계</b>	<b>58</b>	<b>75,926</b>	<b>1,051</b>	<b>0.013843</b>	<b>19.9616</b>
합계	경향신문	30	44201	533	0.012059	17.3891
	한겨레신문	27	38148	568	0.014890	21.4714
	조선일보	31	52402	728	0.013893	20.0337
	중앙일보	28	40205	462	0.011492	16.5715
	동아일보	29	40584	559	0.013774	19.8621
	서울신문	37	47477	584	0.012301	17.7380
	<b>계</b>	<b>182</b>	<b>263,017</b>	<b>3,434</b>	<b>0.013057</b>	<b>18.8282</b>

<표5: 중앙지 기사 종류별, 신문별 기사당 평균 잘못 통계표>

보도 기사를 가장 정확하게 쓴 신문은 조선일보였는데 한 기사당 평균 14개 남짓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는 기사당 평균 24개의 잘못을 저질렀다. 동아일보는 보도 기사를 더 정확하게 쓰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주장 기사를 가장 정확하게 쓴 신문은 경향신문이었는데 한 기사당 12개 조금 못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비해서 조선일보는 기사당 21개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 기사를 가장 정확하게 쓴 신문은 서울신문이었다. 서울신문은 한 기사당 15개 남짓 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에 비해 한겨레신문은 한 기사당 26개의 잘못을 저질렀다.

<지방지>

구분	신문	기사 개수(P)	글자 개수(Q)	잘못 개수(F)	글자 수 대비 잘못 비율(F÷Q)	기사당 평균 잘못 개수 (F÷Q×1442)
보도 기사	대전일보	7	25772	172	0.006674	9.6239
	광주일보	5	7746	83	0.010716	15.4525
	강원일보	8	9169	151	0.016469	23.7483
	부산일보	8	11775	108	0.009172	13.2260
	경북일보	7	9094	122	0.013416	19.3459
	제주일보	8	8677	174	0.020053	28.9164
	<b>계</b>	<b>43</b>	<b>72,233</b>	<b>810</b>	<b>0.011244</b>	<b>16.2138</b>
주장 기사	대전일보	13	17441	251	0.014392	21.5319
	광주일보	9	9125	71	0.007781	11.2202
	강원일보	5	6837	78	0.011409	16.4518
	부산일보	6	8167	75	0.009184	13.2433
	경북일보	4	5382	56	0.010405	15.0040
	제주일보	7	6819	134	0.019651	28.3367
	<b>계</b>	<b>44</b>	<b>53,771</b>	<b>665</b>	<b>0.012347</b>	<b>17.8044</b>
해설 기사	대전일보	6	7991	116	0.014517	20.9335
	광주일보	5	8901	87	0.009775	14.0956
	강원일보	4	5122	77	0.015034	21.6790
	부산일보	5	6166	49	0.007947	11.4596
	경북일보	7	9673	150	0.015507	22.3611
	제주일보	7	6865	68	0.009905	18.2835
	<b>계</b>	<b>34</b>	<b>44,718</b>	<b>547</b>	<b>0.013671</b>	<b>19.7136</b>
합계	대전일보	26	51204	539	0.010527	15.1799
	광주일보	19	25772	241	0.009352	13.4856
	강원일보	17	21128	306	0.014484	20.8859
	부산일보	19	26108	232	0.008887	12.8151
	경북일보	18	24149	328	0.013583	19.5867
	제주일보	22	22361	376	0.001681	24.2472
	<b>계</b>	<b>121</b>	<b>170,722</b>	<b>2,022</b>	<b>0.011844</b>	<b>17.0788</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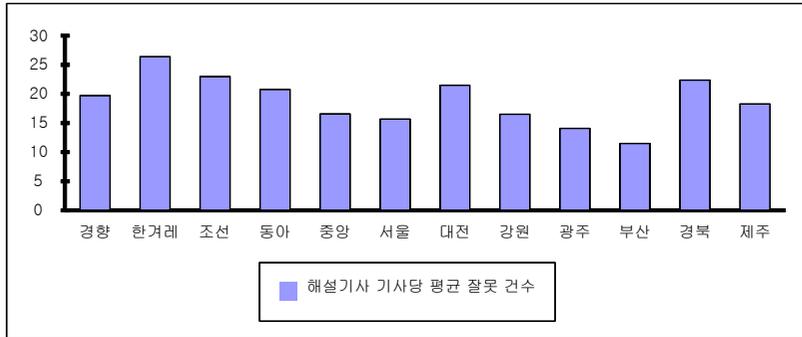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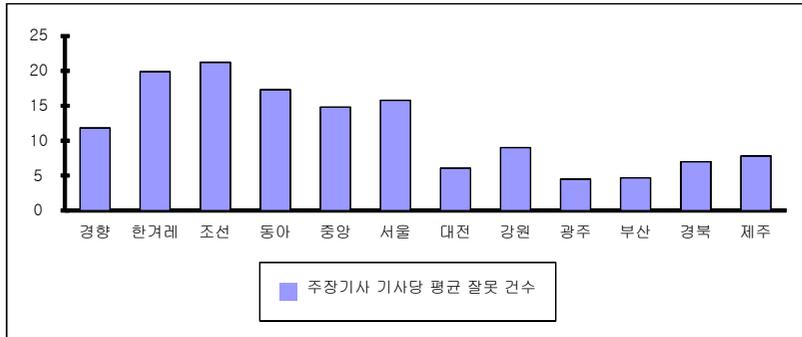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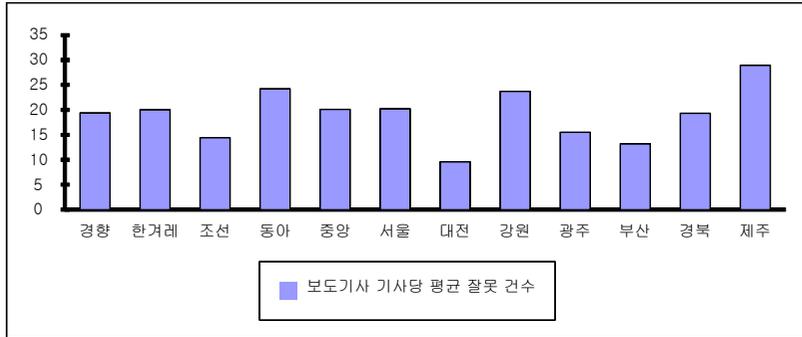
<표6: 지방지 기사 종류별, 신문별 기사당 평균 잘못 통계표>

한편 지방지 가운데에서는 대전일보가 보도 기사를 가장 정확하게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일보가 보도 기사당 9개 남짓 되는 잘못을 한 데 그친 반면에 제주일보는 기사당 무려 29개의 잘못을 범했다.

주장 기사는 광주일보가 가장 정확하게 작성하였고(기사당 11개 남짓 잘못을 범

함) 제주일보가 가장 부정확하게 기사를 작성했다(기사당 28개 이상의 잘못을 범함).

해설 기사는 부산일보가 가장 정확하게 썼고(기사당 13개쯤 잘못을 범함), 경북일보가 가장 부정확하게 기사를 썼음(기사당 22.361개)을 알 수 있다. 이런 평가는 대단히 단편적이어서 실제 신문별 기사 내용의 국어 사용 실태로 신문별 성적을 매기려면 상당한 보완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 기사의 양 조정 계수(D) 적용

앞의 표에서 구한 R값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삼아 신문별 조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조정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조정 계수(D계수)를 산출한다. D계수는 R의 평균값을 신문별 R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중앙지 R 평균값:  $260,813 \div 6 = 43469$

지방지 R 평균값:  $166,020 \div 6 = 27670$

\* 중앙지 D 조정 계수(=R 평균값 ÷ 신문별 R 값)

경향신문 0.9834, 한겨레 1.0266, 조선일보 0.8552, 중앙일보 1.0105, 동아일보 1.0359, 서울신문 1.1304

\* 지방지 D 조정 계수(=R 평균값 ÷ 신문별 R 값)

대전일보 0.7027, 광주일보 1.0196, 강원일보 1.1132, 부산일보 1.0065, 경북일보 1.0312, 제주일보 1.3613

신문	조사한 글자 개수(R)	조정 계수(D)	조정된 글자 개수(I=R×D)
경향신문	44201	0.9834	43,467
한겨레신문	42344	1.0266	43,470
조선일보	50,830	0.8552	43,470
중앙일보	43019	1.0105	43,471
동아일보	41963	1.0359	43,469
서울신문	38456	1.1304	43,471
중앙지 합계	260,813		260,818
대전일보	39376	0.7027	27,670
광주일보	27138	1.0196	27,670
강원일보	24856	1.1132	27,670
부산일보	27492	1.0065	27,671
경북일보	26832	1.0312	27,669
제주일보	20326	1.3613	27,670
지방지 합계	166,020		166,020

<표8: 조정 계수 D를 적용하여 조사 글자 수를 조정한 신문별 조사량 통계표>

위 표를 보면 조정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I)가 중앙지와 지방지별로 고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별도로 평가하게 된다. 중앙지는 신문별로 30개 기사에 기사량 43,460여 자를 조사한 셈이고, 지방지는 20개 기사에 기사량 27,670개 안팎을 조사한 셈이다. 이에 근거하여 항목별 조사 개수를 환산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겠다.

## (3) 종합 조정 계수(A)

기사의 수 조정 계수와 기사의 양 조정 계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사량에 이 두 조정 계수를 곱하여야 하므로 결국 신문별 종합 조정 계수는 이 두 조정 계수를 곱한 값을 알 수 있다.

신문별 종합 조정 계수(A) = 기사 수 조정 계수(E) × 기사 양 조정 계수(G)

이 산식에 따라서 신문별 종합 조정 계수를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신문별 조사 결과를 A 조정 계수를 이용해서 환산하면 비교적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A 조정 계수는 조사 기사의 수를 일정하게 한 값이고, 조사 기사의 양을 일정하게 한 값을 한꺼번에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

분류	신문	E 조정 계수	D 조정 계수	A 조정 계수	비고
중앙지	경향신문	1.0	0.9834	<b>0.9834</b>	
	한겨레신문	1.11	1.0266	<b>1.1395</b>	
	조선일보	0.97	0.8552	<b>0.8295</b>	
	중앙일보	1.07	1.0105	<b>1.0812</b>	
	동아일보	1.034	1.0359	<b>1.0711</b>	
지방지	서울신문	0.81	1.1304	<b>0.9156</b>	
	대전일보	0.769	0.7027	<b>0.5404</b>	
	광주신문	1.053	1.0196	<b>1.0736</b>	
	강원일보	1.176	1.1132	<b>1.3091</b>	
	부산일보	1.053	1.0065	<b>1.0598</b>	
	경북일보	1.111	1.0312	<b>1.1457</b>	
	제주일보	0.909	1.3613	<b>1.2374</b>	

<표 9: 신문별 종합 조정 계수>

라서 총량 조사 결과를 이 조정 계수로 조정한 값으로 신문사별 순위를 매길 수 있다.

(4) 신문별, 항목별 잘못 개수

제3절 조사 총량의 신문별, 조사 항목별 잘못 개수를 A계수를 적용하여 신문 기사에서 찾은 잘못의 총량(Q\*A)을 산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중앙 일간지 조사표>

항목 유형	경향		한겨레		조선		중앙		동아		서울		
	A=0.9834	A=1.1395	A=0.8295	A=1.0812	A=1.0711	A=0.9156	Q	Q*A	Q	Q*A	Q	Q*A	
어문규정	띄어쓰기	72	70.8	138	157.3	97	80.5	47	50.8	60	64.3	96	87.9
	철자	2	2	0	0	2	1.7	6	6.5	4	4.3	1	0.9
	외국문자, 한자	24	23.6	6	6.8	42	34.8	20	21.6	45	48.2	28	25.6
	문장 부호	53	52.1	61	69.5	66	54.7	44	47.6	52	55.7	27	24.7
	기타	1	1	4	4.6	10	8.3	1	1	1	1	7	6.4
	계	151	149.5	209	238.2	217	180	118	127.5	162	173.5	159	145.5
어휘	어휘 잘못 사용	25	24.6	23	26.2	36	29.9	15	16.2	20	21.4	25	22.9
	비표준어	1	1	0	0	6	5	3	3.2	1	1	1	0.9
	비속어, 은어	1	1	5	5.7	3	2.5	3	3.2	0	0	0	0
	어려운 어휘	24	23.6	49	55.8	28	23.2	23	24.9	34	36.4	37	33.9
	외국어, 외래어	57	56.1	34	38.7	79	65.5	92	99.5	83	88.9	82	75.1
	부적절한 어휘	16	15.7	13	14.8	18	14.9	8	8.6	6	6.4	22	20.1
문법	기타	4	3.9	8	9.1	8	6.6	3	3.2	12	12.9	4	3.7
	계	128	125.9	132	150.3	178	147.6	147	158.8	156	167	171	156.6
	조사, 어미	44	43.3	41	46.7	78	64.7	40	43.2	56	60	52	47.6
	호응, 일치	32	31.5	20	22.8	44	36.5	21	22.7	21	22.5	32	29.3
	누락, 생략	57	56.1	48	54.7	58	48.1	44	47.6	52	55.7	46	42.1
	상투어, 비국어투	41	40.3	48	54.7	22	18.2	24	25.9	20	21.4	35	32
공공성	모호함, 난해함	12	11.8	8	9.1	14	11.6	21	22.7	19	20.4	15	13.7
	비논리, 억지	9	8.9	1	1.1	29	24.1	4	4.3	7	7.5	10	9.2
	저속함	1	1	1	1.1	4	3.3	0	0	0	0	1	0.9
	맥락에 어긋남	19	18.7	24	27.3	24	19.9	18	19.5	27	28.9	32	29.3
	기타	24	23.6	26	29.6	19	15.8	10	10.8	18	19.3	18	16.5
	계	239	235.2	217	247.1	292	242.2	182	196.7	220	235.7	241	220.6
공공성	폭력적, 전투적	4	3.9	0	0	5	4.1	6	6.5	6	6.4	3	2.7
	차별, 비하	4	3.9	6	6.8	6	5	0	0	2	2.1	2	1.8
	선정적, 과장	5	4.9	1	1.1	17	14.1	6	6.5	4	4.3	4	3.7
	기타	1	1	3	3.4	13	10.8	3	3.2	9	9.6	4	3.7
	계	14	13.7	10	11.3	41	34	15	16.2	21	22.4	13	11.9
합계	533	524.2	598	678.8	728	603.9	462	499.5	559	598.7	584	534.7	

<표10: 신문별 A조정 계수를 적용한 중앙지 신문별, 항목별 잘못 통계표>

<지방 일간지 조사표>

항목 유형	강원		대전		광주		부산		경북		제주		
	A=1.3091	A=0.5404	A=1.0736	A=1.0598	A=1.1457	A=1.2374	Q	Q*A	Q	Q*A	Q	Q*A	
어문규정	띄어쓰기	58	75.9	95	51.3	82	88	42	44.5	104	119.2	74	91.6
	철자	4	5.2	10	5.4	3	3.2	4	4.2	10	11.5	5	6.2
	외국문자, 한자	5	6.5	19	10.3	4	4.3	7	7.4	11	12.6	12	14.8
	문장 부호	22	28.8	40	21.6	13	14	26	27.6	30	34.4	5	6.2
	기타	2	2.6	8	4.3	1	1	4	4.2	3	3.4	1	1.2
	계	91	119	172	92.9	102	110.5	83	87.9	158	181.1	97	120
어휘	어휘 잘못 사용	8	10.5	14	7.6	17	18.3	5	5.3	14	16	15	18.6
	비표준어	0	0	3	1.6	0	0	2	2.1	2	2.3	1	1.2
	비속어, 은어	0	0	0	0	0	0	1	1	0	0	0	0
	어려운 어휘	16	20.9	21	11.3	5	5.4	9	9.5	4	4.6	15	18.6
	외국어, 외래어	52	68.1	77	41.6	22	23.6	30	31.8	25	28.6	23	28.5
	부적절한 어휘	4	5.2	5	2.7	1	1	2	2.1	3	3.4	27	33.4
문법	기타	0	0	16	8.6	11	11.8	5	5.3	0	0	8	9.9
	계	80	104.7	136	73.4	56	60.1	54	57.1	48	54.9	89	110.2
	조사, 어미	16	20.9	43	23.2	10	10.7	20	21.2	39	44.7	41	50.7
	호응, 일치	8	10.5	14	7.6	1	1	11	11.7	19	21.8	22	27.2
	누락, 생략	33	43.2	40	21.6	1	1	11	11.7	29	33.2	5	6.2
	상투어, 비국어투	38	49.7	48	25.9	33	35.4	18	19.1	11	12.6	21	26
공공성	모호함, 난해함	6	7.9	11	5.9	0	0	2	2.1	5	5.7	8	9.9
	비논리, 억지	0	0	6	3.2	0	0	3	3.2	2	2.3	5	6.2
	저속함	0	0	1	0.5	0	0	1	1	0	0	0	0
	맥락에 어긋남	15	19.6	23	12.4	11	11.8	10	10.6	5	5.7	39	48.3
	기타	16	20.9	30	16.2	24	25.8	9	9.5	7	8	31	38.4
	계	132	172.7	216	116.5	80	85.7	85	90.1	30	34.3	172	212.9
공공성	폭력적, 전투적	1	1.3	8	4.3	1	1	1	1	1	1.1	2	2.5
	차별, 비하	1	1.3	1	0.5	1	1	6	6.4	2	2.3	0	0
	선정적, 과장	1	1.3	5	2.7	0	0	3	3.2	3	3.4	14	17.3
	기타	0	0	1	0.5	0	0	0	0	0	0	2	2.5
	계	3	3.9	15	8	2	2	10	10.6	6	6.8	18	22.3
합계	306	400.6	539	291.3	241	258.7	232	245.9	328	375.8	376	465.3	

<표11: 신문별 A조정 계수를 적용한 지방지 신문별, 항목별 잘못 통계표>

(5) 가중치(M) 부여

조사 내용 가운데 각 항목 유형이 같은 중요도로 평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예컨대 띄어쓰기 잘못과 문장 구성 잘못을 같은 중요도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경우와 단어를 상황에 맞지 않게 쓴 경우를 같은 중요도로 평가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각 항목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가중치는 이 조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어문기자협회 소속 어문기자 4명의 의견을 들어 평균치를 가중치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얻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중치 결정표>

요소	항목	가중치(M)					
		1	2	3	4	계	평균
1. 어문 규정	1-1.띄어쓰기	중	하	중	중	5.5	1.375
	1-2.철자와 외래어 표기	상	중	상	상	7.5	1.875
	1-3.외국 문자, 한자	중	상	하	상	6.5	1.625
	1-4.문장 부호	하	하	중	중	5	1.25
	1-5.기타	하	중	하	하	4.5	1.125
2. 어휘	2-1.잘못 사용한 어휘	상	중	상	상	7.5	1.875
	2-2.비표준어	상	하	하	중	5.5	1.375
	2-3.비속어, 은어	중	중	중	상	6.5	1.625
	2-4.어려운 어휘	중	상	중	상	7	1.75
	2-5.외국어, 외래어	하	중	하	상	5.5	1.375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중	중	상	상	7	1.75
	2-7.기타	하	중	하	하	4.5	1.125
3. 문법, 표현	3-1.조사, 어미 잘못	상	중	상	상	7.5	1.875
	3-2.호응, 일치 잘못	상	상	상	상	8	2
	3-3.누락, 생략 잘못	중	중	상	상	7	1.75
	3-4.상투어, 비국어투	하	중	하	상	5.5	1.375
	3-5.모호함, 난해함	중	상	상	상	7.5	1.875
	3-6.비논리, 모순, 비약	중	상	상	상	7.5	1.875
	3-7.지속한 표현	상	상	중	상	7.5	1.875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중	상	상	상	7.5	1.875
	3-9.기타	하	중	하	하	4.5	1.125
4. 공공성	4-1.폭력, 전투, 위협	상	중	중	상	7	1.75
	4-2.차별, 비하	상	상	상	상	8	2
	4-3.선정, 과장	중	상	상	상	7.5	1.875
	4-4.기타	하	중	하	하	4.5	1.125

<표12: 항목별 가중치>

위 표에서 가중치란에 적힌 번호는 자문위원 번호이고, 가중치를 자문위원이 상·중·하로 나눈 것에 점수를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상’에는 2점, ‘중’에는 1.5점, ‘하’에는 1점을 배정하였다. 상하의 점수차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가중치에 따라서

점수가 지나치게 편향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배로 제한하였다. 평균치를 그 유형의 가중치로 사용하여 이제까지의 신문별 결과를 곱하면 그 신문의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하게 된다.

(6) 신문별 점수 계산 및 성적 순위 매기기

A 계수를 적용하여 신문별, 조사 요소 유형별 점수(Q\*A)에 위의 가중치(M)를 곱하면 각 신문의 점수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서 각 신문의 점수를 환산하면 아래와 같다.

$$\text{신문별 점수} = Q * A * M$$

<중앙 일간지 점수표>

구분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Q*A	Q*A*M	Q*A	Q*A*M	Q*A	Q*A*M	Q*A	Q*A*M	Q*A	Q*A*M	Q*A	Q*A*M	
어문 규정	띄어쓰기	70.8	97.4	157.3	216.3	80.5	110.7	50.8	69.9	64.3	88.4	87.9	153.8
	철자	2	3.8	0	0	1.7	3.2	6.5	12.2	4.3	8.1	0.9	1.7
	외국문자, 한자	23.6	38.4	6.8	11.1	34.8	56.6	21.6	35.1	48.2	78.3	25.6	41.6
	문장 부호	52.1	65.1	69.5	86.9	54.7	68.4	47.6	59.5	55.7	69.6	24.7	30.9
	기타	1	1.1	4.6	5.2	8.3	9.3	1	1.1	1	1.1	6.4	7.2
계	149.5	205.8	238.2	319.5	180	248.2	127.5	177.8	173.5	245.5	145.5	235.2	
어휘	어휘 잘못 사용	24.6	46.1	26.2	49.1	29.9	56.1	16.2	30.4	21.4	40.1	22.9	42.9
	비표준어	1	1.4	0	0	5	6.9	3.2	4.4	1	1.4	0.9	1.2
	비속어, 은어	1	1.6	5.7	9.3	2.5	4.1	3.2	5.2	0	0	0	0
	어려운 어휘	23.6	41.3	55.8	97.7	23.2	40.6	24.9	43.6	36.4	63.7	33.9	59.3
	외국어, 외래어	56.1	77.1	38.7	53.2	65.5	90.1	99.5	136.8	88.9	122.2	75.1	103.3
	부적절한 어휘	15.7	27.5	14.8	25.9	14.9	26.1	8.6	15.1	6.4	11.2	20.1	35.2
	기타	3.9	4.4	9.1	10.2	6.6	7.4	3.2	3.6	12.9	14.5	3.7	4.2
	계	125.9	199.4	150.3	245.4	147.6	231.3	158.8	239.1	167	253.1	156.6	246.1
	문법	조사, 어미	43.3	81.2	46.7	87.6	64.7	121.3	43.2	81	60	112.5	47.6
호응, 일치	31.5	63	22.8	45.6	36.5	73	22.7	45.4	22.5	45	29.3	58.6	
누락, 생략	56.1	98.2	54.7	95.7	48.1	84.2	47.6	83.3	55.7	97.5	42.1	73.7	
상투어, 비국어투	40.3	55.4	54.7	75.2	18.2	25	25.9	35.6	21.4	29.4	32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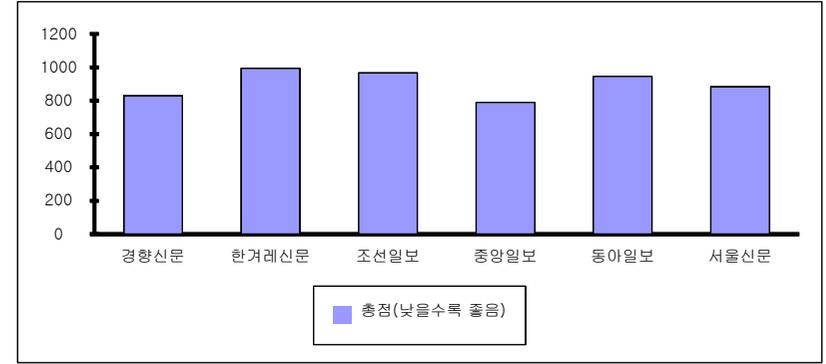
모호함, 난해함	11.8	22.1	9.1	17.1	11.6	21.8	22.7	42.6	20.4	38.3	13.7	25.7	
비논리, 억지	8.9	16.7	1.1	2.1	24.1	45.2	4.3	8.1	7.5	14.1	9.2	17.3	
저속함	1	1.9	1.1	2.1	3.3	6.2	0	0	0	0	0.9	1.7	
맥락 어긋남	18.7	35.1	27.3	51.2	19.9	37.3	19.5	36.6	28.9	54.2	29.3	54.9	
기타	23.6	26.6	29.6	33.3	15.8	17.8	10.8	12.2	19.3	21.7	16.5	18.6	
계	235.	400.	247.	409.	242.2	431.	196.	344.	235.	412.	220.	383.	
	2	2	1	9	8	7	8	7	7	7	6	8	
공 공 성	폭력적, 전투적	3.9	6.8	0	0	4.1	7.2	6.5	11.4	6.4	11.2	2.7	4.7
	차별, 비하	3.9	7.8	6.8	13.6	5	10	0	0	2.1	4.2	1.8	3.6
	선정적, 과장	4.9	9.2	1.1	2.1	14.1	26.4	6.5	12.2	4.3	8.1	3.7	6.9
	기타	1	1.1	3.4	3.8	10.8	12.2	3.2	3.6	9.6	10.6	3.7	4.2
계	13.7	24.9	11.3	19.5	34	55.8	16.2	27.2	22.4	34.1	11.9	19.4	
합계	524.	830.	678.	994.	603.9	967.	499.	788.	598.	945.	534.	884.	
	2	3	8	3	1	5	9	7	4	7	5		

<표13: 가중치를 적용한 중앙지 신문별, 항목별 점수표>

### <중앙 일간지 성적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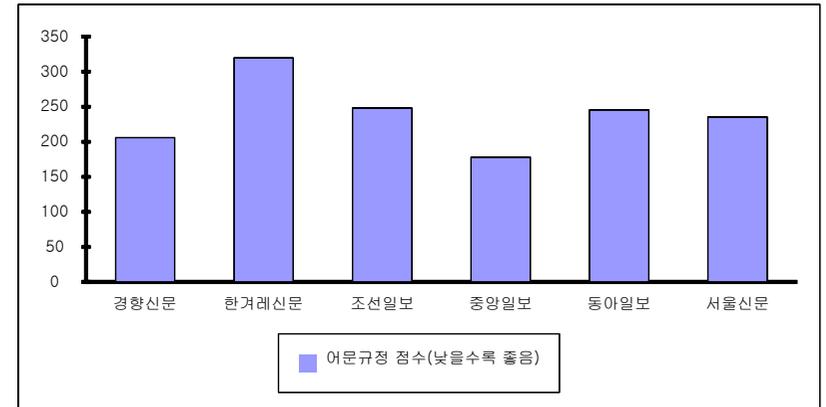
#### 총점

신문 이름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총점	830.3	994.3	967.1	788.9	945.4	884.5
잘한 순위	2	6	5	1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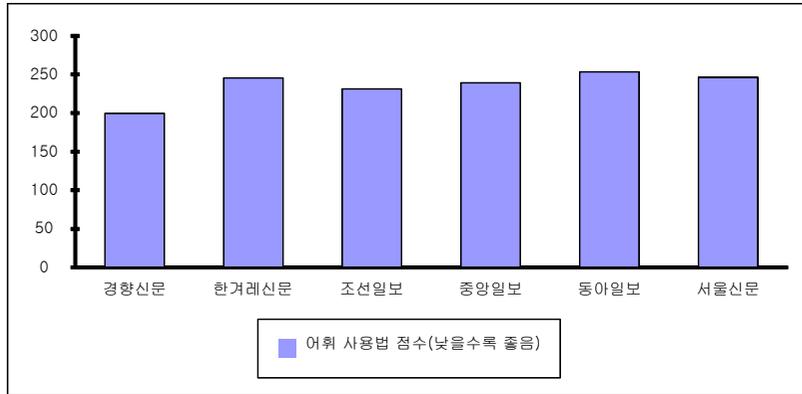
#### 어문 규정 위반

신문 이름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점수	205.8	319.5	248.2	177.8	245.5	235.2
잘한 순위	2	6	5	1	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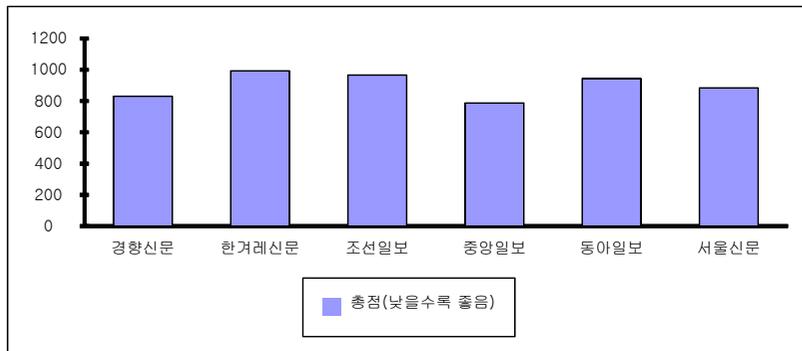
**어휘 사용법 위반**

신문 이름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점수	199.4	245.4	231.3	239.1	253.1	246.1
잘한 순위	1	4	2	3	6	5



**문법 위반**

신문 이름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점수	400.2	409.9	431.8	344.8	412.7	383.8
잘한 순위	3	4	6	1	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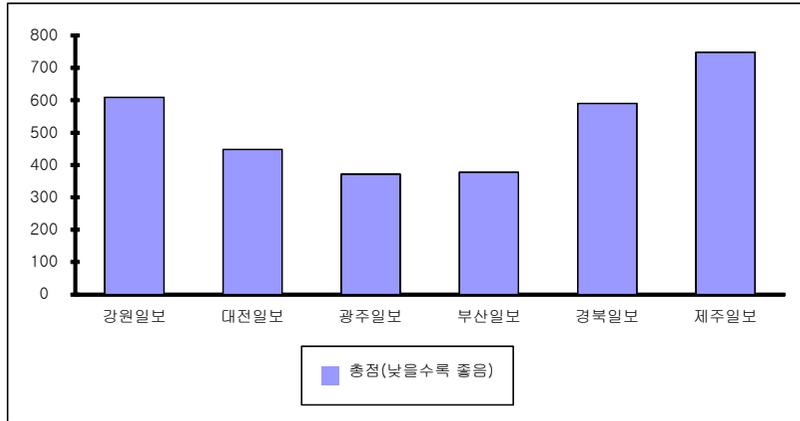
**공공성 순위**

신문 이름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점수	24.9	19.5	55.8	27.2	34.1	19.4
잘한 순위	3	2	6	4	5	1

<지방 일간지 성적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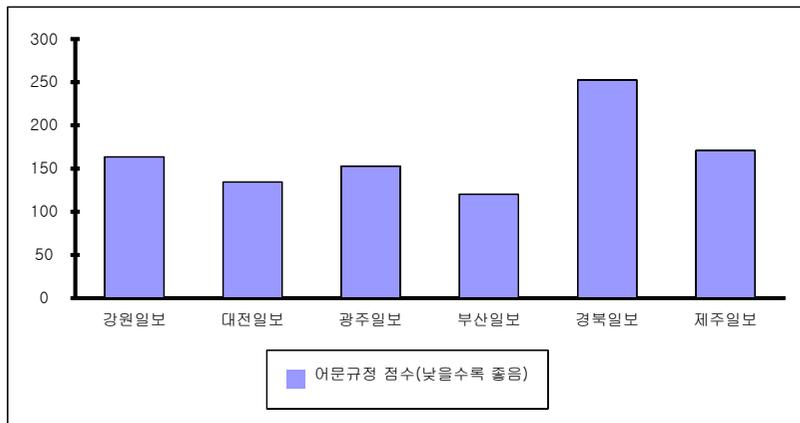
총점

신문 이름	강원일보	대전일보	광주일보	부산일보	경북일보	제주일보
총점	609.2	447.9	371.5	377.7	589.8	748.7
잘한 순위	5	3	1	2	4	6



어문 규정 위반

신문 이름	강원일보	대전일보	광주일보	부산일보	경북일보	제주일보
총점	163.7	134.5	152.6	120.3	252.8	170.9
잘한 순위	4	2	3	1	6	5



## (7) 종합 판단

신문 언어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아래 몇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① <표1>에서 본 것처럼 우리 신문이 기사당 18개 이상의 각종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정도로 언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② <표2>에서 본 것처럼 지방지에 비해서 중앙지가 언어를 더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

③ <표3>에서 본 것처럼 신문별로 잘못이 크게 차이가 났다. 특히 서울의 우수한 신문이 지방의 조그만 신문에 비해서 언어 사용상 잘못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 이유를 유심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④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별로 어느 항목에 더 약점이 있는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과 경북일보는 어문 규정을 어긴 사례가 아주 많았다. 이에 비해 강원일보와 한겨레신문, 조선일보는 문법을 많이 어겼다. 특히 어문 규정을 많이 어긴 신문은 자체 띄어쓰기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⑤ <표5>에서 보듯이 기사 종류별로 보면 중앙지에서는 주장 기사가 비교적 보도 기사나 해설 기사에 비해서 언어 사용이 더 나음을 알 수 있다. 신문별로 보면 조선일보가 보도 기사에 비교적 강하고, 경향신문이 주장 기사에 강하며, 서울신문이 해설 기사에 조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표6>에서는 지방지의 경우 해설 기사가 다른 기사에 비해서 더 나은 모습이고, 대전일보가 보도 기사에 강하고, 광주일보가 주장 기사에 강하며, 부산일보가 해설 기사에 강한 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⑥ <표13>에서 보는 것처럼 조정 계수로 조사량을 조정하고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니 신문별 성적 순위가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냈다. 중앙지 가운데에서는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비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이 비교적 좋은 성적을 얻었다. 중앙일보가 어문 규정을 잘 지킨 데 반해 한겨레신문은 어문 규정을 아주 많이 어겼다.

⑦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지에서는 광주일보와 부산일보가 성적이 좋았고, 제주일보와 강원일보가 성적이 나빴다. 특히 경북일보는 어문 규정을 많이 어긴 것이 눈에 띄었다. 제주일보는 어휘 사용법과 문법에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결과 활용 방안

실태 조사를 시작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신문사별 언어 사용 성적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신문이 언어 사용에서 어떤 점을 놓치고 있고 어떤 점에 착안하여 언어 훈련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앞으로 신문 언어 개선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사자의 시각으로 이 자료의 활용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 신문 언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언론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이번 조사 대상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고 독자가 많은 신문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른바 유력한 신문에서 언어 사용상 많은 잘못이 있음이 드러났다면 전체적으로 신문 언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표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모든 신문을 평균하였을 때에 표준 기사(문장이 1442자로 된 기사)당 18개 남짓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신문으로서 가법계 넘길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2개 신문 평균보다 더 많은 잘못을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 신문은 어떤 경로로든지 사회에 사과하고 자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신문사의 여러 사정이 개입하여 언어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었을 수도 있겠지만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사정으로도 기사의 언어적 잘못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2) 신문 언어를 정립하는 기초 자료: 이번 조사는 신문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 신문 언어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준을 만들어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공공언어의 일반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한 것이므로, 신문 언어의 특성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신문 언어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문 규정 가운데에서 신문의 특성을 양해하여 규범의 적용을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 외국어 사용이나 표현에서 신문의 특수성으로 양해하여 규정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문제는 신문사와 국립국어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머지않아 보편성 있는 신문 언어 사용 지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3) 기자 맞춤형 교육용 자료: 이번 조사 결과에는 신문사별, 기사별로 어떤 항목에서 더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도록 표를 제시해 놓았다. 예를 들면 어문 규정의 경우 한겨레신문이 가장 많이 범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 띄어쓰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이 많았다. 그러므로 한겨레신문사는 기자들의 띄어쓰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는 문법을 어긴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그 가운데 조사와 어미를 부정확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자들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는 어휘 사용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가운데 외국어, 외래어 사용이 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기자들에게 외국어,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4) 신문 언어 지표 조사 자료: 이번 조사 결과는 신문 언어를 조사하여 성적을 매길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번에는 어문 규정에 5개 항목, 어휘에 7개 항목, 문법에 9개 항목, 태도에 4개 항목 모두 25개 항목을 지표로 활용하였는데 이를 대폭 줄여 단순화하고 각 지표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중치를 주어 매년 신문 언어 지표 조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띄어쓰기, 어려운 낱말 항목 등 개별 항목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용할 수 있다면 지표 조사 결과가 한결 설득력이 생길 것이다. 신문 언어 지표 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언어 지표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공공언어 전 부문을 아우르는 지표 조사 결과를 언어 국가 언어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신문의 성향과 언어 사용의 상관관계 연구 자료: 이번 조사에서 결과를 끌어 내지는 않았지만 신문의 성향과 언어 사용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결과를 얻었다. 예를 들면 <표13>과 <표14>에서 중앙지와 지방지의 차이를 볼 때에 중앙지는 문장 성분의 누락 또는 생략을 예사로 하였지만 지방지는 그러지 않았다. 중앙지 가운데에서 누락, 생략을 가장 심하게 한 신문이 경향신문(98.2점)과 동아일보(97.5점)이고 한겨레신문(95.7점), 조선일보(84.2점), 중앙일보(83.3점)이 그 뒤를 따랐다. 이에 비해서 강원일보(75.6점)만 중앙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누락 또는 생략의 문제를 보였지 그 밖의 5개 신문은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중앙지의 오만함 또는 지나친 기능주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조선일보가 태도에서 선정적인 표현,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한 신문으로(55.8점)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과, 비논리적인 표현 또는 억지스러운 표현을 많이 한 신문으로(45.2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결과로 미루어 이 신문의 성향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분석은 좀 더 세밀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지만 거칠게나마 이번 조사에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추정을 하게 만든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7. 조사의 한계 및 문제점

이번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조사량의 한계가 분명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 가운데에서 한두 기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것도 매일 한두 기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에 지나지 않은 동안에 실린 몇 꼭지의 기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다시 말하면 조사 대상이 된 기사가 그 신문의 대표성을 갖춘 기사도 아니고,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수많은 기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기자이므로 우연히 그 신문사에서 가장 기사를 잘 쓴 기자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우리는 신문 기사를 보도 기사, 주장 기사, 해설 기사로 나뉘기 가능하면 고르게 기사를 조사하려 했지만 고르다는 개념도 분명하지 못함을 느꼈다. 조사 기사 수를 종류별로 같게 하는 것이나 기사의 길이를 종류별로 같게 하는 것이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사의 수와 기사의 양을 같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모든 기사를 조사하는 것인데 그럴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매일 또는 매주 어느 요일에 어느 지면의 어떤 기사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정도는 되어야 조사량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조사 지표가 명확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어휘와 문법으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이 잘못이 어휘의 잘못인지 표현의 잘못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다. 즉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것인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어휘의 잘못이나 표현의 잘못이나 따지지 않고 하나의 잘못으로 계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설정하면 될 것인데 그런 항목이 객관적으로 내포와 외연이 분명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완벽하게 항목을 분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조사자의 능력과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도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조사자는 마땅히 지적해야 할 잘못을 간과하지 못하여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조사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조사를 오래 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문제점을 찾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므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테지만 아직 이런 조사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이 조사에 이어서 내년에 다시 같은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넷째는 규범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한계이다.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사용법 같은 어문 규정, 문법, 어휘 사용법, 한글 전용 규정 등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문장에서 조사, 어미, 문장 성분을 어디까지 생략할 수 있는지도 연구되어 있지 않다. 외국어는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모호성을 가지고 언어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 8. 제언

앞에서 제시한 조사 결과 활용 방안, 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기초로 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신문 언어 조사 정례화

신문 언어를 단발성으로 하게 되면 신문 언어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어렵고, 신문 언어의 문제점도 명확하게 짚어내기 어렵다. 무엇보다 신문 언어의 지표를 명확하게 만들어 내지 못해서 신문인의 공감을 사기도 어렵다. 만일 신문 언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면 지표를 확립하고 조사 항목의 내용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신문 언어의 특수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고, 신문 언어의 추이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언어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문 언어 조사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게 된다면 조사자의 능력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할 수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신문을 조사할 수 없다면 특정 몇 개의 신문을 꾸준히 조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2) 어문 규범을 신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한 회의체 구성

어문 규범을 신문에 완화해 주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기기에는 어문 규정과 신문의 현실 사이에 너무 심각한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과 각 신문사 편집부장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소 방안을 의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① 띄어쓰기는 신문사에 따라서 자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신문사의 기사에는 언제나 띄어쓰기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쪽에서는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한 쪽에서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는 조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특히 아래 몇 가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 수와 단위 명사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예: 열두개, 열두시, 열두명, 백만원, 수십통, 한두달, 한달, 한번풀이도록, 120여쪽짜리, 삼만달러, 1000만원대, 600만원어치, 5만배나, 4일자, 3월4일치, 2년만에 등)

\* 수를 한 단위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예: 2만5000원, 2조3769억5000만원, 18만8000명, 8만5000㎡, 2m3cm)

\* 날짜와 시각을 한 단위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

(예: 1년6개월, 5월6~8일, 6시간43분, 2011년7월17일)

\* 그 밖에 한 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예: 제12조제5항제8호, 제1장제2호)

\* 단위 명사 뒤에 오는 명사를 붙여 쓰도록 허용하는 문제

(예: 3점홈런, 21승5패, 7과3분의1이닝, 5cm정도, 2대1로 등)

\* 관형사를 붙여 쓰도록 허용하는 문제

(예: 전세계, 첫방송, 타지역)

\* 한 음절 의존명사를 붙여쓰도록 허용하는 문제

(예: 방과후, 식사전, 학기초, 소송중, 작업시, 떠난지, 하는테다, 아닐뿐더러, 돌파할듯, 이틀만에, 노사간에, 사측이, 석달만에, 앉은채, 될것)

\* 단음절이 둘 이어진 경우 붙여 쓰도록 허용하는 문제.

(예: 웬말, 줌더)

\*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였지만 일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명사 연결체의 띄어쓰기 문제 (예: 불법사찰/불법사찰한, 본격수사/본격수사하기로, 지속가능한, 방문접수하도록, 구속기소했다, 전격처리, 비리사실을, 비준동의, 시한연장, 통상당국, 결정사항, 구두합의, 잠정발효, 입법기구)

② 철자와 관련해서는 사이시옷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이 부분은 신문 문장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공공언어 또는 어문 규정 일반의 규칙 개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

\* 요즘은 언어가 경음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합어나 복합어 수준의 언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덧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경향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대체로 사이시옷을 넣는 표기가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 비행깃값, 쫓값, 북엿국, 두북국, 어젯밤, 등골깃, 월젯값, 뒷문장, 최댓값, 참나뭇과, 도맷값, 막냇사위)

\* 상황이 이렇다면 한자어의 경우에 ‘셋방, 횃수, 뒷간, 찻간’ 등 6개에 국한하여 사이시옷을 받치고 나머지는 받치지 말도록 계속 규정해야 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 횃병, 갯수, 잇과, 장밋과, 전세방)

③ 철자 문제 가운데에서 외래어 표기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신문에서만은 외래어 표기법과 표기 용례 제시로써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국어기본법상으로 한글 전용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많은 신문이 영문자를 드러내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신문은 한자까지 드러내어 표기하기도 한다. 영문자와 한자 사용에 대한 신문의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 영어 이니셜을 따서 만든 이름의 경우에는 대체로 영문자를 드러내어 쓰는 경향이 있다. (예: FTA, EU, ABC, AFP, KBO, LED, LET, MBC, NHK, PF, PMP, VIP, VVIP, WHO, KT, KT&G, SK, LG, OECD, MIT)

\* 사람 이름을 가리키기 위해서 영문을 사용한다. (예: DJ, MB, C의원, K회사)

\* 특정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영문 글자를 사용한다. (예: e메일, u-서울시, e

세로, 3D 화면)

\* 한자는 단음절로 된 명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 日대지진, 중국發, 로뎀行, 年5.5%)

⑤ 문장 부호 사용에서 신문의 독특한 사용법이 있는데 이를 어느 기준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

\* 큰따옴표 안의 문장 종결어미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장 부호 규정에 맞게 하려면 문장이 끝나는 곳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신문에서는 절대 찍지 않는다. (예: “대호, 기다려라”,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 월일을 생략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는 경우에 날짜를 생략한 곳에는 찍지 않는 것이 신문사의 관행인 것 같다. (예: 4. 4(토))

\* 가운데점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단순히 나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당근·피망, 곡물·수산물·석유제품)가 있고, 어문 규정에서 빗금을 사용해야 할 자리에 사용한 경우(3·4분기), 이름과 나이를 나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김성한·24)도 있다.

\* 반점을 써야 할 자리에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 김치 와인 된장 치즈 등)

\* 붙임표를 특별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다. (예: 2-1 승리, 4-4동점, 노(勞)-정(政) 갈등, 7-8명씩, 안전-효율성, 동행-선행지수, 신-구, 두산-LG, 한-EU FTA, 대전-서천 간 도로)

\* 괄호를 문장 부호 규정과 달리 사용한 경우가 있다. (예: 호세이(法政), 지하드(聖戰),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

\* 기타 부호를 잘못 사용한 경우(단위=%, LH<토지주택공사>)도 있다.

⑥ 어휘 사용: 잘못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마땅히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어휘의 문제는 신문에 사용하면 안 되는 비표준어, 비속어, 은어의 범위, 신문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낱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신문에 사용하기 부적절한 외국어나 외래어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이다.

\* 비표준어, 비속어, 은어는 신문에 사용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신조어는 신문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규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 어려운 낱말로 볼 것인지 어려운 낱말로 볼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먼저 신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 외국어와 외래어도 신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일정한 기준과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지침은 마련해야 할 것

이다.

⑦ 문법: 문법과 표현의 잘못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부 유형에 따라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사, 어미의 사용 문제, 생략과 누락의 경계, 성분 간의 불호응과 불일치, 상투적 표현과 비국어투,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운 경우, 비논리적이거나 논리 비약인 경우, 저속한 표현, 상황과 어울리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하고 기자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몇 가지만 검토해 보겠다.

\* 직접 인용 조사: 큰따옴표로 인용한 인용문 뒤에 직접 인용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 인용한 것처럼 어미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면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 명사와 동사가 직접 이어지는 표현이 가능한가: (예: 무력 대응하겠다. 봉사 전념하겠다. 적극 해명했다. 극력 반대한다.)

\* 관형사와 동사가 직접 이어지는 표현이 가능한가: (예: 첫 발사했다.)

\* 상투적 표현을 그대로 둘 것인가: (예: 투자가 이뤄졌다.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사자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청와대의 잘못이다.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 저속한 표현의 기준이 필요하다. (예: 손을 보아 준다. 미친 타격감. 약골 모드)

⑧ 공공성: 전투적, 폭력적, 차별적, 선정적 표현은 공공성을 위반하는 것으로서는 신문 문장에서는 지양해야 할 태도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가 신문에서 피해야 할 정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3) 신문의 스타일북 내용 중 어문 규정 관련 부분을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게 하는 방안

신문별로 스타일북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사 문장 작성과 관련해서 어문 규범이나 문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이 어문 규범이나 문법과 배치된다면 그 신문의 기사는 언제나 수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국립국어원과 신문 편집부장의 의논에 따라서 정리가 된 부분 외에도 스타일북에 들어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문 규범과 문법에 관한 조항은 사전에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거나 동의를 얻게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표현의 자유나 신문사나 기자의 개성을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으나 보편적으로 국민이 따르고 지키고 있는 사항은 신문사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신문의 공공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9. 자문위원 의견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작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어문기자 4명에게 의견을 들은 결과를 여기에 소개하겠다. 앞으로 정부가 신문사와 의논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설문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수정하고자 의견을 낸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이 동의하는지 물어 본 것이다. 우리의 지적에 동의하면 ○표를, 동의하지 않으면 ×표를 치도록 했다. 자문위원의 의견은 표의 오른쪽 자문위원 의견란에 표시하였다. 자문위원은 중앙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출신 어문기자 각각 1명씩 4명으로 구성했다.

### <띄어쓰기>

① 띄어쓰기에 모두 동의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폭발사고→폭발 사고	중4	해설	○	○	○	○	○
않아보일 수도→않아 보일 수도	스3	해설	○	○	○	○	○
알고보니→알고 보니	한1	해설	○	○	○	○	○
손 쓸→손쓸	조3	보도	○	○	○	○	○
돌과할듯→돌과할 듯	한7	해설	○	○	○	○	○
학교관행→학교 관행	한25	보도	○	○	○	○	○
이슈추적→이슈 추적	중23	보도	○	○	○	○	○
굽지않은→굽지 않은	스3	해설	○	○	○	○	○
한모금→한 모금	스3	해설	○	○	○	○	○
오를수도→오를 수도	한7	해설	○	○	○	○	○
웬말→웬 말	경19	보도	○	○	○	○	○
복지논의→복지 논의	경20	보도	○	○	○	○	○
3개월새→3개월 새. 3개월 사이	한13	보도	○	○	○	○	○
비판일자→비판 일자	조1	보도	○	○	○	○	○
모든게→모든 게	동4	보도	○	○	○	○	○

\* 한 낱말로 보는 것을 붙여 쓰는 데 모두 동의함.(예: 손쓸)

\* 보조 용언을 띄어 쓰는 것에는 모두 동의함. (예: 알고 보니, 굽지 않은)

\* 의존명사 가운데에서 ‘것’, ‘수’, ‘듯’은 띄어 쓰는 데 동의함. (예: 보일 수도, 돌과할 듯, 모든 게)

\* 명사 연결체 가운데에서 뚜렷하게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띄어 쓰는 데 동의함. (예: 폭발 사고, 학교 관행, 이슈 추적, 복지 논의)

\* 수관형사와 두 음절 이상의 단위 명사, 관형사와 체언 등 단위별로 띄어 쓰는 데 동의함. (예: 한 모금, 비판 일자, 웬 말, 얼마 보일, 3개월 새)

② 띄어쓰기에 3명만 동의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한두달→한두 달	한7	해설	o	o	o	×	1
여러번→여러 번	스3	해설	o	o	o	×	1
근절의지→근절 의지	한25	보도	o	×	o	o	1
늘어난테다→늘어난 테다	한7	해설	o	o	o	×	1
네번째→네 번째	한13	보도	o	o	o	×	1
200억달러→200억 달러	한7	해설	o	o	o	×	1
못가는→못 가는	동4	보도	o	o	×	o	1
휩쓸어갔다→휩쓸어 갔다	조3	보도	o	o	×	o	1
보편복지→보편 복지	한26	해설	o	×	o	o	1
네번째→네 번째	서1	칼럼	o	o	o	×	1
그렇다치고→그렇다 치고	한20	칼럼	o	o	×	o	1
수백명→수백 명	경19	보도	o	o	o	×	1
8000만달러에→8000만 달러에	조2	해설	o	o	o	×	1
5만배나→5만 배나	조2	해설	o	o	o	×	1
결론났다→결론 났다	서1	칼럼	o	o	×	o	1
국가적인 일:꺾여진 여인→국가적인 일: 꺾여진 여인	조5	칼럼	o	×	o	o	1
수백권→수백 권	한26	해설	o	o	o	×	1
인터넷콘텐츠→인터넷 콘텐츠	중23	보도	×	o	o	o	1

- \* 수관형사와 한 음절의 단위 명사는 붙여 쓰려는 특정 신문사의 기사가 있음. (예: 한두달, 여러번, 수백명, 5만배나, 수백권)
- \* 수관형사와 돈을 세는 단위는 두 음절 이상이라도 붙여 쓰려는 특정 신문사의 기사가 있음. (예: 200억달러, 8000만달러)
- \* 의존 명사 '테'를 붙여 쓰려는 기사가 있음. (예: 늘어난테다)
- \* 의존 명사 '번째'를 붙여 쓰려는 기사가 있음. (예: 네번째)
- \* 부사 '못'을 동사에 붙여 쓰려는 특정 신문사의 기사가 있음. (예: 못가는)
- \* 복합어를 넓게 인정하려는 기사가 있음. 단어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징임. (예: 근절의지, 휩쓸어갔다, 보편복지, 결론났다, 인터넷콘텐츠)
- \* '치고'를 어미로 보려는 기사가 있음. (예: 그렇다치고)
- \* 쌍점의 뒤를 띄지 않으려는 기사가 있음. (예: 국가적인 일:꺾여진 여인)

③ 띄어쓰기에 2명만 동의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60여명→60여 명	한25	보도	o	×	o	×	2
10여대→10여 대	조3	보도	o	×	o	×	2
결정사항→결정 사항	한1	해설	×	×	o	o	2
잠정발효→잠정 발효	한1	해설	o	×	×	o	2
두번째로→두 번째로	한7	해설	o	×	o	×	2
전세계→전 세계	한7	해설	o	o	×	×	2
구두합의→구두 합의	한1	해설	×	×	o	o	2
정계요청→정계 요청	한25	보도	o	×	×	o	2

400여명의→400여 명의	서1	칼럼	o	×	o	×	2
1000여구→1000여 구	조3	보도	o	×	o	×	2
비준일정→비준 일정	한1	해설	×	×	o	o	2
한달→한 달	한7	해설	o	o	×	×	2
거털나게→거털 나게	한20	칼럼	o	o	×	×	2
4월23일→4월 23일	한20	칼럼	o	×	o	×	2
4월8일→4월 8일	한13	보도	o	×	o	×	2
비리사실→비리 사실	조1	보도	o	×	×	o	2
시한연장→시한 연장	조1	보도	×	×	o	o	2
7월1일→7월 1일	한1	해설	o	×	o	×	2
통상당국→통상 당국	한1	해설	o	×	×	o	2
80만명→80만 명	조1	보도	o	×	o	×	2
9월16일→9월 16일	한1	해설	o	×	o	×	2
가시밭 길→가시밭길	경20	보도	o	o	×	×	2
120여쪽짜리→120여 쪽짜리	한26	해설	o	×	o	×	2
비준동의→비준 동의	한1	해설	×	×	o	o	2

- \* 두 신문사 기사는 수관형사 뒤의 한 음절 단위 명사를 띄어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음. (예: 60여명, 10여대, 1000여구, 120여쪽짜리)
- \* 월일을 띄어 쓰는 데 동의하지 않는 기사가 둘 있음. (예: 4월28일)
- \* 관형사 '전'을 띄는 데 동의하지 않는 기사가 둘 있음. (예: 전세계)
- \* 수관형사와 단위명사가 각각 한 음절이면 붙여 쓰려는 기사가 둘 있음. 두 기자 가운데 한 기자는 '한두 달'을 띄어 써야 한다고 하였음. (예: 한달)
- \* 명사 연결체를 폭넓게 붙여 쓰려는 기사가 둘 있음. (예: 결정사항, 잠정발효, 구두합의, 정계요청, 비준일정, 비리사실, 시한연장, 통상당국, 비준동의)
- \* '가시밭길'이 복합명사인지 모르는 기사가 둘 있음.
- \* '거털 나다'를 붙여 쓰려는 기사가 둘 있음. 이 기자 중 한 기자는 '결론 났다'는 띄어 써야 한다고 생각함.

④ 띄어쓰기에 한 명만 동의한 것. 기사의 편익적 시각에 3명이 동의한 것임.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박씨→박 씨	한13	보도	×	×	o	×	3
6만3000원씩→6만 3천 원씩	한13	보도	×	×	o	×	3
나토리(名取)시→나토리[名取] 시	조3	보도	×	×	o	×	3
와타나베씨는→와타나베 씨는	조3	보도	×	×	o	×	3
근로행태→근로 행태	경20	보도	×	×	×	o	3
2만7000여→2만 7000여	동4	보도	×	o	×	×	3
1400만여원→1400만여 원	한25	보도	×	×	o	×	3
조희준씨→조희준 씨	조1	보도	×	×	o	×	3
미야기(宮城)현→미야기 현	조3	보도	×	×	o	×	3
플래카드 업자→플래카드업자	서1	칼럼	o	×	×	×	3
신씨도→신 씨도	조5	칼럼	×	×	o	×	3
2만4000→2만 4000	중5	사설	×	o	×	×	3
지질연구원→지질 연구원	조2	해설	o	×	×	×	3

입법기구→입법 기구	한1	해설	×	×	×	○	3
10조원이→10조 원이	중8	해설	×	×	○	×	3
이용백씨→이용백 씨	경22	보도	×	×	○	×	3
22조원→22조 원	한20	칼럼	×	×	○	×	3
5만명이→5만 명이	조3	보도	×	×	○	×	3
3만원→3만 원	중23	보도	×	×	○	×	3
수천억원→수천억 원	한20	칼럼	×	×	○	×	3
600만원어치→600만 원어치	경22	보도	×	×	○	×	3
2억원짜리→2억 원짜리	중22	사설	×	×	○	×	3
2년5개월→2년 5개월	경3	해설	×	○	×	×	3
1시20분께→1시 20분께	한13	보도	×	×	○	×	3
수천억원→수천억 원	경19	보도	×	×	○	×	3

\* 사람 성이나 이름 뒤에 오는 ‘씨’를 띄어 쓰는 데 3명이 반대함. (예: 박씨, 조희준씨, 신씨도, 와타나베(65)씨는, 이용백씨)

\* 수를 천 단위씩 띄어 쓰는 데 3명이 반대함. (예: 6만3000원씩, 2만7000여, 2만4000)

\* 외국의 지명과 ‘시, 현’을 띄어 쓰는 데 3명이 반대함. (예: 미야기(宮城)현, 나토리(名取)시)

\* 연과 월, 시와 분을 띄어 쓰는 데 3명이 반대함. (예: 2년5개월, 1시20분께) 이 가운데 한 기자는 앞에서 월과 일을 띄어 쓰는 데 동의한 바 있음. (예: 4월 23일, 7월 1일)

\* 수와 단위 명사를 띄어 쓰는 데 3명이 반대함. (예: 1400만여원, 10조원이, 5만명, 600만원어치, 수천억원) 이 가운데 한 기자는 앞에서 수와 단위 명사를 띄어 쓰는 데 동의하기도 했음. (예: 60여 명, 10여 대, 120여 쪽자리, 80만 명, 1000여 구)

\* ‘근로행태’, ‘입법기구’, ‘지질연구원’을 띄어 쓰는 데 3명이 반대함.

\* ‘플래카드업자’를 3명이 띄어 쓰려 함.

⑤ 띄어쓰기를 전원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1년6개월→1년 6개월	조5	칼럼	×	×	×	×	4
이모(40)씨가 → 이 모(40) 씨가	조3	보도	×	×	×	×	4
핸드볼팀→핸드볼 팀	경19	보도	×	×	×	×	4

\* 연과 월을 띄어 쓰는 데 모두 반대함. (예: 1년6개월) 그러나 이 가운데 1명은 앞에서 연과 월을 띄어 쓰는 데 동의한 바 있음. (예: 2년 5개월)

\* 이름 뒤에 오는 ‘씨’를 띄어 쓰는 데 모두 반대함. (예: 이모(40)씨가)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한 명은 앞에서 이름과 ‘씨’를 띄어 쓰는 데 동의한 바 있음. (예: 박씨, 조희준 씨, 신 씨도, 와타나베(65) 씨는, 이용백 씨)

\* 단음절 명사를 띄어 쓰는 데 모두 반대함. (예: 핸드볼팀)

<철자>

철자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함.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테레모펠레→테르모펠레	경20	보도	○	○	○	○	0
헤리→페리	중22	사설	○	○	○	○	0

<한자, 영문자>

① 한자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중국궤→중국발	경3	해설	○	○	○	○	0
地作司→지작사/지작사(地作司)	동7	칼럼	○	○	○	○	0
板이→판(板)이	조2	해설	○	○	○	○	0

\* 신문에 한자를 드러내어 쓰지 않는 데는 4명이 모두 동의함.

② 영문자: 신문에 알파벳을 드러내어 쓰지 않는 데는 미묘한 차이를 보임.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FTA→자유무역협정(FTA)	한1	해설	○	○	○	○	0
KBO→한국야구위원회(KBO)	경19	보도	○	○	○	○	0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일1	정보	○	○	○	○	0
NHK에→엔에이치케이에	동4	보도	×	○	○	○	1
JP모건→제이피 모건	경3	해설	×	○	×	○	2
EU→이유	한1	해설	×	×	×	○	3

\* 우리말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있으면 알파벳을 쓰지 않고 우리말로 표기하는 데 모두 동의함. (예: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야구위원회(KBO),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 ‘NHK’를 한글로 바꾸는 데 1명이 반대함.

\* ‘JP 모건’은 앞의 알파벳을 한글로 바꾸는 데 2명이 반대함.

\* ‘EU’를 한글로 적는 데 3명이 반대함.

<문장 부호>

① 문장 부호를 바꾸는 데 1명이 반대하고 3명이 찬성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구조-대피→구조, 대피	동4	보도	○	○	×	○	1
박근혜-민주당→박근혜, 민주당	한5	사설	○	○	×	○	1

\* '구조'와 '대피'를 붙임표로 연결하여 나열하는 것을 반점으로 나열하자는 데 세 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였다.

\* 가운데점으로 나열하는 것을 반점으로 나열하자는 데 세 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였다.

② 문장 부호를 바꾸는 데 2명이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되었구나"→되었구나."	조3	보도	×	○	×	○	2
아니다"→아니다."	한1	해설	×	○	×	○	2
맞출 수 있다"→맞출 수 있다."	한1	해설	×	○	×	○	2
"유도는~근육통이 오더라"면서→'유도는~근육통이 오더라.'라면서	일1	정보	○	×	○	×	2
"몸에~붓기까지 했다"고→"몸에~붓기까지 했다."라고	조5	칼럼	○	×	○	×	2
수도 있다"→수도 있다."	경19	보도	×	○	×	○	2
시.도→시도	중8	해설	×	×	○	○	2

\* 인용 부호 안에 있는 문장의 종결어미를 붙이는 데 2명이 반대하였다.

\* '시'와 '도'를 병렬하는 데 가운데점을 찍지 말자고 하는 데 2명이 반대하였다.

③ 문장 부호를 바꾸는 데 3명이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 틀림없다"→"...틀림없다."	중4	해설	×	×	×	○	3
"~한다"→"~한다."	한26	해설	×	○	×	×	3
"~생각한다"→"~생각한다."	한25	보도	×	○	×	×	3
"~알았겠는가"→"~알았겠는가."	한20	칼럼	×	○	×	×	3
한다"→한다."	경20	보도	×	○	×	×	3
"~듭겠다"→"~듭겠다."	조1	보도	×	○	×	×	3
4/4분기→4/4 분기	경3	해설	×	×	×	○	3
기관장·이사·감사→기관장, 이사, 감사	중22	사설	×	×	×	○	3
나토리(名取)시→나토리[名取] 시	조3	보도	×	○	×	×	3

\* 따옴표 안의 문장에 종결어미를 붙이는 데 3명이 반대하였다. 이 가운데 한 명은 ②의 경우에 종결어미를 붙이는 데 동의하였다.

\* 분기를 가운데점보다는 어문 규정에 따라서 빗금으로 구분하자는 데 3명이 반대하였다.

\* 여럿을 나열할 때 가운데점보다는 반점을 사용하자는 데 3명이 반대하였다. 신문은 문장 안에서 반점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인 것 같다.

\* 일본어에 상응하는 한자를 괄호 속에 넣을 때에 문장 부호 규정에 따라서 대괄호를 쓰자는 데 3명이 반대하였다.

④ 문장 부호를 바꾸는 데 모두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	조2	해설	×	×	×	×	4
한-벨기에→한국·벨기에	한1	해설	×	×	×	×	4
한-EU→한·이유	한1	해설	×	×	×	×	4
한-유럽연합→한국·유럽연합	한1	해설	×	×	×	×	4
박민영·이민호·이광수·구하라→박민영, 이민호, 이광수, 구하라	일1	정보	×	×	×	×	4
'자명고' '성균관 스캔들'→'자명고', '성균관 스캔들'	일1	정보	×	×	×	×	4

\* 줄임표의 가운데점 수를 문장 부호 규정에 따라서 6개 적자는 데 모두 반대하였다.

\* 두 대응하는 단어를 나열할 때에 붙임표를 쓰지 말고 가운데점을 쓰자는 데 모두 반대하였다.

\* 가운데점으로 나열한 것을 반점으로 나열하자는 데 모두 반대하였다. 이 가운데 한 명은 ③에서 가운데점 대신에 반점을 사용하자는 데 동의한 바 있다.

\* 작은따옴표로 된 여럿을 나열할 때에 반점을 적자는 데 모두 반대하였다. 문장 부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비표준어, 비속어, 은어>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주월→주월남/주베트남	동7	칼럼	○	×	○	×	2
베이글너→	일1	정보	×	×	○	○	2
없다급쇼?→	스3	해설	○	×	×	×	3
'봄내음'→	조5	해설	×	×	×	×	4
빨→	조3	보도	×	×	×	×	4
'꽃남'→	일1	정보	×	×	×	×	4

\* '월남'은 '베트남'의 옛말이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2명이 반대함.

\* '베이글너'를 비속어나 은어로 보아 쓰지 말자는 데 2명이 반대함.

\* '없다급쇼'를 사투리로 보고 쓰지 말아야 한다는 데 3명이 반대함.

\* '봄내음, 빨, 꽃남'을 비표준어, 사투리, 신조어로 보고 쓰지 말자는 데 4명 모두 반대함.

<어려운 어휘>

① 쉬운 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유예해→미루어, 미뤄	조1	보도	○	○	○	○	0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 함수→	경20	보도	○	○	○	○	0
펼쳐하는→펼치는	한26	해설	○	○	○	○	0

\* '유예, 펼쳐'는 쉬운 말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함.

\*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 함수'는 의미 파악을 하기 어려운 낱말과 표현이 섞여 있는데 이를 쉽게 바꿔 써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함.

② 쉬운 말로 바꾸는 데 한 명이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고용유인형→	경20	보도	o	x	o	o	1
감사에 착수해→감사를 시작해	한25	보도	o	o	o	x	1
소요된다.→든다.	경19	보도	x	o	o	o	1
섭입(攝入)→	조2	해설	o	x	o	o	1
통질하게→절실하게	한5	사설	o	o	x	o	1
미중유→이때까지 없었던	중5	사설	o	x	o	o	1
공관→빈칸	중23	보도	o	o	o	x	1

③ 쉬운 말로 바꾸자는 데 두 명이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민도→	중5	사설	x	o	o	x	2
관장→	조1	보도	o	x	o	x	2
사임한다→몰려난다.	조1	보도	x	o	x	o	2
시혜→은혜	한25	보도	x	o	o	x	2
비트그로스	한7	해설	o	x	o	o	2
난맥상을→	한5	사설	o	x	o	x	2
글지의	조5	칼럼	o	x	o	x	2
간주하는→여기는	한26	해설	x	x	o	o	2
허수의 근→	경20	보도	o	x	o	x	2
용출하는→솟아나오는	조2	해설	o	o	x	x	2
진정이 제기되자→	한25	보도	x	x	o	o	2
위인설관(爲人設官)→	중22	사설	o	x	o	x	2
칭하는 말로→일컫는 말로	스3	해설	o	x	o	x	2

④ 쉬운 말로 바꾸자는 데 세 명이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문제제기를 하기→의견을 내놓기	한25	보도	x	x	o	x	3
친수구역특별법→	한20	칼럼	x	x	o	x	3
상식한다→	스3	해설	x	x	o	x	3
정찬→	스3	해설	x	x	x	o	3
기하급수적→	한20	칼럼	o	x	x	x	3
봉착할 수→당면할 수. 부닥칠 수	조1	보도	x	o	x	x	3
천명→	경20	보도	o	x	x	x	3
집행돼야→시행돼야	한26	해설	x	o	x	x	3
수익자 부담원칙→	한25	보도	x	x	o	x	3
양수식 발전소→	조5	해설	x	x	o	x	3
기조→	한20	칼럼	x	x	o	x	3
수변 신도시→	한20	칼럼	x	x	o	x	3
표명했음에도→밝혔음에도	조1	보도	x	o	x	x	3

주재하며→	한20	칼럼	x	x	o	x	3
고수하도록→지키도록	조1	보도	x	x	x	o	3
표명→밝힘	한25	보도	x	x	o	x	3
수인(囚人)→	조5	칼럼	x	x	o	x	3
반면교사→	한20	칼럼	x	x	o	x	3

⑤ 쉬운 말로 바꾸자는 데 모두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붕괴→	한20	칼럼	x	x	x	x	4
송고한→드높은	조1	보도	x	x	x	x	4
세제→	경20	보도	x	x	x	x	4
분류→	한20	칼럼	x	x	x	x	4
차원에서→수준에서	한26	해설	x	x	x	x	4
지방세수→	한20	칼럼	x	x	x	x	4
원차만별→	스3	해설	x	x	x	x	4
초과공급 →	한5	사설	x	x	x	x	4
식도락→	스3	해설	x	x	x	x	4
습식(濕食)→	스3	해설	x	x	x	x	4
종주하는→	조5	해설	x	x	x	x	4
실행하라며→지키라며	조1	보도	x	x	x	x	4
해명→변명.설명	한26	해설	x	x	x	x	4
지류→	한20	칼럼	x	x	x	x	4
우후죽순→	경20	보도	x	x	x	x	4
일성→	경20	보도	x	x	x	x	4
단호히→엄격하게	한25	보도	x	x	x	x	4
추산→	한20	칼럼	x	x	x	x	4
수혜자→혜택을 받는 사람	한26	해설	x	x	x	x	4
기정사실화→	조1	보도	x	x	x	x	4
구매했다.→샀다.	한26	해설	x	x	x	x	4
5성(星)호텔→	조5	칼럼	x	x	x	x	4
환골탈태(換骨奪胎)→	중22	사설	x	x	x	x	4
방산업체→	조5	칼럼	x	x	x	x	4
관망→	조1	보도	x	x	x	x	4
초과수요 →	한5	사설	x	x	x	x	4
요지부동→	한20	칼럼	x	x	x	x	4
통용된다.→쓰인다.	스3	해설	x	x	x	x	4

<외국어, 외래어>

① 신문에 쓰면 안 되는 외국어/외래어라는 데 모두 동의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버블→거품	한20	칼럼	o	o	o	o	0
폴리스 라인→통제선	중8	해설	o	o	o	o	0
인센티브→조성책. 유인책. 장려책. 특전	경20	보도	o	o	o	o	0
케이스→예	중22	사설	o	o	o	o	0
피에타→	경22	보도	o	o	o	o	0

② 신문에 쓰면 안 되는 외국어/외래어라는 데 한 명이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리더→대표, 지도자	조1	보도	×	○	○	○	1
노이즈 마케팅→구설수 홍보	조5	칼럼	○	×	○	○	1
이슈→쟁점, 논쟁거리, 논점	중23	보도	○	×	○	○	1
레이더→권력 누수 (현상)	서1	칼럼	○	○	○	×	1
테크놀로지→과학기술	경22	보도	×	○	○	○	1
쁘띠 프랑스→	조5	해설	○	×	○	○	1
비즈니스벨트→	서1	칼럼	×	○	○	○	1
장르→갈래, 분야	경22	보도	○	×	○	○	1
점프→도약, 뛰어넘는.	경22	보도	○	○	○	×	1

③ 신문에 쓰면 안 되는 외국어/외래어라는 데 두 명이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퍼포먼스→행위예술	경22	보도	×	×	○	○	2
사인(sign)→서명	중6	해설	○	×	○	×	2
길드→	중6	해설	○	×	○	○	2
시스템 리스크→	경20	보도	×	×	○	○	2
퍼스트클래스	조5	칼럼	×	×	○	○	2
시리즈→연속물	경22	보도	○	×	○	×	2
포플리즘→대중주의	한26	해설	○	×	○	×	2
포플리즘→대중주의, 영합주의	한20	칼럼	○	×	○	×	2
해프닝→웃음거리	경22	보도	○	×	○	×	2
러브콜→부름공세	경22	보도	×	×	○	○	2
프레임→	경22	보도	○	×	○	×	2
플래카드 → 현수막	서1	칼럼	×	×	○	○	2

④ 신문에 쓰면 안 되는 외국어/외래어라는 데 세 명이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코리아리크→	경19	보도	×	×	○	×	3
메카→	조5	해설	×	×	○	×	3
스캔들	조5	칼럼	○	×	×	×	3
모니터→	경22	보도	×	×	○	×	3
뉴라이트→	한26	해설	×	×	○	×	3
아이디어→	경22	보도	×	×	○	×	3
트래킹 코스→	조5	해설	×	×	○	×	3
카페리→	중22	사설	○	×	×	×	3
서틀버스→	조5	해설	×	×	○	×	3
이브닝드레스	조5	칼럼	×	×	○	×	3
스튜→	스3	해설	×	×	×	○	3
엘리트→	일1	정보	×	×	○	×	3
드라이브 코스→	조5	해설	×	×	○	×	3
스위트룸	조5	칼럼	×	×	○	×	3
모티브→	조5	해설	×	×	○	×	3
캐스팅→	일1	정보	×	×	○	×	3

액션 드라마→	일1	정보	×	×	○	×	3
클릭→	중23	보도	×	×	○	×	3

⑤ 신문에 쓰면 안 되는 외국어/외래어라는 데 모두 반대한 것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플레이시→	중23	보도	×	×	×	×	4
메시지→	한20	칼럼	×	×	×	×	4
스프→	스3	해설	×	×	×	×	4
모터보트→	조5	해설	×	×	×	×	4
소스→	스3	해설	×	×	×	×	4
이미지→	경22	보도	×	×	×	×	4
애니메이션→	중23	보도	×	×	×	×	4
스타→	일1	정보	×	×	×	×	4
스포츠→	조5	해설	×	×	×	×	4
스타→	경22	보도	×	×	×	×	4

<조사, 어미 잘못>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시티헌터'서→'시티헌터'에서	일1	정보	○	○	○	○	0
"맞출 수 있다"고→맞출 수 있다."라고	한1	해설	○	×	○	×	2
화재가 발생했다"며→화재가 발생했다."라며	중4	해설	○	×	○	×	2
"검증했다."며→"검증했다."라며	서1	칼럼	○	×	○	×	2
"일이냐"며→일이냐며	경19	보도	×	×	○	×	3
"~없다"는→~없다는	한25	보도	×	×	○	×	3

- \* 조사 '에서'를 '서'로 줄이지 않도록 하는 데 모두 동의하였음.
- \* 직접 인용할 때에 인용 조사 '라고', '라며'를 사용하는 데 2명이 반대했다.
- \*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꿔 사용하는 데는 3명이 반대했다.

<기초 자료>

분류 유형	내용	신문	기사	자문위원 의견				
				중	서	동	한	계
2-5.외국어, 외래어	인센티브→조성책, 유인책, 장려책, 특전	경20	보도	○	○	○	○	0
1-1.띄어쓰기	3개월새→3개월 새, 3개월 사이	한13	보도	○	○	○	○	0
1-1.띄어쓰기	이슈추적→이슈 추적	중23	보도	○	○	○	○	0
1-1.띄어쓰기	굽지않은→굽지 않은	스3	해설	○	○	○	○	0
1-1.띄어쓰기	비판일자→비판 일자	조1	보도	○	○	○	○	0
1-1.띄어쓰기	모든게→모든 게	동4	보도	○	○	○	○	0
1-1.띄어쓰기	손 쓸→손쓸	조3	보도	○	○	○	○	0
1-1.띄어쓰기	복지논의→복지 논의	경20	보도	○	○	○	○	0
1-1.띄어쓰기	폭발사고→폭발 사고	중4	해설	○	○	○	○	0
1-1.띄어쓰기	웬말→웬 말	경19	보도	○	○	○	○	0

1-1.띄어쓰기	오를수도→오를 수도	한7	해설	o	o	o	o	o	0
1-1.띄어쓰기	알고보니→알고 보니	한1	해설	o	o	o	o	o	0
1-1.띄어쓰기	학교관행→학교 관행	한25	보도	o	o	o	o	o	0
1-1.띄어쓰기	한모금→한 모금	스3	해설	o	o	o	o	o	0
1-1.띄어쓰기	돌과할듯→돌과할 듯	한7	해설	o	o	o	o	o	0
1-1.띄어쓰기	얇아보일 수도→얇아 보일 수도	스3	해설	o	o	o	o	o	0
1-2.철자	테레모필레→테르모필레	경20	보도	o	o	o	o	o	0
1-2.철자	웨리→페리	중22	사실	o	o	o	o	o	0
1-3. 외국 문자, 한자	板이→판(板)이	조2	해설	o	o	o	o	o	0
1-3.외국 문자, 한자	地作司→지작사/지작사(地作司)	동7	칼림	o	o	o	o	o	0
1-3.외국 문자, 한자	중국뱀→중국발	경3	해설	o	o	o	o	o	0
1-3.외국 문자, 한자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일1	정보	o	o	o	o	o	0
1-3.외국 문자, 한자	FTA→자유무역협정(FTA)	한1	해설	o	o	o	o	o	0
1-3.외국 문자, 한자	KBO→한국야구위원회(KBO)	경19	보도	o	o	o	o	o	0
2-4.어려운 어휘	펼쳐하는→펼치는	한26	해설	o	o	o	o	o	0
2-4.어려운 어휘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 함수→	경20	보도	o	o	o	o	o	0
2-4.어려운 어휘	유예해→미루어. 미뤄	조1	보도	o	o	o	o	o	0
2-5.외국어, 외래어	키네틱→	경22	보도	o	o	o	o	o	0
2-5.외국어, 외래어	케이스→예	중22	사실	o	o	o	o	o	0
2-5.외국어, 외래어	폴리스 라인→통제선	중8	해설	o	o	o	o	o	0
2-5.외국어, 외래어	피에타→	경22	보도	o	o	o	o	o	0
2-5.외국어, 외래어	버블→거품	한20	칼림	o	o	o	o	o	0
3-1.조사, 어미 잘못	‘시티헌터’서→‘시티헌터’에서	일1	정보	o	o	o	o	o	0
1-1.띄어쓰기	그렇다치고→그렇다 치고	한20	칼림	o	o	×	o	o	1
1-1.띄어쓰기	국가적인 일:꺼여진 여인→국가적인 일: 꺾여진 여인	조5	칼림	o	×	o	o	o	1
1-1.띄어쓰기	8000만달러에 → 8000만 달러에	조2	해설	o	o	o	×	o	1
1-1.띄어쓰기	휘쓸어갔다 → 휘쓸어 갔다	조3	보도	o	o	×	o	o	1
1-1.띄어쓰기	결론났다 → 결론 냈다	서1	칼림	o	o	×	o	o	1
1-1.띄어쓰기	수백권→수백 권	한26	해설	o	o	o	×	o	1
1-1.띄어쓰기	못가는 → 못 가는	동4	보도	o	o	×	o	o	1
1-1.띄어쓰기	여러번→여러 번	스3	해설	o	o	o	×	o	1
1-1.띄어쓰기	늘어난테다 → 늘어난 테다	한7	해설	o	o	o	×	o	1
1-1.띄어쓰기	한두달 → 한두 달	한7	해설	o	o	o	×	o	1
1-1.띄어쓰기	네번째→네 번째	한13	보도	o	o	o	×	o	1
1-1.띄어쓰기	근절의지→근절 의지	한25	보도	o	×	o	o	o	1
1-1.띄어쓰기	인터넷콘텐츠→인터넷 콘텐츠	중23	보도	×	o	o	o	o	1
1-1.띄어쓰기	네번째 → 네 번째	서1	칼림	o	o	o	×	o	1
1-1.띄어쓰기	200억달러 → 200억 달러	한7	해설	o	o	o	×	o	1
1-1.띄어쓰기	보편복지→보편 복지	한26	해설	o	×	o	o	o	1
1-1.띄어쓰기	수백명→수백 명	경19	보도	o	o	o	×	o	1
1-1.띄어쓰기	5만배나 → 5만 배나	조2	해설	o	o	o	×	o	1
1-2.철자	콘텐츠→콘텐츠	중23	보도	×	o	o	o	o	1
1-3. 외국 문자, 한자	NHK에→엔에이치케이에	동4	보도	×	o	o	o	o	1
1-4. 문장 부호	구조-대피→구조, 대피	동4	보도	o	o	×	o	o	1
1-4.문장 부호	박근혜민주당 → 박근혜, 민주당	한5	사실	o	o	×	o	o	1

2-4.어려운 어휘	소요된다.→든다.	경19	보도	×	o	o	o	o	1
2-4.어려운 어휘	섭입(攝入)→	조2	해설	o	×	o	o	o	1
2-4.어려운 어휘	통절하게→절실하게	한5	사실	o	o	×	o	o	1
2-4.어려운 어휘	미중유→이때까지 없었던	중5	사실	o	×	o	o	o	1
2-4.어려운 어휘	공란→빈칸	중23	보도	o	o	o	×	o	1
2-4.어려운 어휘	감사에 착수해→감사를 시작해	한25	보도	o	o	o	×	o	1
2-4.어려운 어휘	고용유인형→	경20	보도	o	×	o	o	o	1
2-5.외국어, 외래어	노이즈 마케팅→구설수 홍보	조5	칼림	o	×	o	o	o	1
2-5.외국어, 외래어	리더→대표. 지도자	조1	보도	×	o	o	o	o	1
2-5.외국어, 외래어	테크놀로지→과학기술	경22	보도	×	o	o	o	o	1
2-5.외국어, 외래어	이슈→쟁점. 논쟁거리. 논점	중23	보도	o	×	o	o	o	1
2-5.외국어, 외래어	비즈니스벨트→	서1	칼림	×	o	o	o	o	1
2-5.외국어, 외래어	장르→갈래. 분야	경22	보도	o	×	o	o	o	1
2-5.외국어, 외래어	점프→도약. 뛰어넘는.	경22	보도	o	o	o	×	o	1
2-5.외국어, 외래어	쁘띠 프랑스→	조5	해설	o	×	o	o	o	1
2-5.외국어, 외래어	레이덕→권력 누수 (현상)	서1	칼림	o	o	o	×	o	1
1-1.띄어쓰기	비준일정→비준 일정	한1	해설	×	×	o	o	o	2
1-1.띄어쓰기	1000여구→1000여 구	조3	보도	o	×	o	×	o	2
1-1.띄어쓰기	7월1일→7월 1일 * 7	한1	해설	o	×	o	×	o	2
1-1.띄어쓰기	잠정발효→잠정 발효	한1	해설	o	×	o	×	o	2
1-1.띄어쓰기	9월16일→9월 16일	한1	해설	o	×	o	×	o	2
1-1.띄어쓰기	10여대→10여 대	조3	보도	o	×	o	×	o	2
1-1.띄어쓰기	120여쪽짜리→120여 쪽짜리	한26	해설	o	×	o	×	o	2
1-1.띄어쓰기	비준동의→비준 동의	한1	해설	×	×	o	o	o	2
1-1.띄어쓰기	4월8일→4월 8일	한13	보도	o	×	o	×	o	2
1-1.띄어쓰기	60여명→60여 명	한25	보도	o	×	o	×	o	2
1-1.띄어쓰기	통상당국→통상 당국	한1	해설	o	×	×	o	o	2
1-1.띄어쓰기	거덜나게→거덜 나게	한20	칼림	o	o	×	×	o	2
1-1.띄어쓰기	시한연장→시한 연장	조1	보도	×	×	o	o	o	2
1-1.띄어쓰기	비리사실→비리 사실	조1	보도	o	×	×	o	o	2
1-1.띄어쓰기	80만명→80만 명	조1	보도	o	×	o	×	o	2
1-1.띄어쓰기	4월23일→4월 23일	한20	칼림	o	×	o	×	o	2
1-1.띄어쓰기	400여명의→400여 명의	서1	칼림	o	×	o	×	o	2
1-1.띄어쓰기	정계요청→정계 요청	한25	보도	o	×	×	o	o	2
1-1.띄어쓰기	전세계→전 세계	한7	해설	o	o	×	×	o	2
1-1.띄어쓰기	결정사항→결정 사항	한1	해설	×	×	o	o	o	2
1-1.띄어쓰기	한달→한 달	한7	해설	o	o	×	×	o	2
1-1.띄어쓰기	두번째로→두 번째로	한7	해설	o	×	o	×	o	2
1-1.띄어쓰기	가시밭 길→가시밭길	경20	보도	o	o	×	×	o	2
1-1.띄어쓰기	구두합의→구두 합의	한1	해설	×	×	o	o	o	2
1-3. 외국 문자, 한자	JP모건→제이피 모건	경3	해설	×	o	×	o	o	2
1-3.외국 문자, 한자	마라탕(麻辣湯)	스3	해설	o	×	×	o	o	2
1-3.외국 문자, 한자	유(ゆ)	스3	해설	o	×	×	o	o	2
1-3.외국 문자, 한자	시루(汁)	스3	해설	o	×	×	o	o	2
1-3.외국 문자, 한자	싼라탕(酸辣湯)	스3	해설	o	×	×	o	o	2
1-3.외국 문자, 한자	羹(羹·국)	스3	해설	o	×	×	o	o	2
1-3.외국 문자, 한자	샤러탕(蟹肉湯)	스3	해설	o	×	×	o	o	2
1-4. 문장 부호	되었구나”→되었구나.”	조3	보도	×	o	×	o	o	2
1-4. 문장 부호	맞출 수 있다”→맞출 수 있다.”	한1	해설	×	o	×	o	o	2

1-4. 문장 부호	아니다"→아니다."	한1	해설	×	○	×	○	2
1-4.문장 부호	수도 있다"→수도 있다."	경19	보도	×	○	×	○	2
1-4.문장 부호	"유도는~근육통이 오더라"면서→ '유도는~근육통이 오더라.'라면서	일1	정보	○	×	○	×	2
1-4.문장 부호	사도→시도	중8	해설	×	×	○	○	2
1-4.문장 부호	"몸에~붓기까지 했다"고→"몸 에~붓기까지 했다."라고	조5	칼림	○	×	○	×	2
2-2.비표준어	주월→주월남/주베트남	동7	칼림	○	×	○	×	2
2-3.비속어, 은어	베이글너→	일1	정보	×	×	○	○	2
2-4.어려운 어휘	굴지의	조5	칼림	○	×	○	×	2
2-4.어려운 어휘	비트그로스	한7	해설	○	×	○	○	2
2-4.어려운 어휘	위인설관(爲人設官)→	중22	사설	○	×	○	×	2
2-4.어려운 어휘	칭하는 말로→일컫는 말로	스3	해설	○	×	○	×	2
2-4.어려운 어휘	관장→	조1	보도	○	×	○	×	2
2-4.어려운 어휘	진정이 제기되자→	한25	보도	×	×	○	○	2
2-4.어려운 어휘	용출하는 → 솟아나오는	조2	해설	○	○	×	×	2
2-4.어려운 어휘	시해→은혜	한25	보도	×	○	○	×	2
2-4.어려운 어휘	간주하는→여기는	한26	해설	×	×	○	○	2
2-4.어려운 어휘	민도 →	중5	사설	×	○	○	×	2
2-4.어려운 어휘	허수의 근→	경20	보도	○	×	○	×	2
2-4.어려운 어휘	난맥상을 → 문제를	한5	사설	○	×	○	×	2
2-4.어려운 어휘	사임한다.→몰러난다.	조1	보도	×	○	×	○	2
2-5.외국어, 외래어	퍼포먼스→행위예술	경22	보도	×	×	○	○	2
2-5.외국어, 외래어	시리즈→연속물	경22	보도	○	×	○	×	2
2-5.외국어, 외래어	해프닝→웃음거리	경22	보도	○	×	○	×	2
2-5.외국어, 외래어	러브콜→부름공세	경22	보도	×	×	○	○	2
2-5.외국어, 외래어	포퓰리즘→대중주의, 영합주의	한20	칼림	○	×	○	×	2
2-5.외국어, 외래어	사인(sign)→서명	중6	해설	○	×	○	×	2
2-5.외국어, 외래어	길드→	중6	해설	○	×	○	○	2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 리스크→	경20	보도	×	×	○	○	2
2-5.외국어, 외래어	플래카드 → 현수막	서1	칼림	×	×	○	○	2
2-5.외국어, 외래어	프레임→	경22	보도	○	×	○	×	2
2-5.외국어, 외래어	포퓰리즘→대중주의	한26	해설	○	×	○	×	2
2-5.외국어, 외래어	퍼스트클래스	조5	칼림	×	×	○	○	2
3-1.조사, 어미 잘못	맞출 수 있다"고 → 맞출 수 있 다."라고	한1	해설	○	×	○	×	2
3-1.조사, 어미 잘못	"다가올~기대된다"고→"다가올~ 기대된다."라고	일1	정보	○	×	○	×	2
3-1.조사, 어미 잘못	화제가 발생했다"며→화제가 발 생했다."라며	중4	해설	○	×	○	×	2
3-1.조사, 어미 잘못	"내 삶의~바로잡겠다"했다.→"내 삶의~바로잡겠다."라고 했다	조5	칼림	○	×	○	×	2
3-1.조사, 어미 잘못	검증했다"며 → 검증했다."라며	서1	칼림	○	×	○	×	2
1-1.띄어쓰기	600만원어치→600만 원어치	경22	보도	×	×	○	×	3
1-1.띄어쓰기	이용백씨→이용백 씨	경22	보도	×	×	○	×	3
1-1.띄어쓰기	3만원→3만 원	중23	보도	×	×	○	×	3
1-1.띄어쓰기	수천억원→수천억 원	경19	보도	×	×	○	×	3
1-1.띄어쓰기	미야기(宮城)현 → 미야기 현	조3	보도	×	×	○	×	3
1-1.띄어쓰기	플래카드 업자 → 플래카드업자	서1	칼림	○	×	×	×	3

1-1.띄어쓰기	6만3000원씩→6만 3천 원씩	한13	보도	×	×	○	×	3
1-1.띄어쓰기	나토리(名取)시 → 나토리[名取] 시	조3	보도	×	×	○	×	3
1-1.띄어쓰기	와타나베(65)씨는 → 와타나베 (65) 씨는	조3	보도	×	×	○	×	3
1-1.띄어쓰기	2만4000 → 2만 4000	중5	사설	×	○	×	×	3
1-1.띄어쓰기	신씨도→신 씨도	조5	칼림	×	×	○	×	3
1-1.띄어쓰기	1400만여원→1400만여 원	한25	보도	×	×	○	×	3
1-1.띄어쓰기	조희준씨→조희준 씨	조1	보도	×	×	○	×	3
1-1.띄어쓰기	2년5개월 → 2년 5개월	경3	해설	×	○	×	×	3
1-1.띄어쓰기	10조원이 → 10조 원이	중8	해설	×	×	○	×	3
1-1.띄어쓰기	22조원→22조 원	한20	칼림	×	×	○	×	3
1-1.띄어쓰기	수천억원→수천억 원	한20	칼림	×	×	○	×	3
1-1.띄어쓰기	2억원짜리→2억 원짜리	중22	사설	×	×	○	×	3
1-1.띄어쓰기	지질연구원→지질 연구원(전문용 어가 아님.)	조2	해설	○	×	×	×	3
1-1.띄어쓰기	입법기구 → 입법 기구	한1	해설	×	×	×	○	3
1-1.띄어쓰기	박씨→박 씨	한13	보도	×	×	○	×	3
1-1.띄어쓰기	5만명이 → 5만 명이	조3	보도	×	×	○	×	3
1-1.띄어쓰기	근로행태→근로 행태	경20	보도	×	×	○	○	3
1-1.띄어쓰기	1시20분께→1시 20분께	한13	보도	×	×	○	×	3
1-1.띄어쓰기	2만7000여 → 2만 7000여	동4	보도	×	○	×	×	3
1-3. 외국 문자, 한 자	EU→이유	한1	해설	×	×	×	○	3
1-4. 문장 부호	나토리(名取)시→나토리[名取] 시	조3	보도	×	○	×	×	3
1-4. 문장 부호	44분기→4/4 분기	경3	해설	×	×	×	○	3
1-4. 문장 부호	"... 틀림없다"→"...틀림없다."	중4	해설	×	×	×	○	3
1-4.문장 부호	한다"→한다."	경20	보도	×	○	×	×	3
1-4.문장 부호	기관장·이사·감사→기관장, 이사, 감사	중22	사설	×	×	×	○	3
1-4.문장 부호	"~돕겠다"→"~돕겠다."	조1	보도	×	○	×	×	3
1-4.문장 부호	"~알았겠는가"→"~알았겠는가."	한20	칼림	×	○	×	×	3
1-4.문장 부호	"~한다"→"~한다."	한26	해설	×	○	×	×	3
1-4.문장 부호	"~생각한다"→"~생각한다."	한25	보도	×	○	×	×	3
2-2.비표준어	깨뚱어보고→깨뚱고	동7	칼림	○	×	×	×	3
2-2.비표준어	없다값쇼?→	스3	해설	○	×	×	×	3
2-4.어려운 어휘	봉착할 수→당면할 수, 처할 수	조1	보도	×	○	×	×	3
2-4.어려운 어휘	수변 신도시→	한20	칼림	×	×	○	×	3
2-4.어려운 어휘	수인(四人)	조5	칼림	×	×	○	×	3
2-4.어려운 어휘	수익자 부담원칙→	한25	보도	×	×	○	×	3
2-4.어려운 어휘	정찬→	스3	해설	×	×	×	○	3
2-4.어려운 어휘	친수구역특별법→	한20	칼림	×	×	○	×	3
2-4.어려운 어휘	상식한다.→	스3	해설	×	×	○	×	3
2-4.어려운 어휘	프리깃함	조5	칼림	○	×	×	×	3
2-4.어려운 어휘	기하급수적→	한20	칼림	○	×	×	×	3
2-4.어려운 어휘	반면교사→	한20	칼림	×	×	○	×	3
2-4.어려운 어휘	문제제기를 하기→의견을 내놓기	한25	보도	×	×	○	×	3
2-4.어려운 어휘	기조→	한20	칼림	×	×	○	×	3
2-4.어려운 어휘	고수하도록→지키도록	조1	보도	×	×	×	○	3

2-4.어려운 어휘	표명→밝힘	한25	보도	×	×	○	×	3
2-4.어려운 어휘	천명→	경20	보도	○	×	×	×	3
2-4.어려운 어휘	주재하며→	한20	칼럼	×	×	×	×	3
2-4.어려운 어휘	표명했음에도→밝혔음에도	조1	보도	×	○	×	×	3
2-4.어려운 어휘	집행돼야→시행돼야	한26	해설	×	○	×	×	3
2-4.어려운 어휘	양수식 발전소→	조5	해설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캐스팅→	일1	정보	×	×	○	×	3
2-5.외국어, 외래어	클릭→	중23	보도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액션 드라마→	일1	정보	×	×	○	×	3
2-5.외국어, 외래어	드라이브 코스→	조5	해설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엘리트→	일1	정보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카페리→	중22	사실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스위트룸	조5	칼럼	×	×	○	×	3
2-5.외국어, 외래어	모티브→	조5	해설	×	×	○	×	3
2-5.외국어, 외래어	모니터→	경22	보도	×	×	○	×	3
2-5.외국어, 외래어	트레킹 코스→	조5	해설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아이디어→영감. 착상	경22	보도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스튜→	스3	해설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코리아리그→	경19	보도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이브닝드레스	조5	칼럼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스캔들	조5	칼럼	○	×	×	×	3
2-5.외국어, 외래어	서틀버스→	조5	해설	×	×	○	×	3
2-5.외국어, 외래어	뉴라이트→	한26	해설	×	×	○	×	3
2-5.외국어, 외래어	메카→	조5	해설	×	×	○	×	3
3-1.조사, 어미 잘못	일이나"며→일이나며	경19	보도	×	×	○	×	3
3-1.조사, 어미 잘못	"~없다"는~없다는	한25	보도	×	×	○	×	3
1-1.띄어쓰기	이모(40)씨가 → 이 모(40) 씨가	조3	보도	×	×	×	×	4
1-1.띄어쓰기	핸드볼팀→핸드볼 팀	경19	보도	×	×	×	×	4
1-1.띄어쓰기	1년6개월→1년 6개월	조5	칼럼	×	×	×	×	4
1-4. 문장 부호	…→……	조2	해설	×	×	×	×	4
1-4. 문장 부호	한-EU→한·이유	한1	해설	×	×	×	×	4
1-4. 문장 부호	한-벨기에→한국·벨기에	한1	해설	×	×	×	×	4
1-4.문장 부호	'자명고' '성균관 스캔들'→'자명고', '성균관 스캔들'	일1	정보	×	×	×	×	4
1-4.문장 부호	박민영·이민호·이광수·구하라→박민영, 이민호, 이광수, 구하라	일1	정보	×	×	×	×	4
2-2.비표준어	'봄내음'→	조5	해설	×	×	×	×	4
2-2.비표준어	뺨→	조3	보도	×	×	×	×	4
2-3.비속어, 은어	'꽃남'→	일1	정보	×	×	×	×	4
2-4.어려운 어휘	차원에서→수준에서	한26	해설	×	×	×	×	4
2-4.어려운 어휘	세계→	경20	보도	×	×	×	×	4
2-4.어려운 어휘	분류→	한20	칼럼	×	×	×	×	4
2-4.어려운 어휘	초과공급 →	한5	사실	×	×	×	×	4
2-4.어려운 어휘	지방세수→	한20	칼럼	×	×	×	×	4
2-4.어려운 어휘	천차만별→	스3	해설	×	×	×	×	4
2-4.어려운 어휘	요지부동→	한20	칼럼	×	×	×	×	4
2-4.어려운 어휘	초과수요 →	한5	사실	×	×	×	×	4
2-4.어려운 어휘	우후죽순→	경20	보도	×	×	×	×	4
2-4.어려운 어휘	일성 →	경20	보도	×	×	×	×	4
2-4.어려운 어휘	추산→	한20	칼럼	×	×	×	×	4

2-4.어려운 어휘	방산업체	조5	칼럼	×	×	×	×	4
2-4.어려운 어휘	기정사실화→	조1	보도	×	×	×	×	4
2-4.어려운 어휘	5성(星)호텔	조5	칼럼	×	×	×	×	4
2-4.어려운 어휘	환골탈태(換骨奪胎)→	중22	사실	×	×	×	×	4
2-4.어려운 어휘	종주하는→	조5	해설	×	×	×	×	4
2-4.어려운 어휘	지류→	한20	칼럼	×	×	×	×	4
2-4.어려운 어휘	해명→변명.설명	한26	해설	×	×	×	×	4
2-4.어려운 어휘	식도락→	스3	해설	×	×	×	×	4
2-4.어려운 어휘	습식(濕食)→	스3	해설	×	×	×	×	4
2-5.외국어, 외래어	플레이→	중23	보도	×	×	×	×	4
2-5.외국어, 외래어	메시지→	한20	칼럼	×	×	×	×	4
2-5.외국어, 외래어	스프→	스3	해설	×	×	×	×	4
2-5.외국어, 외래어	모터보트→	조5	해설	×	×	×	×	4
2-5.외국어, 외래어	소스→	스3	해설	×	×	×	×	4
2-5.외국어, 외래어	이미지→형상	경22	보도	×	×	×	×	4

## 10. 신문사의 스타일북 점검

신문사의 언어 사용은 대개 그 신문사의 스타일북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문 언어를 조사하려면 그 신문사의 스타일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문제가 된 많은 경우가 신문사의 스타일북에 따라서 표기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입수한 스타일북(동아, 중앙, 서울, 한겨레)의 언어 사용 지침을 검토해 보았다. 이 가운데 비교적 잘 정리된 중앙일보 스타일북을 예시하겠다.

### (1) 띄어쓰기

한글맞춤법의 규정을 소개하고 틀리기 쉬운 것들을 소개하였다.

#### ① 반드시 붙여 쓰는 단어:

- \* ‘-은커녕, -인즉, -밖에’ 등의 조사를 붙여 쓴다.
- \* ‘-가랑’은 접미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 ‘-걸, -자마자, -느니, -르지’ 등은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 의존명사 ‘척, 체, 양, 만, 듯, 뻔, 법’ 뒤에 ‘하다’가 오면 붙여 쓴다.
- \* ‘-화’ 뒤에 ‘하다, 되다, 시키다’가 오면 붙여 쓴다.
- \* 부사형 어미 ‘와/워, 아/어’에 ‘하다’가 붙어 다른 말로 전성되면 붙여 쓴다.

#### ② 반드시 띄어 쓰는 단어

\* ‘중, 등, 등, 리, 때문, 따위, 수, 바람, 초, 말, 내, 체, 겸’ 등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 ‘이에 따라, 이에 앞서, 좀 더, 것 같다, 더 이상’ 등은 띄어 쓴다.
- \* ‘대(對)’는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삼성 대 현대)
- \* ‘게’가 ‘것이’의 준말인 경우 띄어 쓴다. (예: 먹은 게 없다)
- \* ‘밧’은 접속 부사이므로 띄어 쓴다. (예: 사람 밧 동물)

#### ③ 붙여서 쓰기도 하고 띄어서 쓰기도 하는 단어

- \* 의존명사/조사 구별: ‘뻔, 대로, 만큼, 만’
- \* 의존명사/어미 구별: ‘-느니, -는데, -는데, -르지, -느니, -르망정, -듯’
- \* 의존명사/접미사 구별: ‘간, 차(次), 들, -당하다’

#### ④ 기타

- \* 오랫동안/하루 동안, 그동안, 오랜만에/3년 만에
- \* 이같이/이 같은
- \* 또 한번/또다시
- \* 여러 가지/갖가지
- \* ‘-있다, -없다, -삼다, -나다, -짓다, -들이다’는 앞에 꾸미는 말이 오면 띄어 쓴다.

(예: 아무 쓸 데 없는 일, 큰 문제 삼을 것)

\* ‘아랑곳없다’, ‘가는귀먹다’, ‘큰코다치다’처럼 한 단어로 굳어진 말은 붙여 쓴다.

#### 참고:

\* ‘김영배씨, 김모군, 이양’처럼 ‘씨’, ‘군’, ‘양’을 붙여 쓰는 규정은 보이지 않지만 붙여 쓰고 있다. 서울신문, 한겨레신문도 같다. 동아일보는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 시분, 월일, 숫자 전체를 붙여 적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숫자 전체는 모두 붙여 적는다. 동아일보도 숫자 전체를 붙여 적도록 규정하였다. 한겨레신문사는 날짜, 시간, 숫자 전체를 모두 붙여 적게 규정했다. 특히 한겨레는 연월일을 온점을 이용해서 생략하는 경우에도 모두 붙여 적는다. 서울신문은 연월일을 함께 쓸 때는 단위별로 띄어 쓰고 월일을 쓸 때는 붙여 쓰며, 시분은 언제나 붙여 쓰고, 수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 한겨레신문사 스타일북에는 고유어와 함께 쓰는 단위명사도 붙여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문장 부호와 약물

#### ① 마침표: 문장 부호 규정과 다른 부분만 제시한다.

\* 큰따옴표 뒤에 조사로 계속 말이 이어질 때나 괄호() 안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한 관계자는 “일이 잘 돌아간다”며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 이어진 문장 가운데 쓰인 각 조항 끝이나 ▶표로 구별되는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예: 노사 양측은 ▶ 임금을 8% 인상한다 ▶ 잔업 수당은 7% 인상한다 ▶ 해고자는 전원 복직한다 등에 합의하였다.)

\* 부음, 모임, 동창회, 개업 등 간단한 소식에선 중지부를 찍지 않는다.

#### ② 쉼표: 문장 부호 규정과 같다.

#### ③ 가운데점: 특별한 경우만 소개한다.

\* 연속적인 명사가 둘 이상 나열될 때 (예: 부음·모임·동창회·개업 등)

\* 괄호 안의 연령·직업·주소를 구별할 때 (예: 홍길동(46·회사원·서울 중구)씨는. 김미자(40·사진)씨가)

④ 각괄호 []: 외신의 발신지와 발신자, 외지와 주(註)를 표기할 때. (예: [도쿄=외신종합], [타이페이 AFP·AP=연합뉴스], [포춘지] [중앙포토] [뉴시스])

⑤ 홑꺾쇠표 <>: 투고자 주소를 밝힐 때, 그림·표 참조, 관계 기사 등을 표기할 때. (예: 박정희씨<서울 은평구 불광동>, <표 참조>, <관계 기사 4, 5면>, <본지 6월 18일자 31면>)

⑥ 줄표 -: 스포츠의 대전(對戰), 득점의 대비를 나타낼 때 (예: 삼성7-5현대, 삼성-기아전, 5-8로 이겼다)

⑦ 반줄표 -: 골프 타수 등 스포츠 기록 및 한 조를 이루는 선수명 표기, 복합체나 공동연대성을 지닌 것 등에 쓴다. (예: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구, 유남규-이

철승 조, 69-71-72-68)

⑧ 평행선 =: 기사의 발신지와 발신자 사이에 쓰며 양쪽 말이 같을 때 쓴다. (예: 도쿄=000특과원. AP=연합뉴스)

참고:  
 \* 각괄호, 반쪽쇠표, 줄표, 반줄표 등의 이름은 중앙일보에 국한하여 쓰이고 있다. 꺾쇠표를 동아일보에서는 산괄호라고 부른다. 동아일보에서는 영어의 아포스트로피에 해당하는 점을 어갓점이라고 부른다.  
 \* 중앙일보는 스포츠 대전이나 득점 대비를 나타낼 때에 줄표를 쓰지만 다른 신문에서는 붙임표를 쓴다.  
 \* 서울신문은 큰따옴표 안의 문장 끝에 마침표를 붙이고, 직접 인용 조사 '라고, 라며'를 쓴다.  
 \* 줄임표의 점은 모든 신문이 3개만 사용한다.

**(3) 표기 준칙**

- ① 물결표로 수의 폭을 나타낼 때에 아라비아숫자는 줄이지 않는다. 백·천·만 같은 단위는 앞의 숫자에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10~20%, 1만~2만원, 400만~500만원)
- ② 연도의 기간을 물결표로 나타낼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를 줄여 쓸 수 있다. (예: 1940~45년)
- ③ 기간을 나타내는 물결표를 사용할 때에는 뒤의 날짜에 연월일을 붙인다. 다만 기간이 달이나 연을 달리하면 앞의 날짜에도 연월일을 붙인다. (예: 10월 14~18일, 5월 30일~6월 1일, 1990년 12월 25일~91년 1월 4일)
- ④ 한자 단어에 나오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지 않는다. (예: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제삼자)
- ⑤ 1900년대 연 표기는 최초로 제대로 적고 다음부터는 뒤 두 자리만 표기할 수 있으며, 2000년대 연 표기는 생략하지 않는다. (예: 1995년과 96년에, 2000년과 2001년에)

참고:  
 중앙일보 스타일북에서는 연월일이나 월일을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예: 8월 26일계)  
 그 밖에 위의 규정은 다른 신문에서도 같다.

<스타일북에 따른 신문사별 띄어쓰기 규정 위반 여부>

0: 규정과 일치. △: 부분 일치. ×: 위반

유형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단위명사 띄어쓰기	△	△	×	0
숫자 표기	×	×	×	0

연월일 표기	△	△	×	△
시간 표기	×	×	×	×
의존명사 띄어쓰기	0	0	×	0
큰따옴표 안에 마침표 찍기	△	△	△	0
문장 안의 수에 자릿점 찍기	×	×	×	×
직접 인용 조사 사용	×	×	×	0
줄임표 6점	×	×	×	×
붙임표(7-5, 삼성-기아) 사용	0	0	0	0

이 표를 보면 한겨레신문은 띄어쓰기 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신문이 비교적 띄어쓰기 규정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신문 언어 개선 방안

이제까지 우리는 신문 문장에서 나타난 어문 규범상의 문제점, 어휘상의 문제점, 문법과 표현상의 문제점, 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 배경으로서 신문사의 스타일북을 검토해 보았으며, 자문위원 4명의 기자들이 우리 조사원이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았다. 어떤 것은 언론사가 노력하면 규정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것은 규정을 바꾸거나 적용에 융통성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음을 알았다. 특히 신문사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세밀한 규정을 만들 수 없다면 규제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신문 문장의 언어 사용법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문사가 받아들일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어문 규정을 지키게 하려면

신문사들이 어문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한 탓도 있겠지만 어문 규정이 허술하거나 불필요하게 규제하려는 태도 때문에 어문 규정과 신문 언어 사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규정은 신문사가 철저히 지키도록 강제하고 어떤 규정은 융통성을 부여하여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신문사가 어문 규정을 어기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기준을 신문사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① 띄어쓰기 규정과 신문 언어 사용 관례 사이의 거리 좁히기: 띄어쓰기에서는 한 음절의 단위명사나 의존명사 띄어쓰기, 수.연월일.시간의 띄어쓰기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 음절의 수에 관계없이 단위명사는 수관형사에 붙여 쓰지 않는 한글맞춤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 숫자와 단위명사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 단위명사를 붙여 쓰고 싶으면 수관형사를 쓰지 말고 숫자를 쓰면 된다. 일부 시각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 원칙은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오백원→오백 원, 일만개→일만 개, 천달러→천 달러)

\* 연월일은 마땅히 띄어 써야 한다. 월일만 적더라도 일관성 있게 띄어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3월1일→3월 1일, 3년6개월→3년 6개월)

\* 시각 표기도 시, 분, 초 단위로 띄어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 (4시30분→4시 30분)

\* 수 표기에서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한 것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수 전체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면 좋겠다. 수 자체를 한 단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십만 오천구백 원/십만오천구백 원, 2800만 5000개/2800백만5000개)

\* 의존 명사도 관형어에 붙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존명사인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좋겠다. (도착한 지 2시간이 지났다. 그럴 수 없다.)

\* 호칭, 지칭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씨, 님, 양, 군’ 등도 띄어 쓰도록 한다. (김영삼 씨, 이 씨, 김 군, 이 양, 김모 양)

② 문장 부호 규정과 신문 언어 사용 관례 사이의 거리 좁히기: 문장 부호와 관련해서는 가운데점 사용법에 관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문장 부호 규정에 없는 부호의 사용에 대한 태도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부호 규정을 좀 세밀하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문에서는 명사를 여럿 나열할 때에 반점을 사용하지 않고 가운데점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신문의 특성인 것 같다. 문장에서 명사를 나열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반점을 사용하고 나열하는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더 가까운 것을 묶는 의미에서 가운데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문에서는 반점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를 용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에 비해서 반점은 주로 제목에서 주어부와 서술부의 경계를 구분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예: 이희완 국제청장, 청호나이스서도 자문료 수억원). 이렇게 함으로써 주격조사와 서술어를 함께 생략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용인할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 같다. 문장 부호 규정에는 반점에 이런 기능을 주고 있지 않다. 신문 문장의 특수한 용례로서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 문장 안에 나오는 수에 자릿점을 찍는 것에 대해서 문장 부호 규정에 확실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자릿점을 찍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가 천 단위에 자릿점을 찍고 있지만(예: 오늘은 레몬을 1,000개 이상 팔았다), 다른 신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반점을 문장에서 자릿점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익을 주는 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 수이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반점을 찍게 되어 있다(예: 5, 6개, 4, 5세기). 그런데 신문에서는 대개 물결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물결표는 ‘부터’, ‘까지’를 아우르는 부호여서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5, 6세기’와 ‘5~6세기’가 의미상 다르지 파악해야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다른 것 같다. 그렇다면 이를 구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 큰따옴표 안의 문장에 종결어미를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문장 부호 규정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다만 따옴표를 설명하는 예문에서 마침표를 붙이고 있어서 마침표를 붙이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신문에서는 큰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이 인용조사로 연결되어 다른 문장으로 이어지면 따옴표 안의 문장에 마침표를 붙이지 않고, 따옴표 문장으로 전체 문장이 끝나면 따옴표 안의 문장에 마침표를 붙이고 있다. 이런 용법도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큰따옴표 안에서 문장이 마치면 큰따옴표가 그 문장의 마지막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 괄호 안의 문장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큰따옴표나 괄호 뒤에 곧바로 쉼표나 마침표가 오면 큰따옴표나 괄호 속의 마침표는 생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는 쌍점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예: 65 대 70을 65:70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신문은 모두 쌍점을 쓰지 않고 붙임표를 쓴다. ‘삼성 대 기아 전’을 ‘삼성:기아 전’이라고 하지 않고 ‘삼성-기아 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점수를 대비하는 경우에도 ‘기아가 삼성을 7-5로 이겼다.’라고 표기한다. 붙임표를 이렇게 사용하는 규정은 문장 부호 규정에 없다. 신문의 붙임표 사용 관행을 인정해 줄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붙임표는 이 외에도 제법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붙임표의 기능에 새로운 것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

## (2) 어휘 사용법을 지키는 문제

어휘는 국어사전의 용법을 기본으로 하여 의미 확장, 축소, 유추, 상징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 문제이므로 용법상으로는 특별히 규제할 만한 것이 없다. 다만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틀리다’를 ‘다르다’와 같은 의미로 쓰거나, ‘파장’을 ‘파문’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연출’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잘못은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무대’를 ‘공연’의 의미로 확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어휘 문제는 아무래도 어려운 어휘를 쉬운 어휘로 대체하는 문제와 외국어를 순화어로 대체하는 문제가 가장 난해한 문제일 것이다. 기준도 만들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① 어휘 사용법: 국어사전의 뜻풀이와 사용례를 참고하여 무리하지 않다면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다만 국어사전의 용법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어휘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는 의미에서 신문에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접수’와 ‘제출’을 반대되게 사용하거나 ‘자문’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거꾸로 되는 경우에는 바로잡도록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에서 사용한 ‘연출’은 잘못 사용한 예이다.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지는 않을 터이니까 말이다. 이처럼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기자에게는 경고를 하거나 언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수강신청 오픈 10초 만에 마감될 정도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세계 부자 순위 488위에 등극한 장신 CEO’ 등등의 기사가 신문에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비표준어, 사투리, 비속어, 은어: 신문 기사문은 공공언어의 일종이므로 이런 비정상적인 어휘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런 어휘

사용이 필요하다면 그런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인용문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지방 신문에서는 일정 부분에 국한하여 사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속어와 은어 사용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정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어려운 말: 신문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기자가 전문가에게서 들어 알게 된 전문 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일상어로 바꿔서 기사화해야 한다. 여기서 일반 국민의 눈높이 또는 지식 수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교과서에서 쓸 수 있는 단어, 신문에서 쓸 수 있는 단어를 제시하거나, 교과서에서나 신문에서 쓰는 것을 자체해야 할 단어를 제시하고 대체어를 제시해 주거나 해야 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어의 범위를 정할 때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의 자문위원 의견에서도 우리 조사자가 어려운 낱말이라고 지적한 것을 4명이 모두 어렵지 않다고 한 낱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처럼 그 방면의 낱말을 자주 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면서 기사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④ 외국어, 외래어: 어느 것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외래어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는 외래어로 보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40만을 넘는 수많은 단어가 올라 있는 대사전이다. 여기에 오른 낱말이 다 신문에 사용할 수 있는 낱말이라면 우리 신문은 정말 어려워져 읽을 수 없는 기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키네시스, 키네파노라마, 키노폴라즘, 키메리즘, 키스톤콤비’ 같은 낱말들이 수없이 올라 있다. 이런 낱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으니 거리낌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어나 외래어도 한자어처럼 어려운 것을 구별하여 순화하여 사용하도록 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어와 외래어도 신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휘 사용 빈도나 어휘의 난이도에 따라서 구별하여 제시하는 노력을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여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과거의 언어 현상을 집약한 것이므로 새로운 낱말의 등장에는 언제나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도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외래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그것만으로 외래어 사전을 만들어 주고, 일반 국어 사전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외래어를 선별하여 올리고, 신문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외래어를 다시 선별해 주는 노력을 국가가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4G(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전파를 발사한지 일주일째”: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는 이 기사를 읽지 않을 것이다. 독자를 멀어지게 만드는 기사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기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어, 외래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용어라면 반드시 해설을 붙이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문법, 표현법을 지키는 문제**

문법은 한국어의 기본이므로 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우리가 외국어에 많이 접하다 보니 외국어 직역투가 국어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국어에 없는 표현법을 외국어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국어의 표현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어의 어법을 훼손하는 외국어투 사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도 어느 어법이 국어 어법을 훼손하는 것인지 국립국어원이 조사하고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일반에서는 비국어투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직접인용 조사를 큰따옴표 뒤에 붙이는 문제: 서울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이 직접 인용하는 큰따옴표 뒤에 ‘라고, 라며, 라는’ 등의 직접 인용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간접 인용한 것처럼 ‘고, 며, 면서, 는’ 같은 어미를 사용하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행이 생긴 것은 큰따옴표 안의 문장을 발화자가 한 대로 인용하지 않고 종결어미를 일방적으로 ‘-다’를 쓰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말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인용하기 때문에 인용 조사를 ‘라고’로 붙이지 않고 ‘한다고’에서 사용하는 어미 ‘-다고’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종결 어미를 화자가 사용한 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따옴표로 인용했으면 꼭 직접 인용 조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조사 ‘에서’를 ‘서’로 줄여 사용하는 문제: 국어사전에도 ‘서’를 ‘에서’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를 ‘서’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방송서 비속어 사용”이라고 할 때에 ‘방송서’와 ‘방송에서’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준말은 본딴말보다 품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신문 언어는 가능하면 준말보다는 본딴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도 ‘에서’를 ‘서’로 줄여서 표기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 형용사에서 사용하는 어미의 매개어 ‘-으-’: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형용사 ‘알맞다’와 ‘걸맞다’의 관형사형은 ‘알맞은’과 ‘걸맞은’이다. 이를 ‘알맞는’, ‘걸맞는’으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이 점은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지만 실수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예로 형용사 ‘아니다’를 부정하는 말 ‘아니지 않다’의 활용형을 ‘아니지 않느냐’처럼 쓰는 경우가 많다. 마땅히 ‘아니지 않으나’로 써야 할 것이다. 형용사를 부정하는 보조형용사 ‘-지 않다’의 활용형을 마치 보조동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 영어나 일본어에서 온 조사와 표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신중히 논의해야 할 것 같다. 조사 뒤에 관형격조사 ‘의’를 붙이는 일본식 표현법은 ‘범죄와의 전쟁’, ‘미국에서의 경험’처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출발점을 나타내는 영어식 표현 ‘로부터’가 ‘학교로부터 온 소식’처럼 어색하게 쓰이기도 해서 이런 표현이 국어식 표현에 녹아들었는지 국어식 표현과 섞이지 않고 곁돌고 있는지 파악해서 신문 문장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 ‘어떻다는 분석이다’, ‘어떻다고 전망된다’처럼 주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표현 방식을 신문이 사용할 수 있는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

\*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이런 기사들이 수없이 신문에 등장한다.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인사를 신문이 사용하지 말도록 문법 소양 교육을 기자들에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태도와 관련한 문제**

태도의 문제는 신문의 품위, 사회 분위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폭력적인 표현이나 특정 소수자를 차별하는 표현, 합리적인 이해보다는 선정적이고 선동동적인 방법으로 훗살리게 하는 표현은 건전한 사회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공식적 차원에서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5) 신문 언어 사용 기준 마련**

이제까지 제시한 문제 해결 방법은 신문사가 받아들여 기사를 작성할 때에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이 작업의 최종 목적은 신문사로 하여금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사의 언어 환경을 일정 부분 배려하면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문 언어의 사용 기준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신문사와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문사들이 동의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신문사가 지켜야 하는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한글맞춤법과 국어사전 그리고 문법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겠지만 이를 넘어서는 것이라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허용할 것은 과감하게 허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일단 신문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민들도 신문의 국어 규범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신문뿐 아니라 방송의 특수성에 맞추어 방송 언어에 맞는 기준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이는 국어에 어문 규정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무슨 신문 언어의 기준이 따로 있고, 방송 언어의 기준이 따로 있어야 하느냐고 반론을 펼 수 있겠지만, 어문 규범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율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부문에 맞는 규범 또는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연방 정부 차원의 쉬운 문서 작성 기준이 있지만 각 주에 별도로 주 차원의 규정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신문 언어의 기준을 만들면 이를 각 신문에 제시하여 각 신문의 스타일 북에 수록하게 한 다음에 소속 기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모든 신문 문장에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숫자 표기의 일관성, 열월일 표기와 시간 표기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이고, 필요 이상의 어려운 낱말이나 외국어가 줄어들 것이며, 이상한 표현도 상당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신문이 국어 선생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립국어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신문 언어 개선을 위한 지침서 마련 작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 12. 맺음말

이번 조사는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 신문의 언어사용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증명하듯이 일관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장기간 조사한 결과 신문의 언어에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고(기사당 18개의 잘못이 있음), 기자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문법(표현법 포함)에 많이 나타났으며, 신문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어문 규범을 어기는 사례가 많음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제주일보를 제외한 지방지의 언어 사용 실태가 유명 중앙지에 비해서 별로 손색이 없음도 드러났다. 이는 중앙지 기자들의 언어 사용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에서 신문사별로 순위를 매긴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사도 이제 언어 사용 능력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신문사가 이제부터는 언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신문사들도 이제 신문 언어 사용 지침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자는 도태시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신문이 국민의 언어 교사가 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 결과에는 각 신문사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제시해 놓은 것이 신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보도 기사, 주장 기사, 해설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다면 이 기자들에게 기사의 성적표를 보여 주는 것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문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장 구성과 표현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립국어원은 신문사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어문 규점을 통일하거나 차이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신문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해 준 것도 이 조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가 신문 언어 개선과 국립국어원의 언어 실태 파악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붙임1> 조사 대상 신문별, 기사별 목록

범례: 강(강원일보), 경(경향신문), 광(광주일보), 대(대전일보), 동(동아일보), 매(매일경제), 부(부산일보), 북(경북일보), 서(서울신문), 스(스포츠서울), 오(오마이뉴스), 이(이데일리), 일(일간스포츠), 제(제주일보), 조(조선일보), 중(중앙일보), 프(프레시안), 한(한겨레신문)

번호	신문	종류	기사 제목	기사일	조사량	비고
1	강1	보도	추천 속초 고속화철도 직격탄	8. 12.	1100자	
2	강2	해설	팔팔한 미스타 리의 은밀한	8. 12.	936자	
3	강3	해설	무조건 묶어 놓고 보자	8. 11.	1349자	
4	강4	보도	민족 정기 끊는 쇠말뚝	8. 11.	1197자	
5	강5	해설	외국인 매물폭탄 개미가	8. 11.	1260자	
6	강6	보도	재산권 묶인 주민들 4년째	8. 11.	1548자	
7	강7	해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8. 10.	1577자	
8	강8	보도	동해시 '도시농업' 대표 모델	8. 10.	912자	
9	강9	보도	고교평준화 찬반 주민발의	8. 9.	912자	
10	강10	보도	올림픽 경기장 SOC 확충	8. 8.	1480자	
11	강11	보도	올림픽 호재 강릉 아파트값	8. 8.	960자	
12	강12	보도	클래식 스타 한여름 밤 감동	8. 8.	1060자	
13	강13	사설	강원도 관광 인프라 경쟁력	8. 8.	2415자	
14	강14	사설	대관령 국제음악제	8. 9.	1155자	
15	강15	사설	한강수계 기금 불합리한 배분	8. 11.	1089자	
16	강16	사설	전통시장 가는 날	8. 12.	1089자	
17	강17	사설	강릉 산업단지	8. 12.	1089자	
18	경1	칼럼	3류 4류의 동반성장	3. 15.	2185자	
19	경2	해설	퀸 연아 은반 귀한	3. 15.	1056자	
20	경3	해설	중국발 인플레 파고 오나	3. 15.	1595자	
21	경4	사설	신공항 갈등이 한국 정치에	4. 1.	1392자	
22	경5	해설	중산층 표심	4. 1.	1357자	
23	경6	보도	박근혜 "신공항 계속 추진"	4. 1.	1340자	
24	경7	해설	지역상인들 "허술한 법 탓"	4. 1.	1178자	
25	경8	해설	파키스탄 민심 폭격한	5. 12.	1600자	
26	경9	보도	생산자물가 10개월 연속 고	5. 12.	1000자	
27	경10	보도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5. 12.	1260자	
28	경11	사설	상장사 대표 제벌 3세가지	5. 12.	1189자	
29	경12	해설	대포 전쟁 새 얼굴이 뻐다	5. 12.	1520자	
30	경13	보도	용산 미군기지에(홍인표)	5. 12.	1181자	
31	경14	해설	달라진 북 외무성(손제민)	6. 3.	1854자	
32	경15	보도	구글 해킹 진원지(조찬제)	6. 3.	1453자	
33	경16	보도	장출혈성 대장균(이지선)	6. 3.	1381자	
34	경17	보도	캠핑캐럴 인근 주민(문주영)	6. 3.	1478자	
35	경18	보도	민곤 아동 마음의 문(정유미)	6. 3.	1451자	
36	경19	보도	용인시프로야구단(최인진)	6. 3.	1540자	
37	경20	보도	박재완장관(이호준)	6. 3.	1200자	
38	경21	해설	우린 연예인 아닌 음악인	6. 3.	2375자	
39	경22	보도	군복대전쟁의상징물(유인화)	6. 3.	2700자	
40	경23	해설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박효순)	6. 3.	2394자	
41	경24	사설	대북정책	6. 3.	1290자	

42	경25	사설	밥 좀 제대로 먹게	6. 3.	1271자	
43	경26	보도	SK의전관예우(정재혁)	6. 25.	1604자	
44	경27	보도	나토리비아공습(조홍민)	6. 25.	1444자	
45	경28	해설	삼성백혈병(목정민, 구교형)	6. 25.	1791자	
46	경29	사설	산업재해(사설)	6. 25.	1211자	
47	경30	사설	저축은행(사설)	6. 25.	1178자	
48	광1	해설	교육 문화적 인프라	8. 16.	1320자	
49	광2	보도	남구 의료폐기장 허가	8. 16.	1496자	
50	광3	해설	날씨 스트레스 고물가 부채질	8. 16.	1680자	
51	광4	해설	만순 민원 제기서 주권 찾기	8. 12.	2530자	
52	광5	해설	생계 막막 밥값 설치며	8. 12.	1680자	
53	광6	보도	한밤 북 뽕파리 치며	8. 12.	1590자	
54	광7	보도	청소년들 전자담배 탈선 심각	8. 11.	1680자	
55	광8	칼럼	퍼펙트 스톱	8. 12.	1210자	
56	광9	칼럼	MRO	8. 16.	1045자	
57	광10	보도	민주 공천 개혁안 갈등	8. 9.	1660자	
58	광11	칼럼	구호물자	8. 9.	1100자	
59	광12	보도	농작물 3災 작황부진	8. 8.	1320자	
60	광13	해설	수영장에서 물안경은 반드시	8. 8.	1691자	
61	광14	칼럼	피서	8. 8.	1045자	
62	광15	사설	확산되는 세계경제 불안	8. 8.	945자	
63	광16	사설	태풍 무이과 피해 복구	8. 9.	945자	
64	광17	사설	자연재해 피해 어민 보상	8. 11.	945자	
65	광18	사설	5. 18 진범이 유언비어	8. 12.	945자	
66	광19	사설	광복절이 무색한 독립유공자	8. 16.	945자	
67	대1	보도	반값 등록금(송충원)	6. 13.	1560자	
68	대2	보도	모든 생산라인 주문량(이찬선)	6. 13.	1932자	
69	대3	칼럼	의인	6. 13.	1300자	
70	대4	사설	한류 문화산업으로	6. 13.	1184자	
71	대5	칼럼	절반의 권리	6. 14.	1378자	
72	대6	사설	청 회담 때 뭐 하나라도	6. 14.	1184자	
73	대7	해설	기각 기각 체면 구긴(황진현)	6. 15.	1091자	
74	대8	칼럼	직지 대모 박병선(변상섭)	6. 15.	1268자	
75	대9	사설	통신사들	6. 15.	1128자	
76	대10	사설	단체장	6. 15.	1119자	
77	대11	해설	쉬는 건 좋지만(송충원)	6. 16.	1514자	
78	대12	보도	서천 서면중(최병용)	6. 16.	2006자	
79	대13	보도	예코북 생태 학교(인상준)	6. 16.	1666자	
80	대14	칼럼	세종시 과학벨트	6. 16.	2226자	
81	대15	사설	과학 벨트(사설)	6. 16.	1147자	
82	대16	사설	바로잡아야(사설)	6. 16.	1184자	
83	대17	보도	공주 한옥마을	6. 17.	1281자	
84	대18	보도	홍명보 윤빛가람	6. 17.	1050자	
85	대19	보도	대전 지역 민주당(정재필)	6. 17.	1606자	
86	대20	해설	태안 별미(정명영)	6. 17.	966자	
87	대21	해설	가슴속 무한 열정(정민아)	6. 17.	2240자	
88	대22	사설	끝이 안 보이는(사설)	6. 17.	1221자	
89	대23	해설	짧지만 강렬하게(황해동)	6. 17.	2180자	

90	대24	해설	보령 머드 축제	6. 18.	1276자	
91	대25	사설	국립대 통합	6. 18.	1551자	
92	대26	사설	별 내용 없는	6. 18.	1551자	
93	동1	보도	한국형 원전 안전	3. 15.	1558자	
94	동2	해설	또 일 펀드 어쩌나	3. 15.	1078자	
95	동3	사설	일본의 위기 대처에서	3. 15.	1248자	
96	동4	보도	구조팀 못 가는 곳 많아	3. 15.	1459자	
97	동5	해설	산업활동 석달만에 내리막	4. 1.	1120자	
98	동6	사설	공평과세 이루어면 국세청	4. 1.	1258자	
99	동7	칼럼	국방개혁, 地作司 창설부터	4. 1.	1651자	
100	동8	보도	그때 이런 일이	4. 9.	1881자	
101	동9	사설	방사능 피담 세력	4. 9.	1258자	
102	동10	해설	FTA 번역 오류	4. 9.	1225자	
103	동11	보도	봉숭아 의총	4. 9.	900자	
104	동12	사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와	4. 26.	1287자	
105	동13	칼럼	통 큰 석유 이마트 석유	4. 26.	1634자	
106	동14	해설	가사가 뭘다고요?	4. 26.	1541자	
107	동15	해설	정부 태도 안 바뀌면	4. 26.	1406자	
108	동16	보도	검, 사정칼날 금융검찰 겨누나	4. 26.	1062자	
109	동17	보도	제정파탄 일 유바리시 주민들	4. 26.	1615자	
110	동18	보도	카페 헌팅	6. 1.	1530자	
111	동19	해설	한국판 아이팟 신화(김지)	6. 1.	1692자	
112	동20	칼럼	거품 고학력(홍찬식)	6. 1.	2289자	
113	동21	칼럼	잊혀진 수인들(김동원)	6. 1.	1728자	
114	동22	사설	새 경제장관들	6. 1.	1292자	
115	동23	사설	서울대발전	6. 1.	1292자	
116	동24	보도	높아지는 대출 문턱	7. 11.	1482자	
117	동25	보도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7. 11.	1140자	
118	동26	해설	폭우에 쓸려간 홈런	7. 11.	950자	
119	동27	칼럼	연아처럼 탈진해 본 적 없는	7. 11.	2226자	
120	동28	칼럼	수익에는 주머니가 없다	7. 11.	1428자	
121	동29	사설	고령자 부양물 세계 2위	7. 11.	1254자	
122	매1	해설	실력있는 중견 작가들의	4. 1.	1386자	
123	매2	칼럼	'나가수'와 자문형 랩	4. 1.	1978자	
124	매3	해설	관능미 넘치는 글래머룩	4. 1.	1224자	
125	매4	보도	원화값 30개월만에 최고치	4. 1.	1083자	
126	매5	칼럼	통신비와 모바일 소통 대란	4. 8.	1868자	
127	매6	해설	한국 트리플 강세 급반전	4. 8.	1817자	
128	매7	해설	늘어난 재산 못 밝히면	4. 8.	1184자	
129	매8	해설	2년 만에 임단협 현대차가	4. 11.	1600자	
130	매9	사설	금강산 관광 떠선다고	4. 11.	1190자	
131	매10	칼럼	피카소도 웃을 일	4. 11.	1512자	
132	매11	보도	의류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4. 25.	1908자	
133	매12	보도	재산 7-9억 피부양자	4. 25.	1805자	
134	매13	보도	공실의 늪에 빠진 상가 투자	4. 25.	1458자	
135	매14	해설	일방사능쇼크(채수환)	5. 16.	1824자	
136	매15	해설	초록됰에 뛰어든(박대민)	5. 16.	1786자	
137	매16	보도	전기료 올리되 누진제(박봉권)	5. 16.	2166자	

138	매17	보도	스마트그리드 냉장고(김규식)	5. 16.	2603자	
139	매18	보도	두산건설 BW, CB 투자해볼까	5. 16.	1938자	
140	매19	보도	불속에서도 안터지는(강다영)	5. 16.	1349자	
141	매20	사설	과학벨트 입지 발표	5. 16.	1155자	
142	매21	사설	재벌 일감몰아주기	5. 16.	1184자	
143	매22	보도	KB 樂스타의 대학가 공략.	6. 25.	1764자	
144	매23	보도	도요타, 소니 이어 구글	6. 25.	2166자	
145	매24	보도	삼성직원 4명 중 1명	6. 25.	2090자	
146	매29	보도	MCMI 선진 지수	10. 20.	1045자	
147	매30	칼럼	한국의 상위 1%	10. 20.	1020자	
148	매31	해설	현대건설 M&A	10. 20.	1422자	
149	매32	해설	딤임팩트	10. 20.	2242자	
150	부1	보도	원도심 발전 핵심 부지	6. 17.	1411자	
151	부2	해설	대선주조 티저광고	6. 17.	909자	
152	부3	칼럼	금융막장, 주저앉은 대한민국	6. 17.	2281자	
153	부4	보도	정치권 선거구 획정	6. 18.	1139자	
154	부5	보도	이통사도결국(김종우)	6. 18.	1536자	
155	부6	보도	낙동강 8개 공구 공사 원가	6. 20.	1180자	
156	부7	보도	노조 춘추전국시대	6. 20.	1610자	
157	부8	보도	증시 낙관론에 외상 주식투자	6. 20.	1764자	
158	부9	사설	발 씻기도 힘든	6. 20.	957자	
159	부10	사설	롯데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6. 20.	990자	
160	부11	칼럼	힘있는사람(이양삼)	6. 20.	2025자	
161	부12	보도	안전 빠진(성화선)	6. 17.	1596자	
162	부13	사설	저축 은행 사태	6. 17.	957자	
163	부14	사설	가시화되는	6. 17.	957자	
164	부15	보도	불붙은카드대출(서준영 외)	6. 17.	1539자	
165	부16	해설	아랍은 온건 이슬람주의	10. 26.	1197자	
166	부17	해설	부산 천재시인 김민부	10. 26.	1462자	
167	부18	해설	게임 섯다운제	10. 25.	1458자	
168	부19	해설	퇴근길 한 표	10. 26.	1140자	
169	북1	보도	영일만항, 최첨단 항만으로	8. 19.	1368자	
170	북2	보도	전 세계에 천년의 미소 전해	8. 19.	1740자	
171	북3	해설	자살 기도 신장원 뇌손상	8. 19.	1300자	
172	북4	해설	늙은 시내버스 정책	8. 18.	1368자	
173	북5	해설	축구 끝나무 통해 우정	8. 18.	1254자	
174	북6	해설	공공건물 내진설계 고작 16%	8. 18.	1548자	
175	북7	보도	전쟁, 테러 등 대응	8. 17.	1280자	
176	북8	해설	3D로 떠나는 천년왕조 신라	8. 17.	2120자	
177	북9	해설	포도 따고 별밤의 낭만 여행	8. 17.	1055자	
178	북10	보도	방파제 보강용 블록 내구성	8. 16.	1050자	
179	북11	해설	국내외 재즈 거장들	8. 16.	1379자	
180	북12	보도	포항 지역 수산물 가격	8. 16.	1097자	
181	북13	보도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폐기물	8. 15.	1176자	
182	북14	보도	내년 약값 평균 17% 싸진다	8. 15.	1390자	
183	북15	사설	'Sea of Japan'과 독도	8. 16.	1364자	
184	북16	사설	검찰총장의 중북좌파세력	8. 17.	1342자	
185	북17	사설	신공항 또다시 영남권 우풍	8. 18.	1339자	

186	북18	사설	경주시는 국제 도시 면모	8. 19.	1337자	
187	서1	칼럼	대전 지역공약 내지 말자	4. 1.	1870자	
188	서2	사설	영남 정치권 신공황에만	4. 1.	1120자	
189	서3	해설	예비 의사 병든 양심	4. 1.	1168자	
190	서4	보도	아쉬운 고별 무대(박창규)	4. 18.	1740자	
191	서5	보도	마늘밭에서 110억을(김정은)	4. 18.	1610자	
192	서6	사설	독거할머니 쓸쓸한 죽음	4. 18.	1089자	
193	서7	칼럼	남성백수(곽태현)	4. 18.	1200자	
194	서8	보도	가요계 춘추전국시대(이은주)	4. 18.	1575자	
195	서9	보도	금강바닷물 소통갈등(임송학)	4. 18.	1659자	
196	서10	해설	퇴직공직자 로펌행	5. 12.	1137자	
197	서11	해설	군기 빠진 내각	5. 12.	990자	
198	서12	사설	금융감독권 밥그릇 싸움	5. 12.	1054자	
199	서13	보도	주거환경 정비사업(오상도)	5. 12.	1340자	
200	서14	보도	클라우드 컴퓨팅	5. 12.	1440자	
201	서15	보도	한글애플카드메카	5. 19.	1553자	
202	서16	해설	돈겁나(이경주)	5. 19.	775자	
203	서17	해설	미쳤다	5. 19.	1327자	
204	서18	해설	아이들영화에19금(맹수열)	5. 19.	1240자	
205	서19	해설	강만수 효과(홍희경)	5. 19.	1276자	
206	서20	해설	우리 관할 아나	5. 19.	1439자	
207	서21	해설	서민 실질적인 피해	5. 19.	1838자	
208	서22	사설	北사이버전력	5. 19.	896자	
209	서23	사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5. 19.	1024자	
210	서24	해설	안의 정치적 멘토는	10. 25.	1242자	
211	서25	보도	세종시 예산 집행	10. 25.	946자	
212	서26	보도	경찰청 증거물 관리	10. 25.	1083자	
213	서27	칼럼	페이플레이	10. 25.	1890자	
214	서28	해설	서대문형무소	10. 25.	972자	
215	서29	해설	장애인 화장실	10. 25.	1278자	
216	서30	보도	홍준표의 한나라	7. 5.	1008자	
217	서31	보도	EU, 북에 1000만 유로	7. 5.	936자	
218	서32	보도	저축은행 자본 확충	7. 5.	1206자	
219	서33	보도	돈 많이 준다면 마루타 알바	7. 5.	1344자	
220	서34	보도	행안부 정책 홍보	7. 5.	1080자	
221	서35	해설	축소지향 주택 개발	7. 5.	2052자	
222	서36	사설	한나라당 홍준표 호	7. 5.	1088자	
223	서37	사설	복지 남북보다는	7. 5.	992자	
224	스1	해설	잘못된 스윙 자세는	4. 9.	1494자	
225	스2	보도	양현종 상대 125m 아취쇼	4. 9.	810자	
226	스3	해설	국물도 없다급쇼?	4. 9.	1375자	
227	스4	보도	찬호 4선발도	4. 9.	1231자	
228	스5	보도	안정된 선발 비해(이용희)	5. 6.	1008자	
229	스6	보도	늘어난 스쿼터족(김정란)	5. 6.	1746자	
230	일1	해설	박민영, '꽃남' 이민호	4. 2.	697자	
231	일2	해설	"203m 용병 닷 160km"	4. 2.	1020자	
232	일3	해설	"훈련 또 훈련" 마트 가는 게	4. 3.	1852자	
233	일4	해설	"약점만 보여" 애타는	4. 2.	1136자	

234	일5	보도	아내 암투병 임재범 열창에	4. 27.	1134자	
235	일6	해설	최준석 미친 타격감	4. 27.	1575자	
236	일7	해설	짧은 머리가 성적 도움된다면	4. 27.	1064자	
237	일8	보도	어버이날 캐네이션(권오용)	5. 6.	976자	
238	일9	보도	퇴출 위기 사도스키(김우철)	5. 6.	1200자	
239	일10	해설	부풀려진 사고(김연지)	5. 6.	960자	
240	제2	해설	쇼핑 카트 사용	8. 1.	884자	
241	제3	보도	맹꽁이에 물어볼 수도 없고	8. 1.	1326자	
242	제4	칼럼	A자형 인제	8. 1.	882자	
243	제5	칼럼	D-데이	8. 2.	990자	
244	제6	보도	미친 기름값	8. 3.	1020자	
245	제7	보도	고유가·어획 부진·불법 조업	8. 3.	960자	
246	제8	칼럼	해변의 운문집	8. 3.	1012자	
247	제9	보도	소외된 개별 농가	8. 4.	952자	
248	제10	보도	정부 '복지생색'	8. 4.	986자	
249	제11	보도	연일폭염	8. 4.	1216자	
250	제12	보도	우왕좌왕 길 잃은 도깨비도로	8. 5.	1044자	
251	제13	보도	공공발주공사	8. 5.	1173자	
252	제15	해설	공항공사에 열받은 사람들	8. 5.	1275자	
253	제16	칼럼	해저고속철도	8. 5.	1035자	
254	제17	사설	신비의 도로	8. 5.	950자	
255	제18	사설	보편화된 국제결혼	8. 4.	1000자	
256	제19	사설	ICC 제주 마이스산업	8. 3.	950자	
257	제21	해설	제주 특산 자리돔	10. 27.	448자	
258	제22	해설	도내 서민 가게	10. 28.	816자	
259	제23	해설	오승환 또 막았다	10. 27.	860자	
260	제24	해설	서귀포의 유쾌한 도전	10. 31.	1110자	
261	제25	해설	운명의 5차전	10. 31.	1472자	
262	조1	칼럼	겉돌 수밖에 없는	3. 15.	1575자	
263	조2	해설	관이 움직였기에	3. 15.	2117자	
264	조3	보도	체육관에 시신이 무더기	3. 15.	2087자	
265	조4	사설	북한 인권기록관	3. 15.	1376자	
266	조5	해설	산 위에 물... 맑은 호숫가	4. 1.	2125자	
267	조6	사설	신공항 백지화 하루 만에	4. 1.	1190자	
268	조7	해설	VVIP 시장의 진화	4. 1.	1328자	
269	조8	칼럼	세습권력과 5년권력의 싸움	4. 8.	2275자	
270	조9	보도	번역 오류(류정)	4. 11.	2424자	
271	조10	칼럼	계급장 뎀 대결이(김영수)	4. 11.	1672자	
272	조11	해설	게임도 3D시대(백승재)	4. 8.	1995자	
273	조12	칼럼	장지연상을 반납해야 하나	4. 19.	2400자	
274	조13	보도	현해탄 건너온 종이학(김진명)	4. 15.	1184자	
275	조14	보도	단2명만 쓰는 멕시코회귀언어	4. 15.	1064자	
276	조15	해설	신경 침범(김경원)	6. 1.	1662자	
277	조16	보도	NBA아메리칸아이돌(오윤희)	6. 1.	2279자	
278	조17	보도	국산 우주발사체(이영환)	6. 1.	2150자	
279	조18	칼럼	온갖등록금 반값교육(강경희)	6. 1.	1657자	
280	조19	칼럼	9륙켈러의 실패(김창균)	6. 1.	2249자	
281	조20	사설	저축은행	6. 1.	1174자	

282	조21	사설	감사원, 감사 받을 대 됐다.	6. 1.	1131자	
283	조22	해설	우리 노래로 뮤지컬(정지섭)	6. 23.	2205자	
284	조23	해설	누워라(유창우)	6. 23.	1254자	
285	조24	사설	홀로 살다 죽는(사설)	6. 23.	1952자	
286	조25	칼럼	대한민국의 A급 전범들	6. 23.	1276자	
287	조26	해설	편지 메모 습작 드로잉	10. 8.	2352자	
288	조27	해설	아무도 모르는 여배우	10. 8.	1530자	
289	조28	보도	화성시와 단국대	10. 8.	1650자	
290	조29	사설	지자체 엉터리	10. 8.	1178자	
291	조30	칼럼	폭풍전야	10. 8.	2352자	
292	조31	칼럼	보복의 굴뚝이 벌인 신정아씨	3. 29.	1656자	
293	중1	해설	글로벌 아이 87만원	3. 15.	1403자	
294	중2	해설	손익 46% 늘고도	3. 15.	1300자	
295	중3	칼럼	원가 공개, 무식해야	3. 15.	1785자	
296	중4	보도	속속 드러나는 지진	3. 15.	1248자	
297	중5	사설	중군위안부 할머니도	3. 15.	1521자	
298	중6	해설	인감 퇴출	4. 1.	1150자	
299	중7	사설	신공항 논란 뛰어든 박근혜	4. 1.	1596자	
300	중8	해설	“신공항 속았다” 영남의	4. 1.	1309자	
301	중9	보도	LG킬러 류현진	4. 9.	1495자	
302	중10	해설	리더십	4. 9.	1520자	
303	중11	보도	송영길 인천시장	4. 9.	1083자	
304	중12	보도	현대 캐피탈 해킹	4. 9.	774자	
305	중13	칼럼	네이버는 재미가(이철호)	5. 12.	1922자	
306	중14	사설	4·27이 가져온 공천 개혁	5. 12.	1558자	
307	중15	보도	빈 라덴 급습 때	5. 12.	1430자	
308	중16	해설	임시 당권 잡은 황우여	5. 12.	1158자	
309	중17	해설	입고편한게(이도은,서정미)	6. 1.	2815자	
310	중18	해설	미 2차 양적완화(김창규)	6. 1.	2139자	
311	중19	해설	강성 노조 현대차(장정훈)	6. 1.	2001자	
312	중20	칼럼	역사기록(박보균)	6. 1.	2038자	
313	중21	칼럼	21세기 농지개혁(배영대)	6. 1.	1440자	
314	중22	사설	국토부낙하산부대	6. 1.	1798자	
315	중23	보도	동영상만틀어주고(김민상)	6. 1.	1748자	
316	중24	해설	젓가락 든 오바마	10. 15.	1357자	
317	중25	해설	트로트 여왕들	10. 15.	1782자	
318	중26	보도	occupy together	10. 16.	1232자	
319	중27	칼럼	어떤 흔적을 남길	10. 15.	2000자	
320	중28	사설	다원적 전략 동맹	10. 15.	1289자	
321	한1	해설	국제법 구속력 없는	3. 15.	1656자	
322	한2	보도	진후 첫 계획 정전 돌입	3. 15.	1536자	
323	한3	보도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부동	3. 15.	1365자	
324	한4	칼럼	우리는 '원자력 도박'을	3. 15.	1817자	
325	한5	사설	박근혜,민주당의 무책임한	4. 1.	1129자	
326	한6	칼럼	방사능보다 무서운 것	4. 1.	1794자	
327	한7	해설	넌시플래시 시장 올해	4. 1.	1323자	
328	한8	보도	쌍용차해고노동자	4. 4.	1491자	
329	한9	사설	당선무효기준도	4. 4.	1170자	

330	한10	해설	반복은 글쓰기의 적이다	4. 11.	2134자	
331	한11	보도	LH, 진주로	4. 11.	924자	
332	한12	사설	금강산 관광 좌초시킬 셈	4. 11.	1092자	
333	한13	보도	카이스트 잔혹한 불	4. 8.	1300자	
334	한14	보도	LIG, CP투자 '낙담' 던지	4. 11.	1760자	
335	한15	해설	로맨틱 드라마의 계절(남지은)	5. 2.	1323자	
336	한16	보도	십자가 불야성(임지선)	5. 2.	1368자	
337	한17	보도	여 수도권 소장파(임지선)	5. 2.	990자	
338	한18	사설	국민에게 폭탄 돌리는	5. 2.	1170자	
339	한19	보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시대(조현)	5. 2.	1936자	
340	한20	칼럼	거품 경제의 유혹(홍대선)	5. 2.	1794자	
341	한21	사설	그 연대와 공감의 정신을	5. 18.	1073자	
342	한22	칼럼	한나라당 청춘예찬(김중구)	5. 18.	1771자	
343	한23	보도	일 원전사고 수습(정남구)	5. 18.	1386자	
344	한24	보도	서울 모든 지하상가(엄지원)	5. 18.	1200자	
345	한25	보도	불법이 관행 학부모 찬조금	5. 18.	2392	
346	한26	해설	보편복지 비판 열공한 복지부	5. 18.	1078	
347	한27	해설	우리금융 매각 문제점(장혁준)	5. 18.	1562자	
348	오1	보도	이럴 수가. 여기가 미국?	10. 7.	5371자	
349	오2	해설	전설이 된 잡스	10. 7.	3259자	
350	오3	해설	짜퉁 거북선	10. 7.	1831자	
351	오4	칼럼	뭣뭣하지 못한 검찰 수사	9. 8.	7446자	
352	오5	칼럼	곽노현 거울에 비친	10. 12.	11740자	
353	오6	칼럼	검사 같은 진중권	10. 13.	6513자	
354	오7	보도	신부님과 검찰의	10. 12.	1632자	
355	프1	칼럼	이명박,이건희가 배워야 할 것	10. 7.	3383자	
356	프2	보도	오바마 웰스트리트 시위	10. 7.	1591자	
357	이1	해설	업살 떨던 손보사	10. 7.	1958자	
358	이2	칼럼	이건희 회장이	10. 12.	1295자	

<붙임2> 항목별 해당 사례 모음

1. 어문 규정

1-1.띄어쓰기	6조3천264억→6조 3천264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진행중이다. → 진행 중이다.	부1	보도
1-1.띄어쓰기	15만1천233개→15만 1천233개	복6	해설
1-1.띄어쓰기	6월말→6월 말	제7	보도
1-1.띄어쓰기	한강3→한강 3	부6	보도
1-1.띄어쓰기	인터넷콘텐츠→인터넷 콘텐츠	중23	보도
1-1.띄어쓰기	장애인 뿐만 아니라→장애인뿐만 아니라	부12	보도
1-1.띄어쓰기	김모씨→김모 씨	제6	보도
1-1.띄어쓰기	김모씨→김모 씨	제11	보도
1-1.띄어쓰기	22조원→22조 원	한20	칼럼
1-1.띄어쓰기	진행되고 있는테다→진행되고 있는 테다	부6	보도
1-1.띄어쓰기	퇴근길 한표→한 표	부19	해설
1-1.띄어쓰기	100여명이나 → 100여 명이나	한4	칼럼
1-1.띄어쓰기	안된다 → 안 된다	부1	보도
1-1.띄어쓰기	감안할때 → 감안할 때	부1	보도
1-1.띄어쓰기	3조2천억→3조 2천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6조3천여억 원→6조 3천여억 원	부8	보도
1-1.띄어쓰기	작년동기→작년 동기	부8	보도
1-1.띄어쓰기	4조6천244억→4조 6천244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검토중인 → 검토 중인	부5	보도
1-1.띄어쓰기	7조3천526억→7조 3천526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7조258억→7조 258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1948년 8월 4일자→1948년 8월 4일 자	중21	칼럼
1-1.띄어쓰기	아시아지역→아시아 지역	중18	보도
1-1.띄어쓰기	일정기간→일정 기간	부8	보도
1-1.띄어쓰기	회사측→회사 측	중12	보도
1-1.띄어쓰기	1조8천억→1조 8천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110억원을→110억 원을	서5	보도
1-1.띄어쓰기	1년만에→1년 만에	서4	보도
1-1.띄어쓰기	2조7243억원→2조 7243억 원	중2	칼럼
1-1.띄어쓰기	7과3분의1이닝→7과 3분의 1이닝	중9	보도
1-1.띄어쓰기	15% 가량을→15%가량을	부16	해설
1-1.띄어쓰기	지속하고 있는테다→있는 테다	제22	해설
1-1.띄어쓰기	커피값→커피 값	중3	칼럼
1-1.띄어쓰기	박지성 7호골→박지성 7호 골	서5	보도
1-1.띄어쓰기	안모씨에게→안모 씨에게	서5	보도
1-1.띄어쓰기	20~30대1→20~30 대 1	서33	보도
1-1.띄어쓰기	끌어 모은 → 끌어모은	중13	칼럼
1-1.띄어쓰기	강양→강 양	서33	보도
1-1.띄어쓰기	7조원→7조 원	서32	보도
1-1.띄어쓰기	어린 아이→어린아이	부12	보도
1-1.띄어쓰기	정차하기→정차 하기	제12	보도
1-1.띄어쓰기	30만원→30만 원	제6	보도
1-1.띄어쓰기	10조원 → 10조 원	중13	칼럼
1-1.띄어쓰기	제주전통 음식→제주 전통 음식	제24	해설
1-1.띄어쓰기	2조원 → 2조 원	복14	보도
1-1.띄어쓰기	거덜난→거덜 난	조25	칼럼

1-1.띄어쓰기	이같은→이 같은	강11	보도
1-1.띄어쓰기	당정고위직→당정 고위직	동27	칼럼
1-1.띄어쓰기	행정절차가 진행중인→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강1	보도
1-1.띄어쓰기	한팀→한 팀	제23	해설
1-1.띄어쓰기	이에따라→이에 따라	강11	보도
1-1.띄어쓰기	1t501kg → 1t 501kg	복12	보도
1-1.띄어쓰기	두달→두 달	부8	보도
1-1.띄어쓰기	강릉북선전철→강릉 북선 전철	강11	보도
1-1.띄어쓰기	1조7천억→1조 7천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큰그림 → 큰 그림	부1	보도
1-1.띄어쓰기	18만8000명→18만 8000명	동20	칼럼
1-1.띄어쓰기	상필씨→상필 씨	중17	해설
1-1.띄어쓰기	시장내→시장 내(안)	제2	해설
1-1.띄어쓰기	1155만3827 → 1155만 3827	경13	보도
1-1.띄어쓰기	수백명 → 수백 명	경15	보도
1-1.띄어쓰기	30% 가량 → 30%가량	복12	보도
1-1.띄어쓰기	안되고→안 되고	경10	보도
1-1.띄어쓰기	시한연장→시한 연장	한19	칼럼
1-1.띄어쓰기	수백명→수백 명	경19	보도
1-1.띄어쓰기	1만2070회 → 1만 2070회	경27	보도
1-1.띄어쓰기	핸드볼팀→핸드볼 팀	경19	보도
1-1.띄어쓰기	102만5600 → 102만 5600	경18	보도
1-1.띄어쓰기	4488억원 → 4488억 원	경27	보도
1-1.띄어쓰기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복1	보도
1-1.띄어쓰기	사회지도층의→사회 지도층의	조25	칼럼
1-1.띄어쓰기	수억원 → 수억 원	경26	보도
1-1.띄어쓰기	이씨 → 이 씨	경26	보도
1-1.띄어쓰기	수천억원→수천억 원	경19	보도
1-1.띄어쓰기	3만5000여건→3만 오천여 건	경10	보도
1-1.띄어쓰기	이회경씨 → 이회경 씨	경18	보도
1-1.띄어쓰기	엑스포공원까지 오는데→엑스포공원까지 오는 데	복2	보도
1-1.띄어쓰기	땅 짚고 헤엄치기→땅 짚고 헤엄치기	광9	칼럼
1-1.띄어쓰기	아일랜드정부→아일랜드 정부	동28	칼럼
1-1.띄어쓰기	반값등록금→반값 등록금	동27	칼럼
1-1.띄어쓰기	결론났다 → 결론 났다	서1	칼럼
1-1.띄어쓰기	6만6000명→6만 6000명	동20	칼럼
1-1.띄어쓰기	전방위적으로→전 방위적으로	대4	사설
1-1.띄어쓰기	재경과탄이→재경 과탄이	조25	칼럼
1-1.띄어쓰기	아침신문마다→아침 신문마다	동27	칼럼
1-1.띄어쓰기	고통받는→고통 받는	동21	칼럼
1-1.띄어쓰기	180만원→180만 원	대22	사설
1-1.띄어쓰기	주원미씨→주원미 씨	중25	해설
1-1.띄어쓰기	4만5000여 명에서→4만 5000여 명에서	중19	해설
1-1.띄어쓰기	나와있다.→나와 있다.	조25	칼럼
1-1.띄어쓰기	1억7000만원→1억 7000만 원	대22	사설
1-1.띄어쓰기	단정짓다 → 단정 짓다	조12	칼럼
1-1.띄어쓰기	구형모델들→구형 모델들	제15	해설
1-1.띄어쓰기	1만4400 → 1만 4400	경17	보도
1-1.띄어쓰기	145억원 → 145억 원	경18	보도
1-1.띄어쓰기	마련못해 → 마련 못 해	경18	보도

1-1.띄어쓰기	복지논의→복지 논의	경20	보도
1-1.띄어쓰기	3만4000원가량→3만 4000원가량	경9	보도
1-1.띄어쓰기	딴나라→딴 나라	동27	칼럼
1-1.띄어쓰기	고장난테다→고장난 테다	광8	칼럼
1-1.띄어쓰기	“사업이 마무리된 후→마무리된	제13	보도
1-1.띄어쓰기	여전한테다가→여전한 테다가	부18	해설
1-1.띄어쓰기	2시간30분→2시간 30분	중24	해설
1-1.띄어쓰기	균열조집이→균열 조집이	중19	해설
1-1.띄어쓰기	쇼핑카트→쇼핑 카트	제2	해설
1-1.띄어쓰기	공약이행→공약 이행	동8	해설
1-1.띄어쓰기	“의식 못찾아”→“의식 못 찾아”	북3	해설
1-1.띄어쓰기	웬말→웬 말	경19	보도
1-1.띄어쓰기	젊은층에선→젊은 층에선	중1	해설
1-1.띄어쓰기	올해초 경주에서 열린→올해 초 경주에서 열린	북5	해설
1-1.띄어쓰기	수십억원 → 수십억 원	경26	보도
1-1.띄어쓰기	이용백씨→이용백 씨	경22	보도
1-1.띄어쓰기	600만원어치→600만 원어치	경22	보도
1-1.띄어쓰기	3조4000억원 → 3조 4000억 원	경13	보도
1-1.띄어쓰기	함께 하는 → 함께하는	조15	해설
1-1.띄어쓰기	9370억원 → 9070억 원	경16	보도
1-1.띄어쓰기	방과후 → 방과 후	경18	보도
1-1.띄어쓰기	여섯 살 → 여섯 살	경18	보도
1-1.띄어쓰기	80%선이다. → 80% 선이다.	북14	보도
1-1.띄어쓰기	가슴깊이→가슴 깊이	조0	칼럼
1-1.띄어쓰기	50%선에→50% 선에	경5	해설
1-1.띄어쓰기	올초 재연장해→올 초 재연장해	강3	해설
1-1.띄어쓰기	유병욱기자→유병욱 기자	강7	해설
1-1.띄어쓰기	죽을힘을 다해→죽을 힘	동27	칼럼
1-1.띄어쓰기	수십㎞를→수십 km를	강3	해설
1-1.띄어쓰기	박속낙지탕만한→박속 낙지탕만 한	대20	해설
1-1.띄어쓰기	안된다”고 지적했다.→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강3	해설
1-1.띄어쓰기	원선영기자→원선영 기자	강5	해설
1-1.띄어쓰기	환율이 추세 상승쪽으로→환율이 추세 상승 쪽으로	강7	해설
1-1.띄어쓰기	10여년 전부터→10여 년 전부터	강3	해설
1-1.띄어쓰기	1조2,861억원→1조 2,861억 원	강5	해설
1-1.띄어쓰기	후회없이→후회 없이,	강2	해설
1-1.띄어쓰기	하루만에→하루 만에	강7	해설
1-1.띄어쓰기	공연장 문을 열고 나가실때→공연장 문을 열고 나가실 때	강2	해설
1-1.띄어쓰기	어린왕자→어린 왕자	강2	해설
1-1.띄어쓰기	심리상태는→심리 상태는	조25	칼럼
1-1.띄어쓰기	1억원→1억 원	조7	해설
1-1.띄어쓰기	이산화탄소 양 → 이산화탄소양	조2	해설
1-1.띄어쓰기	5만배나 → 5만 배나	조2	해설
1-1.띄어쓰기	유물 50여점→유물 50여 점	북8	해설
1-1.띄어쓰기	동남권신공항→동남권 신공항	동8	해설
1-1.띄어쓰기	1년2개월 만에→1년 2개월 만에	강7	해설
1-1.띄어쓰기	류제일기자→류제일 기자	강3	해설
1-1.띄어쓰기	웅산,신예원 → 웅산, 신예원	북11	해설
1-1.띄어쓰기	수십통→수십 통	조7	해설

1-1.띄어쓰기	김보씨 → 김 보 씨	조15	해설
1-1.띄어쓰기	5만배나 → 5만 배나	조2	해설
1-1.띄어쓰기	2만6923명 → 2만 6923명	조15	해설
1-1.띄어쓰기	고무,가죽,→고무, 가죽,	북1	보도
1-1.띄어쓰기	공공 장소→공공장소	강8	보도
1-1.띄어쓰기	주식형펀드→주식형 펀드	동2	해설
1-1.띄어쓰기	유권자 1만5,987명의→유권자 1만 5,987명의	강9	보도
1-1.띄어쓰기	넘실 대는→넘실대는	강8	보도
1-1.띄어쓰기	제작사측은→제작사 측은	조22	해설
1-1.띄어쓰기	춘천=류제일기자→춘천, 류제일 기자	강6	보도
1-1.띄어쓰기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선거권을 가지고 있는지	강9	보도
1-1.띄어쓰기	여주~원주 전철연장,→여주~원주 전철 연결,	강1	보도
1-1.띄어쓰기	박속낙지탕→박속 낙지탕	대20	해설
1-1.띄어쓰기	2017년말까지→2017년 말까지	강10	보도
1-1.띄어쓰기	지질연구원 → 지질 연구원(전문용어가 아님.)	조2	해설
1-1.띄어쓰기	정구화씨→정구화 씨	경7	해설
1-1.띄어쓰기	차질없이→차질 없이	강9	보도
1-1.띄어쓰기	동해=박영창기자→동해, 박영창 기자	강8	보도
1-1.띄어쓰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업 하기 좋은 도시’	강17	사설
1-1.띄어쓰기	이규호기자→이규호 기자	강10	보도
1-1.띄어쓰기	검토중이다.→검토 중이다.	한27	해설
1-1.띄어쓰기	석사과정→석사 과정	동19	해설
1-1.띄어쓰기	문화스포츠부→문화스포츠 부문	중21	칼럼
1-1.띄어쓰기	모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뒤→모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힌 뒤	강6	보도
1-1.띄어쓰기	100만평→100만 평	강6	보도
1-1.띄어쓰기	몇년째 사업이→몇 년째 사업이	강6	보도
1-1.띄어쓰기	수조원씩→수조 원씩	조8	칼럼
1-1.띄어쓰기	비준일정 → 비준 일정	한1	해설
1-1.띄어쓰기	동남 아시아를→동남아시아를	대4	사설
1-1.띄어쓰기	낮잠자고→낮잠 자고	서10	해설
1-1.띄어쓰기	4만2000원→4만 2000원	광3	해설
1-1.띄어쓰기	확보할만한→확보할 만한	광1	해설
1-1.띄어쓰기	닥치는대로→닥치는 대로	광5	해설
1-1.띄어쓰기	무산된뒤 산업단지로 추진하려해도→무산된 뒤 산업단지로 추진하려 해도	강6	보도
1-1.띄어쓰기	800만명→800만 명	광5	해설
1-1.띄어쓰기	40만명→40만 명	광5	해설
1-1.띄어쓰기	MB캠프→MB 캠프	동8	해설
1-1.띄어쓰기	동네 주민간→동네 주민 간	강6	보도
1-1.띄어쓰기	150만원선→150만 원 선	광5	해설
1-1.띄어쓰기	미심쩍었던 지→미심쩍었던지	대26	사설
1-1.띄어쓰기	전세계 → 전 세계	한7	해설
1-1.띄어쓰기	들과할듯 →들과할 듯	한7	해설
1-1.띄어쓰기	100여만원→100여만 원	광5	해설
1-1.띄어쓰기	3만9000원→3만 9000원	광3	해설
1-1.띄어쓰기	베껴쓰는→베껴 쓰는	한10	해설
1-1.띄어쓰기	참모그룹→참모 그룹	동8	해설
1-1.띄어쓰기	정파파트→정파 파트	동8	해설
1-1.띄어쓰기	6시43분께→6시 43분께	한23	보도

1-1.띄어쓰기	'동해'속의 → '동해' 속의	북15	사실
1-1.띄어쓰기	4월17일→4월 17일	한23	보도
1-1.띄어쓰기	김인성씨 → 김인성 씨	중13	칼럼
1-1.띄어쓰기	계속할것→계속할 것	동14	해설
1-1.띄어쓰기	접수 됐으며→접수됐으며	강9	보도
1-1.띄어쓰기	수백권→수백 권	한26	해설
1-1.띄어쓰기	관심이 사라진테다→관심이 사라진 테다	강4	보도
1-1.띄어쓰기	200억달러 → 200억 달러	한7	해설
1-1.띄어쓰기	공동선두→공동 선두	동26	해설
1-1.띄어쓰기	첫방송→첫 방송	한15	해설
1-1.띄어쓰기	해당지역→해당 지역	한4	보도
1-1.띄어쓰기	과학벨트 공약시→과학벨트 공약 시	대15	사실
1-1.띄어쓰기	8000만달러에 → 8000만 달러에	조2	해설
1-1.띄어쓰기	입법기구 → 입법 기구	한1	해설
1-1.띄어쓰기	학교관행→학교 관행	한25	보도
1-1.띄어쓰기	6만3000원씩→6만 3천 원씩	한13	보도
1-1.띄어쓰기	보호대책→보호 대책	한24	보도
1-1.띄어쓰기	따라부르기 쉬운→따라 부르기 쉬운	조22	해설
1-1.띄어쓰기	한씨는→한 씨는	조27	해설
1-1.띄어쓰기	3월15일→3월 15일	한23	보도
1-1.띄어쓰기	400여명→400여 명	조7	해설
1-1.띄어쓰기	'국가적인 일:꺾어진 여인'→"국가적인 일: 꺾여진 여인"	조0	칼럼
1-1.띄어쓰기	2년5개월 → 2년 5개월	경3	해설
1-1.띄어쓰기	류상현기자→류상현 기자	북6	해설
1-1.띄어쓰기	술어담으려→술어 담으려	동8	해설
1-1.띄어쓰기	파주시)군은 → 파주시) 군은	북9	해설
1-1.띄어쓰기	잠정발효 → 잠정 발효	한1	해설
1-1.띄어쓰기	유모씨→유모 씨	경7	해설
1-1.띄어쓰기	통상당국 → 통상 당국	한1	해설
1-1.띄어쓰기	히노테루마사'등의 → 히노 테루마사' 등의	북11	해설
1-1.띄어쓰기	120여쪽짜리→120여 쪽짜리	한26	해설
1-1.띄어쓰기	82만2800원→82만 2800원	한8	보도
1-1.띄어쓰기	7월1일 → 7월 1일 * 7	한1	해설
1-1.띄어쓰기	올시즌→올 시즌	경12	해설
1-1.띄어쓰기	101만 여동→101만여 동	북6	해설
1-1.띄어쓰기	신경아씨→신경아 씨	조0	칼럼
1-1.띄어쓰기	3조원→3조 원	한3	보도
1-1.띄어쓰기	343만8615→343만 8615	한3	보도
1-1.띄어쓰기	취씨→취 씨	한14	보도
1-1.띄어쓰기	6시간29분→6시간 29분	한23	보도
1-1.띄어쓰기	1836억원→1836억 원	한14	보도
1-1.띄어쓰기	소송중→소송 중	한8	보도
1-1.띄어쓰기	10여건→10여 건	조7	해설
1-1.띄어쓰기	2조6000억원→2조 6000억 원	한14	보도
1-1.띄어쓰기	신씨도→신 씨도	조0	칼럼
1-1.띄어쓰기	출범뒤→출범 뒤	한16	보도
1-1.띄어쓰기	한달을→한 달을	한23	보도
1-1.띄어쓰기	2월18일→2월 18일	한14	보도
1-1.띄어쓰기	시민생활에도→시민 생활에도	한4	보도

1-1.띄어쓰기	검토중인→검토 중인	한14	보도
1-1.띄어쓰기	정혜신씨가→정혜신 씨가	한8	보도
1-1.띄어쓰기	단비같은 → 단비 같은	북11	해설
1-1.띄어쓰기	일법예고했다→일법 예고했다	한24	보도
1-1.띄어쓰기	6시간43분→6시간 43분	한23	보도
1-1.띄어쓰기	이군은→이 군은	광7	보도
1-1.띄어쓰기	파업중→파업 중	한8	보도
1-1.띄어쓰기	10% 가량→10%가량	광12	보도
1-1.띄어쓰기	피울 때 보다→피울 때보다	광7	보도
1-1.띄어쓰기	3조원→3조 원	매2	칼럼
1-1.띄어쓰기	1400만여원→1400만여 원	한25	보도
1-1.띄어쓰기	60여건→60여 건	대22	사실
1-1.띄어쓰기	132억원 가량→132억 원가량	광6	보도
1-1.띄어쓰기	수천만원→수천만 원	한24	보도
1-1.띄어쓰기	1000여구 → 1000여 구	조3	보도
1-1.띄어쓰기	주목 받기도→주목받기도	대21	해설
1-1.띄어쓰기	260억원→260억 원	한14	보도
1-1.띄어쓰기	지역공모제를 도입 한 것과 다르지 않다.→지역공모제를 도입한 것과 다르지 않다.	대15	사실
1-1.띄어쓰기	거덜난다→거덜 난다	동8	해설
1-1.띄어쓰기	800억원대→800억 원대	한14	보도
1-1.띄어쓰기	23개구→23개 구	한2	보도
1-1.띄어쓰기	안들려준 → 안 돌려준	대9	사실
1-1.띄어쓰기	국가경쟁력→국가 경쟁력	매10	칼럼
1-1.띄어쓰기	9331억원→9331억 원	한3	보도
1-1.띄어쓰기	25억원→25억 원	광6	보도
1-1.띄어쓰기	이모(18)군은→이 모(18) 군은	광7	보도
1-1.띄어쓰기	11시50분께→11시 50분께	한23	보도
1-1.띄어쓰기	66조3000억원→66조 3000억 원	한3	보도
1-1.띄어쓰기	시민생활에도→시민 생활에도	한2	보도
1-1.띄어쓰기	있다. "→있다."	매10	칼럼
1-1.띄어쓰기	실력있는→실력 있는	매1	해설
1-1.띄어쓰기	자살할거야→자살할 거야	한8	보도
1-1.띄어쓰기	19조1항에→19조 1항에	한16	보도
1-1.띄어쓰기	이산화탄소 양 → 이산화탄소양	조2	해설
1-1.띄어쓰기	근절의지→근절 의지	한25	보도
1-1.띄어쓰기	1억5000만원→1억 5000만 원	한14	보도
1-1.띄어쓰기	못내→못 내	광10	보도
1-1.띄어쓰기	부채의식을 가져야한다→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15	사실
1-1.띄어쓰기	안통한다→안 통한다	매9	사실
1-1.띄어쓰기	일괄이전→일괄 이전	한11	보도
1-1.띄어쓰기	조명허용→조명 허용	한16	보도
1-1.띄어쓰기	3개월새→3개월 새, 3개월 사이	한13	보도
1-1.띄어쓰기	네번째→네 번째	한13	보도
1-1.띄어쓰기	1시20분께→1시 20분께	한13	보도
1-1.띄어쓰기	공약'이란 → 공약'이란	대14	칼럼
1-1.띄어쓰기	가동중이던→가동 중이던	한23	보도
1-1.띄어쓰기	글인테다→글인 테다	한10	해설
1-1.띄어쓰기	60억원→60억 원	광6	보도
1-1.띄어쓰기	13억원→13억 원	광6	보도

1-1.띄어쓰기	박양은→박 양은	광7	보도
1-1.띄어쓰기	박모(17)양은→박 모(17) 양은	광7	보도
1-1.띄어쓰기	10여명씩→10여 명씩	광6	보도
1-1.띄어쓰기	앞장 서길→앞장서길	대4	사설
1-1.띄어쓰기	예측 못하고→예측 못 하고	광16	사설
1-1.띄어쓰기	필요없이→필요 없이	광7	보도
1-1.띄어쓰기	6m~15m 가랑→6m~15m가랑	광2	보도
1-1.띄어쓰기	한번→한 번	한10	해설
1-1.띄어쓰기	8000만달러에 → 8000만 달러에	조2	해설
1-1.띄어쓰기	와타나베(65)씨는 → 와타나베(65) 씨는	조3	보도
1-1.띄어쓰기	9월16일 → 9월 16일	한1	해설
1-1.띄어쓰기	2살 가랑→2살가랑	광6	보도
1-1.띄어쓰기	이것 저것→이것저것	동8	해설
1-1.띄어쓰기	4000만명→4000만 명	조11	해설
1-1.띄어쓰기	63억원→63억 원	광6	보도
1-1.띄어쓰기	한달가랑→한 달가랑	광12	보도
1-1.띄어쓰기	여러가지→여러 가지	한12	사설
1-1.띄어쓰기	올 봄→올봄	광12	보도
1-1.띄어쓰기	2년만이다. → 2년 만이다.	대14	칼럼
1-1.띄어쓰기	한마리→한 마리	광6	보도
1-1.띄어쓰기	쉬린에바디는→쉬린 에바디는	대5	칼럼
1-1.띄어쓰기	선출시→선출 시	광10	보도
1-1.띄어쓰기	비공개 회의→비공개회의	광10	보도
1-1.띄어쓰기	이에따라→이에 따라	광7	보도
1-1.띄어쓰기	수확철→수확 철	광6	보도
1-1.띄어쓰기	문제 없이→문제없이	광7	보도
1-1.띄어쓰기	된것은 → 된 것은	대8	칼럼
1-1.띄어쓰기	먹고 살기→먹고살기	대5	칼럼
1-1.띄어쓰기	지난 달→지난달	광12	보도
1-1.띄어쓰기	농경지내→농경지 내	제9	보도
1-1.띄어쓰기	당국간→당국 간	한12	사설
1-1.띄어쓰기	몇달→몇 달	서7	칼럼
1-1.띄어쓰기	3만57명으로→3만 57명으로	대5	칼럼
1-1.띄어쓰기	3조5000억원→3조 5000억 원	대20	사설
1-1.띄어쓰기	감상선 암→감상선암	대3	칼럼
1-1.띄어쓰기	70억인구→70억 인구	대30	칼럼
1-1.띄어쓰기	80억원→80억원	제9	보도
1-1.띄어쓰기	숨쉬고→숨 쉬고	제8	칼럼
1-1.띄어쓰기	인수때→인수 때는	한27	해설
1-1.띄어쓰기	10만명당 → 10만 명당	경28	해설
1-1.띄어쓰기	것인데다가→것인 데다가	한27	해설
1-1.띄어쓰기	298억원→298억 원	제10	보도
1-1.띄어쓰기	나토리(名取)시 → 나토리[名取] 시	조3	보도
1-1.띄어쓰기	이숙영씨 → 이숙영 씨	경28	해설
1-1.띄어쓰기	공약개발→공약 개발	동8	해설
1-1.띄어쓰기	374억원→374억 원	제10	보도
1-1.띄어쓰기	10년후 → 10년 후	대14	칼럼
1-1.띄어쓰기	착시현상→착시 현상	제12	보도
1-1.띄어쓰기	5만명이 → 5만 명이	조3	보도
1-1.띄어쓰기	보호종→보호 종	제3	보도

1-1.띄어쓰기	충북지구→충북 지구	동25	보도
1-1.띄어쓰기	4만5000여㎡→4만 5000여㎡	조28	보도
1-1.띄어쓰기	10만원→10만 원	제6	보도
1-1.띄어쓰기	조립판매,→조립 판매,	대5	칼럼
1-1.띄어쓰기	중후장대해졌지만→중후 장대해졌지만	한21	사설
1-1.띄어쓰기	반문할지 → 반문할지	대14	칼럼
1-1.띄어쓰기	60만원→60만 원	대22	사설
1-1.띄어쓰기	1만5천원 → 1만 5천 원	북12	보도
1-1.띄어쓰기	241억원→241억 원	제10	보도
1-1.띄어쓰기	제 값→제값	대16	사설
1-1.띄어쓰기	979만4,000여 명→979만 4000여 명	강13	사설
1-1.띄어쓰기	사립대학생들의→사립대 학생들의	대1	보도
1-1.띄어쓰기	1000만원대에→1000만 원대에	대1	보도
1-1.띄어쓰기	그립로비→그립 로비	동6	사설
1-1.띄어쓰기	풀가동 되는→풀가동되는	대2	보도
1-1.띄어쓰기	풀 가동하고 있다.→풀가동하고 있다.	대2	보도
1-1.띄어쓰기	중단되어선 안된다는→중단되어선 안 된다는	대2	보도
1-1.띄어쓰기	노사간에→노사 간에	대2	보도
1-1.띄어쓰기	연간 30만대→연간 30만 대	대2	보도
1-1.띄어쓰기	한달 → 한 달	대13	보도
1-1.띄어쓰기	이틀동안→이틀 동안	대2	보도
1-1.띄어쓰기	부실위험→부실 위험	동24	보도
1-1.띄어쓰기	1년6개월→1년 6개월	조0	칼럼
1-1.띄어쓰기	마라톤 협상→마라톤협상	대2	보도
1-1.띄어쓰기	5개안에→5개 안에	대2	보도
1-1.띄어쓰기	도주우려 및 → 도주우려 및	대7	해설
1-1.띄어쓰기	한자리수 → 한 자릿수	대14	칼럼
1-1.띄어쓰기	연금지급→연금 지급	동29	사설
1-1.띄어쓰기	한중 → 한 중	대12	보도
1-1.띄어쓰기	노려볼만하다고 → 노려볼 만하다고	대14	칼럼
1-1.띄어쓰기	800만원 → 800만 원	대12	보도
1-1.띄어쓰기	기여 할수 → 기여할 수	대12	보도
1-1.띄어쓰기	1%쪽에→1% 쪽에	대30	칼럼
1-1.띄어쓰기	도깨비도로→도깨비 도로	제12	보도
1-1.띄어쓰기	3억5000만원→3억5000만원	제9	보도
1-1.띄어쓰기	한달→한 달	제6	보도
1-1.띄어쓰기	없는데다→없는 데다	제3	보도
1-1.띄어쓰기	멸종위기종→멸종 위기 종	제3	보도
1-1.띄어쓰기	확보하는데→확보하는 데	제10	보도
1-1.띄어쓰기	주내용으로 한→주 내용으로 한	북1	보도
1-1.띄어쓰기	지자체 일수록→지자체일수록	제10	보도
1-1.띄어쓰기	어획부진→어획 부진	제7	보도
1-1.띄어쓰기	테트라포드 보다 → 테트라포드보다	북10	보도
1-1.띄어쓰기	한달새→한 달 새	제6	보도
1-1.띄어쓰기	극대화하기위해선→극대화하기 위해선	대6	사설
1-1.띄어쓰기	99%대1%→99% 대 1%	대30	칼럼
1-1.띄어쓰기	김씨→김 씨	제11	보도
1-1.띄어쓰기	피말리는→피(를) 말리는	대2	칼럼
1-1.띄어쓰기	가족질병→가족 질병	제11	보도
1-1.띄어쓰기	2억원짜리→2억 원짜리	중22	사설

1-1.띄어쓰기	제작시 → 제작 시	북10	보도
1-1.띄어쓰기	뉴욕특파원→뉴욕 특파원	매10	칼럼
1-1.띄어쓰기	출어포기→출어 포기	제7	보도
1-1.띄어쓰기	안된 → 안 된	북10	보도
1-1.띄어쓰기	가축폐사→ 가축 폐사	제11	보도
1-1.띄어쓰기	수십 배 만한 → 수십 배만 한	매5	칼럼
1-1.띄어쓰기	지원하기는 커녕→지원하기는커녕	제10	보도
1-1.띄어쓰기	329억원→329억 원	제10	보도
1-1.띄어쓰기	사측이→회사 측이	대2	보도
1-1.띄어쓰기	딤 팩터중 → 딤 팩터 중	대14	칼럼
1-1.띄어쓰기	500만원→500만 원	제9	보도
1-1.띄어쓰기	12억1000만원→12억 1000만원	제9	보도
1-1.띄어쓰기	마음하나로→마음 하나로	제8	칼럼
1-1.띄어쓰기	편도 20여분 걸리는→편도 20여 분 걸리는	북2	보도
1-1.띄어쓰기	미야기(宮城)현 → 미야기 현	조3	보도
1-1.띄어쓰기	한 마리에 → 한 마리에	북12	보도
1-1.띄어쓰기	박상아씨→박상아 씨	조7	해설
1-1.띄어쓰기	줄이은→줄 이은	조7	해설
1-1.띄어쓰기	한뺨 더→한 뺨 더	조23	해설
1-1.띄어쓰기	11억700만원→11억700만원	제9	보도
1-1.띄어쓰기	통상당국 → 통상 당국	한1	해설
1-1.띄어쓰기	밤 9시55분→밤 9시 55분	한15	해설
1-1.띄어쓰기	291억원→291억 원	제10	보도
1-1.띄어쓰기	입법기구 → 입법 기구	한1	해설
1-1.띄어쓰기	들어난테다 → 들어난 테다	한7	해설
1-1.띄어쓰기	몇번→몇 번	한10	해설
1-1.띄어쓰기	플래카드 업자 → 플래카드업자	서1	칼럼
1-1.띄어쓰기	결정사항 → 결정 사항	한1	해설
1-1.띄어쓰기	아랑곳 하지 않고→아랑곳하지 않고	북2	보도
1-1.띄어쓰기	이에따라→이에 따라	대19	보도
1-1.띄어쓰기	박전대표→박 전 대표	대26	사설
1-1.띄어쓰기	결정사항 → 결정 사항	한1	해설
1-1.띄어쓰기	200만원→200만 원	광5	해설
1-1.띄어쓰기	100%온-도크 서비스→100% 온 도크 서비스	북1	보도
1-1.띄어쓰기	으능정이거리에서→으능정 이거리에서	대1	보도
1-1.띄어쓰기	산적한테다~산적한 테다	대19	보도
1-1.띄어쓰기	발산할수 → 발산할 수	대12	보도
1-1.띄어쓰기	두개의→두 개의	광8	칼럼
1-1.띄어쓰기	리트대학→리트 대학	매10	칼럼
1-1.띄어쓰기	10여대 → 10여 대	조3	보도
1-1.띄어쓰기	발전중 → 발전 중	대12	보도
1-1.띄어쓰기	40만미→40만 미	광17	사설
1-1.띄어쓰기	허리부상→허리 부상	경12	해설
1-1.띄어쓰기	2차예선→2차 예선	대18	보도
1-1.띄어쓰기	장기공실→장기 공실(오래 빈 가게)	매13	보도
1-1.띄어쓰기	올 여름→올여름	광3	해설
1-1.띄어쓰기	1천300t → 1천 300t	북13	보도
1-1.띄어쓰기	포격도발때에도 → 포격도발 때에도	북16	사설
1-1.띄어쓰기	구속 됐다. → 구속됐다.	북16	사설
1-1.띄어쓰기	빌딩외벽→빌딩 외벽	서7	칼럼

1-1.띄어쓰기	안보이는 → 안 보이는	경14	해설
1-1.띄어쓰기	같은달 → 같은 달	북12	보도
1-1.띄어쓰기	건설중인 → 건설 중인	한4	칼럼
1-1.띄어쓰기	얇은채 → 얇은 채	대7	해설
1-1.띄어쓰기	조희준씨→조희준 씨	한19	칼럼
1-1.띄어쓰기	7월4일→7월 4일	한22	칼럼
1-1.띄어쓰기	9월16일 → 9월 16일	한1	해설
1-1.띄어쓰기	가려진것→가려진 것	광8	칼럼
1-1.띄어쓰기	손 쓸 → 손쓸	조3	보도
1-1.띄어쓰기	웨스트살렘고교→웨스트살렘 고교	매10	칼럼
1-1.띄어쓰기	한번 올라 말까한→한 번 올라 말까 한	광8	칼럼
1-1.띄어쓰기	어느날→어느 날	대21	해설
1-1.띄어쓰기	세금남비→세금 낭비	동22	사설
1-1.띄어쓰기	2000억원→2000억 원	광11	칼럼
1-1.띄어쓰기	10월10일까지→10월 10일까지	북2	보도
1-1.띄어쓰기	따라 가다보면→따라가다 보면	북8	해설
1-1.띄어쓰기	거덜나게→거덜 나게	한20	칼럼
1-1.띄어쓰기	항로 및 항차수는→항로와 항차 수는	북1	보도
1-1.띄어쓰기	개통을 못했다→못 했다	조29	사설
1-1.띄어쓰기	곽성일기자→곽성일 기자	북2	보도
1-1.띄어쓰기	손떼는→손 떼는	광9	칼럼
1-1.띄어쓰기	30여년 → 30여 년	한4	칼럼
1-1.띄어쓰기	지역정치인들→지역 정치인들	서2	사설
1-1.띄어쓰기	150만원→150만 원	광5	해설
1-1.띄어쓰기	게울리 할→게울리할	제17	사설
1-1.띄어쓰기	80만명→80만 명	한19	칼럼
1-1.띄어쓰기	TSR(TRANS Siberian Railway)연계를 통해→ TSR(Trans Siberian Railway) 연계를 통해	북1	보도
1-1.띄어쓰기	21만4천여 명→21만 4천여 명	대16	사설
1-1.띄어쓰기	비상노심냉각장치 → 비상 노심 냉각장치	한4	칼럼
1-1.띄어쓰기	1년6개월→1년 6개월	한17	칼럼
1-1.띄어쓰기	쌍용자동차,기아자동차,토요타,→쌍용자동차, 기아자 동차, 토요타,	북1	보도
1-1.띄어쓰기	1천300만 → 1천 300만	북17	사설
1-1.띄어쓰기	필요없이→필요 없이	한10	해설
1-1.띄어쓰기	비판일자→비판 일자	한19	칼럼
1-1.띄어쓰기	안된다 → 안 된다	북17	사설
1-1.띄어쓰기	7조7697억원→7조 7697억 원	중11	보도
1-1.띄어쓰기	사내하도급→사내 하도급	매8	해설
1-1.띄어쓰기	4월23일→4월 23일	한20	칼럼
1-1.띄어쓰기	5천여명 → 5천여 명	북11	해설
1-1.띄어쓰기	4조1,090억 원이다.→4조 1,090억 원이다.	강15	사설
1-1.띄어쓰기	여름 휴가→여름휴가	광14	칼럼
1-1.띄어쓰기	9월초에→9월 초에	대21	해설
1-1.띄어쓰기	현대차 지부→현대자동차 지부	매8	해설
1-1.띄어쓰기	9조3655억원→9조 3655억 원	중11	보도
1-1.띄어쓰기	자리잡혔다. → 자리 잡았다.	북18	사설
1-1.띄어쓰기	노사협상은→노사 협상은	매8	해설
1-1.띄어쓰기	박왕자씨→박왕자 씨	한12	사설
1-1.띄어쓰기	안 줄듯→안 줄 듯	중18	보도

1-1.띄어쓰기	이슈추적→이슈 추적	중23	보도
1-1.띄어쓰기	이같은→이 같은	광1	해설
1-1.띄어쓰기	비준동의 → 비준 동의 * 3	한1	해설
1-1.띄어쓰기	절대 안되기 때문에→절대 안 되기 때문에	광13	해설
1-1.띄어쓰기	추가뒀면→추가 뒀면	매18	보도
1-1.띄어쓰기	눈 앞에 둔→눈앞에 둔	광16	사설
1-1.띄어쓰기	3만원→3만 원	중23	보도
1-1.띄어쓰기	이모(19·대구시 수성구)군은→이 모(19, 대구시 수성구) 군은	북4	해설
1-1.띄어쓰기	외국인들간→외국인들 간	광1	해설
1-1.띄어쓰기	잠정발효 → 잠정 발효	한1	해설
1-1.띄어쓰기	융합하는데→융합하는 데	광1	해설
1-1.띄어쓰기	맞춰야할지→맞춰야 할지	광3	해설
1-1.띄어쓰기	260억원→260억 원	광3	해설
1-1.띄어쓰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데 →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데	매21	사설
1-1.띄어쓰기	공짜시리즈→공짜 시리즈	동22	사설
1-1.띄어쓰기	또다시 → 또 다시	북17	사설
1-1.띄어쓰기	수백명→수백 명	한10	해설
1-1.띄어쓰기	살아 생전에→살아생전에	광9	칼럼
1-1.띄어쓰기	수십만명의→수십만 명의	한6	칼럼
1-1.띄어쓰기	한달 → 한 달	한7	해설
1-1.띄어쓰기	두 번째로 → 두 번째로	한7	해설
1-1.띄어쓰기	선물을 주고 받는 등→선물을 주고받는 등	북5	해설
1-1.띄어쓰기	이동통로→이동 통로	제2	해설
1-1.띄어쓰기	신라를 맞 볼 수 있는→신라를 맞볼 수 있는	북8	해설
1-1.띄어쓰기	수천억원→수천억 원	한20	칼럼
1-1.띄어쓰기	자동차KD(Knock Down)전진기지로→자동차 KD(Knock Down) 전진 기지로	북1	보도
1-1.띄어쓰기	한달동안 → 한 달 동안	북12	보도
1-1.띄어쓰기	충혈 되는→충혈되는	광13	해설
1-1.띄어쓰기	지난 봄→지난봄	광3	해설
1-1.띄어쓰기	멸종위기→멸종 위기	동25	보도
1-1.띄어쓰기	30% 가량→30%가량	광3	해설
1-1.띄어쓰기	모든게 → 모든 게	동4	보도
1-1.띄어쓰기	5억6000여만원→5억 6000여만 원	동16	보도
1-1.띄어쓰기	가슴깊이 → 가슴 깊이	조0	칼럼
1-1.띄어쓰기	모든게 → 모든 게	동4	보도
1-1.띄어쓰기	특별대책을 발표한데 이어→특별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부15	보도
1-1.띄어쓰기	출발시에도→출발 시에도	부12	보도
1-1.띄어쓰기	넬것"→넬 것."	한17	칼럼
1-1.띄어쓰기	이중삼중의 → 이중 삼중의	한4	칼럼
1-1.띄어쓰기	집단환상→집단 환상	조25	칼럼
1-1.띄어쓰기	남북당국이→남북 당국이	매9	사설
1-1.띄어쓰기	李大통령→李 대통령	동5	보도
1-1.띄어쓰기	초청해 준데 대해→초청해 준 데 대해	북5	해설
1-1.띄어쓰기	국내팬들을→국내 팬들을	경2	해설
1-1.띄어쓰기	다음날→다음 날	조7	해설
1-1.띄어쓰기	5만명→5만 명	광1	해설

1-1.띄어쓰기	2700여명→2700여 명	서3	해설
1-1.띄어쓰기	아들같은→아들 같은	부12	보도
1-1.띄어쓰기	윤정용원장→윤정용 원장	광13	해설
1-1.띄어쓰기	들여다 보니→들여다보니	광4	해설
1-1.띄어쓰기	두달→두 달	한18	사설
1-1.띄어쓰기	그만 볼 수→그만들 수	광5	해설
1-1.띄어쓰기	8시30분부터→8시 30분부터	광5	해설
1-1.띄어쓰기	法허점→법 허점	경7	해설
1-1.띄어쓰기	3300여명→3300여 명	서3	해설
1-1.띄어쓰기	천년→천 년	북8	해설
1-1.띄어쓰기	히노테루마사 → 히노 테루마사	북11	해설
1-1.띄어쓰기	제 5회 → 제5회	북11	해설
1-1.띄어쓰기	곽성일기자→곽성일 기자	북5	해설
1-1.띄어쓰기	안되지만 → 안 되지만	경1	칼럼
1-1.띄어쓰기	날선 → 날 선	경1	칼럼
1-1.띄어쓰기	100만원→100만 원	광5	해설
1-1.띄어쓰기	시스템 조차 구축 하지 않고 있다.→시스템조차 구축하지 않고 있다.	북4	해설
1-1.띄어쓰기	이임태기자→이임태 기자	북3	해설
1-1.띄어쓰기	한계령 풀→한계령풀	북25	보도
1-1.띄어쓰기	공항건설 소요기간→공항 건설 소요기간	서2	사설
1-1.띄어쓰기	10조원이 → 10조 원이	중8	해설
1-1.띄어쓰기	한국형원자력발전소→한국형 원자력발전소	동5	보도
1-1.띄어쓰기	1만2800원→1만 2800원	중10	해설
1-1.띄어쓰기	쓰레기 통 → 쓰레기통	중13	칼럼
1-1.띄어쓰기	2248만명에서→2248만 명에서	조24	사설
1-1.띄어쓰기	2년만에→2년 만에	매8	해설
1-1.띄어쓰기	7만5283개→7만 5283개	서29	해설
1-1.띄어쓰기	미야기(宮城)현 → 미야기 현	조3	보도
1-1.띄어쓰기	1조5449억원을 → 1조 5449억 원을	조17	보도
1-1.띄어쓰기	10만명→10만 명	조14	보도
1-1.띄어쓰기	건설지역→건설 지역	동25	보도
1-1.띄어쓰기	당대표→당 대표	동11	보도
1-1.띄어쓰기	우리측→우리 측	조9	보도
1-1.띄어쓰기	이상태에서 → 이 상태에서	북12	보도
1-1.띄어쓰기	또 다시→또다시	제5	칼럼
1-1.띄어쓰기	호르는데다 → 호르는 데다	매11	해설
1-1.띄어쓰기	될것→될 것	동1	보도
1-1.띄어쓰기	한국형원자력발전소→한국형 원자력발전소	동1	보도
1-1.띄어쓰기	안서두를→안 서두를	조9	보도
1-1.띄어쓰기	181억여원→181억여 원	조28	보도
1-1.띄어쓰기	미끄러지지않는 운동화→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	중17	해설
1-1.띄어쓰기	세코비아썬와 벨라스케스썬→세코비아 썬와 벨라스케스 썬	조14	보도
1-1.띄어쓰기	21만명을 → 21만 명을	한4	칼럼
1-1.띄어쓰기	원조라할→원조라 할	중21	칼럼
1-1.띄어쓰기	지하철 도착시에는→지하철 도착 시에는	부12	보도
1-1.띄어쓰기	무덤속에서→무덤 속에서	제8	칼럼
1-1.띄어쓰기	오래 전 → 오래전	중13	칼럼
1-1.띄어쓰기	6조3천705억→6조 3천705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그 다음으로는→그다음으로는	부11	칼럼
1-1.띄어쓰기	황유미씨 → 황유미 씨	경29	사설
1-1.띄어쓰기	당선무효→당선 무효	한9	사설
1-1.띄어쓰기	나토리(名取)시 → 나토리 시	조3	보도
1-1.띄어쓰기	(127만명)→(127만 명)	제19	사설
1-1.띄어쓰기	10여대 → 10여 대	조3	보도
1-1.띄어쓰기	150만마리→150만 마리	광3	해설
1-1.띄어쓰기	2만4000 → 2만 4000	중5	사설
1-1.띄어쓰기	첫째주→첫째 주	매23	보도
1-1.띄어쓰기	7월30일→7월 30일	강13	사설
1-1.띄어쓰기	황 모 씨 → 황 모 씨	북16	사설
1-1.띄어쓰기	900여점→900여 점	조28	보도
1-1.띄어쓰기	메카로 만드는 데→메카로 만드는 데	강17	사설
1-1.띄어쓰기	번역 오류에→번역 오류에	조9	보도
1-1.띄어쓰기	1500만명 → 1500만 명	조16	보도
1-1.띄어쓰기	382만명→382만 명	서37	사설
1-1.띄어쓰기	안돼→안 돼	조9	보도
1-1.띄어쓰기	1000여구 → 1000여 구	조3	보도
1-1.띄어쓰기	최후진술→최후 진술	서28	해설
1-1.띄어쓰기	5만명이 → 5만 명이	조3	보도
1-1.띄어쓰기	다시 한번→다시 한 번	서24	해설
1-1.띄어쓰기	3조1000억원대→3조1000억 원대	매16	보도
1-1.띄어쓰기	될수 → 될 수	북15	사설
1-1.띄어쓰기	지능형 전력망→지능형 전력망	매17	보도
1-1.띄어쓰기	용역결과→용역 결과	서2	사설
1-1.띄어쓰기	60조원→60조 원	서37	사설
1-1.띄어쓰기	한 사람당 4.8장 꼴로→한 사람당 4.8장꼴로	부13	사설
1-1.띄어쓰기	공적부조→공적 부조	서37	사설
1-1.띄어쓰기	마에지마 마사히코(前島正彦)씨→마에지마 마사히코 [前島正彦] 씨	조13	보도
1-1.띄어쓰기	옛 이야기→옛이야기	조13	보도
1-1.띄어쓰기	팔당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다→팔당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다	강15	사설
1-1.띄어쓰기	20여명→20여 명	경25	사설
1-1.띄어쓰기	7000억원→7000억 원	서37	사설
1-1.띄어쓰기	4조원 → 4조 원	서19	해설
1-1.띄어쓰기	3조7천441억→3조 7천441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세차레의→세 차례의	대21	해설
1-1.띄어쓰기	강씨→강 씨	서3	해설
1-1.띄어쓰기	노동공급→노동 공급	동29	사설
1-1.띄어쓰기	6000만원→6000만 원	제2	해설
1-1.띄어쓰기	진행중→진행 중	광3	해설
1-1.띄어쓰기	4시간 가량→4시간가량	광5	해설
1-1.띄어쓰기	60만명→60만 명	서28	해설
1-1.띄어쓰기	50만원→50만 원	광5	해설
1-1.띄어쓰기	여덟가지 → 여덟 가지	북11	해설
1-1.띄어쓰기	결론났다 → 결론 났다	서18	해설
1-1.띄어쓰기	1125조엔·약 1경5000조원→1125조 엔·약 1경 5000조 원	조24	사설
1-1.띄어쓰기	130만원→130만 원	제15	해설

1-1.띄어쓰기	뿌리 박힌 선입견→뿌리박힌	제18	사설
1-1.띄어쓰기	보편화 돼 있고,→보편화돼 있고,	북4	해설
1-1.띄어쓰기	507만명→507만 명	서37	사설
1-1.띄어쓰기	끝 쪽에→끝쪽에	대21	해설
1-1.띄어쓰기	4만1390건→4만 1,390건	조4	사설
1-1.띄어쓰기	780만대였던→780만 대였던	조24	사설
1-1.띄어쓰기	건축물 670만여동→건축물 670만여 동	북6	해설
1-1.띄어쓰기	황기환기자→황기환 기자	북4	해설
1-1.띄어쓰기	13조 8천여억 원 어치다→13조 8천여억 원어치다	부10	사설
1-1.띄어쓰기	30여억 원의 예산을→30여 억 원의 예산을	북4	해설
1-1.띄어쓰기	하릴 없이→하릴없이	조24	사설
1-1.띄어쓰기	한달 → 한 달	서17	해설
1-1.띄어쓰기	100만원→100만 원	한9	사설
1-1.띄어쓰기	김씨 → 김 씨	서18	해설
1-1.띄어쓰기	태안별미→태안 별미	대20	해설
1-1.띄어쓰기	10월말→10월 말	제2	해설
1-1.띄어쓰기	수천만원 → 수천만 원	대7	해설
1-1.띄어쓰기	고령화시대→고령화 시대	동22	사설
1-1.띄어쓰기	10여년→10여 년	서3	해설
1-1.띄어쓰기	풀어내는데 → 풀어내는 데	북11	해설
1-1.띄어쓰기	신라하던 황금시대와 불교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신라 하면 황금시대와 불교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북8	해설
1-1.띄어쓰기	관가를났음에도→관가를 났음에도	서2	사설
1-1.띄어쓰기	4명중→4명 중	매24	보도
1-1.띄어쓰기	4째주 → 4째 주	북9	해설
1-1.띄어쓰기	7만2,096㎡의 부지에→7만 2,096㎡의 부지에	강17	사설
1-1.띄어쓰기	한 번 추세가 형성되면→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조24	사설
1-1.띄어쓰기	결혼을 못할 거라고도→결혼을 못 할 거라고도	조24	사설
1-1.띄어쓰기	5159억원→5159억 원	조29	사설
1-1.띄어쓰기	월새 → 월 세	북18	사설
1-1.띄어쓰기	미래세대→미래 세대	서37	사설
1-1.띄어쓰기	5억5000만원→5억5000만원	제9	보도
1-1.띄어쓰기	10조원→10조 원	중11	보도
1-1.띄어쓰기	3억원을 → 3억 원을	경30	사설
1-1.띄어쓰기	고려안해→고려 안 해	매8	해설
1-1.띄어쓰기	4800억원→4800억 원	제19	사설
1-1.띄어쓰기	2조5천595억→2조 5천595억	부8	보도
1-1.띄어쓰기	녹아 내리는→녹아내리는	매14	해설
1-1.띄어쓰기	4조6000억원 → 4조 6000억 원	매6	해설
1-1.띄어쓰기	그런데 사측은 노동자들이→그런데 사 측은 노동자들 이	경25	사설
1-1.띄어쓰기	머루포도 (MBA) → 머루포도(MBA)	북9	해설
1-1.띄어쓰기	3만6000km→3만 6000km	매32	해설
1-1.띄어쓰기	두달→두 달	서3	해설
1-1.띄어쓰기	잘 살도록→잘살도록	서28	해설
1-1.띄어쓰기	3조5000억원→3조 5000억 원	경20	사설
1-1.띄어쓰기	15억5000만원→15억 5000만 원	경11	사설
1-1.띄어쓰기	반지하화 하는 → 반지하화하는	부1	보도
1-1.띄어쓰기	14만명→14만 명	조29	사설

1-1.띄어쓰기	다음달 출시할→다음 달 출시할	매19	보도
1-1.띄어쓰기	생산차질→생산 차질	매8	해설
1-1.띄어쓰기	안된다→안 된다	경4	사설
1-1.띄어쓰기	2년6개월→2년 6개월	매4	보도
1-1.띄어쓰기	헤어 스프레이 등에→헤어스프레이 등에	매19	보도
1-1.띄어쓰기	비켜갔다→비켜 갔다	매23	보도
1-1.띄어쓰기	120~150만원→~만 원	서33	보도
1-1.띄어쓰기	30개월만에→30개월 만에	매4	보도
1-1.띄어쓰기	20여만명→만 명	서30	보도
1-1.띄어쓰기	구호식량→구호 식량	서31	보도
1-1.띄어쓰기	6991억원→6991억 원	매4	보도
1-1.띄어쓰기	44만2318개→44만 2318개	매13	보도
1-1.띄어쓰기	1만명→1만 명	매22	보도
1-1.띄어쓰기	190억원→190억 원	매22	보도
1-1.띄어쓰기	31억원→31억 원	매22	보도
1-1.띄어쓰기	야식찬→야식 찬, 야식에 찬	매22	보도
1-1.띄어쓰기	1만8000여 명→1만 8000여 명	매22	보도
1-1.띄어쓰기	1750억원에서→1750억 원에서	매19	보도
1-1.띄어쓰기	10만명당 → 10만 명당	경29	사설
1-1.띄어쓰기	20억원→20억 원	서26	보도
1-1.띄어쓰기	2만3000평→2만 3000평	매19	보도
1-1.띄어쓰기	3만2000명→3만 2000명	매24	보도
1-1.띄어쓰기	덱프 트럭→덱프트럭	서33	보도
1-1.띄어쓰기	한 쪽→한쪽	경4	사설
1-1.띄어쓰기	채권담당→채권 담당	매18	보도
1-1.띄어쓰기	안터지는→안 터지는	매19	보도
1-1.띄어쓰기	63억달러(약 6조8000억원)→63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매17	보도
1-1.띄어쓰기	관련업계와→관련 업계와	매17	보도
1-1.띄어쓰기	레저 업체 → 레저업체	대11	해설
1-1.띄어쓰기	위기대응→위기 대응	서31	보도
1-1.띄어쓰기	폭발 사고에 이어 ...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띄어 쓰기 일관성)	중4	해설
1-1.띄어쓰기	4조9600억원→4조 9600억 원	매31	해설
1-1.띄어쓰기	1,000억원→1,000억 원	매18	보도
1-1.띄어쓰기	전계열사→전 계열사	매24	보도
1-1.띄어쓰기	불속에서도→불 속에서도	매19	보도
1-1.띄어쓰기	도리없이→도리 없이	서33	보도
1-1.띄어쓰기	他지역→타(他) 지역	매14	해설
1-1.띄어쓰기	2대 일→2 대 일	서5	보도
1-1.띄어쓰기	될수도 → 될 수도	매6	해설
1-1.띄어쓰기	국내최고의 → 국내 최고의	북11	해설
1-1.띄어쓰기	쉬는건 → 쉬는 건	대11	해설
1-1.띄어쓰기	최소화 할→최소화할/줄일	제2	해설
1-1.띄어쓰기	수 밖에→수밖에	제19	사설
1-1.띄어쓰기	시장창출·소비자 신뢰 확보→시장 창출·소비자 신뢰 확보	서14	보도
1-1.띄어쓰기	1억원 → 1억 원	매7	해설
1-1.띄어쓰기	수십년간 → 수십 년간	북15	사설
1-1.띄어쓰기	이모(25)군→이모(25) 군	서33	보도

1-1.띄어쓰기	박창규기자→박창규 기자	서4	보도
1-1.띄어쓰기	약 155억원→억 원	서31	보도
1-1.띄어쓰기	비오는→비 오는	서8	보도
1-1.띄어쓰기	한마디→한 마디	대23	해설
1-1.띄어쓰기	못지 않게→못지않게	제19	사설
1-1.띄어쓰기	65만명→만 명	서31	보도
1-1.띄어쓰기	박용하씨→박용하 씨	경11	사설
1-1.띄어쓰기	입증할만한 → 입증할 만한	대7	해설
1-1.띄어쓰기	두손으로→두 손으로	서4	보도
1-1.띄어쓰기	힘 들고→힘들고	서33	보도
1-1.띄어쓰기	80~90만원→~만 원	서33	보도
1-1.띄어쓰기	나몰라라→나 몰라라	서20	보도
1-1.띄어쓰기	개인행사→개인 행사	서11	보도
1-1.띄어쓰기	42만명의→42만 명의	서5	보도
1-1.띄어쓰기	한달→한 달	서33	보도
1-1.띄어쓰기	확충위한→확충 위한	서32	보도
1-1.띄어쓰기	보도이후→보도 이후	서26	보도
1-1.띄어쓰기	관정시 → 관정 시	경29	사설
1-1.띄어쓰기	체력고갈→체력 고갈	서4	보도
1-1.띄어쓰기	자리잡는→자리 잡는	서8	보도
1-1.띄어쓰기	힘든 것 보다→힘든 것보다	서33	보도
1-1.띄어쓰기	가구수 → 가구 수	서13	보도
1-1.띄어쓰기	1000만원 →~만 원	서33	보도
1-1.띄어쓰기	7조 3000억여원에→3000억여 원	서25	보도
1-1.띄어쓰기	김정은기자→김정은 기자	서5	보도
1-1.띄어쓰기	최군→최 군	서33	보도
1-1.띄어쓰기	지연되는게→지연되는 게	대19	보도
1-1.띄어쓰기	평가 받았다→평가받았다	중10	해설
1-1.띄어쓰기	더 이상 논의 할 수 없다.→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서9	보도
1-1.띄어쓰기	기업 뿐 → 기업뿐	북13	보도
1-1.띄어쓰기	2000여명은→2000여 명은	대2	보도
1-1.띄어쓰기	거위가 될 지→거위가 될지	제16	칼럼
1-1.띄어쓰기	수천만원→수천만 원	대22	사설
1-1.띄어쓰기	8만5000㎡→8만 5000㎡	대2	보도
1-1.띄어쓰기	안된다 → 안 된다	북16	사설
1-1.띄어쓰기	年5.5%→연 5.5%	매18	보도
1-1.띄어쓰기	이판에 → 이 판에	조20	사설
1-1.띄어쓰기	점검할것→점검할 것	한3	보도
1-1.띄어쓰기	1000만원 → 1000만 원	조18	칼럼
1-1.띄어쓰기	있는데다→있는 데다	한27	해설
1-1.띄어쓰기	성장동력→성장 동력	동29	사설
1-1.띄어쓰기	몇년 → 몇 년	조10	칼럼
1-1.띄어쓰기	1억5천만 원→1억 5천만 원	광17	사설
1-1.띄어쓰기	노래도 못하고→노래도 못 하고	한15	해설
1-1.띄어쓰기	北잔폐→북(北) 잔폐	매9	사설
1-1.띄어쓰기	21승5패→21승 5패	중9	보도
1-1.띄어쓰기	이모(40)씨가 → 이 모(40) 씨가	조3	보도
1-1.띄어쓰기	요구할듯→요구할 듯	매8	해설
1-1.띄어쓰기	내진공사시→내진 공사 시	북6	해설

1-1.띄어쓰기	2억원→2억 원	강11	보도
1-1.띄어쓰기	단독선두→단독 선두	경12	해설
1-1.띄어쓰기	오염방지→오염 방지	제13	보도
1-1.띄어쓰기	안된 → 안 된	경16	보도
1-1.띄어쓰기	가시밭 길→가시밭길	경20	보도
1-1.띄어쓰기	한번풀이도록 → 한 번풀이도록	한4	칼럼
1-1.띄어쓰기	석달만에→석 달 만에	동5	해설
1-1.띄어쓰기	5억달러→5억 달러	매9	사설
1-1.띄어쓰기	추락중→추락 중	매32	해설
1-1.띄어쓰기	한일강제합방이후 → 한일강제합방 이후	북15	사설
1-1.띄어쓰기	될게 → 될 게	대14	칼럼
1-1.띄어쓰기	1조900억원→1조 900억 원	제19	사설
1-1.띄어쓰기	80만명 → 80만 명	서15	보도
1-1.띄어쓰기	370만원→~만 원	서33	보도
1-1.띄어쓰기	1년7개월밖에→1년 7개월밖에	경24	사설
1-1.띄어쓰기	큰 폭 으로→큰 폭으로	매16	보도
1-1.띄어쓰기	겁나네 → 겁 나네	서17	해설
1-1.띄어쓰기	지체없이→지체 없이	서31	보도
1-1.띄어쓰기	1만원 → 1만 원	서16	해설
1-1.띄어쓰기	취기영기자→취기영 기자	강4	보도
1-1.띄어쓰기	그리 됐다면→그리됐다면	중3	칼럼
1-1.띄어쓰기	(7월26일~5일)을→(7월 26일~8월 5일)을	강9	보도
1-1.띄어쓰기	남는게 → 남는 게	북12	보도
1-1.띄어쓰기	4만2225 → 4만 2225	조16	보도
1-1.띄어쓰기	기아차모델→기아자동차 모델	매8	해설
1-1.띄어쓰기	40여명이→40여 명이	경7	해설
1-1.띄어쓰기	비리사실→비리 사실	한19	칼럼
1-1.띄어쓰기	5년8개월 동안→5년 8개월 동안	조8	칼럼
1-1.띄어쓰기	두 번째→두 번째	대21	해설
1-1.띄어쓰기	현대측→현대 측	한12	사설
1-1.띄어쓰기	제주도 처럼 → 제주도처럼	북18	사설
1-1.띄어쓰기	한명도→한 명도	제2	해설
1-1.띄어쓰기	豚잡나 → 돈(豚) 잡 나	서16	해설
1-1.띄어쓰기	앞서있다는→앞서 있다는	광11	칼럼
1-1.띄어쓰기	구두합의 → 구두 합의	한1	해설
1-1.띄어쓰기	200여명→200여 명	광11	칼럼
1-1.띄어쓰기	보편복지→보편 복지	한26	해설
1-1.띄어쓰기	40억명→40억 명	매30	칼럼
1-1.띄어쓰기	2억6000만원→2억6000만원	제9	보도
1-1.띄어쓰기	재추진'의사를→재추진' 의사를	경6	보도
1-1.띄어쓰기	대표발의자는→대표 발의자는	한9	사설
1-1.띄어쓰기	170여권 → 170여 권	대13	보도
1-1.띄어쓰기	아산공장내→아산공장 내	대2	보도
1-1.띄어쓰기	123억원 → 123억 원	대9	사설
1-1.띄어쓰기	이로인해→이로 인해	제12	보도
1-1.띄어쓰기	황형주기자→황형주 기자	강9	보도
1-1.띄어쓰기	제주도축산진흥원→제주도 축산진흥원	제12	보도
1-1.띄어쓰기	수 천명의 → 수천 명의	북11	해설
1-1.띄어쓰기	될것→될 것	동5	보도
1-1.띄어쓰기	대형 차→대형차	중11	보도

1-1.띄어쓰기	국민위한→국민 위한	서36	사설
1-1.띄어쓰기	1,000여명의→1,000여 명의	강8	보도
1-1.띄어쓰기	어찌할까→어찌할 거야	대23	해설
1-1.띄어쓰기	지질연구원 → 지질 연구원(전문용어가 아님.)	조2	해설
1-1.띄어쓰기	겨울스포츠→겨울 스포츠	동27	칼럼
1-1.띄어쓰기	364만명→364만 명	대25	사설
1-1.띄어쓰기	아닐뿐더러 → 아닐 뿐더러	경15	보도
1-1.띄어쓰기	8000억원→8000억 원	조8	칼럼
1-1.띄어쓰기	대행사측→대행사 측	조7	해설
1-1.띄어쓰기	관광이미지→관광 이미지	제12	보도
1-1.띄어쓰기	3월19일 → 3월 19일	경27	보도
1-1.띄어쓰기	들통나면서→들통 나면서	서34	보도
1-1.띄어쓰기	200억원→200억 원	대17	보도
1-1.띄어쓰기	대가를 안내면→대가를 안 내면	대15	사설
1-1.띄어쓰기	놔둘텐가→놔둘 텐가	대22	사설
1-1.띄어쓰기	박씨→박 씨	한12	사설
1-1.띄어쓰기	25억달러 → 25억 달러	조16	보도
1-1.띄어쓰기	4월8일→4월 8일	한13	보도
1-1.띄어쓰기	일년→일 년	제6	보도
1-1.띄어쓰기	팔아 넘긴다→팔아넘긴다	중14	사설
1-1.띄어쓰기	관련있는→관련 있는	서10	해설
1-1.띄어쓰기	수백명 → 수백 명	북16	사설
1-1.띄어쓰기	전세계→전 세계	제19	사설
1-1.띄어쓰기	크기만한 → 크기만 한	경13	보도
1-1.띄어쓰기	청구하다보니 → 청구하다 보니	대7	해설
1-1.띄어쓰기	비준일정 → 비준 일정	한1	해설
1-1.띄어쓰기	이같은 → 이 같은	북12	보도
1-1.띄어쓰기	270억원→270억 원	제10	보도
1-1.띄어쓰기	펼쳐보임으로써→펼쳐 보임으로써	대4	사설
1-1.띄어쓰기	기부원칙→기부 원칙	동28	칼럼
1-1.띄어쓰기	3월4일치→3월 4일 치	한16	보도
1-1.띄어쓰기	추정재산→추정 재산	동28	칼럼
1-1.띄어쓰기	한달여→한 달여	광12	보도
1-1.띄어쓰기	7월1일 → 7월 1일 * 7	한1	해설
1-1.띄어쓰기	의석수 → 의석 수	부4	보도
1-1.띄어쓰기	22개월만에 → 22개월 만에	서17	해설
1-1.띄어쓰기	120여년간 → 120여 년간	경13	보도
1-1.띄어쓰기	330만㎡규모가 너무 크다보니→330만㎡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강6	보도
1-1.띄어쓰기	대회준비 없는→대회 준비 없는	강10	보도
1-1.띄어쓰기	손 쓸 → 손쓸	조3	보도
1-1.띄어쓰기	4월3~8일→4월 3~8일	경2	해설
1-1.띄어쓰기	건축중인→건축 중인	광2	보도
1-1.띄어쓰기	6시30분→6시 30분	중12	보도
1-1.띄어쓰기	14시간9분→14시간 9분	한23	보도
1-1.띄어쓰기	최모(23)군→최모(23) 군	서33	보도
1-1.띄어쓰기	재래·전통시장→재래·전통 시장	제2	해설
1-1.띄어쓰기	술먹는→술 먹는	대21	해설
1-1.띄어쓰기	호주팀과→호주 팀과	북5	해설
1-1.띄어쓰기	안소현기자→안소현 기자	강2	해설

1-1.띄어쓰기	멸종위기야생동물→멸종 위기 야생 동물	제3	보도
1-1.띄어쓰기	추진중인 물동량 확보작업은→추진 중인 물동량 확보 작업은	북1	보도
1-1.띄어쓰기	이에따라 → 이에 따라	북17	사설
1-1.띄어쓰기	구보건소→구 보건소	서6	사설
1-1.띄어쓰기	2만7000여 → 2만 7000여	동4	보도
1-1.띄어쓰기	신경아씨→신정아 씨	조0	칼럼
1-1.띄어쓰기	알고보니 → 알고 보니	한1	해설
1-1.띄어쓰기	하락한데다→하락한 데다	제22	해설
1-1.띄어쓰기	집단광기→집단 광기	조25	칼럼
1-1.띄어쓰기	귀국환영회→귀국 환영회	동27	칼럼
1-1.띄어쓰기	3승1패→3승 1패	제25	해설
1-1.띄어쓰기	지역간 → 지역 간	부4	보도
1-1.띄어쓰기	7000여장이→7000여 장이	대4	사설
1-1.띄어쓰기	인구구조와→인구 구조와	조25	칼럼
1-1.띄어쓰기	다른지방→다른 지방	제21	해설
1-1.띄어쓰기	공공연하게 하는가하면→공공연하게 하는가 하면	대15	사설
1-1.띄어쓰기	10여개→10여 개	한11	보도
1-1.띄어쓰기	한달→한 달	광5	해설
1-1.띄어쓰기	최종 청구인수가→최종 청구인 수가	강9	보도
1-1.띄어쓰기	새벽 4시20분께→새벽 4시 20분께	북3	해설
1-1.띄어쓰기	반대측→반대 측	강9	보도
1-1.띄어쓰기	높다보니 → 높다 보니	대14	칼럼
1-1.띄어쓰기	오만군데 → 오만 군데	조20	사설
1-1.띄어쓰기	24만원→24만 원	경25	사설
1-1.띄어쓰기	불 만→불만	조5	해설
1-1.띄어쓰기	5만5000원→5만 5000원	광3	해설
1-1.띄어쓰기	두 달도 안돼→두 달도 안 돼	매18	보도
1-1.띄어쓰기	1월11일 → 1월 11일	경14	해설
1-1.띄어쓰기	비준동의 → 비준 동의 * 3	한1	해설
1-1.띄어쓰기	피해지원→피해 지원	동9	사설
1-1.띄어쓰기	극대화하기위해선→극대화하기 위해선	중21	사설
1-1.띄어쓰기	안만들면→안 만들면	동8	해설
1-1.띄어쓰기	23개구→23개 구	한4	보도
1-1.띄어쓰기	전두환씨→전두환 씨	광18	사설
1-1.띄어쓰기	월가→월 가	매10	칼럼
1-1.띄어쓰기	구두합의 → 구두 합의	한1	해설
1-1.띄어쓰기	새들이→새 들이/새 등이	매1	해설
1-1.띄어쓰기	발표시→발표 시	제11	보도
1-1.띄어쓰기	400여명의 → 400여 명의	서1	칼럼
1-1.띄어쓰기	1000만명 → 1000만 명	매5	칼럼
1-1.띄어쓰기	지원 받아 → 지원받아	대12	보도
1-1.띄어쓰기	페이지위→페이지 위기	서21	해설
1-1.띄어쓰기	10t미만→10t 미만	제21	해설
1-1.띄어쓰기	7만원→7만 원	광3	해설
1-1.띄어쓰기	지난달말→지난달 말	매8	해설
1-1.띄어쓰기	우천시 → 우천 시	북11	해설
1-1.띄어쓰기	당내 → 당 내	중16	해설
1-1.띄어쓰기	해당지역→해당 지역	한2	보도
1-1.띄어쓰기	둘째치고→둘째 치고	조0	칼럼

1-1.띄어쓰기	표방해온→표방해 온	서30	보도
1-1.띄어쓰기	9만7821명 → 9만 7821명	경29	사설
1-1.띄어쓰기	오리건주→오리건 주	매10	칼럼
1-1.띄어쓰기	못가는 → 못 가는	동4	보도
1-1.띄어쓰기	문제가 아닌 데→문제가 아닌데	경21	사설
1-1.띄어쓰기	시각장애인인테다가→시각장애인인 테다가	부12	보도
1-1.띄어쓰기	8월1일→8월 1일	강11	보도
1-1.띄어쓰기	이바라키현→이바라키 현	서5	보도
1-1.띄어쓰기	나라를 거덜낸다→거덜 낸다	조29	사설
1-1.띄어쓰기	과학교사→과학 교사	매10	칼럼
1-1.띄어쓰기	떠넘겨→떠 넘겨	제10	보도
1-1.띄어쓰기	1천4천여개 → 1만 4천여 개	북14	보도
1-1.띄어쓰기	근로행태→근로 행태	경20	보도
1-1.띄어쓰기	1조5,562억원→1조 5,562억 원	강5	해설
1-1.띄어쓰기	별 말→별말	서4	보도
1-1.띄어쓰기	푸념어린→푸념 어린	대21	해설
1-1.띄어쓰기	8천원 → 8천 원	북12	보도
1-1.띄어쓰기	기업간→기업 간	한15	해설
1-1.띄어쓰기	그렇다치고→그렇다 치고	한20	칼럼
1-1.띄어쓰기	87만원→87만 원	중1	해설
1-1.띄어쓰기	사측→사 측,	매8	해설
1-1.띄어쓰기	들어다 볼 수→들어다볼 수	부9	사설
1-1.띄어쓰기	809억원이 필요한→809억 원이 필요한	강10	보도
1-1.띄어쓰기	390만명→390만 명	서23	사설
1-1.띄어쓰기	50억원→50억 원	광11	칼럼
1-1.띄어쓰기	4500억원→4500억 원	한14	보도
1-1.띄어쓰기	안바뀌면→안 바뀌면	동15	해설
1-1.띄어쓰기	1조3268억원→1조 3268억 원	조29	사설
1-1.띄어쓰기	빈방 → 빈 방	조16	보도
1-1.띄어쓰기	베이비붐→베이비 붐	동29	사설
1-1.띄어쓰기	친목도모→친목 도모	동18	보도
1-1.띄어쓰기	4000만원→4000만 원	매12	보도
1-1.띄어쓰기	식량 전용면→전용 면	서31	보도
1-1.띄어쓰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 남발되면 이 나라가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휘말릴게 뻔하다.→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약이 남발되면 이 나라가 또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게 뻔하다.	대15	사설
1-1.띄어쓰기	박씨→박 씨	한13	보도
1-1.띄어쓰기	1억7000만원 → 1억 7000만 원	조21	사설
1-1.띄어쓰기	이전 보다→이전보다	대19	보도
1-1.띄어쓰기	구분 못하는→구분 못 하는	한9	사설
1-1.띄어쓰기	알고보니 → 알고 보니	한1	해설
1-1.띄어쓰기	휩쓸어갔다 → 휩쓸어 갔다	조3	보도
1-1.띄어쓰기	2007년초→2007년 초	강6	보도
1-1.띄어쓰기	웃도는데다→웃도는 데다	제6	보도
1-1.띄어쓰기	결과물 치고는 → 결과물치고는	대9	사설
1-1.띄어쓰기	능장대응→능장 대응	서20	보도
1-1.띄어쓰기	높은줄 → 높은 줄	북12	보도
1-1.띄어쓰기	갈고 닭은 기량을→갈고닭은 기량을	북5	해설
1-1.띄어쓰기	와타나베(65)씨는 → 와타나베(65) 씨는	조3	보도

1-1.띄어쓰기	본 떠 만든 개념→본떠	제4	칼럼
1-1.띄어쓰기	1억2000만원→1억 2000만 원	중11	보도
1-1.띄어쓰기	IT제품→IT 제품	동19	해설
1-1.띄어쓰기	이규호기자→이규호 기자	강1	보도
1-1.띄어쓰기	1억관→1억 관	매19	보도
1-1.띄어쓰기	5월6~8일→5월 6~8일	경2	해설
1-1.띄어쓰기	오래 전 일→오래전 일	광7	보도
1-1.띄어쓰기	서모씨→서모 씨	경7	해설
1-1.띄어쓰기	막는데→막는 데	광13	해설
1-1.띄어쓰기	60여명→60여 명	한25	보도
1-1.띄어쓰기	내번째다.→네 번째다.	한18	사설
1-1.띄어쓰기	내물틸관→내물틸 관	한24	보도
1-1.띄어쓰기	37억7000만원→37억 7000만 원	제9	보도
1-1.띄어쓰기	한두달 → 한두 달	한7	해설
1-1.띄어쓰기	1천500여명 → 1천500여 명	북18	사설
1-1.띄어쓰기	안쓰다→안 쓴다	제13	보도
1-1.띄어쓰기	9개항로 13항차에→9개 항로 13항차에	북1	보도
1-1.띄어쓰기	날씨 만큼이나→날씨만큼이나	북4	해설
1-1.띄어쓰기	속깊은→속 깊은	중10	해설
1-1.띄어쓰기	받지않고→받지 않고	대17	보도
1-1.띄어쓰기	사용가능→사용 가능	서29	해설
1-1.띄어쓰기	시행된지→시행된 지	매11	보도
1-1.띄어쓰기	김모(여·60)씨는 → 김 모(여, 60) 씨는	북12	보도
1-1.띄어쓰기	휩쓸어갔다 → 휩쓸어 갔다	조3	보도
1-1.띄어쓰기	2천년→2천 년	북8	해설
1-1.띄어쓰기	실현가능성→실현 가능성	동8	해설
1-1.띄어쓰기	40여명→40여 명	강12	보도
1-1.띄어쓰기	함께 하는 → 함께하는	북9	해설
1-1.띄어쓰기	가시화 되고 있다→가시화되고 있다	부7	보도
1-1.띄어쓰기	지역공약집→지역 공약집	동8	해설
1-1.띄어쓰기	명수군 → 명수 군	경18	보도
1-1.띄어쓰기	이때문에→이 때문에	광7	보도
1-1.띄어쓰기	즐거워야 할 관광기분을→즐거워야 할 관광 기분을	북4	해설
1-1.띄어쓰기	MB정부→MB 정부	매8	해설
1-1.띄어쓰기	3월22일 → 3월 22일	경30	사설
1-1.띄어쓰기	오리새끼가 될 지→오리새끼가 될지	제16	칼럼
1-1.띄어쓰기	남북간→남북 간	한12	사설
1-1.띄어쓰기	근대화한 무대와 → 극대화된 무대와	북11	해설
1-1.띄어쓰기	학교에서 조차→학교에서조차	광7	보도
1-1.띄어쓰기	끊임 없이 → 끊임없이	북18	사설
1-1.띄어쓰기	이인규씨 → 이인규 씨	경30	사설
1-1.띄어쓰기	수학여행'같은 → 수학여행' 같은	북18	사설
1-1.띄어쓰기	살아볼만한→살아볼 만한	제8	칼럼
1-1.띄어쓰기	1년반이 꼬박→1년 반이 꼬박	매19	보도
1-1.띄어쓰기	전쟁때문에 → 전쟁 때문에	북15	사설
1-1.띄어쓰기	네번째 → 네 번째	서1	칼럼
1-1.띄어쓰기	IT업계→IT 업계	매10	칼럼
1-1.띄어쓰기	한주였다.→한 주였다.	서5	보도
1-1.띄어쓰기	폭발력있는 → 폭발력 있는	북11	해설
1-1.띄어쓰기	66조원에→66조 원에	한18	사설

1-1.띄어쓰기	마지막날→마지막 날	북7	보도
1-1.띄어쓰기	김상조기자→김상조 기자	북1	보도
1-1.띄어쓰기	42만명→42만 명	중12	보도
1-1.띄어쓰기	생때산다고→생때 쓴다고	매9	사설
1-1.띄어쓰기	금강산관광→금강산 관광,	매9	사설
1-1.띄어쓰기	인구유입 → 인구 유입	부4	보도
1-1.띄어쓰기	이모(40)씨가 → 이 모(40) 씨가	조3	보도
1-1.띄어쓰기	3조원→3조 원	서37	사설
1-1.띄어쓰기	차질없이→차질 없이	제19	사설
1-1.띄어쓰기	내탓 → 네 탓	부3	칼럼
1-1.띄어쓰기	냄새 나는→냄새나는	대22	사설
1-1.띄어쓰기	오후 8시55분→8시 55분	중24	해설
1-1.띄어쓰기	이날장터 공연장에는→이날 장터	제24	해설
1-1.띄어쓰기	오를수도 → 오를 수도	한7	해설
1-1.띄어쓰기	손해봤다는→손해 봤다는	매16	보도
1-1.띄어쓰기	정계요청→정계 요청	한25	보도
1-1.띄어쓰기	갈등우려→갈등 우려	매8	해설
1-1.띄어쓰기	1만5600명에 달하고→1만 5600명에 달하고	조24	사설
1-1.띄어쓰기	철단 교통 정보 시스템(BIS) 조차→ 철단 교통 정보 시스템(BIS)조차	북4	해설
1-1.띄어쓰기	이틀만에→이틀 만에	대2	보도
1-1.띄어쓰기	2008년말→2008년 말	한3	보도
1-1.띄어쓰기	숲 해설가 → 숲해설가(기사의 다른 부분에선 모두 붙여 씀.)	대13	보도
1-1.띄어쓰기	스리마일섬→스리마일 섬	한6	칼럼
1-1.띄어쓰기	불 붙으면→불붙으면	중3	칼럼
1-1.띄어쓰기	설치 예정역의→설치 예정 역의	부12	보도
1-1.띄어쓰기	큰 돈→큰돈	중3	칼럼
1-1.띄어쓰기	차기대권 주자→차기 대권 주자	서2	사설
1-1.띄어쓰기	올가을·겨울→올 가을·겨울	매3	해설
1-1.띄어쓰기	올들어→올 들어	광12	보도
1-1.띄어쓰기	8월12일~10월10일→8월 12일~10월 10일	북8	해설
1-1.띄어쓰기	울산간 → 울산 간	북13	보도
1-1.띄어쓰기	지역표심→지역 표심	동8	해설
1-1.띄어쓰기	안돼→안 돼.	조8	칼럼
1-1.띄어쓰기	두가지뿐 → 두 가지뿐	서18	해설
1-1.띄어쓰기	방학때→방학 때	서33	보도
1-1.띄어쓰기	잠실 문학경기가→잠실, 문학 경기가	동26	해설
1-1.띄어쓰기	충돌하는데다→충돌하는 데다	한16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콘텐츠→콘텐츠	중23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웨어→페리	중22	사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테레모필레→테르모필레	경20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부유세를 자르는 눈금→가르는	매30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줄었든→줄어든	동5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오쓰지 → 오스지	동4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배팅→배팅	매4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감상선 암→감상선암	대3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에스코 → 에스코	동4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아이돌→아이들	대4	사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비행기값→비행깃값	조7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캠핑장에서는→캠핑장에서	중17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컨셉트를→콘셉트를	중17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씨엔블루→시엔블루	서8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외국인이었다.→외국인이었다.	매4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컨셉트→콘셉트	매3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케봉어보고 → 케봉고	동7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이제서야→이제야	매10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비유하자만→비유하자면	매2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재매결연 → 자매결연	대12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리더쉽 → 리더십	대12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엠프→엠프	대21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현재로서는 → 현재로서는	경15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한미FTA 비준,→한미 에프티에이(FTA) 비준,	중21	사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매니아들에게→마니아들에게	중17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한자리수 → 한 자릿수	대14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이물질일→이물질이	광13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사업이 마무리 된 후…철저를 기하고 있다”→마무리	제13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역할을 마다치 않고→마다지	제25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갈치배→갈치배	제8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면밀히→면밀히	제9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휘발유값→휘발유값	제6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1천4천여개 → 1만 4천여 개	북14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제19	사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북9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다이나믹함 → 다이내믹함(역동성)	북11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기억하다.→기억한다.	대26	사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찾값을 → 찾값을	매5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활인→활인	대24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마스터플랜 → 마스터플랜	부1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원화값 → 원화값	매6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서비스 → 서비스	부5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이양은→박 양은	광7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대나무 잎사귀를 귀에 꽃은→대나무 잎사귀를 귀에 꽃은	북8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거처 → 거처	대8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틀림없다 → 틀림없다	대8	칼럼
1-2.철자 표기 틀린 것	아웃렛몰→아웃렛몰	부10	사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컨셉 → 콘셉트	북11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니코틴량→니코틴양	광7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춘천~속고속철도와→춘천~속초 고속화철도와	강1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미소 짓게 되요.→미소 짓게 돼요.	북2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미국연방준비제도(Fed)→미국연방준비은행제도(Fed)	강5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수퍼바이저(supervisor)→슈퍼바이저(supervisor)	조22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뮤지션들과→뮤지션들과/음악가들과	강2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배팅하는→배팅하는	강5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상태로 나날났다.→상태로 나타났다.	북6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옥스포드→옥스퍼드	북5	해설

1-2.철자 표기 틀린 것	틈새시장(Niche Ocen)→틈새시장(Niche Ocean)	북1	보도
1-2.철자 표기 틀린 것	크리스탈→크리스탈	북5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NHK에 → 엔에이치케이에	동4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板이 → 판(板)이	조2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板이 → 판(板)이	조2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FTA → 자유무역협정(FTA)	한1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JP모건 → 제이피 모건	경3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JP모건 → 제이피 모건	경3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EU → 유	한1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FTA → 자유무역협정(FTA)	한1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중국뱀 → 중국발	경3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EU → 이유	한1	해설
1-3. 외국 문자, 한자	HA(가전)사업본부장→가전(HA)사업본부장	매17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KTX.→케이티엑스(KTX).	북2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EU	중26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ABC방송	중15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QE로→큐이(QE)로	중18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BOP	중26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OECD의 평균이→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평균이	조24	사설
1-3. 외국 문자, 한자	英→영(英)	대24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韓美 FTA→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9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BBC→	대24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FA컵→FA컵(Football Association Cup)	대18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과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과주 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	대18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KIA→기아(KIA)	중9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B고교→니고교	광7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A고교→기고교	광7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CBS방송	중15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與野→여야(與野)	조6	사설
1-3. 외국 문자, 한자	改題	제8	칼럼
1-3. 외국 문자, 한자	國政 → 국정/국정(國政)	조20	사설
1-3. 외국 문자, 한자	MBC스포츠플러스→엠비시(MBC)스포츠플러스	중9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SITE *이슬람권 웹사이트 감시 기구	중15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NHN → 엔에이치엔	중13	칼럼
1-3. 외국 문자, 한자	罿	서20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美 → 미/미(美)	서15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Sea of Japan’ → 시 오브 재팬(Sea of Japan)	북15	사설
1-3. 외국 문자, 한자	道	제10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道	제3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지식인 → 지식인	중13	칼럼
1-3. 외국 문자, 한자	IMF	동29	사설
1-3. 외국 문자, 한자	Heat Break	제11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法人化→법인화(法人化)	동23	사설
1-3. 외국 문자, 한자	ha	동25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市	조28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e메일→전자우편	동11	보도
1-3. 외국 문자, 한자	北→북(北)	동9	사설
1-3. 외국 문자, 한자	生家	조28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자동차KD 전진기차→자동차 케이디(KD) 전진 기차	북1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SEA LOCK 블록 → 시 록(SEA LOCK) 블록	북10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E씨 → 이 씨	북13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神·言語	제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戀歌	제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CEO	매30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SK→에스케이(SK)	중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LG→엘지(LG)	중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北간피→북(北) 간피	매9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VS→대	조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推力	조17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남춘천IC가→남춘천 인터넷인지가/남춘천 입체 교차로가	강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TF→테스크포스	동13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SK킵즈 → 에스케이 킵즈	중13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L당→리터당	동13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故 이태석 신부의→고(故) 이태석 신부의	대3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GNI → 국민총소득	대14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高실업 → 고실업	대14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OECD 회원국의→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대5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道 차원의→도(道) 차원의	강10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SOC→	강10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지역민 A씨의 사례→지역민 에이(A)씨의 사례/지역민 이씨의 사례	강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IT →아이티(IT)	조17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TV→텔레비전	매2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A씨→이씨	서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B은행→이은행	서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CSIS	동29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年 → 연/연(年)	조1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OECD	동29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靑→청와대	중21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Duty Free Shoppers	동2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3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Wealth	동2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LH→토지주택공사	한11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病	제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興→여(興)	동11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P사	동1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李·朴→이·박	대26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銀	동24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ISUZU, FIAT 등→이즈즈(ISUZU), 피아트(FIAT) 등	북1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TF	서12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엔터테인먼트(SM)	대4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debarcation	제5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韓流,→한류(韓流),	대4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CIA	서22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TV→텔레비전	조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NBA → 엔비에이(NBA)/미국 프로 농구	조1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MRO→엠아르오(MRO)	광9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北	서22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FTA	중28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CEO→시오(CEO) / 최고 경영자	광9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大亂 → 대란(大亂)	매5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海軟風	제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PD→피디/감독	매2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UEFA→유이에프에이(UEFA), FC→에프시(FC), MC→엠시(MC)	서5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한-EU FTA→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	조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PT	동2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IT업체 → 아이티(IT)업체	북16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地作司 → 지작사/지작사(地作司)	동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禾北	제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IOC	동2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IT	동2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金言	동2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CNN	동2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銀	동1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prisoner'를 굳이 '수인'이라고 풀어 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prisoner(재소자, 죄수)'를 …… 이유에서다.	동21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票→표(票)	대16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K팝(한국 가요)을→케이팝(K-pop, 한국 가요)을	대4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DSLR → 디에스엘아르(DSLR)	서15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LG,→엘지(LG),	매17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OJ → 오제이(OJ)	경30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KT와 → 케이티(KT)와	대9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MSCI	매2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規準 → 규준/규준(規準), 표준	대10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충남 “독 혈어야 강 살아” vs 전북 “용수 차질… 절대 안 돼”→충남 “독 혈어야 강 살아” 대 전북 “용수 차질… 절대 안 돼”	서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Giving while living	동2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興野	동2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中 → 중(中)/중	경15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AFP → AFP(에이에프피)	경15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IT	서14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AP통신 → 에이피통신	경27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高	경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CIA	경8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北	경10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DFS	동2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SK → 에스케이	경2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No Pain, No Gain	동2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WHO → 세계보건기구	경1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MRO	동2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OECD	동27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D구역 → 디(D) 구역	경17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LH	서25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저축銀	서32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한미FTA 비준,→한미 에프티에이(FTA) 비준,	대6	사설

1-3.외국 문자, 한자	靑→청와대	대6	사실
1-3.외국 문자, 한자	KBO→한국야구위원회(KBO)	경19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ISI	경8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KT&G → 케이티앤지(KT&G)	경18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美	경8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DNA	서2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GDP→국내총생산, 지디피(GDP)	조25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GDP의 0.7% 예산을→국내 총생산(GDP)의 0.7% 예산을	조24	사실
1-3.외국 문자, 한자	BIS	서32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火	조30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SK그룹→에스케이그룹	조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前夜	조30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OECD → 경제개발협력기구/오이시디(OECD)	조1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興 → 여/여(興)	조19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LED	서14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X선→엑스선(X線)	동9	사실
1-3.외국 문자, 한자	'A급 戰犯'→'A급 전범'	조25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格을 높인다.	조10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北	서31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e세상→	서5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PRB	동29	사실
1-3.외국 문자, 한자	EU	서31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KT → 케이티(KT)	부5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年5.5%→연 5.5%	매18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監査 → 감사/감사(勘査)	조21	사실
1-3.외국 문자, 한자	TV	매11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男→남(男)	서8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KTX → 케이티엑스(KTX)	부1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濟州詩集	제8	칼럼
1-3.외국 문자, 한자	Occupy Together	중26	보도
1-3.외국 문자, 한자	KTX → 케이티엑스(KTX)	북18	사실
1-3.외국 문자, 한자	LPG	중25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秋冬패션→추동패션, 추동(秋冬)패션	매3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이명박(MB) 대통령→이명박 대통령	중24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PC	부18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CSI	제22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MB 일행	중24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M&A	매3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SNS	부19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19禁 → 19금(禁)	서18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銀	서2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전년 동월 대비→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동5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STAR → 스타(STAR)	북9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DJ DOC→디제이 디오시(DJ DOC)	조22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NU	동14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SK	동26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MB캠프→이명박 후보 진영	동8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KIA	동26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C 의원→	동8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TV	제15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NTC	부16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市→시	동1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IT→아이티(IT)	경23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TV	동14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豚 → 돈(豚)	서16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市長→시장	동1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PMP→피엠피(PMP)	경23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CJ제일제당→시제이(CJ)제일제당	경23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CD→시디(CD)	강2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SK → 에스케이	매6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비타민A→비타민에이(A)	경23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勞→노(勞),	매8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他지역→타(他) 지역/다른 지역	매14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PS	제23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惡童식→악동(惡童)식	조22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PD	부1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CJ E&M→시제이 이 앤드 엠(CJ E&M)	조22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한-EU→한-이유(EU)/한-유럽연합(EU)	동10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3D→입체	조1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KBS	조2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PD→연출자/감독	매15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미쳤다 → 미(米)쳤다	서1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MBC	부1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VIP→브이아이피(VIP)	조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DMB→디엠비(DMB)	경23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B&F→비 앤드 에프(B&F)	조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W → 더블유(W)	조15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3DS	조1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MBC	조2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TV→티브이	조1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故 한채원씨	조2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H→일본	동1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H→일/일본	매14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H대지진→일(H) 대지진/일본 대지진	매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SK-II →에스케이투(SK-II)	조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VVIP→브이브이아이피(VVIP)	조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KTX	매32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MB정부→이명박 정부	매8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2D→평면	조1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LG	동26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檢	서2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LG전자→엘지전자/엘지(LG)전자	중19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MBC→문화방송/엠비시/엠비시(MBC)	매15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CT촬영만→시티(CT) 촬영만	북3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FTA→자유무역협정	동10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X박스→엑스 박스	조1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3D→3디(D)	북8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CGV→시지브이(CGV)	조22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대폭→크게	매1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로ړېځ	서10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A 공무원 → ㄱ 공무원	대7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박근혜 VS 안철수	서24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KB → 케이비(KB)	서19	해설
1-3.외국 문자, 한자	f(x)	동14	해설
1-4. 문장 부호	“조약을 ~ 반하는 것” → ‘조약을 ~ 반하는 것’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관구조운동이 ~ 것”이라며 → ‘관구조운동이 ~ 것’이라며	조2	해설
1-4. 문장 부호	구조-대피 → 구조, 대피	동4	보도
1-4. 문장 부호	“근로자들의 ~ 있다” → ‘근로자들의 ~ 있다’	경3	해설
1-4. 문장 부호	44분기 → 4/4 분기	경3	해설
1-4. 문장 부호	‘수도기능 유지’ 핵심지역은 제외→‘수도기능 유지’ 핵심지역은 제외…….	한2	보도
1-4. 문장 부호	“정전이 되면~가능성이 있다”고→“정전이 되면~가능성이 있다.”라고	한2	보도
1-4. 문장 부호	아니다”라고 → 아니다.”라고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해령(海嶺해저 계곡)→해령(海嶺: 해저 계곡)	조2	해설
1-4. 문장 부호	“조약을 ~ 반하는 것” → ‘조약을 ~ 반하는 것’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아니다”라고 → 아니다.”라고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한-벨기에 → 한국벨기에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기다려달라”는 → ‘기다려달라’는	조3	보도
1-4. 문장 부호	맞출 수 있다” → 맞출 수 있다.”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환율 인상·임금 급등 → 환율 인상, 임금 급등(환율인상·임금급등)	경3	해설
1-4. 문장 부호	“무엇보다 ~ 것”이라고 → ‘무엇보다 ~ 것’이라고	조2	해설
1-4. 문장 부호	한-유럽연합 → 한국유럽연합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한-EU → 한·이유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2009년 9월) ~ ”했다고 → ‘(2009년 9월) ~ ’했다고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철도·전화·인터넷 차질→철도·전화·인터넷 차질…….	한4	보도
1-4. 문장 부호	‘수도기능 유지’ 핵심지역은 제외→‘수도기능 유지’ 핵심지역은 제외…….	한4	보도
1-4. 문장 부호	한-벨기에 → 한국벨기에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감사원에 ~ 요청하겠다” → ‘감사원에 ~ 요청하겠다’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해령(海嶺해저 계곡) → 해령(海嶺/해저 계곡), 해령(海嶺: 해저 계곡)	조2	해설
1-4. 문장 부호	한-유럽연합 → 한국-유럽연합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한-EU → 한·유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맞출 수 있다” → 맞출 수 있다.”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일본 ~ 후퇴시킬 것” → “일본 ~ 후퇴시킬 것.”	한4	보도
1-4. 문장 부호	민·형사 → 민형사	조0	칼럼
1-4. 문장 부호	나토리(名取)시 → 나토리[名取] 시	조3	보도
1-4. 문장 부호	朝鮮籍 해방 후 → 朝鮮籍: 해방 후(朝鮮籍, 해방 후)	조3	보도
1-4. 문장 부호	“감사원 조사 요청” → ‘감사원 조사 요청’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기다려달라”는 → ‘기다려달라’는	조3	보도
1-4. 문장 부호	“감사원 조사 요청” → ‘감사원 조사 요청’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 틀림없다”고 → “…틀림없다.”고	중4	해설
1-4. 문장 부호	… → …	조2	해설
1-4. 문장 부호	“감사원에 ~ 요청하겠다” → ‘감사원에 ~ 요청하겠다’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2009년 9월) ~ ”했다고 → ‘(2009년 9월) ~ ’했다고	한1	해설
1-4. 문장 부호	철도·전화·인터넷 차질→철도·전화·인터넷 차질…….	한2	보도
1-4. 문장 부호	“배사구조는 ~ 조건”이라고 → ‘배사구조는 ~ 조건’이라고	조2	해설

1-4. 문장 부호	환율 인상·임금 급등 → 환율 인상, 임금 급등(환율인상·임금급등)	경3	해설
1-4. 문장 부호	있다”는→있다.”라는	조1	칼럼
1-4. 문장 부호	직·간접적으로→직간접적으로	조0	칼럼
1-4. 문장 부호	“일본 ~ 후진” → ‘일본 ~ 후진’	중5	사설
1-4. 문장 부호	“전국의 ~ 요청했다” → ‘전국의 ~ 요청했다’	동4	보도
1-4. 문장 부호	되었구나”라고 → 되었구나.”라고	조3	보도
1-4. 문장 부호	“일본 ~ 후퇴시킬 것” → “일본 ~ 후퇴시킬 것.”	한2	보도
1-4. 문장 부호	“가능성이 있다”고→“가능성이 있다.”라고	한4	보도
1-4.문장 부호	3000 ~ 4000원 → 3,000 ~ 4,000원	중3	칼럼
1-4.문장 부호	2844억 → 2,844억	동2	해설
1-4.문장 부호	신경 침범·림프절 전이 → 신경 침범, 림프샘 전이	조15	해설
1-4.문장 부호	등기·등록되는 → 등기, 등록되는	매7	해설
1-4.문장 부호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란 주장이었다.→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란 주장이었다.(인용부 없음)	중2	칼럼
1-4.문장 부호	이부진·이서현→이부진, 이서현	조7	해설
1-4.문장 부호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라며→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라며	북6	해설
1-4.문장 부호	‘맘마미야’ ‘울 속 업’ ‘광화문 연가’→‘맘마미야’, ‘울 속 업’, ‘광화문 연가’	조22	해설
1-4.문장 부호	고급 축구공과 가방 테디 베어 인형을,→고급 축구공과 가방, 테디 베어 인형을,	북5	해설
1-4.문장 부호	“휴!” 한숨이 절로→“휴!” 한숨이 절로	조23	해설
1-4.문장 부호	리치먼드-→리치먼드.	중20	칼럼
1-4.문장 부호	술일을 먹자”는→술일을 먹자.”라는	조22	해설
1-4.문장 부호	인사강동이 아니다”라고→아니다.”라고	조27	해설
1-4.문장 부호	농민에게 분배한다”는→농민에게 분배한다.”라는	중21	칼럼
1-4.문장 부호	“예고편이 ~ 없다.”는 → “예고편이 ~ 없다.”는	서18	해설
1-4.문장 부호	“잘 모르겠네”라고→“잘 모르겠네.”라고	조11	해설
1-4.문장 부호	“남한 동포에게 ~ 보내고 싶다”는→“남한 동포에게 ~ 보내고 싶다.”는	광11	칼럼
1-4.문장 부호	한채원(31·본명 정재은)씨는	조27	해설
1-4.문장 부호	“이익이 크게 늘었다”는데→늘었다는데(인용부 없음)	중2	칼럼
1-4.문장 부호	마라”고→마라.”라고	광9	칼럼
1-4.문장 부호	유바리(夕張)→유바리[夕張] *한자 제거	동17	해설
1-4.문장 부호	“하늘도 무심하시지”→하늘도 무심하시지	동26	해설
1-4.문장 부호	1-0으로→1 대 0으로	동26	해설
1-4.문장 부호	단위=kg당 베크렐 →단위는 kg당 베크렐	매14	해설
1-4.문장 부호	동행-선행지수→동행·선행지수	동5	해설
1-4.문장 부호	친인척→친·인척	광9	칼럼
1-4.문장 부호	“지나치게 비싸다”는→“지나치게 비싸다.”는	중3	칼럼
1-4.문장 부호	잘못됐다”는→잘못됐다.”라는	중20	칼럼
1-4.문장 부호	모르겠다”는 → 모르겠다.”라는	경1	칼럼
1-4.문장 부호	재미있다”고→재미있다.”라고	북8	해설
1-4.문장 부호	시민들이 “유바리를 살릴 사람은 스키밖에 없다”고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시민들이 유바리를 살릴 사람은 스키밖에 없다고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동17	해설

1-4.문장 부호	그대로... → 그대로.....	서18	해설
1-4.문장 부호	다르다"는 → 다르다."라는	경1	칼럼
1-4.문장 부호	장점을 다 살리는 게 목표"라고→장점을 다 살리는 게 목표."라고	조22	해설
1-4.문장 부호	...→,	동5	해설
1-4.문장 부호	방문했다"고→방문했다."라고	조7	해설
1-4.문장 부호	'3류' '4류' → '3류', '4류'	경1	칼럼
1-4.문장 부호	기간 동안 행복할 것"이라고→기간 동안 행복할 것."이라고	복5	해설
1-4.문장 부호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	동17	해설
1-4.문장 부호	게임-하드웨어 업체→게임·하드웨어 업체	조11	해설
1-4.문장 부호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복5	해설
1-4.문장 부호	있다"며→있다."라며	경2	해설
1-4.문장 부호	"수술을 ~ 한다"고 → '수술을 ~ 한다'고	조15	해설
1-4.문장 부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동2	해설
1-4.문장 부호	전체관람가·유해성 → 전체 관람가, 유해성(전체 관람가는 붙여 써져 있지만 구임.)	서18	해설
1-4.문장 부호	'재료비 정도 받아야 한다'는→'재료비 정도 받아야 한다.'는	중3	칼럼
1-4.문장 부호	바꾸자"는 → 바꾸자."라는	경1	칼럼
1-4.문장 부호	"모색에만 골몰한다"는→"모색에만 골몰한다."는	한22	칼럼
1-4.문장 부호	"남북 ~ 열자"고 → '남북 ~ 열자'고	경14	해설
1-4.문장 부호	뜯어먹는 자가 많거나...→ 뜯어먹는 자가 많거나.....	중3	칼럼
1-4.문장 부호	"맛벌이 ~ 시급하다"고 → '맛벌이 ~ 시급하다'고	대11	해설
1-4.문장 부호	있다"며→있다."라며	동10	해설
1-4.문장 부호	호세이(法政)→호세이[法政] *한자 제거	동17	해설
1-4.문장 부호	'통 큰 석유' '이마트 석유'→'통 큰 석유', '이마트 석유'	동13	칼럼
1-4.문장 부호	"~한다." '선심성'→'한다.' '선심성'	한20	칼럼
1-4.문장 부호	"이건희 ~ 격" → '이건희 ~ 격'	서19	해설
1-4.문장 부호	있었다.. → 있었다.	서17	해설
1-4.문장 부호	살처분 탓... → 살처분 탓.....	서16	해설
1-4.문장 부호	"이번 판결을 ~ 보인다"며 → '이번 판결을 ~ 보인다'며	경28	해설
1-4.문장 부호	"가사가 된다고요? 우린 변화무쌍한 함수죠"→".....함수죠."	동14	해설
1-4.문장 부호	2-1 승리를 이끈→2:1 승리를 이끈	경12	해설
1-4.문장 부호	"난개발 유발...교통망 나빠질 것"→난개발 유발...교통망 나빠질 것	서35	해설
1-4.문장 부호	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	대11	해설
1-4.문장 부호	간섭하느냐"는 → 간섭하느냐."라는	경1	칼럼
1-4.문장 부호	국내외 → 국내외	복11	해설
1-4.문장 부호	길"이라며→'길.'이라며	매8	해설
1-4.문장 부호	될 것"이라고→'될 것.'이라고	한17	칼럼
1-4.문장 부호	"이번 축제를 ~ 만들고 싶다"고→"이번 축제를 ~ 만들고 싶다."고	대21	해설
1-4.문장 부호	하는가"라는 → 하는가."라는	매5	칼럼
1-4.문장 부호	"~둬졌다"→"~둬졌다."	한19	칼럼
1-4.문장 부호	"안드로이드 ~ 방해했다"며 → '안드로이드 ~ 방해했다'며	중13	칼럼
1-4.문장 부호	김치 된장 와인 치즈→김치, 된장, 와인, 치즈	매2	칼럼
1-4.문장 부호	기각기각 → 기각, 기각	대7	해설
1-4.문장 부호	"이건 공평하지 못해"라며→"이건 공평하지 못해."	매30	칼럼
1-4.문장 부호	'악마의 ~ 지쳤다'고 → '악마의 ~ 지쳤다.'라고(작은따옴표)	부3	칼럼

1-4.문장 부호	"구속영장 ~ 보인다"며 → '구속영장 ~ 보인다'며	대7	해설
1-4.문장 부호	'악마의 ~ 지쳤다'고 → "악마의 ~ 지쳤다."라고(온점)	부3	칼럼
1-4.문장 부호	기각... → 기각.....	대7	해설
1-4.문장 부호	있다"고 → 있다."라고	대11	해설
1-4.문장 부호	"외국인들이 ~ 있다"며 → '외국인들이 ~ 있다'며	매6	해설
1-4.문장 부호	나비 새 꽃→나비, 새, 꽃	매1	해설
1-4.문장 부호	보인다."면서 → 보인다'며	서17	해설
1-4.문장 부호	"전쟁 돌입 때부터...승산이 없었다"는 식으로→전쟁 돌입 때부터 승산이 없었다는 식으로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중·부정적→긍정적, 부정적	제16	칼럼
1-4.문장 부호	"박속낙지탕만한 게 없다"고→"박속낙지탕만한 게 없다."라고	대20	해설
1-4.문장 부호	"100원 내린다면 발표에 비해 적다"→"발표에 비해 적다."	동13	칼럼
1-4.문장 부호	40~50대→40·50대	서36	사설
1-4.문장 부호	"3대 ~ 한다"며 → '3대 ~ 한다'며	복16	사설
1-4.문장 부호	있다"고→있다."라고	동21	칼럼
1-4.문장 부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러시아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 러시아에서	조10	칼럼
1-4.문장 부호	찾아야겠습니까"라는→찾아야겠습니까."라는	대3	칼럼
1-4.문장 부호	아니냐"는→아니냐."라는	매14	해설
1-4.문장 부호	한일 → 한일	복11	해설
1-4.문장 부호	"방사능은 귀하의 ~ 존재하고 있다"는→"방사능은 귀하의 ~ 존재하고 있다."는	한6	칼럼
1-4.문장 부호	"돌리는 게 좋다"고→"돌리는 게 좋다."고	동2	해설
1-4.문장 부호	'유바리 관광협회' '유바리 재생 시민회의' '어린이 문화모임' 등→'유바리 관광협회', '유바리 재생 시민회의', '어린이 문화모임' 등	동17	해설
1-4.문장 부호	심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심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복3	해설
1-4.문장 부호	한노총-민노총→한노총과 민노총	동15	해설
1-4.문장 부호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복3	해설
1-4.문장 부호	IT업체 대표·월간지 → 아이티(IT)업체 대표, 월간지	복16	사설
1-4.문장 부호	"취업하기도 했다"고→"취업하기도 했다."고	동19	해설
1-4.문장 부호	"한국에서 ~ 어렵다"고 → '한국에서 ~ 어렵다'고	대14	칼럼
1-4.문장 부호	세종시·과학벨트 → 세종시, 과학벨트	대14	칼럼
1-4.문장 부호	'힘 있는 사람' 그들이 사는 법→'힘 있는 사람, 그들이 사는 법'	부11	칼럼
1-4.문장 부호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의 특혜론'→'김대중노무현 전 정부의 특혜론'	부11	칼럼
1-4.문장 부호	정관계를 망라한→정관계를 망라한	부11	칼럼
1-4.문장 부호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쓰고픈 충동이 몸을 떨었다.'→'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쓰고픈 충동이 몸을 떨었다.'	부17	해설
1-4.문장 부호	됐다"는 → 됐다."라는	한4	칼럼
1-4.문장 부호	가부장적 관습 때문"이라고→가부장적 관습 때문."이라고	대5	칼럼
1-4.문장 부호	'사회는 한 가지 일만~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며→"사회는 한 가지 일만~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대5	칼럼

1-4.문장 부호	홋카이도(北海道)→홋카이도[北海道] *한자 제거	동17	해설
1-4.문장 부호	“명칭 ~ 붙이지”고 → ‘명칭 ~ 붙이자’고	북15	사실
1-4.문장 부호	편안해야 한다”는 것.→편안해야 한다.”라는 것.	중17	해설
1-4.문장 부호	“조상 ~ 빠진” → ‘조상 ~ 빠진’	북18	사실
1-4.문장 부호	중심의. → 중심의	대14	칼럼
1-4.문장 부호	최영근 대표 “중편은 제작사에 ……등장할 것”→최영근 대표 “중편은 제작사에 …… 등장할 것.”	매15	해설
1-4.문장 부호	“이 ~ 것”이라고 → ‘이 ~ 것’이라고	서17	해설
1-4.문장 부호	이건 불가능하다”며→이건 불가능하다.”라며	조29	사실
1-4.문장 부호	‘정치투쟁에서~노조가 되겠다’며→“정치투쟁에서~노조가 되겠다.”라며	중19	해설
1-4.문장 부호	유감스럽다”고→유감스럽다.”라고	조6	사실
1-4.문장 부호	소장과~소장과	한17	칼럼
1-4.문장 부호	“이번 ~ 비리”라고 → ‘이번 ~ 비리’라고	조20	사실
1-4.문장 부호	“어떻게 가수들의 음악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 무식한 것이 다”라는 지적도 이해가 된다. → “어떻게 가수들의 음악에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 무식한 것이다.”라는	조10	칼럼
1-4.문장 부호	아들딸이→아들딸이	조8	칼럼
1-4.문장 부호	잡나네… → 잡나네……	서17	해설
1-4.문장 부호	“~알았겠는가”→“~알았겠는가.”	한20	칼럼
1-4.문장 부호	매우 미흡하다”고→매우 미흡하다.”라고	북6	해설
1-4.문장 부호	427이 가져온 공천 개혁 …… 방향은 옳다→‘…’을 없앨 것.	중14	사실
1-4.문장 부호	… → ……	중16	해설
1-4.문장 부호	신-구주류 → 신-구주류	중16	해설
1-4.문장 부호	“원내대표가 ~ 옳다”고 → ‘원내대표가 ~ 옳다’고	중16	해설
1-4.문장 부호	“성과는 외교부 몫이고 책임은 다른 부처가 가져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성과는 …… 얘기”라고 말했다.	동10	해설
1-4.문장 부호	이명박-박근혜 갈등의 뿌리→이명박과 박근혜 간 갈등의 뿌리	중14	사실
1-4.문장 부호	‘억만장자들이~기뻐하겠냐’→‘억만장자들이~기뻐하겠냐.”라며	중1	해설
1-4.문장 부호	중진회의의총 → 중진회의, 의총	중16	해설
1-4.문장 부호	“농민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농민을 장악하기 위해서.”라고	중21	칼럼
1-4.문장 부호	“속았다”는 → ‘속았다’는	중8	해설
1-4.문장 부호	“낮선 음악과의 새로운 작업이 기대된다”고 했다.→“기대된다.”	중25	해설
1-4.문장 부호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	중10	해설
1-4.문장 부호	“한번 주기로~뻗을 수 없다”며→“한번 주기로~뻗을 수 없다.”	중1	해설
1-4.문장 부호	경전철 그리고→경전철, 그리고	중7	사실
1-4.문장 부호	기관장~이사.감사→기관장, 이사, 감사	중22	사실
1-4.문장 부호	‘홍콩에~하느냐’며→“홍콩에~하느냐.”라며	중1	해설
1-4.문장 부호	열려 있다”면서→열려 있다.”라면서	중21	사실
1-4.문장 부호	“국책에 반한다”며 소감을 지시했다.→국책에 반한다”며 소감을 지시했다.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효력을 취소한다”고→“효력을 취소한다.”고	한12	사실
1-4.문장 부호	아닌가”라는 → ‘아닌가.’”라는	북15	사실
1-4.문장 부호	4만1390건→4만 1,390건	조4	사실
1-4.문장 부호	박근혜민주당 → 박근혜, 민주당	한5	사실
1-4.문장 부호	웹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함.	한9	사실
1-4.문장 부호	2400만→2,400만	조4	사실
1-4.문장 부호	“국제화 ~ 확대” → ‘국제화 ~ 확대’	한5	사실
1-4.문장 부호	재벌 3세경제 단체 임원 출신-공인회계사 등→재벌	경11	사실

1-4.문장 부호	3세, 경제 단체 임원 출신, 공인회계사 등		
1-4.문장 부호	19개 노동·정당·시민단체 → 19개 정당, 노동·시민단체	경29	사실
1-4.문장 부호	안 하셔도…”라면서도→안 하셔도….”라면서도	조8	칼럼
1-4.문장 부호	“정책 ~ 한다” → ‘정책 ~ 한다’	조19	칼럼
1-4.문장 부호	위임하지 않겠다”는→위임하지 않겠다.”라는	조30	칼럼
1-4.문장 부호	“이제~인식이 필요하다”고→“이제~인식이 필요하다.”고	대22	사실
1-4.문장 부호	않았다”→않았다.”	대26	사실
1-4.문장 부호	시.도 → 시도	대10	사실
1-4.문장 부호	열려 있다”면서→열려 있다.”라면서	대6	사실
1-4.문장 부호	과오납금 → 과오 납금(과오납금)	대9	사실
1-4.문장 부호	통합→통합,	대25	사실
1-4.문장 부호	출연기관·직능단체 → 출연기관, 직능단체	대10	사실
1-4.문장 부호	이모(19·대구시 수성구)군은→이 모(19, 대구시 수성구) 군은	북4	해설
1-4.문장 부호	단, → 단	북11	해설
1-4.문장 부호	“종합적으로 볼 때 그는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야 했다. → “종합적으로 볼 때 그는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조12	칼럼
1-4.문장 부호	일”이라며→일.”이라며	매9	사실
1-4.문장 부호	손영래 이주성 전균표 씨→손영래·이주성·전균표 씨	동6	사실
1-4.문장 부호	보여줬다”→보여줬다.”	동3	사실
1-4.문장 부호	강원 경북 울산 등→강원, 경북, 울산 등/강원·경북·울산 등	동3	사실
1-4.문장 부호	등록금도 올릴 것”이라고→등록금도 올릴 것.”이라고	동23	사실
1-4.문장 부호	피그스(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피그스(P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동22	사실
1-4.문장 부호	세력’→세력’.	동9	사실
1-4.문장 부호	사면 복권했다→사면·복권했다	동12	사실
1-4.문장 부호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동9	사실
1-4.문장 부호	“무조건”→“구조된다.”	동3	사실
1-4.문장 부호	한다”고→한다.”라고	동22	사실
1-4.문장 부호	누구하고 친해” 하면서→누구하고 친해.” 하면서	부11	칼럼
1-4.문장 부호	교육 의료 등→교육, 의료 등	동22	사실
1-4.문장 부호	“현재 ~ 있다”면서 → ‘현재 ~ 있다’면서	부4	보도
1-4.문장 부호	“몸에~붓기까지 했다”고→“몸에~붓기까지 했다.”	조0	칼럼
1-4.문장 부호	‘무한도전’, ‘황금어장’, ‘세바퀴’, ‘우리 결혼했어요’→‘무한도전’, ‘황금어장’, ‘세바퀴’, ‘우리 결혼했어요’	매15	해설
1-4.문장 부호	“증시 조정에도~부담이 된다”고→“증시 조정에도~부담이 된다.”고	부8	보도
1-4.문장 부호	2주 전에 전회·전석이 매진됐다. → 전회의 전석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있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조10	칼럼
1-4.문장 부호		부12	보도

1-4.문장 부호	설치하겠다”고→설치하겠다.”라고	부12	보도
1-4.문장 부호	발레오페라 같은 클래식 → 발레나 오페라 같은 클래식	조10	칼럼
1-4.문장 부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amnesty는 ‘사면’이라는 뜻)→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amnesty는 ‘사면’이라는 뜻)	동21	칼럼
1-4.문장 부호	“원가공개가~명확히 한다”고→“원가공개가~명확히 한다.”고	부6	보도
1-4.문장 부호	“복수노조제가~수밖에 없다”며→“복수노조제가~수밖에 없다.”며	부7	보도
1-4.문장 부호	“맛있는 ~ 했다”며 → ‘맛있는 ~ 했다’며	복9	해설
1-4.문장 부호	한데, → 한테	대14	칼럼
1-4.문장 부호	‘물어보지...필요가 없다.’ ‘기자들이...설명했다.’는→ ‘물어보지...필요가 없다.’, ‘기자들이...설명했다.’는	서34	보도
1-4.문장 부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서9	보도
1-4.문장 부호	처음.→처음	서4	보도
1-4.문장 부호	2~3일→2,3일	서30	보도
1-4.문장 부호	“건물은 ~ 방식”이라고 → ‘건물은 ~ 방식’이라고	서13	보도
1-4.문장 부호	신-구→신·구	서8	보도
1-4.문장 부호	“속았다”고→“속았다”고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올림픽 3관왕,세계선수권대회 5연패를→올림픽 3관왕,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를	서4	보도
1-4.문장 부호	“한글 → ‘한글	서15	보도
1-4.문장 부호	“이는 대중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것으로 가요계에 다양한 음악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는 대중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것으로 가요계에 다양한 음악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8	보도
1-4.문장 부호	알았다”면서...알았다.”라면서	매15	해설
1-4.문장 부호	... → ……	서13	보도
1-4.문장 부호	시군→시·군	광4	해설
1-4.문장 부호	증자, 배당, 임직원 급여 제한, →증자, 배당, 임직원 급여 제한,	서32	보도
1-4.문장 부호	했다”고→했다.”라고	동11	보도
1-4.문장 부호	“특히~마련도 필요하다”고→“특히~마련도 필요하다.”고	광4	해설
1-4.문장 부호	보급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보급자리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	서35	해설
1-4.문장 부호	안전-효율성→안전성과 효율성. 안전성-효율성	동1	보도
1-4.문장 부호	“밤에~어쩔 수 없다”고→“밤에~어쩔 수 없다.”고	광5	해설
1-4.문장 부호	“폭우와~이어졌다”며→“폭우와~이어졌다.”며	광3	해설
1-4.문장 부호	‘한국과→“한국과	동1	보도
1-4.문장 부호	것”이라고→것.”이라고	동1	보도
1-4.문장 부호	강원도는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평창 겨울올림픽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동25	보도
1-4.문장 부호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의종이나.	동11	보도

	→이대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의종이나.		
1-4.문장 부호	웹서핑-하이파이브→누리검색, 손백맞장구	동11	보도
1-4.문장 부호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등에 따르면→‘녹색연합’	동25	보도
1-4.문장 부호	안전-효율성→안전성과 효율성. 안전성-효율성	동5	보도
1-4.문장 부호	‘한국과→“한국과	동5	보도
1-4.문장 부호	‘가미카제(新風)’→‘가미카제[新風]’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충남·전북 간→충남 전북 간	서9	보도
1-4.문장 부호	것”이라고→것.”이라고	동5	보도
1-4.문장 부호	“의퇴할 것을 권유한다”고→“의퇴할 것을 권유한다.”고	동18	보도
1-4.문장 부호	곽.이→곽·이,	서4	보도
1-4.문장 부호	가벼워졌다”→가벼워졌다.”	조4	사설
1-4.문장 부호	“속았다” 하며→“속았다” 하며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추가설명도, 대응도→추가설명도 대응도	서34	보도
1-4.문장 부호	요금 손질→요금 손질,	매16	보도
1-4.문장 부호	박항철 황영성 김강용을→박항철-황영성-김강용을	매1	해설
1-4.문장 부호	마련할 수 없다”며→마련할 수 없다.”라며	매16	보도
1-4.문장 부호	“속았다” 하며→“속았다”며/속은 줄 알고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미국·영국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나”→“미국·영국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가’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일본의 국력은...불과하다...무너질 수밖에 없다...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일본의 국력은...불과하다...무너질 수밖에 없다...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등이다.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은폐·묵살한 채→은폐하고 묵살 한 채, 은폐,묵살한 채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아키마루 지로(秋丸次郎)→아키마루 지로[秋丸次郎]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시.도 → 시도	중8	해설
1-4.문장 부호	소득·재산이 있는 곳에→소득, 재산이 있는 곳에	매12	보도
1-4.문장 부호	계획”이라고→계획.”이라고	매17	보도
1-4.문장 부호	단위=%→단위: %	매16	보도
1-4.문장 부호	“의회는~참석해야 한다”고→“의회는~참석해야 한다.”고	매23	보도
1-4.문장 부호	있다”며→있다.”라며	매17	보도
1-4.문장 부호	“매출이 20~30% 줄었다”→“매출이 20~30% 줄었다.”	매11	보도
1-4.문장 부호	나간다”며→나간다.”라며	매19	보도
1-4.문장 부호	“어떻게 되겠지”→“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대전~서천 간→대전 서천 간	서9	보도
1-4.문장 부호	조사 결과도 나왔다”며→나왔다.”	부18	해설
1-4.문장 부호	정도”라며→정도.”라며	매19	보도
1-4.문장 부호	남아 있다”고 말했다.→남아 있다.	매29	보도
1-4.문장 부호	“일주일에 두 팀 정도가 이용한다”고→“일주일에 두 팀 정도가 이용한다.”고	매22	보도
1-4.문장 부호	“내가 죽으면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내가 죽으면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14	보도
1-4.문장 부호	“앞으로~모색하고 있다”고→“앞으로~모색하고 있	매24	보도

	다.”고		
1-4.문장 부호	“아야파네코 사전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야파네코 사전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조14	보도
1-4.문장 부호	韓美 FTA→한-미 FTA(성격이 같은 사안을 가리킬 때 문장 부호 사용도 통일할 것을 권함.)	조9	보도
1-4.문장 부호	투자 가치가 높다”는→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매18	보도
1-4.문장 부호	… → ……	조16	보도
1-4.문장 부호	참석했었다”고→참석했었다.”라고	조28	보도
1-4.문장 부호	높을 것”이라며→높을 것.”이라며	매16	보도
1-4.문장 부호	일본어,한국어로 쓰인→일본어와 한국어로 쓰인	조13	보도
1-4.문장 부호	대표 고우즈 마코토(神津任:56)씨→대표 고우즈 마코토[神津任, 56] 씨	조13	보도
1-4.문장 부호	“국가보호 원시림” vs “규정 경기장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곳”→“국가보호 원시림 vs 규정 경기장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동25	보도
1-4.문장 부호	좋은 투자처”라며→좋은 투자 상품.”이라며	매18	보도
1-4.문장 부호	“……보이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한다.”	매13	보도
1-4.문장 부호	자료=금융감독원→자료; 금융감독원	매18	보도
1-4.문장 부호	“한국형 ~ 공모한다”고 → ‘한국형 ~ 공모한다’고	조17	보도
1-4.문장 부호	꼭 극단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아니다.”	부16	해설
1-4.문장 부호	‘가미카제(新風)’가 불어줄 것이라→‘가미카제[新風]가 불어줄 것’	조25	칼럼
1-4.문장 부호	고유의 요리 아닌가”라고→고유의 요리 아닌가.”라고	중24	해설
1-4.문장 부호	파손 구조물 → 구조물 파손.(바로 뒤의 것을 꾸미지 않음을 나타냄.)	북10	보도
1-4.문장 부호	생태학교… → 생태학교……	대13	보도
1-4.문장 부호	“이뤄져야 한다”고→“이뤄져야 한다.”고	대19	보도
1-4.문장 부호	“학생들과 ~ 왔다”며 → ‘학생들과 ~ 왔다’며	대12	보도
1-4.문장 부호	계획”이라고→계획.”이라고	대1	보도
1-4.문장 부호	있다”면서→있다.”라면서	북7	보도
1-4.문장 부호	“환경과 ~ 바란다”고 → ‘환경과 ~ 바란다’고	대13	보도
1-4.문장 부호	하겠다”고 → 하겠다.”라고	북17	사설
1-4.문장 부호	7-8명씩 → 7~8명씩	대12	보도
1-4.문장 부호	악용한 것”이라고→악용한 것.”이라고	대17	보도
1-4.문장 부호	예코북생태학교 → 예코북, 생태학교	대13	보도
1-4.문장 부호	개최하고 있다”며→개최하고 있다.”라며	대1	보도
1-4.문장 부호	한다”며→한다.”라며	대18	보도
1-4.문장 부호	(19일 오후 3시,서울월드컵경기장)→(19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	대18	보도
1-4.문장 부호	재개되어 다행이다”며→재개되어 다행이다.”라며	대2	보도
1-4.문장 부호	말게 될 것”이라며→말게 될 것.”이라며	대18	보도
1-4.문장 부호	있었다”고→있었다.”라고	대17	보도
1-4.문장 부호	신경회사진 → 신경회, 사진	대12	보도
1-4.문장 부호	다하겠다”→다하겠다.”	대24	보도
1-4.문장 부호	이동영(25·영남대 식품산업경영학과 졸업)→이동	북2	보도

	영(25, 영남대 식품산업경영학과 졸업)		
1-4.문장 부호	원래 과건 기간이 1년이었지만 “1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1년 연장을 신청했을 정도로→원래 과건 기간이 1년이었지만 1년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1년 연장을 신청했을 정도로	동17	해설
1-4.문장 부호	“일부 ~ 있다”고 → ‘일부 ~ 있다’고	북12	보도
1-4.문장 부호	(여60) → (여, 60)	북12	보도
1-4.문장 부호	친인척 → 친인척	매7	해설
1-4.문장 부호	“국내 ~ 밝혀냈다”면서 → ‘국내 ~ 밝혀냈다’면서	북13	보도
1-4.문장 부호	온-도크 서비스·전용도로 개설→온 도크 서비스, 전용 도로 개설	북1	보도
1-4.문장 부호	“꾸미고 있다”며→“꾸미고 있다.”	중26	보도
1-4.문장 부호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11	보도
1-4.문장 부호	“특별검사에 착수하겠다”고→“특별검사에 착수하겠다.”고	중12	보도
1-4.문장 부호	관람객 입장과 관람, 안내를 돕는→관람객 입장과 관람 안내를 맡은	북2	보도
1-4.문장 부호	8-4로→8 대 4로	중9	보도
1-4.문장 부호	“제주 현장에 ~ 있다”며 → ‘제주 현장에 ~ 있다’며	북10	보도
1-4.문장 부호	빠져나갈 것”이라고→빠져나갈 것.”이라고	중18	보도
1-4.문장 부호	한다”고→한다.”라고	중9	보도
1-4.문장 부호	지하드(聖戰)→지하드[聖戰]	중15	보도
1-4.문장 부호	6-5→6 대 5로	중9	보도
1-4.문장 부호	“탈출한 것 같다”고→“탈출한 것 같다.”	중15	보도
1-4.문장 부호	했다”→했다.”	중23	보도
1-4.문장 부호	‘2011 을지연습→2011 을지연습	북7	보도
1-4.문장 부호	포스코건설·삼성물산 → 포스코건설, 삼성물산/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	북13	보도
1-4.문장 부호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	동15	해설
1-4.문장 부호	“지난해~받아들일 수 없다”고→“지난해~받아들일 수 없다.”고	광10	보도
1-4.문장 부호	“냉해로~힘들 것 같다”고→“냉해로~힘들 것 같다.”고	광12	보도
1-4.문장 부호	웃·손에→웃, 손에	광7	보도
1-4.문장 부호	있다”면서→있다.”라면서	광7	보도
1-4.문장 부호	“광주시의~기다려보겠다”고→“광주시의~기다려보겠다.”고	광2	보도
1-4.문장 부호	있다”고→있다.”라고	광7	보도
1-4.문장 부호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 도로→①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 도로’ ②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 도로’ ③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 도로	제12	보도
1-4.문장 부호	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무더위 휴식 시간제’ 운영	제11	보도
1-4.문장 부호	노인·장애인·아동→노인, 장애인, 아동	제10	보도
1-4.문장 부호	道 “산란 여부 조사 필요”…시행사 용역 “맹꽁이	제3	보도

	없다"→,		
1-4.문장 부호	“도가 마련한 법안대로, 빨리→“도가 마련한 법안대로 빨리	강10	보도
1-4.문장 부호	찰옥수수 복숭아 등→찰옥수수, 복숭아 등	강8	보도
1-4.문장 부호	판단한다”며→판단한다.”라며	강4	보도
1-4.문장 부호	동해=박영창기자→동해, 박영창 기자	강8	보도
1-4.문장 부호	녹색 공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녹색 공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강8	보도
1-4.문장 부호	도내 7개·전국 60개 달해→도내 7개, 전국 60개 달해	강4	보도
1-4.문장 부호	올림픽 경기장·SOC 확충→올림픽 경기장, SOC 확충	강10	보도
1-4.문장 부호	노(勞)-정(政) 갈등이→노(勞)-정(政)	동15	해설
1-4.문장 부호	진행해야 한다”며→진행해야 한다.”라며	강6	보도
1-4.문장 부호	올림픽 특구 지정, 개발을 위한 관련 법률→올림픽 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관련 법률	강10	보도
1-4.문장 부호	있다→있다.	강11	보도
1-4.문장 부호	춘천=류재일기자→춘천, 류재일 기자	강6	보도
1-4.문장 부호	반영하기 쉽다”며→반영하기 쉽다.”라며	강10	보도
1-4.문장 부호	찬·반→찬반	강9	보도
1-4.문장 부호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동22	사설
1-4.문장 부호	영호남 → 영호남	부4	보도
1-4.문장 부호	해야 할 것”이라고→해야 할 것.”이라고	부15	보도
1-4.문장 부호	“원도심 ~ 그럭야” → ‘원도심 ~ 그럭야’	부1	보도
1-4.문장 부호	높았다”→높았다.”	강12	보도
1-4.문장 부호	2-1로 꺾고	제23	해설
1-4.문장 부호	없다”며 → 없다.”라며	경15	보도
1-4.문장 부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있다.”	제21	해설
1-4.문장 부호	박근혜→박근혜,	경6	보도
1-4.문장 부호	“복합시설 ~ 예정”이라고 → ‘복합시설 ~ 예정’이라고	경13	보도
1-4.문장 부호	한다”고→한다.”라고	조9	보도
1-4.문장 부호	… → ……	경17	보도
1-4.문장 부호	아니다””라며 → 아니다.”라며	경16	보도
1-4.문장 부호	‘예’ ‘아니오’ → ‘예’, ‘아니오’	부2	해설
1-4.문장 부호	아니다→아니다.	조9	보도
1-4.문장 부호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했다.→있다.”	부17	해설
1-4.문장 부호	4월 0.3% 올라…작년 대비 6.8% 상승→4월 0.3%, 작년 대비 6.8% 상승	경9	보도
1-4.문장 부호	“엘에이치 본사는 …… 방침”이라고 →‘엘에이치 본사는 …… 방침’이라고	한11	보도
1-4.문장 부호	안다”며→안다.”라며	한16	보도
1-4.문장 부호	‘정부 예산을~되느냐’며→“정부 예산을~되느냐.”라며	중1	해설
1-4.문장 부호	혹사당하는 눈=CJ제일제당→혹사당하는 눈 시제이(CJ)제일제당	경23	해설
1-4.문장 부호	늘어… → 늘어……	경14	해설
1-4.문장 부호	비칠 수 있다”면서→비칠 수 있다.”라면서	강3	해설

1-4.문장 부호	계획된 곳인데 사업 예정지 주변이 아니라,→계획된 곳인데, 사업 예정지 주변이 아니라	강3	해설
1-4.문장 부호	양호한 상황”이라며→양호한 상황.”이라며	강7	해설
1-4.문장 부호	경제여건·시장구조→경제 여건, 시장 구조	강7	해설
1-4.문장 부호	금감원 악성루머·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금감원이 악성 소문,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강5	해설
1-4.문장 부호	기대하기 어렵다”며→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강5	해설
1-4.문장 부호	풀어갈 것”이라고→풀어갈 것.”이라고	강3	해설
1-4.문장 부호	“동력으로 삼겠다”고→“동력으로 삼겠다.”고	한14	보도
1-4.문장 부호	약속드리겠다”고→약속드리겠다.”라고	강2	해설
1-4.문장 부호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며→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며	중19	해설
1-4.문장 부호	“외환위기 때~싸워왔다”→“외환위기 때~싸워왔다.”	경7	해설
1-4.문장 부호	“LH<토지주택공사>, 진주로”→‘토지주택공사, 진주로’	한11	보도
1-4.문장 부호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제21	해설
1-4.문장 부호	“방사능 피폭된 것과 같다”→“방사능 피폭된 것과 같다”	한8	보도
1-4.문장 부호	너무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너무 방치한 측면이 있다.”라며	부15	보도
1-4.문장 부호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한23	보도
1-4.문장 부호	‘십자가 불야성’→‘십자가 불야성’,	한16	보도
1-4.문장 부호	개발구상’ → 개발구상’(앞은 작은따옴표, 뒤는 큰따옴표)	부1	보도
1-4.문장 부호	推力·밀어 올리는 힘 → 推力: 밀어 올리는 힘	조17	보도
1-4.문장 부호	“권리금은~마련해달라”고→“권리금은~마련해달라.”고	한24	보도
1-4.문장 부호	경우가 <b>많다</b> ”고 지적했다.→경우가 <b>많다.</b> ”라고 지적했다.	경23	해설
1-4.문장 부호	당근·피망→당근, 피망	경23	해설
1-4.문장 부호	나가노(長野)→나가노[長野]	조13	보도
1-4.문장 부호	“LH<토지주택공사>, 진주로”→‘토지주택공사(LH), 진주로’	한11	보도
1-4.문장 부호	있다”고→있다.”고	한13	보도
1-4.문장 부호	한다”→한다.”	경20	보도
1-4.문장 부호	추진하겠다”고→추진하겠다.”라고	한3	보도
1-4.문장 부호	내려와”라고→내려와.”라고	한8	보도
1-4.문장 부호	“땅값 상승” → ‘땅값 상승’	경13	보도
1-4.문장 부호	시작했다”고 → 시작했다.”라고	경27	보도
1-4.문장 부호	“이번 작전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 ‘이번 작전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경27	보도
1-4.문장 부호	‘일부~있다’는→“일부~있다”라는	경6	보도
1-4.문장 부호	파리까지 찾아가 청원서… 26일 확정→파리까지 찾아가 청원서 제출, 26일 확정	경10	보도
1-4.문장 부호	국토해양부, 공원·주변지역·복합시설 → 국토해양부에서 공원, 주변지역, 복합시설	경13	보도
1-4.문장 부호	“후반 투입을 고려하겠다”며→“후반 투입을 고려하	제25	해설

	했다.”		
1-4.문장 부호	적용된다”고→적용된다.”라고	경2	해설
1-4.문장 부호	결정하겠다”→결정하겠다.”라고	경2	해설
1-4.문장 부호	한다”며 → 한다.”라며	경17	보도
1-4.문장 부호	… → ……	경16	보도
1-4.문장 부호	“쉽지 않다”고 말했다.→“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27	해설
1-4.문장 부호	‘~에 있어서’ ‘~와 관련하여’→‘~에 있어서’, ‘~와 관련하여’	한10	해설
1-4.문장 부호	“~한다”→“~한다.”	한26	해설
1-4.문장 부호	지속값 급등 → 지속, (낸드플래시/물건)값 급등	한7	해설
1-4.문장 부호	“미군기지 ~ 조사” → ‘미군기지 ~ 조사’	경17	보도
1-4.문장 부호	걱정”이라면서도→걱정.”이라면서도	한15	해설
1-4.문장 부호	있는가”다.→있는가.”다.	한10	해설
1-4.문장 부호	한.미 → 한미	경15	보도
1-4.문장 부호	… → ……	경13	보도
1-4.문장 부호	해킹… → 해킹……	경15	보도
1-4.문장 부호	삼성 토종 차우찬-SK 외국인 투수 고든에 달렸다.	제25	해설
1-4.문장 부호	“네트워크 ~ 유발한다”며 → ‘네트워크 ~ 유발한다’며	부5	보도
1-4.문장 부호	언론.블로그→언론, 블로그	대24	보도
1-4.문장 부호	“국가가 어떻게 자국민들이 살해당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라며→“국가가 어떻게 자국민들이 살해당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가.”라며	경8	보도
1-4.문장 부호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부12	보도
1-4.문장 부호	통폐합 → 통폐합	부4	보도
1-4.문장 부호	한.미 → 한미	경13	보도
1-4.문장 부호	“2분기 ~ 것” → ‘2분기 ~ 것’	한7	해설
1-4.문장 부호	…→,	경6	보도
1-4.문장 부호	컴퓨터·스마트폰→컴퓨터, 스마트폰	경23	해설
1-4.문장 부호	“~생각한다”→“~생각한다.”	한25	보도
1-4.문장 부호	곡물·수산물·석유제품 오름세 두드러져→곡물, 수산물, 석유제품	경9	보도
1-4.문장 부호	놀랐다”고까지→놀랐다.”라고까지	한10	해설
1-4.문장 부호	“장출혈성 ~ 변종” → ‘장출혈성 ~ 변종’	경16	보도
1-4.문장 부호	수도 있다”→수도 있다.”	경19	보도
1-4.문장 부호	어긋난다”고 →어긋난다.”라고	한11	보도
1-4.문장 부호	“무슨 ~ 있었느냐”고 → ‘무슨 ~ 있었느냐’고	경18	보도
1-4.문장 부호	했다”→했다.”라고	경2	해설
1-4.문장 부호	통폐합 → 통폐합	부4	보도
1-4.문장 부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경23	해설
1-4.문장 부호	2009년 6월 1차 조사와, 파악이 끝난 직후인 8월의 2차 조사 결과보다→2009년 6월 1차 조사와, 파악이 끝난 직후인 8월의 2차 조사 결과보다	한8	보도
1-4.문장 부호	않습니다”란→않습니다.”란	경5	해설
1-4.문장 부호	근무시간중에→근무시간 중에	대22	사설
1번 기타	금융감독원/감독원/금감원→같은 기관의 표기는 통	강5	해설

	일할 것을 권함.		
1번 기타	‘4001’→“4001” (강조하기 위함과 혼용의 기미가 보임)	조0	칼럼
1번 기타	‘세계선수권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가 섞여 있음. 띄어쓰기를 한 가지로 통일할 것을 권함.	경2	해설
1번 기타	반대의사→반대 의사(*띄어쓰기, 일관성 없음)	대25	사설
1번 기타	세계금융시장→띄어쓰기 일관성 없음	광15	사설
1번 기타	(경두연·정태근·구상찬)…→	한22	칼럼
1번 기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하나의 용어는 띄어쓰기를 통일할 것을 권함.	강3	해설
1번 기타	드비에-중쿠르→	조0	칼럼
1번 기타	1970~80년대→1970~1980년대	서8	보도
1번 기타	‘북한 인권기록관’과 ‘북한인권기록관’이 섞여 있음. 띄어쓰기를 한 가지로 통일할 것을 권함.	조4	사설
1번 기타	민생문제/민생 문제, 반값 등록금/반값등록금 등 띄어쓰기를 통일성 있게 하기를 권함.	중21	사설
1번 기타	여야→여·야	경4	사설
1번 기타	민생문제/민생 문제, 반값 등록금/반값등록금 등 띄어쓰기를 통일성 있게 하기를 권함.	대6	사설
1번 기타	시각 장애인/시각장애인→띄어쓰기를 통일할 것을 권함.	부12	보도
1번 기타	안건 쟁스/안건쟁스→띄어쓰기를 통일할 것을 권함.	부12	보도
1번 기타	(42.여)→(42세, 여)	한13	보도
1번 기타	[태안]초여름→[태안] 초여름	대20	해설
1번 기타	현대캐피탈, 현대 캐피탈→회사 이름을 붙여 쓰기로 했으면 그 원칙에 충실하게 표기해야 함.	서5	보도
1번 기타	묻어뒀던, 묻어 둔→보조 용언을 붙이기로 했으면 그 원칙대로 통일성 있게 표기해야 함.	서5	보도
1번 기타	공식 사과, 공식사과→표기의 통일성 문제	서5	보도
1번 기타	‘애꿎은’→애꿎은	조0	칼럼
1번 기타	내진설계, 내진 설계→띄어쓰기를 통일할 것을 권함.	북6	해설
1번 기타	당대표, 당 대표/정례모임, 정례 모임→띄어쓰기를 통일시킬 것.	한17	칼럼
1번 기타	톡톡→꽤 갖다 붙였는지 의도를 알 수 없음. 'talk talk'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함.	서5	보도
1번 기타	종합접수, 종합 접수→하나의 기사 안에서 통일성 있게 표기해야.	서4	보도
1번 기타	지연시켜왔다./압박해 왔는데,→보조용언을 붙여 쓰기로 했으면 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권함.	조9	보도
1번 기타	찬반→찬반	대19	보도
1번 기타	강제소환장(띄어쓰기 일관성 없음), 강제출석요구서(순화법률용어)	매23	보도
1번 기타	KB국민은행→KB(국민은행)	매22	보도
1번 기타	금융당국/금융 당국→띄어쓰기를 통일할 것을 권함.	부13	사설
1번 기타	‘서독 정부’와 ‘서독정부’가 섞여 있음. 띄어쓰기를 한 가지로 통일할 것을 권함.	조4	사설
1번 기타	박속낙지탕(띄어쓰기 일관성 없음)	대20	해설
1번 기타	‘힘 있는 사람’/‘힘있는 사람’→띄어쓰기를 통일할	부11	칼럼

	것을 권함.		
1번 기타	유소년축구단, 유소년 축구팀, 마다가스카르 축구단, 마다가스카르 축구팀, 마다가스카르 팀→표기를 하나로 통일할 것을 권함.	복5	해설
1번 기타	공적비리(띄어쓰기 일관성 없음)	대22	사설
1번 기타	새도시→	조0	칼럼
1번 기타	끝의→'끝'의	대21	해설
1번 기타	스토리 건배사→'스토리 건배사'	대23	해설
1번 기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	동21	칼럼
1번 기타	강남2구역→	한24	보도
1번 기타	'항공소음피해지역 주택 냉방시설 설치사업의 문제점 해결 요청'서를 보내→요청서'	제15	해설
1번 기타	은혜 갠은 학(鶴の恩返し)→팔호 안의 것 제거	조13	보도
1번 기타	팬끝→	조0	칼럼
1번 기타	지남달(지남 달)→띄어쓰기 일관성 없음	광12	보도

## 2. 어휘

2-1.잘못 사용한 어휘	각각 다른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던→각각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했던	매1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삼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 받은	경2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확대되고→증가하고	경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8.4% 오름세다.→올랐다	경9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측면→면	경20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이전가계세제를 상속증여세법에 적용하는→도입하는	경21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있은→있었던	경19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협약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한다.	경8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더 이상→이제는.	경10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2025년이 되면→2025년에	경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기기 → 그중에	경1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만에 → 뒤에	경1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대화 공세 → 대화 요구	경1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편의 → 물품(비싼 물품)	경2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비뚤해 → 포괄한	경13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말했다. → 밝혔다.	경1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주목적인 탈레반→주목표인	경8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방향을 트는 → 진행되는/행동하는(방향을 트는 것은 하는 일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쓰는 말임.)	경1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결과가 적정했는지 → 결과가 정확했는지	경2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크다는 것이 WHO의 지적이다.→크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다.	경1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분리 → 발견	경1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외부 충격의 가능성은 → 돈을 거둬들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매6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유통성을 풀고 있고 → 자금(엔화)을 풀고 있고	매6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서민들이→서민이	광14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대부분의 양식어민들이→대부분의 양식어민이	광17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길고 가는 몸통도→길고 가는 줄기도	조2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대나무를 올려봤더니→대나무를 올려다봤더니	조2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댄스곡을 끌고루 선사하며→춤곡을 끌고루 발표하며	조22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주장 → 의견	조1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잊혀지기 싫어→잊히기 싫어	조27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가파르게 → 급격히	조1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강화해 → 만들어(실제로 있는 것만 강화할 수 있음. 등 록금은 반값도 안 되면서 온갖 이상을 하는 대학 공교육은 현재 없음. 강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조18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브랜드 → 브랜드의 가치/가치	조17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특히 → 또(의미상 특히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님.)	조17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그 누구보다 용기를 갖고 현장에 갈 생존자 구출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 와	조13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이길 승산→승산	조25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굿풀이→살풀이	조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감옥을 살고 나온→감옥살이를 하고 나온/감옥살이를 한	조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연결 고리였다 → 한 일이었다	조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이런 은폐 덕분에→이렇게 은폐함으로써	조25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빠다 답았다→빠답았다	조25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허접한 인간→	조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은폐 덕분에→탓에, 때문에	조25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거대한 火→거대한 불	조3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컨테이너 박스→컨테이너	조8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뒤쫓는 → 뒤쫓는	조19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따라붙었다 → 따라갔다	조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주문 → 말	조19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기능 → 방법	조1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여기에 더해 → 여기에다가	서19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그 이전에→그 전에	서12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한글 → 한국어	서15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저녁 뒤늦게→저녁 늦게/뒤늦게	서34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첫 번째 아지→첫째 아지/첫 아지	서20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바람직한가.'→적정한가.'	서34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지켜봐야만 → 봐야만	서18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물가를 얼마나→요금을 얼마나	서34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대상은 한정적일 것→대상은 제한적일 것	서3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BIS 1% 미만으로→BIS 비율 1% 미만으로	서3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실질적으로는→실제로는	서3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일부 학생들은 일명 '마루타 알바'로...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이 관용구는 '위험이나 곤란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서33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이 일을 소개시켜 준 선배도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쳤다.→소개해	서33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조치인지는→조치였는지는	서34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난상토론 → 난상/토론	서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서대문형무소 '독립민주축제' 장으로→장소로	서28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차명계좌를 파악했으며→밝혀냈으며/찾아냈으며	서21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임산부→임신부, 산모	서29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팠다 → 났다	서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광고전 → 광고	서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선회해 → 바뀌	서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사회 변화를 견인해 달라는→이끌어 날라는	서2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구체화한 공약을 → 구체화한 것(내용)을	서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대선은 → 대선 후보의 공약은	서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과정 → 것	서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복마전 → 사건(복마전은 장소를 가리키는 말임.)	부3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그리고→그리고/그리고 나서는	부1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얼토당토 안 되는→얼토당토않은	부1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청와대는 거의 뒷집만 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 비친다.	부3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열차에 치는 사고는→열차에 치이는 사고는	부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돈을 건달한 기업 → 돈을 준	경2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목이 졸린 흔적 외에→목을 조인 흔적 외에	복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지산소증을 회복하기 위해→지산소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검은 체구에 아름다운 눈망울의→검은 피부에 맑은 눈망울의	복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자살에 사용될 수 없는 끈 종류의 반입이 원천 차단된→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끈 종류의 반입이 원천 차단된	복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설명했다 → 이야기했다/말했다	복9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선수단 21명은→선수 21명은	복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9월 투어 일정까지 매진됐으며 → 9월 투어 상품까지 매진됐으며	복9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채널 → 방문	복9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탈착 → 분리	복10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신청돼 있다 → 돼 있다	복9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체할 수 있다.→ 경험	제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구간을 알리는 표시가→표지, 안내판	제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가득했다. 하지만...관광객들은→가득했다. 그런데...관광객들은	제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안내시설→표지	제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쇼핑카드 통로를 설치할→ 쇼핑카드 통로를 마련할	제2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이동 통로→통로/통행로/이동로	제2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관광 이미지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제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항공기 소음으로...장시간 사용할 경우 전력 소모 측면에서 1등급이 당연 유리하다”→전기료 절감	제1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제주관광→제주관광산업	제19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현재 진행 중인→현재 건설 중인	제19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가능성→확률	중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타 지역 컨벤션들이→컨벤션 센터	제19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언어와 생활·문화습관→언어·생활 습관	제18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성공→성공적	제19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이같은→이런, 이러한	제19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증여한 → 증여받은	매7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재학생들이→재학생이	매2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오픈프라이스(가격표시제)→개방가격제	매11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지점들 간→지점 간	매2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선조들의→선조의	광14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자체적 기능을 통해→자체의 기능으로	매17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포함시키다→포함하다	매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본격 나섰다.→본격적으로 나섰다.	매17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채무로 → 돈을 빌린 것으로	매7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우선 → (삭제)	매7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유동성이 → (유동성은 성질이므로 이동할 수 없음. 유동성이 경제 용어인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이동할 수 없음.)	매6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관광 사업을→관광 사업권을	매9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밀도가 있다.→밀도가 높다.	매1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대법원에 재상고한→대법원에 상고한/대법원에 재심사를 신청한	매8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수천 명의 사람들이→수천 명의 사람이	광1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개탄스런→개탄스러운	광18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원전사고 수습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원전사고 수습이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매1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혐의 → 정황(내용상 범죄라 보기는 어려움.)	매7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측면→면	매20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도로운용자 → 도로운영자	매5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인하 → 인상	매5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도를 넘은 이후에야 → 후에야	매21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등극시킨→오르게 한	동28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실시된→열린	강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여주~원주 전철연장.→여주~원주 전철 연결.	강1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실례→예	강13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메가톤급 히트곡을 선사한다.→대표적 히트곡을 부른다.	강2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크게 적은 예산이→크게 줄어든 예산이	강1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시가 해당 기업의 투자 의향만을 기다리는 사이,→시가 해당 기업의 투자 결정만을 기다리는 사이,	강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기한을 다시 넘겼다.→기한을 넘겼다.	강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지금 등록금이 워낙 빠르게 오르니→많이, 워낙 오르니	동27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공정한 심판’의 역할에→‘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에	동12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한국경제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면이	동12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빠르게 오른 것도 →많이	동27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향상시키는→향상하는	동2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작전의 승패→작전의 성패	동13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비의 압박에서 벗어난→선풍기의 압박에서 벗어난	동26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소모성자재(MRO)구매대행	동28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환경 훼손에 대한 검증→보전	동25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기업의 과위가 너무 비대해져→강력해져	동12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지도부와 다른 현장의 온도차→지도부와 현장 간의 온도차	동1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2위에 머무는 보기 드문 상황을 연출했다.→2위에 머물렀다. 보기 드물게 2위에 머물렀다.	동26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31일 열리는 잠실벌에서 우승 추포를 쏘겠다는 태세다.→5차전에서	제2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SK 타선을 공공 틀어막아→타자를	제2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SK타선을 공공 얼려버렸다.→SK 타자들을	제2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두 번째→둘째	제4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30분 먼저 → 30분 동안	중8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사도지사와→시장도지사/시장, 도지사	중7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60여 년이란 짧은 시간→60여 년이란 짧은 기간에	중21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물가 및 전월세 대란→물가와 전월세 대란	중21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또한 → 또	중13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최종 결정할→최종적으로 결정할	한11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별로 기억되지 않는다.→별로 기억되지 않는다.	중2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힌다.→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힌다.	중2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자리보전할 수→자리를 보존할 수/자리 보존을 할 수	한9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수급 → 공급	한7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국민들이→국민이	대22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옹변→옹변	대26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경우는 → 돈은	대9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되버린→왜버린, 되어 버린	광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중요성 → 관심	대13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흥금 없이→흥금을 터놓고/흥금을 털어놓고	대6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바라보고 → 추측하고	대7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깡소주→강소주	대2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유명세→	대2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동력 → 힘	대7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정부의 이런 행태는 과학벨트를 충청에 하겠다고 약속한 후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공모제를 도입 한 것과 다르지 않다.→정부의 이런 행태는 과학벨트를 충청에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후 공약한 적이 없다고 말을 뒤집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공모제를 도입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대15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주민들에게 →주민에게	광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전도→알길	대25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거점지→거점	대21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있지 않거나→있지 않은가	광18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빌어 → 빌려	대8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들어난→드러난	광18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한편에는→한쪽에는	대21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결혼 스캔들에→결혼 소문에	한1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지역주민들이→지역주민이	광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성격이 엉뚱하고 즉흥적인→언행이 엉뚱하고 즉흥적인	한15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여객 처리 →	한5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흘러나왔을 가능성→흘러나왔을 확률	한23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세상탐사→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등에 자기 생각을 대입하여 전개한 내용이므로 '탐사'라는 제목은 알맞지 않음.	중20	칼럼
2-1.잘못 사용한 어휘	채소값→채소값	광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글씨를 모르면→글자를 모르면	중6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보내온 → 보낸	중8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주민들의→주민의	광6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흘러나갔을 가능성→흘러나갔을 확률	한23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갑작스런→갑작스러운	광12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시민들의→시민의	광4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시민들→시민	광18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가닥을 잡아놓고 → 계획을 세워놓고('가닥을 잡다'는 이치에 맞게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중8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계란의 껍질→계란의 껍데기	광3	해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서민들→서민	광16	사설
2-1.잘못 사용한 어휘	완전 윤택했을 가능성→완전 윤택했을 확률	한23	보도
2-1.잘못 사용한 어휘	마다 않는 →마다지 않는	중10	해설
2-1.틀린 어휘	가능성→확률	중3	칼럼
2-1.틀린 어휘	크게 늘어나는→많이 늘어나는	한4	보도
2-1.틀린 어휘	두 나라는 →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1	해설
2-1.틀린 어휘	두 나라는 → 한국과 유럽연합은	한1	해설
2-1.틀린 어휘	크게 줄고→많이 줄고	한4	보도
2-1.틀린 어휘	첫째일 → 첫째 날	한1	해설
2-1.틀린 어휘	첫째일 → 첫째 날	한1	해설
2-1.틀린 어휘	갑작스런→갑작스러운	한2	보도
2-1.틀린 어휘	부족한 전력 확보를 위해 → 부족한 전력 보충을 위해	중5	사설
2-1.틀린 어휘	예상된다→예상한다	한2	보도
2-1.틀린 어휘	가능성→확률(공산)	한4	보도
2-1.틀린 어휘	크게 늘어나는→많이 늘어나는	한2	보도
2-1.틀린 어휘	가능성→확률(공산)	한2	보도
2-1.틀린 어휘	갑작스런→갑작스러운	한4	보도
2-1.틀린 어휘	예상된다→예상한다	한4	보도
2-1.틀린 어휘	크게 줄고→많이 줄고	한2	보도
2-1.틀린 어휘	과고 → 과도(제목)	경3	해설
2-1.틀린 어휘	불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 불리해질 수도 있다	경3	해설
2-1.틀린 어휘	큰가에 → 큰지에	경3	해설
2-1.틀린 어휘	과고 → 과도(제목)	경3	해설
2-1.틀린 어휘	시도하고 → 노력하고(시도의 목적어가 없음. 의미상 노력이 적절함.)	조2	해설
2-1.틀린 어휘	빠져드는 → 들어가는	조2	해설
2-1.틀린 어휘	임무 중인 → 작업하고 있는	조2	해설
2-1.틀린 어휘	너무나 → 매우	조2	해설
2-1.틀린 어휘	물컹한 → 물렁한	조2	해설
2-1.틀린 어휘	때가 → 부분이	조2	해설
2-1.틀린 어휘	임무 중인 → 작업하고 있는	조2	해설
2-1.틀린 어휘	땀글땀글 → (없어도 될 것으로 보임.)	조2	해설
2-1.틀린 어휘	농인 → 있는	조2	해설
2-1.틀린 어휘	꺾어진→꺾인	조0	칼럼
2-1.틀린 어휘	지층에 묻힌다 → 땅에 묻힌다(묻히는 곳이 지층이 아님.)	조2	해설
2-1.틀린 어휘	측면이→면이	조1	칼럼
2-1.틀린 어휘	집계된 → 처리된	동4	보도
2-1.틀린 어휘	가능성이 높아졌다.→가능성이 커졌다.	동2	해설
2-1.틀린 어휘	집계된 → 처리된	동4	보도
2-1.틀린 어휘	창설됐다.→제정되었다. 만들어졌다.	동5	보도
2-1.틀린 어휘	창설됐다.→제정되었다. 만들어졌다.	동1	보도
2-1.틀린 어휘	공수해달라고 → 보내달라고	동4	보도
2-1.틀린 어휘	공수해달라고 → 보내달라고	동4	보도
2-2.비표준어	하교 길 → 하곳길	경18	보도

2-2.비표준어	뒷목도→목덜미도	중17	해설
2-2.비표준어	콘텐츠 → 콘텐츠	중13	칼럼
2-2.비표준어	허접한 → 허접스러운	조0	칼럼
2-2.비표준어	빨 →	조3	보도
2-2.비표준어	휴대폰→휴대 전화	조8	칼럼
2-2.비표준어	립프걸 → 립프샘	조15	해설
2-2.비표준어	아니오 → 아니요	부2	해설
2-2.비표준어	이중섭 거리에서 올레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	제24	해설
2-2.비표준어	무단으로→무단히	제17	사설
2-2.비표준어	위판 → (위탁 판매)	복12	보도
2-2.비표준어	타실,(타실하여) → (모래를 뿌려)	복13	보도
2-2.비표준어	사교비 → 사교육비	대12	보도
2-2.비표준어	특보(特補) → 특별보직(特別補職)	대10	사설
2-2.비표준어	전통과자 과질→과줄	제24	해설
2-2.비표준어	순이었다 → 순서로 진행되었다	중8	해설
2-2.비표준어	주요국 → 주요 나라의('주요'는 명사 앞에 쓰이는 말, -국은 접미사)	매6	해설
2-2.비표준어	일귀냈다 → 이뤄냈다	대8	칼럼
2-2.비표준어	방아보말 인기→?	제24	해설
2-2.비표준어	4년 전 정하게 무더웠던 여름에 도쿄에서 봤던 그 전시는 어느새 내 삶에 하나의 흔적을 남겼다.	중27	칼럼
2-2.비표준어	떨렸다.→떨어뜨렸다.	서4	보도
2-2.비표준어	'칠면조마냥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다'→처럼	조14	보도
2-2.비표준어	'봄내음'→	조5	해설
2-2.비표준어	주월 → 주월남	동7	칼럼
2-2.비표준어	이통사 → 이동통신사	부5	보도
2-3.비속어, 은어	넌덜머리가 난다.→넌더리가 난다.	부11	칼럼
2-3.비속어, 은어	가격 때리기→가격 매기기	중3	칼럼
2-3.비속어, 은어	맞짱승부→정면승부	조8	칼럼
2-3.비속어, 은어	인증샷	조30	칼럼
2-3.비속어, 은어	철밥통을 연상하게 된다.	조10	칼럼
2-3.비속어, 은어	안전빵	경5	해설
2-3.비속어, 은어	백기사(우호지분)	매31	해설
2-3.비속어, 은어	뽕빵→	매2	칼럼
2-3.비속어, 은어	비호감→	한15	해설
2-3.비속어, 은어	문지마 대출을→미구잡이로 대출을	한18	사설
2-3.비속어, 은어	월가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매30	칼럼
2-3.비속어, 은어	트롯돌	중25	해설
2-3.비속어, 은어	안티 팬→반대 팬	한15	해설
2-3.비속어, 은어	스펙을 중시하는→학력과 나이를 중시하는	한15	해설
2-3.비속어, 은어	결그림→	한15	해설
2-3.비속어, 은어	그러나 은행 등이 국민세금 170조원가량을 투입할 정도로 구멍을 내고도 가장 고임금을 받는 것은 염지 없는 것이다.	매30	칼럼
2-3.비속어, 은어	뽕짝	중25	해설
2-4.어려운 어휘	경기전망 CSI	제22	해설
2-4.어려운 어휘	체감경기	제22	해설
2-4.어려운 어휘	하회하다	제22	해설
2-4.어려운 어휘	피력→	대19	보도

2-4.어려운 어휘	구축하기 위해→다지기 위해, 쌓기 위해	대24	보도
2-4.어려운 어휘	친명하고→밝히고	대26	사설
2-4.어려운 어휘	위인설관식 →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어떤 자리를 만드는 식의	대10	사설
2-4.어려운 어휘	경기판단 CSI	제22	해설
2-4.어려운 어휘	필승 조커로 발탁돼	제25	해설
2-4.어려운 어휘	상승일모다. →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	대14	칼럼
2-4.어려운 어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다→떠웠다	제24	해설
2-4.어려운 어휘	소명 → 해명	대7	해설
2-4.어려운 어휘	착수→시작	대25	사설
2-4.어려운 어휘	타임오프제를→	대2	보도
2-4.어려운 어휘	계파비율→	대26	사설
2-4.어려운 어휘	친명→	대25	사설
2-4.어려운 어휘	세제→	경20	보도
2-4.어려운 어휘	선가지 → 선각자	대8	칼럼
2-4.어려운 어휘	지난하고 → 어렵고	대8	칼럼
2-4.어려운 어휘	規準 → 규준/규준(規準), 표준	대10	사설
2-4.어려운 어휘	근간이다. → 중심이다.	대10	사설
2-4.어려운 어휘	고침안면(高枕安眠)을 뒤로하고→	대3	칼럼
2-4.어려운 어휘	BIS 비율	동24	보도
2-4.어려운 어휘	고용유인형→	경20	보도
2-4.어려운 어휘	활강 경기장	동25	보도
2-4.어려운 어휘	소요된다.→든다.	경19	보도
2-4.어려운 어휘	시장격리조치(방출량 조정)→방출량 제한	경9	보도
2-4.어려운 어휘	편리한 → 판결한/판결하여 보인	경29	사설
2-4.어려운 어휘	계류 중인 → 해결되지 않은	경28	해설
2-4.어려운 어휘	지난한 → 매우 어려운	경29	사설
2-4.어려운 어휘	경색 →	경14	해설
2-4.어려운 어휘	사즉생(死即生)	경5	해설
2-4.어려운 어휘	난맥상을 → 문제를	한5	사설
2-4.어려운 어휘	결기	경5	해설
2-4.어려운 어휘	우후죽순→	경20	보도
2-4.어려운 어휘	기정사실화→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추이→변화	경9	보도
2-4.어려운 어휘	건곤일척	경5	해설
2-4.어려운 어휘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	경1	칼럼
2-4.어려운 어휘	침경으로 → 지름길로	경30	사설
2-4.어려운 어휘	일성 →	경20	보도
2-4.어려운 어휘	관망→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산화	경5	해설
2-4.어려운 어휘	수면 신도시→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다차원의 동태적 최적화 목적 함수→	경20	보도
2-4.어려운 어휘	기하급수적→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지류→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사정(司正)의 →	경30	사설
2-4.어려운 어휘	관철되는	경1	칼럼
2-4.어려운 어휘	편채하는→헐뜯는	한26	해설
2-4.어려운 어휘	간주하는→여기는	한26	해설
2-4.어려운 어휘	수혜자→혜택을 받는 사람	한26	해설
2-4.어려운 어휘	구매했다.→샀다.	한26	해설

2-4.어려운 어휘	풍즐거풍(風榑學風)→	광14	칼럼
2-4.어려운 어휘	인공누액→인공눈물	광13	해설
2-4.어려운 어휘	항배→	광10	보도
2-4.어려운 어휘	편하했다→깎아내렸다, 헐뜯었다	광10	보도
2-4.어려운 어휘	내홍→	광10	보도
2-4.어려운 어휘	칼지의	조0	칼럼
2-4.어려운 어휘	설파	동28	칼럼
2-4.어려운 어휘	수익자 부담원칙→	한25	보도
2-4.어려운 어휘	방산업체→방위 산업체	조0	칼럼
2-4.어려운 어휘	포플리즘→	조1	칼럼
2-4.어려운 어휘	노이즈 마케팅→구설수 홍보	조0	칼럼
2-4.어려운 어휘	삽입(攝入)→	조2	해설
2-4.어려운 어휘	저간의 사정	서21	해설
2-4.어려운 어휘	심장하다	서21	해설
2-4.어려운 어휘	이후→뒤	강14	사실
2-4.어려운 어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동24	보도
2-4.어려운 어휘	귀찮음	서21	해설
2-4.어려운 어휘	이전투구	서36	사실
2-4.어려운 어휘	위계→	서3	해설
2-4.어려운 어휘	재정건전성	동29	사실
2-4.어려운 어휘	유예해→미루어, 미뤄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가장납입→거짓 납입	동16	보도
2-4.어려운 어휘	게도하는→일깨우는	서3	해설
2-4.어려운 어휘	사멸하고 말 이 언어→사라지고 말 이 언어	조14	보도
2-4.어려운 어휘	모럴 해저드	서27	칼럼
2-4.어려운 어휘	인터폴 적색 수배가→	서5	보도
2-4.어려운 어휘	해이→느슨함	동12	사실
2-4.어려운 어휘	의결 정족수	서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요지부동→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수주	한4	칼럼
2-4.어려운 어휘	단호히→엄격하게	한25	보도
2-4.어려운 어휘	지체없이→즉시, 곧장, 곧바로	서31	보도
2-4.어려운 어휘	발로	서36	사실
2-4.어려운 어휘	공적부조	서37	사실
2-4.어려운 어휘	경감	서37	사실
2-4.어려운 어휘	내국세	제10	보도
2-4.어려운 어휘	마이스산업	제19	사실
2-4.어려운 어휘	극미량이어서→더할 수 없이 적은 분량이어서	동9	사실
2-4.어려운 어휘	이전투구하다	서23	사실
2-4.어려운 어휘	사각지대	서23	사실
2-4.어려운 어휘	봉착할 수→당면할 수, 처할 수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미필적 고의	서34	보도
2-4.어려운 어휘	부합하도록→맞도록	서31	보도
2-4.어려운 어휘	미제 사건→미해결 사건	서26	보도
2-4.어려운 어휘	변모	제8	칼럼
2-4.어려운 어휘	족문(발바닥 지문)	서26	보도
2-4.어려운 어휘	클라우드 컴퓨팅	서14	보도
2-4.어려운 어휘	선제적인→우선	서32	보도
2-4.어려운 어휘	초동조치 후→우선 조치 후	서20	보도
2-4.어려운 어휘	의사 정족수	서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시혜적인 배려	경1	칼럼
2-4.어려운 어휘	허수의 근→	경20	보도
2-4.어려운 어휘	컨벤션산업	제19	사실
2-4.어려운 어휘	함중연황 → 편가르기	중13	칼럼
2-4.어려운 어휘	주민발의 조례안을 부의하게 된다.→주민발의 조례안을 토의에 부치게 된다.	강9	보도
2-4.어려운 어휘	관망세→	강11	보도
2-4.어려운 어휘	SOC사업→사회 간접 자본 사업/사회 자본 사업	강1	보도
2-4.어려운 어휘	고공행진→	강11	보도
2-4.어려운 어휘	환골탈태(換骨奪胎)→	중22	사실
2-4.어려운 어휘	미증유 → 이때까지 없었던	중5	사실
2-4.어려운 어휘	역투표	중14	사실
2-4.어려운 어휘	노심 용음	한4	칼럼
2-4.어려운 어휘	프레임에 가득 들어찰→	조23	해설
2-4.어려운 어휘	3D 안경→입체 안경	조11	해설
2-4.어려운 어휘	양수식 발전소→	조5	해설
2-4.어려운 어휘	예후 → 증세/병의 경과	조15	해설
2-4.어려운 어휘	용출하는 → 솟어나오는	조2	해설
2-4.어려운 어휘	일즉하다→걸어자다	중26	보도
2-4.어려운 어휘	생경한→낯선	강13	사실
2-4.어려운 어휘	유명품→얹고 있는 비율	한8	보도
2-4.어려운 어휘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든다면→	강7	해설
2-4.어려운 어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강7	해설
2-4.어려운 어휘	천혜→	강13	사실
2-4.어려운 어휘	매물→팔 물건	강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이후→뒤	강11	보도
2-4.어려운 어휘	감사에 착수해→감사를 시작해	한25	보도
2-4.어려운 어휘	감안→고려, 생각	강13	사실
2-4.어려운 어휘	간극→	강14	사실
2-4.어려운 어휘	향후→앞으로	부7	보도
2-4.어려운 어휘	호가(呼價)→부르는 값	강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유예	부18	해설
2-4.어려운 어휘	프로젝트파이낸싱	한3	보도
2-4.어려운 어휘	부유물→	부9	사실
2-4.어려운 어휘	소명 → 해명(국어원 순화어 목록 참고)	매7	해설
2-4.어려운 어휘	요걸	부17	해설
2-4.어려운 어휘	과물입	부18	해설
2-4.어려운 어휘	게임갯다운제	부18	해설
2-4.어려운 어휘	연착륙할 수 있도록→	부15	보도
2-4.어려운 어휘	사임한다.→물러난다.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표고차	동25	보도
2-4.어려운 어휘	벌크→	중3	칼럼
2-4.어려운 어휘	수주→	한14	보도
2-4.어려운 어휘	타당성 조사(B/C)→	동8	해설
2-4.어려운 어휘	직하방		
2-4.어려운 어휘	강우콜드게임	동26	해설
2-4.어려운 어휘	범범	동26	해설
2-4.어려운 어휘	진정이 제기되지→	한25	보도
2-4.어려운 어휘	대손증당금	동24	보도
2-4.어려운 어휘	노게임	동26	해설

2-4.어려운 어휘	직하방		
2-4.어려운 어휘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	조11	해설
2-4.어려운 어휘	솔로포	동26	해설
2-4.어려운 어휘	차감하다→빼다	매12	보도
2-4.어려운 어휘	알선	동16	보도
2-4.어려운 어휘	삽입(攝入) →	조2	해설
2-4.어려운 어휘	역외(域外) 탈세→	동6	사설
2-4.어려운 어휘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18	사설
2-4.어려운 어휘	일각	동12	사설
2-4.어려운 어휘	표명했음에도→밝혔음에도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소모성자재구매대행	동28	칼럼
2-4.어려운 어휘	경도패→치우쳐	동12	사설
2-4.어려운 어휘	분류→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관치(官治)	동23	사설
2-4.어려운 어휘	차입한 → 빌린(국어원 순화어 목록 참고)	매7	해설
2-4.어려운 어휘	붕괴→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초과수요 →	한5	사설
2-4.어려운 어휘	초과공급 →	한5	사설
2-4.어려운 어휘	미니멀하지만	매3	해설
2-4.어려운 어휘	표면이 자율→	매18	보도
2-4.어려운 어휘	고수하도록→지키도록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M&A보증금	매31	해설
2-4.어려운 어휘	일탈	동12	사설
2-4.어려운 어휘	포플리즘	동22	사설
2-4.어려운 어휘	서터 방식	조11	해설
2-4.어려운 어휘	가미카제	조25	칼럼
2-4.어려운 어휘	민도 →	중5	사설
2-4.어려운 어휘	일성으로만 → 한 마디로만	북16	사설
2-4.어려운 어휘	친수구역특별법→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의전용 차량→	중11	보도
2-4.어려운 어휘	3D 시대→입체영상 시대	조11	해설
2-4.어려운 어휘	변제한 → 갇힌(국어원 순화어 목록 참고)	매7	해설
2-4.어려운 어휘	일반 테트라포드 → 일반 블록	북10	보도
2-4.어려운 어휘	보호하고 → 함부로 날뛰고	북16	사설
2-4.어려운 어휘	비위 → (그림)	북13	보도
2-4.어려운 어휘	추산→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기조→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피폭→	한6	칼럼
2-4.어려운 어휘	울트라 마라톤	조30	칼럼
2-4.어려운 어휘	5성(星)호텔	조0	칼럼
2-4.어려운 어휘	제스민 혁명의→	조8	칼럼
2-4.어려운 어휘	지방세수→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우월적으로 생산한다.→생산하는 데 유리하다.	중20	칼럼
2-4.어려운 어휘	집행돼야→시행돼야	한26	해설
2-4.어려운 어휘	묘연하다	중15	보도
2-4.어려운 어휘	등재	경10	보도
2-4.어려운 어휘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	매8	해설
2-4.어려운 어휘	MSCI 선진국지수	매29	보도
2-4.어려운 어휘	오픈프라이스제→개방가격제(열린가격제)	매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종주하는→	조5	해설

2-4.어려운 어휘	일국양제(一國兩制)	중1	해설
2-4.어려운 어휘	네티에→기억에/머릿속에	중27	칼럼
2-4.어려운 어휘	MSCI 선진지수	매29	보도
2-4.어려운 어휘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19	사설
2-4.어려운 어휘	천명→	경20	보도
2-4.어려운 어휘	태스크포스(TF)팀을→특별팀을	중19	해설
2-4.어려운 어휘	천명할→밝힐	중26	보도
2-4.어려운 어휘	향도	매2	칼럼
2-4.어려운 어휘	회화화되다→우스개가 되다. 우습게 되다	중25	해설
2-4.어려운 어휘	역의 해지된다→	매4	보도
2-4.어려운 어휘	인버터 방식	제15	해설
2-4.어려운 어휘	세진→조세	중3	칼럼
2-4.어려운 어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제12	보도
2-4.어려운 어휘	소회	제8	칼럼
2-4.어려운 어휘	향후→앞으로	매23	보도
2-4.어려운 어휘	스마트그리드→	매16	보도
2-4.어려운 어휘	자문형 랩	매2	칼럼
2-4.어려운 어휘	미온적인→소극적인	매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역의 매도세력→	매4	보도
2-4.어려운 어휘	위인설관(爲人設官)→	중22	사설
2-4.어려운 어휘	향배 → 태도	서19	해설
2-4.어려운 어휘	비트그로스	한7	해설
2-4.어려운 어휘	복도하다	서27	칼럼
2-4.어려운 어휘	부패유발 주체로는→부패를 일으키는 주체로는	부11	칼럼
2-4.어려운 어휘	획책했다. → 꺾었다.	북16	사설
2-4.어려운 어휘	결과	동27	칼럼
2-4.어려운 어휘	책정	서31	보도
2-4.어려운 어휘	일신의 영달	동27	칼럼
2-4.어려운 어휘	해명→변명.설명	한26	해설
2-4.어려운 어휘	엑스더스→탈출/대이동	매14	해설
2-4.어려운 어휘	다수 브랜드→많은 브랜드	매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적시타	동26	해설
2-4.어려운 어휘	승화→	강14	사설
2-4.어려운 어휘	양생 → (군허기)	북10	보도
2-4.어려운 어휘	독고한→	매24	보도
2-4.어려운 어휘	전철	서36	사설
2-4.어려운 어휘	영합	조25	칼럼
2-4.어려운 어휘	향연→잔치	강14	사설
2-4.어려운 어휘	일괄금융조회권	서21	해설
2-4.어려운 어휘	'음악 슈퍼바이저(supervisor)'→	조22	해설
2-4.어려운 어휘	민심이란 → (민심 이탈)	북17	사설
2-4.어려운 어휘	전방위적 전략동맹	중28	사설
2-4.어려운 어휘	표명→밝힘	한25	보도
2-4.어려운 어휘	용출하는 → 솟아나오는	조2	해설
2-4.어려운 어휘	수인(囚人)	조0	칼럼
2-4.어려운 어휘	회고	제8	칼럼
2-4.어려운 어휘	시방서 → (제작 설명서)	북10	보도
2-4.어려운 어휘	영합하다	제5	칼럼
2-4.어려운 어휘	허브화	서2	사설
2-4.어려운 어휘	철웅성	동15	해설

2-4.어려운 어휘	피폐를 → 황폐를/(어려움을)	대14	칼럼
2-4.어려운 어휘	기치대	서29	해설
2-4.어려운 어휘	중견	부17	해설
2-4.어려운 어휘	노히트노런	동26	해설
2-4.어려운 어휘	주재하며→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프리트함→	조0	칼럼
2-4.어려운 어휘	스포츠라이프 증후군	조27	해설
2-4.어려운 어휘	설화(舌禍)→	대23	해설
2-4.어려운 어휘	장문(손바닥 지문)	서26	보도
2-4.어려운 어휘	기절공황	서2	사설
2-4.어려운 어휘	다원적 전략동맹	중28	사설
2-4.어려운 어휘	승고한→드높은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회동→만남	대26	사설
2-4.어려운 어휘	그린 미이스	제19	사설
2-4.어려운 어휘	감소를 상쇄해야→보충해야	동29	사설
2-4.어려운 어휘	격납용기→	한6	칼럼
2-4.어려운 어휘	민초→백성, 국민	대23	해설
2-4.어려운 어휘	상징주의	제8	칼럼
2-4.어려운 어휘	3D 콘텐츠→입체 콘텐츠	조11	해설
2-4.어려운 어휘	유예해→미루어	매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상승세→오름세	강11	보도
2-4.어려운 어휘	차원에서→수준에서	한26	해설
2-4.어려운 어휘	소원하게 만들었다→떨어지게 만들었다	조14	보도
2-4.어려운 어휘	타임오프→	매8	해설
2-4.어려운 어휘	통찰하게 → 절실하게	한5	사설
2-4.어려운 어휘	공란→빈칸	중23	보도
2-4.어려운 어휘	함배→	매23	보도
2-4.어려운 어휘	레드오션	매2	칼럼
2-4.어려운 어휘	말미에→끄트머리에	중2	칼럼
2-4.어려운 어휘	고원 물가→	중3	칼럼
2-4.어려운 어휘	동시다발적	동16	보도
2-4.어려운 어휘	환매→	동2	해설
2-4.어려운 어휘	문제제기를 하기→의견을 내놓기	한25	보도
2-4.어려운 어휘	시혜→은혜	한25	보도
2-4.어려운 어휘	노심용해	매14	해설
2-4.어려운 어휘	불식시키다→없애다	서24	해설
2-4.어려운 어휘	양적완화→	중18	보도
2-4.어려운 어휘	정속형	제15	해설
2-4.어려운 어휘	표명했다.→밝혔다.	대25	사설
2-4.어려운 어휘	조율→	대26	사설
2-4.어려운 어휘	공실→빈 가게	매13	보도
2-4.어려운 어휘	실행하라며→시키라며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분권교부세	제10	보도
2-4.어려운 어휘	부진→	동2	해설
2-4.어려운 어휘	관장→	한19	칼럼
2-4.어려운 어휘	반면교사→	한20	칼럼
2-4.어려운 어휘	상생농경	제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탐→	동2	해설
2-5.어려운 어휘	피부 테라피	서14	보도
2-5.어려운 어휘	코리아 IT 펀드(KIF)	서14	보도

2-5.어려운 어휘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서14	보도
2-5.어려운 어휘	클라우드 강국	서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탐→편, 조	한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타깃→표적으로, 대상으로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켈트	동2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유니세프→유니세프(국제연합 국제아동 긴급기금)	동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캠프→진영	동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이벤트→행사	동2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주간 차트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엔진→	동2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드림 프로젝트	동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레이더	동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전→이상, 전망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이코노미클래스	동2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프레젠테이션	동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이슈로→쟁점으로	동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디폴트(채무불이행)→채무불이행(디폴트)	동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플타입→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인터뷰→면접, 회견	동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퍼펙트로 막아내	제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이슈→문제, 사안	동2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오너 일가→사주 일가	동1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전→이상, 전망	동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하이파이브→손뼉맞장구	동1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플레→	동2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엘리트→정예, 인재	동2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사운드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프로의식→전문가 의식/책임 의식	동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마이너리그로 데뷔해	제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기업의 파워가→기업의 힘이	동1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탐→조, 편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시즌→철, 계절	매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IT→정보기술	매1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리얼리티 프로그램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패션→옷맵시, 유행, 최신유행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타깃→대상	매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콘텐츠→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애플리케이션→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물모델	동2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모바일오피스→이동형 사무실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모니터링하고→살피고	매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메일→전자우편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디바이스와 IT 기술력을→장치와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력을	매1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워런트→신주인수권	매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시뮬레이션	매1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터넷→컴퓨터 통신망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아이킵→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달리	동2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팬츠→바지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버전→판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프라스트럭처→기반	매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레버리지 → 지렛대 (효과)	매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위한 엔화의 유턴이다. → 위해 엔화가 되돌아가는 것이다.	매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리스크→위험	매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리즈→	강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배팅하는 포지션을 취한 후→투자하는 착한 뒤	강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실루엣→윤곽선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버블 → 거품 경제	매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체계	동2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멜트다운→노심용해/노심용해(멜트다운)	매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동1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테마→주제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낙차 큰 커브	재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클래식하게→고전적으로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인트라넷→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모바일 마이싱글→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PC→개인용 컴퓨터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브랜드→상표	매1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피드→속도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리콜→	매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오픈프라이스	매1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온라인→전산망	매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해커→	매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서비스→봉사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체크→점검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엔진→	매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베이비붐	동2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세습→	한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앨범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피드→속도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하드웨어→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모럴 해저드→노숙한 도둑의식	동1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코트→외투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컬렉션→(의상) 발표회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합당한 핏(fit)의 팬츠→합당한 바지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프로그램→계획표, 차례표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테마→주제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롱 제킷 스타일의 블레이저→긴 옷형의 블레이저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재킷→옷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매치하는 식의→맞추는 식의/조화시키는 식의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매뉴얼→설명서, 사용자, 안내서	동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테스트를→시험을	매1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턴십→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콜 옵션인→	매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리픽싱(Refixing)할→	매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센서가 설치돼→감지기가 설치돼	매1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팁→조, 편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캠퍼스→교정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세미나를→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제조라인은→제조 공정은	매1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클래식→	강1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비트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트레스→긴장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소프트랜드→연착륙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채권담당 애널리스트는→채권 담당 증시 분석가는	매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전략→세계 전략	매1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패션 트렌드→패션 경향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컬그룹→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정치벨트	경20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래머룩→글래머풍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팬카페→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오버랩→비슷한/겹치는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마케팅→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리포트→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휴대폰→휴대 전화	경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로그인→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멤버→구성원, 회원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키워드→핵심어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타깃→표적, 목표	경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서비스 기사가→사후 관리 기사가	매1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마이너스 요인이다.→단점이 된다.	매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페이퍼컴퍼니	매21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슬로푸드→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두 번째 포인트는→둘째는	경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불도저→땅차	경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세계적	매1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슬로프→	동2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메리트가→	매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마트폰→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디지털→	매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터넷→컴퓨터 통신망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부탄가스 박스를→부탄가스 상자를	매1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대형마트와→대형 할인점과	강1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LCD를→액정 디스플레이(LCD)를	매1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퍼포먼스→행위예술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헌터→사냥꾼, 추적꾼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프로세스 → 과정/절차	경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5t→5톤	경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e메일→전자우편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피드백(Feedback)→	강1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코리아리그→	경1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질프→도약, 뛰어넘는.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장르→갈래, 분야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트레스 테스트→	한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빌라→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쓰나미 → 해일	동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포털사이트→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퓨전 콘서트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퓨전 장르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베스트 등을→조끼 등을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중2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웹서핑→누리검색	동1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길드→	중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데이트 코스→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고어텍스 재킷부터→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리더→지도자	제1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집업 티셔츠에→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아이돌 시스템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별크→	중3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인디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메시지→	한2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정치밸트	매20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올인	제1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소프트웨어→	매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리더→대표, 지도자	한19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체계	한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네트워크→통신망, 방송망	한21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저널리즘→언론	한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메디컬 콤플렉스→	동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인센티브→조성책, 유인책, 장려책, 특전	경20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파격적인 특전 등	강1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피에타→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타→별, 장성, 인기인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프레임→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키네틱→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이미지→형상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콘텐츠→정보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슬럼프	경1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프로그램→계획	강1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인프라→기반(시설)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타일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결그룹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올인→다걸기	제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오메타토(축하)→축하	동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사이트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서비스→봉사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국제적, 세계적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온라인→전산망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로드맵을 → 계획(안)을	북1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헌팅→사냥, 탐구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분위기 메이커 →	북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베이스스가 약화해→	강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알람→자명종	한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 신라 놀지왕 때 충신 박제상과 그를 기다리다 망부석이 됐다는 부인의 이야기를 인터넷티브하게 다뤘다.→	북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홈페이지→누리집	북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미디어 테이블	북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플레이션→모의실험	한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조인 무대 → 합동 무대	북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브리핑을 통해→요약 보고를 통해/간추린 설명을 통해	북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제네틱(복제약) → 복제 약(제네틱)	북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항만인프라 확충과→항만 기간 시설 확충과	북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관람객이 스크린 절벽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터치하면 그 꽃이 수로부인에게 전해진다.→관람객이 스크린 절벽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톡 치면/건드리면 수로부인에게 전해진다.	북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인센티브 → 유인책	북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보컬리스트 →	북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행정마인드 →	북18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다이나믹함 → 역동성	북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엑스포 이미지가 저회라는→엑스포 인상이 저회라는	북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프로그램→순서.	강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루트→길	동2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블루오션 창출,→대안 시장 창출,	북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뉴라이프→	한2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재즈뮤지션 → (재즈 음악가)	북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토리텔링화 → (이야기하기화)	북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포퓰리즘→대중주의	경20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사회적 이슈로→사회적 쟁점으로	중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페이스	경1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리스트	경10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목소리 톤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즈니스밸트	경20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브로커	경11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악성 루머→악성 소문	강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타깃	동13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아웃 카운트	제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포스트시즌	제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리셉션→축하, 축하 연회	강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팀→조, 편	광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가이드라인→지침	강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바지선→팔탐배, 딸탐배	광1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일루미네이션→조명, 불빛	강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매신자→전달자	광1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문화콘텐츠→	강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PS 세이프	제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테크닉→기법	한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온건 이슬람주의'로 리빌딩	부1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상품 마케팅 → 상품 판매	부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그룹→집단	한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그룹→집단	한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티저광고 → 호기심 유발 광고	부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메스미디어 →	부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너지효과 → 상승 효과	부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클릭→	중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에어컨→	부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홈페이지→누리집	중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캠페인→개봉운동, 홍보, 운동	부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마케팅 → (시장 거래)/(홍보)	부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마스터플랜 → 기본 설계/종합 계획	부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은행은 경제의 인프라로서→은행은 경제의 기반시설로서	부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인프라→	부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타일 배틀→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엘리베이터→자동승강기	한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터넷→컴퓨터 통신망	한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테마파크→	부10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이슈→논점	한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PC 패키지	부1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샤리아(이슬람 율법)	부1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로비에→막후교섭에	부1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취양스→어감	한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온라인 게임	부1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위터파크→몰놀이공원	부10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애니메이션→	중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콘솔 게임	부1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소셜 허브 기능 →	부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콘텐츠	부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이슈→쟁점, 논쟁거리, 논점	중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메시지	중2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로맨틱 드라마→	한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블→거품	한2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제논(크세논)→	한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시리즈→	강1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유엔	동2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금융위기와는→세계적 금융 위기와는	강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알바(아르바이트)→부업	광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마트→대형할인점	광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이미지→인상	한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마트→대형할인점	광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핵심 프로젝트→핵심 사업	동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테크놀로지→과학기술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미이스	제1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프리미엄	한2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멀티미디어→복합 매체	경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트럭→화물자동차	경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관전 포인트→지켜볼 점	경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윙	경1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첫째 포인트는→첫째는	경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경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브랜드→상표	경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쇼핑카트→손수레	제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즌	경1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그런 점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겸허한 자기반성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 대북 <u>라인</u> 의 재정비다.→	경2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모델→	경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웨이트 트레이닝	경1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마트→대형 할인점	경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마크호스	경1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태이→날	제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모델	제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인플레→	광15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카운트다운	제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아파트	제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브레이크	제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모니터링	제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타→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홍보부스→	대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국경 카운트 파트는→	대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문화 콘텐츠→문화 콘텐츠	대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샐러리맨→봉급생활자	제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메시지→교서, 전갈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사이트	제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더문화→독립문화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일음씩→일음주머니	제1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노트 → 공책	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리더 → 세계적 지도자	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드럼→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아이디어→생각, 고안, 착상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에피소드→일화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아티스트→예술가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클레이아트 → (진흙 예술)	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테이크아웃 → (사 가기)	대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에코북 →	대1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라이브→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디바게이션→상륙	제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비즈니스→사업, 업무	대15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듀티프리쇼핑	동2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타이밍 상→시기상	대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브랜드→상표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체스처→몹짓	제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서밋→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밴드→악단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사이트→	강1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소스→정보	대2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인터넷→컴퓨터 통신망	한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마니아적 성격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포플리즘→대중주의, 영합주의	한2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세이브	제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다이내믹	서2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휠체어	서2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부메랑→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블록 단위→구역 단위	서3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토크쇼	서2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가장 멋지게 코디한→가장 멋지게 차려입은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애널리스트 → 증시 분석가	서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레저 → 여가	대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플레이시→	중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심포지엄	서2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프리미엄 → 기득권 등(확실치 않음.)	서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데뷔→첫 등장	중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콧핀팅	서2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슬라미	중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세계	서3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체계	서3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키퍼슈	서3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콘서트→연주회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리딩 케이스	서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트레이닝북→운동북	서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매신저	서3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이코노미스트→경제 전문가	중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패러다임 → 체계	서1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타이틀곡→표제곡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아이돌 육성 방식이	대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톱→정지, 멈춤	중1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댄싱퀸→춤의 여왕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뉴라이트→신보수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컨디션올→몸 상태를	서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포지션→자리	대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생산라인→생산공정	대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투톱 시스템	서3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리더십→통솔력, 지도력	서3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톱스타→인기 연예인	한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테스크포스	서1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컨트롤타워	서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악성코드	서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코너→마당	광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제도	중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사이버 전력	서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페이플레이	서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레이덕 → 권력 누수 (현상)	서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모탈 헤저드	서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디도스	서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이메일로기→이념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사이버 테러	서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해킹→	중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벤치마킹하고 있다.→참고했다.	서3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센터→	광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차트→순위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다이내믹→	광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덱톱 트럭	서3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바이러스→	광1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쓰리잡→	광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트레스→긴장, 불안	광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즈니스벨트 →	서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소프트웨어→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클라우드 시스템	서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멘토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프로젝트→기획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대뷔해→등장해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클라우드 컴퓨팅	서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에어컨	서3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시즌	서3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성 감기	광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투잡→결별이	광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그룹사운드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커플→부부, 쌍, 짝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모바일	서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패스트푸드	서3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투자포럼에서→투자 공개 토론회에서	중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테스크톱	서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리메이크→원작재구성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드레스 코드→	서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클래식 스타→	강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장르별 → 갈래별	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토편→법률회사	서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센터	서2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e-메일→전자우편	중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리얼 캠페인 →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보스→두목, 우두머리	서3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사이버전	서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만→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컨셉트를→개념을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캠핑&바베큐→캠핑&바비큐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트렌드 → 경향	중13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마케팅비용	중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현안 리스트에→현안 목록에	중21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카드→표	중3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체크카드	중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뉴앙스→느낌, 어감	중3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카페리→	중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케이스→예	중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전략동맹	중28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버전업(version-up)	중28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와인→포도주	중3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로비→막후교섭	대1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텀서비스	중28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카고 팬츠라→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리더→지도자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리더십→지도력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이슈 →논점, 쟁점	대1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헤어&메이크업→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전→전망, 이상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PF대출이→	강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특별 이벤트도→특별 순서도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에니지	제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카페→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디오→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오픈→공개, 개방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저널리스트→언론인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아마추어→비전문가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케줄→일정, 계획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포츠→운동	동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주얼리→보석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다이어트→식이요법	대2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벨트→지대, 구역	대15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메뉴 → (차림)	대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테러→폭력	한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록페스티벌→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멘토링 → 후원	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와이너리 → 포도주(와인) 양조장	복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블로그→	대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견고하다는→경제의 기초 여건이 견고하다는	강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현안 리스트에→현안 목록에	대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토리텔링 → (이야기하기)	대1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마드셀프마사지→	대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체크카드→	대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엑스터스→탈출/대이동	대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인프라→	광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슈트→양복	대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7인조 프로젝트밴드→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캠페인이→운동이	강1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이쿠스티 라이브→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올인하고 있다.→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1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 세계적	대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트리플 강세 →	대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체계	동2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로드맵→이행안	대1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모티브→	조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디지털 싱글앨범	조2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트위터	조3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스타일리시 캠핑룩으로→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5집 앨범에→5집 음반에	조2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게임 페스티벌→게임 축제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패션→유행	조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드라이브 코스→	조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이브닝드레스→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도로잉	조2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브랜드→상표	조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히트작→홍행작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빅마마의 피치링이→	조2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그룹→집단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GDP의→국민총생산(GDP)의	조2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프로게이머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캔들→추문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오디션	조1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스위트룸→특별실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게임 캐릭터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매카→	조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포폴리즘→대중영합주의	조2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스타일→행/풍	조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트레킹 코스→	조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아트숍	조2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케이스→사례	조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몰라주	조2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점프 슈트→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오픈→개점	조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그래픽카드업체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큰 사이즈→큰 치수	조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뺨뺨 프랑스→	조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록밴드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카탈로그	조2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캔들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큐레이터→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시트룸	조2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미니시리즈	조2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해비메탈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아이스링크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이브닝드레스 →	조1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코스 요리	중2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엔터테인먼트 → 연예, 오락	조1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골드 카드→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이브닝드레스→야회복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길그룹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고객→손님	조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아웃도어→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학력 인플레이션 →	조1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팬→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코스→진행, 방향, 과정	조2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콘텐츠 → 내용(물)	조1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세일즈하라는 → (공략하라는)	조19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벤처마케팅하다	조1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퍼스트클래스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아이돌 그룹	조1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쓰나미 → 해일	조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캠퍼스	조2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헤드뱅잉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캔들→추문, 좋지 않은 소문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핫이슈 → 주요쟁점	조1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이슈로→쟁점으로	조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펀드→	동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클릭	서3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전을→이상을	중2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섯다운제	부1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슬로건→강령, 구호, 표어	부9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클로벌 아이	중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룩 비트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카메라를→사진기를	조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더블딥→이중침체	광15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트라이앵글 → (삼각)	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마트한→재치있는, 멋있는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방사능쇼크→방사능 사태/방사능 오염 사태/방사능 충격	매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학력 콤플렉스 → (학력 열등감)	조18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그룹→집단	한1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성공 스토리	조1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스태미나→정력, 원기	대2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세계적, 국제적	동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콘셉트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컨텐츠→	북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트레스	조2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온라인→누리망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엘리트	서22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아르바이트	서3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픽토그램	서2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달레마→궁지	경4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리브콜→부름공세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코멘트할→설명할	경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슈퍼마켓→	경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마트폰→똑똑(손)전화	경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페이퍼컴퍼니	경21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프로핏 셰어링(Profit Sharing)	경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현 시점에서는 불행하게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현 시점에서는 불행하게도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경24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피싱 기법 → (정보 도둑 기법)	경1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시나리오 → 상황	경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싱크탱크→연구 기관	경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메시지	서2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모터보트→	조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클래머러스한→관능적인/육감적인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태그→가격표	매1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부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인터넷→컴퓨터 통신망	중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카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지도계층의 도덕적 의무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모던 보이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매뉴얼	서2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사이트→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포츠타이트→각광, 주시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쿠데타→	광18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수사 패러다임	서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 세계적	대14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해커→	중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페이스북→	대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태스크포스 → 특별 팀	대9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포퓰리즘적→대중 영합적	서3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인센티브를 주거나→특전을 주거나	북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클비전(Circle Vision)→	북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멘토	서2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게임마케팅→게임 영업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네트워크	서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피포먼스	동1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락스타존→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아이템→품목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사이버→	서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아이디어→고안, 생각, 착상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포츠→	조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아울렛몰→	부10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리서치→연구, 조사	동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트렌드→	강13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이벤트에 그친다면→행사에 그친다면	강16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과국 코스로→과국의 길로	조2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패닉상태→공황상태	광15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케이스→사례	대15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메탈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요오드→	한6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하이라이트→주요부분	강14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울트라	조3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모니터→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모럴→도덕	동12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동22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이메일을→전자 우편을	조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안전펜스→안전 울타리	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피드 격차	조3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베이지색→흐린 노랑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입장게이트에서 입장권을 확인하고,→입장 문에서(입구에 서) 입장권을 확인하고,	북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갤러리→화랑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즈니스→사업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해커	서22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아이디어→고안	대16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인터넷→컴퓨터 통신망	서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에어컨	제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엘리트장병 → 우수장병	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과학벨트	매20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시리즈→연속물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클래식	조1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이벤트→행사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패스트푸드→즉석식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업그레이드해야 → 발전해야	북18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스포츠타이트	조2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감사 → 지도 검사(일본어투 한자어)	조21	사실
2-5.외국어, 외래어	트위터	대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항만네트워크 구축을 통해→항만 연계망을 구축하여	북1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레포즈→	부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시네마→영화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시장	조3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플래카드 → 현수막	서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리트 싱어→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멜트다운→노심용해	한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아치	서20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스피치→대담, 연설, 말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즈니스→사업	매1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캡백→되돌아오다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그룹→집단	한1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홀리스 라인 → 통제선	중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사인(sign)→서명	중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유턴	제1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국경 카운트 파트는→	중21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뉴 캡스→새 경찰	서2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홉살롱→	대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해프닝→웃음거리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포지션	경1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머트에이바운스→	대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인터넷→컴퓨터 통신망	한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사이언스→과학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태블릿PC→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핫이슈→주 논점/주 관심사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명곡 퍼레이드는→명곡 행진은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정례브리핑 → 정례 요약 보고	경1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뮤지션들과→음악가들과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벤처	경11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서플버스→	조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업그레이드→높여	강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리스크는→위험 요인은/위험 요소는	매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아이디어→영감, 착상	경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포털사이트→틀머리 사이트	광7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메리트→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인디밴드→독립밴드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콤비→단체, 짝	강1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제도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블록 →구역	서3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패션→최신유행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디펜딩 챔피언→우승지킴이	중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오디션	중1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세트→	광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메카로 만드는테→중심지로 만드는 테/분거지로 만드는 테	강1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디테일→세부, (세부 장식)	매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하이라이트→주요부분	강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호텔에서 일하던 메이드	중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도시로→세계적 도시로	강1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포인트	서2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저축은행 버물리스트에→저축은행 버물 목록에	부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록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프로→직업 선수	중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블랙톤→검정, 검은색	동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메이저→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바로미터→지표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리메이크로→개작으로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 리스크→	경20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서클제인지업→	중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클립→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휴머니즘→인도주의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포퓰리즘→대중주의	한26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드레스 코드인 핫핑크를→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마케팅→시장 거래, 시장 관리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파워풀한 퍼포먼스는→힘찬 공연은	강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허브로→중심으로	강1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리조트→휴양지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콘텐츠→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마이너스 0.2%	경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이벤트→행사	강1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서37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스마트한 → 몸가짐이 단정하고 맵시가 있는	대1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아이스티	중24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제도	동19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퍼스트클래스→일등석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모바일 게임	부1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샤워장→	부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마이너리그	서3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독립민주제스티벌	서2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에세이→수필	중10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의사 전달	제4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스탠드	제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윈스톱으로 → 한 번에	조1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미니홈피	조2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유로존의→유로를 쓰는 지역의	중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홈페이지→누리집	서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프로그램→계획, 계획표	광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워킹그룹	서2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트루트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유투피아→이상향	동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시뮬레이션→모의실험	조2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딤임팩트	매3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시스템→제도	매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체인점→연쇄점	중3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댄스곡을→춤곡을	조2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스카벤드	중2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비행 유닛	조1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패키지’→‘한 묶음’	조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뮤지컬 타이틀→뮤지컬 제목	조2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타이밍 상→시기상	중21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이슈가→논쟁거리가	중21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업그레이드하면 → 개선하면	매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머드→진흙	대24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 유통 채널 정비→세계적 유통 경로 정비	대4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인버터	제15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라인→선	대2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애플→확성기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유머→익살, 해학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술집 서빙은 물론→술집 손님 시중은 물론	대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탐→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모바일 코리아의 → 한국 모바일 시장의	매5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파트너→	대25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컨벤션	제19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전→목표	동2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비즈니스벨트	매20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디너 콘서트→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글로벌→세계적인, 세계화, 세계	동23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투런 홈런→2점 홈런	중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장르→분야	서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파티→모임, 연회	조0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오버랩됐다	서27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아이패드→	매22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해킹부대	서22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아이템이었다. →품목이었다.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리더십→통솔력, 지도력	서30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리모델링→	매2	칼럼
2-5.외국어, 외래어	영캐주얼브랜드를→	중17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개입→경기, 놀이, 내기	동18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솔로 홈런→1점 홈런	중9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플랫폴 →	서15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포폴리즘→대중영합주의	서36	사설
2-5.외국어, 외래어	멘트→	대23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턴키방식→일괄수주방식	부6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호프집→	대21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터빈→	한23	보도
2-5.외국어, 외래어	펀드리서치팀장은 →펀드연구팀장은	동2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MB노믹스→	동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과학벨트→	동8	해설
2-5.외국어, 외래어	머드채험존→	대2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언론이 항의한 취지는 명확하다.→언론이 항의한 요점은/요지는 명확하다.	서3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이번에 사망한 근로자는 피폭 기준치가 인체 유해 수준에 미달했다고 도쿄전력 측이 밝혔지만→이번에 사망한 근로자는 피폭 수치가 인체 유해 수준에 미달했다고 도쿄전력 측이 밝혔지만	매14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 국어와 영어 용어 다름	매2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통계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 실정	매2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국내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기 때문이다.→계속, 쫓겨나고	매13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재벌’과 ‘대기업’ 혼용하지 않도록	매2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 소모성자재(MRO) 구매대행	매2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돌출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도→돌출 발언이나/튀는 발언이나	조27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대형.전문업체로 쇼핑 수요 이탈→이전	매13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단속은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 상황→상태	매11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고액 재산가→큰 재산가	매1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기능이 장착된 제품을→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매17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이번 개정 작업에 포함시킬 전망이다.→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매1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일반 가정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장애인 가정의 자활 욕구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이유다.→원인이다	매1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직접적 배경으로는 수급 불균형이 지목된다.→원인으로	매13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하지만→삭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중17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올해부터→가리키는 시점이 정확치 않으므로 빼는 것이 나음.	매16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가슴을 짓밟는 듯한 드센 리듬이 특징적이다.→격렬한	중2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가슴을 짓밟는 듯한 드센 리듬이 특징적이다.→특정이다.	중2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그러자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갑자기	동26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해의→외국, 국외	동19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소매판매도→소매도	동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선언했다.	동1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를 일깨워줬다.→어떤 위험을 불러오는지 보여주었다.	동12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파문이 불거지자→파문이 확산되자/파문이 커지자	동10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일하는 용도로 잘 활용할 만한 디테일→일할 때 활용하기 좋은 세부 장식	매3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주장이 한때 유행했다.→주장이 한때 널리 퍼졌다.	중21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제일 싼 범칙금으로→제일 적은 범칙금으로	부11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이중적 위협→이중의 위협	중28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협상 평화를 거부했다.→평화 협상을 거부했다.	중2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상상력을 압박한다.→상상력을 좌우한다.	중2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시급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절박한, 심각한	서31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페이플레이가 실종된 스포츠는 경기가 아니다.→사라진	서27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는 위상은 잊어버리고→사실은/점은	중14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고액 재산가 피부양자를 선별해→찾아내어	매1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없어지니까 탈출하지 않으려고→없어지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매1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유화작→유화 작품	매1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민주주의 형태를→행태를	대5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포기하거나 혜택을 받은 만큼 부담도 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범케이스로 만들려는 의도로 여겨진다.→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 포기하거나 혜택을 받은 만큼 부담도 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시범 사례로 삼으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대15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입장료가 징수되며→입장료를 받으며	대2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수익률 수준이 하락한 게 사실→수익률이 하락한 게	매13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서1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풍성한 관능미를 앞세운→풍만한 관능미를 앞세운/관능미를 앞세운	매3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작품가는→작품의 가격은	매1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얼굴을 가릴 정도의 거대한 사이즈의 코트→얼굴을 가릴 정도로 큰 외투	매3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수요와 수익률 측면에서→면에서	매13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자금 조달 업러로 자격을 박탈당했다.→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매31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높이 제한 등으로 실용적인 건축이 어렵고→	서3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경영진단반 20개가→	서3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인적 파워네트워크→인맥	서10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1등급 이상 제품→1등급 제품	제1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설치할 계획으로→마련하여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제1당에 등극할 것이라는→오를	부16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이용객들이 사용을→이용객이 사용을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실제 소비자들은→실제로 소비자들은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쇼핑카트 회수 보관소→쇼핑 카트 회수 및 보관 장소/쇼핑 카트 보관소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시민들의 불편을→시민의 불편을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달연 유리하다→달연히	제1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차량들로 빈 곳을→차량으로 빈 곳을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훗날 작가의 회고를 빌리면...공동묘지에서 자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그(시인, 고은)	제8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137대가 마련됐지만→137대가 있었지만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1.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오히려 고객들의 외면을→고객의 외면을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육포장 시설→육포 시설	제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다.→실시	제11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자화상→일	제17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긍정적 결과가 제시되더라도→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16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복새통→(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제17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하지만→그렇더라도	제17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교통사고→안전사고	제17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기계화 작업→(농)기계 작업	제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양채류→서양 채소류	제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가장→매우, 시급히	제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소규모 농가와 고령농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여성 농가	제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일부 관광객들은 착시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무단으로 도로를 유틀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	제1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상승해→높아져	제11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역점→본격	제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십수번 전화를→여러 번/여러 차례/열댓 번 전화하기를	서3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정상적인 금융기관→경영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	서3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작품이 쏟아진다.→작품도 많이 선보인다.	매1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한국과학비즈니스벨트	매20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올리도록 제시하겠다고→올리도록 권고하겠다고/올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서3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낮은 시내버스 정책→낮은 시내버스 운행 체계	북4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관람객 입장과 관람, 안내를 돕는→관람객 입장과 관람 안내를 맡은	북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BIS 1% 미만으로 자본잠식이고→BIS 비율 1% 미만으로 자본 잠식 상태이고,	서32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초점을 이동하겠다는→방향/중점을 이동하겠다는	서3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환자들은 의사에게 목숨을 건다.→환자들은 의사에게 목숨을 맡긴다.	대3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점화됐다→불거졌다	서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개미들의 밭줄 끊는……→서민들의 밭줄 끊는……	광9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다양한 음악으로 분할되며→다양한 음악이 공존하며	서8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주택 건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 기준 충족 어려워→기준에 맞추기 어렵기 / 기준 맞추기 어려워	서3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글로벌 선두권 진입→세계 선두권 진입	서1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도 등이 제출한 법안에 이견을 보일→도 등이 제출한 법안에 이견을 내놓을	강10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쇠말뚝 2개를 심는 것을→쇠말뚝 2개를 박는 것을	강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점화돼→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이 시작돼	강16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입장을 밝혔었다.→입장을 밝혔다./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막겠다는 복안이다.→막겠다는 계획이다.	서1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모럴 해저드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라고 마련됐을 터였다.→것이다.	서27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총체적 대응만이 사이버 위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유기적/체계적/	서22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축축해지고/커지고	서23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전체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조원가량을 운영해 온 LH에 대한 감사는 특히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운영해/사용해	서25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내용을 들여다보면→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서3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할인된다.→할인해준다.	대2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추후 혐의를 거쳐→혐의하여	제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현재단→대한해협	조13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상식대로였다.→패배였다.	조25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출판 윤리도 →	조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보통 일본인은→일반인은, 일반 국민은	조25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폭풍 前夜→폭발 전야(화산 폭발 이야기임)	조3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팔아야 했고→팔았고	조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하지만 → 그러나.	조1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휠전 → (삭제)	조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특명팀이→팀이	조25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보고했다.→제출했다.	조25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대형마트가→대형 할인점이	경7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앞으로 치고나갈 폭발력→잠재력	경12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최근 누내안과병원이 출범된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	경23	해설

	는 성인 남녀 972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눈을 혹사하고 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최근 누내안과병원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 972명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눈을 혹사하고 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개미 투자자→일반 투자자	경1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주민들이→주민이	경7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한국과학비즈니스벨트	경20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스스로도→자신도	경2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전문화할 이유를 없애는 폐단→전문화할 필요를	경2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구매대행(MRO)은 명목상 원가 절감을 내세우지만→구매대행자는	경2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高’ 영어 go를 연상시키는 언어유희입.	경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무산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 비친→	경20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북한의 식량난이 갈수록 악화하고→북한의 식량 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경24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공정사회’ 구호만 강조할 뿐→내세울	경21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시민들이→시민이	경4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전체 우리나라→우리나라 전체	경20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조치를 취한 영향이다.→결과이다.	경9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해외→외국	조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허접한 인간→쓸모없는 인간	조0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유통기한이→	조8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전망 테크→	조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수상스기→	조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종이학 125마리가 있었다→들어있었다	조13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그렇기에 정부의 공식 견해가 중요하며	조12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너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고→너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북3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어차피→삭제(끝에서 두 번째 줄)	한11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주민들에겐→주민에게	한6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빛이 추가됐다→빛이 늘어났다/빛이 증가했다	한8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이주 작은 자리들 치어를 생포했다.→잡았다.	제21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해외→국외, 외국	한12	사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개입할→자라날	한10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열공→열심히 공부	한26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인수 합병전을 조명한→인수 합병을 소재로 한	한1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격납용기→넣어둬 용기	한23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16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SK 타선을 풍퓄 틀어막아→묶어	제23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의 가장 큰 잠재적인 인수자→잠재적으로 가장 유력한	한27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숨겨진 가을 사나이→숨겨 놓은/숨은	제25	해설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실시→시행	한24	보도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시민들의→시민의	한6	칼럼
2-6.적확하지 않은 어휘	특히 시행령 개정에는→시행령 개정에는	한16	보도
2번 기타	이길 승산→승산, 이길 가능성	조25	칼럼
2번 기타	관광객들→관광객	제17	사설

2번 기타	7~14% 정도 증가할 것으로→7~14% 증가할 것으로	중19	해설
2번 기타	서명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려는 조치→서명을 보편화하기 위한	중6	해설
2번 기타	예정된 과국 코스로→과국 코스로	조25	칼럼
2번 기타	초과이익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초과이익을 내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1	칼럼
2번 기타	무더위가 지속되면 가족들의 식욕이 떨어져→가족의	제11	보도
2번 기타	개별 농가들은→개별 농가는	제9	보도
2번 기타	아직까지→아직	부9	사설
2번 기타	폰피→(핸드폰 개인 홈페이지)	부5	보도
2번 기타	개미→개인주식투자자	부8	보도
2번 기타	세 확산→세력 확산	부7	보도
2번 기타	전기료, 전력요금, 전기요금→‘전기료’로 통일하여 표기할 것을 권함.	매16	보도
2번 기타	재벌 그룹 회장님들은→비교는 듯한 어감이라 생각됨.	조8	칼럼
2번 기타	드비에-종쿠르가 연결고리였다.→드비에 종쿠르가 그것의 연결고리였다.	조0	칼럼
2번 기타	근태→근무태도	매24	보도
2번 기타	친서민 5대 농정시책(정책에 대한 요약 설명 필요)	제9	보도
2번 기타	45도의 물에→섭씨 45도의 물에/45℃의 물에	매19	보도
2번 기타	유타던 입국했던→다시 돌아온	매14	해설
2번 기타	동문재래시장과 서문공설시장, 중앙지하상가, 민속오일시장 등 4개 재래·전통시장에→(중앙지하상가가 재래 또는 전통 시장?)	제2	해설
2번 기타	가수 ‘김장훈의 독도 반박’→‘가수’는 다음 행의 ‘김장훈’ 앞에 넣어야 적절함.	서5	보도
2번 기타	구형모델들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형 모델이	제15	해설
2번 기타	주식형펀드로→주식형 자산 운용으로	동2	해설
2번 기타	화들짝→주체가 분명치 않은 말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음.	서5	보도
2번 기타	최대 난제→난제, 어려운 문제, 최대 문제	동25	보도
2번 기타	장사정포→장거리포(보다 익숙한 단어를 사용할 것을 권함)	동3	사설
2번 기타	전략국제문제연구원→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동29	사설
2번 기타	공천과동→	대26	사설
2번 기타	4번째→네 번째	한13	보도
2번 기타	음식폐기물→음식쓰레기, 버린 음식물(순화용어)	광2	보도
2번 기타	향내 폐기물 및 건설 폐자재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폐자재	제13	보도
2번 기타	차랑들→차량	제17	사설
2번 기타	이후→라이크된 교수는	경22	보도
2번 기타	취소할지, 연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취소할지 연기할지에 대해서는	경2	해설
2번 기타	중단해 달라고→중단해 줄 것을	대25	사설
2번 기타	머드화장품→	대24	보도
2번 기타	촉재캐릭터상품→	대24	보도

2번 기타	실내외→실내·외	경23	해설
2번 기타	알바→아르바이트	광5	해설
2번 기타	폭염→불볕더위(순화용어)	광14	칼럼
2번 기타	상정해→회의에 부처, 회의에 올려(행정순화용어)	광15	사설
2번 기타	휴게공간→휴식공간	한24	보도
2번 기타	K팝→	대24	보도
2번 기타	선제적이고→선제하고	광15	사설
2번 기타	61어가→61개의 어가	광17	사설
2번 기타	폭염→불볕더위	광14	칼럼
2번 기타	머드물씬→	대24	보도
2번 기타	이 같은 시각에 대한 관련 추측 → 이 같은 추측	대7	해설
2번 기타	부자 감세→	한20	칼럼
2번 기타	의인(醫人)→이런 조어를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	대3	칼럼
2번 기타	애환이나 슬픔도→애환도/슬픔과 기쁨도	한15	해설
2번 기타	범엘지→	한14	보도
2번 기타	일 원전사고→일본 원전사고	한23	보도
2번 기타	원가보상률, 원가회수율→둘 중 하나로 통일하여 쓰기를 권장.	매16	보도
2번 기타	피그스(PIGS)국가→	한20	칼럼
2번 기타	재벌 길들이기→	조8	칼럼
2번 기타	떠넘기지 않는→떠넘기지 않도록	경20	보도
2번 기타	소녀시대(소시), 슈주,→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대4	사설
2번 기타	주민들(주민)→일관성 없음	광6	해설
2번 기타	부담되는→맞는	대19	보도
2번 기타	요금 야당 의총→	동11	보도
2번 기타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에게는 절반의 권리만→여전히 여성에게는 절반의 권리만(‘남성보다’라는 쓸데없는 어휘를 빼야 함.)	대5	칼럼
2번 기타	동일본→일본	동5	해설
2번 기타	글로벌 축제 포럼→세계 축제 공개토론회	대24	보도
2번 기타	느낌을 물씬 자아내는 매개체다.→	매1	해설
2번 기타	회전문→	중22	사설
2번 기타	행안부, 정부가 문장 곳곳에서 뒤죽박죽 쓰임. 일관성 유지 요구됨 1)당초 정부는→당초 행안부는 2)정부 가이드라인은→행안부 가이드라인은 3)정부가 은근슬쩍→행안부가 은근슬쩍	서34	보도
2번 기타	올레길→	조5	해설
2번 기타	해외펀드→국외펀드	동2	해설
2번 기타	거선의→큰 배의	한22	칼럼
2번 기타	7080세시봉→	대24	보도
2번 기타	만기수익률, 만기보장수익률→용어의 표기 통일을 권장.	매18	보도
2번 기타	상선→윗 선	대7	해설
2번 기타	네 탓→책임을 미루며	부3	칼럼
2번 기타	실시→시행	동20	칼럼
2번 기타	살처분된→도살 처분된	광3	해설
2번 기타	경춘선은~운행된다.→	조5	해설
2번 기타	과채류→열매 채소류(순화용어)	광12	보도
2번 기타	폭염→불볕더위(순화용어)	광3	해설
2번 기타	국민들에게→국민에게	서34	보도
2번 기타	머드콘서트→	대24	보도

2번 기타	운전자들→운전자	제17	사설
2번 기타	전기요금, 전력요금→‘전기료’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권함.	매17	보도

### 3. 문법

3-1.조사, 어미 잘못	구성되며, → 구성된다.	복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어긋난다”고 →어긋난다.”라고	한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모르겠다”는 → 모르겠다.”라는	경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이는 방사능에 피폭된 것과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들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는 방사능에 피폭된 것과 같으므로 …… 한다	한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보말은 관광객들이 폭발적인 반응으로 준비한 물량이 일찌감치 동이 났다.→관광객들의	제2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것으로 → 것이라 더욱	경1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나뉘 → 나뉘어	경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전월 대비 10 포인트 하락하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였고	제2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시각적 결과물과→시각의 결과물로	경2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다지면서 → 다지게 되어	경1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선택하자”고→선택하자”라고	경2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쌀값은 4월에도 3.5%가 상승했다.→3.5% 상승했다.	경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빨래들을→빨래를	경2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구조된다”고→구조된다.”라고	동3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오수처리시설 설치 미흡 등이 사례가 지적됐다.→의	제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정부는 불필요한 기업 규제는 풀되 기업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는→기업에 대해서	동12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반발하면서 → 반발하여	경1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지난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지난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광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판매되자	제2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카다피에 대해 → 카다피에 대한	경2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인상됐다”며 “이어질 것 같다”고→라며, 라고	경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안 된다”고→안 된다.”라고	동22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크게 처벌돼 봐야…인식이 많은 것 같다”며→라며	제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제주 해역 자리돔과 비교 분석해 국제학회에 발표할 예정이다.→에서	제2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회원국으로부터 → 회원국으로부터의	경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면서→“특수부대 군인이었다.”라면서	경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자리돔이 서식하기에 적당한 20도의 수온이 유지되면서 어류생산지도가 바뀌고 있다.”→되자	제2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공사 현장의 특성과…협의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있다”며→라며	제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어렵다”고 → 어렵다.”라고	경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판단으로 → 판단으로는	경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깊이에 대해 → 깊이에 대한	경1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알리지면서 → 알려지자	경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시작했다”고 → 시작했다.”라고	경2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일이나”며→일이나”라며	경1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행정기관이 보다…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라고	제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내 자신도 놀랄 만큼 공이 좋았다”고→라고	제2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군복들이→군복이	경2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아무런 관련도 없다.”라 며	경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없다”며 → 없다.”라며	경1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SK와 4경기에 1승1패→4경기에서	제2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사업이 마무리 된 후…철거를 기하고 있다”고→라 고	제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한다”며 → 한다.”라며	경1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접어들면서 → 접어들자	경2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유감스럽다”면서→유감스럽다”라면서	경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예측된다”고→예측된다.”라고	매3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현대상선 지 분 7.7%도 함께 팔려갔기 때문이다.→인수할 때에	매3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설치하겠다”고→설치하겠다.”라고	부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교통약자들의 바깥나들이가 꺼려질까봐→교통약자 들이 바깥나들이를 꺼릴까 봐	부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복수노조제가~수밖에 없다”며→“복수노조제가~ 수밖에 없다.”라며	부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간섭하느냐”는 → 간섭하느냐.”라는	경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가동되면서 → 가동되어	부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다르다”는 → 다르다.”라는	경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이렇게 누적된 <u>핵연료</u> 는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 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서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렇게 누적된 핵연료가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 대 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렇게 누적된 핵연 료는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어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매1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며→있다.”라며	동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침단~산업을 키우자’는→‘침단~산업을 키우자’라 는	중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피할 수 없다”며→피할 수 없다.”라며	한1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없는 → 없다는	동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원전 복구작업이 지연되면서 300km 이상 떨어진	매14	해설

	수도권 지역도 오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 라고 해석했다.→‘원전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300km 이상 떨어진 수도권 지역까지 오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3-1.조사, 어미 잘못	마라”고→마라.”라고	광9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됐다”는 → 됐다.”라는	한4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고→있다.”라고	동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자 중→대학생과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자 중	대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정부가 올림픽…하지 못했다”며→라며	동2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우선은→우선	제4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SK에 2-1로 이겼다.→SK를	제2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조사됐다”고→라고	제2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10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면서 6개월 전에 비해 생활형편이 나빠진 서민가계가 늘어난→밑돌 았고, (인파관계나 선후관계가 없음)	제2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무엇보다 중요하다.”라 면 서	경2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자산보다…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다그쳤다.→라고	동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경우가 많다.”라고 지적 했다.	경2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44분기를 저점으로 → 4/4 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뒤	경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외환위기 때~싸워왔다”고→“외환위기 때~싸워왔 다.”라고	경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한다”고도→한다.”라고도	경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1년 새 얼굴은 많이 바뀌었다.→얼굴이	경1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정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독립해→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독립해	동23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위험해 보인다”며→위험해 보인다.”라며	부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적용된다”고→적용된다.”라고	경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큰가에 → 큰지에	경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너무 방치한 측면이 있다”며→너무 방치한 측면이 있다.”라며	부1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44분기를 저점으로 → 4/4 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뒤	경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원가공개가~명확히 한다”고→“원가공개가~명확 히 한다.”라고	부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걸리는 → 걸린다는	경2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했다”→했다.”라고	경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결정하겠다”→결정하겠다.”라고	경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흠뻑 3방을 몰아지며 단번에 1위로 올라섰다.→1위 에	경1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며→있다.”라며	경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따라서 → 따라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국가적→국가의	동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인상된…당장 필요하다”며→라며	동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했다”면서→했다.”라면서	동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재정전략회의서→에서	조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고→있다.”라고	동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보여줬다”고→보여줬다.”라고	동3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재벌 3세까지 뛰어드는 추가조작→뛰어난 추가조작	경11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안내문은→안내관/안내시설이	제17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것을→것에	대2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또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벨트’에서처럼 지자체나 주민들이 어떠한 국책사업이든……→또 ‘동남권 신공항’이나 ‘과학벨트’처럼 지자체나 주민들이 어떠한 국책사업이든……	대15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정부로서도→정부도	대4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열려 있다”면서→열려 있다.”라면서	대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유립으로까지→유립까지	대4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술일을 먹자”는→술일을 먹자.”라는	조2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후퇴였다 → 후퇴이다	동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증시 조정에도~부담이 된다”고→“증시 조정에도~부담이 된다.”라고	부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모색에만 골몰한다”는→“모색에만 골몰한다.”라는	한22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피그스(PIGS)국가들을 →피그스(PIGS) 국가를	한2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아니겠느냐”고→“~아니겠느냐”라고	한19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재정 건전성’이 강조됐다.→‘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한2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이제~인식이 필요하다”고→“이제~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대22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포화상태고→포화상태이나	대25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응징되고 제거돼야→응징하고 제거해야	북1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가면을 씌고→가면을 쓰고	북1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하겠다”고→하겠다.”라고	북17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자리잡혔다.→자리 잡았다.	북18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경주에는→경주에서는	북18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대해→대한	북17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처사로→처사에게	북17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열려 있다”면서→열려 있다.”라면서	중21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확신하면서도→확신하지만	경30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유기물들이 석유로 숙성되기에→유기물들을 석유로 숙성시키기에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자체를 나무랄 일→자체는 나무랄 일	한5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효력을 취소한다”고→“효력을 취소한다.”라고	한12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자제하도록→자제할 수 있도록	한5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없다고→없음을	대2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위한→위해	대25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않았다”며→않았다.”라며	대2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주장하고→주장하며	대25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치열한 경쟁과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치열한 경	대4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쟁 등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3-1.조사, 어미 잘못	법령으로서→법령으로써	대10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홍보와 권고 위주로 하고 있다”며→“홍보와 권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라며	매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의회는~참석해야 한다”고→“의회는~참석해야 한다.”라고	매2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나간다”며→나간다.”라며	매1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생각한다”고→생각한다.”라고	조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낮이 없다”고→낮이 없다.”라며	한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클리닉 라 프레리’는 1인당→‘클리닉 라 프레리’에서는 1인당	조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표면에는→표면의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기름값 상승에 따른…매출은 줄면서 주유소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매출이	제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과점시장에는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고 했던→“된다.”라고	동1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방사능은 귀하의~존재하고 있다”는→“방사능은 귀하의~존재하고 있다.”라는	한6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하지만 비랑 끝에 서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도 국제 인권단체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사안이 아닐까.→하지만 비랑 끝에 서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 국제 인권단체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사안이 아닐까.	동2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악마의 ~ 지쳤다’고→‘악마의 ~ 지쳤다.’라고(조사)	부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과점 업계의 오랜 문제점을 눈감아 준다면 정부에 시장감독 기능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시장감독 기능이	동1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약속드리겠다”고→약속드리겠습니다.”라고	강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기대하기 어렵다”며→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강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비칠 수 있다”면서→비칠 수 있다.”라면서	강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TF 보고서에 최 장관의 주특기인 압박전술로 유가를 내리자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다.→내리겠다는/내리려는	동1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내가 흘린 땀…강심장이 됐다”는→라는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내가 평생…선수가 되고 싶다”던→라던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평창의 성공이…주어져야만 해요” 호소하는→라고 호소하는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국제 활강 경기장 기준…충분지구밖에 없다”고→라고	동2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출연진들은→출연진들이	북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매우 미흡하다”고→매우 미흡하다.”라고	북6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강제한다면→강제하는 것은	한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아니었다”고→“~아니었다.”라고	한26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요즘 연예계에→요즘 연예계의	한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일종으로→일종으로서	한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맞출 수 있다”고→맞출 수 있다.”라고	한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강제한다면→강제하는 것은	한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유치의→유치에 대해	동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했다”면서→했다.”라면서	동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바란다”고→바란다.”라고	동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벌이고→벌였고	조20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이 책은→이 책에서는	한26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맞출 수 있다”고→맞출 수 있다.”라고	한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차질마져→차질까지	한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놀랐다”고까지→놀랐다.”라고까지	한10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시민들은 가정과 일터, 학교 등에서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라고	제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안내관은 한쪽에만 설치돼 있기→안내관이	제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보내고→보내거나	조4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예약 선택’을 설정하면→‘예약 선택’을 설정하여	매1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또 해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선도 시장인 미국에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또 해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선도 시장인 미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매1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며→있다.”라며	매1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관련되어 있다’는→관련되어 있다’라는	부1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안보상의 이유로→안보를 이유로	제16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했다”고→했다.”라고	동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으로 수급권을 잃게 되면→최저생계비를 넘는 소득 때문에 수급권을 잃게 되면	매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일년 새 5만~10만원 정도…기름값으로 나가는 것 같다”고→라고	제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확정되지 않았다.”라면서	매2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이처럼 상가 공급은 늘어나고 분양가도 올랐지만→공급이	매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산업계·국민에게 부담 가능한→산업계와 국민이 부담 가능한	매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없다”며→없다.”라며	동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다른가→다른지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은→이어 한국교통연구원이	제16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1년 반을→1년 반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됐다.→휴대전화 번호까지/휴대전화 번호도	서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단속한다.”면서→라면서	서2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의뢰할 것을 권유한다”고→“의뢰할 것을 권유한다.”라고	동1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구호식량의 전용 및 배급 문제에 대한) 타당한…계속 주장했다.고→라고	서3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이는 5년 전인 2006년 초와 비교해선 무려 43%나 증가한 것이다.→비교해서	매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일주일에 두 팀 정도가 이용한다”고→“일주일에 두 팀 정도가 이용한다.”라고	매2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김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고	동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대규모 부지를…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라고	서3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한국이→한국은	동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어차피 재개발 관련…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라고	서3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없는데→없다는	동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바란다”고→바란다.”라고	동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우리나라는→우리나라에서는	조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한다”고→한다.”라고	조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라이브)’는→(라이브)’에서는	조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되면서→되어서	서16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올해 초 나온…벤치마킹하고 있다.”고→라고	서3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냐.”고→냐.”라고	서16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폭우와~이어졌다”며→“폭우와~이어졌다.”라며	광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특히~마련도 필요하다”고→“특히~마련도 필요하다.”라고	광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며→있다.”라며	동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한국이→한국은	동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밤에~어쩔 수 없다”고→“밤에~어쩔 수 없다.”라고	광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소규모 정비는…포플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라고	서3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나라는→나라에는	조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 상황의 완전히 바뀌었다.	서3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바란다.”고 말했다.→라고	서2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4년간→4년간의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우리나라엔→우리나라에선	조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전광판에는→전광판에서는(홀러나오다와 호응되어야 함.)	조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기각되면서→기각되어	대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고→있다.”라고	대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내몰리면서→내몰려서	대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안팎에선→안팎에는	대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찬성하고→찬성하고 있고	대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기정사실화되면서→기정사실화되어	대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이번 축제를~만들고 싶다”고→“이번 축제를~만들고 싶다.”라고	대2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이 분위기 이거 어떨거야?”→“이 분위기 어떨거야?”라고	대2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따르며→따르던	북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기대한다→기대하고 있다	대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현장에→현장에서	북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어린 새싹들에게…필요하다”며→라며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한때 음원 시장은 이들 7명의 가수가 부른 노래가 휩쓸었다.→시장을	조1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1년 반을 작업한→1년 반 동안 작업한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잘하는 선수들과…성적이 나오더라”던→라던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바란다’는→바란다.”라는	동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전쟁에→전쟁에서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썼다”며→라며	조1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보인다.”면서→ 보인다”며	서1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스위트룸에→스위트룸에서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거론된→거론됐던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사용할 수 있다.”고→라고	서2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관계자도 → 관계자는(앞의 사람과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님.)	서1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현행 규정에 걸린다.”고→라고	서10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인접 구역 간…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라고	서3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표류하면서 → 표류하여	서1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판단한다”며→판단한다.”라며	강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108쪽 분량 보고서는→108쪽 분량의 보고서가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도시와 농촌의 상생 운동으로서 발전하고→도시와 농촌의 상생 운동으로 발전하고	강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상승는→상승은. 상승세는	강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기대심리와→기대심리에 비해	강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증가하며→증가하여. 증가해	강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적다”고→적다.”라고	강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유입되며→유입되면서. 유입해. 들어와	강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반영하기 쉽다”며→반영하기 쉽다.”라며	강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도내 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는→도내 7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강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업체 간에 → 업체 간의	북1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108쪽 분량 보고서는→위 보고서는, 이 보고서는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연구하겠다”고→연구하겠다.”라고	강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할 방침이다.→특별법으로 제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8~9월에→8~9월에는	강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진행해야 한다”며→진행해야 한다.”라며	강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스위트룸에→스위트룸에서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감옥을 살고→감옥에서 살고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는→있다.”라는	조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힘든 것보다 무거운 제품을 다루다 보면 종종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 일을 소개해 준 선배도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말했다.→라고	서3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나라라거나 → 나라나	조18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모바일 메신저에 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 모	부5	보도

	바일 메신저로 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3-1.조사, 어미 잘못	신분인 → 신분이었던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강국’의 → 강국’이라는	조18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권리금은 ~마련해달라”고→“권리금은 ~마련해달라.”라고	한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영향을 미친다.”면서→라면서	서2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기존 뉴타운식 개발과…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라고	서3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되지 않는다.”며→라며	서2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앞으로는 뉴타운과…고집하면 안 된다.”고→라고	서3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기뻐하겠냐”며→기뻐하겠냐.”라며	중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취업하기도 했다”고→“취업하기도 했다.”라고	동1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중이다”고 → 중이”라고	북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가능성이 높아졌다”며→“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동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돌리는 게 좋다”고→“돌리는 게 좋다.”라고	동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23개구는→23개 구에서	한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했다”며→했다.”라며	한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없다”는→“~없다.”라는	한2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추진하겠다”고→추진하겠다.”라고	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것으로 보인다”고→“것으로 보인다.”라고	한2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디자인 등에 대해 발명특허가 → 디자인 등에 대한 발명특허가	북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정전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정전이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실패하면서 → 실패하여	조1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있으면서→있지만	서6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지금은 수온이 낮아…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라며	제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맹꽁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전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라고	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소방당국은 얼음 조끼, 얼음팩 등 폭염 관련 구급장비를 확보와 함께 폭염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마련했다.→의	제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만→정부가 말하고 싶은 부분에만	서3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신규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안전망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도입되어	서23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벌써 회의적인 시각마저 대두되고 있다.→시각이 대두되고	서12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한다.”며→한다.”라며	서2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가벼워졌다”고→가벼워졌다.”라고	조4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맹꽁이에 대한 조사는…장마철 등에만 가능하다”며→라며	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해도 이를 지원하기는 커	제10	보도

	녕 기존 사업도 축소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사례가		
3-1.조사, 어미 잘못	“오르막에서 내려가는 경험은 정말 신기했지만 도깨비 도로의 시작점을 찾지 못해 빙빙 돌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쉽다”며→라며	제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영업이 없는 날에는 버스를…30만원 정도 들어간다”며→라며	제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올해 여름철…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라며	제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현장 답사를 통해…최대한 빨리 안내문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제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며 → 라며	서1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감소했다”고→감소했다”라고	동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어긋났다”고→어긋났다.”라고	동10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따로 만들어→따로 만들고	동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옛되어 오히려 신선하다”고→“……신선해요.”라고	동1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공사로 인해…조성 방안을 제시했다”고→라고	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맹꽁이에 물어볼 수도 없고→맹꽁이에게	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FTA 체결의 공은 외교부가 독식하고, 책임은 공유하자는 것이냐는 성토까지 나온다.→FTA 체결의 공은 외교부가 독식하면서 책임은 공유하자는 것이냐는 성토까지 나온다.	동10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개발에서도→개발에도	매1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학생들이~ 취소할 수 있다.”고→“학생들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서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간에 → 간의	중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마저 든다.→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조2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스팟 펀드나 랩 상품이나 판박이다→스팟 펀드나 랩 상품과 판박이다	매2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갈 수는 없다”고→갈 수는 없다.”라고	매3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알고 있는 것조차도 힘이 된다.→알고 있는 것은 힘이 된다.	부1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용기사업도→용기 사업에도	매1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창의력이나 창조성→창의력과 창조성	매1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국내 가요계도 이제 한 장르 위주의 쏠림 현상보다는 외국처럼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국내 가요계도 이제 한 장르 위주의 쏠림 현상보다는 외국처럼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서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마련할 수 없다”며→마련할 수 없다.”라며	매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집행위 전문가들이…목격했다.”면서→라면서	서3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매장의 기사를 보조해 에어컨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나르는 일을 한다.”면서→라면서	서3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통제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돌이켰다.→라고	서3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보여 주겠다.”고→보여 주겠다.”라고	서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계과 정치를 종식시켜…일체를 구현하겠다.”면서→라면서	서3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이뤄져야 한다”고→“이뤄져야 한다.”라고	대1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6610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던→6610대나 생산 차질을 빚었던	대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더 컬러스’ 측은 “포크, 록 발라드 등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더 컬러스’ 측은 “포크, 록 발라드 등 우리가 추구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팬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면서	서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표면에는 → 표면의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펼치겠다”고→펼치겠다.”라고	대1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중심엔 → 중심의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없어→없이	대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유기물들이 석유로 숙성되기에 → 유기물들을 석유로 숙성시키기에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지역의 → 지역에	대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알아가는 → 알아가게 하는	대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꺼어진 → 꺾인/꺾어진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따라서 → 따라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엘에이치로 통합되면서 경남과 전북이 그동안 분사 유지 경쟁을 벌여왔다.→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엘에이치로 통합되어 …… 벌여왔다.	한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과업보다 구조조정 큰 고통→과업보다 구조조정이 큰 고통	한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한류바람을→한류바람이	대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팔아야 했고,→팔아야 했는데,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감옥을 → 감옥에서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더하다”고도→더하다”라고고	조8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스트릿 라이프’에서도→‘스트릿 라이프’에도	조2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정부가 알고고자 하는 바만→정부가 알고 싶은 부분만	서3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관심을→관심이	대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나는 공화국의 창녀였다’는→‘나는 공화국의 창녀였다’라는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방문했다”고→방문했다.”라고	조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2년 동안 모인→2년 동안 모은	한2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며→있다.”라며	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시작한다는 → 시작했다는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누진세를 감안하면 전기료의 차이가 많이 난다”며→라면서	제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설치공사가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제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1등급이 당연 유리하다”고 말했다.→라고	제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23평, 25평의 경우 정속형으로 소비전력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며,→중에서	제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불편하기만 하다”고→불편하다”라고	제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쇼핑카트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이다.→쇼핑카트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제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출범뒤→출범 뒤에	한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23개구는→23개 구에서	한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동력으로 삼겠다”고→“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한1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사용하지 않는다”며→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제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교차하는 데도 비좁을 정도로→교차하기에도 비좁을 정도여서/정도라	제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노사관계가→노사관계는	매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축제는→축제가	대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당시 규정은 시가 자체적으로 심의해 문제가 없다면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당시 규정으로는 시가 자체적으로 심의해 문제가 없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대1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확실히…치닫고 있다.”며→라며	서3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선물시장에서 → 선물시장의	매6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순매수하면서 → 순매수를 하여서	매6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일어나고 → 일어나는데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활동이 불편하지 않은→활동에 불편하지 않은	중1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재단법인이→재단법인을	대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안다”며→안다.”라며	한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가능성이 있다”고→“가능성이 있다.”라고	한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6월 말이라서일까.→6월 말이라서 그럴까.	조2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관구조운동이었다 → 관구조운동이다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추진했다”고→추진했다.”라고	매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광주시의 ~기다려보겠다”고→“광주시의 ~기다려보겠다.”라고	광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불과하다”고→불과하다”라고	동9	사설
3-1.조사, 어미 잘못	“냉해로~힘들 것 같다”고→“냉해로~힘들 것 같다.”라고	광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고→있다.”라고	광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그래서 PD들과 수시로 만나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돌아다녔다.→그래서 연출자들을 수시로 만나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돌아다녔다.	매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애호가들에게는→애호가들은	매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지나도록→지난	매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없다”고→없다.”라고	매1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면서→있다.”라면서	광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사회는 한 가지 일만~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며→“사회는 한 가지 일만~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대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하느냐”며→하느냐.”라며	중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세계 각국에서의 지원도→세계 각국의 지원도	대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더는 대출해 줄 수 없다”는→라는	동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바꾸자”는 → 바꾸자.”라는	경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남한 동포에게~보내고 싶다”는→“남한 동포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광1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상품으로 → 상품이며	북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복지 분야가…애를 먹고 있다”며→라며	제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고 → 라고	서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화제가 발생했다”며→화제가 발생했다.”라며	중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천안함 피폭으로…좋겠다”고→라고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한눈에 봐도 불량이다.→한눈에 봐도 불량하다./한눈에 봐도 불량스럽다.	부1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유치의→유치에 대해	동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시작한다는 → 시작했다는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명예조차 있는지. → 명예라도	부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국립대도…있다”던→라던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관구조운동이었다 → 관구조운동이다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북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소행성의 → 소행성과의(‘과의’라는 조사 결합이 비국어투이지만 뒤에 나오는 ‘충돌’이라는 단어와 호응하려면 ‘과의’로 해야 함.)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업무에 두겠다”고→“업무에 두겠다.”라고	조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1970년대부터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며 사용자는 더 빨리 줄었다.→떠나면서	조1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당분간 가격 강세가…보고 있다”며→라며	제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늘면서 → 늘에 따라	조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중심면 → 중심의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소행성의 → 소행성과의(‘과의’라는 조사 결합이 비국어투이지만 뒤에 나오는 ‘충돌’이라는 단어와 호응하려면 ‘과의’로 해야 함.)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불면서 → 불에 따라	조1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고→있다.”라고	동2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7대 경관의 위대한 도전→7대 경관에 대한	제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앞으로~모색하고 있다”고→“앞으로~모색하고 있다.”라고	매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환경부 보호종인 맹꽁이가…해야 할 것 아니냐”고→라고	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다른가 → 다른지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일어나고 → 일어나는데	조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햇갈린다는 → 햇갈려한다는	조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공사 현장 인근에…맹꽁이를 본 적이 있다”며→라며	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실제 쓰나미가→ 실제로 쓰나미가	중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투자 가치가 높다”는→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매1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그동안…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며→라며	제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재료비 정도 받아야 한다’는→‘재료비 정도 받아야 한다.’라는	중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지나치게 비싸다”는→“지나치게 비싸다.”라는	중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지금 등록금이…실천해야 한다”고→라고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농민에게 분배한다”는→농민에게 분배한다.”라는	중2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붓기까지 했다”고→“붓기까지 했다.”라고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고구마 즐기처럼 엮여져 있다.→고구마 즐기처럼 엮여 있다.	부1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잘못됐다”는→잘못됐다.”라는	중2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특히 오전 8시를 전후로 출근길에→8시 전후로	부1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사하라 사막의 비밀 장소에 매장했다”고 밝혔다.→라고	부16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분분하지만 → 분분하다.	부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근원으로 → 근원이라고	부2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LG에→엘지(LG)에게	중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라는	부1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그게 아니다”고→라고	중2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늘었다”고 발표하자→라고	중2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있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중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음식점에서 모여→음식점에 모여	한1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있다”고→있다.”라고	한1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빌려오려는 것 → 빌려오는 것	조19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내려야 한다”고→라고	중2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굳는 → 굳히는	북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사용되는 → 사용된	북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없었다”고→없었다.”라며	중2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한다”고→한다.”라고	중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나쁘다”고 말했다.→나쁘다.”라고 말했다.	중18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SK에→에스케이(SK)에게	중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사회로부터→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폐왕의 폐위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라고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다하겠다”고→다하겠다.”라고	북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정비구역은 → 정비구역에는	서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독립운동 공로도 인정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소훈취소가 마땅하다”고 말한 것으로 → “독립운동 공로도 인정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소훈취소가 마땅하다.”라고	조12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청소년들이 → 청소년들에게	북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반한다”며→반한다”라며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후쿠시마 화력발전소에선→ 후쿠시마 화력발전소	중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롯데에→롯데에게	중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즉흥성이 → 즉흥성으로	북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별이면서 → 벌어서	북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믿었던 → 믿어 생겼던	중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뺏을 수 없다”며→뺏을 수 없다.”라며	중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공연에는 → 공연에서는	북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배틀이 시작하자마자→배틀을 시작하자마자	중1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중1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SEA블록이 → SEA블록을	북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북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투어는 → 투어에서는(실시, 개최 등의 행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가리키므로 예서를 써 주어야 함.)	북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트로트 한류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끌겠다.”라고	중2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재개되어 다행이다”며→재개되어 다행이다.”라며	대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토요일에는 → 토요일에(보조사 ‘는’은 다른 것과 대조될 때 쓰는 것임. 2, 4째 주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에 포함되므로 보조사 ‘는’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북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난감하다 → 난감해한다	북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지역이 → 지역도	중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줄며 → 줄어	북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그녀의 뿌리가 경주이요,→그녀의 뿌리가 경주요,	북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식사할 수 있겠느냐”고→식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중2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경험할 수 있지만→왕복 2차선인 이 도로에서는	제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라고	중10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되느냐”며→되느냐.”라며	중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아니겠느냐”며→아니겠느냐.”라며	중1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규모 7 이상 강진이 →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중4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편안해야 한다”는 것.→편안해야 한다.”라는 것.	중17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됐다”→됐다.”라며	대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넘으면서 → 넘어서	매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체험으로 → 체험을 하며	북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청소하고 있다”며→“청소하고 있다.”라며	중26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특별검사에 착수하겠다”고→“특별검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중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이길 수 있느냐”는→이길 수 있느냐” 하는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대한민국에…고맙다”고→라고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내 삶의~바로잡겠다”했다.→“내 삶의~바로잡겠다.”라고 했다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나는 가수다’는 7명의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고, 시청자에게 평가를 받아 끝짓는 탈락하는	조10	칼럼

	서바이벌 프로다. → 불러, 끌찌가			
3-1.조사, 어미 잘못	있었다”고→있었다.”라고	대17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성인까지 → 성인의	대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만들고 → 만들어주고	대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열풍에→열풍으로	대2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개최하고 있다”며→개최하고 있다.”라며	대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했다”고→했다.”라고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전쟁에 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전쟁에 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전쟁에 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조2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천안함 피폭으로… 좋겠다”고→라고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팔아야 했고→팔아야 했는데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기사에→기사의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묻혀→묻어	조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무엇보다 재정이 열악한…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제1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작년 천안함 사태…한다”고→라고	동2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싸움에 → 싸움의	중13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아들만 둔 부모들이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아들을 …… 됐다.	서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평소에는 생동성 실험이 ~ 이른다.”고 전했다.→라고	서3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결석으로 지연되는→결석 때문에 지연되는	서11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은…어긴 것은 <u>아니</u> ”라며→아니다	제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얻고 있으며 → 얻고 있다.(뒤의 문장과 ‘-으며’라는 어미로는 연결이 되지 않음.	북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프로그램이다”며 → 프로그램이라’며	북9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고객 정보가→고객 정보를	중1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끈으로 된 올가미에 조인 경우→끈으로 된 올가미로 조인 경우	북3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받으면서 → 받아	북11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최선을 다해 우승으로 조국에 기쁨을 선사하는→최선을 다해 우승하여 조국에 기쁨을 선사하는	북5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정책공약집에 → 정책공약집을	서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재미있다”고→재미있다.”라고	북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나가노의 시민들로부터’→‘나가노 시민이’	조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행방이 묘연하다’고→‘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중15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삼국유사 속으로’ 존에는 미추왕의 군대, 분황사 우물의 용신, 소지왕의 사금갑 설화, 원효대사와 해골 이야기간 LED영상과 3면 프로젝터 영상, 편광 3D 입체영상으로 만나게 된다.→‘삼국유사 속으로’ 존에 <u>서는</u> 미추왕의 군대, 분황사 우물의 용신, 소지왕의 사금갑 설화, 원효대사와 해골이야기를 LED영상과 3면 프로젝터 영상, 편광 3D입체영상으로 만나게 된다.	북8	해설	

3-1.조사, 어미 잘못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120만~15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서3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상상력이나→상상력으로부터/상상력에서	매10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않는다. → 않는 것이다.	매5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활용될 전망이다.→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3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야당의 공격에도…맞서겠다.”고 밝혔다.→라고	서30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실상가상으로 상가 투자 수익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수익률이	매13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500m쯤 떨어져서 사는 두 사람은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고 대화도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두 사람이	조14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생명보험협회로부터→생명보험협회에서	서7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확실한 시장 신뢰도 확보를 밀어준다는 취지로, 구조조정이 아닌…처음이다.→확실한 시장 신뢰도 확보를 밀어준다는 취지이며, 구조조정이 아닌…처음이다.	서32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검증했다.”며 → 검증했다.”라며	서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표로서 → 표로써	서1	칼럼	
3-1.조사, 어미 잘못	기대한다.”고 말해→기대한다.”라고 말해	서9	보도	
3-1.조사, 어미 잘못	“……해야 한다”고→“해야 한다.”라고	매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번역 오류는 체계적인 번역전담팀 없이 촉박한 FTA 추진 일정을 맞추려던 외교부의 실수가 크지만 관련 부처 실무직원들의 무성의한 검토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번역 오류가 생긴 데에는 …… 실수가 크지만 …… 주장이다.	동10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성과는 외교부 몫이고 책임은 다른 부처가 가져가 라는 얘기”라고 말했다.→‘성과는 외교부가 차지하 고 책임은 다른 부처가 가져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동10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예를 들어 관세, 서비스 관련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분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해당 부분을 검토하게 돼 있다.→예를 들어 관 세, 서비스 관련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맡는 것처럼 분야별로 …… 돼 있다.	동10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쉬운 사진→쉬운 사진 찍기	조2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 상황이다(다른 문단 들과 일치)	동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이주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도시의 자족성 부족 등 정부의 추가대책 마련 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추가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서25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배사구조는 ~ 최적의 조건 → 배사구조의 조건은 ~ 가장 적합하다(배사구조는 ~ 최적의 조건을 갖고	조2	해설	

	있다)		
3-2.호응, 일치 잘못	1cm 미만에서 발견되는 → 1cm 미만의	조1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TV, 그래픽카드, 3D 안경, 모니터 등은 3D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를 추가로 사야 한다. → 입체 안경, 입체 영상을 지원하는 티브이, 그래픽카드, 모니터 등은 추가로 사야 한다.	조1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에너지, 헬기, 중장비 전문장비와 → 에너지와 헬기 중장비 전문장비와	조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불씨는 지난주 행안부가... 들통 나면서부터이다. → 발단은 행안부가 지난주... 들통 나면서부터이다.	서3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계획이다 → 계획이다와 어울리는 주어가 없음.	조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삼국유사 속으로' 존에는 미추왕의 군대, 분황사 우물의 용신, 소지왕의 사금갑 설화, 원효대사와 해골 이야기가 LED영상과 3면 프로젝터 영상, 편광 3D 입체영상으로 만나게 된다. → '삼국유사 속으로' 존에는 미추왕의 군대, 분황사 우물의 용신, 소지왕의 사금갑 설화, 원효대사와 해골이야기를 LED영상과 3면 프로젝터 영상, 편광 3D입체영상으로 만나게 된다.	복8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남성은 모던 보이처럼, 여성은 관능미 물씬하게.' → '남성은 모던 보이처럼, 여성은 ○○처럼.'	매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중견 시인이자 부산 사하구의회 구의원(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다. → 중견 시인이자 부산 사하구의회 구의원(도시위원장)이다.	부17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이와 함께 경주지역에는~구축 하지 않고 있다. → 이와 함께 경주 지역에는~구축되지 않고 있다./이와 함께 경주 지역은~구축하지 않고 있다.	복4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미국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 미디어에 따르면 2014년 4000만명이 3D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전망이다. → 미국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 미디어에 따르면 2014년에는 4000만 명이 3D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것이라고 한다.	조1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우제길미술관은) 현대적인 2층 건물에 너른 잔디밭, 설치미술 작품들은 작은 조각 공원처럼 보였다. → 작품들이 있어	조26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FTA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협정문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협정문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동10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익숙한 재즈, 가요, 우리 전통음악, 재즈 편곡 등을 → 익숙한 재즈와 더불어 가요, 우리 전통음악 등의 재즈 편곡 등을	복1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의료진에 따르면~혼수상태였다. → 의료진에 따르면~혼수상태였다고 한다.	복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오 교수에 따르면~8천466개에 그쳤다. → 오 교수에 따르면~8천466개에 그쳤다고 한다.	복6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그동안 f(x)는 마니아적 성격이 강하다고 여겼는데, 이번 앨범은 반응이 컸어요. 대중성이 높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	동14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린다 → 구름이 생성되며 비가 내린다	조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일괄 적용됐던 →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서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방문했을 때 행복한 기억을 → 방문했을 때 행복했던 기억을	복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사람이 신진대사를 통해 36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듯 판구조운동도 지구의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다 → 사람이 신진대사로 36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듯 지구도 판구조운동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조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세력 집중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집중이... 진행될	서3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남쪽으로 유명산이, 서쪽 멀리에 북한산 봉우리도 찾아볼 수 있다. → 남쪽의 유명산과 서쪽의 북한산을 찾아 볼 수 있다.	조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독자 개발하는 →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조1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선양위에 따르면 당시~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 선양위에 따르면 당시~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강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앞으로 → 앞으로 자신들이	중16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284명 중 156명(56%)이었던 것이 3차 조사에서 80%로 급증했다. → 284명 중 156명(56%)이었던 것이 3차 조사에서 ○○○명 중 ○○○명(80%)으로 급증했다.	한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드라마만 만들던 초록뱀미디어가 과감하게 예능에 뛰어들 때는 최영근 대표의 가세가 큰 힘이 됐다. → 드라마만 만들던 초록뱀미디어는 최영근 대표의 가세에 힘을 얻어 과감하게 예능에 뛰어들었다.	매1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같은 시각 평택시청 앞에는 이 아이의 부모를 포함한 13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모였다. → 같은 시각 평택시청 앞에는 …… 모여 있었다.	한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사람이 신진대사를 통해 36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	조2	해설

	하듯 판구조운동도 지구의 신진대사를 돕는 것이다 → 사람이 신진대사로 36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듯 지구도 판구조운동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3-2.호응, 일치 잘못	에너지, 헬기, 증장비 전문장비와 → 에너지와 헬기 증장비 전문장비와	조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후쿠시마 화력발전소에선→ 후쿠시마 화력발전소	중4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경기부양책은 월가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경기부양책은 월가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중1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7점제를 내줬다.→1점을 더 실점해서 총 7점을 내줬다.	중9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웹사이트에 따르면 ..... 시위와 집회가 열린다.→열린다고 한다.	중26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린다 → 구름이 생성되며 비가 내린다	조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정식 요청하겠다 → 정식으로 요청하겠다	한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꿈은 회박해졌고→꿈이 실현될 가능성은 회박해졌고	중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하지만 이번 콘서트에선 단순한 반주를 넘어선다.→단순히 반주만 하지 않는다.	중2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가 장지연을 ‘친일인사’로 단정짓고 과거 정부가 그에게 줬던 훈장을 도로 빼앗기로 결정한 이상, 나는 ‘친일인사를 기려서’ 만든 상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졌다.	조12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살고, 출소 후 → 살고 출소한 후	조0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물론 연령과 ~ 있으며 → 물론 증여추정배제기준을 운용하고 있어 연령과 ~ 자금출처를 묻지 않으며 (연결된 뒤의 문장과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아 수정하지 않으면 뒤의 문장에 사용된 몇몇의 조사와 어미가 잘못 사용된 것이 됨.)	매7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질감이 살아있는 모와 면 소재, 따스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색과 갈색에 검정색과 파란색의 디테일을 사용했다.→질감이 살아있는 모와 면 소재, 따스한 느낌을 주는 흐린 노랑과 갈색에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검정색과 파란색의 세부 장식을 사용했다.	매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감독원은~유포하는 사례 등이다.→감독원은~유포하는 사례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꼽았다.	강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현대그룹은 그룹 매출 중 60%를 현대상선에 의존하는 구조다.→의존하고 있다.	매3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게다가 예금보험공사의 그간 책임재산 환수 성과가 시원찮기 때문이다.→시원찮았기	서2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물가에 미칠 영향 → 물가가 받을 영향	경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자금출처를 묻는 방법은 ~ 방법이 있다. → (세무서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법은 자금 출처를 묻는 방법이 아님.)	매7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늘려 2030년엔 그 비중이 59%에 이를 전망이다.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원자력을 늘려 2030년엔 그 비중이 5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4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고리, 월성 등 원전이 가장 많이 들어서 있고 건설 중인 곳도 이 지역이다. → 원전이 가장 많이 들어서 있고, 추가로 원전을 건설 중인 곳도 고리, 월성 등의 지역이다.	한4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후쿠시마 원전은 반경 20km 안 주민 21만명을 대 피시켰지만 고리 원전이라면 부산시 일부와 울산시가 이 범위에 포함돼 대피 대상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	한4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부자 감세를 거두고 토건 부양책을 멈춰야→부자 감면세 거두고 토건 부양책을 멈춰야	한20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지금도 버리에 선명하다→지금도 버리에 또렷이 남아 있다.	중27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밀바닥 정치시장은 저만큼 흘러가 버렸는데 정치인의 시계는 시장의 시계보다 게으르게 돈다.	조30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피해자란 → 피해자일수도 있다는	조0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전쟁에 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다.→전쟁에 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전쟁에 질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조25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19일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단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진행 중이라고 한다.	매3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한동안 몸에 꼭 맞게 입던 슈트와는 달리 헐렁한 핏(fit)의 팬츠와 롱 재킷 스타일의 블레이저를 매치하는 식의 모던하면서 남성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게 특징.→한동안 양복을 몸에 꼭 맞게 입던 것과는 달리 헐렁한 바지와 긴 옷옷형의 블레이저를 맞추는 식의 현대적이면서 남성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게 특징.	매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불러 나와 → 나가	조0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 발생을 경계해야	경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가 최고의 목표다. →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중13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조짐이다. →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13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종합편성채널은 제작사에 기회이자 도전이다.→종합	매15	해설

	편성체널은 제작사에 기획이자 도전의 창구이다.		
3-2.호응, 일치 잘못	독일항공우주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210km 상공에 위치한 핀트겐 위성은 매일 4~5km씩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매3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안 된다 → 해결할 수 없다.('이는'과 호응)	조18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허리 휘는 대학 등록금 → 허리가 휠 정도의 대학 등록금	조18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배사구조는 ~ 최적의 조건 → 배사구조의 조건은 ~ 가장 적합하다(배사구조는 ~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조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대해 → 대한	매7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달라진 LG를 예고했다.→엘지(LG)가 달라질 것을 예고했다.	중9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활용가능한 → 활용이 가능한	부1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현 회장은 경영권 안정에는 다소 승통이 트였지만 신사업 발굴에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경영권 방어에는 한숨을 돌렸지만 신사업 발굴에는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매3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어떤 인물의 공적에 대해 민간단체가 이런저런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 (중략)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조12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그러면 독일 마르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독일이 지금처럼 수출을 많이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독일 마르크화가 강세를 보일 것이고, 독일이 지금처럼 수출을 많이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인과관계가 성립되도록 표현해야 함.)	중1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여성복은 풍성한 관능미를 앞세운 '뉴섹시'로 요약된다.→여성복의 경향은 풍성한 관능미를 앞세운 '뉴섹시'로 요약된다.	매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지대였는데 → 지대에 있었는데	경1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보고서는 없던 일이 됐고 비밀에 부쳐졌다.→보고는 없던 일이 됐고, 보고서는 비밀에 부쳐졌다.	조25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불편한 것을 보지 않겠다는 병적인 자패 심리였다 →불편한 것을 보지 않겠다는 심리였다.	조25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남성복은 …… 입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 반면 여성은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풍성한 실루엣이 유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능미를 발산한다.→남성복은 …… 입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 반면 여성복은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윤곽선이 유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능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매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문서는…훗날 진술했다고 기록했다.→문서에는…기록되었다.	조25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넘치는 것~은 자르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는→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는	경2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어떻게 되겠지” 하는 집단광기→집단 광기	조25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이는 → ('이는'이 가리키는 것이 없음. '이 때문에'가 적절함.)	조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이길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조25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이런 정치는 사하라사막을 400km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처럼 구경꾼들이 보고 있기에 고통스러운 작업이다.→고통스럽다.	조30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선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커뮤니케이션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4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홍 감독은 “요르단 선수들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맞붙었던 선수들이 주축이 돼 왔다”며→홍 감독은 “요르단은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맞붙었던 선수들이 주축이 돼 왔다.”라며	대1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본격 가동되면서 →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부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또한 가파도 정보리 축제도 섬 체험 관광지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면서→인기를 끌면서	제24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또한 가파도 정보리 축제도 섬 체험 관광지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면서→관광 상품으로	제24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국내에 시공경험이나 보급이 안된 → 국내에서는 시공 경험이 많지 않은	북1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건설현장에서 보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 노력을 → 건설현장에서 보다 철저한 폐기물 처리 노력을 하도록	북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일본의 선진기술인 SEA블록이 대형 100t급에는 대체할 제품 및 기술이 국내에 없는 → 대형 100t급에는 일본의 선진기술인 SEA블록을 대체할 제품 및 기술이 국내에 없는	북1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기본 제공한다. → 기본으로 제공한다.	부5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그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북2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파손 구조물 → 구조물 파손,	북1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소비자들은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다녔고 쇼핑카트는 먼지만 가득했다.→소비자들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쇼핑카트는 먼지만 가득했다.	제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이에 따라→사정이 이러하므로	제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특히 공항공사는 냉방시설...규정했으면서도 정작 5등급 제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시행 업체는 정작 5등급 제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1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울퉁불퉁한 도로와 약 100m의 언덕을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야 하는데→울퉁불퉁한 도로를 지나/거쳐 약 100m 되는 언덕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야 하는데	제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국내 굴지의 ~ 밝혀냈다 → (~과 동시에로 연결되어 있으나 앞과 뒤의 문장이 '~과 동시에'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님.)	북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일괄 인허된다. → 일괄적으로 인허된다.	북1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철근투입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 철근투입을 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북1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혹시라도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 혹시라도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동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2단은 → 2단엔(1단엔과 호응)	조1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보고했다.→말했다.	동5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마무리했다.→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마무리했다고 한다./8일 도교육청은~마무리했다.	강9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올랐으며~상승했다.→올랐으며~올랐다.	강11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동해시에 따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발전하고 있다.→동해시에 따르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강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보고했다.→말했다.	동1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녹색연합등에 따르면...건설될 예정이다.→녹색연합등에 따르면...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동25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과거 업계에서도...필요성을 역설해왔다.→업계도...필요성을 역설해왔다. / 업계도...필요성을 역설했다.	서3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 상황이다(다른 문단들과 일치)	동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쟁점에 대한 토론은 →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중8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늘었다. → 는 것도 한 이유이다.	서16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집중 점검할것→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집중해서 점검할 것	한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백악관이 지불해야 할 이날 식사비용은 팁을 포함해 약 500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백악관이 지불한	중24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차등 적용하는 →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서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택시들이 차선의 절반을 차지한 채 줄지어 서 있어	서20	보도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차지하고 줄지어 서서		
3-2.호응, 일치 잘못	나로호 개발에서 항우연의 독점 추진으로 → 나로호 개발에서 항우연이 독점 추진하여	조1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강력 반발하던 → 강력히 반발하던	부5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교원단체가 지지하고 있어 → 교원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어	대1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적극 검토하고 →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1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세종시의 경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 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연구 단지나 대학 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이차피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세종시의 경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 부처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 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연구 단지나 대학 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11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전면 도입되는 → 전면 도입이 되는	대1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여정용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등 일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산모가	서29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계획이다 → 계획이다와 어울리는 주어가 없음.	조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도움이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 도움이 되지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조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이는 → ('이는'이 가리키는 것이 없음. '이 때문에'가 적절함.)	조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조기매각해 → 조기로 매각해	서19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일괄 처리하는 →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서17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이후 서울구치소로 바뀌어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순감됐다.→바뀌었고, 주로	서28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튀니지에서 첫 실시된 민주선거에서 온건 이슬람주의 정당이 압승한 데다→처음	부16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Save the Neighbor'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이다.→'Save the Neighbor'에 그 작품들이 출품된다.(앞에 '작품 90여 점이 한자리에 모인다.'라는 서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어디어디에 그 작품들이 출품된다는 표현이 와야 함.)	매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소명 또는 조사하는 → 소명하거나 조사하는(소명 또는 조사를 하는)	매7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권한 것이지 강제 구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 →"~공부하라는 뜻에서 권한 것이지 강제로 사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	한26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잠정 발표되므로 → 잠정적으로 발표되므로(명사가	한1	해설

	용언을 수식할 수 없음.)		
3-2.호응, 일치 잘못	그의 명곡 퍼레이드는~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것이다.→그의 명곡 행진은~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강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콘서트를 모두 매진시키며→콘서트 입장권을 모두 매진하며	강2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잠정 발효되므로 → 잠정적으로 발효되므로(명사가 용언을 수식할 수 없음.)	한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뉴욕 상류층의 패션을 선보여 온 ‘앤디앤뎀’은 여전히 실루엣은 간결하고 미니멀하지만 일하는 용도로 잘 활용할 만한 디테일을 접목한 게 이번 시즌 특징이다.→뉴욕 상류층의 패션을 선보여 온 ‘앤디앤뎀’의 이번 시즌 특징은 간결하고 미니멀한 실루엣에 일할 때 활용하기 좋은 세부 장식을 접목한 것이다.	매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정식 요청하겠다 → 정식으로 요청하겠다	한1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호남…제주 해저터널은…불씨를 지켰다.→호남…제주 해저터널은…불을 지켰다.	제16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바다 밑을 뚫어 섬과 육지를 터널로→바다 밑을 뚫어 섬과 육지를	제16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국토해양부 및 관련업체에 따르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및 관련업체에 따르면…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서3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시설을 구비·설치하도록→설치하도록	서29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세이칸터널로 혼슈…훗카이도 간 53km다.→혼슈…훗카이도를 잇는 세이칸터널로 그 길이는 53.85km다.	제16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권 장관은 아예…안 된다.”고 강조했다.→권 장관은…안 된다.”고 강조했다. / 권 장관은 아예…안 된다.”고 못박았다.	서3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내뺄는 등 → 내뺄는 모습 등의	서18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강 산은지주 → 강만수 산은지주(이괄성과 대응)	서19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또 눈이 따끔거리고 건조해지는 안구건조증 등 <b>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b> →또 눈이 따끔거리고 건조해지는 안구건조증 등 <b>안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b>	경2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전문가들은 <b>직장인의 눈이 더 빨리 피로를 느끼는 이유를</b>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컴퓨터 사용 및 스마트폰의 잦은 이용 때문’으로 분석한다.→전문가들은 <b>직장인이 눈의 피로를 더 빨리 느끼는 이유를</b>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컴퓨터 사용 및 스마트폰의 잦은 이용 때문’으로 분석한다.	경2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소비자물가지수는 ~ 억제목표치를 뛰어넘었다 →	경3	해설

	소비자물가지수는 ~ 상승률이 ~ 뛰어넘었다		
3-2.호응, 일치 잘못	출마했다→출마한 것이다.	경5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또 세탁기에서는~제품도 내놓는다.→또 세탁기는~제품도 내놓는다./또 세탁기 부문에서는~제품도 내놓는다.	매1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베이징의 최저임금 → 베이징에서 정한 최저임금	경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베이징의 최저임금 → 베이징에서 정한 최저임금	경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소비자물가지수는 ~ 억제목표치를 뛰어넘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 상승률이 ~ 뛰어넘었다	경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중국의 올해 들어 두 차례 금리 인상 → 중국의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	매6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피로해진 <b>눈</b> 은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감퇴 <b>현상을 일으킨다.</b> → <b>눈이 피로해지면</b>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감퇴 <b>현상이 나타난다.</b>	경2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물가에 미칠 영향 → 물가가 받을 영향	경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적극 나설 → 적극적으로 나설	경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발생 가능성을 경계해야 → 발생을 경계해야	경3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늘어난 자산 → 자산 늘어난 이유	매7	해설
3-2.호응, 일치 잘못	파리까지 찾아가 반대 청원서…→반대 청원(‘찾아가’와 품사 간 호응이 필요함.)	경1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확정 고시할 → 확정하여 고시할	경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은 전직직제 편성훈련을 실시해 비상소집, 근무자 교육, 개인부서별 임무 숙지 사항을 전달했다.→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은 전직직제 편성훈련을 실시해 비상소집을 하고, 근무자 교육을 한 뒤, 개인부서별 임무 숙지 사항을 전달했다.	복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미국이 무인비행기를 사용하는 주목적인 탈레반 및 알카에다 지도자가 무인비행기 공습으로 살해된 경우는 33명에 불과하다.→무인비행기의 주목표인	경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날치기 통과되면서 →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경1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기자들 항의에…사과했다.→기자들이 항의하자…사과했다.	서3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이 전 국장과 돈을 전달한 기업 쪽 모두 합법적으로 받은 자료로 → 합법적인 자료로	경26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정부 향해서도 비난→정부도 비난/정부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어	경8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작공할 → 작공될(주어와 맞지 않음.)	경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3곳이 대상이다. → 3곳을 대상으로 한다.	경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도움이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 도움이 되지만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조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숙박까지 → 숙박하는 것까지(숙박의 앞은 다 동사	조16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임.) 있다는 지적이다. → 있다고 지적했다.	경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이 정부는 한마디로 명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u>좌파적 아니냐고</u>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 이 정부는 한마디로 명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u>좌파적이라고</u>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조12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완공할 → 완공될(주어와 맞지 않음.)	경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불법 매립한 → 불법으로 매립한	북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유네스코 본부에 직접 제출한 것을 비롯해, 조직적인 등재반대운동을 펴고 있다.→제출하는 등	경1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공식 확인됐다 →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조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갈등을 고칠 수→갈등을 해소할 수	한17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송모 지역발전정책국장과 주무 과장이 각각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파견 및 본부 진보 조치됐다. →이로써 지역발전정책국 송모 국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으로 파견되고 O모 과장이 본부로 진보 조치됐다.	서3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본류에 22조원, 지류에 20조원, 수질관리에 또 매년 수천억 원...→본류에 22조 원, 지류에 20조 원, 수질관리에 수천억 원	한20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조 목사의 부인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과 전 <국민일보> 회장인 조희준 모자의 →조 목사의 부인 김성혜 한세대총과 총장과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한19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비리사태를 보면 ‘힘 있는 사람’의 작태를 쉽게 볼 수 있다.→비리사태를 보면 ‘힘 있는 사람’의 작태를 쉽게 알 수 있다.	부11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대한민국 금융의 현주소는 ~ 정체가 있다는 ~ → 대한민국 금융은(현주소가 정체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음.)	부3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인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은 <u>알량한 자존심과 명예초차</u> 있는지. → 그런 자존심과 명예라도	부3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지난 3월 개시한 작전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 군 관계자들로부터 → 여름이 되자 군 관계자들로부터 지난 3월 개시한 작전이 ~	경2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혹시라도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 혹시라도 잔해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동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계속 확산에 → 지속적인 확산에	경16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잘하는 쪽은~반대는→잘하는 쪽은~못하는 쪽은	경20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쓰나미가 집을 덮쳐 몸부림치는 순간 → 쓰나미가 집을 덮치는 순간 몸부림을 치다가	동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두꺼운 소재를 사용해 몸을 가리는 의상을 선보였	매3	해설

	던 기존 추동 시늉과 달리 하늘거리는 실크 소재를 사용한 롱드레스와 속옷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얇은 시폰 소재를 사용한 블라우스 등 섹시한 의상이 돋보였다.→기존 추동 시늉에는 두꺼운 소재를 사용해 몸을 가리는 의상을 선보였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시늉에는) 하늘거리는 실크 소재를 사용한 롱드레스와 속옷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얇은 시폰 소재를 사용한 블라우스 등 섹시한 의상이 돋보였다.		
3-2.호응, 일치 잘못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방문 → 이곳을 방문한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1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진정으로 사과하고	서2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u>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u>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u>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그리고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돼야</u> 한다고 본다.	서37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시장창출 및 LED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선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비출 지원, 범부처 협력을 통한 융합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기로 했다.	서1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빈땅으로 방치돼 →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빈 땅으로 방치돼 (주차장도 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16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공동개발한 → 공동으로 개발한	조1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한국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중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중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28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쓰나미가 집을 덮쳐 몸부림치는 순간 → 쓰나미가 집을 덮치는 순간 몸부림을 치다가	동4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정부와 민간 → 정부와 민간단체	중5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화물기가 투입된 노선은 겨우 3편뿐이다 → 노선에 화물기가 투입된 경우는 겨우 3편뿐이다	한5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계속 → 계속적	한5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지난달 6~17일 북한에 파견해 현지 식량난을 조사한 바 있다.→6일 북한에 파견해 17일까지 현지 식량난을 조사한 바 있다.	서31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적극 검토해 →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5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혼란이 → 혼란을(앞 절과 일치)	한5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실화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연과의 사투에서 주인공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여타의 재난영화와 달리	광8	칼럼

	<b>결말은 선원 전원이 사망하는 것으로 끝난다.</b> →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연과의 사투에서 주인공이 극적으로 살아남는 여타의 재난영화와 달리 <b>선원 전원이 사망하는 색다른 결말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b>		
3-2.호응, 일치 잘못	여기에는 직접 생산효과 4800억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1조900억원을 창출했다.→이에 따른 직접 생산효과는 4800억 원,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 900억 원에 이른다.	제19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 착시현상을 체험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u>찾고 있다.</u> 그러나 안내문은→ 착시현상을 체험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u>찾고 있는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이다.</u> 그런데 안내판이	제17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관광객과 차량들이 <u>뒤엉켜 있는 모습은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u> →관광객과 차량이 <u>뒤엉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u>	제17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이 곳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이 곳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u>새롭게 만들어야 한다.</u>	제17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사후 조사관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우기 때 <u>조사 및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권고한 것</u>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권고한 것	제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道 “산란 여부 조사 필요”...시행사 <u>용역 “맹꽁이 없다”</u> →시행사	제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 양쪽 모두에서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체험할 수 있지만 정작 안내판은 한쪽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왕복 2차선인 이 도로에서는 양쪽 차선에서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정작 안내판은 한쪽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제12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존재감이 미약해 보이는→존재감이 미약한/존재감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중21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높게 하고 있다.→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사동형 ‘높게 하다’의 주제?)	제12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폭염 피해가 우려되면서 제주시는 시민 건강과 재산피해를 <u>최소화하기 위해</u> →시민 건강의 위협과 재산피해를 <u>최소화하기 위해</u>	제11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심지어 일부 업체 관광객은 비상등을 켜고 착시 현	제12	보도

	상 시작 부근에서 무단으로 유턴을 했고 일부 차량들은 역주행까지 했다.→심지어 일부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착시 현상 시작 부근에서 무단으로 유턴을 했고 일부 차량은 역주행까지 했다. (겉문장의 주어가 호응하도록)		
3-2.호응, 일치 잘못	의원들은 <u>줄서기눈치보기에</u> 독립성을 팔아 넘긴다. → <u>줄서기눈치보기를</u> 하느라고 독립성을 팔아넘긴다.	중14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문제는 사업 시행사측 <u>용역진이</u> 맹꽁이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u>시행사가</u>	제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서귀포시...제주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u>건설공사장에 대해</u> 공문을 보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요구했다.→건설 시행사에	제3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대북정책에서의 긴밀한 공조와→대북 정책 수립 시의 긴밀한 공조와	중28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입지발표 절차가 이렇게 미숙하나→입지발표 처리가 이렇게 미숙	매20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서구 학계가 인정하기 전 → 서구 학계에 인정받기 전	대8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절반의 권리 찾기가 우리 사회 구석에서 불고 있다. →절반의 권리 찾기 움직임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고 있다.	대5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돌돌 뭉친 지폐를→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돌돌 말린 지폐 뭉치를	부11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컨벤션산업의 가치와 시장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u>ICC 제주가</u> 회의도시의 메카로 성장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이때에 <u>제주도가</u> ...(메카는 도시에 사용하는 단어. ICC 제주와 제주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함.)	제19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재계가 요구한 <u>출자총액제한제</u> 를 비롯해 기업 규제를 많이 풀었다.→ <u>출자총액제한제</u> 폐지를 비롯해	동12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이번 사건은 ~ 복마전이다.	부3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존재감이 미약해 보이는→존재감이 미약한/존재감이 미약하게 느껴지는	대6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몸집을 줄이고 특성화를 통해 →대학의 몸집을 줄이고 특성화하여 →대학의 몸집 줄이기와 특성화로	대25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좋은 결정이든 나쁜 판단이든, → <u>옳은 결정이든 그릇된 판단이든</u>	대25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이 밭안은 ..... 마련된 대책인데	매21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대형.전문업체로 쇼핑 수요 이탈, 온라인 구매 확산 영향으로 소매업 등 국내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u>퇴출되고</u> 있기 때문이다.→수요가 이탈하	매13	보도

	고, 단속을 시행했고 아직은 자리가 잡히는 시기로 판 단해 홍보와 권고 위주로 하고 있다.→지금은(아직 은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고)	매11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비쳐지는가에 따라 → 비쳐지는가에	북18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밝힌 데 대해 → 밝힌 것은	북17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일부 관광객들은 착시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무단으 로 도로를 유턴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아찔 한 상황을 연출,→착시 현상을 체험하러 온 관광객 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서술어에 주어가 명백히 호응하도록)	제12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약제비 지출 절감, 과잉 진료 억제 방안과 함께 적정 보험료율을 인상해 수 입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약제비 지출 절 감, 과잉 진료 억제,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수 입을 늘려야 한다고	매12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스마트그리드 가전의 핵심은~최소화할 수 있느냐 다.→스마트그리드 가전의 핵심은~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다.	매17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수입이 좀 올랐다고 모든 혜택이 한꺼번에 없어지 니까→수입이 좀 올랐다고 모든 혜택을 한꺼번에 없애니까	매12	보도
3-2.호응, 일치 잘못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고, →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북15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미국 인구조회국 보고서에 따르면...부양한다.→미국 인구조회국 보고서에 따르면...부양할 것이라고 한 다.	동29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눈길이 간다.→서비스 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강16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만기가 속속 되면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질병과 실업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령화사회에서는 질병 과 실업의 위험을 줄여 주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매 우 필요하게 된다.	한18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엣그제 외신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우려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올린다.→사 이버 안보 상태가 우려스럽다는 섬뜩한 경고를 보 냈다.	서22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이 방안은 ..... 계기로 마련된 대책인데→이 방안/ 대책은 ..... 계기로 마련되었는데	경21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최근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각종 <u>임용시</u>	서7	칼럼

	협에서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최근 사법 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각종 <u>임용시험에서</u> 여 성의 <u>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다.</u>		
3-2.호응, 일치 잘못	적극 나설 → 적극적으로 나설	중5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만약 유럽과 미국 등을 휩쓰는 사회적 압력이 들어 왔을 때 대통령도 어떤 정책을 펼지 전혀 준비가 안 됐다.→후 압력이 들어오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 을 펼 수 있을지, 전혀 준비가 안 됐다.	매30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만일 정부가 이런 <u>의도라면</u> 계획을 빨리 바꿔야 한 다.→만일 정부가 이런 <u>의도를 가졌다면</u> 계획을 빨 리 바꿔야 한다.	대15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이념과 소득 등이 다원화되고 자유화된 요즘 사회 에선 법이나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는 불 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이념과 소득'을 한테 아우르기가 쉽지 않음.	대9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성장 방안 강구 등 → 성장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서1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배려는 감동을 주고 정정당당한 승부가 이뤄진다면 패자의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상당부분 누그러질 것 이기 때문이다. →배려와 정정당당한 승부가 보장되 어 있다면 사회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누그러질 것 이다.	서27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오랜 문제점을 눈감아 준다면→오랜 문제점에 눈을 감는다면	동13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지휘하고 → 지휘하게 되고	동7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소외지역 저소득층부터...개혁하는 것이다.→소외지 역 저소득층부터...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얼마나 가슴 뿌듯한 일이겠는가	동27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비교 검토한 뒤→비교하여 검토한 뒤	대25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국책사업이란 대부분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 기 위해 공약으로 내걸고 재미를 봤다.→대부분 선 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u>국책 사업</u> 을 공 약으로 내걸고 재미를 봤다.	대15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보너스 잔치까지 벌이며 흥청망청한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게 한다.→할 말을 잃었다.	서27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기소장 두께가 불어난다는→기소장이 더 두꺼워진 다는	조4	사실
3-2.호응, 일치 잘못	난상토론으로 → 난상을 하여	서1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원자폭탄 투하를 → 원자폭탄을 투하하자고(만주에 와 호응)	동7	칼럼
3-2.호응, 일치 잘못	(구대대행은) 중소기업인의 이익을 꺾어치는 역할을 맡고 <u>중간에서</u> 수수료나 챙기는 사례가 허다하다.→	경21	사실

	중소상공인을 쥐어짜는 역할을 맡으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깎는다.		
3-2.호응, 일치 잘못	입지발표 절차가 이렇게 미숙하나→입지발표 처리가 이렇게 미숙	경20	사설
3-2.호응, 일치 잘못	유가 인하 3개월 작전은 승패를 따질 필요도 없다. →유가 인하 3개월 작전의 성패는 따질 필요도 없다.	동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상반기 검사를 받은 10곳, ...1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상반기 검사를 받은 10곳, ...1곳은 경영 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3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2011~12시즌→2011~2012시즌	서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관련 → 이는 관련	서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제도가 → 이번 개선안은 제도가	서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업계에 → 업계의 주장에	서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버전과 → 버전 출시와	서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LH가 투자비를 대폭 축소, 민간건설업체들이 당당히 사업을 포기하는 등→축소하여	서2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8%~20% → 8%~20%로	서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워킹그룹을 구성,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구성하여	서2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실질적으로는 구조조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추진 방안이 실제로 구조조정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3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금융감독원 182명, ...이 투입된다.→경영진단반에는 금융감독원 182명, ...이 투입된다.	서3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내 코가 석 자'인...돌아섰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내 코가... 때문이다.	동2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불과 1분 거리에 동작서에는 책입이 없었다.→불과 1분 거리에 있는/불과 1분 거리의	서20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일정기간 → 사업이 일정기간	서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14일 → 14일에	동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구성 규모, 지원 시기 등은→금융안정기금의 구성 규모, 지원 시기 등은	서3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분비나무, 신갈나무 숲 같은→분비나무 숲,	동2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오전→오전에	중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특위 위원들 간→특위 위원들 간에	대1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학생 주도 집회→학생 주도 집회에	대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장관 직각·결석으로 지연 초유 사태→장관들의 직각과 결석으로 지연되는 사태	서1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비롯 → 비롯하여	대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재)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재)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의	대2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자생력→자생력의	대2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모든 생산라인 주문량 소화 풀가동→모든 생산공정, 주문량 소화하기 위해 풀가동	대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개교 → 개교 후	대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시논→보령시는	대2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7시→7시에	중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7회 말 터진→7회 말에 터진	중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그만큼 대손충당금을→그만큼 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동2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통과하면→'문화재보존영향검토' 심사를 통과하면	대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특기.적성 → 특기.적성을	대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조기 발굴하는 → 조기에 발굴하는	대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휴일근무 자청 출근→휴일근무 자청하여 출근	대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추진, → 추진하여	부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공주 한옥마을' 문화재청 무허가로 추진→'공주 한옥마을'(은) 문화재청 무허가로 추진	대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대신 문화재 전문가 3명을 지정해 자체적으로 '문화재보존영향검토'를 진행해 한옥마을 건축을 통과시켰다.→대신 문화재 전문가 3명을 지정해 자체적으로 '문화재보존영향검토' 심사를 진행해 한옥마을 건축 사업을 통과시켰다.	대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개발을 위해 → 개발을 하기 위해	부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상황 → 상황이다.	부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나로호 → 나로호의(조사가 안 들어 가면 의미가 모호해짐.)	조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매력을 알릴 수 있어 기뻐요"→매력을 알릴 수 있어 기뻐요."	북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6시30분→6시 30분에	중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뉴타운계획 → 이번 개선안에는 뉴타운계획	서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14일 → 14일에	동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미국 금융정책 기초→미국 금융정책 기초는	중18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1천975품목 → 1천 975개 품목	북1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7조원 가량의 특별 계정이 재원으로 활용될→특별 계정 7조 원이 금융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서3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백선이 선발 브랜드 나이트의 7과3분의2이닝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백선이 선발로 등판한 브랜드 나이트의 7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중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뒤늦게 죽음을 → 뒤늦게 가족의 죽음을	동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초등학교→초등학교에	중2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 경영상태 등을 반영해 부실위험이 있다며..."→반영해 금감원이 부실위험이 있다며	동2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있다"고→있다"라고	대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110억을→110억 원을	서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세계 금융시장→세계 금융시장에	중18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그동안 '정상'으로 분류한...쌓아야 하기 때문이다.→그 이유는 그동안...하기 때문이다.	동2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산업,일반·교육용 전기→산업용,일반용·교육용 전기	대1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정부는 → 그래서 정부는	조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화성시는 '꽃동산' 조성 사업에 현재까지 모두 69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13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이 사업을	조28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출발시에도 시속 20km로 느리게 진입해→출발 시에도 전동차가 시속 20km로 느리게 진입해	부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부동산업계→부동산업계의	강1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평창올림픽 준비→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강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전세가→전세가의	강1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해당 면적 이하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해당 면적 이하는 허가 없이 매매가 가능하지만,	강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고속화철도 직격탄 우려→고속화철도, 직격탄 맞을 우려	강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예정부지 330만㎡ 규모 너무 커→예정부지 330만㎡는 규모가 너무 커	강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세계경제위기 따른 정부 긴축예산 편성 영향 주목→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 영향에 주목	강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일제 쇠말뚝→일제 쇠말뚝이	강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녹색정원 조성용 기구 보급,→녹색 정원 조성용 기구를 보급하고,	강8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마지막→마지막에	강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9회→9회에	강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다.→아직 쇠말뚝이 제거되지 않고 있다.	강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강원교육연대 1만5,987명 지지 서명 명부 열람 마무리→강원교육연대가 제출한 1만5,987명 지지 서명 명부 열람을 마무리	강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클래식→클래식의	강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330만㎡규모가 너무 크다보니→330만㎡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강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그룹서→그룹에서	한1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끼고 있는 곳이다.→대덕연구단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을 끼고 있는 곳이다.	한1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전주엔 연금공단 등 검토→전주엔 연금공단 이전 등 검토	한1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학교 → 학교로	대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이건을 보이며 결렬 위기까지 갔다.→이건을 보이며 협상 결렬 위기까지 갔다.	대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10일과 주말→10일과 주말에는	대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연체율→연체율이	한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충당금) 대비→(충당금) 대비해	한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때문에 이준원 공주시장의 공약인→이 때문에 이준원 공주시장의 공약인	대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82%가 현재 빛을 지고 있는데→'응답자의 82%'인지 '쌍용차 노동자의 82%'인지 명확하지 않음.	한8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부분 마비시키는→부분적으로 마비시키는	한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과학벨트 핵심시설 거점지구는 대덕단지 가능성→과학벨트 핵심시설 거점지구는 대덕단지가 될 가능성	한1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해당지역에→해당되는 지역에	한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위치할 거점지구는→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 시설과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위치할	한1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부분 마비시키는→부분적으로 마비시키는	한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학교발전기금→학교발전기금의	한2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해당지역에→해당되는 지역에	한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상급 환경분야 기증→상급은 환경 분야에 기증할 뜻	동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건전성지표→건전성지표를	한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충당금 (대비)→충당금에 (대비해)	한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17일→17일에	한2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승강장 또 실족→승강장에서 또 실족 사고	부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지정 고시했다고 → 지정, 고시했다고/지정하여 고시했다고	경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2일→지난 2일	경20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박지성'→'박지성'이	경2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꽃 달린→꽃이 달린	경2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55갤런인지 → 그것이 55갤런인지는 떠나게 된다.→직장운동부를 떠나게 된다. 용인시의 직장운동부를 떠나게 된다.	경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조함→조함으로	경1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보내라→보내라고	경2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정비구역은 → 정비구역의 크기는	경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추진 여부를→프로야구단 창단의 추진 여부를	경1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구덩이가 → 거기에 구덩이가	경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최근 → 최근에	경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상급 환경분야 기증→상급은 환경 분야에 기증할 뜻	동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지정 관리하고 있다.→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관리	동2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것은 → 것은 그곳에	경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은 전시직제 편성훈련을 실시해 비상소집, 근무자 교육, 개인·부서별 임무 숙지 사항을 전달했다.→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은 전시직제 편성훈련을 실시해 비상소집을 하고, 근무자 교육을 한 뒤, 개인·부서별 임무 숙지 사항을 전달했다.	북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온-도크 서비스·전용도로 개설→온 도크 서비스, 전용 도로 개설로	북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신공항→신공항은	경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안전상 → 안전상의	경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경주시도 이날 (주)풍산 안강사업장 테러에 따른 국 지도발 사태 발발을 가정해→경주시도 이날 (주)풍 산 안강사업장에서 테러에 따른 국지도발 사태 발 발을 가정해	북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친절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으면 그분들에게도 그대 로 전달되잖아요.→친절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으면 그분들에게도 저희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북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류현진의 7실점 경기는→류현진이 7점을 실점한 경 기는	중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2일→지난 2일에	경1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발병 → 장출혈성 대장균의 발병	경1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가능하지만 → 조사가 가능하지만	경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무력 대응하겠다는 →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경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지난해 → 명수 군은 지난해	경18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지역 → 지역 등	경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공식 발표할 → 공식적으로 발표할	경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방침→방침을	경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이 대통령과 정부가→이는 이 대통령과 정부가/박 전 대표의 말은 이 대통령과 정부가(생략된 주어를 살려야 함.)	경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공격 → 공격의	경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높였다는 → 지대를 높였다는	경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용산 미군기지에 여의도 크기 국가공원 → ~ 국가 공원 지어	경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주변지역 조성 → 주변지역 시설의 조성	경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자동 → 자동으로	경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4.5m → 지대를 4.5m	경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6실점하는→6점을 실점하는	중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확실한 시장 신뢰도 확보를 밀어준다는 취지로, 구 구조정이 아닌...처음이다.→이는 확실한 시장 신뢰 도 확보를 밀어준다는 취지이며, 구조조정이 아닌... 처음이다.	서3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1000만 유로 식량 지원→유로로, 유로 상당의	서3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뒤늦게 죽음을 → 뒤늦게 가족의 죽음을	동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현실화 로드맵→현실화 로드맵을	매1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미 2차 양적완화→미국의 2차 양적완화가	중18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상품이나 서비스를 →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부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5실점한 데 이어→5점을 실점한 데 이어	중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대부분이 → 대부분의 가격이	북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중· 장기 발전 방안을 수 립,	북1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韓·美 FTA '속도'→한·미 FTA도 속도 낼 듯	조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생산 가능인구→생산 활동, 경제 활동	동2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관리방향 → 그 관리방향	경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2050~2060년→사이에, 간에	동2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국세청→국세청이	동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공평과제→공평과세를	동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비전을 공유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목표(비전)를 공유하고 <u>목표 실현에(비전 실현에)</u> 힘을 보태야 한 다.	동23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기초학문 보호 육성과 학생 부담 <u>최소화</u> 는 서울대 법인화법에 반영돼 있다.→기초학문 보호 육성과 학 생 부담 <u>최소화</u> 원칙은(?) 서울대 법인화법에 반영 돼 있다.	동23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이명박 정부는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의 개혁 대신 생필품 가격통제, 친서민 상생, 동반성장, 선심 성 복지, 공정사회 등으로 자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명박 정부는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의 개혁 대신 생필품 가격통제, 친서민 상생·동반성장·선심성 복지·공정사회 정책 등 으로 자유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동22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1955~1963년 태어난→사이에, 간에	동2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가속 화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대 기업에의 경제력 집중과 소득 양극화 현상이 가속 화하는 세계적 추세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나타났 다.	동12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비가 예보되자→비 올 것이 예보되자/비가 온다고 예보되자	동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왜곡 과장해→왜곡하고 과장해	동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전기료 올리되→전기료를 올리되	매1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워런트 ‘답’→신주인수권이 ‘답’	매18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MSCI 선진국지수 한국 편입 청신호	매2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6-5→6 대 5로	중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장 후반→장 후반에	매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3-0 완승을 거뒀다.→3 대 0으로 완승을 거뒀다.	중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이런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 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라 생각한다.→서로 문화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형성) 이라 생각한다.	제18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원주·횡성·영월 정선을 중심으로 한→원주·횡성· 영월·정선을 중심으로 한/원주, 횡성, 영월, 정선을 중심으로 한	강1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제주도 축산진흥원 삼거리 방면으로 차량을 몰고 온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신비의 도로 착시 현상 시 작 구간을 찾지 못해→제주도 축산진흥원 삼거리 방면으로 차량을 몰고 온 관광객들은 안내판이 없	제12	보도

	어 신비의 도로 착시 현상 시작 구간을 찾지 못해		
3-3.누락, 생략 잘못	누진제 부담→누진제 부담은	매1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현장에서 파손되는 →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되는	북10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비해 82% → 비해 입고량이 82%	북1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배우들 → 배우들의	조16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2000년→200년에	중22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비닐로 싸고 종이봉투에 넣어 곱게 포장한 종이학 125마리가 있었다.→상자 속에	조13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충분치 않다고 본다. (주어 빠짐) → 충분치 않다.	매21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국회 통과돼야→국회에서 통과돼야	조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관광객 빈자리→관광객의 빈자리	매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이 방안은 ……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주어 빠짐)	매21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등 → 산업 등	조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한다”고→한다.”라고	매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한국관→한국관의	경22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물렸을 → 물혀있을	경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접어들면 → 바로 접어들면	경17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내려받았다. → ‘푸딩 카메라’를 내려받았다.	서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한글 → 이는 한국어	서15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현대그룹→현대그룹의	매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한21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금강하굿둑 개선’과 <b>관련</b> ,→‘금강하굿둑 개선’과 <b>관련하여</b> ,	서9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글로벌엔에프지→글로벌엔에프지 소속	서4	보도
3-3.누락, 생략 잘못	때로 → 때로는	한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넌드플레이시 → 넌드플레이시의	한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값 급등 → 넌드플레이시값 급등	한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국토연구원 → 현장실사는 국토연구원	중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내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내년에 있을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중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교육 앱인 → 교육 앱을 만든	중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위동해운→위동해운의	중22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재질이 흩이나 도기다.→새의 재질이 흩이나 도기였다.	중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토 달 이유가 없다” 했다고 한다.→토 달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중21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인다.→아무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중2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대선주자들→대선주자들은	중7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오래 → 오래 사이트에	중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정부→정부의	중22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경제·사회적 부담을→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중7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하겠지만 일본에 →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일본에	중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피카소→피카소의	매1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제조사의 → 이것이 제조사의	매5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1선발→제1 선발	제2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부채 증가·고불가 영향 분석→부채 증가·고불가 영향 때문으로 분석.	제2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문화예술시장을 운영,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운영하며	제2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바로 → 이것이 바로	매5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잠정 발효를 ~ 밝혔다 → (주어가 없음.)	한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산란장 형성 단서→산란장을 형성한 단서	제2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1위인 → 1위인 게임을 만든	중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비판일자→비판이 일자	한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지킬 수 → 이길 수는	동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있었느냐”고→있었느냐”라고	동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80년대→1980년대	중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의사도 → 그 병원의 의사도	조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국민 열망 반영→국민 열망의 반영	중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오래 전 → 이것들은 오래전	중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양대노총 노동법 재개정 손잡아→양대 노총 노동법 재개정 위해 손잡아	동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여전히 → 국내 포털이 여전히	중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전시 제목처럼→이번 전시는 제목처럼(생략된 주어 를 살려 표현)	매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현대차가→현대자동차가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18~20%에 → 재발률이 18~20%에	조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6000홍콩달러 받고→6,000홍콩달러를 받고	중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내 집 마련 꿈은→내 집 마련의 꿈은	중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공약 발표→공약 발표에	중7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논란→논란에	중7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Civil War-1861~65)→(Civil War-1861~1865)	중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우리나라 학부모와 → 우리나라 교육은 학부모와	조1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勞→노(勞),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약속한 바 있다.→약속한 바가 있다.	한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충돌, → 충돌하여	조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미술관은 곧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이미 건축가 승호상이 디자인을 마친 상태이다.→새 미술관의	조2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5대양 6대주지만 → 5대양 6대주의 11개 덩어리로 보이지만	조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집행→집행은	동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국가 중요시설로 예약한 단체→국가 중요시설로서 예약한 단체	조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결정이 → 수술을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조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판이 아래위로 → 판이 나뉘어 아래위로	조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생산 → 생산을 위한	서1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2009년 → 지난해의 쌀 수확량은 2009년	서1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여의도→여의도동	동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FTA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협정문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협정문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동10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잡실, 문학경기가 시작됐다.→잡실, 문학 경기장에서 각각 경기가 시작됐다.	동2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이와 관련→이와 관련하여	서10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 성분을 → (그 성분이 가리키는 것이 앞에 나와 있지 않음.)	조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2009년 → 이는 2009년	서1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0.4cm에 → 암의 크기가 0.4cm에	조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책은→이 책은	한2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서로 → 서로에게	한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아니다”고→아니다.”라고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지표에 닿기 직전 파편 속도는 시속 30~300km가 될 전망이다.→시속 30~300km가 될 것 같다.	매3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자신의 → 그녀는 자신의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이내 → 이내에	조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반대,→반대하여	제16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도내 유일 무료 환승제 시행 안해→도내에서 유일하게 무료 환승제를 시행 안 해	북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공공건물 내진설계 비율 16% 고작→공공건물의 내진설계 비율, 16%가 고작	북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햇이슈로 → 반값 등록금이 햇이슈로	조1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수익률 고공 행진→수익률이 고공 행진	동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포항시를 비롯→포항시를 비롯하여	북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실패→실패,	조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국가정책으로서→국가정책으로서의	동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여성복은 풍성한 관능미를 앞세운→여성복은 장식 이 풍성하면서도 관능미를 앞세운	매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공약 실천→공약을 놓고 실천	동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지역 공약집’→‘지역 공약집’을	동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등→등의	동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램퍼트 말이→램퍼트의 말이	매1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연결고리였다.→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경기부양 유희에→경기 부양의 유희에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많을 거라→많을 거라고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지난주→지난주에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순복음선교회 사퇴→순복음선교회의 대표이사직 사퇴	한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봉사 전념 돕겠다→봉사에 전념하도록 돕겠다.	한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3년 전→3년 전의	한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비서실장 → 여기에는 비서실장	대10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만일 이런 방식을 시행하려면 비용부담 체계를 개편 국민들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는 게 순서다.→만일 이런 방식을 시행하려면 비용 부담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들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는 게 순서다.	대1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조건을 부여 대가를 안내면 사업도 줄 수 없다는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무차별 국책사업 유지를 막아보자는 계산이다.→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조건을 부여하여 대가를 안 내면 사업도 줄 수 없다는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무차별 국책사업 유지를 막아보자는 계산이다.	대1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프랑스를 비롯→프랑스를 비롯하여	대4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과학벨트 땅값 왜 대전시에 부담 지우나→왜 대전시에 과학벨트 땅값 부담을 지우나	대1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13만명을→정원의 13만 명을	대2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기억하다.→기억해야 한다.	대2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충청권 유권자 한 표 가치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충청권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대1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등 트리플 → 등의 트리플	매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1cm → 크기가 1cm	조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토 달 이유가 없다” 했다고 한다.→토 달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고 한다.	대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가능한 → 가능한 한	조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기존의 저층 건물 내진 보강 대책이→“기존의 저층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이	북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지난 4월23일→이는 지난 4월 23일에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환급금을 → 먼저 환급금을	대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9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	대4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경고 메시지→경고의 메시지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위험→위험성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복지 지출→복지 지출을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검색 → 검색 시스템/검색 서비스	중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낮은 시내버스 정책 경주관광 먹칠→낮은 시내버스 운행 체계가 경주관광에 먹칠	북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적어도 국민의 고통에~자세가 돌보인다.→적어도 국민의 고통에~보수 측의 자세는 돌보인다.	중2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획일적으로 → 여기에서는 획일적으로	매5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도로만 달리는 → 도로를 달리는 데만	매5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저축은행→저축은행의	한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는 다른 산업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하는 동안 아무것도 해놓지 못한 점을 꼽고 싶다.	매3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네티즌조차 → 네티즌의 분위기조차	중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대기 중 → 대기 중의	조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충돌, → 충돌하여	조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 → 그 차이 때문에 생기는(그가 가리키는 것은 비율임. 비율의 차이가 바로 연결되지 않음.)	매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미군 → 이것이 미군	동7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그렇지만 →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나라가	조1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관계자→관계자의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때→때의	매1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바로 잡겠다” 했다 → 바로 잡겠다.”라고 했다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필자만 → 이는 필자만	중1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여성용 화장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 둘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등을	서2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돈 걱정하지 않게→돈을 걱정하지 않게	대5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기존 정당들이 해보지 않은 실험이다.→이는 기존 정당들이 해 보지 않은 실험이다.	서3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국세청에서 → 그 돈을 빌릴 때에 국세청에서	매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냥 보는 전시가 아니라 첨단 영상미디어로 역사 속 주인공이 돼 체험하도록 꾸며놔서 아이도 어른에게도 재미있다”고 말했다.→“그냥 보는 전시가 아니라 첨단 영상미디어로 역사 속 주인공이 돼 체험하도록 꾸며 놔서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아이도 어른도 재미있다.”라고 말했다.	북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금속활자 → 금속활자본	대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직지 고장’인 → 박병선 박사가 ‘직지 고장’인	대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구텐베르크보다 →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대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5시간 정도 걸리며→걸어서 5시간 정도 걸리며	조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20~30m 떨어진 곳 쳐다보는 게 눈의 피로 푸는 데 좋아→20~30m 떨어진 곳을 쳐다보는 게 눈의 피로를 푸는 데 좋아	경2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한마디로 깔끔한 모던(modern) 보이가 대세다.→한마디로 깔끔한 모던(modern) 보이 풍이 대세다./한마디로 깔끔한 모던(modern) 보이 스타일이 대세다.	매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분당을은→분당을 유권자들은	경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양자-다자대화, → 양자-다자대화를 하여	경1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있어 인플레이션을 → 있어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경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대표적으로 → 이것에는 대표적으로	매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결제까지 → 물건값의 결제까지	매5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노사관계→노사관계의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133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신생아 1333명이 이 병원에서 태어났고	대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있다”며→있다”라며	매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것뿐만 → 것뿐만 아니라	대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등 → 등의	매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냥 → 이것은 그냥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별자리강좌와 다양한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보니 → 별자리강좌를 듣고, 다양한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보니	북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관람객이 스크린 절벽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터치하면 그 꽃이 수로부인에게 전해진다.→여기에 서는/이 존에서는 관람객이 스크린 절벽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터치하면 그 꽃이 수로부인에게 전해진다.	북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연예인들도 마찬가지로 했다.	매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포도 따고 별밤의 낭만 → 포도 따고 별밤의 낭만 느끼는(느끼는이 빠지면 따고란 표현을 쓸 수 없음.)	북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단체협약→단체협약./단체협약이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경주시 초청 마다가스카르 유소년축구단 시민 환대 받아→경주시가 초청한 마다가스카르 유소년 축구단, 시민 환대받아	북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축하는→축하하는	대2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재판부가 실형선고 → 재판부가 실형선고를 할	대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이유라는 것 → 것이다.	대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7일 → 7일의	서1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이런 → 먼저 이런	조20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2017년 생산연령인구가 줄기 시작하고→2017년부터 생산연령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조24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용인전철(주)이 30년간 운영권을 갖되 하루 평균 승객을 14만명으로 잡아 실제 승객 수가 예상치의 90%가 안 돼 운영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용인시가 그 차액을 모두 보전해 준다는 조건이었다.(주어가 없다)	조29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진상은 → 진상 조사는	조20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동2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정작 국민은 부패의 온상으로 보고 있다.→정작 국민은 그들을 부패의 온상으로 보고 있다./정작 국민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을 부패의 온상으로 보	부11	칼럼

	고 있다.		
3-3.누락, 생략 잘못	'생방송 퀴즈가 좋다'는 국내 최초의 생방송 퀴즈 프로그램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상금을 건 퀴즈 프로그램이었다.→그가 연출한 '생방송 퀴즈가 좋다'는 ..... 프로그램이었다.	매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민원 제기'서→'민원 제기'에서	광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만 쓴다?→화장실은	서2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이산화탄소 → 이산화탄소이다	조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매물폭탄 개미가→매물폭탄을 개미가	강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없었다 → 답변이 없었다	서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자타공인 실력과 뮤지션들과→자타가 공인하는 실력과 음악가들과	강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4년간 일기를 토대로 책 '4001'을→4년간 일기를 토대로 쓴 책 '4001'을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안돼→안 돼.	조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지역 갈등이 → 이번 발표는 지역 갈등이	서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당초 → 당초의	서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고등학교 평준화 전 서울의 명문고와 명문대를 나온→고등학교 평준화 전 서울의 명문고를 졸업하고 명문대를 나온	서7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17km.→17km로	조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떡볶이마저 대기업의 체인 사업이 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사례이다.	서27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12월 → 12월에	서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드비에 → 이 일은 드비에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주제전시 '천년의 이야기'는 신라의 탄생과 사랑, 삼국유사 속 재미난 이야기→주제전시 '천년의 이야기'는 신라의 탄생과 신라인의 사랑, 삼국유사 속 재미난 이야기	북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당→같은 당	조4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개인 물건→개인 물건처럼	조4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고발할뿐더러 → 고발할 뿐더러	조21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지난 20년 인구가 감소하면서→지난 20년 간 인구가 감소하면서	조24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팔팔한 미스타 리의 은밀한 외출→'팔팔한 미스타 리의 은밀한 외출'	강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증시 폭락 불구 환율 안정적→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정적	강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금감원 악성루머·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금감원이 악성 소문,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강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조기 개표됐다.→조기에	서3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목인할 → 이런 사건을 목인할	북1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매수→매수로	강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관련 → 관련하여	북1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두 차례 → 두 차례의	조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첫째, → 첫째는	조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공약으로 → 이를	북17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우풍 → 우풍하면	북17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일본의 → 이 요구는 일본의	북1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단독 표기해야 → 단독 표기를 해야	북1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작가들만→작가들의 작품만	매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우선 뒤편 할 수 있다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결정권자는 우선 뒤편 할 수 있다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매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하류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상류는 상수원 등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하류 지역은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상류 지역은 상수원 등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강1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도 출신→강원도 출신	강14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러나 여전히 몰락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그러나 전통시장은 여전히 몰락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강16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이제 2년 후면→'대통령 국제 음악제'도 2년 뒤면	강14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출장소→출장소의	강13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가야 한다.→이번 일을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 가야 한다.	강17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관측이다. →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서1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경기 충북 등에→경기, 충북 등에	강15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적절한지 → 적절한지에 대한	서1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트럭을 막는 사이 업체는→트럭을 막는 사이에 업체는	경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재정을 → 이는 재정을	서1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외규장각 의궤 → 외규장각 의궤 귀환	대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뿐만 → 그뿐만	대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오후 1시→오후 1시에	경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간접 지원에 나선 → 산은금융의 인수에 간접 지원을	서1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후회없이 좋은 추억을 안고→후회 없이, 좋은 추억을 안고	강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행정 편의주의 접근→행정 편의주의적 접근	강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한국 노사관계→한국 노사관계의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2007년→2007년에 일어난/2007년에 있었던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영국 옥스포드 출신인 자넬 단장은→영국 옥스포드 대학 출신인 자넬 단장은	북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가능성은 → 외국계 자본과 국내외 사모펀드 등이 인수를 할 가능성은	서1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테다 위안화 → 테다 거기에 위안화	경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 회사는 '듀티프리쇼퍼스'...글로벌 면세점 'DFS'다.→그 회사는 해외공항과 관광지(람 사이판 하와이 홍콩)에서 낮은 글로벌 면세점 'DFS'인 '듀티프리쇼퍼스(Duty Free Shoppers)'이다.	동2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국가 관리 아래서→국가 관리 아래에서	한21	사설
3-3.누락, 생략 잘못	원고승소 → 원고승소로	경2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산재요청한 → 산재요청을 한	경2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있어 한국의 → 있어 (주어) 한국의	경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서울 상계6동에→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에	경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 뒤 → 그 뒤에는(앞 문장과 의 관계를 따지면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함.)	한5	사실
3-3.누락, 생략 잘못	두 달 → 외무성은 두 달	경1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무효되는→무효가 되는/무효(가) 되는	한9	사실
3-3.누락, 생략 잘못	50년→50년의	한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있어 인플레이션을 → 있어 중국이 인플레이션을	경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대책 나서 → 대책 마련 나서	경2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48년 12월 7일자→1948년 12월 7일 자	중2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격려와 공감을 건넸다.→격려와 공감의 말을 건넸다.	동2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대화나 대결이라는 방향 → 대화나 대결 중에 한 방향	경1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바탕 → 바탕에	부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근로복지공단의 인식 전환과 절차 개선이 → 근로복지공단의 인식 전환과 산재 인정 절차 개선이	경29	사실
3-3.누락, 생략 잘못	시급 4110원을 기준으로 하루 12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한 달에 150만원 남짓 손에 쥐는 이들에게 <b>24만원 식비 공제의 부담은 컸다.</b> →시급 4110원을 기준으로 하루 12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한 달에 150만 원 남짓 손에 쥐는 이들에게 <b>24만 원을 식비로 공제한다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었다.</b>	경25	사실
3-3.누락, 생략 잘못	컴퓨터·스마트폰 <b>탓</b> 직장인 눈 오후 4시에 가장 피곤→컴퓨터, 똑똑(손)전화 <b>탓으로</b> 직장인의 눈은 오후 4시에 가장 피곤	경2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핵, → 핵과	조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된다” 등 → 된다’는 등	조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눈 종합검진 받을 때 됐다→눈 종합검진을 받을 때가 됐다	경2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세계선수권→세계선수권대회	경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잇따를 듯 → 잇따를 듯해	경2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있어 한국의 → 있어 (주어) 한국의	경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테다 위안화 → 테다 거기에 위안화	경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분명→분명히	중3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실효성이 의심되고(MRO 문제)…→의심된다.	동2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그런데 어떻게…→어떻게 이런 기사가 났을까?	동2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하지만 국제 인권단체들도 특정 국가의 인권 유린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하지만 <b>이런</b> 국제 인권단체들도 …… 않는다.(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여태까지 ‘국제엠네스티’에 대해 얘기했다면 그 내용을 연결시킬 말이 필요함.)	동2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2003년 개관 이후, 국제회의 171건을…유지했다.→ 2003년 개관 이후, ICC <u>제주</u> 는 국제회의의…	제19	사실
3-3.누락, 생략 잘못	일본 아사히신문이 <u>15일</u>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도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이 <u>15일에</u>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도했다.	매14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민·형사 책임을→민·형사상의 책임을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일부를 돌려주는→일부를 협력업체에 돌려주는	조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웨이퍼(원판) → 웨이퍼(원판)의	한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풍성한 실루엣→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면서도 장식이 풍성한 윤곽선/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윤곽선	매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불 만→불만해	조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매경 주최 日대지진 자선 미술전 6일 인사동 인사아트센터→매경이 주최하는 일본 대지진 자선 미술전, 6일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려	매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서울메트로·현대중 긴장→서울메트로·현대중은 긴장	중1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비밀흡피서→비밀흡피에서	서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홍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는…당장은 대선 주자도 아니다. <u>한나라당</u> 으로서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길이 된다.→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길이 된다.	서36	사실
3-3.누락, 생략 잘못	보편복지→보편적 복지, 보편적인 복지	한2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표→표들	동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효과적으로 쓰는→효과적으로 돈을 쓰는	동2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척 피니 같은…환원 같은…→방법이 바로 그 해답이다.	동2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1960년 영국 변호사 피터 베넨슨은 지하철에서 한 신문 기사를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자유를 위해’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내용이었다.→1960년 …… 휩싸였다. <u>그</u> 기사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자유를 위해’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내용이었다./1960년 …… 휩싸였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두 명의 대학생이 ‘자유를 위해’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동2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4년간 일기를→4년간 쓴 일기를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갇혀 있다.→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u>갇속</u> 에 갇혀 있다.	동2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보일 뿐→보일 뿐.	조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1988~1993년→1988년부터 1993년까지	조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비공개로 각 50분씩 → 비공개로 양 후보지당 50분씩	중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올해→올해에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최 대표가 2005년 예능국장을 맡았을 때 MBC는 굉장히 어려웠다. 프로그램도 안 되고 자신감도 결여돼 있어 나서길 두려워했다.→최 대표가 2005년 예능국장을 맡았을 때 MBC는 굉장히 어려웠다. 프로그램도 안 되고 직원들은 자신감도 결여돼 있어 나서길 두려워했다.	매15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경제위기를 걱정해주지 않는 정치가 야속하다는 불만이다.(주어 누락)	조3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연아는…필요하다”며 실천했다.→연아는…기부를 실천했다.	동27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못하면 증여세를 → 못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증여세를(주어가 오인될 수 있음.)	매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사돈팔촌의 아는 사람까지→사돈의 팔촌의 아는 사람까지	부1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최근의 흐름에 역행, 본인 확인을 강제하면서 되레 신상 정보 유출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역행하여	부1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들에게 별 어렵지 않다.→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들에게 그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부11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연 → 이자율이 연	매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서울대 KAIST→서울대와 KAIST	동2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공급 → 물건 공급의	한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정책, → 정책을	조19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전입자→전입자의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미국발 공포 확산 금융시장 대혼란→미국발 공포 확산에 금융시장 대혼란	강7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미국→미국의	매10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소득격차→소득의 격차는	한26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대가 그대를’ ‘덩크슛’→‘그대가 그대를’, ‘덩크슛’.	강2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잠정 발효를 ~ 밝혔다 → (주어가 없음.)	한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서로 → 서로에게	한1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서비스 산업을 연구하는 학문, 최근 세계적으로→서비스 산업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동19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제시,→제시하여	제16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1987년 노조 설립→1987년에 노조를 설립한	매8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5·18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아들 묘지에 평소 좋아하던 카스텔라 한 조각을 올려놓고 오열하던→5·18 민주화운동 때 희생된 아들 묘지에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카스텔라 한 조각을 올려놓고 오열하던	매2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북부제1교도소 발견→북부제1교도소에서 발견하여	북3	해설
3-3.누락, 생략 잘못	그 반대 방향으로 → 우리 군은 그 반대 방향으로	동7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다.’…좌우명이기도 하다.→‘수의(壽衣)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아일랜드의 금언(金言)이 있다. 이것은… 좌우명이기도 하다.	동28	칼럼
3-3.누락, 생략 잘못	지난해 → 이는 지난해	한7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부9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길거리 모집 등을 통해→길거리 모집 등으로	부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재정을 투입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27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개성적인 글쓰기는→개성 있는 글쓰기는	한10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안내시설의 부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안내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교통사고라도 날까 걱정스럽다.	제1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사회현상에 대한→사회현상의	한2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에 대한 준비를 해 왔다고→이를 준비해 왔다고	부9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서2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취지였음이 읽힌다. → 취지였음을 읽을 수 있다.	경1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있다는 지적이다 →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성명을 통해 → 성명에서	경1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서로에 대한→서로에게	매8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협정에 대해 → 협정을	한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도료의 경우→도료는	한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관객들이 매료됐다→관객들을 매료했다.	강1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진정이 제기되고 처벌이 내려지지만→진정이 제기되어 처벌을 내리지만	한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는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땅 투기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는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땅 투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부10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개뢰를 통해→개뢰로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국유화 논란이 불가피하다.→국유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한27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특별협의를 진행했지만→특별협의를 했지만	매8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초기 대응의 실패에 따른→초기 대응에 실패한	부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활성화 등을→활성화를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제재하는 등의 방안을→제재하는 방안을	경2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논쟁에 대해서는→논쟁에는	경2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간결해진 스윙으로 정확도가 높아져 홈런 수도 따라오고 있다는 평가다.→따라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1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구조조정을 한다는→구조 조정한다는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검토에 대해→검토에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내지→밝히지	경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관련 기관 및 단체→관련 기관과 단체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에 반대운 동을 벌이고→기록물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올 리는 데 반대하는 운동을	경1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인내심의 한계다. → 인내의 한계점에 이르렀다.	부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전쟁고발을 통해→전쟁 고발로	경2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관심을 갖고 있는→관심이 있는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당이 청와대와...가속화될 <u>전망</u> 이고,('전망이다'에 상 응하는 주어가 없다.)	서3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작업을 통해→작업으로	경2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힘일 것이다→힘이다	매2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수사가 이뤄졌다고 한다.→수사했다고 한다.	경11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전문인력의 육성은 <u>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u> →	서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채찍 측면에서→채찍 면에서	경2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한은과 금융당국 간의 '밥그릇 다툼'으로 변질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우려 때문이다.	서1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면(점)이 있지만 국제엠네스티는 이런 배경을 가졌다.→국제사면위원 회 출범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국제사면회는 이런 배경으로 출범하였다.	서3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금융상품 개발을 담당하는→금융상품을 개발하는/금 융상품 개발 업무를 맡은	동21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최 장관은 관련 법령 검토나 제대로 <u>한 것</u> 인지 모 르겠다.→했는지	매10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마음이 움직이지 <u>않을 수 없었다.</u> →마음이 움직였 다.	동1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있다는 지적이다 →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27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남북 ~ 분석이다. →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남북 ~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끌어내고 있는→이끌어내는	경1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수집 및 검토하고→수집하고 검토하여	경2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몇몇 최고위원들에 의해 흔들렸던 전철을 <u>밟아서는</u> →경험을 되풀이 해서는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떨어진다는 것 → 떨어진 것	서3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펼쳐지는 것이다.	경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며 “무인비행기 공습 피해 가족들이 점점 더 많이 소 송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테러 와의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므로 무인비행기 공습 피해 가족들이 점점 더 많이 소송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용문을 불필요하게 둘로 나 누는 관행)	대25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경8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봄날의 기운이→봄기운이	서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당정협의 등을 거쳐→당정협의를 거쳐	경2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그에 대해서는→그것은	경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들 문제가→이런 문제들이	매8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협의 등을 통해→협의로. 협의하여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희망 등을→희망을	경2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로 인해→이 때문에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침범하고 있다는→침범한다는	중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떨어진다는 것 → 떨어진 것	경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침묵 상태다 → 침묵하고 있다.	경1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시·도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한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고도의 외교력을 요하는 난제→고도의 외교력이 필 요한	중28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나는 가수다”를 통해 재조명된 90년대 가수들의 앨 범도 줄을 잇고 있다.→가수들도 줄지어 앨범을 내 고 있다.	서8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단점으로 인한→단점으로, 단점으로 말미암은, 단점 때문인	한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소매점→산매점(순화용어)	한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우선적으로→먼저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특별한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특별한 모습은 보 이지 않았다.	서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예정인데	경20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도쿄의 경우→도쿄는	한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비난이 있지만→비난을 받지만	중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대량 예금 인출 사태를 제외하고→대량 예금 인출 사태가 아니면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무너 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한27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필요하지 않지만 → 없어도 되지만	한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인식하는 대신에→인식하지 않고. 여기서 않고	한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질차 등을→질차를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제출한 것을 비롯해, 조직적인 등재반대운동을 펴고 있다.→제출하고 조직적인 등재반대운동을 펴고 있 다.	경1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널리 알려진 관광지임에도 안내문이 고작 1곳에 불 과하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널리 알려 진 관광지인데도 안내판/안내시설이 1곳에 불과하 니/고작 1곳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제1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공무원 등의→공무원의	한2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경쟁구조 속에서→경쟁구조에서	한2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핍하고 있다→핍았다.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사안에 대해서는→사안은	강1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양양군의 경우→양양군은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신진대사를 통해 → 신진대사로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받지	동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 시간과 싸우고 있다	동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 시간과 싸우고 있다	동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50만 달러의 상금을→상금 50만 달러를	동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기자회견을 갖고→기자회견에서	부1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구입한→산	중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요구된다.→필요하다.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검토할 일이다.→검토해야 한다.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부정적인 측면→부정적인 면	한2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읽게 하는→읽는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관광산업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부19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치우쳐 있다는→치우쳤다는	강1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나오고 있다.→나왔다.	강1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타 지역에서는→타 지역은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경쟁력 있게→경쟁력. 경쟁력을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요구된다.→필요하다.	강1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기대했다→기대했다.	강1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있다는 보도다.→있다.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낙산해변의 경우→낙산해변은	강1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된다.→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한다.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더 능동적인 자세로→더 능동적으로	강1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내린 가운데 나오는→내리면서 나온	강1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원칙적으로 유예된다.→미루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비판도 제기된다.→의문이다.	한27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협정에 대해 → 협정을	한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근거 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을 통한→근거 없는 금융시장 위기설 등으로	강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활력소가 될 것으로	강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보인다.→본다.	한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빠르기 때문에→빨라서, 빠르므로	광1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뉴욕시 주장을 일축했다.→뉴욕시 주장을 걸어차 버렸다.	중2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자료에 따르면→자료로는, 자료를 보면	광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피해를 입었지만→피해를 당했지만, 피해를 보았지만	광1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금융사의 전산망이→금융사 전산망이	중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느껴질 경우에는→느껴질 때는	광1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물놀이를 할 경우→물놀이를 할 때	광1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완도군에 따르면→완도군이 발표한 바로는, 완도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광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완도의 경우→완도는	광1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날씨로 인해→날씨로 말미암아, 날씨 때문에	광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눈병이 이미 걸린 환자의 경우 역시→눈병이 이미 걸린 환자도 역시	광1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전남지역의 경우→전남지역은	광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아닐 경우→아닐 때	광13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지자체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지자체 외국인 현황을 보면	광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광주지역의 경우→광주지역은	광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자부심을 갖고→자부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품고	광19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전복양식장의 경우→전복양식장은	광1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특별 외교이사회’의 결정사항이다 → ‘특별 외교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한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있다는 것. → 있다고 한다.	대1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7조원 가량의 특별 계정→특별 계정 약 7조 원이 /7조 원쯤 되는 특별 계정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특별 외교이사회’의 결정사항이다 → ‘특별 외교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한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떠넘기기 위한 의도가→떠넘기려는 의도가	광18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파손됐을 경우→파손됐을 때	광1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빙산의 일각	동1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존재하고 있다.→존재한다.	동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칭한다→일컫는다.	한2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아프리카에서의 의료 봉사를 결심한 것은→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하기로 결심한 것은	대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가슴으로부터의 경외심을→가슴에서 우러나는 경외심을	대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마련 중이다. → 마련하고 있다.	대8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여성이 사회와 가정에서 두 가지 일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사회와 가정에서 두 가지 일에 책임을	대5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포함돼야 한다./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14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소통 집’에서의 4년이→‘소통 집’에서 지낸 4년이	대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133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신생아 1333명이 이 병원에서 태어났고	대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수업이 진행될→수업을 진행할	중2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못할 경우→못할 때, 못하면	한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눈술에서는 수사법보다는 이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승부를 봐야 한다.→눈술에서는 수사법보다는 눈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한10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필요하지 않지만 → 없어도 되지만	한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정리됐다→정리했다.	한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학교 쪽에→학교에	한2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합법적 수단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합법적 수단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동2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제도 개선 및→제도 개선과	경2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북한이 파견한 600명의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면서 “이런 우리의 청원이 충분한 시간과 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북한이 파견한 600명의 특수부대 군인이었다. 이런 우리의 청원이 충분한 시간과 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인용문을 둘로 나누지 않도록)	경1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있는 실정이다 → 있다.	대7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측면→면	제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발생했다는 것 → 발생했다는 것이다	북1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군복에 대한→군복의	경2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반대 입장을 천명할 계획→반대임을 밝힐 계획	중2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검토 중에 → 검토하고	북1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소매점→산매점(순화용어)	한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것에 대해 → 것 때문에	북1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경주시는 17~19일 오전 9시 종합상황실에서 일일 상황보고, 17일 오전 9시 30분 전시주요현안토의,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5시에 종합강평보고를 각각 갖는다.→ 경주시는 …… 종합강평보고를 각각 한다.	북7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맘으로 인해→맘 때문에, 맘으로 말미암아	광14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을지연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을지연습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고	북7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협의다. → 협의를 받고 있다.	북1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처음 사용됐으며 ~ 나 있으며 ~ 전수되고 있으며 ~ → 처음 사용됐으며 ~ 나 있다. ~ 전수되고 있는데 ~	북1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 판단이 깔려 있다.	경1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못할 경우→못할 때, 못하면	한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시에 따르면→시를 다르면, 시가 밝힌 바로는	중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빈 라덴의 총애받는 아들이자 가장 믿음직한 심복 →빈 라덴이 총애하는 아들이자 가장 믿는 심복	중1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의존하는 경우→의존할 때	중2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에너지 소비효율 5등급 제품을 설치하게 된 배경과 사전 조사나 주민 설명회 없이 설치공사가 이뤄진 점 등에 대해 답변해달라”→설치한	제1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구형모델들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속한다.	제1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단전으로 인한→단전으로, 단전으로 말미암은, 단전 때문인	한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형식에 흐르는→형식에 치우친/형식적인	동3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비교적 안정상태를 유지했던 2, 3호기에 대해 멜트다운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비교적 안정 상태를	매14	해설

	유지했던 2, 3호기의 노심용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3-4.상투어, 비국어투	전력 소모 측면에서→면	제1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공간 속에서→공간에서	경2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그리고 있기→그러기	중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지난달 냉방시설 설치가 이뤄진 제주시 용담동 모아파트의 경우에→냉방시설을 설치한	제1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은	강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가/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강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왔다.	강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삶에 대한 회의→삶의 회의	강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눈리를 보면→태도를 보면	중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강1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차지했다.	강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지속된 것으로	강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업그레이드 한. 높은	강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고봉인 등의→고봉인의	강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요구에 대해→요구에	중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매매가 맞→매매가와	강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자연스러운 것이다.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포퓰리즘으로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복지제도를 가졌다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나라가 많다”면서→“포퓰리즘으로 …… 복지제도를(복지정책을) 펼쳤다가 …… 많다.”라면서	동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방사선에 의한→방사선 때문에	한6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기반한→기반을 둔	한20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받도록 하는→받는	한19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조 목사에 대해서는→조 목사에게는	한19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이 목사에게 존경을 보낸다.→이 목사를 존경한다.	한19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당 쇄신에 대한→당 쇄신	한17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가족들에 대해→가족에게	한19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임기응변식→임기응변의	한20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회전문’이 더해진→‘회전문’을 더한	중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당의 면모 일신을 위한→당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한17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교장과 교감에 대한→교장과 교감에게	한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초·중등교육법 등에→초·중등교육법에	한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반대한다는 뜻을 모은 것으로→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한17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실시→시행(순화용어)	한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민생 문제에 대해→민생 문제에	중21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가입금 및 예치금→가입금과 예치금	경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달려있는→달린	대25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실시된→실시한. 열린. 연	강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국립대에 대한→국립대의	대25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행사를 가진→행사를 한	대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한나라당의 경우→한나라당은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응변한다 하겠다.→응변한다.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런 식의→이런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회동을 갖기에 앞서→회동에 앞서. 만남에 앞서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지난해 10월 수확기 이후부터 흉작이 알려지면서 계속 올라 지난달까지 21.4%가 인상됐다”며 “콩 등 다른 곡물과 함께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10월 수확기 이후부터 흉작이 알려지면서 계속 올라 지난달까지 21.4%가 인상됐다. 콩 등 다른 곡물과 함께 한동안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인용문을 의미 없이 나누지 말도록)	경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공천기준에 대해→공천기준에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경실련에 따르면→경실련이 발표한 바로는	부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바로는	부8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열정 등이→열정이	강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잡음만 치솟았고,→잡음만 생겼고,	조8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에 의해 구조돼→부산교통공사 직원들에게 구조돼	부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부7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현장 답사를 통해...최대한 빨리 안내문을 설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설치하겠다(*설치하게 하는가? 설치하는가?)	제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현장 답사를 통해 관광객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를 한 뒤	제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도시농업체험교육장의 조성을 통해→도시농업체험교육장을 조성하여	강8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관망세만 계속되고 있을 뿐→관망세만 계속될 뿐. 관망세일 뿐	강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최고치 경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최고치가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다.	제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설명이다.→설명했다.	강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경경화를 비롯해→경경화,	강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민생 문제에 대해→민생 문제에	대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충남대는 물론 공주대로부터→충남대와 공주대에	대25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합의결과 관련해→합의설에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추진 등에 대한→추진의	강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똑같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주권에 대해 ‘차별’이 있다면 바로잡아	대16	사설

	야 한다.→.....똑같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주권을 ‘차별’당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3-4.상투어, 비국어투	입장 등을→입장을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의 증가를 나타냈다. → 증가했다.	대9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총선과정에서의→총선과정에서	대2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특성화를 통해→특성화로	대25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종시, 천안을, 대전권에 대해 의석수당 전국 인구 평균값을 넘는 만큼의 선거구 를 증설시키면 문제는 일거에 해소된다.→간단하게 생각하면 세종시, 천안을, 대전권에 의석수당 전국 인구 평균값을 넘는 만큼의 선거구를 증설시키면 문제는 일거에 해소된다.	대16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의지를 담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아니야고 관측 했다.	서2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내진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내진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부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빛공해 방지법안’을 통해→‘빛공해 방지법안’으로	한1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빈털터리로 제주에 내린 그는 서부두 여인숙에 하 숙을 정했다.→서부두 여인숙에 하숙했다.	제8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마련하기에 이른다.→마련했다.	제16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울인한 것이다.→온힘을 기울였다./온힘을 쏟았다.	제16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유로터널)로 인식되고 있다.→(유로터널)이다.	제16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내놓은 것이다.→내놓았다.	제16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있어서다. → 있기 때문이다.	서19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뒷골목의 전당포보다 못한 제도권 금융의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 해이라고 지적하지고 싶다.	부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실시→시행(순화용어)	한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금융기관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금융기관에 우선 자금 지원하기 위 해 마련한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아랍세계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될 것으 로 보인다.	부1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능성도 있다.	서2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열리는 제 5회 칠포국제제즈페스티벌 → 제5회 칠 포국제제즈페스티벌이 열린다.	부1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 같은 혼란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지할 수 있었다.	제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교체 대상에 포함된 장관들은 전원 참석한 것도 준 목되는 부분이다.→주목된다/주목할 만하다.	서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여권이 쇠신 바람 속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내각의	서11	보도

	굳이까지 빠진 것이 아니냐→어수선했는데		
3-4.상투어, 비국어투	택시들이 자선의 절반을 차지한 채 줄지어 서 있어 →차지하고	서20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시장 수요 유발을 통해→새로 만들어서, 증대하여, 늘려	동29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서대문형무소를 주제로 심포지엄도 이어진다.→열린 다.	서28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표시했고.→연설에 서	중28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비판에 대해→비판에	중22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전초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선→전초기지가 되기 위 해선	제19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엄격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엄격히 감시해야 한 다	서3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원부지가 사유지라는 점 때문에 정비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도로를 뺀 공원부지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정비사 업이 진척이 없다.	제1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까지 낳고 있는 것이 다.→자칫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제17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못한 상태다. → 못했다.	서18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다.→삭제(관광객을 불 러 모았다.)	제2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축소지향 주택개발' 주거환경 악화 우려	서3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체크카드 신상품의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가 불가피 할 것→체크카드는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수밖에 없 을 것	중2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결국 산다는 것은 저마다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것에 지나지 않는다. 것일 따름이 다.	중27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해매는 중이다. → 해매고 있다.	중1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모래처럼 흩어진 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거기 흔적은 남는다.→그렇 지만	중27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의외로→뜻밖에	중3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보현자연수련원의 경우 → 보현자연수련원은	북9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예정인데	매20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확정된다.→확정한다.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고,→모니터링을 하지 않 았고,	제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화기에애한 시간 을 가졌다.	북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기업 입장에서는→기업에서는	매18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타지방에서 자리돔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 이라고→쉽지 않을 것이라도	제21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나타났다.	제2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세종시 거주환경 조 성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에 맞춰져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확인에 맞추었다.	서2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지역 표심에 대한 유희과→지역 표심 유희과	동8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이 혼잡스러울 뿐만 아니 라	제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대부분의 공정이→공정 대부분이	매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대북사업'에 대한→대북사업'의	매9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컴스코어와 IDC 등에 따르면→컴스코어와 IDC 등 이 발표한 바로는, 컴스코어와 IDC 등이 말한 바로 는	매2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18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청 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매2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북한과의 협상에서→북한과 협상하면서	서3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뤄진 계획에 대해서는→이뤄진 계획은	부8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쇄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내각의 기강 역시 헤이해 진 것이 아니냐→빚고 있는데 내각의 기강까지	서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실정이다.	경21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제2의 카드대란'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2의 카드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부1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기능이 탑재됐다.→기능이 들어갔다.	매17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새로운 상품 개발→새로운 상품	매10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입장을 보였다.→입장을 밝혔다.	매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50만 달러의 상금을→상금 50만 달러를	동5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지난해에 비해→지난해보다	광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귀속시키고→귀속하고	한19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전남도에 따르면→전남도가 발표한 바로는, 전남도 가 밝힌 바로는	광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답보 상태이다.	동8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어렵다”→행 위는	동1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우리만의 콘셉트는 계속 가져가면서→유지하면서	동1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상습 밀렵자는	광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삼성그룹에 따르면→삼성그룹이 발표한 바로는, 삼 성그룹이 말한 바로는	매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언급할 말이→할 말이	매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초미의 관심사→큰 관심거리	매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승리를 굳혔다.→승리를	동2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아직 없다고	매1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자유로운 분위기가 더 <u>느낌 있게 다가왔어요.</u> →느껴졌어요.	동14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스트레스를 받고→	조27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전망을 봤을 때→전망으로는	매18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외국사람들의 관심 속에→외국인의 관심으로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로 인해→이로 말미암아, 이 때문에	매2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MSCI는 지수 사용료 등에 있어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등에 대하여	매2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사고로 인한→사고로	매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100원의 비용이 들었다면→비용이 100원 들었다면	매1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분당 600개의 제품을→제품을 분당 600개씩	매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만들어낸 것이다 → 만들어냈다	조2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숨김없이, <u>오롯이</u>	조25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성숙해 가기 위해→성숙하기 위해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위치한 → 있는	조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지구만이 가진 → 지구에만 있는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나로 인해→나 때문에	조0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은건 이슬람 세력이 새 정부를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것으로 보인다.	부16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승산이 적다→승산이 낮다, 이길 가능성이 낮다	조25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채관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뒤...형식으로 지원된다.→채관 발행 등으로 조성하며...형식으로 지원한다.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이익공유제에 대해→이익공유제가	조1	칼럼
3-4.상투어, 비국어투	축발시킨 → 축발한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대표팀 승선에→대표팀 합류에	서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위치한 → 있는	조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충격에 의해 → 충격으로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초토화시킨 → 초토화한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엇갈리는 식으로 → 엇갈려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최소한 65만명의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북한 주민 65만 명을	서31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광주시 남구가 발표한 바로는	광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만드는 것 → 만드는 것이다.(조사가 없다고 해서 굳이 틀렸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기자가 상투적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씀.)	조1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홍명보 감독이 16일 파주 NFC(축구 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주장인 홍정호와 함께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홍명보 감독이 16일 파주 축구 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주장인 홍정호와 함께 <u>연/</u> 참석한 공식 기자회견에서	대18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지역구의 핵심당원의 동의를가→지역구 핵심당원의 동의를	대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대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지지부진해질 경우→지지부진해질 때	대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이를 위해 → 이 때문에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민주당에 따르면→민주당이 발표한 바로는	대1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볼 수 있도록→볼도록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관련 자치단체 공무원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심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대17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공주시가 무령왕릉 등 백제 유적지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공주시가 무령왕릉 등 백제 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대17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무원은 해당 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공무원은 해당 단체가 시행하는 <u>건설공사를(는) 실</u> 의할 수 없다.	대17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등을 통해→등으로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총 4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직원 총 4000여명이 근무하고	대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나서고 있다.→나섰다.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15일 ~ 진행되고 있다. → (단순한 사실을 ~에 따르면 ~ 되고 있다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쓸 필요는 없음.)	대13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늘고 있어→늘어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문화에 대한→문화에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협상 타결이 이뤄짐에 따라→협상이 타결되어	대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이어갈 수 있도록→이어가도록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붙고 있는→부는	대24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대선이 예정돼 있어→대선을 치를 예정이어서	조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건축하는 경우에는→건축할 때는	광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합할 경우→합할 때, 합하면	광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따를 경우→따를 때, 따르면	광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폭우로 인해→폭우로 말미암아, 폭우 때문에	광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출하할 수 없기 때문에	광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앞두고 있는~앞둔	광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고라니로 인한→고라니로 말미암은, 고라니 때문인	광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보상이 가능해진다→보상할 수 있어진다	광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비준 여건에 있어→비준 여건에	조9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멧돼지로 인한→멧돼지로 말미암은, 멧돼지 때문인	광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지구만이 가진 → 지구에만 있는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만들어낸 것이다 → 만들어냈다	조2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기회를 갖지 못했다→기회를 얻지 못했다	경4	사설
3-4.상투어, 비국어투	피해를 입었다→손해를 입었다, 피해를 당했다, 피해를 보았다	광1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야생동물로 인한→야생동물로 말미암은, 야생동물 때문인	광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길병원 ~ 한다”고 → (어미 ‘-거나’가 너무 많이 쓰였음.)	조15	해설
3-4.상투어, 비국어투	신속한 구조조정에 대해→신속한 구조 조정에	서32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장기 실종자에 대한 전담팀→장기 실종자 전담팀	서26	보도
3-4.상투어, 비국어투	저자에 따르면→저자를 따르면, 저자가 말한 바로는	중10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삼성그룹은 모바일오피스. 2009년 도입된→삼성그룹은 모바일오피스로 2009년 도입된	매2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조평통 → 조선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경14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마니아적 성격이 강하다고	동14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한국거래소가 20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D)과 지수정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이 체결할 날짜인지 알려진 날짜인지?)	매29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친인척 중용을 배제하고~약속했다.→	한19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그도 고객 연봉을 받는 B은행의 감사로→그도 N은행에 고객 연봉을 받는 감사로	서7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지난해 말 현재 → 지난해 말/현재	부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지난 2009년 3월 정부의 입장 정리로 잠잠해졌던 금강하구의 해수(바닷물) 유통 논의가 최근 충남이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두 자치단체 입장을 동시에 반영시킨다는 것을 <b>전제로 가능성을 내비쳐 다시 전화됐다.</b> →최근 충남이 ‘금강비전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두 자치단체 입장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지난 2009년 3월에 정부의 입장 정리로 잠잠해졌던 금강하구의 해수(바닷물) 유통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서9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어떤 의미로 각인됐는지 궁금하다.→고려대 의대생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하다.	대3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이들의 삶의 족적은 커다란 시사점을 전한다.→이들의 삶의 족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대3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5·24제재	동27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유가 결정의 비대칭성	동13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한 사회의 개념을 세우고 싶다면 감옥에 누가 있는지 가보라’는 미국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존 듀이의 말도 그래서 새롭다.→	동21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전세 및 관광버스료→전세·관광버스료	경9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 규모가 전체 우리나라 금융부채 중 비중이 작아→(*정확한 근거 없이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부채 중 비중이 작다고 말하고 있다)	경20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55켈런 → (55켈런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경17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서민들 <u>사금융</u> 내몰릴수도→사금융엔, 사금융으로	동2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모두 9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환자들이었다 → 모두 중환자이거나 90세 이상 고령자들이었다.	동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20여 명은 노트북으로 기사검색을 했고, 아이패드를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는 의원이 있었다.→20여 명은 노트북으로 기사검색을 하거나 아이패드를 꺼내 전자우편을 확인했다./20여 명은 노트북으로 기사검색을 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아이패드를 꺼내 전자우편을 확인하기도 했다.	동11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모두 9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중환자들이었다 → 모두 중환자이거나 90세 이상 고령자들이었다.	동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하회탈처럼 웃어넘겼다.(질문에 대하는 태도가 무책임하다는 의미로 쓴 것인지 원내대표의 웃는 모습을 하회탈에 비유한 것인지 의미가 모호함.)	동27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기부도 사업처럼 한다. 남에게 힘이 되는 곳만 골라 효과적으로 쓰는 방식으로.→기부 방식은 사업처럼 하기도 하고 남에게 힘이 되는 곳만 골라 효과적으로 돈을 쓰기도 한다.	동28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전했다.(누가 누구에게 전했다는 것인지 모호함.)	매10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의 임금 과세 수준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여금 증가로 고소득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층의 임금 과세 증가폭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23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영남 출신 유권자가 40%를 넘고 보수성향이 많다. →	경5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거시 건전성 강화	서12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인인 농산물의 대중국 수입비중도 →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인인 농산물도 대중국 수입비중이(중의적)	경3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선(先) 남북관계 얘기 →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인 표현은 아님.)	경14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 양쪽 모두에서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현상을→양쪽 차선에서 모두	제12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왕복 2차선인 이 도로는 양쪽 모두에서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현상을→양쪽 차선에서 모두	제12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5월 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 중단하겠다고 5월 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선언했다.(선언한 것을 꾸며주는 범위가 모호함.)	경14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휴식을 취할 때는 <b>과도한 근거리 작업</b> 에 의한 눈의 피로를 덜어줘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것보다는 20~30m 떨어진 먼 곳을 쳐다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b>근거리 작업을 과도하게 해서</b> 생긴 눈의 피로를 덜어주려면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것 보다는 20~30m 떨어진 먼 곳을 쳐다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경23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비의 심리학	동26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좌(左)클릭’ 논쟁	서36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하지만 그 전에 동남권 공항을 ‘허브화’할 것인지 ‘거점공항’으로 할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서2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대선주자, 그리고 → 대선주자나(박근혜와 민주당이 같은 대상으로 보일 수 있음.)	한5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결정을 → (신공항 위치 결정인지,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지)	한5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음악제를 주관하는~민간인으로 이관됐다.→	강14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의 95% 소유의무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로 위험 전이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다.→금융기관이 대형화로 지배력을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겸업화로 위험을 다른 데로 전가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한27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b>확장</b> 억제에 실효성 강화를 약속했다.	중28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긍정적 결과가 제시되더라도→사업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16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모든 분야에 걸쳐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	중28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수준이었을 것이다.	대26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쿄의 경우 23개구는 →도쿄는 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3개 구에서	한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쿄의 경우 23개구는→도쿄는 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23개 구에	한2	보도

	서		
3-5.모호함, 난해함	선진국에선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에 ‘사업기회 박탈’ 개념을 적용해 불공정거래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 선진국에선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는 불공정거래로 보고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21	사실
3-5.모호함, 난해함	금융위 출신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주로 정부기관을 상대한다는 이유로 퇴직 후 민간기업·은행 감사직에 채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주로 정부기관을 상대하는 업무를 했다 이유로	서10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1,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체험 및 홍보행사를 열어 미니화분만들기, 아파트 공간 텃밭상자 등의 전시회를 열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1,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체험 및 홍보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는 미니화분만들기, 아파트 공간 텃밭상자 등의 전시회를 열어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강8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전사자 62만 명→전사자 62만 명에 이르는	중20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미국도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다.→미국도 마찬가지다.	중20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비상 → 비상(飛上)	대12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공주 한옥마을’ 문화재청 무허가 추진→‘공주 한옥마을’(은) 문화재청 무허가로 추진	대17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현대사 기록의 진실 무대를 탈환해야 한다.→현대사 기록의 진실을 탈환해야 한다.	중20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문서→구체 문건 제시 필요	조25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국사 과목은~축소되기 시작했다.→국사(과목) 교육은~축소되기 시작했다.	중20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역사 공간을 접수한 세력이→정권을 잡은 세력이	중20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보통 일본인은→일반 일본인들은	조25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통해 전력요금 절감 작동 기능이→자동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료를 절감하는 기능이	매17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모바일오피스에 가장 적극적인 계열사는 삼성전자. 작년 하반기부터→모바일오피스에 가장 적극적인 계열사는 삼성전자로 작년 하반기부터	매2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범무성 문서에→구체 문건 제시 필요	조25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관광객 700명에게 쪽빛으로 넘실대는 푸른 바다 물들이기 체험행사를 열어 피서객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렸다.→‘쪽빛으로 넘실대는 푸른 바다 물들이기’ 체험행사를 열어 피서객 700명에게 도시농업을 알렸다.	강8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동식물상 분기 1회 조사’→‘동식물상 분포 1회 조사’	제3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대주주 자구 노력을→	서32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이를 위한 경영진단→구조 조정을 위한 경영진단	서32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이미 50~70%의 지방비를 부담해 완공한 스킵프 경기장→이미 전체 경비의 50~70%를 지방비로 부담해 완공한 스킵프경기장	강10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경주시도 이남 (주)풍산 안강사업장 테러에 따른 국지도발 사태 발발을 가정해→경주시도 이남 (주)풍산 안강사업장에서 테러에 따른 국지도발 사태 발발을 가정해	북7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우리가 당장 승산 없는 포퓰리즘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 곧, 전쟁을 끝내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주체를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체를 얼버무림.	조25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동해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27일부터 비천동 잇꽃공방에서 492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친연염색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동해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월 27일부터 비천동 잇꽃공방에서 친연염색 체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492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강8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비판을 받는다는 고려도 작용한다는 분석이다.→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조9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정책인지 주택정책 변화인지)	서35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자연 수명이 끝나면→죽으면	조1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일본이 제한송전에 들어간 것은 일제히 가동이 중단된 원전 의존도가 3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일본이 제한송전에 들어간 것은 전체 원전 중에서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3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일본이 제한송전에 들어간 것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30%를 넘는데 이들 원전이 일제히 가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한4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이 위치할 거점 지구는→‘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이 무엇을 수식하는지 모호하고, ‘본원’이 ‘중이온가속기’에도 걸치는 것 같아서 어색하다.	한11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철거→개발·관리 방식 전환 → 철거에서 개발·관리 방식으로 전환	서13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열린 사고	제4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이상 징후를 포착해→이상한 김새를 알아차려	경11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최근 3D 게임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먼저 율적인 것은 게임업체들이다. → 최근 입체영상 게임의 성장세는 괄목할 만하다. 먼저 성장을 주도한 쪽	조11	해설

	은 게임업체들이다.		
3-5.모호함, 난해함	선진국에선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에 ‘사업기회 박탈’ 개념을 적용해 불공정거래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선진국에선 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거래에 ‘사업기회 박탈’ 개념을 적용해 이들 사이의 거래는 불공정 거래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21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투표율 전망의 가변성을 높였다.→투표율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였다.	부19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15개 유명 카페와 레스토랑 → (카페가 15개인지, 카페와 레스토랑을 합쳐서 15개인지 모호함.)	조16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매월 2, 4째주 ~ 개최된다. → (별빛나이트투어가 실시되는 곳이 모호함.)	북9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원전 1호기에 이어 2, 3호기도 잇따라 멜트다운(노심용해) 현상으로 핵연료 전체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고→원전 1호기에 이어 2, 3호기에서도 잇따라 노심용해(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핵연료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이미 노심용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아닌지 모호함.)	매14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축구는 우정으로 문화가 만나는 스포츠여서→	북5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그룹 차원에서 170여개의 차명계좌를 파악했으며→부산저축은행의 그룹 차원에서	서21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한복은 부피감이 있어 위험해→	서5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농촌·고택체험 → 농촌·고택 체험(체험을 띄어 쓰지 않아 농촌 체험이라는 의미가 모호하게 느껴짐.)	북9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물론 ~ 않는다. → 문장이 너무 깊.	매7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 동맹	중28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강릉과 원주를~올랐다.	강11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아카마루 보고서	조25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시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그들이 한 말이라면 큰따옴표로 묶어 줘야 하고, 플래카드 등에 쓰인 말이라면 그런 정황이 기사에 드러나야 함.	북5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내전(內戰)을 겪은 나라일수록 험악하다.→내전(內戰)을 겪은 나라일수록 논쟁 분위기는 험악하다.	중20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망가진 주택과 얽힌 전선 사이 → 망가진 주택이나 얽힌 전선 사이	동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돌아보며 발전하는 → 돌아보며, 발전하는	대12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립프절 전이까지 → (립프절 전이를 잡을 수는 없음. ‘립프절 전이가 되기 전에 감상선암을 잡은 것	조15	해설

	인지, '렘프절로 이미 전이가 된 갑상선암을 잡은 것인지 모호함.)		
3-5.모호함, 난해함	역사의 절반을 여성이 만들 것인데도 말이다.→과거의 역사는 남성이 다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여성이 절반을 만든다는 뜻이라면 올바른 사실 제시가 아님. 과거에도 여성은 역사를 만드는 데 동참해 왔음. '역사의 절반은 여성이 만드는 것인데도 말이다.'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봄.	대5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표지가 도로 양쪽에만 설치됐어도→표지를 (~ 방향) 차선에도 설치했더라면	제12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한 게 아닌가 싶다.→한 것 같다.	대26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아니라는 판단이다.→아니다.	대26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인인 농산물의 대중국 수입비중도 → 국내 물가상승의 주요인인 농산물도 대중국 수입비중이(중의적)	경3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삼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	동25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재산이 500만 달러'뿐'이니.(지금 가지고 있는 돈인가, 자선 단체에 몽땅 기부한 직후 없는 돈인가?)	동28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망가진 주택과 얽힌 전선 사이 → 망가진 주택이나 얽힌 전선 사이	동4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요금 야당 의총인지 최고위(원회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동11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18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5·24조치	동27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10승6패를 거둔 삼성의 떠오르는 젊은 에이스다.(중의성)	제25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소비시장과 소비력을 넓히고 높인다면 → 소비시장을 넓히고 소비력을 높인다면	대14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국민연금 사각지대	동29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공항공사는 공고문에서 냉방시설(에어컨)을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모델로 23평, 25평의 경우 정속형으로 소비전력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며, (다른 평수는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제15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뉴욕 상류층의 패션을 선보여 온 '앤디앤뎀'은 여전히 실루엣은 간결하고 미니멀하지만 일하는 용도로 잘 활용할 만한 디테일을 접목한 게 이번 시즌 특징이다.→'미니멀하지만'이 실루엣에 걸리는지 디테일에 걸리는지 모호함.	매3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 → (무엇과 무엇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인지 모호함.)	조18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최소한 370만원의 등록금을 벌어야 2학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최소한 370만 원을 벌어야 2학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서33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따스한 느낌을 주는 베이지색과 갈색에 검정색과	매3	해설

	과란색의 디테일을 사용했다.→전체적으로는 따스한 느낌을 주는 호린 노랑과 갈색을 쓰면서 세부적으로 차분한 느낌을 주는 검정색과 과란색을 썼다.(?)		
3-5.모호함, 난해함	공·부정적 측면→사업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제16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세계 진출 ~ 자금 이탈 대비해야 → '세계 진출 ~ 자금 이탈' 대비해야	매6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초대로 입장할 수 있다. → (초대의 주체와 객체 모두 모호함.)	조15	해설
3-5.모호함, 난해함	'모래시계 검사'	서36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강원도, 숲 훼손 최소화 부심→최소화 위해	동25	보도
3-5.모호함, 난해함	아니 할 수 없다.→하지 않을 수 없다.	대26	사설
3-5.모호함, 난해함	빛내서 집 사고 ~ 늘어났다. → (자식들 교육에 쓸 아빳는 돈이 늘어난 이유는 좁아진 취업 문을 뚫기 위해서임. 여기서는 빛내서 집 사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조18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위압적인 동상이→위압적인 크기의 동상이	중20	칼럼
3-5.모호함, 난해함	가계부는 갈수록 주름져 → (일반적인 비유적 표현은 아님.)	조18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나는 친일 인사를 기려서 만든 상을 더 이상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졌다. (중략)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대선배의 명예가 더럽혀졌지만 나는 그래도 장지연 상을 자랑으로 간직하고자 한다.	조12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이름을 잘못 붙이는 바람에 공연히 굵어 부스럼을 만든 측면이 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지금의 이념논쟁이 실속 없이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다.→근거 부족	조1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이 도착해 국무회의는 예정된 시각을 7분 넘긴 뒤에야 시작했다.→도착하자 국무회의는 8시 7분에야 겨우 시작했다.	서11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그래도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 아기 백일에 대한 감회는 여전하다. '지난 백일' 못지않게 '남은 백일'도 각별하다.(앞 뒤 문장 사이에 논리가 부족하다.)	제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두 지각 사이에 → (한 덩어리의 팬틀이 두 지각으로 나뉜 얘기는 앞에 나오지 않음.)	조2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행복한 사람들이다.→삭제	서7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70년 뒤, 이번엔...사회라 할 수 있을까.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대처는 '한 곳' 차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건전한...저급한 '선전'이다.→정부의 정책 발표 태도는 건전해야 할 '정책 홍보'를 저급한 '선전'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서34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대학도 ~ 불과하다. →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문	조18	칼럼

	장인데, 각 문장의 내용이 썩 어울리지 않음.)		
3-6.비논리, 모순, 억지	교육은 ~ 퇴출시켜야 한다 → (전체적인 글과는 조금 성격이 다름.)	조18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고실업률과 ~ 비롯된다. → (비약이 심함.)	대14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미래의 파국을...쏟아부어야 한다.→비약.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정확히 제시할 필요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질병보다 사람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의사가 아닐까?→논리 전개에 비약이 이루어짐. 마무리 문장으로 적절치 않음.	대3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우리 자식 세대에겐 빚더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지금 사회지도층의 심리상태는 70년 전 일본을 빼다 닮았다.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재정파탄이 예정돼 있는데도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이들이 제 실력으로...성공과 성취의 가능성 아닌가 (이들이 제 실력으로 대학에 가고 장학금으로 공부해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 자체는 이미 성공과 성취를 한 것이지 '가능성'을 심어 주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공교육을 개선해서 이들을 성공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라 질 좋은 공교육을 받고서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 주자는 논리로 가야 앞 문단과 글의 흐름이 일치한다.	동27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어떻게 해야 백만장자가 되나요..." "억만장자부터 되세요." (백만 장자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 해 주지 않고 백만 달러 보다 더 많은 억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답변이다.)	동28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세계를 ~ 무덤이었다. →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의 구굴도 한국에서는 이들에 밀려 힘을 쓰지 못했다.	중13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서로 물어뜯는 데 정신이 팔려 있다. → (토종 포털끼리 서로 물어뜯는다고 되어 있으나, NHN과 다음이 신고한 것은 토종 포털이 아닌 구글임. 다음과 에스케이 컴즈가 손잡고 네이버에 맞서는 것을 물어뜯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중13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사교비 경감 ~ 높다. → (사교육비 경감이 학생들의 만족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함.)	대12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포털의 급성장도 꺾어지는 추세가 분명하다. → (국외 포털인 구글이 모바일 인터넷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를 포털의 급성장이 꺾어지는 추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움. 한국 포털이라고 한다면 논리가 맞겠음.)	중13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등록금에만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사립대학 → (모든 사립대학이 등록금에만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대학이라는 논리로 글을 진행하고 있음. 취약하지 않은 사립대도 있음.)	조18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따뜻한 봄 날씨와는 달리 사건사고가 많은→특정한 날씨와 사건·사고는 상관관계가 없음.	서5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국제 활강 경기장 기준...남한에 가리왕산 중봉지구 밖에 없다.→ 강원도에 가리왕산 중봉 지구밖에 없다.	동25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보호 수송을 옮겨 심고	동25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후세 언론인 누구도 그런 명문(名文)을 쓸 능력이 없다.	조12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서23	사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복지서비스보다 사회안전망이 먼저다	서23	사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역사책에 그들은 대한민국을 망친 'A급 전범'으로 기록될 지 모른다.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그녀는 훨씬 무서운 가해자가 꽤 있었다.→'4001'을 출간했다는 서술 뒤에 '그 책을 읽어 보니'라는 전제가 되는 문장이 와야 함. 거두절미한 느낌이 있음.	조0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생각 ~ 있다.' → ('생각 한 줌 생각 한 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설명이 부족함. 독서 시간에 대한 설명도 부족함.)	대12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항간에선 퇴직 후 자리를 염두에 둔 보신주의 때문이고 공경위에도 전관예우 금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항간에선 퇴직 후 자리를 염두에 둔 보신주의 때문이므로 공경위에도 전관예우 금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온다.	경21	사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다만 예외 없는 경쟁만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복지는 나빠질 우려가 있다. 음악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는 사회 안정만은 갖춰져야 한다.(불필요, 부적절, 주제 벗어난 내용)	조10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경주에는 ~ 문화유적이다. → ~ 문화유적이라 할 수 있다.	북18	사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고소득 전문직이→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동6	사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서울대생들은 후배들에게 법인화의 기초를 다진 선배로 남을 것인지, 법인화에 반대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선배가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동23	사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지자체가 영터리 사업으로 재정을 거덜낸 사례는 이것뿐이 아니다. (용인시는 현재 재정을 거덜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을 뿐이다.)	조29	사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법안을 깔고 앉아 진행을→법안 처리를	조4	사실
3-6.비논리, 모순, 억지	정치에 속도전을 바라서는 안 된다. …… 정치와 시장의 <u>스피드</u> 격차가 정치권에 고스란히 ‘파괴적인 충격’으로 전달된다. 속도 감각이 없는 없는 정치인만 불쌍해 보이지는 않는다.	조30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인류애와 민도를 시험하고 있다 →	중5	사실
3-6.비논리, 모순, 억지	그러나 → (앞 문장과 내용이 이어지지 않음.)	조0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미래의 과국을 예고하는 한국판(版) '아키마루 보고서'는 수백, 수천 종류가 나와 있다.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두 지각 사이에 → (한 덩어리의 맨틀이 두 지각으로 나뉜 얘기는 앞에 나오지 않음.)	조2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항간에선 퇴직 후 자리를 염두에 둔 보신주의 때문이고 공경위에도 전관예우 금지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항간에선 퇴직 후 자리를 염두에 둔 <u>행위이므로</u>	매21	사실
3-6.비논리, 모순, 억지	계열사 물량을 <u>썩쓸이하면서</u> 전문기업이 성장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스스로도 전문화할 이 유를 <u>없애는</u> 폐단을 <u>낳고</u> 있다. → 썩쓸이하여 전문기업이 성장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신도 전문화할 여지를 <u>없애는</u> 폐단을 <u>낳고</u> 있다.	매21	사실
3-6.비논리, 모순, 억지	거달날 곳간을…확정된 미래다.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그러나 ~ 모은다. → (이 문장의 앞에서는 갑상선암의 크기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을 소개하고 있음. 그 의견을 낸 사람들도 갑상선암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갑상선암 전문가들이 모두 크기로만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조15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예정대로 → (문맥상 수술할 예정은 없었음.)	조15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정상화해나가는 → (가교 대학이 되는 것이 정상화되는 것인가.)	조18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1941년 일본’과 ‘#2011년 한국’의 비유→일본의 전쟁과 한국의 복지 논쟁은 연계성이 미약함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 박힌 선입견이다. 한낱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이다. 이런 문화적 차이와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선입견과 (부적응의 문제가 나오는 원인으로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를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이 글에서 이주 여성들이 겪는 사회문제로 결론내리기에는 부족하다.)	제18	사실

3-6.비논리, 모순, 억지	당장 손쓰지 않으면 피할 방도가 없는 '확정된' 미래다.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안대문은 한쪽에만 설치돼 있어 관광객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거나 역주행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제17	사실
3-6.비논리, 모순, 억지	이처럼 전국적인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 → (앞의 문장과 잘 어울리지 않음.)	부4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거래소 등이 주가 흐름의 이상 징후를 포착해 적발하는 주가조작 사례는 대개 전문꾼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다.→주가 조작은 대개 전문꾼이 저지르는 범죄로서, 거래소 등이 주가 흐름에 이상한 검색을 알아차려서 적발한다.	경11	사실
3-6.비논리, 모순, 억지	한צל ~ 필연적이다. → (비약이 심함.)	대14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불편한 것은 보지 않겠다는 병적(病的)인 자폐 심리였다.	조25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공항공사는 공고문에서 냉방시설(에어컨)을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모델로 23평, 25평의 경우 정속형으로 소비전력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며, 가능한 주민이 희망하는 냉방시설을 선정해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5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정밀검사를 통해 치료가 우선이라는 의료진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밀 검사를 통해 치료해 나갈 것이다. 신장원이 비록 죄인이지만 치료가 우선이라는 의료진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3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그는 ~ 말했다. → ('직접'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논리가 맞지 않음.)	조16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FTA 번역 오류 부른 부처 이기주의→자유무역협정 번역 오류 책임 공방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	동10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5경기에 2승1패 평균자책점 1.59로 숨겨진 '가을 사나이'였음을 증명했다.→(의 성적)를 거둬으로써	제25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블록 단위로 재개발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 (블록 단위로 개발하면 합리적?)	서35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대구 경기에 구원 등판해 <u>2이닝 3실점으로</u> 좋지 않았다.→2이닝 동안 3실점을 한 정도로 좋지 않았다.	제25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우선은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열린 사고다. 경청할 수 있고, 상대를 너그러 바라볼 수 있다.	제4	칼럼
3-6.비논리, 모순, 억지	강박에 가까운 시 창작의 의식. 마치 죽음을 예감한 듯한 느낌이 든다.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	부17	해설

	지 않고, 특히 앞 문장은 불구문장이어서 서술어가 무엇이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3-6.비논리, 모순, 억지	두려움이든 ~ 있다. → (두려움과 궁금중이 호기심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음. 궁금중과 호기심의 의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부2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학부모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면 뒤에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나와야 하지만 뒤에는 걱정하는 쪽 반응에 대한 이야기만 나옴.)	대11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늦어도 이르면 → 늦어도/이르면(둘 중 하나만)	경13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취업 제한 기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했지만 이를 비롯해 20건이 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다.→제출했지만 이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서10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 (앞의 문장과 연결이 매끄럽지 않음.)	경13	보도	
3-6.비논리, 모순, 억지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기기를 사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1시간마다 5~10분 정도 안구의 긴장 상태를 해소시켜 주는 안구 운동과 지압법을 실시하면 좋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숙련자에 비해 눈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23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정책기조 ~ 느낌이다. → (이 문장 앞에서 밝힌 내용들은 이 문장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경14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40홀런에 도달하면 생애 첫 홀런왕 타이틀도 손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40홀런을 달성하면 생애 처음으로 홀런왕 타이틀을 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경12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한편 →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옴.)	경3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한편 → (갑자기 다른 주제가 나옴.)	경3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제곱등한 → 제곱등인지 급등인지 내용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움. 내용만으로 따지면 제곱등이 아니고 급등임.	서16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쌀은 ~ 있었다. → 앞의 문장이나 속해 있는 문단과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음.	서17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뜻함과~조화롭게 녹아 있다. →(앞부분은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한 데 비해 뒷부분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 문장의 앞뒤가 조화롭지 못함.)	매1	해설	
3-6.비논리, 모순, 억지	31일 ~ 밝혔다 → (연평균 68%의 비트그로스가 낸 드플래시 시장이 220억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된 이	한7	해설	

	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3-7.저속한 표현	약골(弱骨) 모드→	조8	칼럼	
3-7.저속한 표현	'누구를 손본다'는→	부11	칼럼	
3-7.저속한 표현	국책사업이란 대부분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내걸고 재미를 봤다.	대15	사설	
3-7.저속한 표현	떨어놓겠다며→놓겠다며	서34	보도	
3-7.저속한 표현	안전빵으로만 가면→안전하게만 하면	경5	해설	
3-7.저속한 표현	시청자를 우롱한 프로그램이라는 뼈뺀 눈으로 → 프로그램이라고 부정적으로	조10	칼럼	
3-7.저속한 표현	숨통이 트였지만→한숨을 돌렸지만	매31	해설	
3-7.저속한 표현	'본때 케이스'로→	조8	칼럼	
3-7.저속한 표현	많이 물린→깊이 관계된	한18	사설	
3-7.저속한 표현	손을 보곤 한다.→	조8	칼럼	
3-7.저속한 표현	중간에 뜯어먹는 자가 많거나...→	중3	칼럼	
3-7.저속한 표현	'허접한 인간'이 돼버렸다.	조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안내관의 설치의 미비로→①안내관의 미비로 ②안내관을 설치하지 않아	제1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발이...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발은...불러올 수 있다./소규모 정비 사업과 개발은...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서35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내년 소요 예산은 80억원으로 추정됐다.→추정했다.	제9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지나해 울산 앞바다에서도 자리돔이 8t 정도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잡혔다.	제21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문제 제기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표했다./나타냈다.	제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농가가 희망하는 신청량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시킬 수 있어 농가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 <u>해소</u> 할 수 있어	제9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잘룩한 허리를 강조하는 풍성한 실루엣→잘룩한 허리를 강조하면서도 장식적 풍성한 윤곽선/잘룩한 허리를 강조하는 윤곽선	매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농경지에 방치되고 있는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 <u>방치</u> 된	제9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섬나라 빈국인 마다가스카르→섬나라이자 빈국인 마다가스카르	북5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기준치를 큰 폭 하회하면서→크게	제22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우기 때→우기	제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지난 2008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다.→지난 2008년 말부터 2010년 초에 걸쳐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작했다.	북4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한반도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확률은 매우 낮다.	매32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용역조차 못하고 있다”면서→용역조차 맡기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북4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브레이크가 없다.→금지할 방법이 없다.	서10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진통이 예상된다→진통을 예상한다	한2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김보씨(53·여)가 탈진해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119 구조대에 의해	제11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풍향계→풍향계 역할	매8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이렇게 누적된 핵연료는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서 대규모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렇게 누적된 핵연료는 방사능 오염수를 통해 건물 지하나 해양으로 유출되면 대규모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	매14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1987년 ‘올스타쇼’로 연출을 시작한 그는 <u>현역시절</u> 당시로는 혁신적인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연출자였다.→1987년 ‘올스타쇼’로 연출을 시작한 그는 <u>현역</u> 시절에는 끊임없이 혁신적인 시도를 하는 연출자였다.	매15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맹꽁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된 시점, 즉 장마철 등에만 가능하다”→알맞은 시점	제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피해회복→피해 구제	서21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완화를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완화한다는 내용이	서35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주유소업계에 따르면…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주유소업계는…이달 들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제6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휘발유 값 급등세는…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기름값 안정 대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기름값 안정 대책이 무색해질 수도 있겠다.	제6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또한 공사과정에서 맹꽁이는 물론 산란지도 파괴시킨 적이 없고,→파괴한	제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제주시의 올 상반기 수산물 위탁판매 현황에 따르면…작년 1359t에 비해 16.3% 줄어들었다.→제주시의 올 상반기 수산물 위탁판매 현황은/실적은…작년 1359t에 비해 16.3% 줄어들었다.	제7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김씨는 축사 내부 환기를 자주 시키고 방목지에 그늘막을 설치해 더위를 피하고 있지만 축산 악취 민원 때문에 환기 등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김씨는 축사 내부 환기를 자주 하고 방목지에 그늘막을 설치해 가축이 더위를 피하게 하고 있지만 축산 민원 때문에 한계가 있어 걱정이 태산이다.	제11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학생들에 대해서는→학생들은	서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무엇보다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습관처럼 피우기 때문에 담배보다 2~3배 많은 니코틴을 흡수해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b>이로 인해</b> 일부 청소년들은 과다흡입으로 인한 두통·어지럼증·식욕부진 등 부작용까지 겪고 있다.→무엇보다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습관처럼 피우기 때문에 담배보다 2~3배 많은 니코틴을 흡수해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청소년들은 과다흡입으로 인한 두통·어지럼증·식욕부진 등 부작용까지 겪고 있다.	광7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특히 냄새 및 채취는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쓰는 증거이다.→와	서26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바이올린 등 보관 단국대→바이올린 등을 보관 중인 단국대	조28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흙으로 돌아가겠지만→흙으로 돌아갔지만	한21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일본 참사 복구 성금으로→일본 참사 피해 복구 성금으로	매1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진행 중인 감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마무리된 뒤 내년 초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진행 중인 감사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25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2일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시에 따르면…낮은 수치를 기록했다.→2일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시는…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7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다시 주목 받고 싶다는 심리적인 배경이 깔렸다고 →싶은 심리가	조27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대나무는 더더욱 높이 하늘과 맞닿았다.→대나무는 더더욱 높이 하늘과 맞닿아 보였다.	조2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하늘이 한층 더 아찔해 보였다.→하늘이 한층 더 아찔하게 높아 보였다.	조2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키가 휘청했다.→키가 커서 휘청했다.	조2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용도를 구분해 용도별로 별도의 전기요금을→구분해 각각 다른	매16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고삐를 조이다→나사를 조이다	매1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출범시킨→출범한	매2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강력한 시행을 예고→엄격한 시행을 예고	매11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삼성그룹의 모바일오피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삼성그룹이 모바일오피스를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매2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채권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함께 갖춘 좋은 투자 상품	매18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오픈프라이스에 맞는 가격 정책을→오픈프라이스 정책을	매11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여 전기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매16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남용했는지 여부를→남용했는지를	매2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고액 재산가 피부양자→많은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	매1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산출된다→산출한다	매2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소비자 제감경기를 나타내는 경기판단 CSI도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68로 떨어져 지난 3월(65) 이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68로 떨어져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제22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우승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전선/길 ('도전'은 결승에 진출하여 이미 이루어진 사항임.)	제2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서약을 하는 만큼→서약을 한 만큼	서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매20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최고기 광우병 소동→광우병 쇠고기 파동	조8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일본은 '신(神)의 나라'이니 반드시 '가미카제[神風]'가 불어줄 것이라 믿었다.(‘가미카제가 분다는 것이 누구나 아는 관용어인가?)	조25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은폐 덕분에→탓에, 때문에	조25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전쟁의 핵심인 A급 전범→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	조25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집단 광기→집단 광기("어떻게 되겠지"≠집단 광기)	조25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이길 승산이→이길 가능성이	조25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부부들까지→부부까지(노 전 대통령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다.)	조8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시장보다 게으른 정치인 시계→느린	조3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감옥을 살고 나온→감옥살이한	조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아야파네코는 스페인식 명칭이고 세고비아씨는 잔신의 언어 명칭이 '누움테 우테(Nuumte Oote)'라고 했다.→아야파네코는 스페인식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누움테 우테(Nuumte Oote)'라고 세고비아 씨가 말했다.	조1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가나자와 교스케.에쓰코(金澤行動(悦子)씨 부부가 알고 지내던→가나자와 씨 부부가	조1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공정사회' 구호만 강조할 뿐 → '공정사회'를 구호로만 외칠 뿐	매21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1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발표될 예정이다→발표할 예정이다	광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약화돼→약화해	광1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지역 나눠주기식의 접근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배제해야	매20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과학연구원을 분산 배치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	매20	사설

	람직하지 않다.→분산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교묘한 행보를 다스리기 어렵다. → 회피/편법 행위를	매21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현대아산에 준→현대아산이 가진	매9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승산 없는 포퓰리즘 전쟁을→무모한 대중 영합 경쟁을	조25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꺼어진→꺼어진	조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완전 용해됐을→완전히 용해됐을	한2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생산라인이 힘차게 돌아가는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다.→생산공정이 힘차게 돌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되찾았다./생산공정이 힘차게 움직이는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대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열차만으로는 편도 20여분 걸리는 짧은 시간이지만→열차를 타는 시간은 편도 20여 분밖에 안 되지만	북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제주관광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다.→제주관광업은 지금 호황을 맞고 있다.	제17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사실과 다른→사실과 다르게	조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계급장을 댄 '진검 대결' → 계급장을 댄 대결	조1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재벌 등쌀에 깔려 있는→재벌 등쌀에 시달리는	조8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물혀→물어	조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최고기 광우병 소동→'소동'보다 '파동'이 더 적절함.	조8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박힌 선입견이다.→또	제18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경제성과 환경의 논란과→경제성 부족과 환경 파괴 논란,	중7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자금탑 및 기획팀에서→자금탑과 기획팀에서	한1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급경사가 반복되는 구간이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이다.→굴곡이 심한 구간이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	제17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냉각장치로 인해→냉각장치로 말미암아, 냉각장치 때문에	한2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흥금 없이→흥금을 터놓고/흥금을 털어놓고	중21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 날로 변형, 진화해 가는 → 편법을 일삼는	매21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대구 의원들은→대구 지역 의원들은	중7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문화속은 트로트 발성을 버리는 과정을 통해 오페라 가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오페라 가수의 가능성을	중25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유령으로부터 탈출해야→유령으로부터 벗어나야	중7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제3자에 대한 유출→제3자에게 유출	한1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위축되면서	제22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자리돔이 독도 해역에 정착해 산란했다는 결정적인	제21	해설

	단서로 확인됐다.→증거이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모바일오피스가 활용되고 있다→모바일오피스를 활용하고 있다	매2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주현미.김수희.심수봉이 그 맨 앞줄에 섰다.→선도하고 있다./맨 앞에 섰다.	중25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이상 여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중24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야생’을 만끽한다.→‘자연’을 만끽한다.	중17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서로를→서로	중10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맹꽁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이미 전멸했을 가능성이 크다.”→확률이 높다./공산이 크다	제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1980원대 치솟아→1980원대로	제6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국내 클래식 문화가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 국외로	조1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스카 장르와의 교감을 펼친다.→교감을 시도한다.	중25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식사비용은 팁을 포함해 약 500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약 500달러였다./500달러였다고 한다.	중24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자책이다 → 의견이다(자책을 하는 주체가 불분명함.)	중8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자성의 → (삭제)(자성을 하는 주체가 불분명함.)	중8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캠핑을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옷부터 고민이다.→처음 캠핑을 시작하는 초보자라면 어떤 옷을 입을지가 고민이다.	중17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오바마와 MB 일행이→오바마와 이명박 일행이/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일행이	중24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이를 바탕으로…1보가 나갔다.→(행안부의 발표? 신문에 보도?) 언론은 이를 바탕으로 서울·인천·경기 요금이 하반기에 10.4% 오를 것이란 기사(1보)를 내보냈다.	서3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활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활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1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고객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5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그러나 생산라인의 신속한 가동이 절실했던 사측과 계획되지 않은 조업 중단이라는 노조 집행부의 부담감이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이면서→그러나 생산공정의 신속한 가동이 절실했던 회사 측과 계획에 없었던 조업 중단이 부담스러웠던 노조 집행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대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더 이상→더는, 이제는, 다시는	광16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A자형 인제는 T자형에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닌 인재다. 고도의 전문성에다 다방면의 지식이 있고, 소통에서도 달인이다.→다방면에 대한 이해	제4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붕괴됐다→붕괴했다	광15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확산되는→확산하는	광15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현장 가동 중단으로→조업중단으로	대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포함시킴→포함함	한2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홍 대표는…적극 나설 전망이다.→홍 대표는…적극 나설 것 같다., 홍 대표는…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30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환경평가 이행 신경 안쓴다→이행에	제13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홍 신임 대표는 “계파 정치를 종식시켜…”→종식하여	서30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극적으로 합의돼 이틀째 조업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극적으로 합의를 이뤄 이틀째 정상 조업을 하고 있다.	대2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과학벨트를 정치벨트화할 소지가→과학벨트 사업을 정치화할	매20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서울대가 지금처럼 관치(官治)에 길들여진 대학으로 자족하면 세계적으로 일류대 도약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서울대가 …… 자족하면 세계 일류대로의 도약은 물론이고 …… 흔들릴 수 있다.	동23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지역 생산자와 상인에게 두루 혜택이 주어지는→지역 생산자와 상인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가는	강16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약 40배가 적은 셈이다.→약 1/40 수준인 셈이다.	강15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국가 전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동12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서울대가 상업화로 가면 기초학문을 소홀히 하고 등록금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서울대가 상업화되면 ……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동23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특정 지역을 벨트로서 지정하려고→사업 지구로 지정하려고	매20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알기 쉽게 안내문을 곳곳에 설치하면→알아보기 쉽게 안내판/안내시설을 곳곳에 설치하면	제17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북한이 현재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의 선행조건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이 요구해온 남·북대화를 우회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경24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지금처럼 책임을 북한에만 돌리는 자세는 우리의 입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이다.→	경24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정부를 주도하는 현상도 가속화될→가속화할	서30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북의 사주에 의해→북의 사주로	한21	사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회사 측도 330만㎡는 무리라며 절반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회사 측도 330만㎡는 무리라며 절반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강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또한 가파도 <u>청보리</u> 축제도 섬 체험 관광지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모으면서 지역 소득 증대로 <u>이어지는</u>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어져	제24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한파로 인한→한파로/한파 때문에	동5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반응이 컸어요.→반응이 대단했어요./엄청났어요.	동14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요인의 영향으로→요인으로	동5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2년간 현지 근무한 게→이곳에서	동17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헉!” 소리를 냈다고 한다.→“헉!” 하며 놀랐다고 한다.	동14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목표를 갖고 있다→목표가 있다	동19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기여한다는→이바지한다는	동19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투자 의향 회사 측의 사정을 보며→투자 의향 회사 측의 움직임을 보며	강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약에→언제나 땅을 팔게 될 수 있을지	강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출천 광관리 산업단지가 지지부진하면서→출천 광관리 산업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면서	강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또 동네 주민간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4년간 이어지며→또 동네 주민 간에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찬반 의견이 4년간 엇갈리며	강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일제가 쇠말뚝을 박았으며→일제가 박아 놓은 쇠말뚝이 있어	강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집중 연구하는→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동19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파키스탄 내 미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주원인→미국에 대한 파키스탄인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경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틀동안 멈췄던 라인어→이틀 동안 멈췄던 생산공정어	대2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고객들에게 끼쳐드린 불편을→고객들에게 끼친 불편을	대2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방침이다.→방침을 새웠다.	대2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무인비행기 공습에 대해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공습을 (공습에 대해 묵인 입장을 보였다.)	경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과학연구원을 분산 배치해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분산 배치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경20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u>과학벨트를 정치벨트화</u> 할 소지가→ <u>과학벨트</u> 사업을 정치화할	경20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엇그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u>한국사회의 야만(野蠻)</u> 이 벗겨졌다.→엇그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u>한국 사회의 야만(野蠻)</u> 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경25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예정된→예정한	한22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아파트 단지 500가구와→아파트 단지 안의 500가	강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구와 신뢰를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신뢰를 잃게 한다는 것이다	한6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춘천시 해당 부서에는 ‘언제 규제가 풀리느냐’며 문의 및 항의 전화만도 하루에 3~4차례씩 이어진다.→춘천시 해당 부서에는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언제 규제가 풀리느냐’며 문의 또는 항의하는 전화만도 하루에 3~4차례씩 걸려 온다.	강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허덕이는데 공공부문, 정부 할 것 없이 빗더미가 쌓이니→허덕이고 공공기관, 정부까지도 빗더미에 쌓이니	한20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맡기 힘들다→맡기 어렵다	한6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특정 지역을 <u>벨트</u> 로서 지정하려고→사업 지구로 지정하려고	경20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그러나 누군가를 울린 감동의 흔적은 문신처럼 짙게 새겨진 것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가슴에 남고 영혼에 담긴다.→새겨진 것 없을지라도	중27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민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이 올해 상반기 동안→민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이 올해 상반기 동안	제13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고열로 인해→고열로 말미암아, 고열 때문에	한23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쥐어짜는 역할→중소상공인을 쥐어짜는	경21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문제를 언급하며~언급하기도 했다.→문제에 대해~언급하기도 했다.	한1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가공(加功)이거나→가공했거나, 가공되었거나.	대26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결집시키는 게→결집하는 게	제5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전국적 관심사다.→전국민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다.	제16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금강고등공민학교를 개설해 교장과 국어교사를 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모아 무료수업을 했다.→교장과 국어교사가 되어	제8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제주에 내린 후 방황하던 시인을 볼 수 있다.→이 시에서 제주에 내린 후 방황하던 시인의 모습이 읽힌다.	제8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濟州詩集’을 내며 제주시대를 끝내고 <u>서울에서의 문학적 변모</u> 로 이어갔다.→서울에서 새로운 문학 생활을 시작했다.	제8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7대 경관 선정에 올린한 제주도의 행보가 수험생의 마음처럼 바빠졌다.→7대 경관에 선정되도록(선정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는 제주도의 행보가	제5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하지만 이 터널은…1883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제16	칼럼

	1986년에 이르러서야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1994년에야...개통됐다.→하지만 이 터널은...1883년 공사가 중단됐다 1986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1994년에...개통됐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훗날 작가의 회고를 빌리면...공동묘지에서 자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훗날 그가 회고/회상하기를	제8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경20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사회 지도층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놀랍게도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경11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금융감독권 '밥그릇 다툼' 변질 안 된다→금융감독권 문제 '밥그릇 다툼' 변질 안 된다.	서12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남성과 여성 화장실에/남녀 화장실에	서29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서22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더 이상의 장외투장을 자제하기→장의 투쟁을 자제하기	서12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짜여질→짜일	서2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하는 게 → 하는 것이	서1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젊은 대표론'이 거론되는→'젊은 대표론'을 거론하는	한22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 자료는 일선 직원들에게 배포돼 영업에 활용됐다→이 자료를 일선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영업에 활용했다	한1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카드 발급 남발이 꺾일 줄 모른다.→카드 발급 남발이 줄어들 줄 모른다.	부13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매매로 인한→매매로 말미암은, 매매 때문인	동1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개인정보 유출 및 저작권 침해→개인정보 유출과 저작권 침해	동1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를 두고 이례적인 규제안을 만든 한국에 대한 '무언의 시위'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아무래도	부18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침체된→침체한	한2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동시에 재무구조도 대폭 개선시켰다.→동시에 재무구조도 대폭 개선했다.	매15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대지진 피해 구호와→대지진 구호 활동과	매1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한 푼이라도 이익이 나면→한 푼이라도 범칙금을 덜 내면/한 푼이라도 범칙금이 줄면	부11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계속될 것 같다.	동25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짜다리로서 있는 교통경찰이→	부11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대부분 포털사이트는, 포털사이트 대부분은	동1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치열하게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치열하게 추격하고 있다.	경12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월급의 한 귀퉁이를 뚝 잘라서 내는 세금이→월급의 일부분을 뚝 잘라서 내는 세금이	부11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공개하는 경우도 많다→공개하는 때도 많다	동1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일단 끝없이 협상을 한다.→일단 끝없이 협상을 하려 한다.	부11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수도권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수치가 잘못 보도됐는데도→수도권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수치를 잘못 알렸는데도	서3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전담팀도 따로 구성될 예정이다.→구성할	서2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길 막혔다" 차관 참석도→'길 막혔다'고 차관이 대리 참석	서11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서대문형무소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일제가	서28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점포의 경우→점포는	한2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과도하게→예민하게	동2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최근 누네안과병원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 972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눈을 혹사하고 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최근 누네안과병원이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인 남녀 972명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우리가 눈을 혹사하고 있음이 상당 부분 확인됐다.	경23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더 이상→더는, 다시는	대22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이번 사태에도	경4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로는	동20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 소설은 1991년 10월 발생한 '안드레아 게일'호의 실종사건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이 소설은 1991년 10월 발생한 '안드레아 게일'호의 실종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광8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 소설은 1991년 10월 발생한 '안드레아 게일'호의 실종사건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이 소설은 1991년 10월 발생한 '안드레아 게일'호의 실종사건을 다룬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	광8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결허한 자세로 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결허하게 늘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광8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파리 공연에서 확인된 K팝으로→파리 공연에서 확인된 케이팝 사랑으로	대4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요구할 경우→요구할 때, 요구하면	한2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일사병 등으로 가족이 폐사되는 등→폐사하는	제11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로 인해→이로 말미암아, 이 때문에	한23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부산교통공사 측은~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부산교통공사 측은~펜스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12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공항공사는→공항공사는(자신이 직접 취재한 사실이므로 취재원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제15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홍대표는 빠른 정치 감각이 남다르다.→정치 감각이 남다르게 빠르다.	서36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확산시키기 위해→확산하기 위해	대21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공개가 결정된→공개할	부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대·소변기 및 세면대를→대·소변기와 세면대를	서29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선 충남·전북 간의 공방만 있을 뿐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과 전북 양쪽이 추천하는→기자간담회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선 충남과 전북 간의 공방만 있을 뿐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과 전북 양쪽이 추천하는	서9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시급하다./시급히 요구된다.	제2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130만원의 금액이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일반 소비자가로 구입이 가능하고→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130만 원이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일반 소비자가로 구입할 수 있고	제15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전통시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쇼핑카트가 설치됐지만 비좁은 이동 통로와 울퉁불퉁한 노면으로 인해 오히려 고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에 쇼핑 카트를 설치했지만 통로가 비좁고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고객이 외면하고 있다.	제2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며→단점이 있으며	제15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말 6000만원을 들여~편의시설을 갖추었다.→31일 제주시는 2008년 10월말 6000만원을 들여~편의시설을 갖추었다.	제2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야간 편의점.→야간 편의점 근무,	대5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맞지 않는 부부가→사이 나쁜 부부가	중1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뿌리 박힌 선입견이다. 한낱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이다.→우리사회의 뿌리 박힌 선입견이다. 곧 한낱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이다.	제18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발족 및 광주인권도시선언→국제인권도시네트워크 발족과 광주인권도시선언	한21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는 수업시간의 6배를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다고 한다.→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자신이 받는 수업시간의 6배를 일해야 한다고 한다.	대5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사회경험이나 직업을 고르는 동기 부여가→사회 경험을 쌓고 직업을 고르는 동기 부여가	대5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아울러→삭제(‘아울러’를 포함하는 문장과 앞 문장이 바로 연결되지 않았다.)	서6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대주주 배당금은 2010년의 경우→2010년의 대주주 배당금은	한14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반값 등록금 인하 문제로→반값 등록금 문제로/등록금 인하 문제로(반값 등록금을 다시 인하하는 문제가 아님.)	대5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즉각 여러 시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동21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뇌관인→뇌관에 해당하는/뇌관이라 할 수 있는	매8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원전 1호기에 이어 2, 3호기도 잇따라 멜트다운(노심용해) 현상으로 핵연료 전체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됐고→원전 1호기에 이어 2, 3호기도 잇따라 노심용해(멜트다운) 현상으로 핵연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매14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우호 관계가 차질이 빚어질까→우호 관계가 나빠질까	매1	해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동20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시장 전용차량의 경우→시장 전용차량은	중11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원가가 공개된다→원가를 공개한다	부6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지역 나눠주기식의 접근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배제해야	경20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확산되면→확산하면	동20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반값 세비 용의는?	동27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CIA에 대해 파키스탄과 미국,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CIA를 상대로	경8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2년 정도 작업 일정이→작업 일정이 2년 정도	경22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이→삭제(앞에 주요 미술관이란 말이 나왔으므로 ‘이 미술관’이라고 한 군데만 지칭하는 듯한 표현은 알맞지 않음.)	매10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그들이 세금 부담은 얼마나 하는지→그들이 세금은 얼마나 부담하는지	매30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낮추게 할 경우→낮추게 할 때, 낮추게 하면	동20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교육시키는→교육하는	동20	칼럼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의문이다.→의문스럽다.	대26	사설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반출·입시간이→반출·반입 시간이	북1	보도
3-8.백락에 어긋난 표현	여기에 과학벨트 관련 인사들이 지자체 부당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가하면 정치권 인사들은 ‘부채의식	대15	사설

	을 가져야한다'느니 '관례·절차에 따라야 한다'느니 둘 공방이 확산되는 모양새다.→여기에 과학벨트 관련 인사들이 지자체 부담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가 하면 정치권 인사들은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느니 '관례·절차에 따라야 한다'느니 하여 공방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현지의 한류 사랑이→현지의 한국 대중문화 사랑이	대4	사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매한가지인 것이다→매한가지다	한12	사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11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나이팅게일 선서나~삶의 수단으로 여기는→나이팅게일 선서나~삶을 보장하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대3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학생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절반에 못 미치는 권리의 일례로는 적절치 않음.	대5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사회 곳곳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권리가 수두룩하다.→사회 곳곳에는 권리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분이 수두룩하다.	대5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경영권 프리미엄을 낼 여력이 없기→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비용을 낼	한27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악화돼→악화해	광19	사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여러 개의 노조들이→여러 개의 노조가	부7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밝혀졌다/확인됐다	경10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추정된다.→추정한다.	대26	사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한나라당의 부산 의원들은→부산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7	사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마지막으로 꼭 국가대표 자격을 얻고 싶었다.→주관적인 표현으로 보도 기사 문장으로는 적절치 않음.	서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황제는→'쇼트트랙 황제' 등으로 표현되어야 함.	서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세심하고도~근육 하나하나를 점검했다.→객관성이 결여된 소설적 문장으로 보도 기사 문장으로는 적절치 않음.	서4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선명성 경쟁도 한층 심화될→심화할	서30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프랑스의 경우→프랑스는	동2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한 사회의 개념을 세우고 싶다면 감옥에 누가 있는지 가보라'는 미국 철학자이자 교육학자 존 듀이의 말도 그래서 새롭다.→억울하게…… 존 듀이의 말이 떠오른다.(?)	동21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환율이 추세 상승쪽으로→환율이 상승 추세로	강7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뭉어보자는 식의→뭉어 놓고 보자는 식의	강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주식시장의 연일 폭락 여파로→주가의 연일 폭락	강7	해설

	여파로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요미우리신문은 “비교적 안정상태를 유지했던 2, 3호기에 대해 멜트다운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더 심각한 방사능 오염사태가 시작될 수도 있음을 예고한 조치”라고 해석했다.→요미우리신문은 ‘비교적 안정 상태를 유지했던 2, 3호기의 노심용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더 심각한 방사능 오염사태가 시작될 수도 있음을 예고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매14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초래할→가져올	동20	칼럼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어떤 단계에서든 제공된 구호식량이 전용되는 게 발견될 경우…→구호식량을 전용하는	서31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우호증진협의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우호협회 등이다.	경10	보도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3	해설
3-8.맥락에 어긋난 표현	환율은 1,090원 부근으로 치고 올라왔다.→환율은 1,090원 가까이 치고 올라왔다.	강7	해설
3번 기타	누가 봐도 책 내용은 보복의구름이에 가까웠다.→	조0	칼럼
3번 기타	제목과 내용 불일치	경20	사실
3번 기타	영장기각 ~ 이유라는 것 → (바로 다음 문단에 같은 내용이 반복됨. 불필요한 내용임.)	대7	해설
3번 기타	썬터 및 만남의 장소→썬터와 만남의 장소	광1	해설
3번 기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지휘자 정명훈 예술감독은 공연계에서 흥행 보증수표로 통한다.(불필요)	조10	칼럼
3번 기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 및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취소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 및 복수노조 협상창구 단일화 규정 등 노조법 전면 재개정	동15	해설
3번 기타	복지예산 증가율은 매년 7~9%대에 이르면서 모자라는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지방비로 충당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어느 해에서 어느 해까지 연 평균 증가율이 7~9%대에 이르는 것인지 근거가 없다.)	제10	보도
3번 기타	대기업의 탐욕이 도를 넘은 이후에야 칼을 뽑고 나서는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후에야 칼을 뽑는	경21	사실
3번 기타	검찰에 ~ 혐의다. → (두 문단이 거의 같은 내용임. 겹치는 문장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금 더 간단하게 문단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북13	보도
3번 기타	(글의 마지막 부분은 미국과 파키스탄의 두 정보기관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경8	보도

	있어서 글의 제목과 관련이 없다.)		
3번 기타	하지만 제작진이 활동을 한 김건모에게 원칙을 어기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면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담당 피디가 교체되고 이 프로는 중단됐다.(불필요)	조10	칼럼
3번 기타	변갈아가며→(변갈아가며 *삭제)	강11	보도
3번 기타	광주→광주광역시	광5	해설
3번 기타	“제대로 된 야구단 하나가 더 낫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19	보도
3번 기타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도로공사 현장에서 교통통제를 하는 학생들이	서33	보도
3번 기타	강진 병영 도룡마을→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룡마을	광6	보도
3번 기타	안전에 대한 집념은→‘집념’이란 표현이 객관성 결여로 보임.	매19	보도
3번 기타	그러나 행안부는 아무런 추가설명도, 대응도 <u>않다</u> 가 기자들 항의에 저녁 되늦게 수치를 정정하고 사과했다.(근거 없이 행안부의 고의성 단정) (행안부 정정 관련 정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필요하며 이러한 사실이 되늦게 밝혀졌는데 행안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기자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수치를 정정하고 사과했다(?)는 것이 이상함.)	서34	보도
3번 기타	5년간 3000억원을 투자해 제2도약을 도모하는 발광 다이오드(LED)산업 제2도약 전략도 발표했다.	서14	보도
3번 기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b>집중 논의한</b> 뒤→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b>집중적으로 논의한</b> 뒤	서9	보도
3번 기타	“우리나라~생각한다”며→	한25	보도
3번 기타	전남도 및 시군→전남도와 시·군	광4	해설
3번 기타	광주→광주광역시	광1	해설
3번 기타	3년 전 서면약속을 실행하라며 순복음선교회 사퇴를 압박했다. →순복음선교회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3년 전의 서면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했다.	한19	칼럼
3번 기타	움직임을 거의→거의(*움직임 중복으로 삭제)	경22	보도
3번 기타	시의 재정여건과 시의회를 포함한→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의회와	경19	보도
3번 기타	광주시→광주광역시	광4	해설
3번 기타	단속 권한은 있지만 의무는 없는 썰.→없기 때문이다.	서20	보도
3번 기타	슬라미는 세계 경제에 위협적일까.→여기부터 앞 문단과 별도의 문단으로 처리해야 함.	중18	보도
3번 기타	이후 빌 게이츠가~'윈도'다. 스티브 잡스는('스티브	매10	칼럼

	잡스는' 앞에서 행갈이를 하여 별도의 문단으로 처리해야 함.)		
3번 기타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추세를 반기는 모습이 다. 대중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것으로 <u>가요계에 다양한 음악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u> 워너뮤직의 임승채 홍보팀장은 “요즘 가요계는 한마디로 뚜렷한 강자가 없다.”면서 “이는 대중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것으로 가요계에 다양한 음악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추세를 반기는 모습이다. 워너뮤직의 임승채 홍보팀장은 “요즘 가요계는 한마디로 뚜렷한 강자가 없다.”라면서 “이는 대중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것으로 가요계에 다양한 음악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8	보도
3번 기타	만들기 위해 이용한 후 버린 →만들고 버린	경22	보도
3번 기타	연습이 완벽하면→연습을 완벽히 하면	동27	칼럼
3번 기타	조장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조장하기 때문이다.	한25	보도
3번 기타	눈 안 오는 아프리카나 저개발국→눈이 내리지 않는	동27	칼럼
3번 기타	대답은 더 황당했다. 늘 있는 일이라고.→늘 있는 일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부11	칼럼
3번 기타	시간과 공간 사이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시간과 공간을 다양하게 뛰어넘는	경22	보도
3번 기타	표현, 주목을 받은→표현하여 주목을 받은	경22	보도
3번 기타	“지표경제는 괜찮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간격이 매우 크다”→	경20	보도
3번 기타	교민에게 물었다. 저게 뭐냐고?→교민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다.	부11	칼럼
3번 기타	예고되고 있다→예고된다	부7	보도
3번 기타	“~편한 길보다는 미래 세대에 빛을 떠넘기지 않는 가시밭 길을 몇몇하게 선택하자”고→“~편한 길을 걷기보다는 미래 세대에 빛을 떠넘기지 않도록 가시밭길을 몇몇하게 걷자”라고”	경20	보도
3번 기타	무인비행기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은 1470~2339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무장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1177~1868명이다. 민간인 희생자는 353~471명으로 추정된다.(통계 부정확. 무장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수가 1868명에 전체 사망자 수가 1470명이 될 수도 있다.)	경8	보도
3번 기타	입금과 근로형태 등의 제도에서 과도하게 불합리한	경20	보도

	설정 등이 완화되고 선진화 돼야한다.→과도하게 설정된 불합리한 근로 제도를 완화하고 선진화해야 한다.		
3번 기타	'힘 있는 사람'은 국민의 편에 서서→이 문단부터 별행으로 처리.	부11	칼럼
3번 기타	피카소도 옷을 일→ <b>적절치 않은 제목</b> (‘소도 옷을 일’이란 말이 관용적으로 쓰이는데, 이 경우 피카소가 무엇을 보고 어처구니없어 하는 것인지 모호함. 창의력을 키우기에 한계가 많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피카소가 보고 옷을 일이라는 것인지?)	매10	칼럼
3번 기타	계속 실질적인 리더로→‘계속’ 삭제	한19	칼럼
3번 기타	부당이득을 취득하는→부당이득을 취하는	강5	해설
3번 기타	재생사업, 소규모 정비 사업, 소규모 도시 정비안 (건축 정책명 등에 있어 표 내용과 본문 내용 표기 및 어휘 등 통일성 유지 필요)	서35	해설
3번 기타	추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미국의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신처 습격 이후 불협화음을 보여온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보도문에서 기자의 추측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 글의 제목과도 관련이 없다.)	경8	보도
3번 기타	재정위기라며, 그래서 예산이→재정위기로 예산이	경19	보도
3번 기타	공식 확인됐다 →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조3	보도
3번 기타	미국 주요 전력사업자와 현지형~추진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미국 주요 전력사업자와 현지형~추진하고 있다.(바로 앞 문장과 연결 관계를 표시해 줘야 자연스러움.)	매17	보도
3번 기타	'물가를 얼마나 올리고,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가치 판단이 아니다.(필수 문장인가)	서34	보도
3번 기타	당황해하기도→당황하기도	대21	해설
3번 기타	전무한→전혀 없는	대21	해설
3번 기타	적극 나설 → 적극적으로 나설	경3	해설
3번 기타	향후 계획도→계획도	경2	해설
3번 기타	법조계 ~ 남발 의문 → (법조계에서 찢러보기식 수사를 한 것은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아님. 소재목에서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은 자칫 법조계에서 찢러보기식 수사를 했다고 단정 짓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대7	해설
3번 기타	'지각' 및 '결석'으로 지연되는→'지각'과 '결석' 때문에 지연되는	서11	보도
3번 기타	대중적 인기 기대→대중적 인기를 기대해	한22	칼럼
3번 기타	'달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화폐 개념이 아닙니다. 기사문을 읽었을 때 제시된 금액이 얼마를 나타내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원해서 적어 주자.	동28	칼럼

3번 기타	일심(一心)이라는 글자를 뜻하도록 서명을 했다.→일심(一心)이라는 뜻이 담긴 글자로 서명을 했다.	중6	해설
3번 기타	잡스가 이후→이후 잡스가(어순의 문제)	매10	칼럼
3번 기타	사정하다시피 해 석 달간 가격 할인 카드를 받아냈다.→'석 달간의 가격 할인'	동13	칼럼
3번 기타	"~기해야 한다."→"~기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말은	한20	칼럼
3번 기타	대중적 인기 기대→대중적 인기 기대어	한22	칼럼
3번 기타	홀쩍 넘길 것이란→홀쩍 넘을 것이란	한20	칼럼
3번 기타	약탈적 대출관행에 이끌려→약탈적 대출관행으로	한20	칼럼
3번 기타	"월로 목사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월로목사님을 평안하게 헤드리는 것 아니겠느냐"→	한19	칼럼
3번 기타	젊은 피 득세→젊은 피의 득세	한22	칼럼
3번 기타	유용하게 쓰인다.→유용하다.	조23	해설
3번 기타	갖출 수 있게 됐다→갖출 수 있다	매24	보도
3번 기타	뿐만 아니라→그뿐만 아니라	매23	보도
3번 기타	젊은 피 돌풍→젊은 피의 돌풍	한22	칼럼
3번 기타	IDC→( ? )	매23	보도
3번 기타	버블 붐과 위험→거품 경제의 붐과 위험성	한20	칼럼
3번 기타	당분간 국비지원 가능성이 더 낮아짐에 따라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비지원 가능성이 더 낮아짐에 따라 당분간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1	보도
3번 기타	지름 30cm 이상의 시멘트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말뚝이→시멘트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지름 30cm 이상의 말뚝이	강4	보도
3번 기타	신윤복의 한국화 그림을 전달했다.→신윤복의 한국화를 전달했다./신윤복이 그린 한국화를 전달했다.	북5	해설
3번 기타	NHK에 → 굳이 없어도 될 것으로 보임.	동4	보도
3번 기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것이란 뜻을 밝혔다.	동1	보도
3번 기타	적극 활용한다→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매24	보도
3번 기타	특수구조팀 및 구조견→ 특수구조팀과 구조견	중4	해설
3번 기타	벌이고 있는 것이다→벌이고 있다	광10	보도
3번 기타	막간 쉬는 시간에→막간에	조22	해설
3번 기타	계속되고 있다→계속된다	매24	보도
3번 기타	관광 명소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 도로에 안내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안내표지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능동형 문장으로)	제12	보도
3번 기타	광주시→광주광역시	광2	보도
3번 기타	비키 한센 교수 같은 이는 → 비키 한센 교수는	조2	해설
3번 기타	성실한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성실한 감시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서12	사설

3번 기타	사회안전망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82만 명이나 된다.…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이들 중 59%에 이르는 507만 명이 돈이 없어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①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저임금 노동자가 382만 명,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가 507만 명이 들은 모순 관계이다. ②제시된 자료로 계산해 보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1000만 명이나 된다. 이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결론을 오도하고 있다.)	서37	사설
3번 기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조만간 닥칠 노인 빈곤과 저출산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한 과제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들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노인 빈곤과 저출산 세대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 문단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빼야 한다.)	서37	사설
3번 기타	검찰은 이 밖에→이 행부터 별도의 문단으로 잡아야 함.	부13	사설
3번 기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것이란 뜻을 밝혔다.	동5	보도
3번 기타	인연은 엮히고설켰다. 17일~전국종합선수권대회였다.→	서4	보도
3번 기타	가공(加功)이거나 아니면→가공(加功)되었거나.	대26	사설
3번 기타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한화를→류현진이 선발로 등판한 한화를	중9	보도
3번 기타	카페 매입에 나서는 것. 이 때문에 →카페 매입에 나서는 것 때문에	동18	보도
3번 기타	“1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폐해는~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1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은~폐해를 끼치고 있다.”라며	대1	보도
3번 기타	과도한 온라인 콘텐츠 의존을→과도하게 온라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것을	중23	보도
3번 기타	주택용·일반용·산업용·일반용·농사용→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매16	보도
3번 기타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D-100일, 나의 다짐’이 쏙구치는 날이다.→D-100일은 ‘나의 다짐’이 쏙구치는 날이다.	제5	칼럼
3번 기타	새로운 것도 참신할 것도→새로운 것도 산뜻할 것도	조23	해설

3번 기타	오늘을 기점으로 영험하다는 전국의 사찰은 수험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기도장으로 변하고…→전국의 영험하다는 사찰	제5	칼럼
3번 기타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서22	사설
3번 기타	독거 할머니 쓸쓸한 죽음을 우리 사회 책임이다→독거 할머니의 쓸쓸한 죽음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서6	사설
3번 기타	~축제에서~축제를 즐기는→~축제에서~즐기는	대24	보도
3번 기타	젊음이 다시 박동하게 하자→젊음을 다시 박동하게 하자	한21	사설
3번 기타	지불한→지급한, 낸, 치른	대22	사설
3번 기타	통합 움직임은→통합은	대25	사설
3번 기타	~더 필요한 게 있다”고→~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중23	보도
3번 기타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유출됐을 수 있다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동16	보도
3번 기타	여당의 차기 대권 유력 후보인 박근혜→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박근혜	중21	칼럼
3번 기타	건전화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노력도→건전화 노력도	대4	사설
3번 기타	소방당국은 얼음 조끼, 얼음팩 등 폭염 관련 구급장비를 확보와 함께 폭염 응급환자 이송대책을 마련했다.→응급환자 이송대책	제11	보도
3번 기타	시민과 소비자들은 → 소비자들은(시민과 소비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대9	사설
3번 기타	집중 공략하고 있다→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부7	보도
3번 기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학교에서 ~불법이다. →학교운영위원회~학교에서~불법이다(증복되는 ‘학교에서’ 삭제).	한25	보도
3번 기타	본격 개막되면서→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부7	보도
3번 기타	충주지역명을→지역명	대25	사설
3번 기타	도는 지난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뒤→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뒤인 지난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3	해설
3번 기타	‘선심성’이란~향한다. →	한20	칼럼
3번 기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사족으로, 생략되어야 함.	중18	보도
3번 기타	피짜로 통하는 그다운 공연을 느낄 수 있다.→피짜로 통하는 그의 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강2	해설
3번 기타	‘보령머드축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대24	보도

	로 파악된다.→ '보령머드축제'에도 관심이 커졌다. '보령머드축제'에도 관심도가 높아졌다.		
3번 기타	보령머드축제도 한류바람이 점쳐지고 있다.→ 보령머드 축제도 한류바람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머드축제에도 한류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24	보도
3번 기타	휴일임에도 특별근무를 자청,→앞에서도 똑같은 구 절이 반복되어 증언부인의 느낌이 있음.	대2	보도
3번 기타	남수각 일대의 주차장도 주차된 차량들로 빈 곳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남수각 일대?)	제2	해설
3번 기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문제의 소지 가 있다.	대26	사설
3번 기타	산업단지 예정지. 기업도시 추진 당시 계획했던 지 난 2008년 약 330만㎡(100만평)의 부지 외에 1.5 배 격인 825만㎡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산업단지 예정지는 지난 2008년 기업도시 추진 당시 계획했던 약 330만㎡(100만 평)의 부지 외에 2.5배나 되는 825만㎡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 여 있다.	강6	보도
3번 기타	관광 명소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신비의 도로', 일 명 도깨비 도로에→제주시 노형동 소재 관광 명소 인 '신비의 도로', 일명 도깨비 도로에 (*폐수식어를 명료하게)	제12	보도
3번 기타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주시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충주대는 정원이 줄고 철도대 정원 증가, 충주지역 명을 없앤 학교 이름 사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사를 표명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철도대와 충주대의 통합으로, 충주지역명을 없앤 학교 이름 사용할 때, 지역경제 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충주시민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반대사를 표명했다.	대25	사설
3번 기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띄우는 <u>전형적인 수법</u> 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수법을 사용했다.	경11	사설
3번 기타	서로의 생각을 언어와 몸짓 등으로 나누는 것이 커 뮤니케이션인 셈이다.	제4	칼럼
3번 기타	5월 광주→5월의 광주	한21	사설
3번 기타	이는 수학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는 대목이다.	제4	칼럼
3번 기타	알려지고 있다→알려졌다	광10	보도
3번 기타	방식으로 편법 증여나 상속을 하는 행위에→방식으 로 하는 편법 증여나 상속에	동6	사설
3번 기타	매매가 상승률은→매매가는(상승률 삭제. 중복표현)	강11	보도
3번 기타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논란의 한복판에~서게 됐 다.→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중화권 최고 부호로	중1	해설

	뾰히는~역만장자들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어순을 바꾸기를 권장)		
3번 기타	하지만 이같은 높은 상승은 호가(呼價) 위주의 관망 세만 계속되고 있을 뿐 실제 거래는 많지 않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하지만 지역 부 동산업계에서는 이 같이 높은 상승세가 호가(呼價) 위주의 관망세일 뿐 실제 거래는 많지 않다고 설명 했다.	강11	보도
3번 기타	쓰고 남은 불용예산→쓰고 남은 예산	중1	해설
3번 기타	사라진다는 소식이다.→사라진다고 한다.	중6	해설
3번 기타	노동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에서~가능성 등이 점쳐지 고 있다.→노동계는 현대차 노조에서~가능성 등을 점치고 있다.	중19	해설
3번 기타	유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유혹하고 있는데	강13	사설
3번 기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에→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강17	사설
3번 기타	가능한 것은 적용하고~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다.→	강14	사설
3번 기타	못했다고 아쉬워한 게 사실이다.→못했다며 아쉬워 했다.	강14	사설
3번 기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중17	해설
3번 기타	가동한 주민이 희망하는 냉방시설을 선정해 설치토 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가능한 한	제15	해설
3번 기타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체험할 수 있지만 정작 안내판은 한쪽에만 설치돼 있기 때 문이다. 이로인해 일부 관광객들은 착시현상을 체험 하기 위해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는가 하면 역주 행까지 하여,→내리막길이 오르막길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 하지만 안내판이 한쪽에만 설치돼 있어 착시 현상을 체험하러 온 일부 관광객 들이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여, (*의미가 통하도록 문단을 끊고 붙임.)	제12	보도
3번 기타	모래가 많아 기왕이면 색깔도 진한 게 좋다고 했다. →	중17	해설
3번 기타	"시민들은 가정과 일터, 학교 등에서 <u>폭염 대비 행 동요령</u> 을 잘 지켜달라"→폭염에 대비하는 행동요령	제11	보도
3번 기타	"기름값 상승에 따른 차량 운행 자제 영향으로...어 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기름값 상 승에 따라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제6	보도
3번 기타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소음으로...냉방시설 설치를	제15	해설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면서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문법 구조상 '펼쳤는데'가 더 정확하다.)		
3번 기타	내 삶에 잘못 알려진 것을→잘못 알려진 내 삶을	조0	칼럼
3번 기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요동치고 있다	광15	사설
3번 기타	진주만 기습...있느냐"는 것이었다→진주만 기습 직전인 1941년 여름, 육군 중좌 아카마루 지로[秋丸次郎]가 이끄는 팀이 '미국·영국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아카마루 보고서'를 완성했다. (가독성 높이는 문장 구성 필요.)	조25	칼럼
3번 기타	적극 가입해→적극적으로 가입해	광17	사설
3번 기타	뿐만 아니라→그뿐만 아니라	광16	사설
3번 기타	8년 뒤부터 인구는 감소로 돌아서고, 이르면 40년 뒤면 국민연금에 바닥나게 된다. 이때쯤이면 지금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GDP의 46%를 복지에 쏟아부어야 한다. →데이터의 출처를 특정해줘야 할 것이다.	조25	칼럼
3번 기타	그러나 피해자의 실명을 막아 반론의 기회도 없이 거짓말 책을 수만 권이나 팔았다면 출판윤리는 둘째치고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앞 문장과 연결하는 '그러나' 어색)	조0	칼럼
3번 기타	당직 및 공직선거 개혁안→당직과 공직선거 개혁안	광10	보도
3번 기타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마철 야간에 3회 이상 맹풍이 의 서식 및 산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 장마철 야간에 3회 이상 맹풍이가 서식해서 산란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3	보도
3번 기타	국제결혼은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경우가 84%(388건)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도내 여성이 외국인 남성을 배우자로 삼은 경우도 72건(16%)에 달해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다.→84%(386건)/16%(74건) (단순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수치 부분이 틀렸고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백분율과 수치의 순서를 맞춰 써 주자.) 또한 글의 전개상 불필요한 정보이다.	제18	사설
3번 기타	그러나 누가 봐도 책 내용은 보복의 고통이에 가까웠다.→(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 듯 함.)	조0	칼럼
3번 기타	비상등을 켜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비상등을 켜고	제17	사설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니		
3번 기타	보내고 있는 것이다→보내고 있다	광19	사설
3번 기타	그치고 있고→그쳤고	광17	사설
3번 기타	없는 것이다→없다	광19	사설
3번 기타	젊은 20~30대들이→20~30대 젊은이들이	조0	칼럼
3번 기타	그마저도→난데없는 어휘이므로 삭제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기 일쑤다.'라는 표현이 문맥으로 보아 더 적절함.	대5	칼럼
3번 기타	제주현장, 울릉도 현장 → 제주 현장, 울릉도 현장	북10	보도
3번 기타	지방이양 보건복지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지방으로 이양한 보건복지 사업	제10	보도
3번 기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기세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기세로 치솟고 있다./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제6	보도
3번 기타	대기업들도 지나친 탐욕을 자제했으면 한다. → 불필요한 말.	매21	사설
3번 기타	이 밖에도 제주시는 여름철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예방하기(중복표현)	제11	보도
3번 기타	제목과 내용 불일치	매20	사설
3번 기타	중소상공인의 이익을 쥐어짜는 역할을 맡고 → 쥐어짜고	매21	사설
3번 기타	제주도 어민들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사 내용 중에서 어획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지면의 절반을 넘는다. 고유가와 불법조업이 한 단락 정도 언급한 것에 비하면 글의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글의 비중을 똑같이 하거나 비슷하게 맞춰주자.)	제7	보도
3번 기타	어획부진, 고유가, 불법조업 순으로 기사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을 일치시켜줘야 한다.	제7	보도
3번 기타	가압류 조치하도록→가압류하도록	서21	해설
3번 기타	백영심 간호사와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이→여기부터 별도의 문단으로 잡아야 함.	대3	칼럼
3번 기타	입지 조건에 따라 투자자 집중도와 투자 수익률이 극과 극 양상을 달리는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관측했다.→극과 극을 달리는 현상도(군더더기, 중복)	매13	보도
3번 기타	사회 곳곳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권리가→여기부터 별도의 문단으로 처리해야 함.	대5	칼럼
3번 기타	임금과 근로행태 등의 제도에서→임금과 근로의 제도에서. 근로제도에서	경20	보도
3번 기타	승인하는 → 승인할 수 있는	한1	해설
3번 기타	살리기 힘들었다→살리기 어려웠다	한21	사설
3번 기타	새 경제장관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동22	사설

	정지권이 쏟아낼 조짐이 뚜렷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새 경제장관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쏟아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단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3번 기타	이에 지난해 7월 파업이 발생하자 사측은 21명을 해고하면서 보복조치로 12시간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올 1월 2차 파업이 벌어졌다.→이에 지난해 7월 파업이 발생하자 사측은 21명을 해고하면서 보복 조치로 근무 시간 12시간 중에서 1시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했다. 그 바람에 올 1월 2차 파업이 벌어진 것이다.	경25	사실
3번 기타	수준만큼(복지정책이)집행돼야→수준으로 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한26	해설
3번 기타	또 지난달 19일부터~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기사 본문에서 이미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중언부언의 느낌이 있음.	대2	보도
3번 기타	승인하는 → 승인할 수 있는	한1	해설
3번 기타	“가족을 통한 복지영역을~필요가 있다”고→	한26	해설
3번 기타	비키 한센 교수 같은 이는 → 비키 한센 교수는	조2	해설
3번 기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인기를 끌 수 있는	대23	해설
3번 기타	청와대와~추정된다.→	대26	사실
3번 기타	지진 및 쓰나미→지진과 쓰나미	동3	사실
3번 기타	3개월 및 6개월→3개월과 6개월	동2	해설
3번 기타	도심 통과를 않는→도심을 통과하지 않는	북1	보도
3번 기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늘어나고 있다./늘어났다.	경8	보도
3번 기타	여→여당	한17	칼럼
3번 기타	다시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다시 보게 하는	중21	칼럼
3번 기타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 지방분권 차원에서…재원을 지원해오고 있다.→정부는 2005년 지방분권 차원에서…재원을 지원해오고 있다.(제주도와 상관없이 정부가 전국에 분권교부세를 통해 재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임) *정부발표 내용임	제10	보도
3번 기타	강기권 대표이사도 창립 기념사에서…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삭제(필요 없는 문장)	제19	사실
3번 기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1	해설
3번 기타	3층 마을회관으로→3층짜리 마을회관으로/마을회관 3층으로	동3	사실

3번 기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공식 명칭은 ‘국제빙상연맹’인데 ‘국제빙상경기연맹’이라 표기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여부	경2	해설
3번 기타	탈세 및→탈세와	동6	사실
3번 기타	그만큼~의미는 대단하다.→	매10	칼럼
3번 기타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만큼(복지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열심히 일하려는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으로 복지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한26	해설
3번 기타	적극 참여하고→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광4	해설
3번 기타	부각됐지만→주목받았지만, 드러났지만	대23	해설
3번 기타	이들 학생들을 위한→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광1	해설
3번 기타	지젤은 공연 2주 전에 전화·전석이 매진됐다. 사람들이 몰리자 4중 추가 좌석을 오픈했지만 그것도 모자랐다. 마지막에는 시야장애석까지 열었지만, 이것도 30분 만에 동났다.(불필요)	조10	칼럼
3번 기타	제주도에 배정된 분권교부세 규모는 2006년 249억 원, 2007년 270억 원…증가율이 평균 2~4%에 그치고 있다.(수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약 5% 대이다.)	제10	보도
3번 기타	‘제시봉 콘서트’와 ‘나는 가수다’ 등 예능 프로그램의 흥행 성공은 그동안 방송에서 소외됐던 ‘7080 가수’(1970~80년대 주로 활동했던 가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이는 이들의 가요계 킥백으로 이어졌다.→이들은 가요계로 되돌아왔다.	서8	보도
3번 기타	잠재돼 왔던→잠재했던	부7	보도
3번 기타	때문에…15.1%가 맞았다.(15.1% 수치 근거 추측 불가)	서34	보도
3번 기타	해석되고 있다→해석된다	매23	보도
3번 기타	진단 및 처치를→진단과 처치를	광13	해설
3번 기타	공천추천자들~허허로운 일이다.→	대26	사실
3번 기타	대기업들도 지나친 탐욕을 자제했으면 한다.(불필요한 말)	경21	사실
3번 기타	①“다양한 시각의 책을 읽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②공부하라는 차원에서 권한 것이지 강제 구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	한26	해설
3번 기타	하고 있는 게→하는 게	광19	사실
3번 기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광10	보도
3번 기타	“조업중단으로 차량을~취선을 다하겠습니다.”→누가 한 말인지 밝혀지 않아 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림.	대2	보도
3번 기타	ICC 제주가 마이스 산업의 … 전문 인력 확충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절실하다.	제19	사실

3번 기타	확인됐다. 또 미야기현 내→ 확인되었으며, 미야기현 내	중4	해설
3번 기타	사실 관계 오류(세계 최초의 해저 터널)	제16	칼럼
3번 기타	ICC 제주는 회의산업의 성장으로 국제자유도시의 건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ICC 제주가 회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되는 데에 건인차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ICC 제주는 국제회의를 유치해 회의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데에 건인차 역할을 했다는 의미.)	제19	사설
3번 기타	그러나 손꼽아 기다리는 D-데이도 있다...다름 아닌 제대 날인 것이다.(군더더기 문장이므로 삭제)	제5	칼럼
3번 기타	공항을 떠난 뒤→공항에서 호텔로 떠난 뒤(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표현에 보완이 필요함.)	대4	사설
3번 기타	국제결혼은 특히 읍·면지역에서 흔하다. 농촌지역 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이는 일은 이미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기사의 첫 번째 문장과 중복된 이야기임.)	제18	사설
3번 기타	황남대총 출토 모형 금관을→황남대총 출토 금관 모형을	북5	해설
3번 기타	연속 아웃시키는→연속으로 아웃시키는	중9	보도
3번 기타	'무늬만 대학'에서...빠져주기 바란다.(노력도 안 하면서 결과의 평등만 요구하는 사람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을 타하고 있는 사람들, 경쟁 없는 유토피아를 설파하는 세력들이 실제로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를 향해 비판하고 있는지 대상을 분명히 밝혀서 칼럼을 쓰는 게 옳다.)	동27	칼럼
3번 기타	발라드 가수로 불리는 이승환의 틀을 깬→발라드 가수 이승환이란 틀을 깬	강2	해설
3번 기타	시동을 건→	동8	해설
3번 기타	공연을 하고→공연하고	대21	해설
3번 기타	취업을 했습니다→취업했습니다	대23	해설
3번 기타	BIS(bus information system) 시스템 조작→ BIS(bus information system)조차	북4	해설
3번 기타	'약한 고리' 및 핵심사업장→'약한 고리'와 핵심사업장	부7	보도
3번 기타	전자담배는 불을 붙일 필요없이 충전을 해 피울 경우, 연기만 나고 담배 고유의 역한 냄새 대신 향기가 발산된다.→전자담배는 불을 붙일 필요가 없고 충전을 해 피울 경우 연기만 나고 담배 고유의 역한 냄새 대신 향기가 발산된다.	광7	보도
3번 기타	이른바 'MRO'사업이다. 유지(Maintenance)하고, 보	광9	칼럼

	수(Repair)하며 운영(Operation)한다는 뜻의 약자로 기업에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이른바 'MRO'사업은 유지(Maintenance)하고, 보수(Repair)하며 운영(Operation)한다는 뜻의 약자로 기업에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번 기타	포항 ~ 건설부문 → (같은 내용이 바로 앞의 부분에 나와 있음.)	북13	보도
3번 기타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180명이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일간 생존권 과업을 벌인 데 대해 건설회사와 검찰이 합세해 불법 과업과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세운 것이다.→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물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 180명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일간 생존권 과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건설회사와 검찰이 합세해 불법 과업과 업무방해 혐의로 베트남 노동자들을 법정에 세운 것이다.	경25	사설
3번 기타	기관 및 기업→기관과 기업	대21	해설
3번 기타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관례인데~”면박에 결국 돈을 내는 것으로 정리됐다. 항의하던 학부모 가운데 일부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와중에 교실을 빠져나갔다.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관례인데~면박에 일부는 돈을 냈고, 일부는 교실을 나갔다.	한25	보도
3번 기타	2경기 연속 이어졌다.→2경기 연속으로 이어졌다.	중9	보도
3번 기타	기대심리와 실제 매수 및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 거래가 이뤄지는 건수는→기대심리에 비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건수는	강11	보도
3번 기타	제주동문재시장 쇼핑카트가 이용객들이 사용을 꺼리면서 먼지가 쌓인 채 세워져 있다.→제주동문재시장 이용객이 사용을 꺼려 쇼핑카트가 먼지가 쌓인 채 세워져 있다.	제2	해설
3번 기타	“정부는 지금~결코 퍼지 않고 있다”고→	매4	보도
3번 기타	“링컨은 협상 평화를 거부했다.~사면 혜택을 받았다.”→남부가 정서적으로 링컨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답변 뒷부분은 링컨의 위대함에 대한 설명이어서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함.	중20	칼럼
3번 기타	외교부는 15일 일본에서 구호활동에 참가한 119구	조13	보도

	조대원 105명과 외교부 인도지원과 직원 2명을 초청해 중이학을 전달할 예정이다. → 105명을 초청해(일본인이 119 구조대에게 중이학을 보냈으므로)		
3번 기타	영광한 댓글에도 즉각 반응해야 하는 세상이다. 응전이 늦어 저쪽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총알이 내 가슴에 박히고 만다. 댓글 하나 감당 못해 자살하는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다.	조30	칼럼
3번 기타	서훈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서훈이 있을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거나 서훈 당시 몰랐던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 밝혀져야	조12	칼럼

#### 4. 공공성

4-1.폭력적, 전투적	일제 사격→	중3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직격탄→	한4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직격탄→	동2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직격탄→	한2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음원과 영상 저작권은 쓰레기 통에 던져 버렸다.	중13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칼날을 빼들며 → 의지를 보이며	대7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칼끝	동16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하지만 어렵도 없다. →	대14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지금 전투 중인데, 자해성 발언이나 하면 되겠느냐	동11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칼을 뽑고 나서는 뒷북행정	매21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폭발력→	대26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테러의 황태자	중15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폭발적→	대21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이런 ~ 있겠는가. →	조21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박근혜과 학살	중14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경솔하게 → (삭제)	한5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굳기 빠진 내각→기강 풀어진 내각	서11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폭발→	부7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대포 전쟁→대포 경쟁	경12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장의투쟁	서12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미적대나 →	대9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총력투쟁	동15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킬' 당하다	중9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대표 선발 마지노선인→	서4	보도
4-1.폭력적, 전투적	직격탄→	광15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칼을 뽑고 나서는→규제에 나서는	경21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영남권 ~ 것이다. → (전투적)	북17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인수 합병전을→인수 합병을	한15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공략했다.→사들였다./구매했다.	중17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피폭→	한6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매물폭탄→대량 매물	강5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정부는 ~ 상승일로다. →	대14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개선에 나서라. → 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9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앞으로 치고나갈 폭발력→잠재력	경12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빈약하기 짝이 없는 →	대9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행태 → 행동	한5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마이스산업의 전초기지→선두주자	제19	사설
4-1.폭력적, 전투적	거포형→장타형	경12	해설
4-1.폭력적, 전투적	칼을 맞고→	조31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발목을 쥐는 데→	조8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응전이 늦어 저쪽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총알이 내 가슴에 박히고 만다.	조30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공연 때마다 전석 매진 기록을 토해내고 → 세우고	조10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그날까지 1억 표 이상을 득표해 고지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지에 이르렀다는/고지를 밟겠다는	제5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압박전술	동13	칼럼
4-1.폭력적, 전투적	칼날을 피해	동16	보도
4-2.차별, 비하	노동자에게 ~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노동자 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경29	사설
4-2.차별, 비하	밥그릇 다툼	서12	사설
4-2.차별, 비하	한 총장의 의지에 기대를 건다. → (우편향)	북16	사설
4-2.차별, 비하	개미 투자자→일반 투자자	경11	사설
4-2.차별, 비하	이처럼 ~ 획책했다. → (우편향)	북16	사설
4-2.차별, 비하	'쥐꼬리'생계비→	광19	사설
4-2.차별, 비하	보훈처의 보훈심사위가 어느 민간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훈 박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가 거수기처럼 이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이 정부는 한마디로 멍청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좌파적 아니냐고 할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조12	칼럼
4-2.차별, 비하	자산운용사들이 자문형 랩 대항마로 허겁지겁 내놓은 소위 '목표 전환형 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매2	칼럼
4-2.차별, 비하	특히 ~ 할 만하다. → (좌편향 시각이 보임.)	경30	사설
4-2.차별, 비하	봉숭아 의총	동11	보도
4-2.차별, 비하	배짱이의 권리를~개미의 권리를~없다.→	한26	해설
4-2.차별, 비하	남들 발목 잡지 말고 조용히 빠져주기 바란다.→반성하고 본받자.	동27	칼럼
4-2.차별, 비하	개미가/개미투자자가→개인 투자자가	강5	해설
4-2.차별, 비하	근로행태 등의 제도→(*근로와 제도 사이에 '행태'를 넣어 '근로제도'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다.)	경20	보도
4-2.차별, 비하	반면 로펌에서 선호하지 않는 부처 출신들은 퇴직 후 순간 빠는 신세가 될 때가 많다.→채취업의 기회를 잡지 못할 때가 많다.	서10	해설
4-2.차별, 비하	김 총리의 '인식'도 그렇고, 국무회의에서 말 한마디	조12	칼럼

	없이 통과시킨 국무위원들의 무식함이 부끄럽다.		
4-2.차별, 비하	'딱 일주일 동안만 모집합니다'란 광고는 혐오평식 떨이 마케팅마저 연상시킨다.	매2	칼럼
4-2.차별, 비하	도덕적 해이의 ~ 명예조차 있는지. →	부3	칼럼
4-2.차별, 비하	금융당국은 갑판질쟁이이며 정치권은 서로 네탓 싸움 질에 열중이다. →	부3	칼럼
4-2.차별, 비하	뒷골목의 전당포보다 못한 제도권 금융 →	부3	칼럼
4-2.차별, 비하	이들 대부분은 ~ 인맥의 사람들이다. →	부3	칼럼
4-2.차별, 비하	역대 ~ 삼아왔다. →	조21	사설
4-2.차별, 비하	이대로라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다. →	조20	사설
4-2.차별, 비하	록펠러가 ~ 봐야 한다. → 엉뚱하다는 표현을 써 비하하고 있음.	조19	칼럼
4-2.차별, 비하	대악이요 거악이다 →	부3	칼럼
4-2.차별, 비하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 →	대7	해설
4-2.차별, 비하	이런 '막가파' 식 정부가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를 일이다.	조12	칼럼
4-2.차별, 비하	금융 막장 →	부3	칼럼
4-3.과장(선정)	인질로 잡아 놓고 있는(과장된 표현이라 생각됨)	조4	사설
4-3.선정, 과장	대한민국이 주저않는 모습이다. →	부3	칼럼
4-3.선정, 과장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밝은 미소를 지녔다.→	복2	보도
4-3.선정, 과장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제12	보도
4-3.선정, 과장	상상하기 힘든 경쟁력을 바탕으로→그만 한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과장된 감이 있다고 봄.	대4	사설
4-3.선정, 과장	이번 건은 아무래도~ 아닌가 싶다.→	대26	사설
4-3.선정, 과장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하다. →	대26	사설
4-3.선정, 과장	2050년에 유엔이 전망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현재 고령자 부양률이 세계 2위인 것처럼 제목을 달아 놓은 것은 잘못이다.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순 있어도 현실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동29	사설
4-3.선정, 과장	복지예산 증가율은 매년 7~9%대에 이르면서 모자라는 사업비는 결과적으로 지방비로 충당해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10	보도
4-3.선정, 과장	제주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이 일반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제18	사설
4-3.선정, 과장	이 좋은 정책을...나는 믿는다.(이 좋은 정책이 의미하는 것은 소외 지역 저소득층부터 차별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복지 정책을 말한다. 물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질 좋은 교육권이 보장 돼야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 경	동27	칼럼

	제, 문화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3.선정, 과장	저출산이 우리사회의 <u>제약인</u> 상황에서 국제결혼은 <u>촉박</u> 이다.→저출산이 우리사회의 <u>고민거리</u> (심각한 문제)인 상황에서 국제결혼은 <u>새로운 대안</u> 이다.	제18	사설
4-3.선정, 과장	지금 영남권 정치인들의 반발은 납세자들의 권익은 아랑곳없이 내 표만 지키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이처럼 막 무가내식으로 우기겠는가.	서2	사설
4-3.선정, 과장	아이가 담보로 잡혀 있다 보니→	한25	보도
4-3.선정, 과장	미친 기름값→치솟는	제6	보도
4-3.선정, 과장	검, 사정칼끝 '금융검찰' 겨누나	동16	보도
4-3.선정, 과장	문제의 근원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성별·국적·피부색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데도 이를 이주노동자에겐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있다.→	경25	사설
4-3.선정, 과장	일부 관광객들은 착시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착시 현상을 체험하러 온 관광객이 무단으로 도로를 유턴하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여,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단언하는 것은 과장이다.)	제12	보도
4-3.선정, 과장	노동자로 불러들여놓고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선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25	사설
4-3.선정, 과장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2	사설
4-3.선정, 과장	서울대생들은 후배들에게 법인화의 기초를 다진 선배로 남을 것인지, 법인화에 반대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선배가 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	동23	사설
4-3.선정, 과장	통절하게 → 진실하게	한5	사설
4-3.선정, 과장	지자체 엉터리 사업들이 나라를 거덜낸다.→지자체를	조29	사설
4-3.선정, 과장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청 앞뜰. 또래와 함께 뛰놀던 6 살배기 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자원봉사자가 "위험해. 어서 내려와"라고 외치자 아이가 말했다. "싫어. 자살할거야."	한8	보도
4-3.선정, 과장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도로환경의 개선을 위해→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17	사설
4-3.선정, 과장	나아가 국격(國格)을 제고하고→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는 기여하지만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효과까지	대4	사설

	거두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봄.		
4-3.선정, 과장	착시현상 시작 구간을 찾지 못해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도로 가운데에 멈춰서 한참을 두리번거려야 했다.(심리를 단언하는 것은 과장이다. 사실 전달하는 표현으로)	제12	보도
4-3.선정, 과장	7대 경관의 위대한 도전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7대 경관에 대한 위대한 도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제5	칼럼
4-3.선정, 과장	신경아 사건의 ~마케팅을 학습하고 있다.→	조31	칼럼
4-3.선정, 과장	미래의 과국을 예고하는 한국판(版) '아키마루 보고서'는 수백, 수천 종류가 나와 있다. 8년 뒤부터 인구는 감소로 돌아서고, 이르면 40년 뒤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게 된다. 이때쯤이면 지금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GDP의 46%를 복지에 쏟아부어야 한다.→수백, 수천 건의 '한국판 아키마루 보고서'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구 감소, 국민연금 고갈, GDP의 46%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예측이 곧 '미래의 과국'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조25	칼럼
4-3.선정, 과장	신경아 사건의 최대 피해자일 젊은 20~30대들이 지금 보복용 일기 쓰는 법과 신경아 마케팅을 학습하고 있다.	조31	칼럼
4-3.선정, 과장	좌파 대통령들보다→	조8	칼럼
4-3.선정, 과장	이들에게는 ~ 지경이다. →	부3	칼럼
4-3.선정, 과장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다.	조25	칼럼
4-3.선정, 과장	당장 출산 없는 포플리즘 전쟁을→당장 무모한 포플리즘 경쟁을	조25	칼럼
4-3.선정, 과장	대한민국을 망친 'A급 전범'	조25	칼럼
4-3.선정, 과장	은통 돈 쓸 궁리만 판치는 나라	조25	칼럼
4-3.선정, 과장	결론은 상식대로였다. 일본의 국력은 미·영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개전(開戰) 초기 2년은 버틸지 몰라도 그 이상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결론은 예상대로였다. 일본의 국력은 미·영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개전(開戰) 초기 2년은 버틸지 몰라도 그 이상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무엇이 '상식'인가?	조25	칼럼
4-3.선정, 과장	'질 것 뻔한 전쟁'	조25	칼럼
4-3.선정, 과장	얼핏 작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지연 선생의 서훈 박탈은 이 땅에 보수정치가 마감되고 있음을 예고한다.	조12	칼럼
4-3.선정, 과장	한국판(版) '아키마루 보고서'는	조25	칼럼
4-3.선정, 과장	지금 99%대 1% 대결이 오래가면 한국사회는 급속히 좌경화된다.→좌경화할 공산이 크다.	매30	칼럼
4-3.선정, 과장	심지어 일부 양재 관광객은 비상등을 켜고...뒤따라 오던 차량들이 연신 시끄러운 경적을 울려대자 관광객들이 깜짝 놀라 짜증을 내기도 했다.→ 경적을 울려대기도 했다.	제12	보도
4-3.선정, 과장	관광 명소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신비의 도로', 일	제12	보도

	명 '도깨비 도로'에 ('관광 명소'라는 표현이 과장)		
4-3.선정, 과장	컷값을 → (죄라고 하기엔 적절치 않음.)	조20	사설
4-3.선정, 과장	이대로 가다간 지자체 재정 파탄으로 주민들이 그 빛을 걸머질 게 뻔하고 나라 전체가 결판이 날 판이다.	조29	사설
4-3.선정, 과장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나온 돈으로→저축은행 고객들이 모두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사는 것은 아니므로.	부11	칼럼
4-3.선정, 과장	쇼핑카트에는 먼지만 가득했다. →쇼핑카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제2	해설
4-3.선정, 과장	포수 조인성 '다크호스' 두각→여전히 유력	경12	해설
4-3.선정, 과장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	중19	해설
4-3.선정, 과장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의 지형을 바꿔놓았다.~대중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것도 농지개혁 덕이었다.→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성공 일변도로 부풀려서 기술한 것은 과장이라고 봄.	중21	칼럼
4-3.선정, 과장	'작은 것은 과연 아름다울 수 있을까.'	서35	해설
4-3.선정, 과장	너손상 불가피"→가벼운 너손상 불가피"	복3	해설
4-3.선정, 과장	이제 8월이다.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달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데 최적이라 할 수 있다. A자형 인재가 만들어지는 시기다.(A자형 인재는 고도의 전문성, 다방면의 지식에 대한 이해,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를 말한다. 이런 인재는 단기간에 만들어 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 지는 것이므로 8월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A자형 인재가 만들어진다고 단정 할 수 없다.)	제4	칼럼
4-3.선정, 과장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들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24	해설
4-3.선정, 과장	최진행 '단독선두' 질주 채비→흠뻑 선두로 나서	경12	해설
4-3.선정, 과장	최형우는 시즌 전부터 일찌감치 올해 목표를 40홈런 돌파로 내걸었다.→목표를 40홈런으로 정했다.	경12	해설
4-3.선정, 과장	자학사관(自虐史觀)을→	중20	칼럼
4-3.선정, 과장	米쳤다 →	서17	해설
4-3.선정, 과장	그들의 대표성은 죽어가고 있다.	조30	칼럼
4-3.선정, 과장	이는 자학사관을~국민의 열망을 반영한다.	중20	칼럼
4-3.선정, 과장	종북(從北)좌파들은→	중20	칼럼
4-3.선정, 과장	메가톤급 히트곡을 선사한다.→대표적 히트곡을 부른다.	강2	해설
4-3.선정, 과장	아쉽게도 ~ 거의 없다. →	대14	칼럼
4-3.선정, 과장	공항공사는 공고문에서 냉방시설(에어컨)을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모델로 23평, 25평의 경우 정속형으로 소비전력 1등급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며, 가능	제15	해설

	한 주민이 희망하는 냉방시설을 선정해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두 가지 설치 방식을 가지고 마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서 과장이다.)		
4-3.선정, 과장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원조라~우과의 손에 의해 실행됐다는→실상을 생각할 때 복지정책의 원조라는 표현은 과장이라고 봄.	중21	칼럼
4번 기타	'가미카제(新風)'가 불어줄 것→역사 지식 배경 없는 독자를 배려할 필요	조25	칼럼
4번 기타	신정아 사건의 최대 피해자일 젊은 20~30대들이 지금 보복용 일기 쓰는 법과 신정아 마케팅을 학습하고 있다.	조31	칼럼
4번 기타	열 받았을 거다→	중3	칼럼
4번 기타	'애꿎은' 인사 10여 명도(그들도 대부분 학력 부풀리기에 관련된 행동을 한 인물이니 '애꿎은'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음.)	조31	칼럼
4번 기타	주인공인 투자자문사 대표 선수는 '나가수' 출연진 못지않은 당대 여의도 스타들이다.	매2	칼럼
4번 기타	국내의 시민단체들도 한국의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하지만 요즘 시민단체 중엔 따가운 눈총을 받는 곳이 꽤 있다. 시민단체 본연의 역할을 제쳐놓고 이른바 '돈이 되는 이슈'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지적도 받는다.(국제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국내의 시민단체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쓴 문단 같은데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고, 초점이 어긋난 내용임.)	동21	칼럼
4번 기타	정신분열적→	중3	칼럼
4번 기타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 '계급장 댄 대결이 격을 높인다' 어떤 것이 그런 대결인지, 구체적인 예는 무엇인지, 왜 격을 높게 되는지, 굳이 그런 대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젤 공연, 국내 클래식 공연, 정명훈의 공연 등이 어떻게 계급장 댄 대결과 관련이 있는지.	조10	칼럼
4번 기타	은폐·묵살한 채→묵살한 채(은폐라고 할 때의 근거 필요.)	조25	칼럼
4번 기타	*칼럼에 따르면 '무상'과 '반값' 논의자 또는 찬성자가 모두 A급 전범이 되는 오류 발생	조25	칼럼
4번 기타	어찌 보면 자격지심(自激之心)이랄까.→삭제(없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다.)	서7	칼럼
4번 기타	번지수를 잘 못 짚은 예감이 든다.→	대26	사설
4번 기타	"우리 나라와 같은 통합감독권이 훨씬 더 .....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제목과 관련이 없음.	서12	사설

4번 기타	좌파의→진보 성향의 시민운동 단체를 싸잡아 좌파로 간주하는 것 지양.	동9	사설
4번 기타	경탄으로(과장된 감이 있음)	동3	사설
4번 기타	최 대표는 "중편은 초기엔 100을 투자해 80을 건지면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인적·물적 투자를 과감하고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편이 어차피 방송 사업을 계속할 거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스튜디오와 촬영장비 등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는 편이 낫다는 것.(주체에서 벗어난 이야기임.)	매15	해설
4번 기타	사랑스러운 배우→특별히 공효진만 가리켜 '사랑스러운 배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됨.	한15	해설
4번 기타	김대중 정권은~고강도의 세무 사찰을 자행했다.→당시 해당 신문사 중의 하나였던 동아일보가 이처럼 당했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져 보임.	동6	사설
4번 기타	부처 행사, 홍보성 기사는...왜 이런 일에는 소극적인지 자문할 일이다(주체와 관련 없음)	서34	보도
4번 기타	좌파 교육감이~전동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지나치게 왜곡해서 해석한 경향이 있음.	동9	사설
4번 기타	근사하다. 정지란 게 안전빵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다. 필요할 땐 건공일칙의 결전도 벌이고 장렬하게 산화하기도 하는 거다. 속으로 그는 사즉생(死即生)을 생각할 것 같다.	경5	해설
4번 기타	주체화 부족	제4	칼럼
4번 기타	'신비의 도로' 시작점 알리는 안내문도 1곳 그쳐 혼란 부추겨→안내표지를 1곳 더 설치해야 (기사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으로 수정이 필요함.)	제12	보도
4번 기타	환경단체의 입장과 강원도의 입장이 대비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리왕산에 대한 환경부와 산림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언급되었다면 입장차에 대한 내용의 완결성이 있었을 텐데 글을 급하게 마무리 하는 느낌이 든다.	동25	보도
4번 기타	① 제목, "돈 많이 준다면..." 마루타 알바도 OK / ②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 ③ '고스란히 드러난다.' 등 표현에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서33	보도
4번 기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글인지 모호함. 이른바 자학사관 퇴출과 국사 필수화의 연관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	동3	사설
4번 기타	미국과 전력 격차가 워낙 커→주관적, 근거·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조25	칼럼
4번 기타	지진 피해를 당한~훨씬 큰 위협이다.→위협의 정도	동9	사설

### 제3장 방송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를 상대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봄. 과장 내지는 논리의 비약으로 보임.		
4번 기타	*선동이 아니라 논리에 의한 주장이 칼럼의 논조로 적합	조25	칼럼
4번 기타	폭우로 수해를 입은 KIA와 피해를 본 롯데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내용 전개상 LG와 KIA의 이야기가 지면에 많이 할애가 돼 정작 제목으로 뽑아 놓은 롯데의 이야기는 매우 적다. (기사의 제목과 어울리지 않음)	동26	해설
4번 기타(독선)	나는 서훈 취소를 의결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시일야망성대곡'을 읽어보거나 했는지 묻고 싶다. 아니 그가 지방언론에 썼다는 다른 글이 얼마나 '매국적'인지 읽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조12	칼럼
4번 기타(주관적)	"종합적으로 볼 때 그는 훈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야 했다.	조12	칼럼
4번 기타(주관적)	문제는 '이명박 정부'다. 이 정부는 한마디로 '철학이 없는 정부' 같다. (중략) 하는 일들을 보면 좋게 말해서 '실용'이고, 실제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기회주의적' 집단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략) 기왕에 준 장지연 선생의 훈장이나 도로 빼앗는 배알 없는 무개념 정권으로 낙인 찍히고 말 것이다.	조12	칼럼
4번 기타(주관적)	'명칭한 정부' 탓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 대선배의 명예가 더럽혀졌지만 나는 그래도 장지연 상을 자랑으로 간직하고자 한다.	조12	칼럼

#### 1. 개요

##### 가. 과업의 필요성과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언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품격 언어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방송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지적인 만족을 주고, 우리를 웃기고 울리면서 정서적인 만족을 준다. 그러한 기능을 가진 방송을 우리는 흔히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이름으로 대신하여 부른다. 그만큼 방송은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저품격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막말과 고성어 오가는 이른바 막장드라마들은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반말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연예오락 프로그램, 폭로전을 방불케하는 토크쇼, 외래어와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예능, 체육 관련 프로그램 등은 우리 방송이 어느 정도의 격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하게 한다.

이렇게 방송 언어의 품격이 점점 낮아진다면,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도 낮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며, 나아가 이러한 언어는 대중들의 언어 사용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 더욱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르고 고운말보다는 비속어와 비표준어, 폭력적인 표현과 선정적인 표현,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표현들에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노출된다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 것은 상업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방송사와 제작진, 그리고 출연자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방송 언어의 품격이 더 낮아지기 전에 우리는 방송언어의 현위치를 되돌아보고, 문제를 신중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방송언어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언어의 사용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실태 조사에서 끝내지 않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까지 각 방송사는 심의 부서를 통하여 방송 언어의 사용을 점검하고,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방송언어특별위원회에서는 방영된 방송의 언어 사용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국립국어원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외래어 및 외국어의 순화어를 보급하는 역할과 함께, 방송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수없이 많은 권고를 한 바 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에서도 부적절한 방송 언어에 대한 제작진의 시정을 누차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바른 방송언어에 대한 기준이 기관과 단체마다 차이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방송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신중하게 선정이 되어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점을 깊게 고려하여 저품격 방송 언어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방송언어의 품격을 측정하며, 문제가 있는 방송 언어의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고품격의 방송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안을 제작진과 방송사에 촉구할 것이다. 우리의 대안이 제작진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 품격이 높은 방송언어를 우리 방송에서 만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방송의 질이 향상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이 조사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나. 과업의 범위**

방송 프로그램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 조사는 다음 방송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 1)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연예오락, 드라마, 스포츠 프로그램
- 2) 라디오 프로그램

본 조사에서는 각 방송사의 텔레비전 방송 장르 구분<sup>4)</sup> 방식을 종합하여 ‘드라마, 시사교양, 연예오락, 스포츠’로 나눈다. 또한 그 가운데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이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 프로그램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4)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 장르 구분 방식을 살펴보면, KBS는 방송 장르를 ‘드라마, 시사교양, 연예오락’으로, MBC에서는 ‘드라마, 시사교양, 예능, 스포츠’로, SBS에서는 ‘드라마, 예능, 교양’으로 나누고 있다.

드라마의 경우 ‘막장 드라마’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드라마의 내용부터 언어 사용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드라마는 그 언어적 영향력도 커서, 드라마에서 사용된 말이 유행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 자극적인 내용을 추구하다보니 더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방송의 격을 떨어뜨리고 실제 언어생활에도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방송 언어의 공공성이나 영향력을 망각한 듯한 인상을 준다.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 시청자들이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즐겨 본다는 사실을 생각해서라도 언어적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포츠 프로그램 가운데 특히 중계 프로그램은 언어적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실감나는 중계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방송은 기록 매체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계방송에 사용된 언어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수차례 방송되고, 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은 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스포츠 프로그램의 언어는 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드라마, 연예오락, 스포츠’ 장르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청취율이 높아 언어 사용의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청취자들이 오직 청각만을 사용하여 방송에 집중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태 조사는 조사 당시에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시의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 조사의 결과는 매월 국립국어원에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매조사마다 작성되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정리, 통합한 결과와 방송언어와 관련된 학술 연구업적을, 2011년 10월 12일 SBS와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2. 월별 실태 조사

**월간 보고서: 4월**  
**지상파 일일 드라마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지상파 일일 드라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과 저녁 매 방송사에서 송출된다. 특히 매일 8시 전후로 방송되는 저녁 일일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고 시청층도 넓은 편이다. 지상파 아침 드라마는 저녁 드라마에 비해서는 매우 시청률이 낮고, 과거에는 주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요즘에는 대학생 및 미취학 아동들도 ‘어머니’와 함께 아침 드라마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방학 기간 동안에는 초·중·고 학생들도 아침 드라마를 볼 수 있고 방송사 다시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제든지 아침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드라마의 시청층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일 드라마는 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안에 ‘출생의 비밀’이나 ‘불륜’, ‘복수’와 같은 극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아침 드라마는 이러한 내용이 빠짐없이 등장하여 시청자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어휘나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저녁 드라마 역시 과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잘못된 언어 사용이 많이 나타난다. 가족 관계를 그리면서 부부 사이, 부모 사이에 부적절한 언어,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일일 드라마를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특히 ‘저품격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대상

[3] 분석 항목

1) 저품격 표현

- 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 ② 비속어와 은어
- ③ 폭력적인 표현
- ④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 ⑤ 반말

채널	프로그램명	등급	출연자	방송일시
KBS2	사랑하길 잘 했어	15	김진태, 박혜숙, 최주봉 외	2011. 4.5~6 2011. 4.13~14
KBS1	웃어라 동해야	15	지창욱, 도지원, 오지은 외	2011. 4.6/9 2011 4.14~15
MBC	당신 참 예쁘다	15	윤세아, 현우성, 김태훈 외	2011. 4.5~6 2011. 4.13~14
MBC	남자를 믿었네	15	박상민, 우희진, 심형탁 외	2011. 4.6/9 2011 4.14~15
SBS	장미의 전쟁	15	김혜리, 오대규, 이형철 외	2011. 4.5~6 2011. 4.13~14
SBS	호박꽃 순정	15	배종옥, 이청아, 진태현 외	2011. 4.6/9 2011 4.14~15

2) 비표준어, 비표준 발음

3) 부적합 표현

[4] 지상파 일일 드라마의 언어 사용 분석

1) 저품격 표현

저품격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와 은어, 선정적인 표현, 폭력적인 표현, 외국어<sup>5)</sup> 외래어의 오용 및 남용, 반말을 들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과 비속어와 은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드라마에서 갈등은 아주 중요한 장치이지만 조사 대상이 된 여섯 프로그램은 혼외 자식, 출생의 비밀, 미혼모는 물론 고부 갈등이나 이혼부터 살인까지 다소 무리한 갈등을 소재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1)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그나마 온 세상 톨마니들한테 실컷 다 이용이 나  
당하고 어느 개천에 코를 박고 죽었는지 시체도 못 찾았을 인간이야.

<호박꽃 순정>

(2) 영리한 세퍼트 머리통만도 못한 주제에 그 정도 살았으면 뭐 손해 볼 것도 없지.

<호박꽃 순정>

5) ‘불필요한 외국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할 우리말이 있는 말을 의미한다.

- (3) 갈짚은 물건 같으니라고. <호박꽃 순정>  
 (4) 허구헌 날 집구석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그거 하나 못 해? <당신 참 예쁘다>  
 (5) 니 엄마 좀 돌아와보다. <사랑하길 잘 했어>  
 (6) 제까짓 것들이 우리 집에 해올 혼수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남자를 믿었네>  
 (7) 팁장님 이해력이 좀 딸리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길 잘 했어, 수진>

<호박꽃 순정>에서는 여주인공이 그동안 자신의 일을 도와준 남주인공을 비난하며 (1)~(3)과 같은 말을 한다. ‘딸마니들한테 이용이나 당하다’ ‘어느 개천에 코를 박고 죽었는지 시체도 못 찾았을 인간’, ‘개 보다 못한 주제’이라는 표현은 저녁 시간대에 온 가족이 시청하는 드라마에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이고 품격이 낮은 표현이다. 이들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동시에 ‘딸마니’, ‘머리통’ 등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딸마니’는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일컫는 말로 이러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머리통’은 ‘머리’를 낮잡아 일컫는 말이다. (3)처럼 사람을 물건에 빗대는 것 역시 인격 비하 표현이다.

(4)과 (5)는 부부 간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남편’이 ‘아내’를 비하하며 발화하는 표현인데, (4)는 딸에게 자신의 아내가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인에 대한 비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하는 말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5)는 부부 싸움 같은 상황에서의 발화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다. <당신 참 예쁘다>에서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이라는 등장인물의 설정을 위해 위와 같은 표현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중년의 아내의 인격을 비하하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한다.

(6)은 사돈이 될 집안의 사람들을 ‘제까짓 것’이라고 비하하고 있다. (7)의 경우는 직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부하직원이 상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예의를 지켜야 하는 상황과 대상에 있어서 부적절한 표현이다.

## ② 비속어와 은어

비속어·은어는 저품격 언어의 대표적인 예이다. 심각한 갈등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속어·은어는 등장인물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 (1) 이런 된장할…….

- (2) 서희장하고 맞짱 뜨기 결끄러우니까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거 아니야. <장미의 전쟁>  
 (3) 거기는 문사장한테 꼬리 쳐 놓고 뭘 그래? <당신 참 예쁘다>  
 (4) 에이 너 뺑치시는 거지? 아이 니가 무슨 모텔을 해? <남자를 믿었네>  
 (5) 입 닥쳐. <웃어라 동해야>  
 (6) 지금 당신 손에는 오랑 고도리까지 다 들고서 피박 명박 쓰리박까지 하 쟈쵸. <남자를 믿었네>

<장미의 전쟁>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된장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욕설 ‘젠장할’을 연상시킨다(1). (2)는 회사 내의 권력 구도에 대해 말하며 ‘맞짱 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역시 지상파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예이다. (3)의 ‘꼬리 치다’는 ‘아양을 떨다’라는 의미의 관용구로, 비속어이며, (4)의 ‘뺑치다’ 역시 ‘허풍을 치다’를 속되게 일컫는 말이다. (5)는 등장인물이 여동생에게 사용하는 말인데 ‘그만해.’ 정도로 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6)은 도박에서 사용되는 은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 ③ 폭력적인 표현

최근 드라마에서 ‘폭력적인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폭력적인 표현들이 사용되는 장면이 지상파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 (1) 야, 너 죽을려구 환장을 했냐? <장미의 전쟁>  
 (2) 그런 헛소리도 한 번만 더 지껄이면 그때는 죽여버릴 줄 알아 <남자를 믿었네>  
 (3) 야, 니 입부터 돌려놓기 전에 주둥이 닫고 형 돈이나 갚어. <당신 참 예쁘다>  
 (4) 성대를 쪼여야 말이 없어질래나? <장미의 전쟁>

(1)과 (2)는 모두 가족 간의 대화에서 관찰된 예이다. (1)은 자신의 딸에게, (2)는 자신의 동생에게 사용한 표현으로 자식과 동생을 혼내기 위해 ‘죽여버리겠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

는 것은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3)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입을 돌려놓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폭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둥이'는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비속어이다. (4)는 직장 상사가 부하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성대를 조이겠다.'고 하는 예이다. 이 역시 공적인 관계에서 사용될 수 없는 폭력적인 표현이다.

**④ 외국어, 외래어의 오용 및 남용**

현대 국어 생활에서는 다양한 외국어와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필요한 외국어와 외래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 (1) 뭐 이런 더티한 인간이 다 있어? <장미의 전쟁>
- (2) 둥근 뚜껑이 달인 디쉬가 나오는데 그걸 딱 열면 거기 반지가 들어 있는 거야. <장미의 전쟁>
- (3) 저는 앞으로 카밀리아 김치를 이런 마인드로 이끌 생각입니다. <웃어라 동해야>
- (4) 언제든 급하면 콜라라면서요. <당신 참 예쁘다>

위의 예에서 밑줄 친 어휘 및 표현은 모두 불필요하게 외래어·외국어가 사용된 것이다. (1)의 '더티한'은 '더러운', (2)의 '디쉬'는 '접시' 혹은 '요리', (3)의 '마인드'는 '생각'이나 '마음', (4)의 '콜라하다'는 '전화하다', '연락하다'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 모두 해당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있는데 외래어·외국어가 과도하게 사용된 예이다.

**⑤ 반말**

드라마에서 반말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반말이 사용되지 않는 관계에서 반말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 (1) 이집에 예미하고 딸은 뭐가 그리 잘났어? <남자를 믿었네>
- (2) 아이 신여사 뭐하는 거야? <사랑하길 잘했어>

(1)은 등장인물이 '아들의 여자 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상황이고, (2)는 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신여사'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반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2) 비표준어, 비표준 발음**

지상파 드라마의 배우들도 정확한 발음으로 표준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언 화자'로 설정된 경우가 아닌데도 비표준어가 사용되거나 부정확한 발음으로 대사 전달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언어 습관이 전국민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 (1)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라 집안 구석구석에 내 애정이 배겨있긴 하지. <남자를 믿었네>
- (2) 가짜 남친에 혼전임신까지 시킨 놈이 됐는데두 밥이 목구녕으루 술술 넘어 가냐? <당신 참 예쁘다>

(1)의 예에서는 '배겨 있다'가 잘못되었다.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는 뜻의 단어는 '배다'이다. 밑줄 친 부분을 '배어 있다'로 고쳐야 할 것이다. (2)에서는 '목구멍'의 방언형인 '목구녕'이 사용되고 있다. '남친'은 은어이므로 이 역시 '남자친구'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부적합 표현**

'부적합 표현'에서는 경어법이 잘못 사용된 예, 현대 한국어의 문법에 적합하지 않은 예 등을 다룬다.

- (1) 어머니가 좀 실망되고 배신감 느끼는 건 알겠는데요. <사랑하길 잘했어>
- (2) 모닝콜 하나 날려줄까? <당신 참 예쁘다>

(1)에서 '어머니가 실망되다'라는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실망하시고, 느끼시는'과 같이 어머니를 높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2)의 '모닝콜을 날려주다'는 부적합한 표현이므로 '모닝콜 하다'로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론**

지상파 일일 드라마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방송되는 각 방송국의 대표적인 드라마이다. 특히 저녁 드라마는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에 방송되어

시청률이 높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러나 일일 드라마의 언어는 시청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에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속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저품격 언어들을 관찰하여 유형을 나누고, 적절한 대안을 살펴보았다.

드라마는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는 것이지만 그 속의 언어는 ‘방송’을 위한 공적인 언어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일일 드라마 언어 사용에서는 이러한 언어 인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인다. 일일 드라마의 경우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 폭력적인 표현 등이 25분 내외의 드라마 한 편당 적게는 2회, 많게는 10회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저품격 언어들이 사용되는 것이 일상화된다는 점은 큰 문제가 있다. 저품격 언어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시청자들의 언어 사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일드라마의 제작자와 출연자 모두 시청자들의 정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감 있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붙임 : 지상파 일일 드라마의 언어사용 오류 1부**

<붙임>

지상파 일일 드라마의 언어사용 오류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KBS2	사랑하길 잘했어	수진 (손가영)	뒷장님 이해력이 좀 딸리시는 거 아니에요? → 직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상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상황과 대상에 있어서 부적절한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경자 (박혜숙)	저걸 누가 말려? → 자기 아들을 물건처럼 ‘저거’ 라고 지칭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경자 (박혜숙)	죽 썰서 개 좋은 일 시킨 거지 뭐. →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을 보고 ‘죽 썰서 개 좋은 일’ 을 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며느리에 대한 비하 표현이 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태호 (김진태)	니 엄마 좀 돌았나보다. → 딸에게 자신의 부인이 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부인에 대한 비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하는 말로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경자 (박혜숙)	연약한 척 하지 마. 역겨워. → 며느리에게 역겹다고 말하는 것은 며느리에 대한 비하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경자 (박혜숙)	니가 복이 많은 건지, 단수가 높은 건지 난 잘 모르겠다. 도기는 애가 워낙에 착해서 다지 맘 같은 줄 알지만 내 눈에는 니 수가 다 보여. 니 다음에도 또 이상한 수작 부리면 나 그땐 안 참는 줄 알아. → 며느리에 대해 ‘단수가 높다, 수가 보인다, 이상한 수작을 부린다’ 와 같이 말하는 것은 며느리에 대한 비하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동훈 (권세인)	아이 <u>신여사</u> 뭐하는 거야? →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신여사’ 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고 있다.	반말/부적합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지원 (김민희)	어머님 <u>상심하게</u> 만들어서 더더욱 죄송하구, 어쩔 줄을 모르겠어. → 자신의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부적합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이므로 '상심하시게' 와 같이 높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KBS2	사랑하길 잘했어	도기 (이광기)	어머니가 좀 실망되고 배신감 느끼는 건 알겠는데요. →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실망하시고, 느끼시는' 과 같이 어머니를 높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허수 (윤순홍)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설하게 하십니까? → '섭하다' 는 비표준어이다. '섭섭하다'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KBS2	사랑하길 잘했어	동훈 모 (이미지)	애가 왜 이렇게 더듬수를 놔? → '더듬수' 는 비표준어이다. '더듬수를 놔' 는 '말을 더듬어'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KBS2	사랑하길 잘했어	정림 (서권순)	그 여자가 날 왕따 시켰었던 말이야. → '왕따 시키다' 는 '따돌리다' 의 은어이다.	은어
KBS2	사랑하길 잘했어	동훈 (권세인)	그래서 엄마가 왕따를 시키셨다고요? → '왕따 시키다' 는 '따돌리다' 의 은어이다.	은어
KBS2	사랑하길 잘했어	동훈 모 (이미지)	내가 완전 박살을 내버렸지. → 다른 사람에게 무안을 준 일을 말하여 '박살을 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표현이다.	폭력적인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동훈 모 (이미지)	왕따 되가지고 완전 떡 뺐지 뭘. → 다른 사람을 '떡 뺐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오과장	성대를 쪼여야 말이 없어질래나? → 직장 상사가 부하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성대를 조이겠다.' 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표현이다.	폭력적인 표현
KBS2	사랑하길 잘했어	도기 (이광기)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 동생과 싸우며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속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나명자 (정애리)	남의 집 딸들은 시집도 잘 가구만 우리집 거는 뭐가 모자라서 여태 이러구 있어? → 자신의 딸을 '우리집 거'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나명자	하나님 이 구신 안 잡아가고 뭐하시나 몰라!	인격을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 자신의 딸을 '구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구신' 은 '귀신' 의 잘못된 표현이다.	비하하는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장대풍 (조희봉)	야! 초딩 같은 소리 하지 말어. → '초딩' 은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MBC	당신 참 예쁘다	장수호 (천보근)	우리 초딩도 그런 소리 안 해. → '초딩' 은 초등학생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변강수 (현우성)	사이드 내리고 브레이크 밟고 시동 켜요. → '사이드' 는 '사이드 브레이크' 를 줄인 은어이다.	은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변강수 (현우성)	그 놈의 똥차 때문에……. → '똥차' 는 '현 차나 고물차를 낫잡아 이르는 말' 이다.	비속어
MBC	당신 참 예쁘다	고유광 (윤세아)	똥차 주인 때문이죠. 똥차가 무슨 죄예요? → '똥차' 는 '현 차나 고물차를 낫잡아 이르는 말' 이다.	비속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변강수 (현우성)	예휴, 저거 저거 내 여동생이었으면 내 손에 아작 났다. → 사람을 '저거' 라고 지칭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다. '아작 나다' 와 같은 표현은 '바스르뜨리다' 정도의 의미이므로 폭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적인 표현/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장대풍 (조희봉)	아, 그러면은 뭐 간략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손배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 민사소송을 해보든가. → '손배' 는 '손해배상' 을 줄여 만든 은어이다.	은어
MBC	당신 참 예쁘다	장대풍 (조희봉)	아, 애가 정말 뽕 무시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 '자빠졌네' 는 '있다' 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비속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변강수 (현우성)	냉동폰인 줄 알았어요, 난. → '냉동폰' 은 '전화가 오지 않는 휴대전화' 를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MBC	당신 참 예쁘다	(최승경)	야, 니 입부터 돌려놓기 전에 주둥이 닫고 형 돈이나 갚어. → 돈을 갚지 않으면 입을 돌려놓겠다고	비속어/폭력적인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협박하고 있다. 이는 폭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둥이’는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비속어이다.	
MBC	당신 참 예쁘다	장대풍 (조희봉)	나 바쁘거든? 셀프로 하설. → ‘셀프로 하다’는 ‘스스로 하다’라는 의미로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어미의 발음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비표준 발음
MBC	당신 참 예쁘다	고유양 (윤세아)	언제든 급하면 콜하러만서요. → ‘콜’은 ‘전화’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변강수 (현우성)	이별 모드요. → ‘이별 모드’는 ‘이별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박치영 (김태훈)	파티세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디저트 쪽으로 메뉴 개발을 잘하더라구. → ‘파티세, 디저트’는 각각 ‘제빵사, 후식’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박치영 (김태훈)	굳이 뭐 필요하면 훌륭한 파티세들 많은데 뭐하러 그런 아마추어를 써? → ‘파티세들, 아마추어’는 ‘제빵사들, 비전문가(초보자)’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당신 참 예쁘다	장태풍 (조희봉)	가짜 낱친에 혼전입신까지 시킨 놈이 됐는데 두 밥이 목구녕으루 술술 넘어가냐? → ‘낱친’은 ‘남자 친구’를 줄인 은어이다. ‘목구녕’은 ‘목구멍’의 방언형이다.	은어/비표준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박나영 (송민정)	이 늑다리 아저씨들은 다 뭐야? 대머리에 배불뚝이에 단춧구멍 눈. → 나이 든 사람에게 ‘늑다리’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대머리, 배불뚝이, 단춧구멍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나명자 (정애리)	이거 다 사짜에다가 판검사들이야. → ‘사짜’는 ‘사’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박치영 (김태훈)	내 와이프라도 만날래? → ‘와이프’는 ‘아내’로 순화하는 것	불필요한 외래어·외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이 적절하다.	국어
MBC	당신 참 예쁘다	변강수 (현우성)	뺨이라도 확 후리든가 정강이를 까 버리든진. → ‘뺨을 후리다, 정강이를 까 버리다’ 등은 비속어이며 폭력적인 표현이다.	비속어/폭력적인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박치영 (김태훈)	이제 와서 구질구질 질척하게 왜 이래. →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구질구질하다, 질척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김수철 (김동균)	사회장하고 맞짱 뜨기 걸끄러우니까 뒤에서 조종하겠다는 거 아니야. → 회사 내의 권력 구도에 대해 말하며 ‘맞짱 뜨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은어가 사용된 예이다.	은어
MBC	당신 참 예쁘다	김수철 (김동균)	그 낙하산 불량품 아니냐구. → 다른 사람이 입사하게 된 것을 ‘낙하산’이라고 하며, 또 그 낙하산이 ‘불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고만희 (박희진)	그 친구는 돈 발라서 대학 가구. → 부정적인 방법으로 대학에 간 것을 표현하며 ‘돈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비속어가 사용된 예이다.	비속어
MBC	당신 참 예쁘다	고만석 (박인환)	허구헌 날 집구석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그거 하나 못 해? → 남편이 아내가 큰 잘못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아내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고만석 (박인환)	말대꾸 따박따박 잘한다. 으이구 이씨. → 남편과 아내의 대화 상황에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의 말을 ‘말대꾸’로 취급하고 ‘말대꾸 따박따박 잘한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당신 참 예쁘다	고만석 (박인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불대? → 남편이 아내에게 ‘나불대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장미의 전쟁	이만복 (송용태)	당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대니까 딸까지 뛰어대는 거야. → 가부장적인 남자가 결혼했다가 이혼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자기 딸이 애인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자 부인에게 하는 말이다. 부인에 대한 비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SBS	장미의 전쟁	황동탁 (이형철)	완전히 <b>배째라네</b> . →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비속어/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장미의 전쟁	박운희 (한수진)	<b>이게 진짜 죽을라구!</b> → 다른 사람을 때린 후 협박하는 장면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거’ 라고 지칭하고 있다.	폭력적인 표현/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장미의 전쟁	박운희 (한수진)	한번만 더 <b>까불었다간 죽어!</b> → 다른 사람을 때린 후 협박하는 장면이다.	폭력적인 표현
SBS	장미의 전쟁	박운희 (한수진)	<b>안 되겠어. 전부 다 색출해서 없애버려야겠어.</b> → 좋아하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여자들 연락처를 보고 여자 출연자가 하는 말이다. ‘색출해서 없애버려야겠어’ 와 같은 표현은 살해를 암시하는 폭력적인 표현이다.	폭력적인 표현
SBS	장미의 전쟁	이만복 (송용태)	<b>야, 너 죽을려구 환장을 했냐?</b> → 애인과 여행을 가겠다는 자신의 딸에게 하는 말이다. 애인과 여행을 가면 죽어버릴 것이라는 뜻으로, 폭력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적인 표현
SBS	장미의 전쟁	이만복 (송용태)	너 <b>당장 취소해. 갔단 봐. 애비한테 너 발모가지 부러질 줄 알어.</b> → 자녀에게 여행을 갈 경우 발목을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폭력적인 표현이다.	폭력적인 표현
SBS	장미의 전쟁	황동탁 (이형철)	뭐 이런 <b>더티한</b> 인간이 다 있어? → ‘더티하다’ 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장미의 전쟁	박대성 (오대규)	그래 <b>더티하다</b> . → ‘더티하다’ 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장미의 전쟁	황동탁 (이형철)	신경 <b>끄세요</b> . 우리 <b>프라이버시</b> 니까……. → ‘프라이버시’ 는 ‘사생활’ 로 순화	불필요한 외래어·외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는 것이 적절하다.	국어
SBS	장미의 전쟁	송형준 (이승형)	<b>세월은 어디로 먹은 거야, 대체?</b> → ‘세월을 먹다’ 와 같은 표현은 없다. ‘세월’ 을 ‘나이’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장미의 전쟁	송형준 (이승형)	나 <b>와이프랑</b> 사이도 별로 안 좋아. → ‘와이프’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와이프랑’ 을 ‘아내랑’ 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장미의 전쟁	민아리 (이혜은)	너무 <b>로맨틱하다</b> . → ‘로맨틱하다’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므로 ‘낭만적이다’ 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장미의 전쟁	김난정 (진경)	등근 뚜껑이 <b>덜인 디쉬</b> 가 나오는데 그걸 딱 열면 거기 반지가 들어 있는 거야. → ‘디쉬’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므로 ‘접시’ 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장미의 전쟁	민아리 (이혜은)	음식을 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b>웨이터</b> 가 꽃다발이 가득 든 <b>웨건</b> 을 밀고 오는데 거기 반지가 있는 거지. → ‘웨이터, 웨건’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므로 ‘종업원, 손수레’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장미의 전쟁	황동탁 (이형철)	<b>디저트</b> 도 먹어야지. → ‘디저트’ 는 ‘후식’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장미의 전쟁	이만복 (송용태)	이런 <b>된장할……</b> . → 아내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속어
SBS	장미의 전쟁	박대성 (오대규)	지금 당신 손에는 <b>오팡 고도리</b> 까지 다 들고서 <b>피박 명박 쓰리박</b> 까지 하겠죠. → 도박에서 사용되는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	은어
KBS1	웃어라 동해야	윤세영 (주연)	자, <b>뮤직 큐</b> . → ‘뮤직 큐’ 는 ‘음악 주세요’ 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임.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1	웃어라	윤세영	<b>끝내주지?</b>	비속어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동해야	(주연)	→ ‘끝내주다’ 는 ‘아주 좋고 굉장하게 하다’ 라는 의미의 속어임.	
KBS1	웃어라 동해야	윤세영 (주연)	어머님, 내일 흡쇼핑도 <u>완판</u> 기대하세요. 저 마블린 윤이 <u>완판</u> 책임질게요. → ‘완판’ 은 ‘완전판매’ 를 줄여 일컫는 업계 은어임.	은어
KBS1	웃어라 동해야	동해 (지창욱)	저는 앞으로 카밀리아 김치를 이런 <u>마인드</u> 로 이끌 생각입니다 → 외국어 ‘마인드’ (mind)는 우리말 ‘생각’ 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불필요한 외국어
KBS1	웃어라 동해야	윤세영 (주연)	요즘엔 <u>돌아온 싱글</u> 들이 더 잘 산데 → ‘돌아온 싱글’ 은 결혼 후 다시 독신 이 된 사람을 이르는 유행어이다.	유행어
KBS1	웃어라 동해야	김도진 (이장우)	김치 관련 문제는 내가 아니라 <u>동해 그 자식</u> 찾아가서 이야기하세요 → 형이 되는 동해에게 동생인 도진이 ‘그자식’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동해 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1	웃어라 동해야	김도진 (이장우)	아버지는 오로지 동해 <u>그 자식</u> 한테나 관심 쏟고 계시니까요. → 형을 ‘그 자식’ 으로 일컫는 것은 형 의 인격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1	웃어라 동해야	이태훈 (알렉스)	에이 너 <u>뺱치</u> 시는 거지? 아이 니가 무슨 모델 해? → ‘뺱치다’ 는 ‘허풍을 치다’ 를 속되 게 일컫는 말임.	비속어
KBS1	웃어라 동해야	윤세영 (주연)	이래도 <u>뺱</u> 이야? → ‘뺱’ 은 ‘허풍’ 혹은 ‘거짓말’ 을 속되게 일컫는 말임.	비속어
KBS1	웃어라 동해야	이태훈 (알렉스)	이야 우리 <u>와이프</u> 진짜 대단한데? → ‘와이프’ 는 ‘부인, 아내’ 등으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래어임.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KBS1	웃어라 동해야	계선옥 (이보희)	<u>떡대</u> 가 짝 벌어진 게. → ‘떡대’ 는 ‘덩치’ 를 속되게 일컫는 말임.	비속어
KBS1	웃어라 동해야	변솔녀 (박해미)	나 <u>브이아이피</u> 예약 손님 있거든 → 브이아이피는 영어 ‘very important person’ 의 약자이다. 우리말 ‘중요한’ 으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로 바꾸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	
KBS1	웃어라 동해야	이필재 (김유석)	모닝콜 하나 <u>날려줄</u> 까? → ‘모닝콜을 날려주다’ 는 부적합한 표현이므로 ‘모닝콜 하다’ 로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합 표현
KBS1	웃어라 동해야	계선옥 (이보희)	막걸리 한 잔에 <u>해가닥</u> 했어? → ‘해가닥’ 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므로 ‘취했어요?’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다.	비속어
KBS1	웃어라 동해야	계선옥 (이보희)	세영이 모델이고 나부랭이고 다 <u>때려치우</u> 라고 그래 → 며느리의 일이 못마땅하다 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일을 ‘나부랭이’ 라고 표현하는 것은 며느리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1	웃어라 동해야	김도진 (이장우)	하루 아침에 회장님 손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 상사가 된 건 아니니까. 알아 들었어? <u>건방진 자식</u> → 자신의 형에게 건방진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간의 도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1	웃어라 동해야	김도진 (이장우)	하지만 내가 뭐래도 나한테 넌 그냥 <u>재수</u> 없는 자식일 뿐이야 → 자신의 형에게 재수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간의 도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김화경 (우희진)	따지지 말고 입어. <u>잡바</u> 때기 입고 산들강 회장님 만나러 갈 순 없잖아? → ‘-때기’ 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 ‘비하?’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임.	비속어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거기는 문사장한테 <u>꼬리</u> 쳐 놓고 뭘 그래? → ‘꼬리 치다’ 는 ‘아양을 떨다’ 라는 의미의 관용구로, 비속어임.	비속어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곳이라 집안 구석 구석에 내 애정이 <u>백겨</u> 있긴 하지. →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비표준어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오래 남아 있다' 는 뜻의 단어는 '배다' 입. '배기다' 는 '배다' 의 잘못.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여자가 돈 바라고 하는 결혼이구나. → '아들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반말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 '아들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반말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아니면 뭐하러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온 건데? → '아들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반말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아 내 아들을 위해서 아니라면은 내가 뭐하러 발 벗고 여기까지 온 건데? → '아들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반말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당신이 뭔데 누구더러 불쌍하네 마네야? → '아들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반말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이집에 예미하고 딸은 뭐가 그리 잘났어? → '아들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반말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자랑스럽기도 하겠다. → '아들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반말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거기는 문사장한테 꼬리쳐놓고 뭐 그래? → '아들의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반말
MBC	남자를 믿었네	하정민 (홍수아)	나 이혼했어, 둘실이면 되는 거 아냐? → '둘실' 은 '돌아온 싱글' 의 준말로 '독신자'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함.	유행어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박상민)	나보다 나이가 밀인 거 같은데 <u>민중까고</u> 나랑 형님 동생 할까? → '민중까다' 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다"는 의미의 비속어이므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속어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박상민)	그런 정황 들통나면 그 땐 <u>내 손에 죽는 줄 알아</u> →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는 폭력적인 협박임.	폭력적인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박상민)	다른 데서 그만 헛소리 지껄이고 다니다가 또 들키면 역시 <u>내 손에 죽는 줄 알아</u> →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는 폭력적인 협박임.	폭력적인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박상민)	그런 헛소리도 한 번만 더 지껄이면 그때는 <u>죽여버릴 줄 알아</u> → '죽여버릴 줄 알아' 는 폭력적인 협박임	폭력적인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u>제까짓</u> 것들이 우리 집에 해울 혼수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 사돈이 될 집안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하정민 (홍수아)	나 이혼했어, 둘실이면 되는 거 아냐? → '둘실' 은 '돌아온 싱글' 의 준말로 '독신자'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함.	유행어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박상민)	나보다 나이가 밀인 거 같은데 <u>민중까고</u> 나랑 형님 동생 할까? → '민중까다' 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서로의 나이를 확인하다"는 의미의 비속어이므로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속어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박상민)	그런 정황 들통나면 그 땐 <u>내 손에 죽는 줄 알아</u> →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는 폭력적인 협박임.	폭력적인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박상민)	다른 데서 그만 헛소리 지껄이고 다니다가 또 들키면 역시 <u>내 손에 죽는 줄 알아</u> →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는 폭력적인 협박임.	폭력적인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김남기 (박상민)	그런 헛소리도 한 번만 더 지껄이면 그때는 <u>죽여버릴 줄 알아</u> → '죽여버릴 줄 알아' 는 폭력적인 협박임	폭력적인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u>제까짓</u> 것들이 우리 집에 해울 혼수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인격을 비하하는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 사돈이 될 집안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임.	표현
MBC	남자를 믿었네	이아라 (송지선)	뭐가 걱정이예요 전무님이 <u>싸 발라서</u> 데리고 갈텐데 → ‘싸 바르다’ 는 결혼을 하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는 김 전무의 행동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다.	비속어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너 우리한테 억하심정 있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고른 거지? 이런 거 입고 들고 나가가지고는 <u>개망신당하라고</u> → ‘개망신’ 은 ‘망신’ 의 속된 표현이다.	비속어
MBC	남자를 믿었네	이아라 (송지선)	뭐가 걱정이예요 전무님이 <u>싸 발라서</u> 데리고 갈텐데 → ‘싸 바르다’ 는 결혼을 하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지원하는 김 전무의 행동을 속되게 표현하는 말이다.	비속어
MBC	남자를 믿었네	임여사 (오미연)	너 우리한테 억하심정 있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고른 거지? 이런 거 입고 들고 나가가지고는 <u>개망신당하라고</u> → ‘개망신’ 은 ‘망신’ 의 속된 표현이다.	비속어
SBS	호박꽃 순정	준선 (배종옥)	그 정도 지능 지수에 그 정도 살았으면 당신 아주 억울한 인생은 아니야. → 머리가 좋지 않으므로 아주 좋은 삶을 살지 못해도 억울하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함.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호박꽃 순정	준선 (배종옥)	영리한 세퍼트 머리통만도 못한 주제에 그 정도 살았으면 뭐 손해 볼 것도 없지. → 사람에게 개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표현임. → ‘머리통’ 은 ‘머리’ 를 낮잡아 일컫는 말. →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개 품종의 하나인 ‘shepherd’ 는 ‘세퍼트’ 가 아니라 ‘세퍼드’ 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비속어/비표준 발음
SBS	호박꽃 순정	강준선 (배종옥)	가서 내가 유민수의 친모를 죽였다는 걸 유민수에게 불겠다?	비속어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 ‘불다’ 는 ‘숨졌던 죄나 감추었던 비밀을 사실대로 털어놓다’ 를 속되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말하겠다?’ , ‘이야기하겠다?’ 정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SBS	호박꽃 순정	강준선 (배종옥)	당신은 나 아니었으면 그나마 온 세상 <u>똥마니</u> 들한테 실컷 다 이용이나 당하고 어느 개천에 코를 박고 죽었는지 시체도 못 찾았을 <u>인간이야</u> → ‘똥마니’ 는 범죄 집단 따위의 조직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을 속되게 일컫는 말로 이러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똥마니들한테 실컷 다 이용이나 당하고 어느 개천에 코를 박고 죽었는지 시체도 못 찾았을 인간이야’ 라는 표현은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비속어/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호박꽃 순정	강준선 (배종옥)	<u>그걸 머리라고 썼다 이거지?</u> →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호박꽃 순정	강준선 (배종옥)	<u>같잖은 물건 같은 이라고.</u> → 사람을 물건에 빗대는 인격 비하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호박꽃 순정	강준선 (배종옥)	당신 같은 멍청이가 상대할 물건이 아니란 말야. → 살인사건을 공모했던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호박꽃 순정	강준선 (배종옥)	당신 같은 멍청이가 <u>상대할 물건이 아니란 말야</u> → 사람을 물건에 빗대는 인격 비하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호박꽃 순정	강준선 (배종옥)	<u>이것밖에 안 되는 물건</u> 을 지 애비라고 순정이 쟁기는 걸 보면 내가…… → 사람을 물건에 빗대는 인격 비하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호박꽃 순정	강준선 (배종옥)	<u>당신 나한테 죽고 싶어?</u> → 자신의 살인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 돈을 요구하자 협박하고 있다.	폭력적인 표현

월간 보고서: 5월  
지상과 주말 드라마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지상과 3사의 주말 저녁 드라마는 각 방송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방송국은 뉴스 시간을 변경하여 저녁 드라마를 집중 편성하기도 한다. 주말 저녁드라마는 대체로 가족의 일상생활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모두 15세 이상이 시청해야 하는 등급을 가지고 있으나, 방영 시간대가 저녁에서 밤 시간으로 이어지는 만큼 주말 저녁 식사 후 온가족이 보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의 일상생활을 담는다는 점에서 제작진과 출연자는 방영되는 작품들의 내용이 시청자 가정의 화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바로 건전한 소재의 발굴과, 바람직한 대사의 사용이 된다. 그 이유는 건전한 소재는 드라마가 현대의 바람직한 가정상을 그리는 데 도움을 주며, 대사의 품격도 유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드라마의 소재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면 드라마의 대사 역시 품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품격이 낮은 대사는 이를 시청하는 온가족 모두의 국어생활에 악영향을 주며, 나아가 가정의 분위기도 어둡게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은 이렇게 국민들의 국어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주말 저녁 드라마의 언어 사용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5월에는 현재 방영되는 주말 저녁드라마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조사 대상**

채널	프로그램명	등급	출연자	방송일시
KBS2	사랑을 믿어요	15	이재룡, 박주미, 송재호 외	2011. 5. 15. 19:55-21:05
MBC	반짝반짝 빛나는	15	김현주, 김석훈, 이유리 외	2011. 5. 15. 20:40-21:50
MBC	내 마음이 들리니	15	황정음, 김재원, 남궁민 외	2011. 5. 15. 21:50-23:00
SBS	내 사랑 내 곁에	15	이소연, 은주완, 이휘향 외	2011. 5. 15. 20:40-21:50
SBS	신기생던	15	임수향, 성훈, 김보연 외	2011. 5. 15. 21:50-23:00

**[3] 분석 항목**

**1) 저품격 표현**

- 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 ② 비속어, 은어, 유행어
- ③ 폭력적인 표현
- ④ 선정적인 표현
- ⑤ 불필요한 외국어

**[4] 지상과 일일 드라마의 언어 사용 분석**

**1) 저품격 표현**

4월에 조사했던 일일드라마보다 적은 수의 저품격 표현이 발견되었지만,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부터 비속어와 은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표현들은 여전히 드라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가정 내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여과 없이 사용된다는 점은 시청자 가정의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작진은 자극적인 표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다. 대부분의 주말 드라마에서 다루는 내용이 가정 내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게 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는 기획의도와도 벗어난다. 주말 드라마가 현대의 우리 가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의 대화 표현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 (1) 니 버릇 고치려고 <사랑을 믿어요>
- (2) 국산 브랜드 아니라서 어디 거라고 말해줘도 언니는 몰라 <반짝반짝 빛나는>
- (3) 대체 언제까지 내 피만 빨아먹으면서 살 거야? <내 마음이 들리니>
- (4) 성질 급하더니 치매 속도도 빠르네 <내 마음이 들리니>
- (5) 주접을 떨어요

<신기생던>

(1)은 남편이 아내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표현인데, 부부 사이에는 서로 존중을 하는 것이 기본인 만큼 버릇을 고친다는 표현은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문제가 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의를 갖추어 지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는 검소한 생활 때문에 외제품과 같은 고가의 상품을 모르는 언니에게 동생이 무시하듯 이야기하는 예이다. 자기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한데, 오히려 허영에 가득찬 동생이 검소한 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족 간의 배려가 없는 행위라 하겠다.

한편, (3)은 남편이 부인에게 한 표현으로, 자신이 회사를 경영한 덕으로 부인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부인이 무위도식함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소득은 가정 모두에게 쓰이는 것이 당연하므로, 부부 사이에 피를 빨아먹는다는 이야기는 지나치게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된다. (4)는 딸이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어머니가 딸의 보살핌을 받으러 딸의 집에 왔다가 딸의 냉대를 받는 장면에서 나왔다. 평소에 딸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운 짐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치매 환자가 되었음을 알게 된 후 더욱 냉대를 하고 있음을 (4)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건강하지 않다면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도리인데, 이는 자식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아무리 친한 모녀간이지만 이러한 표현의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한편, (5)는 나이가 어린 상대가 자신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보이자 ‘주접을 떠다’고 비난하며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② 비속어, 은어, 유행어

비속어·은어, 유행어는 프로그램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충분히 정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속어, 은어, 유행어를 사용한다면, 부모와 함께 시청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무분별한 모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1) 다시 열받게 헤드려서 죄송해요

<사랑을 믿어요>

(2) 국이라도 좀 쌌벼오지. 이게 뭐냐,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3) 뭘 꼬나봐?

<내 마음이 들리니>

(4) 당근이지, 자매지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5) 잡수됐나?

<내 마음이 들리니>

(6) 뭐? 알바 자리?

<내 사랑 내 곁에>

(7) 남친을 택하느냐 다시 마 대표를 택하느냐

<신기생던>

(8) 오늘 재수가 좋았나봐, 대박 단 딸기가 나왔어.

<내 사랑 내 곁에>

(1)-(3)은 비속어, (4)-(7)은 은어, (8)은 유행어의 예이다. (1)의 ‘열받게’는 ‘화나게’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2)의 경우는 ‘흠치다’의 속된 표현으로 방송에서 반드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이다. 함께 식사하는 밥상에서 ‘흠치다’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으므로 ‘쌌벼오지’는 ‘가져오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3)의 ‘꼬나보다’는 ‘노려보다’의 낮춤말이므로 ‘노려봐’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4)는 ‘당연하지’의 은어인데, 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만 주로 쓰이는 말이므로, 더 많은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당연하지’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의 ‘잡수됐나?’ 역시 ‘잡적했나?’로, (7)의 ‘알바’는 ‘아르바이트’로, (8)의 ‘남친’은 ‘남자친구’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이해도 쉬워진다.

(8)은 ‘대박’이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달다’를 수식하여 잘못된 수식 구조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완전’과 같은 명사 혹은 어근이 부사처럼 용언 혹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추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므로 방송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③ 폭력적인 표현

주말 저녁 드라마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5세 이상의 시청등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연령층에서 시청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TV 드라마에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1) 니 아버지 어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꼭 쏴서 죽이고 싶더라구

<사랑을 믿어요>

(2)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면 죽어버려

<내 사랑 내 곁에>

(1)은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로, 딸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이 갖은 음주와 폭력을 가족에게 가하여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싶었다는 표현이다. 남편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인하여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온가족이 보는 저녁드라마에서 이렇게 폭력성이 높은 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는 아들의 아이를 가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하는 표현으로, 고등학생 신분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아들에게도, 그의 여자친구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아들의 장래만 걱정되어 아들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죽어버려’라는 표현은 매우 폭력적이다. 이러한 표현이 거듭되는 구타와 함께 실현되어 그 폭력성이 더욱 가중되었으므로 제작진의 성찰이 필요하다.

**④ 선정적인 표현**

이번 조사에서 선정적인 표현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작진의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다.

(1) 요런 거 비치는 거 입어야 남자가 꼬여, 이것야

<내 사랑 내 곁에>

(1)은 어머니가 딸에게 비치는 옷을 선물하면서, 선불 때 입고 나가라고 하며 더해진 표현이다. 노출이 있는 옷을 입어야 이성과 교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드러내는 선정적인 표현이므로, 온가족이 보는 드라마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이다.

**⑤ 불필요한 외국어**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한국인에게 외국어와 외래어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외국어의 사용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방해줄 뿐 아니라, 위화감의 조성, 국어사용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방송은 이러한 점을 항상 생각하여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외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나 원래 네 말대로 부모님들 킬러잖아

<사랑을 믿어요>

(2) 제 폰 번호 분명히 아까 찍어드렸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3) 몰라서 묻나? 레벨이 다르잖아

<내 마음이 들리니>

(4) 마 대표가 쿨하게 뇌췌

<신기생던>

(1)의 ‘킬러’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킬러’의 본래 뜻이 ‘살인자’(killer)임을 감안할 때, ‘부모님들 킬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킬러’라는 외국어도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니므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2)는 ‘폰’을 ‘전화’로 하여 ‘전화번호’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데, 불필요한 외국어 ‘폰’(phone)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3)의 외국어 ‘레벨’은 우리말 ‘수준’으로 바꾸어 사용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4)의 ‘쿨하게’는 우리말 ‘시원하게’ 혹은 ‘깨끗하게’로 고치면 더욱 자연스럽다.

**[5] 결론**

5월에는 4월에 이어 TV드라마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저품격의 언어 사용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평일 일일드라마에 비하여 저품격의 방송언어가 적게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표현들도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성질 급하더니 치매 속도도 빠르네.’처럼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치매의 악화속도가 빠른 것은 어머니의 성격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딸의 대사나, ‘대체 언제까지 내 피만 빨아먹으면서 살 거야?’와 같이 함께 생활을 유지하는 부인에게 자신의 피를 빨고 있다는 표현은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갈등이 큰 가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려는 제작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온가족이 저녁식사 후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자극적이고, 품격이 낮은 언어는 조금 더 순한 표현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보아도 민망하지 않을 표현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쌌비다’와 같은 비속어는 작품의 품격을 낮추며, ‘당근’과 같은 은어는 세대 간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대박’과 같은 유행어는 바른 국어생활을 어렵게 하므로 방송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시청자들의 대부분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말이 바른 한국어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제작진은 항상 명심하여 저품격의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바른 한국어를 더 많이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 지상파 주말 드라마의 언어사용 오류 1부**

<붙임>

지상파 주말 드라마의 언어사용 오류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KBS2	사랑을 믿어요	김명희 (한채아)	어디 손녀 남자친구를 넘보세요? 이걸 막겠 이예요 → 할머니에게 손녀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할머니가 넘본다는 표현은 할머니의 인 격을 비하하는 무례한 표현이다. → ‘막장’은 ‘끝장’의 비표준어이므로 ‘끝장’ 을 사용해야 한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표준어
KBS2	사랑을 믿어요	권기창 (권해효)	니 버릇 고치려고 → 동등한 관계에 있는 부인의 인격을 비 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사랑을 믿어요	김명희 (한채아)	다시 열받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 ‘열받다’는 ‘화나다’의 속된 표현이므로 ‘화나게’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속어
KBS2	사랑을 믿어요	혜진 모 (김동주)	니 아버지 어디 소리 안 나는 중 있으면 꼭 짜서 죽이고 싶더라구 → 배우자에 대한 분노 표현이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폭력적인 표현
KBS2	사랑을 믿어요	윤지수 (김혜진)	나 원래 네 말대로 부모님들 킬러잖아 → 부모님들의 마음에 잘 들게 행동한다는 자신에 대하여 ‘킬러’(killer)라고 표현하 였는데, 이는 불필요할 뿐더러, 상황에 맞 는 표현도 아니다.	불필요한 외국어
KBS2	사랑을 믿어요	차귀남 (나문희)	내가 벌써 테스트를 했어 → ‘테스트’(test)는 ‘시험’으로 순화하는 것 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국어
MBC	반짝반짝 빛나는	황미란 (한지우)	국산 브랜드 아니라서 어디 거라고 말해줘도 인니는 몰라 → 자신의 언니에게 고급 상품에 대한 지 식이 없음을 동생이 비하하고 있다. → ‘브랜드’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므로 ‘상 표’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MBC	반짝반짝 빛나는	황태란 (이아현)	애가 귀신이 썩었나, 거기 뭐가 있다고 대답 하고 웃고 일어나서 갈려구 그래, 아무것도 없구만 →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에게 반찬을 가져 다주려 하는 딸을 향해 하는 발화로, 평 소에 말썽을 일으키는 자신의 아버지와 배우자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무시 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반짝반짝 빛나는	한서우 (박유환)	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까지 온 거 보면 너한테 단단히 맛이 간 게 확실해 → 여기서 ‘맛이 가다’를 ‘반하다’의 의미 로 사용하였는데, 이 표현은 속된 표현이 므로 ‘반한 게’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속어
MBC	반짝반짝 빛나는	황남봉 (길용우)	국이라도 좀 싸벼오지 이게 뭐냐 이게 → ‘싸비다’는 ‘흠치다’의 속된 표현이므로 ‘가져오지’ 정도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 다.	비속어
MBC	반짝반짝 빛나는	황미란 (한지우)	당근이지, 자매지간에 → ‘당근이다’는 ‘당연하다’의 은어이므로 ‘당연하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어
MBC	반짝반짝 빛나는	윤승재 (정태우)	신분감추고 숨어지내가지고 루트 안 통하면 은 만나기 되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 ‘루트’(route)는 우리말 ‘경로’로 순화해 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국어
MBC	반짝반짝 빛나는	한서우 (박유환)	제 폰 번호 분명히 아까 찍어드렸습니다. → ‘폰’은 ‘전화’로 고치는 것이 더욱 자연 스럽다.	불필요한 외국어
MBC	반짝반짝 빛나는	한정원 (김현주)	승원이 자는 동안 초스피드로 밥먹고 와요 우리 → ‘초스피드로’는 ‘빨리’로 고치는 것이 더 욱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국어
MBC	내마음이 들리니	최진철 (송승환)	대체 언제까지 내 피만 빨아먹으면서 살 거 야? → 자신이 회사를 경영한 덕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배우자가 자 신의 노고를 바탕으로 무위도식함을 비 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MBC	내마음이 들리니	식물원 소장 (김광규)	너랑 봉영규 씨랑 말 섞을 사람들이 아니잖아? → 자신의 상급자인 식물원의 주인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의 가족과 어울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내마음이 들리니	식물원 소장 (김광규)	몰라서 묻나? 레벨이 다르잖아 → 자신의 상급자인 식물원의 주인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의 가족과 어울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 '레벨'은 '수준'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MBC	내마음이 들리니	김신애 (강문영)	아주 정신줄 봤구나? → 모시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머니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하며, 어머니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내마음이 들리니	김신애 (강문영)	성질 급하더니 치매 속도도 빠르네 → 본래 어머니의 성격이 급해서 치매 속도도 빠르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머니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내마음이 들리니	차동주 (김재원)	뭘 꼬나봐? → '꼬나보다'는 '노려보다'의 낮추는 말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속어
MBC	내마음이 들리니	차동주 (김재원)	튀어! → '튀다'는 '도망가다'의 속된 표현이므로 '도망가자' 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비속어
MBC	내마음이 들리니	사무실 직원	잠수탸나? → '잠수타다'는 '잠적하다'의 은어이므로 '잠적했다'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은어
MBC	내마음이 들리니	강민수 (고준희)	준하 씨도 보스랑 연락 안 되는 거야? → '보스'는 '우두머리'의 외국어 표현이므로 '대장' 정도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MBC	내마음이 들리니	태현숙 (이혜영)	주말에 미술관 비비아이피들하고 라비 잡아났으니까 약속 잡지 마 → '비비아이피'는 'very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어로, '쿠빈'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라비'는 이른바 '로비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막후교섭'으로 순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국어
MBC	내마음이 들리니	태현숙 (이혜영)	이거 사이즈 좀 찾아 줘요 → 여기서는 "맞는 치수를 찾아줘요"로 고쳐야 한다.	불필요한 외국어
SBS	내 사랑 내 곁에	봉선아 (김미숙)	미술이도 공부 안 해서 너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 열심히 일하고 온 동생에게 과거에 공부를 못해서 고생한다는 의미로 발화한 것인데 이는 동생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내 사랑 내 곁에	고수빈 (문지은)	당근 → '당근'은 '당연'의 은어이므로 '당연하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어
SBS	내 사랑 내 곁에	이소룡 (이재운)	뭘? 알바 자리? → '알바'는 외래어 '아르바이트'의 은어이므로 '아르바이트'로 고쳐서 사용하거나, '부업자리' 혹은 '일자리'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은어
SBS	내 사랑 내 곁에	봉선아 (김미숙)	오늘 재수가 좋았나봐, 대박 단 딸기가 나왔어. → '대박'은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명사이지, 부사가 아니므로 형용사 '달다'를 수식할 수 없다. 최근 '대박'은 대상의 속성이 대단함을 뜻하는 부사로도 쓰이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유행어
SBS	내 사랑 내 곁에	배정자 (이휘향)	우리 아들 신세 망지려면 죽어버려 → 아들의 아이를 고등학생 신분으로 혼전 임신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죽어버리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폭력적인 표현
SBS	내 사랑 내 곁에	정말순 (사미자)	요런 거 비치는 거 입어야 남자가 꼬여, 이것 안 → 노출이 있는 옷을 딸에게 선물하며 선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선정적인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배역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SBS	신기생던	단공주 (백옥담)	주접을 떨어요 → 동생 뺨인 상대가 자신에게 적극적인 호감을 보이자 '주접을 떠다'고 비난하며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신기생던	노은자 (박준면)	남친을 택하느냐 다시 마 대표를 택하느냐 → 젊은 세대에서 '남친'은 남자친구의 '은어'로 사용되는데 '남자친구'로 바꾸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은어
SBS	신기생던	오화란 (김보연)	마 대표가 쿨하게 놔줘 → '쿨하게'는 '깨끗하게, 시원하게'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국어
SBS	신기생던	서생강 (송대관)	완전 상황 끝이랑게, 게임 오바여 → '상황 끝'이라고 한 표현으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었는데, '게임 오바'(game over)라는 외국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외국어
SBS	신기생던	아다모 (성훈)	난 너한테만큼은 루저야 → '루저'(loser)는 본래 '패배자'의 의미를 갖는 외국어로 여기서는 '약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약자'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국어

**월간 보고서 6월**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최근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계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중계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 역시 시청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중계방송을 시청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열렬히 응원하기 때문에 중계방송에서 사용한 표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방송의 중요성이 큰 만큼 중계방송의 언어가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중계방송은 작가나 대본 없이 중계 아나운서와 전문 해설자에 의해 진행되는 특수한 종류의 방송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대본을 갖춘 상태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저품격 언어가 많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거의 즉흥적으로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자나 해설자의 순발력, 언어 지식, 언어 습관이 언어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품격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중계방송을 진행하는 해설자와 아나운서의 역량을 점검하고 중계방송의 언어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저품격 언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대상**

채널	프로그램명	진행자 / 해설자	방송일시
KBS2	2011 국제 대학 에어로빅스	유애리 / 김동아	2011. 5. 23.
KBS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가나	이재후 / 최용수	2011. 6. 7.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한광섭 / 허구연	2011. 5. 10.
MBC	2011 서울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김완태 / 유문규	2011. 5. 20.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배성재 / 박문성	2011. 5. 29.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 양준혁	2011. 6. 4.

**[3] 분석 항목**

**1) 저품격 표현**

- ①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 ②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 ③ 은어

## 2) 비표준어, 비표준 발음

### 3) 부적합 표현

- ① 전문용어
- ② 기타

## [4]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 사용 분석

### 1) 저품격 표현

지상파 방송 3사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나타난 저품격 표현으로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선수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은어가 있다. 특히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 ①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야구, 축구, 에어로빅, 트라이애슬론 등 국내에서 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있는 대부분의 운동 종목들은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기에서 사용되는 경기 용어들은 대부분 외래어·외국어이다. 이러한 경기 용어들은 대부분 전문용어로서 이미 자리를 잡은 것들이며 대체할 수 있는 순화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 순화를 하는 것보다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지만 중계방송의 언어를 분석하면 순화할 수 있는데도 습관처럼 사용하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경기 용어들은 이미 순화된 용어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기 용어가 아닌 외래어·외국어도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 중계방송에서 발견한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 (2) 전준우 선수는 수비도 좋고 아주 무엇보다 파이팅이 아주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 (3) 허슬 플레이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환>
- (4) 어, 땅뽕 잘못 치면은 또 따블 플레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윙을 큰 스윙을 하는 게 낫습니다.

-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 (5) 의도적으로 기안 선수와 킹슨 선수의 순간적인 컴비네이션 플레이가 정확하게 먹혔던 거죠?  
 <KBS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가나, 이용수>
- (6) 네 박지성 선수 선발로 나와서 약간 왼쪽 측면에 배치되는데 중앙에 있는 투니 선수 깃스 이런 선수와 스위칭을 하면서 허리 쪽에서의 압박과 치차리토로 연결되는 빠른 카운터어택을 박지성 선수가 끌어갈 것으로 보이구요.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박문성>
- (7)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동작과 함께 아름다움과 섬세함까지 갖춘 파워요가의 기술적 실행능력이 우수함  
 <KBS2 2011 국제 대학 에어로빅스, 자막>
- (8) 여기서 오버 페이스를 해버리게 되면 달리기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죠.  
 <MBC 2011 서울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김완태>

(1)은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의 해설자가 심판의 성향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타이트하게'는 '엄격하게'로 순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원어 'tight'의 의미와는 관련 없이 잘못 쓰인 것이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에서는 해설자가 선수들의 경기 성향을 설명하며 (2, 3)과 같은 말을 한다. '파이팅' 역시 원어 'fighting'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투지'로 순화할 수 있다. '허슬 플레이어'는 '몸을 사리지 않는 선수'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4)의 '따블 플레이'는 '더블 플레이'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더블 플레이'는 경기 용어이기는 하지만 '병살'이라는 순화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병살'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5, 6)은 모두 축구 경기 중계방송에서 해설자가 한 말이다. 여기에서는 경기 중 선수들의 움직임의 가리키는 외래어·외국어가 사용되었다. '컴비네이션 플레이, 스위칭을 하면서, 카운터어택'은 모두 '협동 수비/공격, 자리를 바꾸면서, 역습'으로 순화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적절한 순화어가 있으므로 순화어를 사용해야 한다.

(7, 8)의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오버 페이스' 역시 '힘 있고 역동적인, 무리'와 같이 순화할 수 있다. 이들은 경기 용어라고 볼 수 없는 일상적인 어휘들이므로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밖에 각 경기 종목에서 사용된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9) 야구: 포인트, 완(원) 바운드, 셋업맨(셔답맨), 발란스(이상 2회), 오픈 스탠스, 카운트, 모션, 파이터, 바운드, 슈프트, 센터, 팀 칼라, 패턴, 타이밍, 백업, 나이스 캐치, 라인, 콜, 윈 핸드, 캐치, 투런 홈런, 쓰리(스

리) 런, 풀, 파인 플레이(파인 플레이), 스타트, 찬스, 탑 클래스(이상 1회)

(10) 추구 : 리벤지 매치, 패싱, 아이컨택, 슈퍼 세이브, 비하인드 골문, 클리어링, 스타팅, 세컨드 볼, 볼 컨트롤, 오버래핑(이상 1회)

(11) 에어로빅스 : 포즈, 밸런스(이상 1회)

(12) 트라이애슬론 : 스타트, 페널티, 체인지, 오버 페이스, 스탠다드, 타이밍(이상 1회)

이러한 예들은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순화어가 있으며,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였을 때 그 의미도 훨씬 잘 전달된다. 특히, ‘셋업맨, 투런 홈런, 쓰리(스리)런 홈런’과 같은 경기 용어나 ‘리벤지 매치, 클리어링’ 등과 같은 표현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도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들은 우리말 표현으로 바꿔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운동 경기 진행자나 해설자들은 선수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외국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시청자들이 중계방송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 ②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최근의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는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중계방송의 진행자나 해설자가 방송 중에 선수들의 신체를 비하하는 농담을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1) 마운드에서 왜 리틀야구선수 그런 느낌이니까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2) 저 130키로를 끌고 홈까지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1)은 해설자가 키가 작은 선수에 대해 한 말이다. 키가 작은 투수가 마운드에서 초등학교 선수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선수의 인격을 비하하였다. (2)는 프로야구 중계방송의 해설자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에 대해 한 말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빨리 달리지 못하는 선수를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에 대하여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다. 따라서 진행자와 해설자들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언어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은어

은어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하지는 안 되는 저품격 언어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스포츠 중계방송은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자와 해설자들이 중계 중에 평소에 사용하던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은어는 비교적 해설 경력이 짧은 해설자의 언어에서 많이 나타났다.

(1) 뭐 약간 4차원 같은 기질이 좀 있습니까마는…….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2) 이거 뭐 조인성 선수가 아, 홈런을 치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업돼 있을 텐데도 지금 또 후배들이 아, 그 박현준 선수를 또 챙기는 그런 모습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3) 제 바램입니다마는, 두 팀이 이 다 4강권에 들면은 프로야구는 대박이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4) 어떻게 보면 필승조에 있는 그런 선수란 말입니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1~3)의 ‘4차원 같은 기질, 업돼, 대박이다’는 모두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은어이다. ‘4차원 같은 기질, 기분이 업돼 있을 텐데도, 대박이다’는 각각 ‘영똥한 기질, 기분이 무척 좋을 텐데도, 크게 흥행한다’와 같은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4)의 ‘필승조’는 야구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어인데, ‘꼭 승리해야 하는 경기에 주로 출전하는 뛰어난 선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필승조에 있는 선수’ 역시 ‘뛰어난 선수, 승리를 이끄는 선수’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진행자나 해설자가 특정 분야의 사람이나 젊은 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를 사용하면 중장년층 시청자들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계방송의 품격을 유지하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진행자와 해설자들이 은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비표준어, 비표준 발음

표준어를 표준 발음으로 발화하는 것은 품격 있는 언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에서는 비표준어나 비표준 발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물론 텔레비로 시청하면서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2) 이병규 선수가 작년부터 좀 틀려진 게 아무래도 이 맞고 나서 타격하고 나

서 이 팔로스로가 굉장히 좀 커졌어요.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1, 2)는 모두 비표준어가 사용된 예이다. (1)의 ‘텔레비’는 ‘텔레비전’을 잘못 말한 것이다. 또한 (2)의 예에서는 ‘팔로스로’가 잘못되었다.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올바른 어형은 ‘폴로스루’이다.

(3) 밴행 씨클 체인지업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4) 이 커터볼이 잘 안 드갈 경우에는 뿔 배합이 인제 틀려지겠쥬.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5) 올래는 특히 홍성흔 선수가 좀 부진해 지면서 특히 5번 타자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또 이대호 선수가 집중 견제를 받게 되쥬.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6) 그래서 보통 외야수가 어떤 그 책임 회피를 할려고 저런 타구는 일부러 대시하기보다는 그냥 완 바운드로 그냥 편안하게 처리할 때가 있다는 거쥬.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3~6)은 비표준 발음이 사용된 예이다. (3)의 ‘밴행’, (4)의 ‘드갈’, (5)의 ‘올래’는 방언의 영향을 받아 잘못 발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 ‘밴행, 들어갈, 올래’로 발음해야 한다. (3)의 ‘뿔’, (6)의 ‘완’은 ‘볼(ball), 원(one)’을 잘못 발음한 것이다. 외래어·외국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표기한 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스포츠 중계방송의 진행자나 해설자가 비표준어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발음으로 발화를 하면 방송 언어의 품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청자가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특히 평소 방언을 사용하던 해설자의 경우 비표준 발음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설자들은 표준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발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3) 부적합 표현

#### ① 전문용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저품격 언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 없이 방송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전문용어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용어의 사용은 결국 스포츠 중계방송의 진행자, 해설자와 시청자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부적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시청자로 삼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전문용어와 약어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운동 경기의 중계방송에서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기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계방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설자와 아나운서들은 중계방송에서 경기 용어와 같은 전문용어를 사용할 때에 신중해야 한다. 전문용어의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설명을 덧붙여야 한다.

(1) 이택근, 6-4-3, 투아웃입니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2) 자, 1루에서 스코어링 포지션까지 움직이는 김태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1)의 ‘6-4-3’은 ‘유격수가 2루수에게, 2루수가 다시 1루수에게 공을 던져 1루와 2루로 향하던 주자 두 명을 아웃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야구 경기 전문용어이고, (2)의 ‘스코어링 포지션’은 ‘타자가 단타만 쳐도 득점할 수 있는 주자의 위치, 즉 2루와 3루’를 가리키는 야구 경기 전문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야구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설명을 덧붙여 주어야 한다. 실제로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에서는 해설자가 경기 중간 쉬는 시간이나 경기의 흐름이 느려졌을 때에 ‘서클 체인지업’과 같은 전문용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언어의 품격은 기본적으로 화자와 청자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 중계방송의 진행자 및 해설자들은 전문용어를 신중하게 사용하고 전문용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설명하여 시청자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기타

전문용어 외에 지적할 수 있는 부적합 표현으로는 의미가 부정확한 표현, 한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다.

(1) 지금은 거의 라인 선상에서 잡은 상황을 이거는 홈에 잡아내는 거는 그거는 무리쥬.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2) 역시 사이드.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3) 날씨가 좀 꾸역꾸역 했습니다.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한광섭>

(4) 역시 허리 쪽에서 압박을 상당히 높게 하는데요.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박문성>

(5) 정말 정신이 없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 골을 넣은 이후에 상대의 공습이 몰아쳤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공습을 공격을 하면서 공격과 수비가 정신없이 몰아졌던 정말 모처럼 화끈한 그런 평가 전반전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이용수>

(1)의 ‘라인 선상’은 중복 표현이다. ‘라인’과 ‘선’의 의미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라인’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므로 ‘라인 선상’은 ‘선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의 ‘사이드’는 ‘사이드암 투수’를 줄여 말한 것이다. 준말을 사용하여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5)는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3)에서는 부사 ‘꾸역꾸역’이 ‘날씨’와 어울리지 않는다. (4)에서는 ‘압박’이 ‘높게’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높게’를 ‘심하게’로 수정해야 한다. (5)에서는 ‘표현’이 ‘들다’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표현’을 ‘생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밖에 스포츠 중계방송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부적합한 언어 사용의 예로 고성 이 있다. 경기 도중 극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진행자와 해설자가 흥분하여 경기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중계를 하는 사람들은 소리만 지르니 시청자들은 경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중계방송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5] 결론**

스포츠 경기의 인기가 높아지고 스포츠 중계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중계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포츠 중계방송의 언어는 그 중요성만큼 높은 품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문용어도 별 다른 설명 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른 종류의 중계방송에 비해 야구 경기의 중계방송에서 저품격 언어가 많이 나타났다.

대본 없이 진행되는 중계방송의 특성상 진행자 및 해설자들이 언어의 품격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계방송의 진행자, 해설자는 품격 있는 언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경기 용어의 경우 최근에 순화어가 많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어로 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래어·외국어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시청자의 경기 이해를 돕고 국어 순화를 돕는 것이다. 중계방송이 경기 정보 전달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며 품격 있는 언어 전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들은 외래어·외국어 및 전문용어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계방송의 언어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언어 지식과 언어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중에서도 비표준어나 비표준 발음, 은어 등은 발화자에 따른 사용빈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스포츠 중계방송의 진행자와 해설자는 평소에도 품격 있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즉흥적인 발화에서도 저품격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 습관을 길러야 한다.

방송 언어는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 중계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송 언어의 중요성을 기억하여 품격 있는 언어, 순화된 언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붙임 : 지상파 스포츠 중계의 언어사용 오류 1부**

<붙임>

지상파 스포츠 중계의 언어사용 오류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KBS2	2011 국제 대학 에어로빅스	유애리	요가 동작을 응용한 <u>포즈</u> → 외국어 ‘포즈’(pose)는 우리말 ‘자세’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2011 국제 대학 에어로빅스	김동아	몸의 <u>밸런스</u> 운동할 때 많이 쓰는 기구인데요 → 외국어 ‘밸런스’(balance)는 우리말 ‘균형’으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2011 국제 대학 에어로빅스	자막	<u>파워풀</u> 하고 <u>다이나믹</u> 한 동작과 함께 아름다움과 섬세함까지 갖춘 <u>파워요가</u> 의 기술적 실행 능력이 우수함 → ‘파워풀’은 ‘힘있는’으로 ‘다이나믹한’은 ‘역동적인’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가나	이재후	대한민국의 <u>스타팅</u> 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스타팅(starting)’은 경기의 ‘선발선수’를 의미한다. 굳이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가나	이용수	그만큼 <u>세컨드 볼</u> 에 대한 집중력이 문타리 선수가 좋았다는 겁니다. → ‘세컨드 볼(second ball)’은 ‘뺏겨나온 공’을 의미한다. 즉, 패스에 의해 한 번에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받은 공이 아니라 어딘가에 부딪혀 땡긴 공을 말한다.	
KBS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가나	이용수	상대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오는 타이밍에서 우리가 역습 볼 컨트롤과 두 번의 패스 연결로 해서 빠른 역습을 전개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한 마지막 패스가 필요합니다. → '볼 컨트롤(ball control)'은 '제구'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가나	이재후	이런 오버래핑 상당히 좋습니다. → '오버래핑(overlapping)'은 '수비수가 공격 진영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풀어 설명해 주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가나	이용수	의도적으로 기안 선수와 김승 선수의 순간적인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정확하게 먹혔던 거죠? → '콤비네이션 플레이(combination play)'는 협동하여 이루어 내는 경기 상황을 의미하므로 '협동 수비' 혹은 '협동 공격'으로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 대 가나	이용수	정말 정신이 없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한 골을 넣은 이후에 상대의 공습이 몰아쳤습니다만 우리도 역시 공습을 공격을 하면서 공격과 수비가 정신없이 몰아쳤던 정말 모처럼 화끈한 그런 평가 전반전이었던 경기였습니다. → '표현이'와 '들다'는 호응하지 않는다. '생각이 들 정도로'로 표현해야 한다.	부적합 표현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양팀 모두 전력을 풀로 가동 못 시키면서 → '완전하다'의 의미인 외국어인 '풀'이 사용되었다. '완전히 가동시키지 못하면서'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클럽 아웃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 맥락상 '구단 매니저, 구단 관계자'등의 의미인데, 사람들의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외국어가 사용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볼 넷 다음의 와일드 피치 그것이 결국은 1실점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 '와일드 피치'는 '거친 투구'로 수정할 수 있다.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우익수가 풀립니다. → '풀'은 '실패'로 수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타이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 심판의 스트라이크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이 상황에서의 '타이트하게'는 '엄격하게'로 수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셔답맨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셔답맨'은 '셋업맨'의 잘못된 발음이며, '셋업맨'은 '중간계투'로 수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발란스가 무너져갔고 → '발란스'는 '균형'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주어진 찬스를 누가 더 잘 살리느냐 → '찬스'는 '기회'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탑클래스 갈라면은 → '최고 수준 선수가 되려면은'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마운드에서 웬 리틀야구선수 그런 느낌이나 → 키가 작은 선수가 나왔을 때의 발언으로 선수의 신체적인 조건을 부적절하게 표현하였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물론 텔레비로 시청하면서 → '텔레비'는 '텔레비전'의 잘못이다.	비표준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허구연	4-6-3 병살타 → "4-6-3"은 2루수가 유격수에게, 유격수가 1루수에게 공을 던져 1루와 2루로 향하던 주자를 아웃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해설시에는 이러한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전문용어
MBC	MBC 스포츠 2011 프로야구 KIA:두산	한광섭	날씨가 좀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리면서 좀 꾸역꾸역 했습니다. → '꾸역꾸역'이라는 부사는 '날씨'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부적합 표현
MBC	2011 서울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유문규	아주 멋있습니다. 수영 스타트할 때 모습이 → 외국어 '스타트'(start)는 우리말 '출발'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2011 서울 국제	유문규	그렇게 되면은 페널티 15초를 받게 됩니다	불필요한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트라이애슬론 대회		→ ‘페널티’(penalty)는 ‘벌칙’으로 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외래어·외국어
MBC	2011 서울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유문규	오로지 자기 자력으로 해서 자기가 바뀌서 끼고 체인지를 해서 바로 가야 되는데 → 외국어 ‘체인지’(change)는 바뀌서 낀다는 표현이 선행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2011 서울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김완태	여기서 오버 페이스를 해버리게 되면 달리기 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죠 → 외국어 ‘오버 페이스’보다는 우리말 ‘무리’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2011 서울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유문규	여덟 바퀴 정도가 요즘에 스탠다드로 코스 규정으로 거의 가고 있습니다. → 외국어 ‘스탠다드’(standard)는 ‘표준’으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2011 서울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김완태	거의 동 타이밍에 마무리를 지었고 → ‘타이밍’을 ‘시간’으로 고쳐서 써야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2011 서울 국제 트라이애슬론 대회	유문규	대로가 있는 반면에 한강 쪽으로 들어가면 노면이 상당히 작아지는 겁니다 → 노면이 좁아지는 것을 작아지는 것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부적합 표현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배성재	2009년에 우승컵을 차지했던 바르셀로나. 다시 한 번 맨유로서는 리벤지 매치가 되겠습니다. → ‘리벤지 매치(revenge match)’는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경기’라는 의미로, ‘실욕전’으로 순화할 수 있음.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박문성	네 박지성 선수 선발로 나와서 약간 왼쪽 측면에 배치되는데 중앙에 있는 루니 선수 키스 이런 선수와 스위칭을 하면서 허리 쪽에서의 압박과 치차리토로 연결되는 빠른 카운터어택을 박지성 선수가 끌어갈 것으로 보이구요. → ‘스위칭(switching)’은 ‘자리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리를 바꾸면서’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 ‘카운터어택(counter attack)’은 ‘역습, 반격’이라는 의미이다. 우리말을 사용하면 이해하기 더 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UEFA 챔피언스리그	박문성	좁은 공간에서도 바르셀로나가 계속 패싱 패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결승전 하이라이트		싱을 연결하면서 결국 이제 슈팅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 ‘패싱(passing)’은 영어 동사 ‘pass’의 동명사형이다. 여기서 ‘패싱’을 사용할 이 유가 없다. ‘공을 연결해 패스 패스하면서’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국어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박문성	마지막 마무리까지 딱 예 지금 그 딱 선수들의 어떤 이 아이컨택이 어떤 그런 장면인데요. → ‘아이컨택(eye contact)’은 ‘눈맞춤’을 의미한다. 굳이 외국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박문성	메시가 아주 잘 때렸는데 이번에 반테사르의 슈퍼 세이브예요. → ‘슈퍼 세이브(super save)’는 축구 해설에 흔히 사용되는 ‘호수비, 선방’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박문성	힘들이지 않고 비하인드 골문으로 정확하게 다비드 비야가 때려 넣네요. → ‘비하인드(behind) 골문으로’는 ‘골키퍼의 뒤쪽에 있는 골문으로’라는 의미이다. ‘골키퍼 뒤쪽으로’로 순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배성재	일단 키퍼해 놓고요 발테스가 편칭으로 클리어합니다. → ‘클리어링(clearing)’은 ‘자기 진영에 가까이 온 공을 멀리 차내 혼전 또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클리어합니다’는 ‘공을 처리합니다/ 공을 걷어냅니다’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하이라이트	박문성	역시 허리 쪽에서 압박을 상당히 높게 하는데요. → ‘압박’과 ‘높게 하다’는 호응되지 않아 어색하다. ‘역시 허리 쪽에서 심하게 압박을 하는데요.’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부적합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래서 오늘 포크볼이 얼마큼 잘 드가느냐 그게 문제고, 사도스키 역시도 컷트볼이 오늘 잘 들어가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뉘 슬라이더, 직구 뉘든지 잘 던지고 그래서 오늘은 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전 포인트가 보이면 두 선수들이 어떤 주무기가 얼마나 잘 먹혀들어가는지 거기에 <u>관전 포인트</u> 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관전 포인트’는 ‘관전의 초점’ 정도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래어이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이택근의 타격 자세는 왼발이 상당히 <u>오픈 스탠스</u> 돼 있거든요. → ‘오픈 스탠스’는 ‘공을 칠 때 다른 타자보다 발을 벌린 폭이 넓은 자세’를 가리키는 외래어·외국어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밑줄 친 부분은 ‘열려 있거든요’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아웃 <u>카운트</u> 를 하나를 벌고 들어가니까요. → ‘카운트’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여기에서는 ‘카운트’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래서 <u>번트 모션</u> 을 취해서 야수들을 좀 앞으로 좀 끌어당겨 놓고 그러고는 아무래도 공격을 하면은 이 안타 될 확률이 그만큼 더 높기 때문에……. → ‘모션’은 ‘자세’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전준우 선수는 수비도 좋고 아주 무엇보다 이 <u>파이팅</u> 이 아주 좋은 그런 선수입니다. → ‘파이팅’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원어 ‘fighting’의 의미와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투지’ 정도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결국 팬들은 어떤 그런 야구장에서 맘껏 뛰면서 이 <u>파이터</u> 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 ‘파이터’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투지가 있는 선수들’ 정도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래서 이 두 선수 다 워낙에 어, 좋은 주무기, 아주 다양한 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u>뿐인트</u> 가 역시 방금 말씀하셨던 그게 살아난다 그러면은 또 오히려 투수전이 또 갈수가 있고 그게 안 되면은 타격전을 간단 에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기죠. → ‘뿐인트’는 ‘포인트’를 잘못 발음한 것으로 ‘핵심’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어, 땅뽕 잘못 치면은 또 <u>파블 프레이</u> 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스윙을, 큰 스윙을 하는 게 낫습니다. → ‘파블 프레이’는 ‘더블 플레이’를 잘못 발음한 것으로, ‘병살’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저렇게 큰 선수들이 보이면은 몸의 <u>발란스</u>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체중이 저렇게, 키도 크고 큰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어, 타격을 부드럽게 하는지 참, 뭐, 아주 너무 대단한 선수예요. → ‘발란스’는 ‘밸런스’의 잘못이다. ‘균형’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지금 뭐 이, 수비 <u>쉬프트</u> 에 딱 맞는 곳으로 공이 갔구요, 쉽게 처리가 됐습니다. → ‘쉬프트’는 ‘시프트’를 잘못 말한 것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로 ‘위치 이동’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u>센터</u> 방면에, 예. → ‘센터’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센터 방면’에는 ‘중앙’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작년하고 완전히 아주 뭐 <u>팁 칼라</u> 가 지금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은 어, 또 팀이 무엇보다 연패에 지금 안 빠지거든요. → ‘팁 칼라’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팁 색깔, 팀 특성’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래서 이 박현준 선수의 투구 <u>패턴</u> 이 보이면은 카운트 잡는 볼은 슬라이더, 직구, 뭐 이렇게 잡고 투 나뉘 이후에는 포크볼을 가지고 가면은 거의 뭐 시즌 초반에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슬라이더, 슬라이더, 또 그리고 마지막에도 직구, 슬라이더로 하나씩 결국은 그게 먹혀들지 않았거든요, 두 게임 정도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 ‘패턴’은 ‘유형’으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그러니까 그동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투구 패턴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깐 조금 부진한 결과가 나오는 거군요. → ‘패턴’은 ‘유형’으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아무래도 아, 직구, 슬라이더 가지고는 이 타자들의 어떤 그런 타이밍 잡는 게 쉽다는 거죠. → ‘타이밍’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타이밍 잡는 게’는 ‘때를 맞추는 것이’ 정도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렇기 때문에 각 팀의 그만큼 백업 선수들이 좋은 팀이 결국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 → ‘백업’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백업 선수’는 ‘후보 선수’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SK가 1위를 차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 백업 선수들의 풍부함이겠죠. → ‘백업’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백업 선수’는 ‘후보 선수’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아, 나이스 캐칩니다. → ‘나이스 캐치’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나이스캐칩니다’는 ‘잘 잡았습니다’ 정도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스트레이트 볼 넷. → ‘스트레이트 볼 넷’은 스트라이크나 파울 없이 볼이 네 개 연속으로 선언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연속 볼 넷’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래서 센타의 어떤 그런 콜에 움직여야 되는 데 아,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병규 선수가 판단이 꼬끔 그……. → ‘콜’은 ‘신호’로 순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지금 원 핸드로 캐치하고 낚뻬. → ‘원 핸드로 캐치하고’는 ‘한손으로 잡고’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래서 보통 외야수가 어떤 그 책임 회피를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오류 유형
			할려고 저런 타구는 일부러 대시하기보다는 그냥 원 바운드로 그냥 편안하게 처리할 때가 있다는 거죠. → ‘원 바운드’는 ‘원 바운드’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원 바운드로’는 ‘한 번 공이 지면에 부딪힌 뒤에’와 같이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자, 원 바운드로 펜스를 맞추면서 손아섭이 들어옵니다. → ‘원 바운드로’는 ‘한 번 공이 지면에 부딪힌 뒤에’와 같이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이병규 어제 5타수 1안타 2타점 투런 홈런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 ‘투런 홈런’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2점 홈런’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조인성, 쓰리 런! → ‘쓰리 런’은 ‘3점 홈런’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이 마무리에서 이제 셋업맨으로 복귀하면서 조금 부담 없는 투구를 던질 수 있는 시늉을 맞고 있죠, 임경완. → ‘셋업맨’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중간 계투’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지금은 우측의 풀 바깥쪽. → ‘풀’은 ‘경기장 담장의 기둥’을 가리키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기둥’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뭐 조성환 선수의 아주 파인 플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구요. → ‘파인 플레이’는 ‘파인 플레이’를 잘못 말한 것이다. 또한 ‘파인 플레이’는 ‘좋은 수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원 바운드 볼, 막아내는 조인성. → ‘원 바운드 볼’은 ‘땅에 한 번 부딪혀 튀어오른 공’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허슬 플레이어. → ‘허슬 플레이어’는 ‘몸을 사리지 않는 선수’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래서 좀 전에 어, 이승화 선수한테 투 투 포크볼을 던졌는데 그게 바운드가 됐단 말이죠. → ‘포크볼’은 투수의 구종 중 하나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운드’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바운드가 됐단 말이죠’는 ‘땅에 맞고 튕겼단 말이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스타트 끊었고 선행 주자 뒤쪽으로 공이 갔고 정, 박중윤이 베이스 택. → ‘스타트’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스타트 끊었고’는 ‘출발했고’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베이스 택’은 ‘베이스 태그’를 잘못 말한 것이다. ‘베이스 태그’는 ‘수비수가 타구를 잡은 뒤 공을 손으로 쥐거나 글러브로 쥐고 신체의 일부를 베이스에 닿게 하여 주자를 아웃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경기를 중계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렇죠, 지금은 거의 라인 선상에서 잡은 상황을 이거는 홈에 잡아내는 거는 그거는 무리죠. → ‘라인 선상’은 중복 표현이다. 또한 ‘라인’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따라서 ‘라인 선상’은 ‘선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부적합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저 130 키로를 끌고 홈까지 들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 ‘키로’는 ‘킬로미터’의 잘못이다. 또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에게 무거운 몸을 끌고 홈까지 들어오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표준어/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뭐, 약간 4차원 같은 기질이 좀 있습니다마는……. → ‘4차원 같다’는 ‘영똥하다’와 유사한 의	은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미로 사용되는 은어이다. 따라서 ‘4차원 같은 기질’은 ‘영똥한 기질’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어떻게 보면 <u>필승조</u> 에 있는 그런 선수란 말입니다. → ‘필승조’는 ‘꼭 승리해야 하는 경기’에 주로 출전하는 뛰어난 선수’를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제 바램입니다마는, 두 팀이 이 다 4강권에 들면은 프로야구는 대박이다. → ‘대박’은 ‘아주 좋은 일’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은어이다. 여기서 ‘대박이다’는 ‘크게 흥행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이거 뭐 조인성 선수가 아, 홈런을 치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업돼 있을 텐데도 지금 또 후배들이 아, 그 박현준 선수를 또 챙기는 그런 모습이……. → ‘업되다’는 ‘(기분이)좋아지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은어이다. 따라서 ‘업돼 있을 텐데도’는 ‘무척 좋은 텐데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이병규 선수가 작년보다 좀 틀려진 게 아무래도 이 맞고 나서 타격하고 나서 이 <u>팔로스루</u> 가 굉장히 좀 커졌어요. → 문맥을 고려할 때 ‘틀려진’은 ‘달라진’으로 수정해야 한다. 또한 ‘팔로스루’는 ‘폴로스루’의 잘못이다.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표기하고 표기와 동일하게 발음해야 한다. 그리고 ‘폴로스루’는 ‘타구나 던진 공의 효과를 더욱 올리기 위하여 공을 치거나 던진 후에 스트로크나 팔의 동작을 계속 진행하는 일’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용어/비표준어/부적합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위닝 시리즈 가져가기 위해서는 롯데는 일단 무조건 이겨 놔야 하구요 엘지 입장에서선 또 역시 욕심나는 한 판 승부가 되겠는데 타격전 양상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해요.	전문용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 '위닝 시리즈'는 프로야구에서 한 팀이 다른 팀과 세 번 연속으로 경기를 할 때 두 번 이상 이기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이자 외국어이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롯데는 사도스키, 강민호, 배터리에 박종윤, 조성환, 황재균, 그리고 문규현 유격수, 이승화, 전준우, 손아섭이 외야에서 수비를 하게 됩니다. → '배터리'는 투수와 포수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자 외래어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이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양팀의 테이블 세터의 능력이 처음 이제 비교가 될 텐데요. → '테이블 세터'는 '1번, 2번 타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자 외국어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네, 스위치 타잡니다. → '스위치 타자'는 왼손으로도 공을 칠 수 있고 오른손으로도 공을 칠 수 있는 타자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자 외래어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이제 문제는 바로 이병규, 박용택, 정성훈, 엘지의 <u>클린업</u> 트리오와 롯데의 <u>클린업</u> 트리오의 대결일 텐데요. → '클린업 트리오'는 '3, 4, 5번 타자'를 가리키는 '클린업 트리오'를 잘못 발음한 것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u>클린업</u> 의 어떤 그 대결이 또 볼 만합니다. → '클린업'은 '클린업 트리오'를 줄여 말한 것이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지금 태그가 필요 없이 <u>포스 아웃</u> . → '포스 아웃'은 '후속 주자로 인하여 진루해야 하는 주자가 다음 누에서 아웃이 되	전문용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는 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아마 투심 같은데 저게 <u>포크볼</u> 인지 투심인지 아직 제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 '투심'은 '투심 패스트볼'의 준말로 '공을 감싸고 있는 이음매 두 개를 나란히 잡고 던지는 속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포크볼' 역시 투수의 구종 중 하나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아 <u>그라운드 룰 더블</u> 같은데요. → '그라운드 룰 더블'은 '2루타나 3루타 정도의 타구가 땅에 떨어진 뒤 담장을 넘어간 경우나 타구가 담장 틈에 낀 경우에 이를 2루타로 인정해 주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자 외국어이다. '인정 2루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이택근, 6-4-3. 투 아웃입니다. → '6-4-3'은 '유격수가 2루수에게, 2루수가 다시 1루수에게 공을 던져 1루와 2루로 향하던 주자를 아웃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아, 역모션. 베이스 쪽고 이병규가 빠르게 1루까지 가서 이병규 2루까지, 일단 진루타는 됐습니다. → '역모션'은 '선수가 움직이려는 쪽의 반대쪽으로 공이 날아와 몸을 급히 반대로 움직이는 동작'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자, 1루에서 <u>스코어링 포지션</u> 까지 움직이는 김태완. → '스코어링 포지션'은 '단타만 쳐도 득점할 수 있는 주자의 위치, 즉 2루와 3루'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다. 일반인이 이	전문용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자 서동욱 선수의 차런데 일단은 윤상균 선수가 웨이팅 씨클에서 몸을 좀 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구요. → ‘웨이팅 씨클’은 ‘다음 타석에 설 타자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별도의 설명을 해주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콜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 ‘콜 플레이’는 ‘타구가 날아올 때 수비수들이 서로 신호하여 타구를 잡을 선수를 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경기를 중계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콜 플레이가 좀 됐자면 이승화 선수가 잡을 수도 있었던 그런 타구네요. → ‘콜 플레이’는 ‘타구가 날아올 때 수비수들이 서로 신호하여 타구를 잡을 선수를 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전문용어이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이므로 경기를 중계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아, 스윙 삼진, 그리고 2루의 룡택도 아웃입니다. → ‘ 룡택’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이므로 경기를 중계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설명을 제공하거나 우리말로 풀어서 표현해야 한다.	전문용어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지금 사토스키가 어, 셔클 체인지업성은 몸쪽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 ‘셔클 체인지업’은 ‘투수가 새끼손가락은 공의 옆면에, 약지와 중지는 윗면에, 엄	전문용어/부적합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용	오류 유형
			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은 끝에 놓아 동그라미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던지는 공’이다. ‘셔클 체인지업’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인데 여기에 ‘-성(性)’을 붙여서 ‘셔클 체인지업과 같은 성질의 공’이라는 의미의 불완전한 단어를 사용하였다.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역시 사이드. → ‘사이드’는 ‘사이드암 투수’로 수정해야 한다. ‘사이드암 투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또한 ‘사이드암 투수’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이므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전문용어/부적합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커터볼이 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 지켜보고 이 커터볼이 잘 안 드갈 경우에는 뽕 배합이 인제 틀리지겠쥬. → ‘틀리지겠쥬’는 의미상 ‘달라지겠쥬’로 수정해야 한다.	부적합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예, 뭐 카운트는 체인지업을 많이 가져가는데 지금 던지는 게 인제 커터볼입니다. → ‘카운트’는 ‘볼 카운트’를 줄인 말인데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려면 이것을 ‘볼 카운트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가져가는데’는 의미상 ‘던지는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그래서 저 원래 박현준 선수가 포크볼이 주무기였는데, 그 앞전 경기에 이 포크볼이 전혀 먹히질 않았거든요. → ‘앞전’은 중복 표현이다. ‘앞’이나 ‘전’ 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양준혁	저는 장외가 되는 줄 알았어요. → ‘장외’는 ‘장의 홈런’으로 수정해야 한다. ‘장의 홈런’이 정확한 표현이다.	부적합 표현
SBS	2011 프로야구 LG:롯데	배기완	그러니까 3분의 1을 잃어,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 스트라이크가 선언되면 타자는 자신이 가진 기회의 3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따라서 ‘잃어버리는’은 ‘잃어버리는’으로 수정해야 한다.	부적합 표현

월간 보고서: 7월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

**[1] 조사 목적**

라디오라는 매체는 텔레비전과 달리 청각적인 요소만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출연자들이 하는 말은 매우 큰 정보력을 가진다. 게다가 라디오 프로그램은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녹음을 해 송출한다고 해도 편집은 거의 하지 않는다. 즉, 발화상의 오류를 범해도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말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말을 사용하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어 보면 진행자 및 출연자의 언어가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진행자의 소양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전문 진행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진행자의 언어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고, 잘못된 언어 습관들도 그대로 드러난다. 나아가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웃음을 유발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른 오후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 연령층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청취자가 굳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지 않아도 버스나 택시를 통해 이동할 때, 물건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을 때 이 프로그램들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진행자나 출연자들도 십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듣는 프로그램은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언어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이며 방송을 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방송 3사의 라디오 프로그램들 중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의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저품격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조사 대상**

채널	프로그램명	진행자/출연자	방송일시
KBS 2FM	변기수의 미스터 라디오	변기수	2011. 7. 8(금) 14:00-16:00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이특, 은혁/ 김범수	2011. 7. 8(금) 22:00-24:00
MBC 표준 FM	두시만세	원미연, 김경식/ 김세아, 김종진, 전태관	2011. 7. 8(금) 14:20-16:00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일락, 박원	2011. 7. 8(금) 22:5-24:00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	김태균, 정찬우/ 김반장, 허ček	2011. 7. 8(금) 14:00-16:00
	영스트리트	황광희, 김동준/ 제국의아이들(7명)	2011. 7. 8(금) 20:00-22:00
	텐텐클럽	이석훈/ 김경록, 베이지, 유말이	2011. 7. 8(금) 22:00-24:00

**[3] 분석 항목**

**1) 저품격 표현**

- 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 ② 비속어와 은어
- ③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 ④ 반말

**2) 비표준어**

**3) 부적합 표현**

**[4]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분석**

**1) 저품격 표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와 은어, 불필요한 외래어 및 외국어<sup>6)</sup>, 반말을 들 수 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라디오 프로그램들에서는 불필요한 외래어 및 외국어 사용과 반말 사용이 두드러졌다.

**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 서로의 인격을 비하

6) ‘불필요한 외국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대체할 우리말이 있는 말을 의미한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혹은 말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취향을 바탕으로 특정 유형의 사람들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었다.

- (1) 똥땡이 그러면 안 돼요.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 (2) 열여덟 살 때는 많이 가리구 그래요. 앞으로 한 십 년만 지나봐요, 가릴 수준이 오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 (3) 남자들이 많으면 방송이 이상해집니다.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 (4) 말을 이렇게 써 냐어, 아으.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 (5) 검정 고무신에 우연히 한 번 정도 나오는 고물상 아저씨 이런 거?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 (6) 순수한 척 하지 마. <영스트리트, 광희>
- (7) 그리고 살짝 외모가 좋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좀 그랬어요.  
<영스트리트, 광희>

(1-7)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의 대표적인 예이다. (1)은 <미스터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몸집이 큰 사람을 비하적으로 일컬어 ‘똥땡이’ 라고 칭한 것이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취자들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2)는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진행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청취자에게 ‘십 년이 지나면 청취자가 원하는 이성을 만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해 청취자의 인격을 비하한 것이다. 적극적인 비하의 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3-5)는 <두 시 탈출 컬투쇼>에서 등장한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유독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3)은 방청객 가운데 남자 방청객이 많은 것을 본 진행자가 한 말이다. 이는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4)는 청취자의 사연을 읽던 진행자가 청취자의 사연 가운데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있어 의미가 잘 통하지 않자 사연을 쓴 청취자를 비난한 것이다. 좋은 진행자라면 청취자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좋은 표현으로 고쳐주며 매끄럽게 진행해야 한다. (5)는 출연자가 자신은 ‘검정 고무신’ 이라는 만화 분위기가 난다고 하자 진행자가 ‘고물상 아저씨’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는 ‘고물상 아저씨’의 특성을 임의로 일반화하여 비하한 발언이며, 출연자의 외모를 비하한 발언이기도 하다.

(6-7)은 <영스트리트>에서 등장한 비하하는 표현이다. (6)은 진행자가 자신과 같은 그룹 ‘제국의 아이들’ 에 속해 있는 멤버인 출연자에게 한 말인데, 상대방의 발언을 ‘순수한 척 하는’ 발언으로 치부해 상대를 거짓말쟁이로 몰면서 상대를 비하하고 있다. (7)은 진행자가 목격한 연인의 외모가 좋지 않아서 그들이 하는 행동도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그 연인은 물론 외모가 좋지 않

은 사람들을 비하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유독 <두 시 탈출 컬투쇼>에서 한 진행자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표현이 웃음을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순간적인 웃음을 유발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불쾌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의 청취자에게 노출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청취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 ② 비속어와 은어

비속어·은어는 저품질 언어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비속어는 방송에서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될 표현이며, 은어는 그 표현을 알지 못하는 청취자들을 소외시키는 표현이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듣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비속어와 은어가 여과 없이 사용되면 이러한 표현이 무분별하게 재생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1) 직장 상사를 썩은 세 분 세 분 모여주세요.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 (2) 너무 많이 타갖구 두 발 중에 하나는 빠가났어요  
<두 시 만세, 김종진>
- (3) 여친하고 600일이니까 여우같은 기집애들이 꼬리 치지 않게 사내방송도 해주시고요. <두 시 탈출 컬투쇼, 김태균>
- (4) 헛짓거리 한다구……. 그 헛짓거리가 쌀 한 가마니 받게 생겼네요, 지금.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 (5) 남자는 약간 좀 무데뽀 같은 느낌이어도 여자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매력에 있는 거 같아요 <텐텐클럽, 페이지>

(1-5)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등장한 비속어의 예이다. (1)의 ‘썩다’ 는 ‘비난하다’ 라는 의미의 비속어이다. (2)의 ‘빠가나다’ 는 ‘고장나다’ 로 순화해야 할 속된 표현이다. (3)에는 은어와 비속어가 모두 사용되었다. ‘여우같은 기집애’, ‘꼬리치다’ 는 ‘여우같은 여자’, ‘유혹하다’ 를 속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여친’ 은 ‘여친구’ 의 줄임말로 은어이다. 이 표현은 청취자 사연의 일부이다. 청취자가 이런 식으로 사연을 보냈을 경우, 우선 작가가 사연을 순화하여 고쳐주어야 한다.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 진행자 선에서 다시 한 번 수정되어야 한다. (4)의 ‘헛짓거리’ 에서 ‘짓거리’ 는 ‘짓’ 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므로 비속어이다. (5)의 ‘무데뽀(無鐵砲)’ 는 일의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일본어에서 온 이 말은 ‘막무가내’ 정도

로 순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좋다.

(6~10)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타난 언어의 예이다.

- (6) 허분좌의 내 눈을 바라봐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 (7) 몸짱에 도전하시는 것은 아니죠? <두 시 만세, 원미연>
- (8) 이 뒤 시간이 말리느냐, 말리지 않느냐 중요하게 판가름해 주는 코너이기도 하죠.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 (9) 덕후시네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일락>
- (10) 어떻게 보면 밀당이죠 <텐텐클럽, 김경록>

(6)의 ‘분좌’는 ‘최강자, 1인자’ 등을 의미하는 유행어인데, 통신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은어라고 할 수 있다. (7)의 ‘몸짱’은 몸매가 좋은 사람을 이르는 일종의 은어이다. (8)의 ‘말리다’는 ‘(일이)꼬이다’와 비슷한 의미의 은어이다. (9)의 ‘덕후’는 ‘마니아’라는 의미의 일본어 ‘오타쿠’를 한국어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6)과 마찬가지로 통신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은어이다. (10)의 ‘밀당’은 ‘밀고 당기기’의 줄임말을 한 단어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은어이다. 이 표현들 가운데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도 있지만 젊은 층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도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청취자들이 방송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면 이러한 은어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 ③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볼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문제점은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외국어와 외래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이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오히려 좋은 우리말을 살려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1)은 모두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를 사용한 예이다.

- (1) 그 이유는 바로 김범수 노래 목소리만 도플갱어인 남창희 씨 때문인데요. <키스 더 라디오, 은혁>
- (2) 솔리스타라는 앨범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이 그 이제 유명한 아니아니 유명한이 아니라 아주 그 대단한 뮤지션들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이었거든요. <키스 더 라디오, 김범수>
- (3) 시간을 관장하는 뇌에 데미지를 입은 거 같아요 <두 시 만세, 전태관>
- (4) 업그레이드 버전 별밤 특파원 퀴즈 시즌 투!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5) 그 양말은 스페셜 에디션 그런 건 없나요?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 (6)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장까지 쌓이게 만들어 드리는 정말 몸에 좋은 굼, 유산균, 김태균이에요. <두 시 탈출 컬투쇼, 김태균>
- (7) 그래 가지구 저희가 이렇게 좀 사운드 체크이라는 걸 하거든요. <두 시 탈출 컬투쇼, 김반장>
- (8) 웬지 뻘(feel)이 좋아요 저희가. <영스트리트, 광희>
- (9) ‘비가 올거다’라고 얘기하면 레인부츠나 이런 거 신으면 참 좋은데 <텐텐클럽, 이석훈>

(1~9)는 외국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 사용한 예들인데 모두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다. (1)의 ‘도플갱어’는 ‘Doppelgenger’라는 독일어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복제판’으로 순화할 수 있다. (2)의 ‘뮤지션(musician)’,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은 각각 ‘음악가’, ‘협업’으로, (3)의 ‘데미지(damage)’는 ‘상처, 손상’으로 순화할 수 있다. (4)의 ‘업그레이드 버전(upgrade version)’은 ‘더 재미있어진’으로 순화 가능하고, ‘시즌 투(season two)’는 ‘삭제해도 무방하다. (5)의 ‘스페셜 에디션(special edition)’은 ‘특별판, 특별 한정판’으로, (6)의 ‘해피’는 ‘행복’으로, (7)의 ‘사운드 체크(sound checking)’은 ‘음향 점검’으로, (8)의 ‘뻘(feel)’은 ‘느낌’, (9)의 ‘레인부츠(rainboots)’는 ‘장화’로 순화하는 것이 낫다.

- (10) 라디오 듣고 기분 업 되셨으면 좋겠어요. <텐텐클럽, 이석훈>
- (11) 그래서 그런지 몸매가 슬림하세요 <두 시 만세, 김경식>

(10~11)은 외국어 단어들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로 변형하여 차용한 예들이다. 이런 경우, 차용된 외국어의 쓰임 자체가 변형되는 경우가 많다. (10)의 ‘업(up)되다’는 ‘좋아지다’로, (11)의 ‘슬림(slim)하세요’는 ‘날씬하세요’로 순화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순화할 우리말이 있는데도 외국어를 사용한 것이다.

### ④ 반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대화는 공적 대화이기 때문에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반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친밀한 관계의 진행자와 출연자가 반말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진행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되는 청취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 (1) 됐어 늦어서 탈락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 (2) 하, 한숨을 쉬어.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 (3) 밖에 나가서 보니 해 났는데?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1)은 진행자가 진행 과정에서 청취자를 대상으로 반말을 한 예이다. (2)는 청취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청취자가 한숨을 쉬자 진행자가 혼잣말처럼 한 반말이다. (3)도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한 반말이다. 사례가 매우 많아 일일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별이 빛나는 밤에>의 진행자는 혼잣말처럼 반말을 반복하여 사용했고, <미스터라디오>와 <두 시 탈출 컬투쇼>의 진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말을 사용했다. 특히, 청취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반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방송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사용되는 언어 또한 공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므로 진행자들은 반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2) 비표준어

표준어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혹은 의도적으로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방송에서는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 (1)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뮤지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노래도 하시고 곡도 받으시고. <키스 더 라디오, 이특>
- (2) 도트 수도 쫘 쪼꼬망게. <키스 더 라디오, 김범수>
- (3) 토양이 틀리면 나무도 틀리게 자라나요 <두 시 만세, 김경식>
- (4) 전기세 겁나 나오겠네.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 (5) 아이돌 명예를 걸고 백프로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영스트리트, 동준>
- (6) 야식 참는 법 좀 아르쳐 주세요. <영스트리트, 광희>

(1)의 예에서는 ‘내노라하다’가 잘못되었다. ‘내노라하다’로 고쳐야 한다. (2)의 ‘도트 수’는 ‘글자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글자 크기’를 ‘도트 수’라고 표현하지는 않으므로 잘못되었다. (3)의 ‘틀리다’는 ‘다르다’의 잘못이다. (4)의 ‘겁나’는 ‘겁나게’를 잘못 말한 것인데 방언이다. ‘매우 많이, 엄청나게’로 고쳐야 한다. (5)의 ‘프로’는 ‘퍼센트’의 잘못이다. (6)의 ‘아르치다’는 ‘가르치다’를 잘못 말한 것이다.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부적합 표현

‘부적합 표현’이란 높임말 표현을 잘못 사용 했거나, 문장이 이상해 의미가 불분

명하고 어색한 표현들을 의미한다.

- (1) 그만큼 김범수 씨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파워를 점점 높이고 있지 않나. <키스 더 라디오, 이특>
- (2) 아버님도 꼭 소환하셔서 별밤과 함께 하도록 꼭 뭉어 두시길 바랄게요.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 (3) 아유, 참, 아버님, 어머님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김민형 특파원 같은 아드님이 게서서…….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 (4) 요판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 (5) 활짝 하지 않아요?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1)의 경우, 문장 전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2)는 청취자의 아버지가 ‘별이 빛나는 밤에’를 열심히 듣다가 요즘은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아버지를 소환하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소환하다’는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여기에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방송을 듣게 만드는 것을 ‘뭉어 두다’라고 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3)의 ‘아드님이 게서서’는 ‘아드님’을 높이는 표현이므로 부적절하다. (4)의 ‘요판 노래’는 진행자가 잘 모르는 노래를 가리킨다. 진행자가 자신이 잘 모르는 노래를 ‘요판 노래’라고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5)의 ‘활짝 하다’는 날씨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활짝 개다’로 고칠 수 있다.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표현이다.

이 외에도 따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두 시 탈출 컬투쇼>와 <영스트리트>에서는 특정 코너를 시작할 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열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두 시 탈출 컬투쇼>에서는 흥을 돋우기 위해 알 수 없는 말을 즉석에서 만들어 이야기하기도 했다. 청취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이러한 표현들은 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5] 결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고정된 진행자가 두 시간씩 진행을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약 14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진행자의 말이 방송을 통해 수없이 노출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편집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라디오 진행자들은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진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언어 사용이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청취자들의 사연 및 문자 메시지가 방송의 중요한 요소인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 및 출연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잘못된 언어 표현을 사용하면, 청취자의 사연이나 문자 메시지에도 금방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는 결국 청취자의 전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독특하고 이상한 잘못된 언어 표현까지도 쉽게 흡수하는 청소년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듣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단순히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라디오 프로그램 전체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바른 말을 사용하고, 내실을 기하다 보면 오히려 장수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붙임 :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오류 1부

<붙임>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오류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KBS 2FM	변기수의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똥똥이 그러면 안 돼요 → ‘똥똥이’ 는 ‘똥똥한 사람’ 을 비하적으로 이르는 비속어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 2FM	변기수의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직장 상사를 썰은 세 분 세 분 모여주세요. → ‘썰다’ 는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의미의 비속어이다.	비속어
KBS 2FM	변기수의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허분좌의 내 눈을 바라봐 → ‘분좌’ 는 ‘최강자, 1인자’ 등을 의미하는 유행어이다.	은어
KBS 2FM	변기수의 미스터라디오	변기수	됐어 늦어서 탈락 → 진행을 하며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취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말로 진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말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은혁	그 이유는 바로 김범수 노래 목소리만 도플갱어인 남창희 씨 때문인데요. → ‘도플갱어’ 는 ‘Doppelgenger’ 라는 독일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 ‘복제판’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은혁	갯올라잇. → ‘갯올라잇(Get all right)’ 은 초대 손님인 김범수 씨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며 했던 애드리브가 인상적이어서 따라한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이므로 맥락 없이 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정확한 영어 문장도 아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은혁	그만큼 뭔가 정말 안티가 없다는 건데. → 그만큼 뭔가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없다는 건데. ‘안티(anti)’ 는 ‘반대하는, 좋아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외국어이다. 흔히 인기인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	키스 더	김범수	눈에 보이는 그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불필요한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2FM	라디오		→ 눈에 보이는 <u>순위도</u> 상위권에 올라 있 <u>어요</u> . '랭크(rank)' 는 '순위' 로 순화할 수 있는 외국어이다.	외래어· 외국어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김범수	솔리스타라는 앨범의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맥 락이 그 이제 유명한 아니아니 유명한이 아니 라 아주 그 대단한 뮤지션들하고의 콜라보레 <u>이션</u> 이었거든요. → '뮤지션(musician)' 은 '음악가' 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은 '협업' 혹은 '같이 작업하는 것' 으 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했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김범수	서는 예전부터도 굉장히 사실 그 눈이 좀 하 <u>이클라스</u> 예요. → '눈이 높다' 는 것을 '눈이 하이클라 스(high class)' 다' 라고 표현했다. 이 는 부적절한 곳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한 것이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은혁	굉장히 <u>쿨</u> 하시네요. → '쿨(cool)' 하다' 는 여러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여기 서는 '시원시원하시네요' 로 바꿀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이특	정말 대한민국에서 <u>내노라하는</u> 뮤지션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노래도 하시고 곡도 받으시고. → '내노라하는' 은 '내로라하는' 의 잘 못이다. '뮤지션(musician)' 은 '음 악가' 로 순화해야 한다.	비표준어 /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이특	<u>그만큼</u> 김범수 씨의 영향력이 대한민국 파워 <u>를</u> 점점 높이고 있지 않나. →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부적합 표현 이다. '파워' 는 '힘' 으로 순화 가 능한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부적합 표현
KBS 2FM	키스 더 라디오	김범수	<u>도트</u> 수도 좀 쪼꼬맻게. → 글자 <u>크기도</u> 좀 쪼꼬맻게. '글자 크기' 를 '도트(dot)' 수'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비표준어
MBC 표준FM	두시만세	원미연	우리집 양반은 완전히 <u>집들이</u> 거든요 → '집들이' 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오	비속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는 남편을 의미하는 속된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MBC 표준FM	두시만세	김종진	너무 많이 타갖구 두 발 중에 하나는 <u>빠가났</u> <u>어요</u> → '빠가나다' 는 속된 표현이므로 '고 장나다' 로 바로잡아야 한다.	비속어
MBC 표준FM	두시만세	원미연	<u>몸짱</u> 에 도전하시는 것은 아니죠? → '몸짱' 은 몸매가 좋은 사람을 이르는 말인데, 일종의 은어이므로 사용을 자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어
MBC 표준FM	두시만세	김경식	<u>스페셜</u> 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 외국어 '스페셜' (special)는 우리말 '특집' 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MBC 표준FM	두시만세	원미연	<u>와이프</u> 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한 몸만 쟁길 줄밖에 몰라서 너무 서운하다고 → 외국어 '와이프' (wife)는 '부인' 혹은 '아내' 로 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MBC 표준FM	두시만세	전태관	시간을 관장하는 뇌에 <u>데미지</u> 를 입은 거 같아 요 → 외국어 '데미지' (damage)는 우리말 '상처' 로 순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MBC 표준FM	두시만세	김경식	그래서 그런지 몸매가 <u>슬림</u> 하세요 → 외국어 '슬림' (slim)은 '날씬하다' 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슬림하세요' 는 '날씬하세요' 로 고치는 것이 자연 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MBC 표준FM	두시만세	김경식	토양이 <u>틀리면</u> 나무도 틀리게 자라나요 → '틀리다' 는 '다르다' 의 잘못이므로 '틀리면' 은 '다르면' 으로 '틀리 게' 는 '다르게' 로 바로잡아야 한다.	비표준어
MBC 표준FM	두시만세	김종진	꿈이 높은 것과 욕심이 많은 거랑은 <u>틀린</u> 건 데 → '틀린' 은 '다른' 의 비표준어이므로 '다른' 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비표준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u>열여덟</u> 살 때는 많이 가리구 그래요. <u>앞으로</u> <u>한 십 년만</u> 지나봐요, 가릴 수준이 오나……. → 남자 청취자가 자신에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십 년이 지나면 청취자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원하는 이성을 골라서 만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청취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박덕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성에 ‘덕후’ 를 붙여 ‘박덕후’ 로 표현하고 있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저희 본당 신부님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종교에 몰빵하라.” → ‘몰빵’ 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거는 것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따라서 ‘몰빵하라’ 는 ‘모든 것을 다 걸어라’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이 뒤 시간이 <u>말리느냐, 말리지 않느냐</u> 중요하게 판가름해 주는 코너이기도 하죠. → ‘말리다’ 는 ‘(일이)꼬이다’ 와 비슷한 의미의 은어이다.	은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아, <u>장 트러블</u> 때문에……. → ‘장 트러블’ 은 설사, 변비 등과 같이 장과 관련이 있는 건강 문제를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어, 굉장히 <u>허들이 높</u> 은데요. → 남자 청취자가 자신의 이상형이 김연아 선수라고 하자 이상형을 만나기가 힘들겠다는 의미로 ‘허들이 높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은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일락	<u>덕후</u> 시네요 → ‘덕후’ 는 ‘마니아’ 라는 의미의 일본어 ‘오타쿠’ 를 한국어식으로 표현한 유행어이다. ‘마니아’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u>풀박</u> 이라 그러잖아요 → ‘풀박’ 은 ‘full box(풀박스)’ 의 첫 두자를 따온 표현으로 ‘물건을 처음 샀을 때와 같이 포장상자, 구성품 등이 모두 완비된 제품’ 을 의미한다. 잘못된 외국어이기도 하며, 유행어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은어
MBC	윤하의 별이	일락	<u>네고</u> 라 그러죠	은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표준FM	빛나는 밤에		→ ‘네고’ 는 협상을 의미하는 ‘negotiation’ 이라는 단어의 앞부분만 절단한 형태로 흔히 ‘중고 거래에서 가격 협상’ 을 의미한다. 잘못된 외국어이자 유행어이다. ‘가격 협상’ 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u>업그레이드 버전</u> 별밤 특과원 퀴즈 시즌 투! → ‘업그레이드 버전’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더 재밌어진’ 과 같이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즌 투’ 역시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앞에 ‘업그레이드 버전’ 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아예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오늘은 주말 코너에서 평일로 요일 이사를 온 별밤의 <u>핫 이슈</u> 코너죠. → ‘핫 이슈’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핫 이슈 코너’ 는 ‘가장 화제가 되는 코너’ 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지금부터는 광고 <u>타임</u> 이죠. → ‘타임’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시간’ 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번째 공개방송, 두근두근 <u>썸머</u> 콘서트! → ‘썸머’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여름’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u>프라이데이 나잇</u> , 금요일 밤 →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 2번 사용되었다. 의미도 중복되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u>오리지널</u> 캐릭터여야 한다는 거죠. → ‘오리지널’ 은 ‘오리지널’ 의 잘못된 발음이다. ‘진품 캐릭터’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그 양말은 <u>스페셜 에디션</u> 그런 건 없나요? → ‘스페셜 에디션’ 은 ‘특별판, 특별한정판’ 정도로 수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일락	박스들을 모으는 것 같아요 → ‘박스’ 는 ‘상자’ 로 수정할 수 있 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빈티지한 거 좋아하시나 보네요. → ‘빈티지’ 는 ‘오래된 물건, 이전 시 대에 유행한 스타일’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 외래어이다. 이를 ‘빈티지하 다’ 로 사용한 것도 어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이다. ‘오래된 물건’ 으 로 수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저를 대신해서 클로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 ‘클로징’ 은 ‘마무리’ 로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하, 한숨을 쉬어. → 청취자가 한숨을 쉬자 웃으면서 반말을 하고 있다. 혼잣말처럼 반말을 많이 사 용한다.	반말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오늘도 문자 샵8001번 공짜 인터넷 미니, 스 마트폰 미니 어플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은 ‘애플리 케이션’ 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비표준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이 지지배가 또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싶었 습니다. → ‘지지배’ 는 표준어가 아니다. ‘이 지지배’ 를 ‘애’ 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아버님도 꼭 소환하셔서(다시 별밤을 듣게 해 서) 별밤과 함께 하도록 꼭 묶어 두시길 바랄 게요. → 청취자의 아버지가 ‘별이 빛나는 밤 에’ 를 열심히 듣다가 요즘은 듣지 않 는다고 이야기하자 아버지를 소환하라 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소환하 다’ 는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 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 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 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	부적합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다’ 의 의미를 가지므로 여기에서 쓰인 ‘소환 하다’ 는 부적절하게 쓰였다고 할 수 있다. 방송을 듣게 만드는 것을 ‘묶어 두다’ 라고 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MBC 표준FM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	아유, 참, 아버님, 어머님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김민형 특과원 같은 <u>아드님이 계셔 신</u> ……. → ‘아드님이 계셔서’ 라고 하면 ‘아드 님’ 을 높이는 것이 된다.	부적합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남자들이 많으면 방송이 이상해집니다. → 방청객들 중에 남자가 많아 남자들이 많으면 방송이 이상해진다며 남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있다 사연 들어보면 알겠지만 웃을 땀 시원시 원하게 웃어주시고 대답은 크게 하지 마세요. <u>짜증나니까</u> ……. → 진행자가 남자 방청객들이 대답을 크게 하면 짜증이 난다며 대답을 크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남자들 을 비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은. → 진행자가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난 뒤 청취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를 하 고 있다며 반말로 비난하고 있다.	반말/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김태균	말을 이렇게 써 봤어, 아으. → 청취자의 사연에서 문법에 맞지 않아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장을 발견하고 진행자가 반말로 면박을 주고 있다.	반말/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역시 남자들은 별루예요. → 남자 방청객에 대한 발언이다. 남자들 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머리가 좀 크다 는 겁니다. 우리는 <u>고딕</u> 사람들을 좋아해요. → 방청객이 데려온 어린 딸에 대해 머리 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린이 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비표준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용	오류유형
			다. 또한 사람에 대해 ‘고판’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판’ 은 비표준어이기도 하다.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오늘도 어김없이 좀 엉뚱하고 이상하고 <u>소의 계층</u> 가수 같은 느낌이 드는, 여러분께 큰 웃음을 드리고 있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 방송에 출연한 가수에게 ‘소의 계층 가수 같은 느낌’ 이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저쪽은 이제 <u>이디오피아 만화</u> 주인공. → 출연자 중 한 명은 일본 만화 주인공 같다고 하고 다른 한 명에 대해 말하면서 ‘이디오피아 만화 주인공’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u>검정 고무신</u> 에 우연히 한 번 정도 나오는 <u>고물상 아저씨</u> 이런 거? → 출연자가 자신은 만화 ‘검정 고무신’ 분위기가 난다고 하자 진행자가 ‘고물상 아저씨’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연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u>당신</u> 이 제일 적응이 안 돼요. → 말투가 특이한 출연자에게 면박을 주고 있다. 대화 상대자를 ‘당신’ 이라고 지칭하면 상대를 낮잡아 이르는 것이 된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u>왜 쓸데없는 걸 했어?</u> → 전화로 장기자랑에 참가한 청취자가 먼저 선보인 장기보다 더 나은 장기가 있음을 알고 진행자가 쓸데없는 것을 했다며 반말로 이야기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반말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u>그래, 이런 걸 해야지, 왜 쓸데없이 하모니카를 갖고 그래? 얼마나 시간 낭비를 한 거야? 하모니카 괴물 소리!</u> 이런 안 할 걸 그랬다. → 전화로 장기자랑에 참가한 청취자가 먼저 선보인 장기보다 더 나은 장기가 있음을 알고 진행자가 쓸데없는 것을 했다며 반말로 이야기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반말
SBS	두 시 탈출	김태균	조희수 열세 건 추천수 <u>뺄</u> 건입니다.	비속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용	오류유형
파워FM	킬투쇼		→ 숫자 ‘0’ 은 ‘영’ 이라고 읽는 것이 적절하다.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김태균	<u>여친하고</u> 600일이니까 <u>여우같은</u> 기집애들이 <u>꼬리 치지</u> 않게 사내방송도 해주시고요. → ‘여친’ 은 ‘여자 친구’ 를 줄여 만든 은어이다. ‘여우같은 기집애, 꼬리 치다’ 는 각각 ‘영악한 여자, 유혹하다’ 를 속되게 일컫는 말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비속어/ 은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u>헛짓거리</u> 한다구……. 그 <u>헛짓거리</u> 가 쌀 한 가마니 받게 생겼네요, 지금. → ‘짓거리’ 는 ‘짓’ 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비속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오늘 <u>빠꾸기</u> 주제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u>쏘쿨한</u> 사람. 그래, <u>쿨하신</u> 분들에 대한, 관계된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 ‘쏘쿨(so cool)한, 쿨(cool)하신’ 은 최근 유행하는 은어이다. ‘무심한, 무심하신’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김태균	<u>쿨해서</u> 재밌었던 일들, 너무 쓸데없이 지나치게 <u>쿨한</u> 사람들도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 ‘쿨해서, 쿨한’ 은 ‘무심해서, 무심한’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김태균	항상 삼 센치 정도 열린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요즘이 <u>살 떨리게</u> 나와서 아내가 할부로 새 냉장고를 사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선수 쳐서 벽걸이 티비를 사버렸어요. → ‘살 떨리게’ 는 은어이다.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무척 많이’ 정도루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김태균	셋째도 갖고 싶은데 평생 제가 <u>왕따</u> 가 될까봐 겁이 나요. → ‘왕따’ 는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머리를 감고 물이 마름과 동시에 <u>뺨이</u> 적요. → 여기에서 ‘뺨이 지다’ 는 머리카락 표면에 유분이 많아 머리카락이 뭉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어라고 할 수 있다.	은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제 말이 외계어 같습니까? → 청취자가 자신의 말을 잘 못 알아들자 한 말이다. ‘외계어’는 ‘외계인이 쓰는 말’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가리키는 은어다.	은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u>이제익</u> 이 보면은 약간 동물 쪽에 <u>꽃히는</u> 편입니다. → ‘이제익’은 이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이다. 방송 중에 제작진을 반말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꽃히다’는 ‘좋아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은어이다. 따라서 ‘동물 쪽에 꽃히는’은 ‘동물을 좋아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반말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김태균	근데 <u>이 자식</u> 이 회사에서 <u>솔로인</u> 척을 하나 봐요. → ‘자식’은 남자를 비하하는 말이다. 또한 ‘솔로’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따라서 ‘솔로인 척을’은 ‘여자 친구가 없는 척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비속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김태균	여러분의 <u>해피</u>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장까지 쌓이게 만들어 드리는 정말 몸에 좋은 균, 유산균, 김태균이에요. → ‘해피’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해피 바이러스’는 ‘행복 바이러스’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김반장	그래 가지구 저희가 이렇게 좀 <u>사운드 체크</u> 이라는 걸 하거든요. → ‘사운드 체크’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므로 ‘음향 점검’으로 순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야, 오늘 내가 본 복장 중에 제일 그래도 <u>헨</u> 섭하시다. → ‘헨섭하시다’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멋지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u>히스키</u> 보이스. →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썬 목	불필요한 외래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 용	오류유형
			소리’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u>밖에 나가서 보니 해</u> 댔는데? → 방송에서 진행자가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말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u>아버지</u> 요, <u>아들</u> 이 너무 큰 거 같네. → 부산에서 온 초등학생 방청객이 사투리를 쓰자 진행자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사투리로 말을 걸고 있다. 반말을 사용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비표준어 /반말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u>요탄</u>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에 <u>뿔</u> 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가 자신이 잘 모르는 곡을 소개하면서 ‘요탄 노래’라고 지칭하고 있다. ‘요탄’은 비표준어일 뿐만 아니라 특정 노래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진행자가 자신이 모른다는 이유로 특정 노래를 비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표준어 /부적합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전기세 <u>겉</u> 나 나오겠네. → ‘겉나’는 ‘겉나게’를 잘못 말한 것으로 ‘매우 많이’의 방언이다.	비표준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김태균	아빠는 무척 <u>깔끔</u> 하고 청결을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반면에, 엄마는 대충대충 <u>그까</u> 이거 위생 관념이 없으십니다. → ‘그까이거’는 비표준어이다. ‘그까깃 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u>활짝</u> 하지 않아요? → 날씨를 물어보는 말이다. ‘활짝하다’와 같은 표현은 부적절하다. 문장 전체를 ‘활짝 개지 않았어요?’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정찬우	뭐 <u>이</u> 딴 거 있지 않습니까? → 청취자의 사연에 대해 예를 들며 ‘이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비하의 의미를 전달하므로 부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컬투쇼	김반장	근데 그, 저희가 연주하기 전에 그 <u>브라이언 맥나잇</u> 이라는 아저씨가, <u>그 아저씨</u> 가 리허설하는데 되게 늦게 왔어요. → 방송에서 외국 가수를 ‘아저씨’라고 부른 것은 부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용	오류유형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김반장	이 친구 재수도 하시고 뭐 거시기 뭐 그러시니까 지금 225, 225점 만점에 어, 120점 드리겠습니다. → 청취자를 ‘이 친구’ 라고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거시기, 그러니까’ 와 같은 표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부적합 표현
SBS 파워FM	두 시 탈출 킬투쇼	정찬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쉼하세요. →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쉼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형용사 ‘쉼하다’ 에 어미 ‘-세요’ 를 붙여 명령문을 만드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광희	순수한 척 하지 마. → 상대방의 발언을 ‘순수한 척 하는’ 것으로 치부하여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게다가 반말을 사용하였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반말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광희	그리고 살짝 외모가 좋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좀 그랬어요. → 진행자가 목격한 커플의 외모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비하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광희	웬지 뻘이 좋아요 저희가. → 웬지 느낌이 좋아요 저희가. ‘뻘’ 은 ‘feel’ 을 잘못 발음한 것이다. ‘필’ 은 ‘느낌’ 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광희	노래 비주얼 퍼포먼스 끼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만이 살고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스타를 만든다는 그 제국. → ‘퍼포먼스(performance)’ 는 ‘공연’ 을 의미하는 외국어이다. 그런데 여기서 는 정확히 ‘공연’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무대 장악력’ 정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의미가 더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광희	이런 애들은 싹을 끊어버려야 돼. → 함께 출연한 ‘제국의 아이들’ 의 구성원 중 한 명에게 한 말이다. 발전의 가	부적합 표현/ 반말

방송사	프로그램명	발화자	내용	오류유형
			능성이 있어 자신의 인기에 위협이 되면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장난처럼 한 말이지만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표현이다.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동준	아이돌 명예를 걸고 백프로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 ‘프로’ 는 ‘퍼센트’ 의 잘못. ‘백퍼센트’ 라고 말해야 한다.	비표준어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광희	야식 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 ‘아르치다’ 는 ‘가르치다’ 의 잘못이다.	비표준어
SBS 파워FM	영스트리트	광희	어제 얘기한 거랑 틀리잖아요. → ‘틀리잖아요’ 가 아니라 ‘다르잖아요’ 로 표현해야 한다.	비표준어
SBS 파워FM	텐텐클럽	베이지	남자는 약간 좀 무데뽀 같은 느낌이어도 여자를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매력이 있는 거 같아요 → ‘무데뽀’ (無鐵砲)는 일의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므로 ‘막무가내’ 로 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속어
SBS 파워FM	텐텐클럽	김경록	어떻게 보면 밀당이죠 → ‘밀당’ 은 ‘밀고당기기’ 의 은어이므로 ‘밀고당기기’ 로 고쳐 사용하여야 한다.	은어
SBS 파워FM	텐텐클럽	이석훈	‘비가 올거다’ 라고 얘기하면 레인부츠나 이런 거 신으면 참 좋은데 → 외국어 ‘레인부츠’ (rainboots)는 우리말 ‘장화’ 로 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SBS 파워FM	텐텐클럽	이석훈	비가 안 올 줄 알고 플랫폼 슈즈나 이런 거 신고 돌아다니시다가 → 외국어 ‘플랫 슈즈’ (flat shoes)는 우리말 ‘굽낮은 구두’ 로 순화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SBS 파워FM	텐텐클럽	이석훈	라디오 듣고 기분 업 되셨으면 좋겠어요 → 외국어 ‘업’ (up)을 이용한 표현 ‘업되다’ 는 ‘좋아지다’ 로 고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 (5) 시작부터 환장 팀워크 <런닝맨, 자막>
- (6) 손발 오그라드는! <런닝맨, 자막>
- (7) 저 완전 까도남이에요. <런닝맨, 광수>

<김연아의 키스엔크라이, 신동엽>

- (6) 질주 본능 똥샤인 볼트 <1박2일, 자막>
- (7) 졸지에 공식 지진아로 찍힌 현무 <남자의 자격, 자막>
- (8) 전 사실 욕하실 줄 알았거든요 <남자의 자격, 전현무>

(1)은 자신의 이를 때려서 보상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화이다. 치아를 가리켜 ‘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속된 표현이다. (2)에서는 ‘웃음 셔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셔틀’은 최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는 은어인데, 표면적인 의미와는 달리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은어이다. 학교에서 힘이 약한 친구나 후배에게 빵을 사오라고 하거나, 숙제를 해달라고 하면서 ‘빵 셔틀, 숙제 셔틀, 라면 셔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방송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언어 표현을 한 순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큰 문제점을 내포한다. (3)의 ‘찌질한 연기’에서 ‘찌질하다’는 비속어로 흔히 남녀 사이의 ‘못난 짓’에 비하의 의미를 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4)에서의 ‘환장’은 일상생활에서도 비속어로 사용되고 있고, (5)의 ‘노땅’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방송 자막에서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방송 언어로서 매우 부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8)의 ‘손발 오그라들다’, ‘까도남’은 각각 ‘매우 부끄럽다’, ‘까칠한 도시 남자’를 의미하는 은어이다.

(1)은 출연자의 머리가 크다는 것을 놀리기 위해 ‘대갈리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머리의 비속어인 ‘대가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잘못되었지만, 신체적인 조건을 놀림거리로 삼아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2)와 (3)은 모두 출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못 생겼다’라고 말하는 예이다. 특히 (3)은 제작진이 출연자에게 준 문제 해결의 힌트인데, 해당 출연자가 지속적으로 ‘못 생겼다’는 놀림을 출연자들 뿐 아니라 제작진에게서도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4)는 출연자의 차림새가 촌스럽다고 놀리는 예이며, (5)와 (6)은 출연자들의 신체적인 체격 조건을 희화화한 표현이다. (7)에서는 노래 실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가지고 출연자를 ‘공식 지진아’라고 비하한다. 또 이 표현이 ‘찍히다’라는 비속어와 함께 사용되어 부정적인 느낌을 더한다. (8)은 발화자가 상대방의 면전에서 ‘(당신은) 욕을 (함부로) 할 것 같은 이미지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성격을 낮잡아 보며 비하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②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주로 상대방 출연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살이 썩 사람, 얼굴이 못 생긴 사람, 차림새가 촌스러운 사람들을 웃음거리나 놀림거리로 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상파에서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은 외모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며, 그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는 막말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한다.

- (1) 2011 S/S in 밀라노 Milan 베스트 포즈 대갈리니 <무한도전, 자막>
- (2) 진짜 못생겼다 정말 못났다 <무한도전, 유재석>
- (3) 획득 힌트는 검은색 종이 못생김 <런닝맨, 자막>
- (4) 촌스러워가지고 <무한도전, 유재석>
- (5) 아,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 몸이 그따위라구요?

## ③ 반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들이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며 대본 없이 출연자들간의 생생한 상황을 전달하게 되면서 출연자들이 서로 반말을 사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동료이자 개인적인 친구로서 반말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반말의 사용 역시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한다. 방송의 공식적인 상황을 항상 인식하고, 반말을 사용하더라도 서로간의 관계를 잘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

- (1) 야 이번에는 진짜로 해. <무한도전, 하하>
- (2) 뭉지 마, 뭉지 마, 뭉지 말라고. <런닝맨, 김종국>
- (3) 지금 미션 중이라고 우리가? <런닝맨, 유재석>
- (4) 왜 나왔나? 재. <무한도전, 박명수>

(5) 야 너 뭐해? 여기 와 있어.

<남자의 자격, 김태원>

(1)과 (2)의 예는 연장자인 상대방에게 출연자가 반말을 사용하는 예이다. 방송 특성상 반말을 사용하는 것을 아예 규제할 수는 없지만 연장자인 출연자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은 출연자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제작진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예이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마치 시청자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듯 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4)에서는 박명수가 초대 손님 앞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며 ‘재’라고 하고 있다. 이 역시 예외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5) 역시 김태원이 합창 단원들 앞에서 선생님 역할을 하는 출연자에게 ‘너’라고 하며 반말을 하고 있다.

방송 특성상 반말을 사용하는 것을 아예 규제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대화가 반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출연자들이 제작진에게 반말을 건네는 경우가 많았는데, 화면에 등장하지도 않는 제작진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장자인 출연자에게는 반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방송의 공공성을 생각하여 가능하면 높임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④ 외국어, 외래어의 오용 및 남용

방송에서 지나치게 많은 외국어, 외래어가 오용, 남용되고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외국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막에서 외국어와 외래어의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1) 고거만 뎀(theme)으로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이아현>

(2) 완전 뎡큐한 가격이네.

<1박2일, 이승기>

(3) 그럼 게임 셋이잖아.

<1박2일, 이승기>

(4) 쉽없는 트랜지션 안무까지!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5) 딕 슬립중인 부자들

<1박2일, 자막>

(6) 웰 컴 투 청춘합창단

<남자의 자격, 자막>

(7) BRAVA

<남자의 자격, 자막>

(8) 어이~~無~~

<무한도전, 자막>

(9) WOW IQ가 무려 147!

<런닝맨, 자막>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어·외래어가 오·남용 사례는 크게 출연자들이 잘못된 외국어·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자막에서 잘못된 외국어·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3)은 출연자들이 외국어 혹은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1)에서는 ‘테마’를 미국식 발음인 ‘뎀’으로 발화하고 있다. 우선 ‘테마’는 ‘주제’로 순화할 수 있으며, 이를 굳이 외래어로 발음하고 싶으면 ‘테마’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옳바르다. (2)의 ‘뎡큐하다’ 역시 표현 그 자체로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우리말 ‘감사하다’ 혹은 ‘고맙다’로 쉽게 순화할 수 있다. (3)에서 ‘게임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굳이 ‘게임 셋’이라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4)~(9)는 자막에서 잘못된 외국어·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이다. 자막에서는 표기에 있어서 어떤 문자를 사용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6)은 한글을 사용하여 외국어·외래어를 표기하고 있는 예이다. (4)의 경우는 자막이 출연자의 말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출연자가 ‘트랜지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굳이 어려운 외국어 전문 용어를 자막에 등장시켰다. 자막이 발화자들이 외국어·외래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실제로 (2)의 예에서 발화자는 ‘뎡큐한’이라고 발화했지만 자막에서는 ‘감사한’으로 표기하였다.) 위의 경우는 오히려 자막의 역기능이 강조되는 사례이다.

(5)와 (6)은 상황을 설명하는, 혹은 논평하는 자막이다. 외국어나 외래어가 출연자들의 대화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경우와 달리 자막은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것이므로 외국어·외래어 사용 더욱 주의의 기울여야 할 것이다. (5)와 (6)은 모두 한국어와 외국어를 혼용하여 어느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7)~(9)는 외국어 문자가 표기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예이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⑤ 선정적인 표현

예능 프로그램이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에 방송된다는 점에서 선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특정 진행자가 계속하여 선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띄어 그 예를 언급하고자 한다.

(1) 이아현 씨, 참, 손버릇 하고는…….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신동엽>

(2) 요리다가 살짝 웃웃을 벗길래 저는 속으로 ‘어, 이제 맛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제의 미를 보여주셨어요.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신동엽>

(1)에서는 피겨 스케이팅 연기 중에 이아현의 손동작으로 인해 상대방의 바지 단추가 풀리자 진행자가 이를 놀리며 한 말이다. 실수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를 굳이 ‘손버릇’ 운운하며 놀리며 상황을 확대해석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에서 진행자가 ‘옷 벗는 것에 맛 들렸다’고 출연자를 놀리는 것도 출연자의 인격을 비하하며, 선정적인 느낌을 준다.

## 2) 비표준어, 비표준 발음

표준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은 방송 언어 사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잘못된 언어습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 이루어지고,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통해 방송 언어의 품격을 높여야 할 것이다.

(1) 얼굴 겁나 작다.

<무한도전, 정형돈>

(2) 목 기브스 한 것 같아 목 기브스.

<런닝맨, 김종국>

(3) 깨울러서 그래.

<1박2일, 강호동>

(4) 확.. 빈정 상하는 아는 분 4!

<남자의 자격, 자막>

(5) 여름을 제압하듯 부서지는 청량한 물알갱이들

<1박 2일, 자막>

(1)의 ‘겁나’는 ‘매우, 아주’를 의미하는 호남 방언 ‘겁나게’의 준말로 비표준어이므로 방송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의 목 ‘기브스’는 비표준어로 ‘깁스’가 올바른 표현이다. 또한 (3)처럼 출연자가 방언을 사용하면서 특정 발음을 지속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된다. (4)의 ‘빈정 상하다’는 비표준어이며 ‘~하는 ~인(人)’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표현이 아니다. ‘물알갱이’ 역시 비표준어로 ‘알갱이’는 ‘열매나 곡식 따위의 낱알’ 혹은 ‘작고 단단한 물질’로 ‘물’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물방울’이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 3) 부적합 표현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위해 다양한 언어 표현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문법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표기를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적합 표현이 사용된 예들은 특히 자막에서 많이 나타난다.

(1) 쑥스~

<1박 2일, 자막>

(2) 팀원들의 생각도 강희 보스처럼 독특한 생각을...

<런닝맨, 자막>

(3) 시계 보곤 얇은 다리로 후다닥!

<무한도전, 자막>

(4) 아리송 왜 이렇게 한바퀴 돌으라고 그런거야?

<런닝맨, 자막>

(5) 사실 왕코형님도 게스트과 같은 미션을 받고 출발한

<런닝맨, 자막>

(6) 동구발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남자의 자격, 자막>

(7) 궁금 / 어... 근데 왜 나왔대요?

<무한도전, 자막>

조사 대상 프로그램 모두에서 (1)과 같이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만 떼서 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현재 유행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어근만 사용하는 표현은 한국어의 문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2)는 문장의 호응이 부적합한 예이다. 주어 ‘생각도’와 목적어인 ‘생각을’이 호응하지 않는다. ‘팀원들의 생각도 강희 보스처럼 독특함’ 혹은 ‘팀원들도 강희 보스처럼 독특한 생각을’이라고 써야 한다. (3)의 ‘얇은 다리’도 흔히 발견되는 오류인데 ‘가느다란 다리’로 고쳐야 할 것이다. (4)~(7)은 모두 자막의 맞춤법이 잘못된 예이다. (4)의 ‘돌으라고’는 ‘돌라고’, (5)의 ‘게스트과’는 ‘게스트와’로 (6)의 ‘동구발’은 ‘동구뱀’으로, (7)의 ‘나왔대요’는 ‘나왔대요’로 고쳐야 한다.

## [5] 결론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은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주말 예능 프로그램은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시간에 방송되어 시청률이 높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그간 지속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속된 언어, 막말, 잘못된 자막 오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무리한 설정을 하여 상대방을 놀리거나, 상대방에게 막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과도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고 젊은 층의 은어나 유행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러한 표현을 모르는 사람

들을 소외한다.

특히 이들 예능 프로그램에는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진행자, 가수, 코미디언 등 여러 연예인들이 출연하는데, 이들의 언어생활은 청소년층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자 및 출연진들은 예능 프로그램의 언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이 수준 이하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자막이 화면을 좀 더 다채롭게 꾸미고 해당 장면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불러일으킨다는 순기능도 하지만, 현재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오히려 잘못된 언어 사용의 부각하고 있고 자막 자체가 가진 오류도 너무나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출연자들의 언어 사용을 보완해 주고 한층 높은 영상미와 재미에 기여하는, 수준 높은 자막이 사용되는 예능 프로그램을 기대한다.

**붙임 :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오류 1부**

<붙임>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오류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MBC	무한도전	코치	테크닉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전달 사항에 있어서의 이해 능력. → 외국어 '테크닉'(technic)을 우리말 '기술'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정형돈	사실 리액션은 저희가 → '리액션'(reaction)은 우리말 '반응'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코치	모든 것을 리딩해주셔야 하고요 → '리딩(leading)하다'는 우리말 '이끌다'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정형돈	확 비교되게 타이트하게 짚어줘요 → '타이트(tight)하게'는 우리말 '꼭 맞게'로 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정형돈	아저씨 꼭 이렇게 가운데 센터에 앉으셔야 돼요? → '가운데'라는 단어를 앞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굳이 외국어 '센터'(center)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유재석	지금은 적재적소에 멘트를 하지만 그때는 시종일관 했어요 → 외국어 '멘트'(ment)는 우리말 '말'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노홍철	럭키 가이 → '럭키 가이'(lucky guy)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코치)	피니시까지 안 당기잖아요! → 이 문장은 '끝까지 안 당기잖아요!'로 쓰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노홍철)	쿨 → '쿨'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좋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불필요하는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테프콘)	양쪽 사이드 다 익혀놓고 → '사이드'는 '쪽'이라는 의미로 '양쪽 사이드'는 의미가 중복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양쪽 다 익혀놓고'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코치)	파이팅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의지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파이팅인 것 같아요) → 이 문맥에서는 ‘파이팅’을 ‘투지’로 순화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샤이니 보이 → ‘빛나는 소년, 번쩍이는 소년’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정형돈)	인증샷 캡처해라 캡처 → ‘인증샷’은 ‘인증 사진’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유재석	다른 걸 떠나서 너 <u>깔맞춤</u> 진짜 언제까지 할 거야 → ‘깔맞춤’은 ‘색깔맞춤’의 은어이므로 ‘색깔맞춤’으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어
MBC	무한도전	정형돈	얼굴 <u>겹나</u> 작다 → ‘겹나’는 ‘매우, 아주’를 의미하는 호남 방언 ‘겹나게’의 준말로 비표준어이므로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표준어
MBC	무한도전	유재석	<u>12간지</u> 중에 <u>최고 간지</u> <u>소간지</u> → ‘간지’는 ‘느낌’의 의미를 가진 일본어 ‘感,かんじ’인데 순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10간과 12지, 그리고 60간지가 존재하므로, ‘12간지’는 12지의 부적합한 표현이다.	비표준어 부적합 표현
MBC	무한도전	정준하	탄을 <u>아르켜</u> 쥐가지고 → ‘아르켜 주다’는 ‘가르쳐주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비표준어
MBC	무한도전	박명수	<u>웃나</u> 지금? → 일반인 출연자에게 ‘웃나’라는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이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반말
MBC	무한도전	하하	<u>야 이번에는 진짜로 해</u> → 하하가 자신보다 연장자인 출연자를 ‘야’라고 부르며 반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반말
MBC	무한도전	유재석	<u>존스러워가지고</u> → 다른 출연자의 차림새를 보고 ‘존스럽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무한도전	유재석	<u>진짜 못생겼다 정말 못났다</u> → 다른 출연자의 면전에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MBC	무한도전	박명수	<u>왜 나왔나? 재</u> → 출연한 초대 손님에게 반말을 하며 ‘왜 나왔나?’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무한도전	자막	빗속을 <u>뚫으며 스타트!</u> → 외국어 ‘스타트’(start)는 우리말 ‘출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u>꼬우!</u> → 외국어 ‘꼬우’(go)는 우리말 ‘출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u>애절 / 정말 드라마틱하다!</u> → 외국어 ‘드라마틱(dramatic)하다’는 우리말 ‘극적이다’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카메라 꺼지면 급하게 <u>온순 모드</u> → 외국어 ‘모드’(mode)는 컴퓨터 등의 기계 장치에서 ‘특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태’를 이르는 말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u>리액션도 클래식</u> → 외국어 ‘리액션’(reaction)은 ‘반응’으로 ‘클래식’(classic)은 ‘고전’ 혹은 ‘정석’으로 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u>에브리바디 댄스 나우</u> → 한 문장 전체를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 모두 춤춰요’ 정도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u>원츄 앙코르 앙코르</u> → ‘원츄’는 영어 ‘want you’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것으로 원래의 뜻은 ‘너를 원해’이지만 ‘최고다’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u>퀵마우스 점화</u> → ‘퀵마우스’(quick mouth)는 출연자 노홍철의 발화속도가 빠름을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말 표현도 아닐뿐더러, 적절한 영어 표현도 아니므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또한 빠른 입에 불이 붙었다는 ‘점화’ 표현도 속된 표현이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비속어
MBC	무한도전	자막	준하만을 위한 특급 <u>리폼</u> 서비스	불필요한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 외국어 '리폼'(reform)는 우리말 '개량' 혹은 '수선'으로 순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2011 S/S in 밀라노 Milan 베스트 포즈 대갈리니 → '2011 S/S in 밀라노 Milan'은 2011년 봄과 여름을 대비하여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패션쇼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밀라노'라는 도시 이름을 한글로 표기했으므로 굳이 로마자로 다시 표기할 필요는 없다. '베스트 포즈' 역시 '최고의 자세'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갈리니'는 머리의 비속어 '대가리'의 변형된 표현이므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비속어
MBC	무한도전	자막	키밍 순! 여름방학 특집 무한도전 소지섭 리턴즈 8월 중 개봉 → 외국어 '키밍 순'(coming soon)은 영화 등의 광고에서 '개봉박두'의 의미로 쓰인다. 문장 후반에 '8월 중 개봉'이란 표현이 있으니 굳이 '키밍 순'이라는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역전한 팀은 사기 증진 파워 업 → 외국어 '파워 업'(power up)은 우리말 '쑤는 힘' 혹은 '기력 상승'으로 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레디! → '준비!'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버럭 장면 모니터링 중 → '버럭 장면'은 '버럭 화를 내는 장면'이라는 의미이다. '버럭'이 '장면'을 수식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부적합표현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페활량 테스트 끝 → '테스트'는 '검사'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게임룰 썰매를 타고 가다가 안전 존에 멈추면 성공 → '게임룰'은 '게임 규칙', '안전 존'은 '안전 칸'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퍼펙트 스피ن → '완벽한 회전'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MBC	무한도전	자막 (박명수)	연예인 킬러란 소문이 맞나요? → 여기에서 '킬러'는 '어떤 대상과 주로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용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막판 스피트 + 사기 증진 → 사전에는 '스피트'를 '막판 힘내기'로 순화하고 있다. 또 '스피트'의 의미에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스피트'와 '막판'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중복되는 표현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무한도전	자막	간족 이기면×3 → '간족'은 '간족거리다'의 어근으로 어근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부적합표현
MBC	무한도전	자막	옆에서 열심히 웃음 셔틀 → '웃음 셔틀'이라는 표현은 '웃음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은어이다.	은어
MBC	무한도전	자막	옥수수 여기 해달래! → 자신의 이를 때려서 보상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화이다. 치아를 가리켜 '옥수수'라 하는 것은 속된 표현이다.	비속어
MBC	무한도전	자막	어이無 → 한자어를 그대로 자막에 노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김태원	굿. → 외국어 '굿'(good)을 우리말 '좋습니다' 혹은 '좋아요'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김태원	대강 물어가는 건 없습니다. → '물어가다'는 비속어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속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김태원	야! → 다른 출연자인 윤형빈이 못마땅하여 한 말인데, 출연자 사이에서도 이러한 반말 표현은 자제하여야 한다.	반말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이경규	요 분이 너무 커가지고 주위에 다 짜증났어요. → 베이스 성부의 일반인 출연자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자 출연자인 이경규가 이를 못마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농담으로 한 표현이겠지만, 함께 노래를 하기 위해 모인 이상 이러한 표현은 상대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O.T 장소로 <b>고고!</b> → 외국어 '고 고'(go go)는 우리말 '출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리엔테이션'의 줄임말인 O T의 로마자를 노출하고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웰 컴 투 청춘합창단 →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라는 우리말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식 표현 '웰컴 투'(welcome to)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알토파트는 <b>핑크색</b> 티셔츠 → 외국어 '핑크'(pink)는 우리말 '분홍'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b>사이즈</b> 얘기하지 마세요! → 외국어 '사이즈'(size)는 우리말 '치수'로 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b>압튼</b> 두달안에 <b>하모니</b> 를 이루는게 <b>관건</b> → 비표준어 '압튼'은 표준어 '아무튼'으로 고쳐 사용하여야 하며, 구어 표현에서만 사용하는 '계'는 자막에서는 '것'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 외국어 '하모니'(harmony)는 우리말 '화음'으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표준어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b>BRAVA</b> → '브라바'는 공연 등에서 끝부분에 여성 출연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외국어 감탄사이다. 우리말 감탄사도 많은데 굳이 외국어 감탄사를 자막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며,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여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것은 더욱 문제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사장님 <b>포스~</b> / 시청률 제고에 제가 기여하겠습니다! → '포스'는 '기세', '기운', '위업' 등을 뜻하는 유행어로서 여기서는 '위업' 정도로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자녀분들 <b>이거</b> 보시면... 집에서 좀... → 구성원들이 서로 안마를 해주는 장면에 자막을 더한 표현인데, '이거'는 구어 표	비표준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현에서는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자막에서는 반드시 '이것'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다시 <b>수줍</b> ... → '수줍'은 '수줍다'라는 단어를 비정상적으로 절단한 비표준어이므로 '수줍게'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적합 표현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b>동구말</b>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 노래 '과수원길'의 가사를 잘못 표기하였다. '동구밖'이 바른 표기이다.	부적합 표현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예측불허의 <b>터닝포인트</b> 를 만나다 → '터닝포인트'는 우리말 '분기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b>男子</b> 김태원 → 한자가 그대로 자막에 노출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김태원	작곡 <b>테크닉</b> 은 중요하지 않다 → '테크닉'은 '기술'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명 보컬들이 직접 불러준 <b>데모</b> → '데모'는 '시범'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김태원 (자막)	<b>필</b> 이 오더라고 → 이 문맥에서는 '필'을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아카펠라가 최신 <b>합창</b> 의 <b>트렌드</b> → 이 자막은 발화자의 말을 옮겨쓴 것인데, 원래 발화자는 '추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를 굳이 '트렌드'라고 바꿀 필요도 없으며 '추세'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조용히 묻어가려던 <b>1인!</b> → 한자어가 그대로 자막에 노출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 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김태원	<b>야 너 뭐해?</b> 여기 와 있어. → 출연자가 합창 단원 앞에서 선생님 역할을 맡은 다른 출연자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	반말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b>합창 지도자</b> 이자 <b>지뢰</b> 제거반 <b>완구!</b> → 합창 단원들 중 일부를 '지뢰'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b>너무 노땅(?)</b> 취급은 하지마세요..! → '노땅'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낮추어 말하는 비속어이다.	비속어
KBS2	해피선데이	자막	<b>확.. 빈정</b> 상하는 아는 분 4人..!	비표준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남자의 자격)		→ ‘빈정 상하다’ 라는 표현은 표준어가 아니다. 또한 ‘~하는 분 ~人’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아니다.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즐거에 공식 <u>지진아</u> 로 찍힌 현무 → 특정 출연자가 다소 노래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진아’에 비유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모두 초견 가능한 후덜덜 합창 선수들! → 후덜덜은 떠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이다. 최근에는 이 표현이 ‘대단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은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헤영쌤도 눈치 채신 듯! → ‘쌤’은 ‘선생님’의 비표준 발음이다. 특히 자막에서는 이를 ‘임헤영선생님’으로 완전하게 표기해주는 것이 좋겠다.	비표준발음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베이스 찬양 모드 → 이 문맥에서 ‘모드’는 ‘분위기’로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전현무	전 사실 육하실 줄 알았거든요 → 다른 사람의 첫 인상에 대해 이야기 하며 ‘육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지난 번에 <u>프레임</u> 을 저절로 아셨잖아요 → 프레임은 ‘틀’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윤학원	<u>사이즈</u> 갖고 음악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 이 문맥에서 ‘사이즈’는 ‘크기’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	자막	지휘에 있어서 오른손은 박자와 <u>템포</u> 를 → ‘템포’의 뜻이 ‘박자’이다. 잘못된 외국어가 사용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강호동	감독님,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 <u>췌</u> 한 기분은 뭐죠?(자막 :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 <u>췌</u> ~한 기분은 뭐죠?) → ‘췌하다’는 ‘불길하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은어이다. ‘췌한’은 ‘불길한, 불안한’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이승기	제가 만약에 일등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u>패닉</u> 에 휩싸일만한 소원을 한번 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패닉’은 ‘혼란’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3이니까 <u>Go!</u> → 게임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외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6이니까 <u>Jump!</u> → 게임에서 사용하는 외래어·외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u>딥 슬립</u> 중인 부자들 → ‘딥 슬립’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딥 슬립’은 ‘깊이 잠든’과 같이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이승기	완전 <u>뽕큐한</u> 가격이네.(자막 : 다행히 완전히 감사한 가격) → ‘뽕큐한’은 ‘감사한’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이승기	택시비로 20만 원씩 <u>지를</u> 팀이라구요.(자막 : 택시비로 20만 원씩 <u>지를</u> 팀...) → ‘지르다’는 ‘충동적으로 쓰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은어이다. 따라서 ‘지를’은 ‘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효동도 슬쩍 <u>변속모드</u> → ‘모드’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여기에서는 상황에 맞게 ‘변속모드’를 ‘빨리 뺄 기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질주 본능 <u>똥샤인 볼트</u> → ‘똥샤인 볼트’는 달리고 있는 출연자를 지칭한 말로, 살집이 있는 출연자가 빨리 달리는 것을 회화화한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상황 분석 중인 <u>지니어스 윈</u> → ‘지니어스 윈’은 출연자 중 한 명을 지칭하는 별명이다. ‘지니어스’와 같은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강호동	<u>코미디언 아이가?</u> (자막 : 코미디언 아이가?) → 출연자가 방언을 사용하였다.	비표준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강호동	<u>내가 언제 생전 내가 니 뒤통수 치더냐?</u> (자막 : 언제 내가 네 뒤통수 치더냐?) → 출연자가 방언을 사용하였다.	비표준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u>미션</u> 성공을 알리는 것발 발견 → ‘미션’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미션 성공’을 ‘임무 완수’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u>뿌듯</u> → ‘뿌듯’은 ‘뿌듯하다’의 어근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부적합 표현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강호동	<u>কেল্লের</u> 그래.(자막 : 넌 케를러서 안 뽀 거야) → 출연자가 방언을 사용하였다.	비표준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u>여름을 제압하듯 부서지는 청량한 물알갱이들</u> → ‘물알갱이’는 비표준어이다. ‘물방울’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잠자는 <u>컨트롤러</u> 가 날아오고 있다 → ‘컨트롤러’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지배자, 조정자’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오늘은 시작부터 <u>레이스</u> → 외국어 ‘레이스’(race)는 우리말 ‘경주’로 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오늘의 첫 <u>미션</u> → 외국어 ‘미션’(mission)은 ‘임무’ 혹은 ‘과제’로 순화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연습게임 <u>START</u> → ‘출발’ 혹은 ‘시작’이라는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 ‘START’는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자로 표기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u>GAME START</u> → ‘게임 시작’이라는 쉬운 우리말이 있는데, ‘GAME START’는 불필요하게 외국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자로 표기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u>Race Start</u> → ‘경주 시작’이라는 쉬운 우리말이 있으므로 ‘GAME START’라는 외국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로마자로 표기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사실 제작진 <u>ENG</u> 팀 예약 비행기였음 → ‘ENG’는 ‘Electronic News Gathering’의 약자로 전자기기를 통한 뉴스 취재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엔지 카메라’의 절단된 형태로 표기되었는데 시청자의 이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해를 돕기 위해서는 ‘카메라탑’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자막	무섭당 <u>Fighting</u> → 힘을 내자는 의미의 ‘파이팅’을 로마자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나영석 PD	<u>오프닝</u> 이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대한민국 1등 폭포 어디에는 어떤 폭포가 있는지 힌트를 드릴 겁니다 → 방송 현장에서 ‘오프닝’(opening)은 프로그램의 시작부분을 의미하는 말인데, 외국인인 ‘오프닝’보다는 우리말 ‘도입부’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이수근	제주공항에서 <u>렌트</u> 할 수 있어요 이 돈이면 → ‘렌트하다’는 ‘차를 빌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렌트할’을 ‘빌릴’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이승기	지금 당장 <u>라잇 나우</u> 2등과 3등을 은지원과 업태용으로 바꿔주세요 → ‘지금 당장’이란 말을 앞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굳이 외국어 ‘라잇 나우’(right now)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이승기	그럼 <u>게임 셋</u> 이잖아 → 외국어 ‘게임 셋’(game set)보다 ‘게임 끝’이 더욱 쉽고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강호동	그러면 이 <u>타이밍</u> 에는 제주도다 → 외국어 ‘타이밍’(timing)은 우리말 ‘시기’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강호동	이렇게 <u>리얼한</u> 상황이 제일 좋은 게 뭘지 아니? → ‘리얼(real)한’은 우리말 ‘실감나는’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2달 내 <u>메뚜기 사냥</u> (?)을 공언하신... → 고정 출연자인 유재석을 ‘메뚜기’로 칭하여 유재석을 잡는 것을 ‘메뚜기 사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u>광바타 런닝쇼</u> → ‘광바타’는 출연자 이름인 ‘이광수’의 ‘광’과 ‘아바타’의 ‘바타’를 결합시켜 만든 이광수의 별명이다. 이광수가 영화 ‘아바타’에 등장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했던 아파타와 닮았다 하여 붙인 별명이다. 무슨 말이든 축약하여 쓰는 흐름을 반영한 것인데,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러닝(running)'은 '달리기'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응? 갑자기 꽃미남 게스트 찾는 → '꽃미남'은 '꽃처럼 예쁘고 잘 생긴 남자'를 일컫는 말이다. 출연자 송지효가 '잘생긴 남자'라고 말하자 자막에서 '꽃미남 게스트'라고 표현한 것이다.	은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월요미남 강개리췌~ → '강개리 췌'라고 췌야 하는 것을 '강개리췌'라고 표기하였다. 반복하여 이같이 표기하고 있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각 지점에서 기다리는 런닝맨 멤버를 픽업해 한팀이 된다 → '픽업(pick up)'해는 '태워'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여섯 가운데서 골라내다'의 뜻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사용된 의미인 '태우다'의 의미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사실 왕코형님도 게스트과 같은 미션을 받고 출발한 →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조사 '와'를 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는 조사 '과'를 붙인다. '게스트'는 모음으로 끝났으므로 '와'를 결합해야 한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시작부터 환장 팀워크 → '팀워크'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환장 팀워크'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환장'은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 됨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속어이므로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	비속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슬레이트 박수 한번만 쳐주세요 → '촬영 시작을 알리는 표시로 치는 클래퍼 보드'를 '슬레이트(slate)'라고 표현하였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오늘의 미션 MISSION 보스를 지켜라 → '미션'과 'MISSION'을 병기하고 있다. 로마자를 병기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에 부족함	로마자 표기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이 없으므로 로마자를 방송에 노출할 필요가 없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로마자 병기가 다수 나타났다.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손발 오그라드는! → 젊은 층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적 표현인데, 민망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의미이다.	은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쑥스 그래 강희야... → '쑥스'는 '쑥스럽다/쑥스러움'의 일부가 절단된 표현이다. '쑥스'는 어근이 아니므로 '~하다' 동사의 어근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즉, '쑥스'와 '렵다/러움'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분리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부적합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WOW IQ가 무려 147! → '와우' 혹은 '우와'라고 써도 무방한데,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로마자 표기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미션 START! → 'START'는 '시작'으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또한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007이 예능 오면 악당 쫓다가도 빨간불엔 스톱! → '스톱(stop)'은 '정지'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웰컴 투 예능 시동도 당연히 알아서 꺼야 되는데 → '웰컴 투 예능(welcome to 예능)'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 영어식 문장을 만들고 있다. 이는 지양해야 할 표현 방식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지성	드라마 카메라 아웃되면 끝인데! → '카메라 아웃'은 '카메라 시야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촬영 전문 용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아리송 왜 이렇게 한바퀴 돌으라고 그런거야? → '돌다'에 '라고'가 붙을 때는 '으'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숨어서 기다릴 작정! → '숨어서 기다리는 작정!' 혹은 '숨어서 기다릴 작정!'이라고 써야 한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과연 4차원 강희다운 발상! → '4차원'은 '독특하고 엉뚱한 사람'을 가리	은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키는 말로 일종의 은어이다.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기분 UP 아자! 가자 빨리~ → '기분이 좋은 것' 혹은 '기분이 좋아진 것'을 '기분 UP'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획득 힌트는 검은색 종이 못생김 → 제작진들이 출연자 이광수를 묘사하는 힌트로 '못생김'을 제시하였다. 이는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간족 IQ147 yeah~ → 생략해도 무방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보스 아닌 사람 뜯으면 자기가 아웃! → '뜯다'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보스 아닌 사람 이름표 뜯으면'이라고 써야 한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ㅋㅋ 합부로 떼내지 못하는데 → 자음만으로는 음절을 형성하지 못하는 데 자음만 사용하여 소리를 표현하였다. 같은 예가 수차례 나타났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하하	진득하니 앉아있잖냐 → 의도적으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였다. '진득하게 앉아있잖아'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비표준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보스의 이름을 떼어야 승리! 보스 아닌 사람을 떼면 댄 사람이 아웃! OUT! → '이름'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름표'를 떼는 것이다. '보스의 이름표를 떼야 승리! 보스 아닌 사람의 이름표를 떼면 댄 사람이 아웃!'이라고 써야 한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편 보스의 정체가 상대편에 노출! → 여기서 '그렇다'가 나타내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이다. 그런데 '그렇다'는 형용사라서 행위를 나타낼 수 없다. 여기서의 형용사 '그렇다'가 행위를 나타낸 것이 되어 어색하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런닝맨 헌터, 최민수에게 잡힐 때도 딱 이표정 → '헌터(hunter)'는 '사냥꾼'으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RRRRR... →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알파벳 'R'로 표기하였다. '따르르릉'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드디어 Final Mission! 과연 마지막 지령은...? → 'Final Mission'은 '마지막 지령' 혹은 '마지막 미션'으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게다가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바보... 빌딩 위층에 올라갔다고 해도 아래층 상황은 안보임! → 자막에서 출연자 '이광수'를 '바보'라고 칭하였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팀원들의 생각도 강회 보스처럼 독특한 생각을... → '생각도'와 '생각을'이 호응하지 않는다. '팀원들의 생각도 강회 보스처럼 독특' 혹은 '팀원들도 강회 보스처럼 독특한 생각'으로 써야 한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독특한 강회만의 할 수 있었던 바닥 놀기 작전! → '강회'가 주어이므로 조사 '의' 대신 '이'를 사용해야 한다. 즉, '강회만이'로 써야 한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광수보스 vs 하로로! → 두 출연자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항상 로마자를 사용해 'vs'로 표기하였다. '대'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자막	지식진 OUT! → '아웃'으로 표기하는 것이 낫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송지효	진짜 우리 잘생긴 사람 안 나와? →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청자에게 반말을 건네고 있다. 청자는 제작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이 대부분 서로 반말을 주고받고 있는데, 청자가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제작진인 경우나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경우 가능하면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말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지석진	니가 무슨 보스야. → 함께 출연한 출연자 개리가 팀의 보스로 선정되자 개리가 보스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상대를 깎아 내려 인격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비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김종국	이거 너무 센 거 같애 그리고요. → 지령 수행을 실패했을 때 출연자의 얼굴에 쓰는 바람의 세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인데, 반말이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제작진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말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이광수	멘트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기다’ → ‘멘트(ment)’는 ‘announcement’의 절단형으로 추정된다. 여기서는 ‘대사’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비표준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김종국	뭉지 마, 뭉지 마, 뭉지 말라고. → 연장자인 유재석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해체’ 명령형을 사용하여 매우 위압적이다.	반말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김종국	목 <u>기브스</u> 한 것 같아 목 <u>기브스</u> . → ‘석고붕대’는 ‘깁스’라고 표현해야 한다. ‘기브스’는 비표준어이다.	비표준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개리	누가 못생겼는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 유재석과 이광수가 모두 못생겨서 누가 더 못생겼는지 가리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유재석	지금 미션 중이라고 우리가? → 제작진에게 반말을 건네고 있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제작진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말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최강희	<u>언어결렸네</u> . → ‘언어결리다’는 ‘어쩌다가 우연히 누군가의 것이 되는 것’을 속되게 일컫은 것이다. ‘운 좋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낫다.	비속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지성	중국이를 사적인 자리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방송을 찍으면서 딱 보니까 어우 <u>포스</u> 가 아까 숨어있다 삭 나타나는데. → ‘포스’는 ‘어떤 사람에게서 풍기는 기운이나 분위기, 인상’을 의미하는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이광수	저 완전 <u>까도남</u> 이에요. → ‘까도남’은 ‘까칠한 도시 남자’의 약어로, 은어이다.	은어
SBS	일요일이 좋다 (런닝맨)	개리	아 지금 숨어있는데 여기서 찍고 그러면 <u>어떡해</u> → 자신을 촬영중인 촬영 기사에게 반말을 건네고 있다. 방송 중에 제작진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반말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자막	앞으로 2주 후면/키엔크 시즌 <u>파이널</u> → ‘파이널’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결승전’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자막	선택한 <u>OST</u> 는? → ‘OST’는 ‘Original Sound Track’의 약자로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로마자로 표기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영화 주제가’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이아현	사람들께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영화를 찾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영화는 타이타닉이에요. → ‘어필하다’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사람들께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쉽게 끌 수 있는’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이아현	고거만 <u>떨</u> (theme)으로 삼아서 만들었습니다. → ‘땀’은 ‘주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자막	이아현&김현철 → ‘&’와 같은 외국어 기호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쉼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자막	필수과제/ <u>스로우</u> 살코 점프 → ‘스로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스로’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자막	<u>크크크</u> → 웃음소리를 자음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신동엽	이아현 씨, 참, 손버릇 하고는……(자막 : 손버릇 하고는!) → 리프트 연기 중 이아현의 손동작으로 인해 파트너의 바지 단추가 풀리자 진행자가 이를 놀리며 한 말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키스 앤 크라이)	자막	김현철 씨 바지가 <u>풀려져서요</u> → 어간 ‘풀-’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풀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풀려져서요’는 ‘풀어져서요’ 또는 ‘풀러서요’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김연아	스피드감이 확실히 지난번의 공연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 '스피드감'은 '속도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방상아	그리고 두 분의 <u>하모니</u> 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하모니'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조화'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비주얼 커플! → '비주얼'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비주얼 커플'은 문맥상 '잘생긴 커플'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유노운호	그 광선 검이 저희의 <u>포인트</u> 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큰 몫을 차지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 '포인트'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강조점'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신동엽	겸손하고 예의바르면서도 끝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났더라는 걸 끝까지 조곤조곤조곤..... → 출연자가 힘든 기술을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 해봤다고 말하자 잘난 척을 한다고 빈정거리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u>간죽</u> /자신이 얼마나 잘났다는 걸 조곤조곤.. → '간죽'은 '간죽거리다'의 어근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또한 진행자에 대해 간죽거리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김연아	지난 공연들은 갈라 프로그램 같았다면 오늘은 정말 스케이팅 스킬이 돋보이는, 시합, 경기용 프로그램 같았어요.(자막 : 지난 프로그램들은 갈라 공연 같았다면 오늘은 경기용 프로그램 같았어요) → '스킬'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스킬'은 '기술'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리허설 끝내고 간식 타임 → '타임'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므로 '시간'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자막	커플 <u>쓰리턴</u>	부적합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 '쓰리턴'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스리턴'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살짝 늦은 <u>엔딩</u> 동작 → '엔딩'은 '마지막'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고성희	저는 사실은 지난주에는 굉장히 <u>퍼포먼스</u> 적인 <u>거</u> 에 많이 치중을 하시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못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스케이팅 자체를 많이 보여주신 거 이번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 '퍼포먼스'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퍼포먼스적인 거'는 '연기'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김병만	타잔에서 예, <u>코믹적</u> 으로 갔던 게 조금 너무 그, 스케이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애드립성으로 그걸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해리포터를 하지만 좀 더 진지하게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기술들을 최대한 많이, 어, 성의껏 해보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 '코믹적'은 적확하지 않은 어휘이다. '코믹적으로'는 '익살스럽게'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애드립'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애드립성으로'는 '즉흥적으로'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김도환	좀 <u>코미디</u> 스럽게 이번에 작품을 짜가지구.....(자막 : 코미디스럽게 작품을 짜서) → '코미디스럽다'는 비표준어이다. '코미디스럽게'는 '익살스럽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김연아	그동안은 박준금 선생님의 연기력이 항상 돋보였는데 오늘은 좀 역으로 김도환 선수의 연기가, 약간은 좀 <u>찌질</u> 한 연기가, 표정과 그런 게 정말 돋보였던 것 같아요. (자막 : <u>찌질</u> (?)한 연기가!) → '찌질하다'는 '못나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은어이다. 따라서 '찌질한 연기'는 '못난 사람 연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u>출쌩</u> ~ <u>출쌩</u> ~	인격을 비하하는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키스&크라이)		→ ‘출씩’은 ‘출씩거리다’의 어근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출연자의 춤 동작에 대해 출씩거리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표현/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미방송 스페셜 영상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페셜’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스페셜 영상’은 ‘특별 영상’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8/식스팩+2/에이트팩 복근 공개! → ‘식스팩, 에이트팩’은 모두 복근을 가리키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4차대회 PROGRAM/영화 ‘친구’에 도전! → ‘PROGRAM’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은 부적절하다. ‘프로그램’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피날레 머리 뺨똥! → ‘뺨똥’은 머리에 생긴 흠집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비속어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속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신동엽	아,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대부분 몸이 <u>그따위</u> 라고요?(자막 : 짜증/몸이 그따위라고요?) → 사람의 몸에 대해 ‘그따위’라고 표현하는 부적절하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쓱쓱~ → ‘쓱쓱’은 ‘쓱쓱하다’의 어근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신동엽	요러다가 살짝 웃웃을 벗길래 저는 속으로 ‘어, 이제 <u>맛</u>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제의 미를 보여주셨어요.(자막 : 신동엽/이제 맛 들렸구나~) → 출연자에게 웃 벗는 것에 맛 들렸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고성희/쉽없는 <u>트랜지션</u> 안무까지! → 발화자가 ‘트랜지션’이라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막에서는 이를 외국어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트랜지션’은 ‘변화, 변형’으로 순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출연자	내 용	오류 유형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u>흐뭇</u> ~ → ‘흐뭇’은 ‘흐뭇하다’의 어근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유재석 <u>도플갱어</u> 김도환의 메뚜기 춤까지~ → ‘도플갱어’는 똑같이 생긴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유재석 도플갱어’는 ‘유재석과 똑같은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그들의 <u>급</u> 결성은 다음주에도? → ‘급 결성’은 ‘갑작스런 결성’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은어이다.	은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크리스탈	동훈 오빠가 ‘캐리비안의 해적’의 <u>왕팬</u> 이에요. → ‘왕팬’은 ‘대단한 팬’이라는 뜻의 은어이다.	은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정통/ <u>아이스</u> 댄스’ 적인 무대로 도전! → ‘아이스 댄스적’과 같은 어휘는 없다. ‘아이스 댄스적인’은 ‘아이스 댄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믿음직/내가 <u>맞출</u> 게! → ‘믿음직’은 ‘믿음직하다’의 어근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u>듬직</u> /응! → ‘듬직’은 ‘듬직하다’의 어근이므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부적합 표현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이동훈	잭 스페로우에 <u>빙</u> 의하겠어.(자막 : 잭 스페로우에 <u>빙</u> 의하겠어!) → ‘빙의’는 원래 ‘다른 것에 몸이나 마음을 기댈, 영혼이 옮겨 붙음’이라는 뜻의 어휘인데, ‘동화하다’와 유사한 의미의 은어로 사용되었다.	은어
SBS	일요일이 좋다 (김연아의 키스&크라이)	자막	<u>쑥스</u> ~ → ‘쑥스’는 ‘쑥스럽다’의 ‘ړ다’를 생략한 것이다. 단어의 일부를 절단하여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월간 보고서: 9월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매년 명절 연휴에는 방송 3사 모두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대표적인 것이 독 특한 주제의 일회성 오락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적 영향력 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명절 특집 오락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언어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명절 특집 오락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면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연예인은 일약 인기 대열에 오르게 되고, 일회성 프로그램이었던 특집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MBC에서 방영 중인 <우리 결혼했어요>와 SBS의 <스타 주니어쇼 붕어빵>, <짱>도 각각 2008년 설 특집, 2009년 설 특집, 2011년 신년 특집 프로그램이었는데 화제가 되자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방송사들도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정규 프로그램 편성을 위한 시험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 MBC의 <아이돌스타 육상/수영 선수권대회> 같은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은데, 프로그램의 성격상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이 불가능하자 같은 프로그램을 매명절마다 편성하여 제작, 방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명절 특집 오락 프로그램은 이후의 방송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명절 연휴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들은 온가족이 모여 함께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 말은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들에게 골고루 노출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명절 특집 오락 프로그램은 좋은 내용, 품격 있는 언어 표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방송 3사의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그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저품격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향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2] 조사 대상**

채널	프로그램명	진행자/출연자	방송일시
KBS 2TV	맑은 풀 스타 총출동 - 나는 가짜다	전현무, 현영/ 유현상, 조형기, 장영란, 김태훈	2011. 9. 12(월) 10:00-11:10
	코미디 한일전	전현무, 이봉원/ 김준호, 김병만, 김재욱, 김원효 등	2011. 9. 12(월) 19:25-20:50
MBC	아나운서 대격돌 최고의 머느릿감을 찾아라	김용만, 최현정/ 김초롱, 이진, 양승은, 강다솜, 김대호, 오승훈, 김지은, 하지은, 김완태, 전원주, 상추, 장영란, 이정섭, 이하경, 김현철, 나경은	2011. 9. 12(월) 11:10-12:40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오상진, 김제동, 윤여춘	2011. 9. 13(화) 17:20-20:15
SBS	스타커플 최강전	이석훈/ 김경록, 베이지, 유발이	2011. 9. 12(월) 18:00-20:00
	한류 올림픽	최기환, 붐, 조혜련, 이특/ 신동, 수지, 창민, 채연, 정주리, 태진아 등 다수	2011. 9. 13(화) 18:00-20:00

**[3] 분석 항목**

**1) 저품격 표현**

- 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 ② 비속어와 은어
- ③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sup>7)8)</sup>

**2) 비표준어<sup>9)</sup>**

**3) 부적합 표현**

**[4]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분석**

**1) 저품격 표현**

- 7)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 가운데,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등재되어 있어도 순화할 것을 권장하는 말을 의미한다.
- 8)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자막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로마자나 한자를 쓸 수 있지만 그 경우,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로마자나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로마자나 한자 자막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로마자나 한자를 사용하여 표기한 자막을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한 자막으로 보고 함께 지적한다.
- 9) 국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자막도 비표준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해 함께 지적한다.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저품격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와 은어, 불필요한 외래어 및 외국어가 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들에서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사용과 은어 사용이 두드러졌다.

### ①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것은 ‘개인의 외모나 성격, 지능에 대하여 비난 혹은 조롱하는 표현’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이다.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은 프로그램의 성격 상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경우 더 많이 드러났다. 혹은 진행자와 출연자가 친밀한 관계인 경우 상대의 외모나 성격을 들어 조롱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려 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 (1) 아, 일단 말이죠, 저희 얼마 친구 중에 저렇게 생긴 분이 있거든요.  
<코미디 한일전, 전현무>
- (2) 우리 나경은 아나운서 보니까 유제석 꼬실 만 해.  
<아나운서 대격돌, 전원주>
- (3) 체급은 뭐 거의 얼추 비슷해요. 배 나온 정도도 비슷하고 머리 크기도 똑같잖아요. 둘이.  
<아나운서 대격돌, 김용만>
- (4) 결승점에서 애타게 손 흔드는 애완건(?) 소리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자막>
- (5) ‘비호감 3인방’ 등극  
<한류 올림픽, 자막>
- (6) 그게 넣은 거예요?  
<스타커플 최강전, 지나>
- (7) 근태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스타커플 최강전, 장윤정>

(1~7)은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의 대표적인 예이다. (1)은 <코미디 한일전>에서 진행자인 전현무 아나운서가 여장을 하고 나온 일본인 남자 코미디언에게 한 말이다.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하여 한 말이기 때문에 인격을 비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3)은 <아나운서 대격돌>에 드러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2)는 출연자인 전원주 씨가 또 다른 출연자인 나경은 아나운서에게 매력이 있다는 것을 칭찬하려고 한 말이다. 그런데 ‘유혹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비속어 ‘꼬시다’를 사용하여 나경은 아나운서가 남편인 유제석 씨를 유혹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표현되었다. 이는 나경은 아나운서의 인격을 비하한 것이다. (3)은 진행자인 김용만 씨가 출연자인 김완태 아나운서와 김현철 씨의 외모를 두고 한 말인데, 둘 모두 멋진 외모가 아

나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의미이다. 이는 출연자의 인격을 비하한 발언이다.

(4)는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의 자막에서 드러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결승점에서 응원하고 있는 동료 출연자 ‘소리’를 두고 ‘애완견’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을 개로 비유하여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람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는 <한류 올림픽>의 자막에 나타난 표현이다. ‘비호감’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인데 출연자를 두고 자막에서 ‘비호감 3인방’이라고 칭했다. 이는 출연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서 진행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청취자에게 ‘십 년이 지나면 청취자가 원하는 이성을 만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청취자의 인격을 비하한 것이다. 적극적인 비하의 발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6~7)은 <스타커플 최강전>에 등장한 비하하는 표현이다. (6)은 출연자인 지나 씨가 다른 출연자의 키가 작다는 것을 놀리며 한 말이다. ‘신발 안에 깔창을 넣었는데도 키가 그렇게 작냐’라는 의미이다. 이는 타고난 외모적 약점을 비하한 표현이므로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표현이다. (7)은 진행자인 장윤정 씨가 출연자에게 한 말이다. 출연자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진행자의 언어나 자막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끌고 나가는 진행자는 일반 출연자들 보다 언어 사용 면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전에 검열이 가능한 자막의 경우에도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명절의 쉬는 시간, 온가족이 모여 텔레비전을 보다가 서로를 비하하는 표현이 난무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얼굴을 찡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② 비속어·은어

비속어·은어는 방송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저품격 언어의 대표적인 예이다. 비속어는 공공성을 가지는 방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속된 표현과 대상을 비하하는 표현을 일컫고, 은어는 특정 사용 계층만이 즐겨 사용하여 모든 시청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원만한 시청을 방해한다. 게다가 방송의 영향력 때문에 방송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은 시청자들에 의해 재생산이 가능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1) 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시에미 밥은 맥어 놓고 자빠져 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아유 꼴 때려.

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저렇게 잠만 꺼 자고 있으니.

<아나운서 대격돌, 전원주>

(1)은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비속어의 예인데, 모두 <아나운서 대격돌>에서 나타난 예이다. ‘야근을 하고 들어온 아나운서 며느리가 아침밥을 하지 않고 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라는 설정인데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속된 표현들이 다수 사용되었다. (1ㄱ, ㄴ)에서는 며느리가 자는 것을 ‘자빠져 자다, 퍼 자다’라고 표현했고, (1ㄴ)에서는 ‘며느리의 행동이 못 말린다’, ‘며느리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의미로 ‘골 때리다’를 사용했다. 이 표현들은 모두 공적인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표현들이다.

- (2) ㄱ. 싱크로율 100% <코미디 한일전, 자막>
- ㄴ. 소녀시대 싱크로율 100%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 ㄷ 싱크로율 100% GG & 박봄! <한류 올림픽, 자막>
- (3) 깨알 같은 코믹연기까지~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 (4) 여자보다 유연하다! 유연종결자! <한류 올림픽, 자막>
- (5) ㄱ. 사실 2AM은 조권 씨의 깡권춤이잖아요. 깡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한류 올림픽, 조혜련>
- ㄴ. ZE:A 광희는 특유의 깡댄스로 승화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2~5)는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 등장한 은어의 예이다. (2)의 ‘싱크로율’은 ‘synchro’와 ‘率’을 결합해 만든 은어로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는 말이다. ‘싱크로’는 ‘기계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두 개의 축을 동기적(同期的)으로 회전시키는 전기 장치’를 일컫는 말이고, ‘동시 작동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synchro’의 원래 뜻을 고려해도 ‘싱크로율’은 의미가 투명하지 않다. 즉, 이 말을 많이 들어 본 사람 외에는 알기 어려운 은어이다. 그런데 ‘싱크로율’은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여섯 편의 프로그램 중 세 개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다. 방송이 이러한 은어의 사용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의 ‘깨알 같다’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 표현 역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은어이다.

(4)의 ‘유연종결자’는 ‘~종결자’라는 은어적 표현을 활용한 예이다. 여기서의 ‘~종결자’는 ‘이후에 이 사람보다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나올 수 없을 만큼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 또한 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있을 수 있는 은어이다.

(5)의 ‘깡권춤’, ‘깡’, ‘깡댄스’의 ‘깡’은 ‘깡죽거리는/깡죽대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깡권춤’은 2AM이라는 그룹의 ‘조권 씨가 추는 방정맞아 보이는 춤’을 가리키는 말이고, ‘깡댄스’ 역시 ‘방정맞아서 깡죽거리는 것 같은 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은어를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표현 역시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다.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는 비속어 사용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반면 젊은 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신언어, 유행어 같은 은어는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은어가 발견된 것은 진행자나 출연자의 말이 아니라 자막에서이다. 이는 제작진들의 방송언어 관련 의식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방송에서 은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③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여타 오락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이었다. 점점 외래어·외국어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송에서 어느 정도의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외래어·외국어 대신 우리말을 살려 쓰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막에서 외래어·외국어가 등장하는 경우 로마자나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영어나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시청을 방해하는 자막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1) 일본 선수들 어웨이 경기하느라 <코미디 한일전, 자막>
- (2) 화난 새 게임..Made in Finland <코미디 한일전, 자막>
- (3) 브이씨알로 공개해드릴게요 <답은 꿀 스타 총출동, 현영>
- (4) 다산 Come on~ Don't be shy~ <아나운서 대격돌, 상추>
- (5) 결국... 심판과 Mouth to Mouth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 (6) 역대 최고의 스케일!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자막>
- (7) 레즈 고 <한류 올림픽, 봄>

(1~7)은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의 예이다. 모두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들이므로 방송에서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1)은 영어 부사인 ‘어웨이(away)’를 사용한 예이다. ‘어웨이 경기’는 ‘자신의 출신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경기’라는 의미이다. ‘원정 경기’라는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2)의 ‘Made in Finland’는 불필요한 외국어일 뿐만 아니라 로마자로 표기된 자막이다. ‘핀란드산’이라는 뜻인데, 외국인 출연자가 자신의 모국인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게임이 개그 소재로 사용되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등장했다. 말하는 사람은 영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자막에서는 이를 영어로 바꾸어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3)의 ‘브이씨알(VCR)’은 ‘Video Cassette Recorder’의 약어로 외국어이다. 여기서 사실 ‘비디오 카세트 녹화기’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녹화된 ‘영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즉, 정확한 사용이 아니다. ‘영상으로 공개해 드릴게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4)의 ‘Come on~ Don't be shy~’는 외국에서 살다 온 상추 씨가 습관적으로 내뱉은 영어 문장들이다. 백락상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의미인데, 꼭 필요한 표현들은 아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해도 방송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표현들은 자막에서 그대로 로마자로 표기되어 노출되었다. 외국어를 단어 차원에서 차용하는 것을 넘어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5)의 ‘Mouth to Mouth’는 ‘입맞춤’을 의미한다. 이 또한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외국어이며 로마자로 표기된 자막이다.

(6)의 ‘스케일(scale)’은 ‘규모’로 순화 가능한 외래어이다. 여기서는 ‘최고의’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규모’는 ‘최대의’라는 수식어와 더 잘 어울린다. 외래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말을 사용했다면 이러한 실수 또한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외래어를 사용하여 표현상의 오류까지 발생한 것이다. 무분별하게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말로 표현해 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

(7)의 ‘레츠 고(Let's go)’는 영어 문장을 그대로 차용해 표현한 예이다.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진행자가 외친 것인데, ‘시작, 출발’ 등으로 순화하는 것이 좋겠다.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외래어·외국어를 보면 방송에서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것과 로마자로 자막을 표기하는 것이 너무 당연시되어 있는 듯하다. 방송에서 외래어·외국어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할 때 부가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로마자 자막도 병기하는 방식으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엉터리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 2) 비표준어

비표준어는 표준어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사용한 잘못된 표현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표기법에 어긋난 자막도 함께 다루었다.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에서 비표준어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방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방송에서는 가능하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대표적인 예들을 지적해 둔다.<sup>10)</sup>

- (1) 아, 일본 코미디, 한국 코미디,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도 상당히 심하지만, 일단 말이 틀려요. <코미디 한일전, 이봉원>
- (2) 정말 전문 댄서적인 이 분 정말 전문 댄서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춤 실력을 보여줬고 또 표정도 굉장히 좋았어요. <아나운서 대격돌, 상추>
- (3)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10)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연기를 위한 설정으로 사투리를 사용한 경우는 지적하지 않았으며, 일본인이 사용한 어색한 한국어는 지적하지 않았다.

(1)의 예에서는 ‘틀려요’가 잘못되었다. ‘한국 코미디와 일본 코미디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같지 않다’는 의미의 ‘달라요’로 고쳐야 한다. (2)의 ‘댄서적인’은 ‘댄서 같은/무용수 같은’의 의미이다. 외래어인 ‘댄서’와 접미사 ‘-적(的)’을 결합시켜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3)의 ‘맞춰보세요’는 이는 ‘맞추다’와 ‘맞히다’의 의미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생긴 오류이다.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 ‘맞다’의 사동사는 ‘맞히다’이므로 ‘맞혀보세요’라고 써야 한다.

## 3) 부적합 표현

본고에서는 ‘부적합 표현’을 ‘높임말 표현을 잘못 사용 했거나, 문장이 이상해 의미가 불분명하고 어색한 표현’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1) 김병만이 썼어요. <코미디 한일전, 전현무>
- (2) 위에다 그냥 없어. 그냥 없어. <아나운서 대격돌, 김현철>
- (3) 요 친구가 뒤에 몰래 와서 “제 꿈이 가순데 우리 그 미스에이 누나들과 함께 합동무대 하는 게 꿈이에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류 올림픽, 봄>
- (4) 좋아요? 엠시로서 진단을 해야 하나까 <스타커플 최강전, 장윤정>

(1)은 진행자인 전현무 씨가 출연자인 김병만 씨를 존대하지 않고 이름으로만 부른 예이다. 김병만 씨는 전현무 아나운서보다 나이도 많으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잘못이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 표현해야 한다. 즉, ‘김병만 씨가 썼어요’라고 말해야 한다.

(2)는 출연자 김현철 씨가 함께 출연한 김초롱 아나운서에게 반말을 한 예이다. 김현철 씨와 김초롱 씨는 그리 친밀한 관계가 아니므로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공식적인 방송에서는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은 진행자인 봄 씨가 일반인 출연자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 출연자들이 여성이었음에도 인용문 안에 ‘미스에이 누나들’이라고 자신의 입장에서 표현했다. 이렇게 되면 맥락을 모르는 시청자들은 출연자들의 성별을 혼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스에이 언니들’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4)는 진행자인 장윤정 씨가 남자 출연자의 근육을 만지면서 한 말이다. 그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호하며 방송에서 하기에 적절한 말은 아니다.

[5] 결론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추석 연휴의 아침 식사 시간과 점심 식사 시간 사이 혹은 저녁 식사 시간 전후에 편성되어 있다. 이 시간대는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대이므로 온가족이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대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은 모든 세대가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은 품격 있는 표현들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추석 특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어린 아이부터 집안의 어르신들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은어’, ‘외래어·외국어’가 허다하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적어도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라면 세대간의 통합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S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아나운서도 진행자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전문 진행자가 진행을 하게 되면 비교적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프로그램의 언어적 품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시청자들 또한 아나운서들은 바른 말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아나운서들 역시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언어적으로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였다. 아나운서들은 본인의 언어적 습관이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락 프로그램에서라고 할지라도 바른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한 번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아야 하는 특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소 자극적인 소재, 과장된 표현들을 채택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즐거움만이 오락 프로그램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좋은 내용, 바른 표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붙임 :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오류 1부

<붙임>

추석 특집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오류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KBS2	코미디 한일전	이봉원 전현무	이봉원 : 아, 어쩌다 저 선수가 주장이 됐죠? 전현무 : 벌써부터 김이 새는데요. → 코미디언 김준호가 한국 대표팀 주장이라고 소개하며 ‘김준호가 주장이 되어 김이 샌다’ 고 말해 김준호를 비하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코미디 한일전	아사모토 미카	한국 여자들, 일본 여자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 말 한 마디면 한방에 풀려요. “오빠가 뺨 사줄게, 명품으로.” → 코미디의 일부이기는 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코미디 한일전	전현무	아, 일단 말이죠, 저희 엄마 친구 중에 저렇게 생긴 분이 있거든요. → 여장을 한 일본 남자 코미디언에게 한 말이다. 출연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용만	이하정 아나운서가 별명이 그 각목이란 얘길 들었거든요. → 이하정 아나운서가 몸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두고 조롱하듯 한 말이다. 방송에서 상대의 타고난 약점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최현정	많은 분들이 이하정 아나운서의 그 각목 모습에 인상적이어서 그 히슬덴스를 다시 한 번 볼 수 없느냐. → 많은 분들이 이하정 아나운서의 춤추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그 히슬덴스를 다시 한 번 볼 수 없느냐. 이하정 아나운서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두고 조롱하듯 말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와 어미를 잘못 사용하여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부적합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전원주	우리 나경은 아나운서 보니까 유제석 꼬실 만 해. → 우리 나경은 아나운서 보니까 유제석 씨 유혹할 만 해./ 우리 나경은 아나운서 보니까 유제석 씨가 넘어올 만 해. ‘꼬시다’ 는 ‘유혹하다’ 를 속되게 일컫는 말인데, 나경은 아나운서가 유제석과 결혼하게 된 것을 두고 ‘나경은 아나운서가 유제석 씨를 꼬셨기 때문’ 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경은 아나운서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다. 또한 나경은 아나운서의 남편인 ‘유제석 씨’ 를 ‘유제석’ 이라고 일컫는 것은 방송 상 적절하지 못하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속어/ 부적합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장영란	근데 솔직히 표정 너무 좋았고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고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과격했어요. 귀여운 척이. → 이진 아나운서의 장기자랑을 보고 ‘귀여운 척’ 을 해 부담스럽고 안스럽다고 말해 이진 아나운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의 인격을 비하하고 있다.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장영란	너무 예쁜 척을 한 것 같아요. → 이진 아나운서에게 예쁜 척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진 아나운서의 행동을 비하한 것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용만	본인 마우스(mouse) 관리나 잘 해요. → 진행자인 김용만 씨가 출연자인 김현철 씨를 핀잔 하듯이 말하고 있다. 또한 김현철 씨가 사용한 불필요한 외국어를 ‘마우스’ 를 그대로 따라 사용하였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용만	체급은 뭐 거의 얼추 비슷해요. 배 나온 정도도 비슷하고 머리 크기도 똑같잖아요, 둘이. → 김완태 아나운서와 김현철의 외모가 멋지지 않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하며 비하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용만	아나운서 중에서는 뽀기 힘든 그런 두뇌 둘레 아니겠습니까? → ‘두뇌’ 는 ‘뇌(腦)’ 를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여기서는 ‘두뇌 둘레’ 가 아니라 ‘머리 둘레’ 라고 써야 한다. 또한 아나운서 중에서 머리가 크다고 말하며 상대의 외모를 비하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부적합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장영란	좋겠다 진짜. 좋겠다 한 것도 없는데. → 김현철 씨가 최고의 코치상을 받아 김현철 씨가 프로그램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김현철 씨를 비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헤벌레~ → 김용만 씨가 이하정, 양승은 아나운서의 춤을 쳐다보는 장면에서 ‘헤벌레’ 라는 자막을 노출하였다. 김용만 씨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댄스계의 이단아 각목 이하정 선생의 허슬 댄스 → 이하정 아나운서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각목’ 으로 표현해 조롱하고 있다. 또한 ‘선생’ 이라는 칭호를 붙여 오히려 상대를 비웃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전원주	살림을 어떻게 개떡같이 하면은. → 머느리로 설정되어 있는 아나운서에게 한 말이다. ‘개떡’ 은 ‘못생기거나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인데 머느리가 꾸리는 살림을 ‘개떡같다’ 고 표현했으므로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목이 짧아 자세가 안 나오는 슬픈 현실... → 김현철 씨의 신체적 특징을 들어 조롱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자막	결승전에서 애타게 손 흔드는 애완전(?) 소리 → 결승전에서 응원하는 같은 팀 동료 출연자 ‘소리’ 를 개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자제하여야 한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SBS	한류 올림픽	자막	‘비호감 3인방’ 등극 → ‘비호감’ 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이러한 표현을 출연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출연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 된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창민	저희 그림 리콜하겠습다. 내년 주석 때 애들 좀 가르쳐가지구 좀 팬찮게..... → ‘리콜’ 은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 생산 기업에서 그 상품을 회수하여 점검·교환·수리하여 주는 것’ 이다. 따라서 출연자에 대하여 ‘리콜하겠습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출연자를 물건 취급하는 것이 된다. 즉, 출연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일반인 출연자를 ‘애들’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부적합 표현
SBS	한류 올림픽	조혜련	이번에는 탑스타들로만 구성된 초절정 꽃미남 종합선물세트입니다. → ‘탑스타’ 는 ‘톱스타’ 의 잘못된이다. ‘초절정 꽃미남’ 은 ‘가장 잘생긴 남자’ 를 가리키는 은어이다. 또한 사람에 대해 ‘종합선물세트’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은어/ 비표준어
SBS	한류 올림픽	봄	붙여줘, 안경을 본드도 평생. → 연예인을 닮아서 출연한 일반인 출연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면 안 닮은 것 같이 보인다며 안경을 얼굴에 붙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연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막으로도 ‘장난/선글라스를 얼굴에 평생 붙여주세요!’ 와 같이 표현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스타커플 최강전	김나영	애한테 무슨 걸 기대하신 거예요? → 다른 출연자를 ‘애’ 라고 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다른 출연자를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이다. ‘무슨 걸’ 도 ‘어떤 걸’ 혹은 ‘무엇을’ 로 고쳐 써야 하는 비표준어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비표준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허경환	기광씨도 어지간히 작나봐요. →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들어 놀리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스타커플 최강전	지나	생각보다 너무 키가 작으셔서요. → 상대방 출연자의 신체적 약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스타커플 최강전	지나	그게 넣은 거예요? → 상대방 출연자가 ‘깎창’ 을 넣었다고 하자 ‘깎창을 넣은 줄 몰랐다’ 라는 의미이다. 상대방의 신체적 약점을 비하하고 있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스타커플 최강전	이수근	정말 춤은 아니시네요. → 출연자의 장기자랑을 보고 난 후 춤을 못 춘다는 의미로 한 말이다. 열심히 준비한 출연자의 노력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을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장윤정	근데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 다른 출연자에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 는 것은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SBS	스타커플 최강전	허경환	회의 할 때 오나미 씨 박지선 씨와 하다가 누가와도 상관없다 → '오나미, 박지선' 같은 사람들과 매일 회의를 하니, 어떤 출연자가 와도 좋다는 의미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자도 아닌 오나미, 박지선의 외모 를 비하한 표현이다.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싱크로율 100% → 100% 일치. 일치도/정확도 100% '싱크로율'은 '일치하는 정도' 를 가리키는 은 어이다. 방송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은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김태훈	두 분 다 이렇게 <u>이미테이션</u> 가수로 활동하시는 것을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 → 두 분 다 이렇게 <u>맑은 풀</u> 가수로 활동하시는 것을 ... '이미테이션 스타'는 '맑은 풀 가수' 를 의미 하는 은어이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이므로 우리말 '맑은 풀 가수' 로 바 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은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오승훈	엠비시 스포츠 <u>훈남</u>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 '훈남'은 '훈훈한 남자' 의 약어이다. '보면 마음이 훈훈해 질 만큼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 자' 를 일컫는 은어이다.	은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u>애교 작렬</u> → '작렬(炸裂)'은 '포탄 따위가 터져서 썩 퍼짐, 박수 소리나 운동 경기에서의 공격 따위가 포탄 이 터지듯 극렬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 로 이르는 말' 로 정의된다. 그런데 '애교 작 렬'은 '애교를 많이 부림'의 의미이다. 유행 어처럼 '작렬'을 붙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합한 표현은 아니다. 방송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예) 복고풍 허슬댄스 작렬, 능글 작 렬 며늘아~ 등	은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u>깨알</u> 같은 코믹연기까지- → <u>아기자기한</u> 코믹연기까지- '깨알 같다'는 것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 기자기한 맛이 있다'는 뜻이다. 일종의 은어이 다.	은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소녀시대 <u>싱크로율</u> 100% → 소녀시대 <u>일치도</u> 100% '싱크로율(synchro율)'은 '일치하는 정도', '정확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은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u>어이 상실</u> → <u>어이 없음</u>	은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어이가 없다' 라는 표현을 '어이 상실' 이라고 표현했다. '어이 없음' 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앗! <u>볼광</u> 댄스! → '볼광 댄스'는 출연자 봄이 자신의 얼굴에서 빛 이 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추는 춤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이러한 표현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성우	<u>감성돌</u> 2AM → '감성돌'은 '감성적인 아이돌'을 줄여 만든 은어이다. 성우의 말에 맞추어 '세계 여심을 흔 드는 <u>감성돌</u> 2AM'이라는 자막도 노출되었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2AM <u>폭풍</u> Wow →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은어인 '폭풍 00'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방 송에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여자보다 유연하다! <u>유연종결자!</u> → '종결자'는 가장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 이다. 방송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 적절하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이특	오늘 이 자리에서 걸 그룹 댄스의 <u>지존</u> 을 한 번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존'은 '가장 뛰어난 사람 혹은 최고'를 가 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남자 3명의 <u>골반 댄스</u> 대격돌! → '골반 댄스'는 엉덩이를 흔들며 추는 춤을 가리 키는 은어이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조혜련	사실 2AM은 조권 씨의 <u>깁권춤</u> 이잖아요. <u>깁</u> 을 한번 살 짝 보시겠어요? → '깁'은 깁죽거리는 모습을 가리키는 은어이며, '깁권춤'은 가수 조권이 깁죽거리며 추는 춤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조혜련의 발언과 함께 '2AM 의 대표 장기 깁권춤~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죠?' 라는 자막도 등장했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u>싱크로율</u> 100% GG & 박봄! → '싱크로율'은 '일치하는 정도' 를 가리키는 은 어이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자체발광 <u>조절정</u> 꽃미남 우리는 F4예요! → '자체발광'은 너무 잘생겨서 얼굴에서 저절로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은어이다. '조절정 꽃미남, F4' 역시 매우 잘생긴 남자를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조혜련	한국의 <u>베이비돌</u> 입니다. → '베이비돌'은 '베이비 아이돌'을 줄여 만든 은어이다. 자막으로는 '한국 대표 <u>깁찍</u> ~ <u>발랄</u> <u>베 이비돌</u> '이라고 표기하였다. '깁찍, 발랄'은 어 근이므로 문장 안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깁찍 발랄'은 '깁찍하고 발랄한'으로 수정해	은어/ 부적합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야 한다.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이런 봄의 <b>샐티</b> 발음인데... → ‘샐티’는 저급함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미국 <b>꿀 성대/크리스/노래</b> 부문 → ‘꿀 성대’는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작곡가 <b>방시혁 포스</b> 풍기는 신동 심사위원 → ‘포스’는 ‘분위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은어이다.	은어
SBS	한류 올림픽	배기환	다음은 강력한 <b>인팩트</b> 를 가진 F4의 <b>희당</b> 이민기! → ‘인팩트(impact)’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문맥상 ‘영향력’ 또는 ‘인상’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F4’와 ‘희당’은 각각 잘 생긴 네 명의 남자, 행동이 허술한 사람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은어/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ZE:A <b>광희</b> 는 특유의 <b>깡댄스</b> 로 승화 → ‘깡댄스’는 ‘방정맞은 춤’이라는 의미를 가진 은어이다.	은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이수근	개그계의 <b>짐승남</b> 이시죠 → ‘짐승남’은 은어로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현철	<b>가 이 스키야! 가 이스.</b> → ‘가 이 새끼야!’를 러시아어처럼 발음한 것이다. 이는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반말이며, ‘새끼’는 상대를 비하하여 일컫는 비속어이다.	비속어/ 반말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장영란	<b>뿡기는</b> 경우가 많다. → 여기서 ‘뿡기다’는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공연히 뿡짜를 놓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성 간에 호감이 있으면서 공연히 뿡짜를 놓는 것을 속되게 ‘뿡기다’고 한다.	비속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예능인의 <b>밥줄</b> 행사취소도 불사! → 밥줄은 ‘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비속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전원주	해가 <b>중천</b> 에 뒀는데 시에미 <b>밥은 맥어</b> 놓고 <b>자빠져</b> <b>자든지</b> 해야 될 거 아니야. → 시어머니께 밥을 차려 드리는 것을 ‘맥이다’라고 표현하고, 자는 것을 ‘자빠져 자다’라고 하는 것은 속되게 말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비속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전원주	<b>아유 꿀 때려.</b> → <b>아유 못 말려.</b> ‘꿀 때려다’는 ‘꿀치가 아플 만큼 엉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방송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속된 표현이다.	비속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전원주	해가 <b>중천</b> 에 뒀는데 <b>저렇게</b> 잠만 <b>괴 자고</b> 있으니. → 머느리가 <b>늦잠</b> 을 자는 모습을 보고 ‘ <b>괴 자고 있다</b> ’고 말했다. 이는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비속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속된 표현으로 부적절하다.	
SBS	한류 올림픽	자막	<b>우췌~내 차례야- 나와!</b> → ‘우췌’는 비속어이다. 방송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비속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b>비주얼만</b> 봐도 <b>최강</b> → <b>외모만</b> 봐도 <b>최강</b> ‘비주얼(visual)’은 ‘외모’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비주얼’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일 뿐만 아니라 ‘외모’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도 아니므로 ‘외모’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b>So cool/하이</b> <b>파이브</b> → ‘so cool’은 모두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자막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코미디 한·일전 <b>1Round/요절복통</b> <b>차력단 VS</b> <b>영화관</b> → ‘1Round’는 ‘1라운드/회전’으로 ‘VS’는 ‘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아사다 마오의 <b>트리플</b> <b>엑셀</b> <b>수퍼</b> <b>슬로우</b> → 일본 코미디언 마스야 키톤이 ‘아사다 마오의 트리플 엑셀 수퍼 슬로우로 감상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일본식 발음을 자막에 반영하여 적었다. ‘슬로우’는 ‘슬로’의 잘못이다. 그리고 일본인이 외국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더라도 자막에서는 ‘느린 그림’이라는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비표준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b>다이어트</b> <b>머신</b> → <b>다이어트 기계</b> 일본 코미디언 사카모토 마스히토와 쿠니히코 타카하시가 한 말을 그대로 자막으로 옮긴 것이다. ‘머신’은 ‘기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본인 출연자가 외국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자막에서는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b>베이스</b> <b>볼</b> → 일본 코미디언 카케나가 요시타카가 한 말을 그대로 자막으로 옮겼다. ‘베이스볼’은 ‘야구’로 순화해야 한다. 일본인이 외국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자막에서는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b>서포터</b> → <b>응원단</b> 일본 코미디언 카케나가 요시타카가 한 말을 그대로 자막으로 옮겼다. ‘서포터’는 ‘응원단’으로 순화해야 한다. 일본인이 외국어를 사용하였더라도 자막에서는 우리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b>반가워/화난</b> 새 게임. <b>Made in Finland/핀란드</b> → 외국인 출연자가 자신의 모국인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게임이 개그 소재로 사용되어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등장한 자막이다. 말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외래어· 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영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자막에서는 이를 영어로 바꾸었다. 영어 표현을 사용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도 잘못이다.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한국 개그맨 버전 당연한 체조 → 한국 개그맨 판 당연한 체조 '버전(version)'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판'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전현무	6라운드 단체 소품 배틀 대한민국 대표 김준현! → 6라운드 단체 소품 대결 대한민국 대표 김준현! '배틀(battle)' 은 '대결' 로 순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김준호 김재욱 김원효	텐, 나인, 에잇, 세븐, 식스, 파이브, 포, 스리, 투, 원 → 숫자를 영어로 세고 있다. '십, 구' 등과 같은 한국어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성우	입 벌리고 <u>와사비</u> → '와사비' 는 '고추냉이' 로 순화해야 한다. 자막에서는 '고추냉이' 로 썼다. 음성언어 사용도 주의할 기술포여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성우	<u>스마일</u> → 성우가 '스마일' 이라고 하자 자막에서도 '스마일' 이라고 표기하였다. '스마일(smile)'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미소, 웃음' 등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일본 선수들 어웨이 경기하느라 → 일본 선수들 원정 경기하느라 '어웨이(away)' 는 '원정'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전현무	반응에 관계없이 멘트를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 반응에 관계없이 할 말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외국어 '멘트' (ment)는 'announcement' 의 준말이다. 여기서는 우리말 '할 말' 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장영란	현영 씨와 비슷한 캐릭터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 '캐릭터' (character)는 '성격' 으로 고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장영란	현영 씨가 안 하는 페이가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것들 다 끊어서 제가 다 했어요 → 현영 씨가 출연료가 안 맞아서 못하는 그런 것들 다 끊어서 제가 다 했어요 외국어 '페이' (pay)는 '입금' 을 의미하는 'payment' 의 준말인데, 여기서는 '출연료' 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전현무	진짜 포인트를 잘 짚은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마이크 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가사가 무슨 애긴지 모르겠더라고요 → 진짜 포인트를 잘 짚은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외국어 '포인트(point)' 는 우리말 '핵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십' 으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현영	브이씨알로 공개해드릴게요 → <u>영상</u> 으로 공개해드릴게요 '브이씨알(VCR)' 은 우리말 '영상' 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이철용	대한민국 누나들의 로망 국민 남동생 이승기 → 최근 '로망' 은 '이상향' , '동경의 대상'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로망' 은 'romance' 라는 외국어로부터 유래되었는데, 'romance' 에는 '연애' 혹은 '연애담' 등의 의미만 있지 위와 같은 '이상향, 동경의 대상' 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망' 은 근거 없는 외국어 표현이므로 '동경의 대상' 으로 고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자막	윤신애 VS 현철 / 경연 <u>ROUND1</u> → 윤신애 <u>대</u> 현철 / <u>1회전</u> 'VS' 는 외국어 'versus' 의 약자인데 우리말 '대' 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 → 'ROUND1' 도 로마자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1회전' 이라고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자막	WOW!!! → 외국어 'WOW' 는 환호하는 소리를 담아낸 표현인데,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한글 표기 '우와' 정도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맑은 풀 스타 총출동	자막	<u>대실망</u> → '대실망' 혹은 '큰 실망' 으로 표현해도 충분하한데 굳이 한자어 '大' 를 한글과 혼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상추	아 사실 제가 이 방송 아나운서 대격돌에 행사를 캔슬하고 온 건데 어우 정말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 아 사실 제가 이 방송 아나운서 대격돌에 행사를 취소하고 온 건데... '캔슬(cancel)' 은 '취소' 로 순화할 수 있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초롱	<u>어텐션</u> . → <u>주목</u> . '어텐션(attention)' 은 '주목하다' 라는 뜻의 외국어이다. 우리말로 바꾸어 써도 의미의 손실이 없으므로 우리말로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상추	다산 Come on~ Don't be shy~ → '킴온(come on)' , '돈 비 샤이(Don't be shy)' 는 불필요한 외국어 문장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는 생략해도 무방한 문장이지만 '이리와' ,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등의 우리말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상추가 이와 같이 말하자 로마자로 표기한 자막을 달았다. 이는 부적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절하다.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현철	마우스 대 마우스 벌으로. → 인공호흡법으로 '마우스(mouth) 대 마우스' 는 '입 대 입' 이라는 의미인데 '인공호흡법' 을 달리 말한 것이다. 방송 중에 수차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oh~ yeah~ baby →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였으며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머느릿감 후보 강다솜 코치 김현철 VS 머느릿감 후보 이진 코치 김완태 → 머느릿감 후보 강다솜 코치 김현철 대 머느릿감 후보 이진 코치 김완태 'VS' 는 'versus' 의 줄임말인데 그대로 로마자로 쓰고 있다. '대(對)' 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방송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예라고 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평가는 Pass!! → 평가는 통과!! 'Pass' 는 '통과' 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생날것들의 향연~ → 날것들의 향연~ '生' 은 불필요한 한자 표기 자막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낫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두루미와 거북이 No! 거북이와 두루미 Yes! → 두루미와 거북이가 아니라 거북이와 두루미! 'No' , 'Yes' 라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로마자로 표기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해피엔딩~ → 해피엔드 '소셜, 연극, 영화 따위에서 결말을 행복하게 끝맺는 일' 을 뜻하는 외래어는 '해피엔드' 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결국... 심판과 Mouth to Mouth → 결국... 심판과 일맞출 김현철이 '마우스 대 마우스' 라고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자 자막에서는 그것을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자막	역대 최고의 스케일! → 역대 최대의 규모! 외국어 '스케일' (scale)은 우리말 '규모' 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규모(스케일)' 를 수식하는 말로 '최고' 는 부적절하다. '가장 큰 규모' 라는 의미라면 '최대 규모' 라고 해야 한다. 같은 표현이 자막으로도 노출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부적합 표현
MBC	아이돌스타 육상 선수권대회	자막	열정적인 퍼포먼스 → 열정적인 공연 외국어 '퍼포먼스' (performance)는 우리말 '공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연' 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BS	한류 올림픽	자막	글로벌 커버 페스티벌 그 화려한 막이 지금 열립니다! → '글로벌 커버 페스티벌'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세계적인 닻은 팔 축제'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글로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MC들의 스페셜 무대 → 세계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MC들의 특별 무대 '글로벌(global)', '스페셜(special)' 은 '세계적인', '특별한'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이특	와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와우' 는 외국어 감탄사이다. 따라서 우리말 감탄사로 순화하는 것이 좋다. 자막에서는 이를 외국어 문자로 'Wow' 로 표기하기도 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최기환	노래 안에 개인기도 들어있고, 외모도 들어있고, 댄스도 들어있거든요. → 노래 안에 개인기도 들어있고, 외모도 들어있고, 춤도 들어있거든요. '댄스(dance)' 는 '춤' 으로 순화하는 것이 낫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붐	레츠 고! → '레츠 고(Let's go)' 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진행자가 외친 외국어 표현이다. '시작합니다' 또는 '출발' 정도의 우리말 표현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Wow Rush! → 연속 와우! 영어 표현을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작은 몸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댄스 → 작은 몸에서 나오는 힘이 넘치는 춤/박력 있는 춤 '파워풀(powerful)' 과 '댄스(dance)'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파워풀한 댄스' 는 '힘이 넘치는 춤/박력 있는 춤' 정도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방송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so happy~ → 행복해요~ 불필요한 영어 표현을 사용하였고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행복해요' 정도로 순화하거나 생략하는 것이 낫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붐	그러면 저희가 심사위원단 여러분들을 심사를 위해서 나오셨지만 그래도 배틀 느낌도 있거든요. → ... 그래도 대결 느낌도 있거든요. '배틀(battle)'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대결' 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크리스쿠의 무대로 START! → 크리스쿠의 무대 시작!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START’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시작’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로마자를 사용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자신감 넘치는 파워풀 댄스!/Power → ‘파워풀 댄스, 파워’ 모두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로마자를 사용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힘찬 춤, 힘’ 으로 순화 가능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마무리까지 Perfect~ 어색한 2AM → 마무리까지 완벽~ 어색한 2AM ‘Perfect’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이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 역시 잘못이다. ‘완벽’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LIVE 무대입니다 → 생방송 무대입니다. ‘LIVE’ 는 ‘생방송’ 으로 순화할 수 있다. 혹시 외래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라이브’ 라고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어 놓은 GD & 박명수! → ‘&’ 은 조사 ‘와’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방송에서 ‘&’ 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정주리	진짜 같이 코너 하자고 할 뻔 했어요. → 진짜 같이 개그 한 쪽지 하자고 할 뻔 했어요 ‘코너(corner)’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여기서 ‘코너’ 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은 프로그램’ 정도의 의미인데 이는 ‘쪽지’ 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봄	헤어도 완벽히 하셨고……. → 머리도 완벽히 손질하셨고……. ‘헤어(hair)’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여기에서는 문맥상 ‘머리 손질’ 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언빌리버블~/한국스타를 닮은 외국인 이 있다?! → ‘언빌리버블( unbelievable)’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믿을 수 없다/놀랍다’ 로 순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미국 천정명과 팜프파탈 정주리 해피엔딩 → ‘팜프파탈, 해피엔딩’ 은 모두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팜프파탈’ 은 ‘팜파탈’ 로 써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파워풀한 댄스로 여심을 뒤흔드는 비주얼 김현중! → 힘 있는 춤으로 여심을 뒤흔드는 멋진 외모의 김현중! ‘파워풀한 댄스, 비주얼’ 은 모두 우리말로 순화 가능하다. ‘힘 있는 춤, 멋진 외모의’ 와 같이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빛나는 꽃미남 4인방의 여심 공략 세리머니 → 출연자들이 심사위원 앞을 걸어 다니며 자신들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을 ‘세리머니’ 라고 표현하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다. ‘세리머니’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일 뿐만 아니라 문맥과도 맞지 않는 표현이다.	부적합 표현
SBS	한류 올림픽	봄 조혜련	조혜련 : 벗겠습니다. 봄 : 오븐, 알겠습니다. 조혜련 : 오븐하겠습니다. → 선글라스를 벗는 것을 ‘오픈(open)’ 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조혜련	한국 대표 리틀 조인성 썸니다! → ‘리틀(little)’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문맥상 ‘어린’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中 →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중 굳이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결혼하고 싶은 男子 신동~ → 결혼하고 싶은 남자 신동~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최기환	첫 번째 참가자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보이스에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 첫 번째 참가자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에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보이스(voice)’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목소리’ 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이특	소울이 있어요. → 음악 장르 중 하나인 ‘소울(soul)’ 과 같은 느낌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이다.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소울 느낌이 물씬 나요.’ 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막으로도 ‘노래에 Soul이 있다!’ 와 같이 쓰고 있다. 단어 선택도 잘못되었고, 로마자로 표기한 것도 문제가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부적합 표현
SBS	한류 올림픽	최기환	크리스티나 씨가 지하철 분당선 있잖아요? 안내 목소리 그 멘트를 이 분 목소리로 녹음을 했습니다. → ‘멘트’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안내 멘트’ 는 문맥상 ‘안내 문구’ 으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막으로도 ‘얼마 전/지하철 분당선 영이 안내 멘트 녹음’ 이라고 쓰고 있는데, 발화상 실수는 자막으로 수정해 주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Oh~ → 외국어 감탄사를 외국어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정말 리얼한 상황입니다! → 실제 상황입니다! ‘리얼(real)한’ 은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정말 리얼한 상황’ 은 ‘실제 상황’ 으로 순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신동	사실 포인트 동작만 맞했는데 이 친구가 노래를 한번 들구 그 비트를 다 기억하고 춘다는 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 사실 핵심 동작만 맞했는데…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포인트(point)’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포인트 동작’ 은 ‘핵심 동작’ 으로 순화할 수 있다. ‘포인트’ 는 방송 중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로마자로 표기한 자막도 노출되었다. 예) 마무리/김연아 연기의 <u>Point</u> 습찬 연기	
SBS	한류 올림픽	자막	BRAVO! → 브라보! 한국어 감탄사로 바꾸는 것이 좋다. 그대로 쓰고 싶다면 로마자를 사용하지 말고 ‘브라보’ 로 표기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혹시 험션가이? → 혹시 잘생긴 남자? ‘험션가이(handsome guy)’ 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이다. ‘잘생긴 남자’ 로 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완벽한 아크로바틱 퍼포먼스까지~ → ‘아크로바틱 퍼포먼스’ 는 이해가 어려운 외국어이다. ‘곡예 시범’, ‘곡예 공연’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노하우를 전수 받는 계정 → 비법을 전수 받는 계정 ‘노하우(know-how)’ 는 ‘비법, 비결’ 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special stage →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특별 무대 ‘special stage’ 는 ‘특별 무대’ 로 순화할 수 있다. 또한 로마자 표기한 것이 부적절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문회준	굉장히 정말 다이내믹하고 → 굉장히 정말 역동적이고 ‘다이내믹(dynamic)하다’ 는 ‘역동적이다’ 로 순화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가슴 웨이브 Let's go →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용되었다.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Let's Dance →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용되었다.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장윤정	시크커플입니다. → ‘시크’ 는 프랑스어 ‘chic’ 로 이해가 어려운 외국어이다. ‘멋진’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구준엽의 디제일에 맞춰 → 이해가 어려운 외국어가 사용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계대로 feel 받은 2AM 진운 → ‘feel 받다’ 는 불필요한 외국어이고, 로마자로 표기되었다. ‘신난’ 혹은 ‘흥이 오른’ 정도로 고칠 수 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엘레강스~ 판타스틱한 무대! → 우아하고 환상적인 무대! ‘엘레강스(elegance), 판타스틱(fantastic)’ 은 모두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우리말로 고쳐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초공정 마인드 수치 → 아주 긍정적인 수치 접두사 ‘초’ 는 ‘공정’ 과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마인드(mind)’ 는 불필요한 외국어이다. ‘아주 긍정적인 수치’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부적합 표현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So cool~ 재밌으니가 됐죠 뭐~ →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용되었다.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순식간에 옷몸바다를 만든 지나의 오리지널 사운드! → 옷몸이 유발되는 상황에 맞추어 ‘지나의 원어민 발음’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Wow~ 잘한다 → ‘wow’ 는 영어식 감탄사이다. 불필요한 로마자 표기가 사용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So hot~ So sexy~ So incredible!! →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용되었고,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Fantastic → 환상적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용되었고,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자막	선배들의 히트곡을 재조명한 트리뷰트 무대! → 선배들의 히트곡을 재조명한 헌정 무대! ‘트리뷰트(tribute)’ 는 ‘헌정’ 으로 순화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다.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이봉원	아, 일본 코미디, 한국 코미디, 아무래도 문화적 차이도 상당히 심하지만, 일단 말이 틀려요. → ... 일단 말이 달라요. 한국 코미디와 일본 코미디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므로 ‘틀려요’ 가 아니라 ‘달라요’ 라고 말해야 한다.	비표준어
KBS2	코미디 한일전	자막	크크/두번재 턴 → 의성어를 자음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비표준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현철	러시아 블라드보스트크와 하바롭스크 인근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 가운데 날씨가 추워 보드카를 석 잔 이상 조금 찍어 먹어서 코끝이 빨개져 있는 코카서스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 ‘블라드보스트크’ 와 ‘하바롭스크’ 라는 지명을 ‘블라드보스트크’, ‘하바롭스크’ 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 문장 자체도 어색하다.	비표준어
MBC	아나운서	상추	정말 전문 댄서적인 이 분 정말 전문 댄서가 아닐까	비표준어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대격돌		싫을 정도의 춤 실력을 보여줬고 또 표정도 굉장히 좋았어요. → 정말 전문 댄서 같은/ 무용수 같은 이 분 정말 전문 댄서가 아닐까 싫을 정도의 외래어 '댄서(dancer)' 와 접미사 '-적(的)' 은 어울리지 않는다.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용만	머느릿감이 아니라 <u>아냇감</u> 이죠. → 머느릿감이 아니라 <u>신붓감</u> 이죠. '신붓감' 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이고 '아냇감' 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말이다. 널리 쓰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비표준어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자막	여러분도 함께 <u>맞춰보세요</u> → 여러분도 함께 <u>맞혀보세요</u> 정답이 무엇인지 맞춰 보라는 것이므로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라는 뜻을 가지는 '맞다' 의 사동사 '맞히다' 를 써야 한다.	비표준어
SBS	한류 올림픽	자막	(배영만)맞다고요~크크 → 의성어를 자음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표준어
SBS	한류 올림픽	창민	나 <u>애</u> 테꾸가면 안 돼요? → 일반인 출연자를 '애' 라고 반말로 가리키고 있다. 방송에서 출연자를 반말로 지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테꾸가면' 은 비표준어이다. '테리고 가면' 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표준어 /부적합 표현
KBS2	코미디 한일전	전현무	김병만이 썼어요. → 김병만 씨가 썼어요. 진행자가 출연자를 존대하여 이르지 않고 이름으로만 칭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름에 '씨' 를 붙여야 한다. 또한 이 출연자가 진행자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진행자는 표현에 주의했어야 한다.	부적합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장영란	<u>성결달</u> . 성공한 결혼의 달인으로서 저처럼만 한다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구요. → 무엇이든 줄여서 말하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장영란 씨가 스스로를 '성결달' 이라고 칭하자 방송 내내 장영란 씨를 '성결달' 로 칭했다. 예) 이것이 바로 성·결·달 궁극의 귀여움.	부적합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이진	<u>다솜이</u> 언제 이겼나 싶네요. → <u>강다솜</u> 씨 언제 이겼나 싶네요. 이진 아나운서가 후배 아나운서인 강다솜 아나운서를 '다솜이' 라고 칭했다. 프로그램 성격과 분위기 상, 후배라 하더라도 예의를 지켜 '강다솜 씨'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부적합 표현
MBC	아나운서 대격돌	김현철	<u>위에다 그냥 없어. 그냥 없어.</u> → 김초롱 아나운서에게 반말을 하고 있다. 방송 중에는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게다가 김현철 씨와 김초롱 씨는 친밀한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적합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발화자	내 용	유 형
SBS	한류 올림픽	자막	감동×100/고마워~ → '×100' 은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국어 문장과 기호를 이러한 기호를 섞어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감동 백 배' 로 수정할 수 있다.	부적합 표현
SBS	한류 올림픽	봄	요 친구가 뒤에 붙래 와서 "제 꿈이 카순데 우리 그 미스에이 누나들과 함께 합동무대 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 미스에이 언니들과 함께 합동무대 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아이가 한 말을 남성인 봄이 직접 인용한 것이므로 '누나들' 이 아니라 '언니들' 로 써야 한다.	부적합 표현
SBS	한류 올림픽	자막	혁혁~ <u>숨찬 연아 김!</u> → 혁혁~ <u>숨찬 김연아 선수!</u> 외국인들이 김연아 선수를 부를 때는 '연아 김' 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연아 선수를 '연아 김' 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다. '김연아 선수'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SBS	스타커플 최강전	장윤정	<u>좋아요? MC로서 진단을 해야 아니까</u> → 이 부분은 여자 진행자가 남자 출연자의 가슴 근육을 만지면서 한 말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의 언행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부적합 표현

연구 책임자: 남영신(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공동 연구원: 장소원(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손범규(SBS 아나운서)  
김소원(SBS 아나운서)  
보조 연구원: 한정희(국어문화운동본부 문장사, 석사)  
구혜영(국어문화운동본부 문장사, 학사)  
장경자(국어문화운동본부 문장사, 학사)  
김혜영(홍익대학교 강사, 석사)  
김주상(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석사)  
이수연(인하대학교 강사, 석사)  
성은실(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석사)  
담당 연구사: 황용주(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

**발행인** 권재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1년 11월 16일  
**발행일** 2011년 11월 16일  
**인쇄** 범일기획